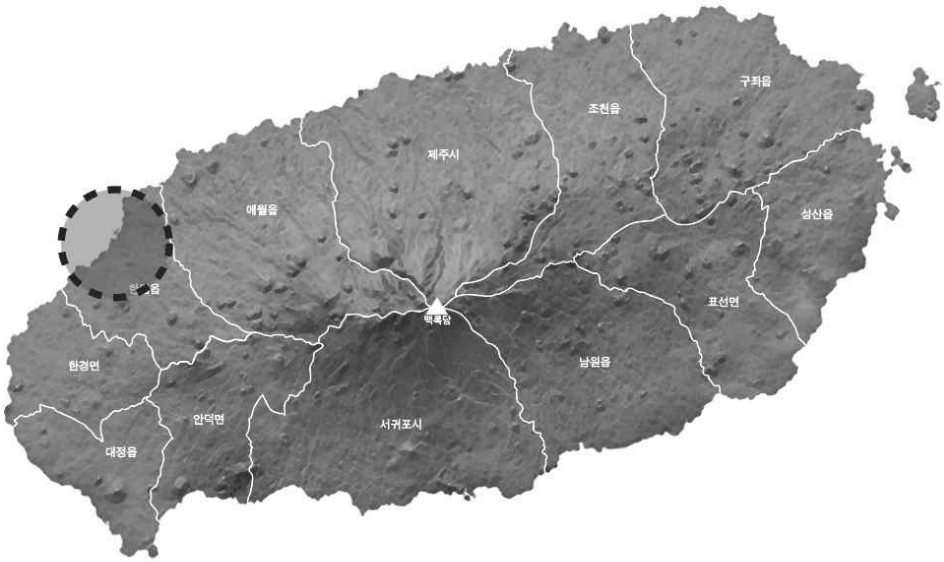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62-01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7
-한림읍 옹포리

구술: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신우봉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6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48
3. 밭일 ····· 76
4. 들일 ····· 148
5. 바다일 ····· 180
6. 의생활 ····· 220
7. 식생활 ····· 245
8. 주생활 ····· 322
9. 신앙 ····· 340
10. 세시풍속 ····· 345
11. 놀이 ····· 357
12. 통과의례 ····· 373
13. 민간요법 ····· 398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408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25일~2019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5. 사업 추진 과정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 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8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신촌리' 구술 자료가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신우봉, #1: 장경욱, #2: 양순자 #3: 장정자, #4: 김화원)

1. 조사 마을

101001 @ 옹포리[1]에서 태어낫지예?(옹포리에서 태어났지요?)

101001 #1 예.(예.)

101001 @ 그면 옹포리 그 어떻게 생겨낫인지 혹시 알아마씨?(그러면 옹포리 그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알아요?)

101001 #1 뭐 그 자세한 유래는 잘 모르지만서도.(뭐 그 자세한 유래는 잘 모르지만서도.)

101001 @ 예.(예.)

101001 #1 옹포리가 그 이 해안선에 인접혜 잇는 마을로써 항구가 아주 저기 배가 드나들기 좋은 곳이라고 헤서 그 옹포리라는 그런 그 마을 칭호를 인제 쓴 걸로 알고 잇습니다.(옹포리가 그 이 해안선에 인접해 있는 마을로써 항구가 아주 저기 배가 드나들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그 옹포리라는 그런 그 마을 칭호를 인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001 @ 예.(예.)

101001 #1 옛날엔 여기 그 수군만호라고 해서 명월성 싯는 데서 그 이 지역을 이 지역의 발상이 한림읍 명월리[2]가 한림읍 명월리가 이 한림읍의 발상지인디 이 수군만호라는 그런 인제 이 통치허는 사람이 여기 잇어 가지고, 이쪽에 마대기빌레[3]라고 헤서 여기 마를 대기시켯다가 옹포포구로 헤서 그 뭐 청나라로 진상하고 이렇게 헌 걸로 지금 알고 잇어 가지고.(옛날에는 여기 그 수군만호라고 해서 명월성 있는 데서 그 이 지역을 이 지역의 발상이 한림읍 명월리가 한림읍 명월리가 이 한림읍의 발상지인데 이 수군만호라는 그런 인제 이 통치하는 사람이 여기 잇어 가지고, 이쪽에 '마대기빌레'가고 해서 여기 마를 대기시켰다가 옹포포구로 해서 그 뭐 청나라로 진상하고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잇어 가지고.)

101001 #1 옹포리 유래는 이 해안선에서 이제 바로 인접혜 잇어 가지고.(옹포리 유래는 이 해안선에서 이제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

1) 옹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2) 명월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3) '마대기빌레(馬待機빌레)'는 진상(進上) 말이나 공마(公馬)들을 각지의 방목장에서 징발하여 집결하고 반출될 때까지 대기했다는데서 유래된다.

101001 @ 예.(예.)
101001 #1 포구가 좋다고 헤 가지고 그.(포구가 좋다고 해 가지고.)
101001 @ 그럼 옹포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마씨?(그럼 옹포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101001 #1 옹포리는 뭐 한림읍 관내에서 한림[4]에서 시작헤 가지고 이 쪽 옹포 다리를 기점으로 헤 가지고 협재[5]가기 직전 그 중간 바다 그 가운데를 경계헤 가지고 옹포리가 이제 잇는 마을이라.(옹포리는 뭐 한림읍 관내에서 한림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 쪽 옹포 다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협재가기 직전 그 중간 바다 그 가운데를 경계해 가지고 옹포리가 이제 있는 마을이야.)
101001 @ 그면 옆이, 옆이 마을은 뭐 뭐 잇어마씨?(그러면 옆에, 옆에 마을은 뭐 뭐 있어요?)
101001 #1 이제 한림리 한림리가 싯곡, 한림리에서 옆인 저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협재리 이 우쪽으로는 뭐 동명, 명월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성뒈어 잇는 마을이주.(이제 한림리 한림리가 있고, 한림리에서 옆에는 저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협재리 이 위쪽으로는 뭐 동명, 명월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지.)
101001 @ 아, 기구나예. 그면 옹포리는 사람들 몇 명 정도 살아마씨? 대충?(아, 그렇군요. 그러면 옹포리는 사람들 몇 명 정도 살아요? 대충?)
101001 #1 뭐 헌 이천오백 명 정도 여기 살지 않암신가.(뭐 한 이천오백 명 정도 여기 살지 않고 있는가.)
101001 @ 어르신 어렷을 때는 몇 명 살앗수광?(어르신 어렸을 때는 몇 명 살았습니까?)
101001 #1 그게 뭐 헌 천 명 미만이엇겟지 그 때는.(그게 뭐 한 천명 미만이었겠지 그 때는.)
101001 @ 아.(아.)
101001 #1 뭐 경 사람도 많이 살지를 않앗고 그 후에 뭐 이 조금 발달 돼가지고 이쪽에 뭐 아파트도 짓고 뭐허고 헤 가지고 여기가 마을이 증가헤 가지고 사백 한 오백 세대?(뭐 그렇게 사람도 많이 살지를 않았고 그 후에 뭐 이 조금 발달 돼가지고 이쪽에 뭐 아파트도 짓고 뭐하고 해 가지고 여기가 마을이 증가해 가지고 사백 한 오백 세대?)
101001 @ 예.(예.)
101001 #1 오백 세대에서 한 삼천 명 가까이 살지 않헴신가.(오백 세대에서 한 삼천 명 가까이 살지 않고 있는가.)
101002 @ 그면 마을은 예전에는 주로 그 성은 무슨 성씨가 많안마씨?(그러면 마을은 예전에는 주로 그 성은 무슨 성씨가 많았어요?)
101002 #1 어?(어?)
101002 @ 그 성마씨. 제주도 원래 고양부가 많은디.(그 성이요. 제주도는 원래 고양

4) '한림'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를 의미한다.
5) '협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를 의미한다.

부가 많은데.)
101002 #1 여기는 아무래도 김씨, 고씨, 뭐 박씨, 장씨 뭐.(여기는 아무래도 김씨, 고씨, 뭐 박시, 장씨 뭐.)
101002 @ 예.(예.)
101002 #1 성은 좀 다양허게이 다양허게 산 걸로 알아.(성은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산 걸로 알아.)
101002 @ 예.(예.)
101002 #1 부씨도 조금 살앗고 부씨는 이제는 옹포엔 엇고 성은 다양허게 김이박이 많이 살고 잇는 걸로 알고.(부씨도 조금 살았고 부씨는 이제는 옹포에는 없고 성은 다양하게 김이박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101002 @1 그럼 어르신은 언제 때부터 집안이 여기서 살안마씨?(그럼 어르신은 언제 때부터 집안이 여기서 살았어요?)
101002 #1 뭐 나는 인제 일대 아버지부터 여기와 가지고 협재에서 살당 이주헤 가지고 옹포에 와서 내가 옹포에서 태어낭 지금까지 옹포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살앗지.(뭐 나는 인제 일대 아버지부터 여기와 가지고 협재에서 살다가 이주해 가지고 옹포에 와서 내가 옹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옹포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살았지.)
101002 @ 아, 기구나 예.(아, 그렇군요. 예.)
101002 #1 어.(어.)
101002 @ 그면 어르신 장씨잖아예?(그러면 어르신 장씨잖아요?)
101002 #1 어, 장씨주.(어. 장씨이지.)
101002 @ 그럼 장씨는 여기 옹포리에 많이 살아마씨?(그럼 장씨는 여기 옹포리에 많이 살아요?)
101002 #1 장씨는 헌 십 가구 헌 열 가구 정도 뒈주게.(장씨는 한 십 가구 한 열 가구 정도 돼지.)
101003 @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허멍 살안마씨?(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하면서 살았어요?)
101003 #1 뭐 반농반어라고 헤 가지고.(뭐 반농반어라고 해 가지고.)
101003 @ 예.(예.)
101003 #1 인제 여기는 땅이 옹포리는 땅이 척박헤 가지고.(인제 여기는 땅이 옹포리는 땅이 척박해 가지고.)
101003 @ 예.(예.)
101003 #1 그 돌 암반이 많은 곳이라부난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주게.(그 돌 암반이 많은 곳이라서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지.)
101003 @ 예.(예.)
101003 #1 그면 이제 반농도 허곡 반어라고 헤그넹 반은 바다에 나강 생선이나 이렇게 말이지 낚아그넹 먹고 살곡 허다가 뭐 내가 어렷을 때 곧 얼마 안 됏을 때는 옹포가

살기 어려워가지고 옹포 사람들이 그 저 일본으로 밀항을 많이 허곤 헷어.(그러면 이제 반농도 하고 반어라고 해서 반은 바다에 나가서 생선이나 이렇게 말이지 낚아서 먹고 살고 하다가 뭐 내가 어렸을 때 곧 얼마 안 됐을 때는 옹포가 살기 어려워가지고 옹포 사람들이 그 저 일본으로 밀항을 많이 하고는 했어.)

101003 @ 음 기구나 예.(음 그렇군요 예.)

101003 #1 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101003 @ 살기가 힘들어서.(살기가 힘들어서.)

101003 #1 어.(어.)

101003 #1 그래 가지고 일본 가서 밀항헤 간 사람들이 옹포 사람들이 많이 성공도 헷고.(그래 가지고 일본 가서 밀항해 간 사람들이 옹포 사람들이 많이 성공도 했고.)

101003 @ 예.(예.)

101003 #1 그 여파로 내가 한 한 사십 삼사십 때는 그 일본에 우리 고향 사람들 인연으로 헤 가지고 초청헤 가지고 일본 가 가지고 강 많은 돈도 벌어 오곡 이렇게 헤그넹 여기 마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살아가게 뒈엇거든.(그 여파로 내가 한 한 사십 삼사십 때는 그 일본에 우리 고향 사람들 인연으로 해 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일본 가 가지고 가서 많은 돈도 벌어 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을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살아가게 되었거든.)

101003 @ 그 맞아 그럼 여기 물질은 안 헨마씨?(그 맞아 그럼 여기 물질은 안 했어요?)

101003 #1 아 물질도 해녀들은 물질허멍 살앗주게.(아 물질도 해녀들은 물질하면서 살았지.)

101003 @ 예.(예.)

101003 #1 여자들은 뭐 그 때는 학교를 여기도 저 뭐 중학교 가기까지도 힘들엉 여자들은 벨로 중학교 나온 여자들도 몇 사람 엇엇고 전부 다.(여자들은 뭐 그 때는 학교를 여기도 저 뭐 중학교 가기까지도 힘들어서 여자들은 별로 중학교 나온 여자들도 몇 사람 없었고 전부 다.)

101003 @ 네.(네.)

101003 #1 살기가 어렵고 허난 물질 바당에 들어가그넹 물질헤그넹 말이여 거기서 나온 소라, 전복 뭐 이런 그 해산물로 이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상황이엇고.(살기거 어렵고 하니까 물질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해서 말이여 거기서 나온 소라, 전복 뭐 이런 그 해산물로 이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101003 #1 남자들도 뭐 크게 말헹 일헐 것도 엇고 그러니까.(남자들은 뭐 크게 말해서 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이제 그 주로 말이여 그 부인들도 돕고 말이지 뭐 밧일도 조금 허곡 허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아까 이야기 헷듯이 그 제일교포 초청 같은 걸로 헤 가지고 일본 다녀오면서 조금 여기 문화가 발달뒈고 그 가정적인 것도 일본식으로 많이 그 계량도

뒈고 헤 가지고 살기가 좋아진 지금은 아주 뭐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지만 문화마을이주 여기도.(이제 그 주로 말이여 그 부인들도 돕고 말이지 뭐 밭일도 조금 하고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제일교포 초청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일본 다녀오면서 조금 여기 문화가 발달되고 그 가정적인 것도 일본식으로 많이 그 계량도 되고 해 가지고 살기가 좋아진 지금은 아주 뭐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지만 문화마을이지 여기도.)

101003 @ 요즘에는 그면 관광 좀 많이 뭠수광?(요즘에는 그러면 관광 좀 많이 되십니까?)

101003 #1 관광은 벨로 여기는 관광지는 엇이난 협재가 주로 한림공원이라던가 협재해수욕장이라던가 이런 데도 잇곡 이 우에는 뭐 분재예술원이라던가 이런 한림읍에는 특별한 그런 관광지가 벨로 엇고 비양도라는 조금 그 섬이 잇어그넹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그자 섬 나들이 이렇게 관광도 가곡 주변으로는 협재해수욕장 뭐 한림공원 분재예술원 등 이런 관광지고 잇어 가지고 다니는 실정이주게.(관광은 별로 여기는 관광지는 없으니까 협재가 주로 한림공원이라던가 협재해수욕장이라던가 이런 데도 있고 이 위에는 뭐 분재예술원이라던가 이런 한림읍에는 특별한 그런 관광지가 별로 없고 비양도라는 조금 그 섬이 있어서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그자 섬 나들이 이렇게 관광도 가고 주변으로는 협재해수욕장 뭐 한림공원 분재예술원 등 이런 관광지고 있어 가지고 다니는 실정이지.)

101003 @ 여기는 근데 재일교포가 많이 기부혯수광?(여기는 근데 제일교포가 많이 기부했습니까?)

101003 #1 어게. 그 이것도 이거 이 마을훼관도이.(어. 그 이것도 이거 이 마을회관도.)

101003 @ 네.(네.)

101003 #1 나가 이장 당시에 이 제일교포들의 성금에 의혜 가지고 이걸 지엇주게. 예전이 내가.(내가 이장 당시에 이 제일교포들의 성금에 의해 가지고 이걸 지었지. 예전에 내가.)

101003 #1 나가 새마을지도자도 헷고 그 내가 새마을훈장 협동장도 전두환 대통령안티 좀 타고 그렛는데 그 때 그 새마을운동 초기에 이 땅이 아주 완전히 어린애가 죽으민 여기 와서 묻어그넹 말이지 여기가 완전 쓸모엇인 땅인데.(내가 새마을지도자도 했고 그 내가 새마을훈장 협동장도 전두환 대통령한테 좀 타고 그랬는데 그 때 그 새마을운동 초기에 이 땅이 아주 완전히 어린애가 죽으면 여기 와서 묻어서 말이지 여기가 완전 쓸모없는 땅인데.)

101003 @ 네.(네.)

101003 #1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뒈그넹 여기 잇인 어린이들 그 골충이라고 허여 그 뭐 어린애들 그 유골 같은 거 전부 다 캐내 가지고.(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서 여기 있는 어린이들 그 고총이라고 해 그 뭐 어린애들 그 유골 같은 거 전부 다 캐내 가지고.)

101003 @ 골충마씨?(고총이요?)
101003 #1 골충이라고 헹 사람이 묻어 가지고 관리 안 허는 산[6]을 골충이라고 허거든.(고총이라고 해서 사람이 묻어 가지고 관리 안 하는 무덤을 고충이라고 하거든.)
101003 @ 아.(아.)
101003 #1 ᄋᆞ 골충.(어 고충.)
101003 @ 예.(예.)
101003 #1 골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수거헤 가지고.(고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수거해 가지고.)
101003 @ 네.(너.)
101003 #1 우리 옹포 마을에 잇인 객기리오름에 그 공동 마을 공동묘지가 잇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헌 백여 구 이상 이장도 헤 가지고 여기를 새마을운동으로 정리헤 가지고 인제 정부의 조금 도움도 받고 헤그넹 조금 재일교포의 힘을 얻어가그넹 이 층 새마을훼관을 건립헤 가지고 이제 이게 시초가 뒈 가지고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역대 이장들이 오면서 이 복지훼관도 건설허곡 허영.(우리 옹포 마을에 있는 '객기리오름'에 그 공동 마을 공동묘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한 백여 구 이상 이장도 해 가지고 여기를 새마을운동으로 정리해 가지고 인제 정부의 조금 도움도 받고 해서 조금 재일교포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층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이제 이게 시초가 돼 가지고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역대 이장들이 오면서 이 복지회관도 건설하고 해서.)
101003 @ 네.(네.)
101003 #1 뭐 무슨 저온저장고도 건설허고 뭐 저기 노인당에 삼층 건물도 건설허고 해서 이제 지금 이 땅이 한 한 사오천 평 가까이 뒈는 땅에 이런 큰 시설들이 들어서곡 마을당으로서 이렇게 말이야 갖고 잇인 거는 아마 제주도에서 벨로 큰.(뭐 무슨 저온저장고도 건설하고 뭐 저기 노인당에 삼층 건물도 건설하고 해서 이제 지금 이 땅이 한 한 사오천 평 가까기 되는 땅에 이런 큰 시설들이 들어서고 마을당으로서 이렇게 말이야 갖고 있는 거는 아마 제주도에서 별로 큰.)
101003 @ 네.(네.)
101003 #1 뭐 열군데 안에 들 거야.(뭐 열군데 안에 들 거야.)
101003 @ 그럼 저건 창고는 그때 같이 지은 거마씨?(그럼 저건 창고는 그때 같이 지은 거예요?)
101003 #1 아니 그 창고 ᄀᆞ튼 거는 저 저온저장고거든.(아니 그 창고 같은 거는 저 저온저장고거든.)
101003 @ 네.(네.)
101003 #1 그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삼동인데 그거는 마을에서 운영헤 가지고 그 뭐 무슨 뭐 감자라던가 뭐 무슨 양파 마늘 무슨 브로콜리 이런 각종 말이여 농산물들 뭐 이렇게 저장허는 그런 걸로 사용허고 잇고.(그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삼동인데 그거는 마

6) 제주어에서 '산'은 표준어로 '산(山)' 혹은 '뫼(墓)'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뫼(墓)'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을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 뭐 무슨 뭐 감자라던가 뭐 무슨 양파 마늘 무슨 브로콜리 이런 각종 말이야 농산물들 뭐 이렇게 저정하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고.)

101003 @ 예.(예.)

101003 #1 그 웨에 복지훼관 ᄀᆞ튼 것도 이제 옛날인 창고엿는데 그 저 리모델링헤 가지고 전부 다 그 헤 가지고 한 손님들 이백 명 이상 한꺼번에 식사도 허곡 거기서 경조사 뭐 이제 이렇게 치를 수 잇인 잔치도 거기서 할 수 잇곡, 사람이 돌아가시면 저쪽에 그 위에도 노는 그런 말이야 냉동고도 다 설치뒈 가지고 아마 이 부락 이 한림에서는 이만한 그런 마을이 벨로 그렇게 시설 갖춰 잇인 디가 엇인 걸로 알고 잇어.(그 외에 복지회관 같은 것도 이제 옛날에는 창고였는데 그 저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부 다 그 해 가지고 한 손님들 이백 명 이상 한꺼번에 식사도 하고 거기서 경조사 뭐 이제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잔치도 거기서 할 수 있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저쪽에 그 위에도 노는 그런 말이야 냉장고도 다 설치돼 가지고 아마 이 부락에 '한림'에서는 이만한 그런 마을이 별로 그렇게 시설 갖춰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101004 @ 그러면 그 마을 주변에 여기 오름이나 내천 아니면 바위, 굴 그런 유명한 거 뭐 잇어마씨?(그러면 그 마을 주변에 여기 오름이나 내천 아니면 바위, 굴 그런 유명한 거 뭐 있어요?)

101004 #1 뭐 옹포리는 제일 유명헌 게.(뭐 옹포리는 제일 유명한 게.)

101004 @ 네.(네.)

101004 #1 권남다리[7]라는 이 저 옹포천이 월계교라는 그 다리가 잇인디.('권남다리'라는 이 저 옹포천에 월계교라는 그 다리가 있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이게 역사는 나가 뭐 옛 어른들안티 뭐 말 듣기로는 이 다리가 잇엇는데 건너지를 못허게 뒈는 다리니깐 권남이라는 사람 권세 권자 남녘 남자에 이 권남이라는 사람이.(이게 역사는 내가 뭐 옛 어른들한테 뭐 말 듣기로는 이 다리가 있었는데 건너지를 못하게 되는 다리니까는 권남이라는 사람 권세 권자 남녘 남자에 이 권남이라는 사람이.)

101004 @ 예.(예.)

101004 #1 돌다리를 놔서 건넛다고 헤그넹 권남다리라는 명칭이 지금도 그 사용허고 잇어.(돌다리를 놔서 건넜다고 해서 '권남다리'라는 명칭이 지금도 그 사용하고 있어.)

101004 @ 예.(예.)

101004 #1 권남다리 권 권씨 권남이라는 사람이 돌다리를 놩 건넛다고 헹 권남다리 이 보통사람들은 권남다리 권남다리 하거든 권이 아니고 그자 건너가는 다리 이렇게만 알주마는 그 통상적인 명칭은 권남이라.('권남다리' 권 권씨 권남이라는 사람이 돌다리를 놔서 건넜다고 해서 '권남다리' 이 보통사람들은 '권남다리' '권남다리' 하거든 권이 아니고 그저 건너가는 다리 이렇게만 알지만 그 통상적인 명칭은 '권남'이야.)

---

7) '권남다리'는 권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옹포교가 세워지기 전 돌다리를 만들어 옹포천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는 유래가 있는 다리를 의미한다.

101004 @ 예.(예.)
101004 #1 권세 권자 남녘 남자인 그 사람이 제일 첨 돌다리를 놓곡 건너간 이런 다리가 옹포에 유명헌 이 저기 월계교인데 이 물로 헤 가지고 여기가 공장지대가 형성뒛인디.(권세 권자 남녘 남자인 그 사람이 제일 처음 돌다리를 놓고 건너간 이런 다리가 옹포에 유명한 이 저기 월계교인데 이 물로 해 가지고 여기가 공장지대가 형성됐는데.)
101004 @ 아.(아.)
101004 #1 이 저 옹포 그 저기 저 물이.(이 저 옹포 그 저기 저 물이.)
101004 @ 예.(예.)
101004 #1 저게 어디서 한라산 어승생[8]에서 나오는 물로 헹 명월로 헹 일로 와 가지고는 이 물로 헤서 옛날에 그 여기 대동식품 통조림 공장이라든가 얼음공장이라든가 제약회사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공장들이 여기 공업지구가 형성뒈 가지고 옛날에는 크게 이제 그 한림읍에서 그 공업지구로 발달허기로는 이 옹포가 처음이엇주게.(저게 어디서 한라산 '어승생'에서 나오는 물로 해서 명월로 해서 여기로 와 가지고는 이 물로 해서 옛날에 그 여기 대동식품 통조림 공장이라든가 얼음공장이라든가 제약회사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공장들이 여기 공업지구가 형성돼 가지고 옛날에는 크게 이제 그 '한림읍'에서 그 공업지구로 발달하기로는 이 옹포가 처음이었지.)
101004 @ 아. 권남다리마씨?(아. '권남다리'요?)
101004 #1 ᄋᆞ 권남다리 지금 그 다리에서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고향의 강이라는 칠백 오십 억 들영 일차공사를 끗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여기 물놀이 개장도 헤 가지고 한 삼 개월 이제 그 관리도 허곡 이렇게 허고 잇인디.(어 '권남다리' 지금 그 다리에서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고향의 강이라는 칠백 오십 억 들여서 일차공사를 끝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여기 물놀이 개장도 해 가지고 한 삼 개월 이제 그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1004 @ 네.(네.)
101004 #1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이차 삼차 뭐 그 정부 지원헹 고향의 강이라던가 허민 이제 저기이 저기 서울 청계천 다리 같이 물 올려 가지고 명월까지 올령 다시 내려오곡 뭐 이렇게 헤 가지고 그런거라든가.(제 앞으로 이게 뭐 이차 삼차 뭐 그 정부 지원해서 고향의 강이라든가 하면 이제 저기 저기 서울 청계천 다리 같이 물 올려 가지고 명월까지 올려서 다시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거라든가.)
101004 @ 예.(예.)
101004 #1 이 아래 유원지를 만들엉 보뜨도 타곡 뭐고 막 그런 시설도 앞으로 말이지 헌다는 말은 들엇는데 그건 앞으로 차후 계획인 것 같으곡.(이 아래 유원지를 만들어서 보트도 타고 뭐고 막 그런 시설도 앞으로 말이지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건 앞으로 차후 계획인 것 같고.)
101004 @ 네. 그럼 고상이빌레[9]도 잇어마씨?(네. 그럼 '고상이빌레'도 있어요?)

8) '어승생'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제주 지역 유일의 상수원 저수지를 의미한다.
9) '고상이빌레(코상이빌레)'는 고독한 과부가 살았다고 유래되는 넓은 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101004 #1 에?(에?)
101004 @ 고상이빌레?(‘고상이빌레’?)
101004 #1 아 코셍 코셍이빌레.(아 ‘코셍’ ‘코셍이빌레’?)
101004 @ 코셍이빌레마씨?(‘코셍이빌레요’?)
101004 #1 으. 고상이가 아니고 코셍이[10]엔 헤 가지고 우리 제주도 방언으로는 그게 다 틀린데.(어 ‘고상이’가 아니고 용치놀래기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방언으로는 그게 다 다른데.)
101004 @ 네.(네.)
101004 #1 여기는 코셍이, 코셍이.(여기는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
101004 @ 코셍이.(용치놀래기.)
101004 #1 또 저쪽으로 가면은 굴셍이라고 하고 남군들에 가면은 그거를 그 고기를 굴쉥이라 허곡.(또 저쪽으로 가면 ‘굴셍이’라고 하고 남군에 가면 그거를 그 고기를 ‘굴쉥이’라 하고.)
101004 @ 아, 그럼 옹포 여기는 코셍이라고 헤마씨?(아, 그럼 옹포 여기는 ‘코셍이’라고 해요?)
101004 #1 으 여기는 코셍이 이거 말이 조금 틀려 우리 여기는 바늘보고 바농, 뭐 마늘보고 마농 뭐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쓰고.(어. 여기는 ‘코셍이’ 이거 말이 조금 달라 우리 여기는 바늘보고 ‘바농’, 뭐 마늘보고 ‘마농’ 뭐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쓰고.)
101004 @ 네.(니.)
101004 #1 저쪽에 성산포나 동쪽들은 또 우리허고 말이 조금 말이 틀려.(저쪽에 ‘성산포’나 동쪽들은 또 우리하고 말이 조금 말이 달라.)
101004 @ 저도 고산[11]이나 신도리[12] 갓엇거든마씨.(저도 ‘고산’이나 신도리 갔었거든요.)
101004 #1 으.(어.)
101004 @ 거기서 마농, 바농 허는 거 들엇인디.(거기서 마늘, 바늘 하는 거 들었는데.)
101004 #1 으.(어.)
101004 @ 여기서도 그런 거 어떵 얘기허는지 굴아 주민 뒈거든마씨.(여기서도 그런 거 어떻게 얘기하는지 말해 주면 되거든요.)
101004 #1 응.(응.)
101004 @ 아 코셍이빌레?(아 ‘코셍이빌레’?)
101004 #1 으 코셍이빌레는 그 저기 저 조금 이렇게 나가 가지고 그.(어 ‘코셍이빌레’는 그 저기 저 조금 이렇게 나가 가지고 그.)
101004 @ 예.(예.)

10) ‘코셍이’는 여름이면 남해안 연안에 출현하는 놀래기의 일종인 용치놀래기를 의미한다. ‘고멩이, 고셍이, 골멩이, 궤멩이, 굴셍이, 굴쉥이’라고도 한다.
11) ‘고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2) 신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1004 #1 암반이 물이 싸민 쭉 나가 좀 잇인디 그거를 뭐 진 코지[13]라고도 인제 일명 이제 허거든.(암반이 물이 써면 쭉 나가 좀 있는데 그거를 뭐 진 '코지'라고도 인제 일명 이제 하거든.)

101004 #1 길게 나가잇인 바위라 헹 진 긴 코지.(길제 나가있는 바위라 해서 '진' 긴 코지.)

101004 @ 예.(예.)

101004 #1 그렇게 해서 거기는 물이 싸면 가서 고기도 낚으곡 말이지 해녀들도 거기 주위에 해산물도 뭐 소라 뭐 오분제기 ᄀᆞ튼 거 뭐 문어 ᄀᆞ튼 거 이런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는 그 옹포리 제일 길게 나가 잇인 진 코지라는 허는 것도 잇고.(그렇게 해서 거기는 물이 써면 가서 고기가 낚고 말이지 해녀들도 거기 주위에 해산물도 뭐 소라 뭐 떡조개 같은 거 뭐 문어 같은 거 이런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는 그 옹포리 제일 길게 나가 있는 긴 '코지'라는 하는 것도 있고.)

101004 @ 예 또 개여못[14]? 개여못도 들어봣수광?(예 또 '개여못'? '개여못'도 들어보셨습니까?)

101004 #1 아 개엿물이라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가 드나들 수 잇는 그런 이제 물이엇는데.(아 '개엿물'이라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이었는데.)

101004 @ 네.(네.)

101004 #1 그게 이 개미들이 들락날락 헐 수 잇인 좁은 그거를 말허는 인제 뜻 같애 내가 보기에는.(그게 이 개미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좁은 그거를 말하는 인제 뜻 같아 내가 보기에는.)

101004 @ 네.(네.)

101004 #1 그래서 개엿물이라고 헤서 바다이야기 앞이 잇어낫는데.(그래서 '개엿물'이라고 해서 바다이야기 앞에 있었는데.)

101004 @ 네.(네.)

101004 #1 지금은 그듸 전부 다 매립이 돼 가지고는.(지금은 거기 전부 다 매립이 돼 가지고는.)

101004 @ 아 매립뒌마씨?(아 매립됐어요?)

101004 #1 매립돼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엇고 헷인디 옛날에는 이러 이렇게 헤서 좀 뭐 꼬골랑꼬골랑 허게 들어가 가지고 안에 가 가지고 거 사발로 허벅[15]에다가 물을 질어 가지고 아침에 와 가지고 떠다가 그 물을 먹엇거든.(매립돼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러 이렇게 해서 좀 꼬깃꼬깃 하게 들어가 가지고 안에 가 가지고 거 사발로 '허벅'에다가 물을 길어 가지고 아침에 와 가지고 떠다가 그 물을 먹었거든.)

---

13) '코지'는 해안선에 용암이 길게 내려 뻗어 돌출된 곳이나 바람받이에 돌출한 곳을 의미한다.
14) '개엿못'은 한림고등학교 서쪽에 위치해 있는 못을 의미한다. '개엿물'이라고도 한다.
15)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의 제주어이다.

101004 @ 아.(아.)
101004 #1 그 그 물을 먹엇고 여기는 물이 상당히 많아 옹포는.(그 그 물을 먹었거 여기는 물이 상당히 많아 옹포는.)
101004 @ 어디 어디?(어디 어디?)
101004 #1 뭐 코셍이물 아니 그 아까 뭐 그 개엿물이라고 헤 가지고 개엿물도 잇고 저 이제 밑에 이제 바른 바른물이라고 바른물도 인제 지금 잇어 가지고 요번에 그 저 케이비에스에서 한 번 엠비씨인가 촬영헤서 방송도 헷고 헷는데.(뭐 '코셍이물' 아니 그 아까 뭐 그 '개엿물'이라고 해 가지고 '개엿물'도 있고 저 이제 밑에 이제 바른 바른물이라고 바른물도 인제 지금 있어 가지고 요번에 그 저 케이비에스에서 한 번 엠비씨인가 촬영해서 방송도 했고 했는데.)
101004 @ 네.(네.)
101004 #1 그거는 이제 해녀들이 말이지 바닷가에 갓다와 가지고.(그거는 이제 해녀들이 말이지 바닷가에 갔다와 가지고.)
101004 @ 네.(네.)
101004 #1 그 몸도 거기서 좀 씻고 해산물도 좀 씻고 그 헤 가지고 하여튼 바른 물도 잇곡 뭐 썩은 물도 잇곡 거 무슨 뭐 뭐 무슨 물이 물이 한 열두 개나 나오는 그 옹포의 물은 말이지 아주 새물도 여기 잇어나곡 그 옹포리는 그 물이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그 몸도 거기서 좀 씻고 해산물도 좀 씻고 그 해 가지고 하여튼 바른 물도 있고 썩은 물도 있고 거 무슨 뭐 뭐 무슨 물이 물이 한 열두 개나 나오는 그 옹포의 물은 말이지 아주 새물도 여기 있었고 그 옹포리는 그 물이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서.)
101004 @ 아.(아.)
101004 #1 이 저 권남다리 그 다리를 중심으로 헤 가지고.(이 저 '권남다리'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1004 @ 네.(네.)
101004 #1 그 다리가 저쪽 옹포 마을 안에 저 바닷가에서도 말이지 막 물 나오는 데 잇고 말이지 이렇게 헤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물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앗어.(그 다리가 저쪽 옹포 마을 안에 저 바닷가에서도 말이지 막 물 나오는 데 있고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물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았어.)
101004 @ 그럼 강상이물[16]도 들어보션마씨? 강상이물.(그럼 '강상이물'도 들어보셨어요? '강상이물'.)
101004 #1 강상이물이 바로 여기 저 이 옹포다리 그 제일 우에인디.('강상이물'이 바로 여기 저 이 옹포다리 그 제일 위에인데.)
101004 @ 예.(예.)
101004 #1 이게 그 강셍이물이 말이야 그게 아니곡.(이게 그 '강셍이물'이 말이야 그게 아니고.)
101004 @ 예.(예.)

16) '강상이물'은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강상수'라고도 한다.

101004 #1 강상수야 강상수.(‘강상수’야 ‘강상수’.)
101004 @ 아 강상수.(아 ‘강상수’.)
101004 #1 강상수는 무슨 강이냐.(‘강상수’는 무슨 강이냐.)
101004 @ 예.(예.)
101004 #1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 저듸가 우에인데 분명히 물이 이리 내려 와야뒈는데 이 물이 절로 거꾸로 올라간다고 허는 뜻에서 강상수.(우리가 착시 현상이라 저기가 위인데 분명히 물이 이리 내려와야 되는데 이 물이 저기로 거꾸로 올라간다고 하는 뜻에서 ‘강상수’.)
101004 @ 아 그 도깨비도로추룩.(아 그 도깨비도로처럼.)
101004 #1 어 그런 식이지 그래서 강상수지 강셍이물은 강셍이가 거기서 죽어서 말이 허는 말이 아니곡.(어 그런 식이지 그래서 ‘강상수’지 ‘강셍이물’은 강아지가 거기서 죽어서 말이 하는 말이 아니고.)
101004 @ 음.(음.)
101004 #1 원래 이 물은 강상수여 강상수 내릴 강자 오를 수 뭐 윗 상자 물 수자헤서 물이 올라가는 착시 현상으로 우리가 말이야 거기가민 가만히 보민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ᄀᆞ치 보인다니까.(원래 이 물은 ‘강상수’여 ‘강상수’ 내릴 강자 오를 수 뭐 윗 상자 물 수자 해서 물이 올라가는 착시 현상으로 우리가 말이야 거기가면 가만히 보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101004 @ 그건 이쪽에 잇어마씨?(그건 이쪽에 있어요?)
101004 #1 아 여기 여기 바로 여기 그 옹포 그 뭐냐 그 저 물놀이 개장허는 곳에서 조끔 올라가민 그 우가 바로 강상수라.(아 여기 여기 바로 여기 그 옹포 그 뭐냐 그 저 물놀이 개장하는 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위가 바로 ‘강상수’야.)
101004 @ 물놀이 개장 그 한 데 바로 옆에마씨?(물놀이 개장 그 한 데 바로 옆에요?)
101004 #1 ᄋᆞ 그 우에 조끔.(어 그 위에 조금.)
101004 @ 그럼 그 여기 서모살왓[17]도 잇수광?(그럼 그 여기 ‘서모살왓’도 있습니까?)
101004 #1 서모살왓.(‘서모살왓’.)
101004 @ 예.(예.)
101004 #1 옛날에 여기 이 아래 모살왓이엇는데.(옛날에 여기 이 아래 모래밭이었는데.)
101004 @ 예.(예.)
101004 #1 그쪽에서 그 일본 그 병정들이 말이여 죽으민 거기다가 많이 묻고 그랫다는 허는 말도 들엇는데.(그쪽에서 그 일본 그 병정들이 말이야 죽이면 거기다가 많이 묻고 그랬다는 하는 말도 들었는데.)
101004 @ 음.(음.)

17) ‘서모살왓’은 한림읍에 있는 모래밭 중의 하나이다. 서모가 본처의 자식을 살해해서 매장 했던 곳이라는 유래가 있다. 이 장소에서 주민들의 경우 장사가 나면 가매장도 하고 옹포, 협재 청년들의 씨름 장소로 활용했다고 한다.

101004 #1 거기가 저기 저 일본군인들 요쪽에 와 가지고 그때 그 뭐 베도 ᄒᆞ나 침몰돼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협재해수욕장으로 많이 떠왔어.(거기가 저기 저 일본군이들 요쪽에 와 가지고 그때 그 뭐 배도 하나 침몰돼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협재해수욕장으로 많이 떠왔어.)

101004 @ 아.(아.)

101004 #1 그래 가지고 거기 협재에서도 그 우에 모살밧에서도 많이 묻고 옹포에서 온 거는 서모살왓에서 많이 묻고 이렇게 헤 가지고 헷다는 말을 내가 좀 들엇주게.(그래 가지고 거기 협재에서도 그 위에 모래밭에서도 많이 묻고 옹포에서 온 거는 '서모살왓'에서 많이 묻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말을 내가 좀 들었지.)

101004 @ 그럼 내용드르는 뭐꽝?(그럼 '내용드르'는 뭐입니까?)

101004 #1 에?(에?)

101004 @ 내용드르[18]? 내용뜨르? 내용로뜨르?('내용드르'? '내용뜨르'? '내용로뜨르'?)

101004 #1 내용드르? 여기 여 우에 그 지명 같은데.('내용드르'? 여기 여 위에 그 지명 같은데.)

101004 @ 네. 지명 닮은디.(네. 지명 같은데.)

101004 #1 그게 저 어 저 옹포에서 쪼끔 올라가민 여기 뭐 무슨 무슨 뜨르 무슨 뜨르 헤 가지고 뜨르라고 허는 거는 그 벌판 ᄀᆞ튼 그런 거를 이야기허는 건데.(그게 저 어 저 옹포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 뭐 무슨 무슨 들 무슨 들 헤 가지고 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벌판 같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101004 @ 뜨르가 벌판마씨?('뜨르'가 벌판이에요?)

101004 #1 ᄋᆞ. 그런.(어. 그런.)

101004 @ 그믄 여기 그 내복빌레[19]도 들어보션마씨?(그러면 여기 그 '내복빌레'도 들어보셨어요?)

101004 #1 내복?('내복'?)

101004 @ 너빅 너빅빌레?('너빅' '너빅빌레'?)

101004 #1 아 너복빌레?(아 '너복빌레'?)

101004 @ 예.(예.)

101004 #1 게 너복빌레 ᄀᆞ튼 것이 지금 이 저 그게 마 여기 저 아까 이야기 헷지만 마대기 마대기빌레가 여기 너복빌레주게. 크게 바위로 말이 한 몇 백 필을 여기 대기시킬 수 잇인 빌레 빌레라는 거는 바위를 말하는 거거든.(그럼 '너복빌레' 같은 것이 지금 이 저 그게 마 여기 저 아까 이야기 했지만 '마대기' '마대기빌레'가 여기 '너복빌레'지. 크게 바위로 말이 한 몇 백 필을 여기 대기시킬 수 있는 '빌레' '빌레'라는 거는 바위를 말하는 거거든.)

---

18) '내용드르'는 옹포리에 있는 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형의 용 같아서 내용이라고도 한다.

19) '내복빌레'는 해당리(蟹塘里) 시절 둘레가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서 리민들이 회의도 하고 죄를 지은 리민들은 이곳에서 훈계도 하고 잘못을 엎드려서 빌었던 곳을 의미한다. '너빅빌레, 너복빌레'라고도 한다.

101004 @ 예.(예.)
101004 #1 게난 그런 마대기빌레에서 말을 대기시켯다가 수군만호가 어느 정도 말이지 말이 뒈민 옹포포구로 헤서 진상 보내고 이렇게.(그러니 그런 '마대기빌레'에서 말을 대기시켰다가 수군만호가 어느 정도 말이지 말이 되면 '옹포포구'로 해서 진상 보내고 이렇게.)
101004 @ 그럼 마대기빌레랑 너복빌레는 비슷한 거마씨?(그럼 '마대기빌레'와 '너복빌레'는 비슷한 거예요?)
101004 #1 비슷한 거. 그디가 그딜 거라.(비슷한 거. 거기가 거기일 거야.)
101004 @ 그럼 소식은빌레[20]도 잇수광? 들어보션마씨?(그럼 '소식은빌레'도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101004 #1 소식은빌레?('소식은빌레'?)
101004 @ 예.(예.)
101004 #1 그거는 들어보긴 들어본 거 ᄀᆞ튼 디 어디 잇인지는 잘 몰르고.(그거는 들어보기는 들어본 거 같은 데 어디 잇는지는 잘 모르고.)
101004 @ 예 괜찮아마씨. 이거 그 마을 홈페이지에 나와 잇거든마씨.(예. 괜찮아요. 이거 그 마을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01004 #1 ᄋᆞ.(어.)
101004 @ 저도 몰랏다가 그거 봐그넹 그냥 하나씩 물어보는 거마씨.(저도 몰랐다가 그거 봐서 그냥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101004 #1 ᄋᆞ.(어.)
101004 @ 그럼 비석거리[21]도?(그럼 '비석거리'도?)
101004 #1 아 비석거리는.(아 '비석거리'는.)
101004 @ 예.(예.)
101004 #1 옹포 지금 사거리가.(옹포 지금 사거리가.)
101004 @ 예.(예.)
101004 #1 신호등 사거리에서 저쪽 한림 쪽으로 가는 저기가 비석거리고 헤서 왜 비석거리냐.(신호등 사거리에서 저쪽 '한림' 쪽으로 가는 저기가 '비석거리'라고 해서 왜 '비석거리'이냐.)
101004 @ 예.(예.)
101004 #1 거기다가 옛날 우리 뭐 조상들이 훌륭헷던 분.(거기다가 옛날 우리 뭐 조상들이 훌륭했던 분.)
101004 @ 예.(예.)
101004 #1 뭐 이 뭐 마을을 말이지 뭐 헷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을 거기다가 비석을 말이야 한 몇 개 한 열 개쯤 세워그넹.(뭐 이 뭐 마을을 말이지 뭐 했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을 거기다가 비석을 말이야 한 몇 개 한 열 개쯤 세워서.)

20) '소식은빌레'는 옹포리에 있는 바위 중 하나이다. 주로 주민들이 이곳에서 여름철 소들의 더위를 피하게 했던 곳이라 한다.
21) '비석거리'는 옹포리에 공로 업적등을 음각한 공적, 송덕, 열녀 기념비등을 세웠던 곳을 의미한다.

101004 @ 예.(예.)
101004 #1 그래서 그거를 인제 빙자헤 가지고 비석거리라는 말을 인제 지어 가지고 쭉 사용헤오다가 지금도 그 말은 인제 우리 나이 또래는 다 알고 잇주게.(그래서 그거를 인제 빙자해 가지고 '비석거리'라는 말을 인제 지어 가지고 쭉 사용해오다가 지금도 그 말은 인제 우리 나이 또래는 다 알고 있지.)
101004 @ 예.(예.)
101004 #1 비석거리라고 허는 거는 옹포 신호등 사거리 저쪽 그 한림 쪽으로 가는 쪽으로 거기가 비석거리여.('비석거리'라고 하는 거는 옹포 신호등 사거리 저쪽 그 '한림' 쪽으로 가는 쪽으로 거기가 '비석거리'야.)
101004 @ 그 옹포리라고 헤서 돌에다가 옹포리 적어 놓잖아예 위치.(그 옹포리라고 해서 돌에다가 옹포리 적어 놓았잖아요 위치.)
101004 #1 ᄋᆞ.(어.)
101004 @ 근데 이거 한 세 개인가 본 거 닮은디 같이 생긴 거마씨? 아니면 그냥 하나 하나.(근데 이거 한 세 개인가 본 거 같은데 같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 하나.)
101004 #1 아니 그거 지금에야 다 만든 거라. 옛날 것들은 엇고.(아니 그거 지금에야 다 만든 거야. 옛날 건들은 없고.)
101004 @ 그러면 사장밧[22]도 들어봤수광? 사장밧?(그러면 '사장밧'도 들어봤습니까? '사장밧'?)
101004 #1 사장밧이 그 아까 이야기 한 옹포이 저기 모살밧인데 사장이라는 게 모래 사자거든. 그 강셍이물 강셍이물이라는 게 그게 강셍이물이 아니고 강상수여 원래.('사장밧'이 그 아까 이야기 한 옹포 저기 모래밭인데 사장이라는 게 모래 사자거든. 그 '강셍이물' '강셍이물'이라는 게 그게 '강셍이물'이 아니고 '강상수'야 원래.)
101004 @ 강상수.('강상수'.)
101004 #1 그 사람들이 몰랑 그대로 방언으로 강셍이물 강셍이물 사용허는 거지. 원래는 강상수여.(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대로 방언으로 '강셍이물' '강셍이물' 사용하는 거지 원래는 '강상수'야.)
101004 @ 원래 방언으로 쓰는 게 좋지 않아마씨?(원래 방언으로 쓰는 게 좋지 않아요?)
101004 #1 아니 뭐 방언으로 사용헤도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옹포 사람들 건줌 그거 강상수옌 안 ᄒᆞ고 강셍이물이렌 허거든. 그 강셍이물이 비가 많이 오민 내 터져.(아니 뭐 방언으로 사용해도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옹포 사람들 거의 그거 '강상수'라고 안 하고 '강셍이물'이라고 하거든. 그 '강셍이물'이 비가 많이 오면 내 터져.)
101004 @ 예.(예.)
101004 #1 내가 거 강상수에서 물이 막 비 많이 오민 옹포다리가 건줌 말이여 찰 정

22) '사장밧'은 예전 옹포리에 있는 모래밭으로 군사들이 활쏘기 연습도 하고 격식을 갖추지 않고 사람의 시신을 임시 매장을 했던 곳을 의미한다.

도로 말이여 헤 가지고. 한 몇 년 전에는 막 다리 가까이 말이여 물이 올라가지고 그 저지대에는 물난리 나고 막 집 우에까지 올라가났주게.(내가 거 '강상수'에서 물이 막 비 많이 오면 옹포다리가 거의 말이야 찰 정도로 말이야 해 가지고. 한 몇 년 전에는 막 다리 가까이 말이야 물이 올라가지고 그 저지대에서 물난리 나고 막 집 위에까지 올라갔었지.)

101004 @ 아 물난리도 난마씨?(아 물난리도 났어요?)

101004 #1 응.(어.)

101004 @ 게난 그디가 바닷가 바로 옆이 이신디마씨?(그러니 거기가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101004 #1 아니 경 헤도 물이 그렇게 만조가 뒈민 물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물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집이 저기 저지대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 살려달라고 허면서.(아니 그렇게 해도 물이 그렇게 만조가 되면 물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물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집이 저기 저지대 사람들은 지부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 살려달라고 하면서.)

101004 @ 저기 어제 돌아다니다 보난 바닷가 바로 옆에 잇던데 태풍 올 때는 피해가?(저기 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닷가 바로 옆에 있던데 태풍 올 때는 피해가?)

101004 #1 응. 그런 저지대 사람은 재난 방송을 통헤 가지고 좀 올라왓다가 그런 태풍 지나간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어. 그런 저지대 사람은 재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올라왔다가 그런 태풍 지나간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101004 @ 옹포리에서 제일 유명한 오름은 뭐 잇수광?(옹포리에서 제일 유명한 오름은 뭐 있습니까?)

101004 #1 옹포 오름은 엇고.(옹포 오름은 없고.)

101004 @ 예.(예.)

101004 #1 우리가 그 공동묘지로 사용허는 오름은 객기리오름이라고 헤 가지고.(우리가 그 공동묘지로 사용하는 오름은 '객기리오름'이라고 해 가지고.)

101004 @ 객기리오름마씨?('객기리오름'이요?)

101004 #1 객기리오름이라고 헤서 옹포 공동묘지가 그 오름에.('객기리오름'이라고 해서 옹포 공동묘지가 그 오름에.)

101004 @ 예.(예.)

101004 #1 옛날부터 사람 돌아가시면.(옛날부터 사람 돌아가시면.)

101004 @ 예.(예.)

101004 #1 그 객기리오름에 묻고 헤 가지고 지금은 건줌 다 개인 그 저기 뭐 그런 것들 저 있으니까 뭐 개인 뭐 그 장례 지내는 장소를 마련허는 데도 많고 또 아니면 뭐 화장도 하고 뭐. 가족공동묘지라고 헤 가지고 지금 많이들 사용허주게.(그 '객기리오름'에 묻고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개인 그 저기 뭐 그런 것들 저 있으니까 뭐 개인 뭐 그 장례 지내는 장소를 마련하는 데도 많고 또 아니면 뭐 화장도 하고 뭐. 가족 공동묘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이들 사용하지.)

101004 @ 가족공동묘지로?(가족공동묘지로?)
101004 #1 으.(어.)
101004 @ 어르신도 방언 잘 쓰셤수다. 건줌 다 하고.(어르신도 방언 잘 쓰십니다. 거의 다 하고.)
101004 #1 게. 이장도 허곡 여기서 쭉 살앗인디.(그럼. 이장도 하고 여기서 쭉 살았는데.)
101005 @ 그면 그 이 마을에 주변에 기관 같은 거 잇어마씨?(그러면 그 이 마을에 주변에 기관 같은 거 있어요?)
101005 #1 어?(어?)
101005 @ 공공기관은 뭐 잇어마씨?(공공기관은 뭐 있어요?)
101005 #1 공공기관은 뭐 리사무소 뭐 경로당 뭐 어촌계.(공공기관은 뭐 리사무소 뭐 경로당 뭐 어촌계.)
101005 @ 예.(예.)
101005 #1 어촌계 복지관.(어촌계 복지관.)
101005 @ 그 경로당은 언제 세운 거마씨?(그 경로당은 언제 세운 거예요?)
101005 #1 경로당은 이거 짓고 난 다음에 지엇어. 원래가 이듸 그 경로당 잇인 자리 주게.(경로당은 이거 짓고 난 다음에 지었어. 원래가 여기 그 경로당 있었던 자리이지.)
101005 @ 예.(예.)
101005 #1 옹포 마을 리사무소엿는데 옹포 거기가 너무나 협소헤서 이거는 안 되겟다 우리가 장래를 내다봐 가지고 리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뭐 백년대계를 우리가 내다본다고 그러잖아.(옹포 마을 리사무소였는데 옹포 거기가 너무나 협소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장래를 내다봐 가지고 리사무소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뭐 백년대계를 우리가 내다본다고 그러잖아.)
101005 @ 예.(예.)
101005 #1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는 여기다가 큰 이제 땅을 확보헤 가지고 그 교포들 힘도 받고 교포들이 이거 지어주고 방앗간도 새마을.(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는 여기다가 큰 이제 땅을 확보해 가지고 그 교포들 힘도 받고 교포들이 이거 지어주고 방앗간도 새마을.)
101005 @ 예.(예.)
101005 #1 도정공장이라고 헤 가지고 그거도 지어주고 헤 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마을이 이제 그런 뭐 도정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말이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기서 인제 마을에 세금 엇이 운영허는 거주.(도정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도 지어주고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마을이 이제 그런 뭐 도정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말이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기서 인제 마을에 세금 엇이 운영하는 거지.)
101005 @ 파출소는 엇인가마씨?(파출서는 없나요?)
101005 #1 파출소는 여기에 엇고 저기 한림에 잇어.(파출소는 여기에 없고 저기 '한림'에 있어.)

101005 @ 아 옹포에는 엇고?(아 옹포에는 없고?)
101005 #1 어 엇어.(어 없어.)
101005 @ 그면 옹포에는 학교는 한림고 하나 잇지예?(그러면 옹포에는 학교는 한림고 하나 있지요?)
101005 #1 으. 아 그 그게 저듸 한림초등학교 잇고.(어. 아 그 그게 저기 한림초등학교도 있고.)
101005 @ 예.(예.)
101005 #1 이 옹포는 옛날부터 학교가.(이 옹포는 옛날부터 학교가.)
101005 @ 예.(예.)
101005 #1 한림에 바로 인접헤 가지고 학교 지을 여건이 안 뒈니깐.('한림'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학교 지을 여건이 안 되니까.)
101005 @ 예.(예.)
101005 #1 한림초등학교가 잇곡 협재허곡 금릉은 합쳐 가지고 재릉 협재에는 재자하고 금릉이라는 릉자 헹 재릉초등학교를 중간에 인제 합병헤서 지어가지고.(한림초등학교가 있고 협재하고 '금릉'은 합쳐 가지고 재릉 협재에는 재자하고 '금릉'이라는 릉자 해서 재릉초등학교를 중간에 인제 합병해서 지어가지고.)
101005 @ 아 재릉초등학교가 협재랑 금릉이꽝?(아 재릉초등학교가 협재랑 금릉입니까?)
101005 #1 으. 게 재릉초등학교라고 허주게 그듸.(어 그럼 재릉초등학교라고 하지 거기.)
101005 @ 아.(아.)
101005 #1 거기가. 그래 가지고 거기 중간에 금릉에서 오기 쉽고 협재에서 가기 쉬운 한림공원 곧 지나민 거기 초등학교가 잇어.(거기가. 그래 가지고 거기 중간에 '금릉'에서 오기 쉽고 협재에서 가기 쉬운 한림공원 곧 지나면 거기 초등학교가 있어.)
101005 @ 한림공고도 여기 잇지 않아마씨?(한림공고도 여기 있지 않아요?)
101005 #1 공고?(공고?)
101005 @ 예.(예.)
101005 #1 공고는 저쪽으로 잇곡 한림 여기 저 고등학교는 여기 또. 바로 이디 옹포 소재로 잇곡.(공고는 저쪽으로 있고 한림 여기 저 고등학교는 여기 또. 바로 여기 옹포 소재로 있고.)
101005 @ 그니까 소재는 옹포로.(그러니까 소재는 옹포로.)
101005 #1 옹포리 소재로.(옹포리 소재로.)
101005 @ 아. 그면 저건 학교는 언제 지언마씨?(아. 그러면 저건 학교는 언제 지었어요?)
101005 #1 어?(어?)
101005 @ 칠십 년대에 지엇인가마씨?(칠심 년대에 지었어요?)
101005 #1 저거는. 한림고등학교는 막 늦게 지엇지. 저것들도 우리 교포 힘도 조금

잇인 걸로 알고 잇인데 교포들도 조금.(저거는. 한림고등학교는 막 늦게 지었지. 저것들도 우리 교포 힘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포들도 조금.)
101005 @ 그럼 지금은 학교 학생들도 조금 줄엇지예?(그럼 지금은 학교 학생들도 조금 줄었지요?)
101005 #1 학생들은 남녀공학 아니라? 남년공학인데 그런 대로 유지는 잘 뒈는 거 같애.(학생들은 남녀공학 아니야? 남녀공학인데 그런 대로 유지는 잘 되는 거 같아.)
101005 @ 경로당은 이삼층은 경로당이고 일층은 그냥 가정집인가마씨?(경로당은 이삼층은 경로당이고 일층은 그냥 가정집인가요?)
101005 #1 어 일층에는 거 쉼터 뭐 헤 가지고 뭐 그런 걸로 좀 사용허고 이층은 여성분들이.(어 일층에는 거 쉼터 뭐 해 가지고 뭐 그런 걸로 좀 사용하고 이층은 여성분들이.)
101005 @ 예.(예.)
101005 #1 뭐 그 사용허곡.(뭐 그 사용하고.)
101005 @ 예.(예.)
101005 #1 일단 삼층은 남성분들이 주로 사용허고.(일단 삼층은 남성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101005 @ 보통 그 무슨 요일에 경로당 어르신들 사용헤마씨?(보통 그 무슨 요일에 경로당 어르신들 사용해요?)
101005 #1 월화수는 여성분들이 열한시까지 인제 ᄋᆞ덟시부터 열한시까지 사용허고.(월화수는 여성분들이 열한시까지 인제 여덟시부터 열한시까지 사용하고.)
101005 @ 예.(예.)
101005 #1 남성분들은 열두시로부터 여섯시까지 월화수목금토까지.(남성분들은 열두시로부터 여섯시까지 월화수목금토까지.)
101005 @ 아.(아.)
101005 #1 거기다가.(거기다가.)
101005 @ 토요일 날도?(토요일 날도?)
101005 #1 어 토요일 날도 문 열어주민 거기 강 거기서 뭐 무슨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오락 ᄀᆞ튼 거 허고 말이지.(어 토요일 날도 문 열어주면 거기 가서 거기서 뭐 무슨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오락 ᄀᆞ튼 거 허고 말이지.)
101005 @ 그면 문은 노인훼장님이 관리헤마씨?(그러면 문은 노인회장님이 관리해요?)
101005 #1 노인훼장이 관리를 허되 거기 관리허는 사람이 잇어.(노인회장이 관리를 하되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101005 @ 아, 따로 잇어마씨?(아, 따로 있어요?)
101005 #1 뭐 청소도 허고 뭐 이렇게 헤 가지고 다믄 얼마 말이여 수고비도 주고 헤 가지고 운영허고 잇지.(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만 얼마 말이야 수고비도 주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101005 @ 요즘은 더워부난 잘 안 나왐신가마씨?(요즘은 더우니까 잘 안 나오고 있지요?)
101005 #1 아니 사람 많이 나와 거기가 에어컨 틀어 놓으니까 집안에서 틀민 에어컨 값도 하영 세금 폭탄도 나오고 말이야 하니까 전기료 폭탄 나오니까 말이여 거기다 다 모이주게. 한 삼사십 명씩 모여.(아니 사람 많이 나와 거기가 에어컨 틀어 놓으니까 집안에서 틀면 에어컨 값도 많이 세금 폭탄도 나오고 말이야 하니까 전기료 폭탄 나오니까 말이야 거기다 다 모이지. 한 삼사십 명씩 모여.)
101005 @ 아, 경 많이마씨? 어제는 계속 닫혀 잇던데 오후에 가면?(아, 그렇게 많이요? 어제는 계속 닫혀 있던데 오후에 가면?)
101005 #1 그듸가 열두시 넘으민 문 열어 거긴.(거기가 열두시 넘으면 문 열어 거기는.)
101005 @ 아, 열두시 넘어야?(아, 열두시 넘어야?)
101005 #1 ᄋᆞ(어.)
101005 @ 아, 기구나 예.(아, 그렇군요 예.)
101005 #1 어.(어.)
101006 @ 그면 지금은 엇일 거 닮은디 옛날에도 계나 접 ᄀᆞ튼 거 잇어마씨? 옹포리에.(그러면 지금은 없을 거 같은데 옛날에도 계나 '접' 같은 거 있어요? 옹포리에.)
101006 #1 응?(응?)
101006 @ ᄀᆞ치 허는 거 잇잖아예 계 계모임이나 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계 계모임이나 '접'.)
101006 #1 아 계.(아 계.)
101006 @ 접이라고?('접'이라고?)
101006 #1 옛날에는 그 저기 농사지을 때 수눌음이라고 허는 게 잇거든 수눌음.(옛날에는 그 저기 농사지을 때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품앗이.)
101006 @ 수눌음.(품앗이.)
101006 #1 수눌음이 뭐냐.(품앗이가 뭐냐.)
101006 @ 예.(예.)
101006 #1 내가 일손이 인제 딸리니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빌어서 허면 이 사람이 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걸 도와주곡 또 저 사람 할 때는 이게 서로 상부상조허는 거라.(내가 일손이 인제 부족하니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빌려서 하면 이 사람이 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 걸 도와주고 또 저 사람 할 때는 이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야.)
101006 @ 예.(예.)
101006 #1 그게 수눌음이라고 하는 거라.(그게 품앗이라고 하는 거야.)
101006 @ 아.(어.)
101006 #1 어 수눌음으로 헤 가지고 그런 계 ᄀᆞ치.(어 품앗이로 해 가지고 그런 계 같이.)

101006 @ 예.(예.)
101006 #1 이제 농사 때 뒈민 조 빌 때라든가 보리 빌 때는 한 몫에 다 들잖아 한꺼번에.(이제 농사 때 되면 조 벨 때라든가 보리 벨 때는 한 몫에 다 들잖아 한꺼번에.)
101006 @ 예.(예.)
101006 #1 그 빨리 말이여 그 헤야 뒐 거민 혼자 가서 그 밧을 빌라면 말이지 어 며칠을 베야 뒈는데 열 사람 ᄀᆞ치 헤 가지고 허민 하루에 비면 이디가 하루에 베어그넹이.(그 빨리 말이야 그 해야 될 거면 혼자 가서 그 밭을 벨라면 말이지 어 며칠을 베어야 되는데 열 사람 같이 해 가지고 하면 하루에 베면 여기가 하루에 베어서.)
101006 @ 예.(예.)
101006 #1 저디 강 비어그넹 헤 주면은 그게 수눌음이 돼 가지고 뭐 일손도 바쁘고 저 뭐 좀 빨라지고 말이지 농사 일처리도 손쉽게 헤주고 그러는 거지.(저기에 가서 베어서 해 주면 그게 품이라 돼 가지고 뭐 일손도 바쁘고 저 뭐 좀 빨라지고 말이지 농사 일처리도 손쉽게 해주고 그러는 거지.)
101006 @ 그니까 예전에는 농사 일 때문에 그런 거 많아신디 요즘에는 별로 없겠다 예?(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사 일 때문에 그런 거 많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겠군요?)
101006 #1 이제는 건줌 다 기계화 뒈고 말이야 이러니까.(이제는 거의 다 기계화 되고 말이야 이러니까.)
101006 @ 예.(예.)
101006 #1 그런 수눌음이라는 게 엇어. 옛날엔 수눌음 정신이 우리 제주도 정신이나 마찬가지엿는데.(그런 품앗이라는 게 없어. 옛날에는 품앗이 정신이 우리 제주도 정신이나 마찬가지였는데.)
101006 @ 그.(그.)
101006 #1 그 ᄌᆞ냥정신[23].(그 'ᄌᆞ냥정신'.)
101006 @ 예 ᄌᆞ냥정신.(예 'ᄌᆞ냥정신'.)
101006 #1 어. 그런 게(어. 그런 게.)
101007 @ 그면 그 뭐냐 옹포리만에 마을 뭐 풍습 ᄀᆞ튼 거 엇언마씨?(그러면 그 뭐냐 옹포리만의 마을 뭐 풍슴 같은 거 없었어요?)
101007 #1 뭐 옛날에 풍습인 인제 저기 저 서낭당이라는 게 잇어 가지고.(뭐 옛날에 풍습에는 인제 저기 저 서낭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101007 @ 서낭당. 서낭당은 뭐꽝?(서낭당. 서낭당은 뭐입니까?)
101007 #1 서낭당은 큰 폭낭을.(서낭당은 큰 팽나무를.)
101007 @ 예.(예.)
101007 #1 하나의 신 같이 모셔 가지고.(하나의 신 같이 모셔 가지고.)
101007 @ 예.(예.)
101007 #1 그 바다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 년에 무사안녕과 고기 ᄀᆞ튼 것도 많이 잡

23) 'ᄌᆞ냥'은 식량이나 물건을 아껴서 비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어의 '절약'과 유사하다. 제주 선조들은 이 '조냥정신'으로 일생을 살아왔으며 삶의 근본이 되었다.

게 헤줍서 헤서 비는 서왕당 서낭당 이런 거지.(그 바다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 년에 무사안녕과 고기 같은 것도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해서 비는 서왕당 서낭당 이런 거지.)
101007 @ 예.(예.)
101007 #1 거기 저 테레비에도 가끔 나오잖아.(거기 저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잖아.)
101007 @ 예.(예.)
101007 #1 그 큰 폭낭에다가 무슨 뭐 줄 메달고 말이지 일 년의 안녕을 빌고 뭐 어 여기 바다에 다니는 사람들은 태풍도 만나지 말고 고기도 많이 잡아 주고 뭐 이렇게 헤서 남녀노소가 그자 거기 가서 일 년에 한 번 정월달 뒈민 이렇게 빈다고 그 서낭당에 가 가지고.(그 큰 팽나무에다가 무슨 뭐 줄 매달고 말이지 일 년의 안녕을 빌고 뭐 어 여기 바다에 다니는 사람들은 태풍도 만나지 말고 고기도 많이 잡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남녀노소가 그저 거기 가서 일 년에 한 번 정월달 되면 이렇게 빈다고 그 서낭당에 가 가지고.)
101007 @ 예.(예.)
101007 #1 경 헹 허다가 내가 청년훼장 당시 이거는 말이지 아니다. 미신 타도로 헤 가지고 내가 그 서낭당을 톱으로 짤라 버렷어. 몇 사람 청년 훼원들 데리고 가 가지고 헤서 마을에서도 난리나 가지고 말이여 마을 총훼 열어 가지고 우리 욕도 많이 듣고 헷는데. 이왕 말이여 뭐 비어버린 거 말이여 다시 살릴 수도 엇고 헤 가지고 그 해로 서낭당은 철거 돼 가지고 우리가 사대 뭐 타파주의 미신 뭐 무슨 뭐 저 제주도에는 말이지 그 이월 달 뒈면은 신구간이라 헤서 말이지 이런 거 꼭 그 때야 이사허고.(그렇게 해서 하다가 내가 청년회장 당시 이거는 말이지 아니다. 미신 타도로 해 가지고 내가 그 서낭당을 톱으로 잘라 버렸어. 몇 사람 청년 회원들 데리고 가 가지고 해서 마을에서도 난리나 가지고 말이야 마을 총회 열어 가지고 우리 욕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왕 말이야 뭐 베어버린 거 말이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그 해로 서낭당은 철거 돼 가지고 우리가 사대 뭐 타파주의 미신 뭐 무슨 뭐 저 제주도에는 말이지 그 이월 달 되면 신구간이라 해서 말이지 이런 거 꼭 그 때야 이사하고.)
101007 @ 예.(예.)
101007 #1 이런 나쁜 폐습을 내가 말이지 선도허기 위헤서 이장 당시에 우리 옹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차 두 대를 빌어 가지고 제주도를 다 말이여 선진지 견학 시키면서 이런 미신 ᄀᆞ튼 거 믿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엇다. 우리도 이제는 말이여 과학적으로 잘 사는 시대가 왓인디 그런 거 필요엇다 말이지 우리도 딴 동네도 강 보고 말이여 잘 사는 동네도 강 돌아보고 이렇게 헤 가지고 그 때 획기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신문도 나고 말이지.(이런 나쁜 폐습을 내가 말이지 선도하기 위해서 이장 당시에 우리 옹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차 두 대를 빌려 가지고 제주도를 다 말이야 선진지 견학 시키면서 이런 미신 같은 거 믿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없다. 우리도 이제는 말이야 과학적으로 잘 사는 시대가 왔는데 그런 거 필요없다 말이지 우리도 다른 동네도 가서 보고 말이야 잘 사는 동네도 가서 돌아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때 획기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신문도 나고 말이지.)

101007 @ 음. 그면 그 때 옛날에는 풍습이 서낭당에서 비는 거?(음. 그러면 그 때 옛날에는 풍습이 서낭당에서 비는 거?)
101007 #1 으. 서낭당에서 그렇게 빌고.(어. 서낭당에서 그렇게 빌고.)
101007 @ 예.(예.)
101007 #1 또 마을 포제가 잇어. 마을 포제는 돼지 한 마리를 이제 생으로 잡아서.(또 마을 포제가 있어. 마을 포제는 돼지 한 마리를 이제 생으로 잡아서.)
101007 @ 예.(예.)
101007 #1 거 창자만 내어 가지고 완전히 생으로.(거 창자만 내어 가지고 완전히 생으로.)
101007 @ 예.(예.)
101007 #1 삶지 않은 상태에서 강 그 제단 제단 지답에 가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일주일 간 일주일 간 매일 허는 거는 아니고.(삶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그 제단 제단 지답에 가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일주일 간 일주일 간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
101007 @ 예.(예.)
101007 #1 제일 지관들은 그 해 뭐 젊은 사람들이 결혼흔 사람들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지답 옆에다가 거 집에 하숙하 듯이 거기서만 살게 허여. 거 가서 말이여 부인허고 자지도 못하게 허고 말이여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헤서 제일 마지막 날 이제 제지내게 뒈면은 목욕을 헤서 그다음날 밤 한 열 두시로부터 한 두시 세시까지 제를 지내거든.(제일 지관들은 그 해 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지답 옆에다가 거 집에 하숙하 듯이 거기서만 살게 해. 거 가서 말이야 부인하고 자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해서 제일 마지막 날 이제 제지내게 되면 목욕을 해서 그다음날 밤 한 열 두시로부터 한 두시 세시까지 제를 지내거든.)
101007 @ 아.(아.)
101007 #1 그게 마을.(그게 마을.)
101007 @ 마을 포제.(마을 포제.)
101007 #1 마을 포제.(마을 포제.)
101007 @ 그건 어디선 헨마씨?(그건 어디서 했어요?)
101007 #1 그 옹포리 지답이라고 하는 지답이라는 데서.(그 옹포리 지답이라고 하는 지답이라는 데서.)
101007 @ 지답.(지답)
101007 #1 지답 지를 제를 지내는 답. 그 지답이라고 혜 가지고 그 공구리로 이렇게 쭉 헤서 이렇게 ᄒᆞ고 계단 이렇게 헤서 크게 공구리로 뒈어 잇게. 딱 제일 우에는 돼지.(지답 지를 제를 지내는 답. 그 지답이라고 해 가지고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하고 계단 이렇게 해서 크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게. 딱 제일 위에는 돼지.)
101007 @ 그건 언제까지 헨마씨?(그건 언제까지 했어요?)
101007 #1 그게 한 육십 년도까지 헷나.(그게 한 육십 년도까지 했나.)

101007 @ 아 그렇게 빨리 엇어젼마씨?(아 그렇게 빨리 없어졌어요?)
101007 #1 아 그 빨리 엇어졋지. 그거 저 그 저기 저 뭐 그 지답 저 서낭당이라던가 이런 뭐 지답 ᄀᆞ튼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건 미신에 속허고 이런 건 뭐 어 우리 마을 사람들한티 도움이 뒈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걸 폐지하게 뒈게끔.(아 그 빨리 없어졌지. 그거 저 그 저기 저 뭐 그 지답 저 서낭당이라든가 이런 뭐 지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건 미신에 속하고 이런 건 뭐 어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폐지하게 되게끔.)
101007 @ 게난 서낭당 ᄀᆞ튼 경우에는 뭐 비 많이 오는 거 때문에 하면 그 두 번째 말한 게 뭐엿지마씨? 마을 포제는 마을에 안녕을 위헤서 하는 거마씨?(그러니까 서낭당 같은 경우에는 뭐 비 많이 오는 거 때문에 하면 그 두 번째 말한 게 뭐였지요? 마을 포제는 마을에 안녕을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101007 #1 그렇지.(그렇지.)
101007 @ 아.(아.)
101007 #1 그거는.(그거는.)
101007 @ 예.(예.)
101007 #1 서낭당은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허는 거고.(서낭당은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하는 거고.)
101007 @ 아 개인적으로?(아 개인적으로?)
101007 #1 마을 지답에서 지내는 지는.(마을 지답에서 지내는 제는.)
101007 @ 예.(예.)
101007 #1 마을 전체가 다 말이지.(마을 전체가 다 말이지.)
101007 @ 모여 가지고.(모여 가지고.)
101007 #1 모여 가지고 거기다가 뭐 일주일 간 말이지 뭐 지주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잇곡 말이지 희사도 허고 말이여 뭐 헤 가지고 일주일 간 거기다가 지관들을 합숙시켜 가지고.(모여 가지고 거기다가 뭐 일주일 간 말이지 뭐 지주도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지 희사도 하고 말이야 뭐 해 가지고 일주일 간 거기다가 지관들을 합숙시켜 가지고.)
101007 @ 예.(예.)
101007 #1 그 제일 내가 내일 제 지낸다면 일주일 간에 말이여 마지막 날에 목욜 헤서 열두시부터 한 세시까지 제를 지내고 헷어.(그 제일 내가 내일 제 지낸다면 일주일 간 말이야 마지막 날에 목욕을 해서 열두시부터 한 세시까지 제를 지내고 했서.)
101007 @ 또 다른 풍습은 엇인가마씨?(또 다른 풍습은 없었나요?)
101007 #1 다른 풍습은 크게.(다른 풍습은 크게.)
101007 @ 뭐 기억나시는 거 아무거나.(뭐 기억나시는 거 아무거나.)
101007 #1 뭐 우리 마을 풍습으로는 뭐 큰 풍습은 엇인 거 ᄀᆞ튼데.(뭐 우리 마을 풍습으로는 뭐 큰 풍습은 없는 거 같은데.)
101007 @ 아 그 두 개 정도?(아 그 두 개 정도?)

101007 #1 어. 그 때 당시는 그게 젤 큰 거엿주게.(어. 그 때 당시는 그게 제일 큰 거였지.)
101007 @ 크게 한 거마씨?(크게 한 거예요?)
101007 #1 응 크게 그 저기 저 마을 주민들이 다 헤서 할 수 잇인 거는 지답에서 일주일 간 제지내기 위헤서 말이여 모여서 놀고 먹고 뭐 이렇게 ᄒᆞ고 일월 달 뒈민 정월 달 뒈민 개인적으로 그거는.(응 크게 그 저기 저 마을 주민들이 다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답에서 일주일 간 제지내기 위해서 말이야 모여서 놀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일월 달 되면 정월달 되면 개인적으로 그거는.)
101007 @ 서낭당.(서낭당.)
101007 #1 서낭당에 가서 개인으로 안녕과 뭐 건강과 가족 건강 뭐 고기 낚으는 사람은 고기 뭐 많이 허게 헹 빌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쭉 헤 오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사회가 밝아가고 문명이 발달돼 가니까 다 엇어졋지.(서낭당에 가서 개인으로 안녕과 뭐 건강과 가족 건강 뭐 고기 낚는 사람은 고기 뭐 많이 낚아 하게 해서 빌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쭉 해 오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사회가 밝아지고 문병이 발달돼 가니까 다 없어졌지.)
101007 @ 마을 포제도 정월달에 헨마씨 그면?(마을 포제도 정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101007 #1 그것도 정월달에.(그것도 정월달에.)
101007 @ 일주일 한다고 헷잖아예?(일주일 한다고 했잖아요?)
101007 #1 일주일 간 만약에 그 마을 총훼에서.(일주일 간 만약에 그 마을 총회에서.)
101007 @ 아.(아.)
101007 #1 언제 지낸다는 결정이 딱 나면 지관이 딱 이제 결정이 뒈는 거주.(언제 지낸다는 결정이 딱 나면 지관이 딱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101007 @ 아.(아.)
101007 #1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관허고 영 제지내 제지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ᄒᆞ고.(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관하고 이렇게 제지내 제지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하고.)
101007 @ 아, 기구나 예.(아, 그렇군요 예.)
101008 @ 그면 그 옹포리[24]에 특산물은 잇어마씨?(그러면 그 옹포리에 특산물은 있어요?)
101008 #1 특산물은 이제 그 뭐냐 그 해녀들이 강 잡는.(특산물은 이제 그 뭐냐 그 해녀들이 가서 잡는.)
101008 @ 예.(예.)
101008 #1 해산물이 특산물이 뒈고 뭐 주로 뭐 여기는게 그 감귤도 많이 허는 사람도 엇고.(해산물이 특산물이 되고 뭐 주로 뭐 여기는 그 감귤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24) '옹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1008 @ 예.(예.)
101008 #1 뭐 그렇다고 무슨 말이지 저 가축 ᄀᆞ튼 거 많이 질르는 사람도 벨로 한 몇 사람 정도.(뭐 그렇다고 무슨 말이지 저 가축 같은 거 많이 기르는 사람도 별로 한 몇 사람 정도.)
101008 @ 옛날에는 소나 말 ᄀᆞ튼 거 안 키워신가마씨?(옛날에는 소나 말 같은 거 안 키웠어요?)
101008 #1 아 거 옛날에는 소나 말이나 건줌 한두 집 걸러서 서너 집에 하나썩은 키왔지. 왜냐하면 농사지으려면 그것이 말이지 최고의 농사에 주요 말이지 그.(아 거 옛날에는 소나 말이나 거의 한두 집 걸러서 서너 집에 하나씩은 키웠지. 왜냐하면 농사지으려면 그것이 말이지 최고의 농사에 주요 말이지 그.)
101008 @ 도와주는 거.(도와주는 거.)
101008 #1 도와주는 것이 소는 밧 갈고. 말은 뭐하느냐 조 갈을 때는 말로 말이여 말 ᄒᆞᆫ 열 개 헤 가지고 막 이렇게 어랑어랑어랑 헤 가지고 밧을 전체 잘 밟아야 조가 잘 난다고 헤 가지고 그래서는 말도 이제 수눌음이라고 헤 가지고 내가 두 개 잇이믄 몇 개 좀 빌어다가.(도와주는 것이 소는 밭 갈고. 말은 뭐하느냐 조 갈을 때는 말로 말이야 말 한 열 개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어랑어랑어랑 해 가지고 밭을 전체 잘 밟아야 조가 잘 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는 말도 이제 품앗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두 개 있으면 몇 개 좀 빌려다가.)
101008 @ 그것도 수눌음으로?(그것도 품앗이로?)
101008 #1 ᄋᆞ 헤그넹 돌려그넹 허민 나도 뭐 딴 사람 헐 때는 빌려줘 가지고.(어 해서 돌려서 하면 나도 뭐 다른 사람 할 때는 빌려줘 가지고.)
101008 @ 그럼 어르신도 소나 말 길러 보션마씨?(그럼 어르신도 소나 말 길러 보셨어요?)
101008 #1 아니 우리 집에 말은 말이지 저 아버지가 길러 가지고.(아니 우리 집에 말은 말이지 저 아버지가 길러 가지고.)
101008 @ 아.(아.)
101008 #1 내가 그 저 물도 먹이고 다니고 이렇게 헤 가지고는 아주 좋은 말 말이여 우리 집에 잇어 가지고.(내가 그 저 물도 먹이고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주 좋은 말 말이야 우리 집에 있어 가지고.)
101008 @ 나중에 말에 대헤서 물어보려고 헷거든마씨. 밧일 할 때는 소나 말로 헷엇는데 그거 어떻게 헷는지.(나중에 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밭일 할 때는 소나 말로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는지.)
101008 #1 아니 말은 주로 조.(아니 말은 주로 조.)
101008 @ 예.(예.)
101008 #1 조 갈민 조를 갈민 꼭 밟아 줘야 뒈거든.(조 갈면 조를 갈면 꼭 밟아 줘야 되거든.)
101008 @ 예. 다시 아까 다시 ᄀᆞᆯ아준 건디 특산물 ᄀᆞ튼 거는 혹시?(예. 다시 아까 다

시 말해준 건데 특산물 같은 거는 혹시?)
101008 #1 특산물은 뭐 해녀들 뭐 잡아오는 소라가 이제 제일 많고. 소라가 어촌계 우리 해녀들 아마 이 한림읍 관내에는 제일 많을 거야.(특산물은 뭐 해녀들 뭐 잡아오는 소라가 이제 제일 많고. 소라가 어촌계 우리 해녀들 아마 이 '한림읍' 관내에는 제일 많을 거야.)
101008 @ 한림음 관내마씨?('한림읍' 관내요?)
101008 #1 ᄋᆞ.(어.)
101008 @ 그럼 그 해녀들은 몇 명 정도 잇어마씨?(그럼 그 해녀들은 몇 명 정도 있어요?)
101008 #1 한 칠팝십 명 될 걸로 아는데.(한 칠팔십 명 될 걸로 아는데.)
101008 @ 해녀라고 헤마씨? 줌녀라고 안 헤마씨?(해녀라고 해요? '줌녀'라고 안 해요?)
101008 #1 어? 줌녀 줌녀들이.(어? 해녀 해녀들이.)
101008 @ 예.(예.)
101008 #1 잡아오는 그것이 특산물들로는 이제 소라가 제일 ᄋᆞ 구젱기가 제일 많고.(잡아오는 그것이 특산물들로는 이제 소라가 제일 어 '구젱기'가 제일 많고.)
101008 @ 예.(예.)
101008 #1 그다음에는 뭐 그 때에 따라 가지고 말이지 그 무슨 뭐 다 구살.(그다음에는 뭐 그 때에 따라 가지고 말이지 그 무슨 뭐 다 성게.)
101008 @ 구살.(성게.)
101008 #1 성게.(성게.)
101008 @ 예.(예.)
101008 #1 성게라고도 허지만 구살을 많이 헤 가지고 그 주로 그거를 많이 하면은 해녀들도 돈 하영 벌고 경 허주게.(성게라고도 하지만 '구살'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주로 그거를 많이 하면 해녀들도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지.)
101008 @ 아 기꽝? 여기는 해녀학교 ᄀᆞ튼 거 엇인가마씨?(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해녀학교 같은 거 없어요?)
101008 #1 해녀학교는 귀덕이리[25]에 잇곡.(해녀학교는 '귀덕이리'에 있고.)
101008 @ 예.(예.)
101008 #1 여기에 처음 이장 당시에 여기 하라고 하니까 안 헤버리니까 귀덕으로 가 가지고 귀덕에 지금 해녀 학교가 잇곡 여기는 엇어 여기는 저 썩은개[26]라고 헤 가지고.(여기에 처음 이장 당시에 여기 하라고 하니까 안 해버리니까 '귀덕'으로 가 가지고 '귀덕'에 지금 해녀 학교가 있고 여기는 없어 여기는 저 '썩은개'라고 해 가지고.)
101008 @ 썩은개?('썩은개'?)
101008 #1 ᄋᆞ. 썩은개라 옹포허고 협재허고 그 사이가 썩은개거든.(어. '썩은개'라 옹

25) '귀덕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26) '썩은개'는 옹포리와 협재리 사이에 있는 작은 만을 의미한다.

포하고 협재하고 그 사이가 ‘썩은개’거든.)
101008 @ 서근개가 아니고 썩은개?(‘서근개’가 아니고 ‘썩은개’?)
101008 #1 ᄋᆞ. 원래는 서근겐디 우리 여기서는 썩은개 썩은개 헤서.(어. 원래는 ‘서근개’인데 우리 여기서는 ‘썩은개’ ‘썩은개’ 해서.)
101008 @ 아.(아.)
101008 #1 개가 썩어서 말이지 그거 던져 버려 가지고 썩은개라고 헷다는 말이 잇어.(개가 썩어서 말이지 그거 던져 버려 가지고 ‘썩은개’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
101008 @ 그거 물어보젠 헷인디.(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101008 #1 썩은겐디 원래 명칭은 서근개주게.(‘썩은개’인데 원래 명칭은 ‘서근개’이지.)
101008 @ 아.(아.)
101008 #1 근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썩은개 썩은개 허거든. 썩은개 가기 전에 그 옹포 그 그 당동산이라는 그 동산이 잇인데.(근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썩은개’ ‘썩은개’ 하거든. ‘썩은개’ 가기 전에 그 옹포 그 그 ‘당동산’이라는 그 동산이 있는데.)
101008 @ 당동산마씨?(‘당동산’이요?)
101008 #1 ᄋᆞ 당동산 그것이 옹포에서 제일 높은 동산이 잇인디.(어 ‘당동산’ 그것이 옹포에서 제일 높은 동산이 있는데.)
101008 @ 아.(아.)
101008 #1 당동산.(‘당동산’.)
101008 @ 예.(예.)
101008 #1 거 거기가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말이지 버스 ᄀᆞ튼 거라던가 이렇게 헤 가지고 차 올라갈 때는 뒤에 들아졍 당동산에 가민 차 차가 힘이 엇어 가지고 걸어가다 헐 때 톡 내리고 허는 그 동산이거든.(거 거기가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말이지 버스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차 올라갈 때는 뒤에 매달려서 ‘당동산’에 가면 차 차가 힘이 없어 가지고 걸어가다 할 때 톡 내리고 하는 그 동산이거든.)
101008 @ 아.(아.)
101008 #1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다 평지 뒈다시피 헤 가지고 그 당동산 그 그 주위에 일본 말이지 아 일본이 아니고 몽고족들이 들어와 가지고.(이제는 뭐 어느 정도 다 평지 되다시피 해 가지고 그 ‘당동산’ 그 그 주위에 일본 말이지 아 일본이 아니고 몽고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101008@ 예.(예.)
101008 #1 이듸 와 가지고 막 그 저기 뭐 부녀자를 뭐 강간허고 말이여 막 그 저기 뭐 몽고놈들이 와 가지고 많이 겁탈허고 약탈헤 가고 말이지 헤 가지고 몽고 사람이 죽은 거를 거기다 당동산에 묻어.(여기 와 가지고 막 그 저기 뭐 부녀자를 뭐 강간하고 말이야 막 그 저기 뭐 몽고놈들이 와 가지고 많이 겁탈하고 약탈해 가고 말이지 해 가지고 몽고 사람이 죽은 거를 거기다 ‘당동산’에 묻어.)

101008 @ 예.(예.)
101008 #1 묻은 묻는 일화가 잇어.(묻은 묻는 일화가 있어.)
101008 @ 예.(예.)
101008 #1 게 이제 하도 여기서도 뭐 말 안 듣고 말이지 뭐 ᄒᆞ고 하면은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ᄆᆞᆼ근놈 이렌 헤 가지고 그렇게 몽고놈이 와서 말이야 약탈허고 부녀자를 강간허고 못살게 헷다고 해.(그럼 이제 하도 여기서도 뭐 말 안 듣고 말이지 뭐 하고 하면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ᄆᆞᆼ근놈'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몽고놈이 와서 말이야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못살게 했다고 해.)
101008 @ 옛날에 몽고사람들이.(옛날에 몽고사람들이.)
101008 #1 ᄋᆞ 몽고족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우리 여기가 포구가 아주 좋다고 헷잖아?(어 몽고족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우리 여기가 포구가 아주 좋다고 했잖아?)
101008 @ 예.(예.)
101008 #1 게니깐 글로 들어와 가지고 이 근방에 뭐 무슨 농산물도 약탈헤 가곡 뭐고 전부 다 허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말이야 배와준 것도 말이야 밧농사 할 때는 말이지 구루마라고 헤 가지고.(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 근방에 뭐 무슨 농산물도 약탈해 가고 뭐고 전부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말이야 배워준 것도 말이야 밭농사 할 때는 말이지 수레라고 해 가지고.)
101008 #1 짐 실을 때 반 실으면 말이야 도르래로 헤 가지고 말이여 짐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놩 그 뒤에 또 쌓고 쌓고 ᄒᆞ는 게 다 와서 몽고놈이 왕 가르켜준 거허고 ᄒᆞ여.(짐 실을 때 반 실으면 말이야 도르래로 해 가지고 말이야 짐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놔서 그 뒤에 또 쌓고 쌓고 하는 게 다 와서 몽고놈이 와서 가르쳐준 거하고 해.)
101008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1008 #1 그 몽고 사람들이 그 일을 이듸 농사일 ᄀᆞ튼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몽고 영향이 상당히 많고.(그 몽고 사람들이 그 일을 여기 농사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몽고 영향이 상당히 많고.)
101008 @ 예.(예.)
101008 #1 우리도 뭐 몽고반점인가 뭔가 헤 가지고 여기 아기 낳으면 뭐 무슨 퍼런 게 말이여 뭐 헌다는 게 그 일리가 잇인 이야기 같애.(우리도 뭐 몽고반점인가 뭔가 해 가지고 여기 아기 낳으면 뭐 무슨 파란 게 말이야 뭐 한다는 게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
101008 @ 그면 특산물 ᄀᆞ튼 거는 옛날에 다른 마을로 팔거나 그런 거 허는 거는 엇언마씨?(그러면 특산물 같은 거는 옛날에 다른 마을로 팔거나 그런 거 하는 거는 없었어요?)
101008 #1 인제 특산물로 뭐 무슨 파는 거는 농산물로 뭐 무슨 고구마 ᄀᆞ튼 거 헤 가지고 전분공장에다가 팔곡.(인제 특산물로 뭐 무슨 파는 거는 농산물로 뭐 무슨 고구마 같은 거 해 가지고 전분공장에다가 팔고.)
101008 @ 전분공장.(전분공장.)

101008 #1 그거는 뭐 생계로 유지허는 걸로 잇엇고 옛날에는 여기 그 저 대동식품공업주식 주식훼사라고 헤 가지고.(그거는 뭐 생계로 유지하는 걸로 있었고 옛날에는 여기 그 저 대동식품 공업주식 주식회사라고 해 가지고.)

101008 @ 대동식품 주식훼사마씨?(대동식품 주식회사요?)

101008 #1 ᄋᆞ 그 저기 통조림공장이라고 허민 알 거야.(어 그 저기 통조림공장이라고 하면 알 거야.)

101008 @ 예.(예.)

101008 #1 거기에서 그 고등어 전갱이 각제기.(거기에서 그 고등어 전갱이 '각제기'.)

101008 @ 네.(네.)

101008 #1 이런 것들 말이여 가졍 와 가지고 말이여 이 한림읍 근방에 잇인 여자들 말이여 거기 가 가지고 전부 다 그 작업헤 가지고 대가리는 자르고 그 저 몸뚱이만 통조림 헤 가지고 군납.(이런 것들 말이야 가져서 와 가지고 말이야 이 '한림읍' 근방에 잇인 여자들 말이야 거기 가 가지고 전부 다 그 작업해 가지고 대가리는 자르고 그 저 몸뚱이만 통조림 해 가지고 군납.)

101008 @ 네.(네.)

101008 #1 일본 공장이엇거든 그 때 다께나까라고 헤 가지고 거기서 그걸 군수물자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여 동남아로 말이여 다 나가고 막 그 때 일본 전쟁 할 때니까 군수물자로 나가고 헤 가지고는 거기서 그걸 할 적에는 통조림 고등어 전갱이 뭐 무슨 소 뭐 무슨.(일본 공장이었거든 그 때 다께나까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군수물자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동남아로 말이야 다 나가고 막 그 때 일본 전쟁 할 때니까 군수물자로 나가고 해 가지고는 거기서 그거를 할 적에는 통조림 고등어 전갱이 뭐 무슨 소 뭐 무슨.)

101008 @ 소마씨?(소요?)

101008 #1 ᄋᆞ 소도 통조림 헷고 다꽝 ᄀᆞ튼 거 무 단무지로 하는 거 말이지 톳 공장 뭐 무슨 말이지 여러 가지를 거기서 가공헤 가지고.(어 소도 통조림 했고 단무지 같은 거 무 단무지로 하는 거 말이지 톳 공장 뭐 무슨 말이지 여러 가지를 거기서 가공해 가지고.)

101008 @ 아 톳도 헷수광?(아 톳도 했습니까?)

101008 #1 ᄋᆞ 톳 가공 공장도 헤 가지고.(어 톳 가공 공장도 해 가지고.)

101008 @ 예.(예.)

101008 #1 톳도 통조림 헤 가지고 일본 그 저기 군수물자로 다 나갓어.(톳도 통조림 해 가지고 일본 그 저기 군수물자로 다 나갔어.)

101008 @ 그런 것도 특산물 뒐 것 ᄀᆞ튼 데마씨?(그런 것도 특산물 될 것 같은 데요?)

101008 #1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때는 그 그래서 한 쪽으로는 톳 마당이라고 헤서 톳을 건조헤 가지고 말이지.(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때는 그 그래서 한 쪽으로는 톳 마당이라고 해서 톳을 건조해 가지고 말이지.)

101008 @ 예.(예.)
101008 #1 그거 저기 저 그 크게 헷는데 이제는 그 저 섬 청정 섬마을이라고 헤 가지고 이제는 수산물 말이여 가공공장 거기 들어서 가지고는.(그거 저기 저 그 크게 했는데 이제는 그 저 섬 청정 섬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는 수산물 말이야 가공공장 거기 들어서 가지고는.)
101008 @ 아.(아.)
101008 #1 엇고.(없고.)
101008 @ 지금은 없고마씨?(지금은 없고요?)
101008 #1 응. 게난 거기다가 공장이 잇엇인디 그 옆에는 얼음 공장 그 권남다리 물이 다리 물이 좋아서 그 물 받아서 얼음 만들어 가지고 그 저 한림항에 말이지 그 고기 잡는 배에도 이렇게 허고.(어 그러니 거기다가 공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얼음 공장 그 '권남다리' 물이 다리 물이 좋아서 그 물 받아서 얼음 만들어 가지고 그 저 한림항에 말이지 그 고기 잡는 배에도 이렇게 하고.)
101008 @ 아 얼음 공장 잇언마씨?(아 얼음 공장 있었어요?)
101008 #1 응.(어.)
101008 @ 지금은 없지예?(지금은 없지요?)
101008 #1 지금은 없지 그거는 인제 대원공업사라고 헤 가지고.(지금은 없지 그거는 인제 대원공업사라고 해 가지고.)
101008 @ 예.(예.)
101008 #1 여기서 산 자리가 그 얼음 공장 자리주.(여기서 산 자리가 그 얼음 공자 자리이지.)
101008 @ 음.
101008 #1 그것도 대원공업사도 거 대동식품 공업 그 통조림 공장이엇어. 그 조그마하게 얼음 공장은 크진 않앗고 그 옆에다가 동아물산이라고 헤서 그 저기 저 뭐꼬 감자 고구마 전분공장 있엇고 앞에는 동진 산업이라서 전분공장 있엇고 요 마을 밑으로는 제약 훼사라고 헤 가지고 그 감태 미역 이런 걸 원료로 헤 가지고 옥도진기 그런 걸 만드는 이런 공장이 옹포에 잇어서 이쪽에는 공업 지구가 조금 형성 되어 잇곡.
101008 @ 예.(예.)
101008 #1 요쪽에는 그 서민들이 쫌 살고.(요쪽에는 그 서민들이 좀 살고.)
101008 @ 그니깐 농산물 ᄀᆞ튼 거는 생계로 팔앗잖아예?(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거는 생계로 팔았잖아요?)
101008 #1 응.(어.)
101008 @ 그면 해산물 ᄀᆞ튼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생계로 팔겟지만.(그러면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생계로 팔겠지만.)
101008 #1 응.(어.)
101008 @ 여기 옹포니까 좋은 게 구젱기.(여기 옹포니까 좋은 게 소라.)
101008 #1 응.(어.)

101008 @ 전복 ᄀᆞ튼 건 엇인가마씨?(전복 같은 건 없었어요?)
101008 #1 전복 ᄀᆞ튼 거는 인제 힘들지.(전복 같은 거는 인제 힘들지.)
101008 @ 아.(아.)
101008 #1 자연산은.(자연산은.)
101008 @ 예.(예.)
101008 #1 대량으로 나오지 않고.(대량으로 나오지 않고.)
101008 @ 조금 나오지예?(조금 나오지요?)
101008 #1 조금 나오지. 해녀들 한 팔십 명 가면.(조금 나오지. 해녀들 한 팔십 명 가면.)
101008 @ 예.(예.)
101008 #1 많이 뭐 다 모여야 한 일키로 정도 나오나 마나야 지금은 이제 워낙 그게 이제 고갈뒈다시피 이제 잡아 버리고 하니깐 이제 그 해녀들도 금채기라고 혜 가지고 말이지 유월 달로부터 시월 달ᄁᆞ지는 바다에 들어가서.(많이 뭐 다 모여야 한 일키로 정도 나오나 마나야 지금은 이제 워낙 그게 이제 고갈되다시피 이제 잡아 버리고 하니깐 이제 그 해녀들도 금채기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 유월 달로부터 시월 달까지는 바다에 들어가서.)
101008 @ 못 잡지예?(못 잡지요?)
101008 #1 ᄋᆞ. 해녀들 잡지도 못 허게 지금 이제 금채기간이라 나가지 않주.(어. 해녀들 잡지도 못 하게 지금 이제 금채기간이라 나가지 않지.)
101008 @ 아 지금 금채기꽝?(아 지금 금채기입니까?)
101008 #1 ᄋᆞ.(어.)
101008 @ 그럼 금채기 때는 밧일 보통 허지예?(그럼 금채기 때는 밭일 보통 하지요?)
101008 #1 어?(어?)
101008 @ 좀녀들.(해녀들.)
101008 #1 어. 해녀들을 주로이.(어. 해녀들은 주로.)
101008 @ 예.(예.)
101008 #1 뭐 이듸서 수산 수산업 협동조합에 고등어 일 ᄀᆞ튼 거나 아니면 이 우에 그 골프장 그 잔디밧 검질멘다든지 말이지 뭐 이런.(뭐 여기서 수산 수산업 협동조합에 고등어 일 같은 거나 아니면 이 위에 그 골프장 그 잔디밭에 김맨다든지 말이지 뭐 이런.)
101008 @ 아 위에 골프장 생견마씨?(아 위에 골프장 생겼어요?)
101008 #1 어?(어?)
101008 @ 골프장 잇어마씨?(골프장 있어요?)
101008 #1 골프장 다니주게 옹포 여자 인제 그듸.(골프장 다니지 옹포 여자 인제 거기.)
101008 @ 아.(아.)

101008 #1 일이 엇이난 이제.(일이 없으니까 이제.)
101008 @ 그쪽으로?(그쪽으로?)
101008 #1 농한기로 인제 헤 가지고는 거기 가서 일도 허고 뭐 그런 정도지.(농한기로 인제 해 가지고는 거기 가서 일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이지.)
101008 @ 음.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장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션마씨?(음.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이장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101008 #1 나 이장이 요기 저 칠십 칠년에서 칠십 구년인가?(나 이장이 요기 저 칠십 칠년에서 칠십 구년인가?)
101008 @ 아 저기 잇네예.(아 저기 있네요.)
101008 #1 어.(어.)
101008 @ 기구나예.(그렇군요)
101009 @ 그럼 마을 자랑거리 좀 잘 아시겟다예 마을 자랑 좀.(그럼 마을 자랑거리 좀 잘 아시겠군요. 마을 자랑 좀.)
101009 #1 마을 자랑이야 뭐 무슨 뭐 나가 그 때 이장 새마을 지도자 하다가.(마을 자랑이야 뭐 무슨 뭐 내가 그 때 이장 새마을 지도자 하다가.)
101009 @ 예.(예.)
101009 #1 그 새마을 훈장 협동장 받으러 올라가 가지고는.(그 새마을 훈장 협동장 받으러 올라가 가지고는.)
101009 @ 예.(예.)
101009 #1 대통령 하사금으로 그때 사백만원이믄 그게 지금 한 사억 정도 뒈는 돈일 거야.(대통령 하사금으로 그때 사백만원이면 그게 지금 한 사억 정도 되는 돈일 거야.)
101009 @ 많다예.(많군요.)
101009 #1 한 칠십 년도에 강 받아 왓으니까.(한 칠십 년도에 가서 받아 왔으니까.)
101009 @ 예.(예.)
101009 #1 게난 받아와 가지고 숙원 사업이 뭐냐 게난.(그러니 받아와 가지고 숙원 사업이 뭐냐 그러니.)
101009 @ 예.(예.)
101009 #1 우리 옹포리가 반농반어지만 에 해녀들이 말이여 비양도 근해에 강 해산물을 채취허는데 배가 작아가지고 위험성이 많다.(우리 옹포리가 반농반어지만 에 해녀들이 말이야 '비양도' 근해에 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배가 작아가지고 위험성이 많다.)
101009 @ 음.(음.)
101009 #1 이걸 좀 큰 걸로 저 동력으로 하나 말이야 크게 지어 달라 헤 가지고 그게 옹포호라고 대통령 하사선이엔 헤 가지고.(이걸 좀 큰 걸로 저 동력으로 하나 말이야 크게 지어 달라 해 가지고 그게 옹포호라고 대통령 하사선이라고 해 가지고.)
101009 @ 아 옹포호가 잇어마씨?(아 옹포호가 있어요?)
101009 #1 으. 옹포호가 이제 또 그 명목은 유지뒈는데.(어. 옹포호가 이제 또 그 명

목은 유지되는데.)
101009 @ 예.(예.)
101009 #1 이제 대통령 하사선이라는 그거는 다 엇어지고.(이제 대통령 하사선이라는 그거는 다 없어지고.)
101009 @ 예.(예.)
101009 #1 이제 크게 해녀들 실러 뎅기는 게 오톤 정도 뭔 큰 배로 실러 다니곤 허주게.(이제 크게 해녀들 실어 다니는 게 오통 정도 된 큰 배로 실어 다니곤 하지.)
101009 @ 여긴 뭐 살기에는 좋지 않아마씨? 옹포는?(여기는 뭐 살기에는 좋지 않아요? 옹포는?)
101009 #1 어?(어?)
101009 @ 요즘엔 웨지 사람들 많이 안 들어와마씨?(요즘에는 외지 사람들 많이 안 들어와요?)
101009 #1 아 웨지 사람들은 벨로 안 들어오고 저쪽에 그 저기 저 그 아파트가 저쪽 옹포 끄트머리 정도에 잇인디.(아 외지 사람들은 별로 안 들어오고 저쪽에 그 저기 저 그 아파트가 저쪽 옹포 끄트머리 정도에 있는데.)
101009 @ 예.(예.)
101009 #1 그듸 사람들은 건줌 다 여기 옹포 사람들이 아니고 웨지 사람들이 와서 살고.(거기 사람들은 거의 다 여기 옹포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살고.)
101009 @ 아 아파트에는?(아 아파트에는?)
101009 #1 어 아파트는 여기는 순수한 저 여기 저 토종 뭐 토박이들만 여기 살고.(어 아파트는 여기는 순수한 저 여기 저 토종 뭐 토박이들만 여기 살고.)
101009 @ 무슨 동에 사람들 제일 많이 살멘마씨?(무슨 동에 사람들 제일 많이 살아요?)
101009 #1 금정동[27]이라고 헤서.(금정동이라고 해서.)
101009 @ 예.(예.)
101009 #1 대화동[28] 중화동[29] 금정동으로 세 개 동으로 나뉘거든?(대화동 중화동 금정동으로 세 개 동으로 나뉘거든?)
101009 @ 아 동이 세 개마씨?(아 동이 세 개에요?)
101009 #1 어. 대화동은 워낙 공업지구라서.(어. 대화동은 워낙 공업지구라서.)
101009 @ 예.(예.)
101009 #1 사람들이 별로 엇주게.(사람들이 별로 없지.)
101009 @ 예.(예.)
101009 #1 거긴 크게 공장지대들만 많이 잇으니깐.(거기는 크게 공장지대들만 많이 있으니까.)
101009 @ 거기 입구 쪽에?(거기 입구 쪽에?)

27) 금정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옹포리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28) 대화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옹포리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29) 중화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옹포리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101009 #1 어 곧 들어오는 디가 거기고 여기 여기가 중화동. 저쪽에는 이제 바다이야기나 뭐 식당 독개물항들이라든가 이런 뭐 아주 말이지 그 뭐 해산물들도 오면 직접 말이야 거기서 비양도에서 온 거 산 것들도 바로 집어넣어그넹 말이야.(어 곧 들어오는 데가 거기고 여기 여기가 중화동. 저쪽에는 이제 바다이야기나 뭐 식당 '독개물항'들이라든가 이런 뭐 아주 말이지 그 뭐 해산물들도 오면 직접 말이야 거기서 '비양도'에서 온 거 산 것들도 바로 집어넣어서 말이야.)

101009 @ 아 저기서마씨?(아 저기서요?)

101009 #1 어. 그렇게 헤 가지고는 거기가 이제 옹포에서 제일 명동 ᄀᆞ치 그렇게 돼 버렷주. 옛날은 대화동일 젤 사람도 많고.(어. 그렇게 해 가지고는 거기가 이제 옹포에서 제일 명동 같이 그렇게 돼 버렸지. 옛날은 대화동이 제일 사람도 많고.)

101009 @ 예.(예.)

101009 #1 살기가 좋고 이렇게 헷는데 이제는 바꿔져 버렷어 시대가 거꾸로.(살기가 좋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꿔져 버렸어 시대가 거꾸로.)

101009 @ 아 저쪽으로.(아 저쪽으로.)

101009 #1 어. 이쪽 이제는 손님들도 많이 가고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식사도 거기서 대부분 큰 식당들도 거기 강 잇곡 헤서 이렇게 헤 가지고.(어. 이쪽 이제는 손님들도 많이 가고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식사도 거기서 대부분 큰 식당들도 거기 가서 있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01009 @ 그 밧 ᄀᆞ튼 거는 중화동 이쪽에 잇어마씨?(그 밭 같은 거는 중화동 이쪽에 있어요?)

101009 #1 어 게. 이야기 헷지마는 여기 우쪽도 건줌 다 옥토가 아니고.(어 그럼. 이야기 했지만 여기 위쪽도 거의 다 옥토가 아니고.)

101009 @ 예.(예.)

101009 #1 그 지반이 암반이라 빌레. 빌레 위에 흑 호꼼씩 놓아가지고.(그 지반이 암반이라 '빌레'. '빌레' 위에 흙 조금씩 놓아가지고.)

101009 @ 한 거니까.(한 거니까.)

101009 #1 어 그러니까 뭐 농사도 크게 짓지 못 허곡 이제 여기서 ᄒᆞ는 사람은 이제 저 우쪽으로 강 금악 쪽이나 명월 쪽이나 가서 밧 ᄀᆞ튼 거 빌엉 특수작물 허는 사람들은.(어 그러니까 뭐 농사도 크게 짓지 못 하고 이제 여기서 하는 사람은 이제 저 위쪽으로 가서 '금악' 쪽이나 명월쪽이나 가서 밭 같은 거 빌려서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은.)

101009 @ 아 금악이나 명월까지 가 가지고?(아 '금악'이나 명월까지 가 가지고?)

101009 #1 어. 이쪽에는 농토라고 헤 가지고 크게 삼천 평 오천 평 만 평 이렇게 할 밧이 엇어. 이렇게 흑 놔그넹 마늘이나 고추 심어서 먹을 밧이지.(어. 이쪽에는 농토라고 해 가지고 크게 삼천 평 오천 평 만 평 이렇게 할 밭이 없어. 이렇게 흙 놓아서 마늘이나 고추 심어서 먹을 밭이지.)

101009 @ 팔아그넹 먹기에는 적겟다예? 밧이 좁아 부난.(팔아서 먹기에는 적겠군요? 밭이 좁아 버리니까.)

101009 #1 아니 이제는 그런 것이 더 돈을 줘 이제는.(아니 이제는 그런 것이 더 돈을 줘 이제는.)
101009 @ 아 그런 것이마씨?(아 그런 것이요?)
101009 #1 협재 ᄀᆞ튼 데는 옛날에 돈 십 만원 하는 모살왓은 이제 빌레 ᄀᆞ튼 거 잇인 이제 암반 ᄀᆞ튼 거 잇인 데는 십 만원이 삼백 만원 평당 말이여 줘도 못 산다 ᄒᆞ여. 그 아래는 평당 천 만원이라 해수욕장 잇인 데는.(협재 같은 데는 옛날에 돈 십 만원 하는 모래밭은 이제 '빌레' 같은 거 있는 이제 암반 같은 거 있는 데는 십 만원이 삼백 만원 평당 말이야 줘도 못 산다해. 그 아래는 평당 천 만원이야 해수욕장 있는 데는.)
101009 @ 아 그쪽에는.(아 그쪽에는.)
101009 #1 어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 져불고 그쪽에 이름 옹텡이라고 허는디 옹텡이 옹텡이옌.(어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 져버리고 그쪽에 이름 옹당이라고 하는데 옹당이 옹당이라고.)
101009 @ 옹텡이가 뭐꽝?(옹당이가 뭐입니까?)
101009 #1 옹텡이 이거 말하자면 도랑 이렇게 잇인 것을 옹텡이라 허주게 사투리로.(옹당이 이거 말하자면 도랑 이렇게 있는 것을 옹당이라 하지 사투리로.)
101009 @ 예.(예.)
101009 #1 옹텡이에 영 흑 놓아 가지고 말이여 ᄒᆞ여 먹는 거는 옛날에 돈도 주지 않앗인디.(옹당이에 이렇게 흙 놓아가지고 말이야 해 먹는 거는 옛날에 돈도 주지 않았는데.)
101009 @ 음.(음.)
101009 #1 뭐 무슨 뭐 돈 만원이라도 주면 말이여 팔 정도로 그런 것들이 밧이 넓지 않고.(뭐 무슨 뭐 돈 만원이라도 주면 말이야 팔 정도로 그런 것들이 밭이 넓지 않고.)
101009 @ 예.(예.)
101009 #1 그런 암반 위에 흑 쪼금 잇이면 흑 손으로 모여다그넹 거기다가 조금 허고 옹텡이는 옹텡이 데로 그렇게 농사 헤낫지. 이제는 뭐 그런 옹텡이도 흑을 몇 차 부어 놔서 하면은.(그런 암반 위에 흙 조금 있으면 흙 손으로 모아다가 거기다가 조금 하고 옹당이는 옹당이 데로 그렇게 농사 했었지. 이제는 뭐 그런 옹당이도 흙을 몇 차 부어 놔서 하면은.)
101009 @ 예.(예.)
101009 #1 그 이제 요새는 퉤비도 좋고 농사도 잘 뒈고 허난 경 허주게.(그 이제 요새는 퇴비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101009 @ 어르신 어렷을 때는 그때는 밧농사 좀 하지 않안마씨?(어르신 어렸을 때는 그때는 밭농사 좀 하지 않았어요?)
101009 #1 그러니까 반농반어를 허는데 주로 이 바다에서 많이 그 생활허는 돈을.(그러니까 반농반어를 하는데 주로 이 바다에서 많이 그 생활하는 돈을.)
101009 @ 예.(예.)
101009 #1 조금 말이지 헷지. 농사지어 가지고는 자기네 먹을 정도라.(조금 말이지

했지. 농사지어 가지고는 자기네 먹을 정도야.)
101009 @ 팔 정도는 아니고?(팔 정도는 아니고?)
101009 #1 팔 정도는 아니고 보리나 조나 감자나 세 가지 헷거든 옛날에 여기는 딴 거는 허지 못 헤. 농사가 벼도 못 ᄒᆞ고 딴 거 할 수가 엇어 가지고 주로 보리 조 고구마 이 세 개만 허면서.(팔 정도는 아니고 보리나 조나 감자나 세 가지 했거든 옛날에 여기는 다른 거는 하지 못 해. 농사가 벼도 못 하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주로 보리 조 고구마 이 세 개만 하면서.)
101009 @ 아 보리 조 고구마.(아 보리 조 고구마.)
101009 #1 어 보리 조 고구마만 하면서 감자는 그나마 공장이 잇으니까 공장에 팔아서 아이들 학자금도 말이여 조금 벌고 헷엇주.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아이들 호꼼씩 주고.(어 보리 조 고구마만 하면서 감자는 그나마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에 팔아서 아이들 학자금도 말이야 조금 벌고 했었지.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아이들 조금씩 주고.)
101009 @ 예.(예.)
101009 #1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정 상비돈으로 사용허고 보리허고 조는 완전히 주식.(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가져서 상비돈으로 사용하고 보리하고 조는 완전히 주식.)
101009 @ 음.(음.)
101009 #1 그렇게 헤서 살앗거든.(그렇게 해서 살았거든.)
101009 @ 그럼 거의 옹포리는 어촌마을이지예?(그럼 거의 옹포리는 어촌마을이지요?)
101009 #1 그 어촌마을로 보면 말이지 원래 반농반어지마는.(그 어촌마을로 보면 말이지 원래 반농반어지만.)
101009 @ 예.(예.)
101009 #1 바당일 그듸 속헤 잇인 사람들이 바다 쪽이 많앗주게.(바다일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다 쪽이 많았지.)
101009 @ 기구나예.(그렇군요.)
101009 #1 농사는 별로 이제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별로 엇고.(농사는 별로 이제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별로 엇고.)
101009 @ 별로 엇지예?(별로 없지요?)
101009 #1 어.(어.)
101010 @ 그면 이밧긔도 마을에 대헤서 어르신 뭐 허고 싶은, 소개허고 싶은 얘기나 뭐 그런 거 없을까마씨?(그러면 이밖에도 마을에 대해서 어르신 뭐 하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얘기나 뭐 그런 거 없을까요?)
101010 #1 옹포리는 내가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로 봐서 별로 건줌 다 갖추어 있지마는.(옹포리는 내가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로 봐서 별로 거의 다 갖추어 있지만.)
101010 @ 예.(예.)
101010 #1 여기에다가 말이야 목욕탕이라든가.(여기에다가 말이야 목욕탕이라든가.)

101010 @ 예.(예.)
101010 #1 저기 저 해녀들은 바다에 갓당 오민 자체적으로 자기들 목욕탕이 말이여 전기로 꼽앙 물 데워그넹 그런 거는 해녀들은 웨어 잇인데 이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하나 여기라도 잇으면.(저기 저 해녀들은 바다에 갔다가 오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목욕탕이 말이야 전기로 꼽아서 물 데워서 그런 거는 해녀들은 되어 있는데 이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하나 여기라도 있으면.)
101010 @ 예.(예.)
101010 #1 옹포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좀 어디 멀리 못 가서 목욕허고 싶어도 겨울에 추워그넹.(옹포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좀 어디 멀리 못 가서 목욕하고 싶어도 겨울에 추워서.)
101010 @ 예.(예.)
101010 #1 겨울에만 삼 개월? 한 삼사 개월 뭐 이렇게 운영헐 수 잇인 목욕탕이 하나 잇엇으면 뭐 좋지 않은가 나 생각엔.(겨울에만 삼 개월? 한 삼사 개월 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목욕탕이 하나 있었으면 뭐 좋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101010 @ 아 목욕탕은 옹포에 엇어마씨?(아 목욕탕은 옹포에 없어요?)
101010 #1 목욕탕은 엇어 이제 한림.(목욕탕은 없어 이제 '한림'.)
101010 @ 나가야 뒈마씨?(나가야 되요?)
101010 #1 ᄋᆞ 한림 나가야 뒈고 협재도 한림 가야 뒈고 금릉은 거기 뭐 무신 호텔에 사우나를 말이야 노인들은 할인 받을 수 잇다고 허는데 나도 한 번 가 봣인디 그런 문화 그런 사람 그 저기 목욕탕 정도만 하나 잇이면 병원 ᄀᆞ튼 거는 바로 옆에.(어 '한림' 나가야 되고 협재도 '한림' 가야 되고 '금릉'은 거기 뭐 무슨 호텔에 사우나를 말이야 노인들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 번 가 봤는데 그런 문화 그런 사람 그 저기 목욕탕 정도만 하나 있으면 병원 같은 거는 바로 옆에.)
101010 @ 그거 물어보젠 헷인디 병원은 가까운 데 잇어마씨?(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병원은 가까운 데 있어요?)
101010 #1 어 여기 한림에 병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의원들도 잇곡 병원이 한 스무 개 정도 잇으니까.(어 여기 '한림'에 병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의원들도 있고 병원이 한 스무 개 정도 있으니까.)
101010 @ 하긴 한림이랑 제일 붙어 잇인 게 옹포리지예?(하긴 '한림'이랑 제일 붙어 있는 게 옹포리지요?)
101010 #1 어 내가 보기에도 우리는 한림읍 관내에서 이만한 뭐 마을 공동 재산을 갖고 잇다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어 내가 보기에도 우리는 '한림읍' 관내에서 이만한 뭐 마을 공동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101010 @ 음.(음.)
101010 #1 이딘 제주도에서도 몇 번째 안 갈 거라.(여기는 제주도에서 몇 번째 안 갈 거야.)
101010 @ 요 옆에 노인 요양원? 그런 것도 잇인 거.(요 옆에 노인 요양원? 그런 것

도 있는 거.)
101010 #1 그거는 개인적으로 허는 거고. 우리가 뭐 마을에서 직접 운영허는 거는 엇어. 목욕탕 ᄀᆞ튼 거나 정부에서 하나 헤 줫으면.(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뭐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없어. 목욕탕 같은 거나 정부에서 하나 해 줬으면.)
101010 @ 어르신 예전에 경로당 없엇을 때는 폭낭이나.(어르신 예전에 경로당 없었을 때는 팽나무나.)
101010 #1 쉼터?(쉼터?)
101010 @ 예 쉼터.(예 쉼터.)
101010 #1 쉼터 ᄀᆞ튼 거는 동네마다 저 건줌 다 요쪽에 내려가민 폭낭 잇어서 거기서 앚아서 얘기헤낫어.(쉼터 같은 거는 동네마다 저 거의 다 요쪽에 내려가면 팽나무 있어서 거기서 앉아서 얘기했었어.)
101001 #2 이 녹음은 허믄 무슨 말부터 들을 거? 밧에 허는 거?(이 녹음은 하면 무슨 말부터 들을 거? 밭에 하는 거?)
101001 @ 어, 아니 제가 물, 물어볼 거마씨.(어, 아니 제가 물, 물어볼 거예요.)
101001 #2 아, 물어볼 거.(아, 물어볼 거.)
101001 @ 그 옹포리 잇잖아예?(그 옹포리 있잖아요?)
101001 #2 예.(예.)
101001 @ 옛날은 어떵 만들어진 거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잇어마씨?(옛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101001 #2 옹포 어떻게 만들어졋냐 허면은.(옹포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101001 @ 예.(예.)
101001 #2 옛날식으로 옹포가 아니고.(옛날식으로 옹포가 아니고.)
101001 @ 예.(예.)
101001 #2 독포[30].(독포.)
101001 @ 아, 독포?(아, 독포?)
101001 #2 독포.(독포.)
101001 @ 어.(어.)
101001 #2 우리 거 퀴즈에 나와서 하르방 일등 헷거든 그거.(우리 거 퀴즈에 나와서 할아버지 일등 했거든 그거.)
101001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1001 #2 예. 독포, 독포.(예. 독포, 독포.)
101001 @ 아, 독포.(아, 독포.)
101001 #2 옹포가 아니고 동포, 독포.(옹포가 아니고 동포, 독포.)

30) 옹포리(瓮浦里)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구전에 의하면 서기 1200년초 고려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 1580년경 車씨(정착 15대), 金씨(정착 14대), 강씨 씨족들이 이주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며 하나뿐인 포구라는 뜻에서 "독개"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서기 1609년(광해군 원년) 제주판관 김치(金緻)가 방, 리 제를 실시함에 따라 "독개"를 독포리(獨浦里)라 불리게 되었다.

101001 @ 그럼 그건 언제 바뀌언마씨?(그럼 그건 언제 바뀌었어요?)
101001 #2 언제 바뀌엇는지는 잘 모르지.(언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지.)

2. 제보자 일생

102001 @ 어 두 번째로 이제 제보자 일생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 개인적인 것 좀 물어보젠마씨.(어 두 번째로 이제 제보자 일생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 개인적인 것 좀 물어보려고요.)
102001 #1 어 좋아.(어 좋아.)
102001 @ 어 낳고 자란 과정 그냥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어 낳고 자란 과정 그냥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102001 #1 으.(어.)
102001 @ 한번 편하게 골아 줍서.(한번 편하게 말해 주십시오.)
102001 #1 아니 나는 천구백 사십 이년 생으로.(아니 나는 천구백 사십 이년 생으로.)
102001 @ 예.(예.)
102001 #1 에 이 부락 옹포리 저 그 금정동이라는 그런 저 옹포리 제일 끗이 동네에서 태어나 가지고.(에 이 부락 옹포리 저 그 금정동이라는 그런 저 옹포리 제일 끝에 동네에서 태어나 가지고.)
102001 @ 금정동마씨?(금정동요?)
102001 #1 어, 금정동.(어, 금정동.)
102001 @ 예.(예.)
102001 #1 금정동에서 태어나 가지고 한 열 한두 살 즈음 대화동으로 지금 이사와 가지고 지금 현재 사는 데서 살다그넹.(금정동에서 태어나 가지고 한 열 한두 살 즈음 대화동으로 지금 이사와 가지고 지금 현재 사는 데서 살다가.)
102001 @ 예.(예.)
102001 #1 한림초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한림중학교 나와서 제주오현고등학교 졸업헤 가지고 대한민국 해군에 강 삼년 간 근무하다가 인제 그 제대헤서 돌아와서 풍천산업이라는 그 구루마 공장에서 한 몇 년간 일허다가.(한림초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한림중학교 나와서 제주오현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대한민국 해군에 가서 삼년 간 근무하다가 인제 그 제대해서 돌아와서 풍천산업이라는 그 수레 공장에서 한 몇 년간 일하다가.)
102001 @ 예.(예.)
102001 #1 인제 그 왜 수협이라는 곳에 그 수협 수산업 협동조합에.(인제 그 왜 수협이라는 곳에 그 수협 수산업 협동조합에.)
102001 @ 예.(예.)
102001 #1 입문헹 칠십 년대 초반까지인가? 칠십 년도 초반까지 수협에 잇당.(입문해

서 칠십 년대 초반까지인가? 칠십 년도 초반까지 수협이 있다가.)
102001 @ 예.(예.)
102001 #1 축협이 여기 저 그 축산물 공판장이라고 소 돼지 ᄀᆞ튼 거 잡는 그 축산물 공판장 축협에 들어강 거기서 이제 그 근무허당 뭐 경매사 자격증도 따고 그 뭐 축협에서 이제 거기 잇당 이제는 또 한림지소로 발령 받아그넹 한림지소에서 그걸로 정년퇴임헤 가지고.(축협이 여기 저 그 축산물 공판장이라고 소 돼지 같은 거 잡는 그 축산물 공판장 축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근무하다가 뭐 경매사 자격증도 따고 그 뭐 축협에서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는 또 한림지소로 발령 받아서 한림지소에서 그걸로 정년되임해 가지고.)
102001 @ 한림제소마씨?(한림제소요?)
102001 #1 어?(어?)
102001 @ 한림 뭐마씨?(한림 뭐요?)
102001 #1 한림지소.(한림지소.)
102001 @ 아. 한림지소.(아. 한림지소.)
102001 #1 ᄋᆞ 한림지소에서 근무하당 저 헤 가지고는 그만 뒷고. 뭐 중간에 뭐 그 이장 겸 새마을 지도자를 헤서 이 부락 발전헐 수 잇인 원동력의 기초를 닦으곡 그다음에 좀 새마을 훈장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때 십이륙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기로 뒈어 잇엇인디 그때 십이륙 나 가지고 못 받아그넹.(어 한림지소에서 근무하다가 저 해 가지고는 그만 뒀고. 뭐 중간에 뭐 그 이장 겸 새마을 지도자를 해서 이 부락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의 기초를 닦고 그다음에 좀 새마을 훈장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때 십이륙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십이륙 나 가지고 못 받아서.)
102001 @ 예.(예.)
102001 #1 그때 우리 부락이 경제부흥 마을로 헤 가지고 청와대 올라가지고 보고헤 가지고 그때 아까 얘기한 사백만원도 그 마을 그 숙원 사업으로 말이지 받아 왓고, 그렇게 헤 가지고는 허당 그 축협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정년퇴임 헤 가지고 지금은 뭐 여기서 살면서 민박 사업도 허고 애들 말이지 교육도 시키곡 헷인디.(그때 우리 부락이 경제부흥 마을로 해 가지고 청와대 올라가지고 보고 해 가지고 그때 아까 얘기한 사백만원도 그 마을 그 숙원 사업으로 말이지 받아 왔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하다가 그 축협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정년퇴임 해 가지고 지금은 뭐 여기서 살면서 민박 사업도 하고 애들 말이지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102001 @ 해군 해군은 어디서?(해군 해군은 어디서?)
102001 #1 대한민국 해군은 진해에서.(대한민국 해군은 진해에요.)
102001 @ 아 진해에서 삼 년마씨?(아 진해에서 삼 년이요?)
102001 #1 ᄋᆞ 삼년.(어 삼년.)
102001 @ 그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헨마씨?(그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했어요?)

102001 #1 그 육십 년도에서부터 육십 삼년도엔가 제대헷일 거라.(그 육십 년도에서부터 육십 삼년도인가 제대했을 거야.)
102001 @ 음 육십 삼년도에 제대헨마씨?(음 육십 삼년도에 제대했어요?)
102001 #1 ᄋᆞ.(어.)
102001 @ 아, 기구나예. 그럼 칠십 년도에 그 여기 뭐 제일교포 OOO?(아, 그렇군요. 그럼 칠심 년도에 그 여기 뭐 제일교포 OOO?)
102001 #1 ᄋᆞ. OOO씨 돌아가셧는데.(어. OOO씨 돌아가셨는데.)
102001 @ 예.(예.)
102001 #1 그 분이 이 부락에도 관심도 많고 헹.(그 분이 이 부락에도 관심도 많고 해서.)
102001 @ 어떵 허당 그분이 이 부락에 관심 잇언마씨?(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이 부락에 관심 있었어요?)
102001 #1 뭐 그분도 여기 부모가 잇엇고.(뭐 그분도 여기 부모가 있었고.)
102001 @ 아 옹포리[31]에.(아 옹포리에.)
102001 #1 그때 당시까지만 헤도 살앗인디 그 후에 OOO씨라고 도의훼 의원도 큰 분이.(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살았는데 그 후에 OOO씨라고 도의회 의원도 큰분이.)
102001 @ 예.(예.)
102001 #1 제일교포로 와서 여기 옹포 왓다가 우리 부락에 앞으로 장래에 희망을 여기다가 말이여 새마을 훼관을 짓겟다고 헤 가지고 내가 이장 당시에 돈 한 푼 엇이 시작헤 가지고 그 OOO 의원님한테 가 가지고 교포한테 한 번만 교포들 도와주게끔 편지 한 번 헤 주십쇼 헤 가지고 그래서 그때 십시일반으로 말이지 재일 교포들 그 성금 헤 가지고 기초 돼 가지고 이렇게 오늘에.(제일교포로 와서 여기 옹포 왔다가 우리 부락에 앞으로 장래에 희망을 여기다가 말이야 새마을 회관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내가 이장 당시에 돈 한 푼 없이 시작해 가지고 그 OOO 의원님한테 가 가지고 교포한테 한 번만 교포들 도와주게끔 편지 한 번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십시일반으로 말이지 재일 교포들 그 성금 해 가지고 기초 돼 가지고 이렇게 오늘에.)
102001 @ 어르신 근데 태어낫을 때 그러면 그냥 집에서 아니면 병원에서?(어르신 그럼 태어났을 때 그러면 그냥 집에서 아니면 병원에요?)
102001 #1 아, 거사 집이주. 옛날엔 병원이 엇고게.(아, 거야 집이지. 옛날에는 병원이 없고.)
102001 @ 병원 엇엇지예? 어르신 태어낫을 때는.(병원 없었지요? 어르신 태어났을 때는.)
102001 #1 어 뭐 어릴 때는 전부 다 집에서 태어나지 병원 우리 당시만 헤도 그 병원이라는 데서 가서 저 태어나지도 않앗고 그래 가지고 쭉 여기 나는 옹포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한번 어디 다른 데서 살지도 않고.(어 뭐 어릴 때는 전부 다 집에서 태어나지 병원 우리 당시만 해도 그 병원이라는 데서 가서 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 가지고 쭉

31) 옹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 나는 옹포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한번 어디 다른 데서 살지도 않고.)
102001 @ 예.(예.)
102001 #1 뭐 여기서만 계속 살면서 지금은 조그만한 민박집 하나 경영허면서 아이들 삼남 일녀 낳아그넹 다 대학시키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제 삼성전자에 다 이제.(뭐 여기서만 계속 살면서 지금은 조그만 민박집 하나 경형하면서 아이들 삼남 일녀 낳아서 다 대학시키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제 삼성전자에 다 이제.)
102001 @ 아.(아.)
102001 #1 그 부장으로 하나는 뭐 무신 엘이디인가 뭐 무신.(그 부장으로 하나는 뭐 무슨 엘이디인가 뭐 무슨.)
102001 @ 예.(예.)
102001 #1 뭐 무신 부장이고 ᄒᆞ나는 반도체 부장이고 헤 가지고 다 뒈어 잇곡 큰 아들은 지금 터키에 선 선교활동.(뭐 무슨 부장이고 하나는 반도체 부장이고 해 가지고 다 되어 있고 큰아들은 지금 터키에 선 선교활동.)
102001 @ 아, 선교활동?(아, 선교활동?)
102001 #1 응. 나가 잇곡.(응. 나가 있고.)
102001 @ 그 뭐 목사님이꽝?(그 뭐 목사님입니까?)
102001 #1 ᄋᆞ. 우리 뚤은 이제 하귀 그 저기 저 하나로 마트에 뭐 말이지 무슨 야채허는 데서 잇곡 사위는 이제 그 삼다수에 경제본부장인가 뭔가.(어. 우리 딸은 이제 '하귀' 그 저기 저 하나로 마트에 뭐 말이지 무슨 야채하는 데서 있고 사위는 이제 그 삼다수에 경제본부장인가 뭔가.)
102001 @ 이따 물어보려고 헷인디 다 ᄀᆞᆯ아 줌수다예.(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말해 주시고 있습니다.)
102002 @ 그러면 어르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션마씨?(그러면 어르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102002 #1 우리 아버지는 아까 대동식품이라는 공장을.(우리 아버지는 아까 대동식품이라는 공장을.)
102002 @ 예.(예.)
102002 #1 이제 우리 아버지도 못 살아 가지고 일본 가 가지고 자식들을 말이여 공부시키려고 헤 가지고 일본 가 가지고.(이제 우리 아버지도 못 살아 가지고 일본 가 가지고 자식들을 말이야 공부시키려고 해 가지고 일본 가 가지고.)
102002 @ 예.(예.)
102002 #1 돈 벌어 오겟다고 헤서 강 들어올 적에 다께나까라고 하는 사람허고 ᄀᆞ치 이제 제주에 왓주. 그 다께나까는 다께나까라고 허는 죽중 죽중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ᄒᆞ고 ᄀᆞ치 와 가지고.(돈 벌어 오겠다고 해서 가서 들어올 적에 다께나까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제주에 왔지. 그 다께나까는 다께나까라고 하는 죽중 죽중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와 가지고.)
102002 @ 다게다까? 아님.(다게다까? 아님.)

102002 #1 다께나까.(다께나까.)
102002 @ 나까마씨?(나까요?)
102002 #1 으. 가운데 중.(어. 가운데 중.)
102002 @ 아. 그 죽중은 아는디예.(아. 그 죽중은 아는데요.)
102002 #1 어.(어.)
102002 @ 이게 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다께다 통조림이라고 허는데 다께나까마씨?(이게 그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다께다 통조림이라고 하는데 다께나까요?)
102002 #1 으. 다께나까 통조림 공장이주게.(어. 다께나까 통조림 공장이지.)
102002 @ 아. 다께나까.(아. 다께나까.)
102002 #1 가운데 중 쓰고 다께는 죽 대죽 죽자 써그넹.(가운데 중 쓰고 다께는 죽 대죽 죽자 써서.)
102002 @ 아.(아.)
102002 #1 다께. 일본말로 다께나까라고 헤 가지고 성이.(다께. 일본말로 다께나까라고 해 가지고 성이.)
102002 @ 예.(예.)
102002 #1 다께나까 신타랑인가 그렇게 돼 원래 이름이.(다께나까 신타랑인가 그렇게 돼 원래 이름이.)
102002 @ 아. 원래 이름이.(아. 원래 이름이.)
102002 #1 으. 신타라 신태랑이라고 ᄒᆞ는 사람허고 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ᄒᆞ고 들어왕 여기다가 통조림 공장을 지을 부지를 말이지 선정해야겟다.(어. 신타라 신타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통조림 공장을 지을 부지를 말이지 선정해야겠다.)
102002 @ 예.(예.)
102002 #1 헤서 제주도를 말이야 한 두 바퀴 정도 돌아서 지금 이 권남다리 그 물옆에다가 말이여 그 부지를 선정허게 돼 가지고.(해서 제주도를 말이야 한 두 바퀴 정도 돌아서 지금 이 '권남다리' 그 물 옆에다가 말이야 그 부지를 선정하게 돼 가지고.)
102002 @ 예.(예.)
102002 #1 한 오천 평 부지에다가 그거 대동식품 주식훼사라는 그 다께나까 저 통조림 공장을 신축허게 돼.(한 오천 평 부지에다가 그거 대동식품 주식회사라는 그 다께나까 저 통조림 공장을 신축하게 돼.)
102002 @ 예.(예.)
102002 #1 그 이제 그때 당시만 헤도 굴뚝이 이 동양에서는 최고 높은 굴뚝으로 말이여.(그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굴뚝이 이 동양에서는 최고 높은 굴뚝으로 말이야.)
102002 @ 굴뚝마씨?(굴뚝이요?)
102002 #1 굴뚝 굴뚝 그 굴뚝을 우리 대한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건축ᄒᆞ지 못한다고 ᄒᆞ여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 굴뚝을.(굴뚝 굴뚝 그 굴뚝을 우리 대한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건축하지 못한다고 해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 굴뚝을.)

102002 @ 예.(예.)
102002 #1 지금도 아래서 보민 한 한 사십 센치 오십 센치 정도로 흔들리는 게 보이주게.(지금도 아래서 보면 한 한 사십 센티 오십 센티 정도로 흔들리는 게 보이지.)
102002 @ 아 지금도마씨?(아 지금도요?)
102002 #1 으.(어.)
102002 @ 지금도 잇어마씨?(지금도 있어요?)
102002 #1 으 지금도 게난 그 굴뚝이 영 아래서 보민 영 헤그넹 조금.(어 지금도 그러니까 그 굴뚝이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조금.)
102002 @ 흔들리는 거.(흔들리는 거.)
102002 #1 흔들리지 않으면 그거는 태풍에나 뭐나 그런 기술이 일본에 기술자가 와 가지고 그걸 다 굴뚝을 지엇다고 ᄒᆞ여.(흔들리지 않으면 그거는 태풍에나 뭐나 그런 기술이 일본에 기술자가 와 가지고 그걸 다 굴뚝을 지었다고 해.)
102002 @ 그럼 그 굴뚝은 지금은 뭘로 써마씨?(그럼 그 굴뚝은 지금은 뭘로 써요?)
102002 #1 그 이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헤. 그대로 뭐.(그 이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 그대로 뭐.)
102002 @ 굴뚝만 잇어마씨?(굴뚝만 있어요?)
102002 #1 으 굴뚝만 잇어 가지고 말이여 대원공업사라는 자기네 훼사 그 저기 뭐 간판만 올라강 써 잇단 말이여 폐차장이라고 영 ᄒᆞ고.(어 굴뚝만 있어 가지고 말이야 대원공업사라는 자기네 회사 그 저기 뭐 간판만 올라가서 써 있다는 말이야 폐차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102002 @ 아 폐차장이 잇어마씨?(아 폐차장이 있어요?)
102002 #1 으 이쪽에는 폐차장으로 사용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헤 가지고 나왕 그 공장에서.(어 이쪽에는 폐차장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와서 그 공장에서.)
102002 @ 예.(예.)
102002 #1 그 한일합방 뒐 때 당시만 헤도 말이지 여기 한 일곱 으답 사람 헤서 그 공장에 다니다가 그 다께나까 사장이 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 공장을 맽겨 가지고 떠나갓거든?(그 한일합방 될 때 당시만 해도 말이지 여기 한 일곱 여덟 사람 해서 그 공장에 다니다가 그 다께나까 사장이 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 공장을 맡겨 가지고 떠나갔거든?)
102002 #1 게난 뭐 그때 뭐 막 혼란헐 때고 헹 놓으니까 말이야 뭐 쪼금 똑똑헌 놈 와 가지고 그 공장 차지헤 가지고 말이여 자기 이름으로 말이여 다.(그러니 뭐 그때 뭐 막 혼란할 때고 해서 놓으니까 말이야 뭐 조금 똑똑한 놈 와 가지고 그 공장 차지해 가지고 말이야 자기 이름으로 말이야 다.)
102002 @ 바꿔 버렷구나예?(빠꿔 버렸군요?)
102002 #1 으 바꿔 가지고 적삼가옥 다 등록헤 가지고 그대로 말이여 자기 이름으로 헷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후에도 거기서 이제 공장장이라는 명칭으로 말이여 쪼금씩 말

이야 월급 받으멍.(어 바꿔 가지고 적삼가옥 다 등록해 가지고 그대로 말이야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후에도 거기서 이제 공장장이라는 명칭으로 말이야 조금씩 말이야 월급 받으면서.)

102002 @ 음.(음.)

102002 #1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헷고 우리 어머니는 원래 농사나 쪼금 짓고 헤 가지고.(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했고 우리 어머니는 원래 농사나 조금 짓고 해 가지고.)

102002 @ 아. 농사.(아. 농사.)

102002 #1 그렇게 헹 팔남매를 우리 아버지가 낳아그넹 아들 넷 딸 넷.(그렇게 해서 팔남매를 우리 아버지가 낳아서 아들 넷 딸 넷.)

102002 @ 아 팔남매마씨?(아 팔남매요?)

102002 #1 응. 이제 우리 여동생 ᄒᆞ나만 죽곡 다 살아잇주.(어. 이제 우리 여동생 하나만 죽고 다 살아있지.)

102002 @ 예.(예.)

101002 #1 그래 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그때는 잘 살으난 여기다가 뭐 명월에 밧도 많이 삿고 그래서 이제 낸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그 공장도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고 실직뒈고 그러니까 ᄒᆞ나씩 ᄒᆞ나씩 밧도 팔멍 아이들 말이여 공부시키고 말이여.(그래 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그때는 잘 살으니까 여기다가 뭐 명월에 밭도 많이 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그 공장도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고 실직되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밭도 팔면서 아이들 말이야 공부시키고 말이야.)

102002 @ 어르신 그럼 몇 째마씨?(어르신 그럼 몇 째에요?)

102002 #1 어?(어?)

102002 @ 팔남매 중에 몇 째마씨?(팔남매 중에 몇 째에요?)

102002 #1 나?(나?)

102002 @ 예.(예.)

102002 #1 다섯 번째.(다섯 번째.)

102002 @ 아 다섯 번째마씨?(아 다섯 번째요?)

102002 #1 응.(응.)

102002 @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이 근처에 살아마씨?(나머지 분돌도 전부 다 이 근처에 살아요?)

102002 #1 그 형님은 일본에 잇곡 또 시에 잇곡 우리 동생은 서울에 잇곡 나는 이듸 옹포에 잇곡 여자분은 서울 ᄒᆞ나 제주시 ᄒᆞ나 제주시 둘 잇곡 이렇게.(그 형님은 일본에 있고 또 시에 있고 우리 동생은 서울에 있고 나는 여기 옹포에 있고 여자분은 서울 하나 제주시 하나 제주시 둘 있고 이렇게.)

102002 @ 아 그럼 고향에는 옹포에는 어르신 혼자.(아 그럼 고형에는 옹포에는 어르신 혼자.)

102002 #1 나 나뿐이고.(나 나뿐이고.)

102002 @ 아 계속 지키고 잇구나예?(아 계속 지키고 있군요?)
102002 #1 그 이듸 그 가다 보면은 향나무 민박이라고.(그 여기 그 가다 보면 향나무 민박이라고.)
102002 @ 예 예 알주마씨.(예 예 알지요.)
102002 #1 그 왓당 갓잖아?(그 왔다가 갔잖아?)
102002 @ 예.(예.)
102002 #1 그게 우리 아버지가 지은 집이라 지은 집인데 내가 한 한 이십 년 전에 이십 한 오륙 년 전에 내가 아버지한테 그걸 받아그넹.(그게 우리 아버지가 지은 집이야 지은 집인데 내가 한 한 이십 년 전에 이십 한 오륙 년 전에 내가 아버지한테 그걸 받아서.)
102002 @ 예.(예.)
102002 #1 그 완전 다 리모델링 헷주.(그 완전 다 리모델링 했지.)
102002 @ 음.(음.)
102002 #1 옛날 그 일본 기와로.(옛날 그 일본 기와로.)
102002 @ 예.(예.)
102002 #1 이렇게 전부 다가 다 지엇는데 그게 이제 비도 새고 오래뒈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 일본에서 수입헌 기와로 그거 리모델링 헤 가지고 기와도 새로 얹히고 그 안에도 전부 다 수리헹 그 나무가 히노끼[32]라고 헤 가지고 일본말이지 그 대마도에서 실엉 와 가지고 지은 집인데 못 하나 옛날 사람 안 들어가 가지고 그거 지은 집이라고 헤서 한림읍에서는 그만한 재목으로 집 지은 데가 엇어.(이렇게 전부 다가 다 지었는데 그게 이제 비도 새고 오래되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는 그 일본에서 수입한 기와로 그거 리모델링 해 가지고 기와도 새로 얹히고 그 안에도 전부 다 수리해서 그 나무가 '히노끼'라고 해 가지고 일본말이지 그 대마도에서 실어서 와 가지고 지은 집인데 못 하나 옛날 사람 안 들어가 가지고 그거 지은 집이라고 해서 한림읍에서는 그만한 재목으로 집 지은 데가 없어.)
102002 @ 아.(아.)
102002 #1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잘 살 때고 헤서 목수가 하도 낭이 탐나서 그 목수이 집 지은 값을 안 받을 테니까 그 낭.(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잘 살 때고 해서 목수가 하도 나무가 탐나서 그 목수 이 집 지은 값을 안 받을 테니까 그 나무.)
102002 @ 좀 달라고.(좀 달라고.)
102002 #1 ᄋᆞ 집 한 채 지을 나무로 돌렌 헤 가지고.(어 집 한 채 지을 나무로 달라고 해 가지고.)
102002 @ 예.(예.)
102002 #1 나무로 지엇덴 허는 말을 들어가지고.(나무로 지었다는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102002 @ 음.(음.)

32) '히노끼'는 편백나무를 의미하는 일본어이다.

102002 #1 그 집이 지금 대림[33]에 ᄒᆞ나 지어 잇곡.(그 집이 지금 대림에 하나 지어 있고.)
102002 @ 대림에마씨?(대림에요?)
102002 #1 대림에.(대림에.)
102002 @ 아.(아.)
102002 #1 그 이 근방에는 히노끼라고 헤 가지고 옛날 그 저 낭인데.(그 이 근방에는 '히노끼'라고 해 가지고 옛날 그 저 나무인데.)
102002 @ 예.(예.)
102002 #1 어 일본 일본말로 히노낀데.(어 일본 일본말로 '히노끼'인데.)
102002 @ 예.(예.)
102002 #1 요새는 히노끼가 그 목욕탕에 가면 히노끼로 뭰 목욕탕도 잇어. 그건 잘 썩지도 않주.(요새는 '히노끼'가 그 목욕탕에 가면 '히노끼'로 된 목욕탕도 있어. 그건 잘 썩지도 않지.)
102002 @ 음.(음.)
102002 #1 백년이 지금 돼도 좀 하나 먹질 않으난 향이 향내가 나 가지고.(백년이 지금 돼도 좀 하나 먹지를 않으니까 향이 향내가 나 가지고.)
102002 @ 아 향내가?(아 향내가?)
102002 #1 어.(어.)
102002 @ 경 헤 부난 향나무.(그렇게 해 버리니까 향나무.)
102002 #1 어 아니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그 통조림 공장에 다닐 때.(어 아니 그 뒤에 우리 아버지가 그 통조림 공장에 다닐 때.)
102002 @ 예.(예.)
102002 #1 울릉도에 가게 뒛인디.(울릉도에 가게 됐는데.)
102002 @ 울릉도마씨?(울릉도요?)
102002 #1 어 울릉도에 거 뭐 저 그듸에 공장 시설이다 뭐다 헤서 가 가지고는 거기 갔다그넹 올 적에 열 그루를 가져왓어.(어 울릉도에 거 뭐 저 거기에 공장 시설이다 뭐다 해서 가 가지고는 거기 갔다가 올 적에 열 그루를 가져왔어.)
102002 @ 아 울릉도에서 가져온 거마씨?(아 울릉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102002 #1 어 저거 오리지널 울릉도 산인디. 열 개 가져왕 우리 집 뒤에다가 네 개 심엇고.(어 저거 오리지널 울릉도 산인데. 열 개 가져와서 우리 집 뒤에다가 네 개 심었고.)
102002 @ 예.(예.)
102002 #1 그때 뭐 잘 안 봣을 거라. 집 뒤에 그 향나무 큰 거 못 봣인디 네 개 잇곡 금강사라고 헤 가지고 다리 옆에 절 잇인디.(그때 뭐 잘 안 봤을 거야. 집 뒤에 그 향나무 큰 거 못 봤는데 네 개 있고 금강사라고 해 가지고 다리 옆에 절 있는데.)
102002 @ 예.(예.)

33) '대림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2002 #1 절에다가 두 개 싱거근에 그게 우리 집 나무허고 꼭 수형이 걷아.(절에다가 두 개 심어서 그게 우리 집 나무하고 꼭 수형이 같아.)
102002 @ 아.(아.)
102002 #1 지금 한 백 백 한 이십년 쯤 뒛을 거라. 경 허고 공장 그 저기 통조림 공장에 네 그루 싱것는데 그때 불타서 다 엇어지고 이제 여섯 그루만 남아잇주.(지금 한 백 백 한 이십년 쯤 됐을 거야. 그렇게 하고 공장 그 저기 통조림 공장에 네 그루 심었는데 그때 불타서 다 없어지고 이제 여섯 그루만 남아있지.)
102002 @ 아버님은 밧농사 그면 하지 않안마씨?(아버님은 밭농사 그러면 하지 않았어요?)
102002 #1 우리 아버지는 농사는 안 헷어.(우리 아버지는 농산는 안 했어.)
102002 @ 아, 농사는 안 헨마씨?(아, 농사는 안 했어요?)
102002 #1 그런 공장 ᄀᆞ튼 데서 일ᄒᆞ고 그렇게.(그런 공장 같은 데서 일하고 그렇게.)
102002 @ 그럼 어떵 허당 말 키원마씨?(그럼 어떻게 하다가 말 키웠어요?)
102002 #1 아,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아주 잘 타.(아,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아주 잘 타.)
102002 @ 아, 말도 타마씨?(아, 말도 타요?)
102002 #1 어. 말도 잘 타고 우리 아버지는 키도 적지만 말허고 씨름헤서 지금 말이여 이긴 사람이라고 헤 가지고 아주 유명헷주게.(어. 말도 잘 타고 우리 아버지는 키도 작지만 말하고 씨름해서 지금 말이야 이긴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유명했지.)
102002 @ 아.(아.)
102002 #1 우리 그 대화동에서 말이영 씨름 헤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말 말을 눕졋다고 헤서 유명허다니깐 우리 아버지가 키는 작아도.(우리 그 대화동에서 말과 씨름 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말 말을 눕혔다고 해서 유명하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키는 작아도.)
102003 @ 겐디 아버지 고향은 어디라고 헷지마씨?(그런데 아버지 고향은 어디라고 했지요?)
102003 #1 어. 협재.(어. 협재.)
102003 @ 협재?(협재?)
102003 #1 협재해수욕장 바로 앞이서 일로.(협재해수욕장 바로 앞에서 여기로.)
102003 @ 옮긴 거.(옮긴 거.)
102003 #1 이제 공장이 여기 오게 뒈난 그 집을 큰아버지한테 줘 두고 이리 와 가지고 여기서 살게 뒌 거주.(이제 공장이 여기 오게 되니까 그 집을 큰아버지한테 줘 두고 이리 와 가지고 여기서 살게 된 거지.)
102003 @ 그럼 어머니 고향은 어디꽝?(그럼 어머니 고향이 어디입니까?)
102003 #1 어머니 고향은 옹포고.(어머니 고향은 옹포고.)
102003 @ 어머님은 옹포마씨?(어머님은 옹포에요?)
102003 #1 ᄋᆞ.(어.)
102003 @ 그럼 어머님은 윗대부터 옹포에서 산 거마씨?(그럼 어머님은 윗대부터 옹

포에서 산 거예요?)
102003 #1 ᄋᆞ.(어.)
102003 @ 아. 그럼 어머님은 젊으셧을 때는 이렇게 가정집에서 일하시고 밧농사 조금 하션마씨.(아. 그럼 어머님은 젊으셨을 때는 이렇게 가정집에서 일하시고 밭농사 조금 했어요?)
102003 #1 ᄋᆞ. 밧농사 조금 거들고 우리가 그때 좀 농사를 많이 지엇주게.(어. 밭농사 조금 거들고 우리가 그때 좀 농사를 많이 지었지.)
102003 @ 아, 그땐 농사 많이 지언마씨?(아, 그때는 농사 많이 지었어요?)
102003 #1 ᄋᆞ. 그때는 한 이천 평 정도는 그때는 굉장히 큰 밧이라.(어. 그때는 한 이천 평 정도는 그때는 굉장히 큰 밭이야.)
102003 @ 어디에서?(어디에서?)
102003 #1 여기 바로 다리 옹포다리 권남다리 그 바로 우에다가 ᄃᆞ로시왓이라는 그런 지명인데.(여기 바로 다리 옹포다리 '권남다리' 그 바로 위에다가 'ᄃᆞ로시왓'이라는 그런 지명인데.)
102003 @ ᄃᆞ로시왓마씨?('도로시왓'이요?)
102003 #1 ᄋᆞ. ᄃᆞ로시왓 지명 이름이 ᄃᆞ로시왓 그런 지명에서 한 천 한 이천 평 정도 뭰 말이여 밧에다가 조 뭐 무슨 보리 고구마 허민 우리 먹고 남고 팔고 할 정도엿어.(어. 'ᄃᆞ로시왓' 지명 이름이 'ᄃᆞ로시왓' 그런 지명에서 한 천 한 이천 평 정도 된 말이야 밭에다가 조 뭐 무슨 보리 고구마 하면 우리 먹고 남고 팔고 할 정도였어.)
102003 @ 아.(아.)
102003 #1 도로시왓은 왜 도로시왓이렌 헨마씨?('도로시왓'은 왜 '도로시왓'이라고 했어요?)
102003 @ 그게 아마 그게 옛날 사람들이 ᄃᆞᆨ ᄃᆞᆨ싸움을 붙인 장소가 아닌가 나 생각엔.(그게 아마 그게 옛날 사람들이 닭 닭싸움을 붙인 장소가 아닌가 내 생각에는.)
102004 @ 그면 어르신 어릴 때 잇잖아예.(그러면 어르신 어릴 때 있잖아요.)
102004 #1 ᄋᆞ.(어.)
102004 @ 그 친구들도 좀 잇잖아예.(그 친구들도 좀 있잖아요.)
102004 #1 ᄋᆞ.(어.)
102004 @ 어릴 때 친구들이영 그럼 뭐하면서 좀 노션마씨?(어릴 때 친구들과 그럼 뭐하면서 좀 노셨어요?)
102004 #1 아, 옛날에는 뭐 조끼차기라든지 뭐 무슨 다마치기라든지 말이여 뭐 헐 게 아무 것도 엇어.(아, 옛날에는 뭐 제기차기라든지 뭐 무슨 구슬치기라든지 말이야 뭐 할 게 아무 것도 없어.)
102004 @ 예.(예.)
102004 #1 그때 당시엔.(그때 당시에는.)
102004 @ 예.(예.)
102004 #1 우리가 클 때 당시엔 빠찌치기ᄒᆞ고 그 이 저 구슬 다마치기ᄒᆞ고.(우리가

클 때 당시에는 딱지치기하고 그 이 저 구슬 구슬치기하고.)
102004 @ 예.(예.)
102004 #1 삼갑실로 땅따먹기ᄒᆞ고.(삼겹실로 땅따먹기하고.)
102004 @ 뭘로마씨?(뭘로요?)
102004 #1 삼갑실 헹 이 저 그 영 땅 따먹는 그런 그런 놀이 자치기.(삼겹실 해서 이 저 그 이렇게 땅 따먹는 그런 그런 놀이 자치기.)
102004 @ 예.(예.)
102004 #1 자로 탁 쳥 탁 헤 가지고 주로 이거 이거 헷지.(자로 탁 쳐서 탁 해 가지고 주로 이거 이거 했지.)
102004 @ 주로?(주로?)
102004 #1 ᄋᆞ.(어.)
102005 @ 그럼 어르신 일제강점기는 잘 모르겠다예?(그럼 어르신 일제강점기는 잘 모르겠군요?)
102005 #1 일제강점기 시기엔 우리가 그때 나가 사이 년생이니깐 잘 몰라.(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우리가 그때 내가 사이 년생이니까는 잘 몰라.)
102005 @ 아.(아.)
102005 #1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엇어그넹 해방뒷주게.(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없어서 해방됐지.)
102005 @ 그러면은 들으신 건 엇어마씨? 부모님들이나.(그러면 들으신 건 없어요? 부모님들이나.)
102005 #1 아니 근디 그 그때 당시엔 사삼사건 당시 날 때만 헤도 내가 그때 조그마한 한 어렴풋이 말이여 알아 듣는데 우리 여기 별장 별장 바로 앞에 그 사쿠라 밧[34]이라는 지금은 그 저기 저 포교당이 잇인 데 거기에다가 폭도들 와 가지고 말이여 부녀자들 말이여 칼로 말이여 막 여자 젓통도 찌르고 말이여 막 이렇게 허고 강간허고 말이여 그런 건 본 기억은 나.(아니 근데 그 그때 당시에는 사삼사건 당시 날 때만 해도 내가 그때 조그마한 한 어렴풋이 말이야 알아 듣는데 우리 여기 별장 별장 바로 앞에 그 사쿠라밭이라는 지금은 그 저기 저 포교당이 있는 데 거기에다가 폭도들 와 가지고 말이야 부녀자들 말이야 칼로 말이야 막 여자 젖통도 찌르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강간하고 말이야 그런 건 본 기억은 나.)
102005 @ 음.(음.)
102005 #1 그리고 폭도들이 내려왕 한림지소 말이지 습격헤서 말이지 막 저기 한림부두 삼밧이라고 헤서 거기서 배 오민 얼음 시꺼주는 그런 삼밧이라는 그 곳에서 격전 막 부텅 말이여.(그리고 폭도들이 내려와서 한림지소 말이지 습격해서 말이지 막 저기 한림부두 삼밭이라고 해서 거기서 배 오면 얼음 실어주는 그런 삼밭이라는 그 곳에서 격전 막 붙어서 말이야.)
102005 #1 그래 가지고 경찰관이 그 폭도 쏴 말이여 죽은 거 말이여 이 죽어 잇인

34) '사쿠라밧'은 벚꽃밭을 의미한다.

거 본 기억은 나.(그래 가지고 경찰관이 그 폭도 쏴서 말이야 죽은 거 말이야 이 죽어 있는 거 본 기억은 나.)

102005 @ 아, 그건 본 기억 잇어마씨?(아, 그건 본 기억 있어요?)

102005 #1 으.(어.)

102005 @ 그면 일제강점기에는 기억나는 거 엇고 공출이라고 들어보신 적이?(그러면 일제강점기에는 기억나는 거 없고 공출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102005 #1 공출은 이제 뭐 그 일본 놈들이 말이지 그 농사지은 걸 말이여 얼마큼 너희들은 할당헤 가지고 뭐 몇 가마니 조는 몇 가마니 보리는 몇 가마니 영 헹 내라 하는 그 말은 들어 가지고 말이여 저 들은 걸로 알고 잇어.(공출은 이제 뭐 그 일본 놈들이 말이지 그 농사지은 걸 말이야 얼마큼 너희들은 할당해 가지고 뭐 몇 가마니 조는 몇 가마니 보리는 몇 가마니 이렇게 해서 내어라 하는 그 말은 들어 가지고 말이야 저 들은 걸로 알고 있어.)

102005 @ 그럼 일제 시기에 생활은 어려웟다는 건 들어본 거는?(그럼 일제 시기에 생활은 어려웠다는 건 들어본 거는?)

102005 #1 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도 본 기억도 나고 공장에 다니멍 그 사람들이 공장에 왕 운영허고 헷으니까.(아,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도 본 기억도 나고 공장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공장에 와서 운영하고 했으니까.)

102005 @ 예.(예.)

102005 #1 그렇게 헤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별장도 이시까와라고 석천 그 사람이 그 옹포 별장에 그 집을 지어그넹 옹포 그 저기 저 여자를 얻어 가지고 말이여 거기서 생활하면서 해방뒐 때꺼지 산 것도 알고.(그렇게 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별장도 이시까와라고 석천 그 사람이 옹포 별장에 그 집일 지어서 옹포 그 저기 저 여자를 얻어 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생활하면서 해방될 때까지 산 것도 알고.)

102005 @ 음.(음.)

102005 #1 별장이 박정희 대통령 국가재건 최고훼의 이장 때도 왕 그듸서 하룻밤 자고 그 할머니가 이시까와라는 할머니가 요리도 잘 헷어.(별장이 박정희 대통령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장 때돠 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할머니가 이시까와라는 할머니가 요리도 잘 했어.)

102005 @ 음.(음.)

102005 #1 그게 독 요리를 그렇게 잘헷는데 그 독 요리를 말이여 먹고 가야 뭰다고 헤 가지고 말이여 박정희 대통령 거기 말이여 그 별장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곡 그런 일화도 잇곡 그 할머니는 명월 논에서 난 벼로만 밥을 헤.(그게 닭 요리를 그렇게 잘했는데 그 닭 요리를 말이야 먹고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거기 말이야 그 별장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고 그런 일화도 있고 그 할머니는 명월논에서 난 벼로만 밥을 해.)

102005 @ 아, 명월[35] 논에서?(아, 명월 논에서?)

102005 #1 ᄋᆞ. 논에서 난 헷쌀로만 밥ᄒᆞ난 밥을 허민 기름기가 나.(어. 논에서 난 햅쌀로만 밥하니까 밥을 하면 기름기가 나.)

102005 @ 음.(음.)

102005 #1 그렇게 말이여 밥을 금방 정성스럽게 허고 ᄃᆞᆨ 요리를 말이여 그렇게 잘 헤 가지고 헤 가지고는 돌아가신지 한 삼사십 년 넘엇지마는.(그렇게 말이야 밥을 금방 정성스럽게 하고 닭 요리를 말이야 그렇게 잘 해 가지고 해 가지고는 돌아가신지 한 삼사십 년 넘었지만.)

102005 @ 명월이 논농사가 좋아마씨?(명월이 논농사가 좋아요?)

102005 #1 여기 그 저 다리 옆에는 그 그때 물로 다 논이여 그땐. 물로 물 다 대가지고 지금 물놀이 공원 옆에는 다 논이라.(여기 그 저 다리 옆에는 그 그때 물로 다 논이야 그때는. 물로 물 다 대 가지고 지금 물놀이 공원 옆에는 다 논이야.)

102005 @ 아, 그쪽에는마씨? 거기는 옹포가 아니라 명월이지예?(아, 그쪽에는요? 거기는 옹포가 아니라 명월이지요?)

102005 #1 아니 옹포 옹포 땅도 잇곡 명월 땅도 잇곡 저 우쪽으로는 명월이고 이쪽 알 다리는 옹포도 잇곡.(아니 옹포 옹포 땅도 있고 명월땅도 있고 저 위쪽으로는 명월이고 이쪽 아래 다리는 옹포도 있고.)

102006 @ 아까 사삼사건 때 얘기헷인디예. 좀 더 자세하게 뭐 혹시 더 기억나는 건 엇인가마씨?(아까 사삼사건 때 얘기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뭐 혹시 더 기억나는 건 없어요?)

102006 #1 사삼사건 당시에는 뭐 조금 어려울 때니까.(사삼사건 당시에는 뭐 조금 어려울 때니까.)

102006 @ 어르신 몇 살때주마씨?(어르신 몇 살때지요?)

102006 #1 나 한 일곱 일고ᄋᆞ답 살 때 사삼사건 당시에 제일 기억나는 거는 우리 마을에다가 보초를.(나 한 일곱 일고여덟 살 때 사삼사건 당시에 제일 기억나는 거는 우리 마을에다가 보초를.)

102006 @ 보초?(보초?)

102006 #1 저 그때는 창도 벨로 엇엇주게. 죽창이라고 헹.(저 그때는 창도 별로 없었지. 죽창이라고 해서.)

102006 @ 대나무.(대나무.)

102006 #1 대나무로 만든 걸로 이제 다리 옆이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움막 짓고 그리고 저쪽에는 말이지 금정동[36] 제일 끗이 말이지 협재 가기 직전에도 그 저기.(대나무로 만든 걸로 이제 다리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움막 짓고 그리고 저쪽에는 말이지 금정동 제일 끝에 말이지 협재 가기 직전에도 그 저기.)

102006 @ 죽창 들고 서 잇언마씨?(죽창 들고 서 있었어요?)

102006 #1 어. 저기 저 그 보초 서는 사람들 말이여 겨울에는 말이지 돌에 말이여 영

35) '명월'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를 의미한다.
36) '금정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음 옹포리 행정동 중 하나이다.

해 놔 가지고 거기서 말이여 불 때면서 손 허면서 사람 오민 누구냐 허곡 암호 말이여 영 헤그넹. 나도 보초 서 난 기억이 나거든.(어. 저기 저 그 보초 서는 사람들 말이야 겨울에는 말이지 돌에 말이야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불 때면서 손 하면서 사람 오면 누구냐 하고 암호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나도 보초 섰었던 기억이 나거든.)

102006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2006 #1 어릴 때 아버지 대리라도 말이여 이제 나오라 허면 어린애라도 나오렌 헷어. 게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이 통조림 공장에서 여기 성이라고 헤 가지고.(어릴 때 아버지 대리라도 말이야 이제 나오라 하면 어린애라도 나오라고 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이 통조림 공장에서 여기 성이라고 해 가지고.)

102006 @ 예.(예.)

102006 #1 우리 옹포리가 보호하기 위헤서 성을 쌓앗어.(우리 옹포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

102006 @ 예.(예.)

102006 #1 성을 쌓아그넹 사삼사건 당시 옹포만. 피해 보지 않은 부락은 옹포.(성을 쌓아서 사삼사건 당시 옹포만. 피해 보지 않은 부락은 옹포.)

102006 @ 아, 별로 피해 안 봔마씨?(아, 별로 피해 안 봤어요?)

102006 #1 어.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엇어.(어.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어.)

102006 @ 다행이다예.(다행이군요.)

102006 #1 뭐 지금 뭐 사삼공원에 가서 강 보면 옹포에 흔 사람 올라갓인디.(뭐 지금 뭐 사삼공원에 가서 가서 보면 옹포에 한 사람 올라갔는데.)

102006 @ 예.(예.)

102006 #1 그 사람은 옹포 사람이 아니라.(그 사람은 옹포 사람이 아니야.)

102006 @ 옹포 사람이 아니꽝?(옹포 사람이 아닙니까?)

102006 #1 으. 경 헌디 올라갓더라고 게서 그때 통조림 공장 헐 때 말이지 그 통조림 깡통을 요쪽 성에서 저쪽으로 말이여 줄 헤 가지고 말이여 딱 메달아그넹 말이여 댕가랑 댕가랑 소리나민 폭도 왓다고 헤 가지고 말이여.(어. 그렇게 한데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그때 통조림 공장 할 때 말이지 그 통조림 깡통을 요쪽 성에서 저쪽으로 말이야 줄 해 가지고 말이야 딱 매달아서 말이야 댕가랑 댕가랑 소리나면 폭도 왔다고 해 가지고 말이야.)

102006 @ 아.(아.)

102006 #1 연락허고 뭐 헤 가지고 좀 말이지 여기는 안전지대로 게고 여기는 아마 잘은 모르지마는.(연락하고 뭐 해 가지고 좀 말이지 여기는 안전지대로 그리고 여기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102006 @ 예.(예.)

102006 #1 그때 당시에 말이여 사상이 조금 말이여 뭐 한 말이여 두목 ᄀᆞ튼 역할 허는 사람이 좀 잇이니까 여긴 오지 않앗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그때 당시에 말이야 사상이 조금 말이야 뭐 한 말이야 두목 같은 역할 하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았

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102006 @ 아, 폭도들이 여기는 많이 안 완마씨?(아, 폭도들이 여기는 많이 안 왔어요?)
102006 #1 어. 여기만 한림지서까지 다 협재까지 전부 다 이 우에 다 그 사삼사건 당시는.(어. 여기만 한림지서까지 다 협재까지 전부 다 이 위에 다 그 사삼사건 당시는.)
102006 @ 예.(예.)
102006 #1 낮에는 산에 잇곡.(낮에는 산에 있고.)
102006 @ 예.(예.)
102006 #1 밤에는 양민들 괴롭히고 쌀 가졍 강 돼지 소 말 이런 거 다 가졍 가서 잡아먹고 헤 가지고 여기도 그때 OOO라는 사람이 밤에는 가 가지고 폭도들 침도 놔주곡 밤에는 내려오곡 영 ᄒᆞ면서 이중생활ᄒᆞ고 헷던 사람도 우리 집 놀러 왕 다 얘기헤주더라고.(밤에는 양민들 괴롭히고 쌀 가지고 가서 돼지 소 말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잡아먹고 해 가지고 여기도 그때 OOO라는 사람이 밤에는 가 가지고 폭도들 침도 놔주고 밤에는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중생활하고 했던 사람도 우리 집 놀러 와서 다 얘기해주더라고.)
102006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2006 #1 그때 그 굴에는 당시에 넘어가고는 생활상들이 거기서 많이 발견됐주.(그때 그 굴에는 당시에 넘어가고는 생활상들이 거기서 많이 발견됐지.)
102006 @ 음. 어르신 어렷을 때는 그런 폭도들 본 적은 없엇겠다예?(음. 어르신 어렸을 때는 그런 폭도들 본 적은 없었겠군요?)
102006 #1 아, 본 적은 엇고 우리 마을에.(아, 본 적은 없고 우리 마을에.)
102006 @ 예.(예.)
102006 #1 우리 마을에 폭도 뭐 무신 대장인가 뭔가 OOO이라는 놈 와 가지고 말이여 여기 그 마을 저기 저 경로당 허는데 거기가 마을 이런 훼관이난.(우리 마을에 폭도 뭐 무슨 대장인가 뭔가 OOO라는 놈 와 가지고 말이야 여기 그 마을 저기 저 경로당 하는데 거기가 마을 이런 회관이니까.)
102006 @ 예.(예.)
102006 #1 리사무소니까 거기 데려와 가지고 말이여 막 문초허고 뭐허는 거 그거는 내가 본 기억이 나.(리사무소니까 거기 데려와 가지고 말이야 막 문초하고 뭐하는 거 그거는 내가 본 기억이 나.)
102006 @ 아, 경찰 군인들이 그 사람 잡아왓구나예?(아, 경찰 군인들이 그 사람 잡아왓군요?)
102006 #1 어. 그 그 기억은 내가 조금 나.(어. 그 그 기억은 내가 조금 나.)
102006 @ 분위기는 막 무섭진 않안마씨?(분위기는 막 무섭지는 않았어요?)
102006 #1 그때 당시는 낮엔 그대로 뭐 일반적으로 영 허지만 밤에가 무서우니까 밤에 밤에는 그놈들은 밤에는 굴속에다 다 헤서 생활허다가 밤만 뒈민 이 부락 가 가지고 말이여 농산물이고 가축이고 뭐고 말이야 어 먹을 걸 먹을 걸 다 굴에다가 놔두고서

총격전을 벌이는 거라.(그때 당시는 낮에는 그대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밤에가 무서우니까 밤에 밤에는 그놈들은 밤에는 굴속에다 다 해서 생활하다가 밤만 되면 이 부락 가 가지고 말이야 농산물이고 가축이고 뭐고 말이야 어 먹을 걸 먹을 걸 다 굴에다가 놔두고서 총격전을 벌이는 거야.)

102006 @ 여기도 그 뭐 가까운 굴 잇어마씨?(여기도 그 뭐 가까운 굴 있어요?)

102006 #1 아, 괴수풀[37] 굴 ᄀᆞ튼 거 저기 여기는 별로 엇고.(아, '괴수풀' 굴 같은 거 저기 여기는 별로 없고.)

102006 @ 예.(예.)

102006 #1 게난 그 굴에 그 굴에 주로 살앗다고 헤 가지고.(그러니 그 굴에 그 굴에 주로 살았다고 해 가지고.)

102006 @ 예.(예.)

102006 #1 지금도 괴수풀이엔 ᄒᆞ면 그 고림동에 말이여 고림동을 괴수풀이라고 허거든.(지금도 '괴수풀'이라고 하면 그 '고림동'에 말이야 '고림동'을 '괴수풀'이라고 하거든.)

102006 @ 아, 괴수풀이라고 헤마씨?(아, '괴수풀'이라고 해요?)

102006 #1 ᄋᆞ. 괴수풀 굴에서 폭도들 주로 살고 그 OOO이옌 ᄒᆞ는 사람도 한의사인데 뭐 무슨 가짜배기 한의사 침 놔주고 말이여 뭐 아프면 말이여 강 오헨 허민 가고 아니면 말이여 바로 죽여 불곡 ᄒᆞ니깐.(어. '괴수풀' 굴에서 폭도들 주로 살고 그 OOO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의사인데 뭐 무슨 가짜배기 한의사 침 놔주고 말이야 뭐 아프면 말이야 가서 오라고 하면 가고 아니면 말이야 바로 죽여버리고 하니깐.)

102006 @ 음.(음.)

102006 #1 이게 이중생활 허는 거지. 밤에는 폭도 낮에는 양민 헤 가지고.(이게 이중생활 하는 거지. 밤에는 폭도 낮에는 양민 해 가지고.)

102006 @ 그면 낮에는 뭐 그냥 괜찮앗는데 밤에만 좀.(그러면 낮에는 뭐 그냥 괜찮았는데 밤에만 좀.)

102006 #1 ᄋᆞ 밤만 뒈민 뭐 아무디라도 뭐 무법천지거든.(어 밤만 되면 뭐 아무데라도 뭐 무법천지거든.)

102006 @ 그면 집이서 못 나왓겟다예?(그러면 집에서 못 나왔겠군요?)

102006 #1 아, 못 나가지 집이서 당췌 그때 당시에는 뭐 사람도 말이지 뭐 무작정 죽여 불곡 말이지 이 명월도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엇어 폭도들한테.(아, 못 나가지 집에서 당최 그때 당시에는 뭐 사람도 말이지 뭐 무작정 죽여 버리고 말이지 이 명월도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었어 폭도들한테.)

102006 @ 게난 명월이 더 가까우난 피해 많앗겠다예.(그러니 명월이 더 가까우니 피해 많았겠군요.)

102006 #1 아, 거기가 본부거든.(아, 거기가 본부거든.)

102006 @ 아, 그쪽에. 기구나예.(아, 그쪽에. 그렇군요.)

102007 @ 그럼 어르신 그 결혼은 언제 하션마씨?(그럼 어르신 그 결혼은 언제 하셨

37) '괴수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명월리 고림동을 의미한다.

어요?)
102007 #1 그게 나가 스물아홉에 결혼헷으니까.(그게 내가 스물아홉에 결혼했으니까.)
102007 @ 아, 그럼 좀 늦게 헷다예 그때 당시엔.(아, 그럼 좀 늦게 했군요. 그때 당시에는.)
102007 #1 아주 빨리 헷지.(아주 빨리 했지.)
102007 @ 아, 빨리 헌 거꽝? 그 스물아홉이민?(아, 빨리 한 거예요? 그 스물아홉이면?)
102007 #1 나 빨리 헷지 그.(나 빨리 했지 그.)
102007 @ 그때 당시엔 스물아홉이민 좀 늦은 거 아니마씨?(그때 당시에는 스물아홉이면 좀 늦은 거 아니에요?)
102007 #1 아, 아 스무 설 스물ᄒᆞ나.(아, 아 스무 살 스물하나.)
102007 @ 아, 스물하나?(아, 스물하나?)
102007 #1 스물한 살에 그 결혼헷인디.(스물한 살에 그 결혼했는데.)
102007 @ 아 빨리 헷다예?(아 빨리 했군요?)
102007 #1 ᄋᆞ 게 그때는게 그렇게 빨리 홀 때.(어. 그럼. 그때는 그렇게 빨리 할 때.)
102007 @ 중매헷수광? 연애헷수광?(중매했습니까? 연애했습니까?)
102007 #1 아, 난 연애헷어.(아, 난 연애했어.)
102007 @ 그면 연애 결혼헌 거마씨?(그러면 연애 결혼한 거예요?)
102007 #1 ᄋᆞ.(어.)
102007 @ 그믄 어디서 만나션마씨? 옹포리?(그러면 어디서 만나셨어요? 옹포리?)
102007 #1 옹포 저기 저 전분공장이라는 데서는 남녀가 ᄀᆞ치 일헷엇지.(옹포 저기 저 전분공장이라는 데서는 남녀가 같이 일했었지.)
102007 @ 예.(예.)
102007 #1 전분공장.(전분공장.)
102007 @ 예.(예.)
102007 #1 전분공장에서 알아그넹 이제 연애ᄒᆞ다가 결혼헤 가지고 삼남 일녀 낳아그넹.(전분공장에서 알아서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해 가지고 삼남 일녀 낳아 가지고.)
102007 @ 그면 그 할머니는 저듸 댁에 계시멘마씨?(그러면 그 할머니는 저기 댁에 계세요?)
102007 #1 저기 저 신도[38]에 그 가공공장에 저 수산물 거기 뭐 교회 사람들ᄒᆞ고 한 며칠 다닐 거 잇덴 헤서 거기 일 가고.(저기 저 신도에 그 가공공장에 저 수산물 거기 뭐 교회 사람들하고 한 며칠 다닐 거 있다고 해서 거기 일 가고.)
102007 @ 멀리까지 갓다예? 신도 ᄒᆞ끔 멀잖아마씨.(멀리까지 갔군요? 신도 조금 멀잖아요.)
102007 #1 아, 게도 여기서 차 와 가지곡 테와 가지곡 태와 오곡 허니깐 그런 거는 요새는 교통은 뭐 큰 문제는 아니주게.(아, 그래도 여기서 차 와 가지고 태워 가지고 태

38) 신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워 오고 하니까는 그런 거는 요새는 교통은 뭐 큰 문제는 아니지.)
102007 @ 아, 맞다 여기 교통은 어떵 헤마씨 예전에는.(아, 맞다 여기 교통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102007 #1 예전에는 이듸 교통이 아주 나빳주게.(예전에는 여기 교통이 아주 나빴지.)
102007 @ 아.(아.)
102007 #1 뭐 우리 학교 댕길 때만 헤도 버스가 뭐 하루에 뭐 세 번 다니나 말까 헷을 거고.(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버스가 뭐 하루에 뭐 세 번 다니나 말까 했을 거고.)
102007 @ 그럼 제주시 갈 일 잇이믄 그냥.(그럼 제주시 갈 일 있으면 그냥.)
102007 #1 우리 고등학교 뎅길 때는 옹포리에 그 저기 차가 화물차 십팔호라고 헤 가지고.(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옹포리에 그 저기 차가 화물차 십팔호라고 해 가지고.)
102007 @ 예.(예.)
102007 #1 그거 잇어 가지고 말이야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말이야 그거 이제는 집에 쏠이나 뭐나 가져오젠 하면 힘들어서 서문 말이여 파출소까지 걸엉 왕.(그거 있어 가지고 말이야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말이야 그거 이제는 집에 쌀이나 뭐나 가져오려고 하면 힘들어서 서문 말이야 파출소까지 걸어서 와서.)
102007 @ 서문파출소?(서문파출소?)
102007 #1 응. 옛날 경 헹 이제 그때는 말이지 거기까지 걸엉 왕 거기서 이제 손 들르면 우리 옹포 사람들은 테와주고 헷거든.(어. 옛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말이지 거기까지 걸어서 와서 거기서 이제 손 들으면 우리 옹포 사람들은 태워주고 했거든.)
102007 @ 아, 옹포 사람들은 경 헹 탄마씨?(아, 옹포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탔어요?)
102007 #1 경 헹 집이 와그넹 말이지 하룬가 쉬고 헤그넹 또 갈 때는 버스 타그넹 말이여 가고 헹 기억이 나.(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말이지 하루인가 쉬고 해서 또 갈 때는 버스 타서 말이야 가고 해서 기억이 나.)
102007 @ 예.(예.)
102007 #1 아주 교통은 나빳고이 그때 당시만 헤도 나 어릴 때는 목탄차라고 헷어. 목탄.(아주 교통은 나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나 어릴 때는 목탄차라고 했어. 목탄.)
102007 @ 목탄차마씨?(목탄차요?)
102007 #1 응. 목탄차로 다니기도 헤낫어.(어. 목탄차로 다니기도 했었어.)
102007 @ 목탄차는 뭐꽝?(목탄차는 뭐입니까?)
102007 #1 아니 그 저기 뭐고 그게 그 숫 ᄀᆞ튼 거.(아니 그 저기 뭐고 그게 그 숯 같은 거.)
102007 @ 예.(예.)
102007 #1 숫으로 그 기계 살려가지고 말이여 다니는 차가 잇엇어. 그 그렇게 교통이 열악헷지.(숯으로 그 기계 살려가지고 말이야 다니는 차가 있었어. 그 그렇게 교통이 열악했지.)

102007 @ 막 걸어서 가지는 않앗지예? 너무 멀어가지고.(막 걸어서 가지는 않았지요? 너무 멀어가지고.)

102007 #1 그때는 이렇게 포장뒈지도 않으난 비포장이난 사람이 오래 걷지를 못헤.(그때는 이렇게 포장되지도 않으니까 비포장이니까 사람이 오래 걷지를 못해.)

102007 @ 아, 비포장이니깐?(아, 비포장이니깐?)

102007 #1 어. 우리 학교 뎅길 때만 헤도 이디 포장 된 데가 엇엇주게.(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 포장 된 데가 없었지.)

102007 @ 차들 막 타당 고장 난 적은 엇엇수광?(차들 막 타다가 고장 난 적은 없었습니까?)

102007 #1 아, 고장도 나지 옛날 차들은. 그 화물차 ᄀᆞ튼 데는 조수가 이걸 스타칭[39] 이라고 헤서 이걸 돌려가지고 기계를 살리는 건데 이렇게 치다가 게찡이라고 헤 가지고 탁 허민 이게 거꾸로 돌면 팔도 부러지고 그게 힘도 좋아야 조수도 헷어 옛날에는.(아, 고장도 나지 옛날 차들은. 그 화물차 같은 데는 조수가 이걸 스타칭이라고 해서 이걸 돌려가지고 기계를 살리는 건데 이렇게 치다가 게찡이라고 해 가지고 탁 하면 이게 거꾸로 돌면 팔도 부러지고 그게 힘도 좋아야 조수도 했어 옛날에는.)

102007 @ 여기 여기 다리는 언제 다치신 거마씨?(여기 여기 다리는 언데 다치신 거예요?)

102007 #1 아, 여기 나 양쪽이 무릎 관절이 나빠 가지고 한 육년 전이 아들 삼성 병원에서 수술 다 헤 가지고.(아, 여기 나 양쪽이 무릎 관절이 나빠 가지고 한 육년 전에 아들 삼성병원에서 수술 다 해 가지고.)

102007 @ 지금은 괜찮으신 거마씨?(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102007 #1 아, 이제 지금은 뭐 무슨 지장은 엇고.(아, 이제 지금은 뭐 무슨 지장은 없고.)

102008 @ 그럼 어르신 결혼할 때 사주는 보션마씨 사주?(그럼 어르신 결혼할 때 사주는 보셨어요 사주?)

102008 #1 어?(어?)

102008 @ 사주팔자는 보션마씨?(사주팔자는 보셨어요?)

102008 #1 그때 당시에는 다 보는 거니까 뭐 좋다고 헤서 말이지 헹 헌 거니깐. 나가 뭐 살아보니까 그게 뭐 좋은 건지 궂은 건지 몰라도 말이지 아들 딸 낳아그넹 잘 살면 뒈는 거 아니?(그때 당시에는 다 보는 거니까 뭐 좋다고 해서 말이지 해서 한 거니깐. 내가 뭐 살아보니까 그게 뭐 좋은 건지 궂은 건지 몰라도 말이지 아들 딸 낳아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

102008 @ 예. 기지예. 그럼 그 사주보젠 하면 점쟁이한테 가야 뒈잖아예? 옹포[40]에는 그런 사람 잇언마씨?(예. 그렇지요. 그럼 그 사주보려고 하면 점쟁이한테 가야 되잖아요? 옹포에는 그런 사람 있었어요?)

---

39) '스타칭'은 원동기 시동을 걸기 위한 장비를 의미한다.

40) 옹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2008 #1 뭐 점쟁이도 보지마는 마을에 그런 거 보는 사람 하나둘 씩 잇엇어.(뭐 점쟁이도 보지마는 마을에 그런 거 보는 사람 하나둘 씩 있었어.)
102008 @ 아, 하나둘 씩 잇언마씨? 지금은 엇인가마씨?(아, 하나둘 씩 있었어요? 지금은 없나요?)
102008 #1 아, 지금은 옹포리에도 다 돌아가 버리고.(아, 지금은 옹포리에도 다 돌아가 버리고.)
102008 @ 예.(예.)
102008 #1 뭐 사람 죽으민 가서 말이여 장래 택일도 허고.(뭐 사람 죽으면 가서 말이야 장래 택일도 하고.)
102008 @ 그런 사람은?(그런 사람은?)
102008 #1 결혼허젠 허민 날도 좋은 날도 말이여 길일로 말이여 강 택일도 허고 헤달렌 헤낫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죽어 불곡 이제는 엇고게.(결혼하려고 하면 날도 좋은 날도 말이야 길일로 말이야 가서 택일도 하고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죽어 버리고 이제는 없고.)
102008 @ 이 마을 옹포리에는 엇어마씨?(이 마을 옹포리에는 없어요?)
102008 #1 ᄋᆞ. 엇고 만약에 ᄒᆞ면은 제주시에 가면 택일을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들 잇으니까.(어 없고 만약에 하면은 제주시에 가면 택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102008 @ 경 헤도 누구 돌아가시믄 뭐 사주 태어난 날짜나 돌아간 날짜랑 봐 가지고.(그렇게 해도 누구 돌아가시면 뭐 사주 태어난 날짜나 돌아간 날짜랑 봐 가지고.)
102008 #1 어. ᄒᆞ는데(어. 하는데.)
102008 @ 예.(예.)
102008 #1 요새는 보통 이듸는 삼일장으로 헤.(요새는 보통 여기는 삼일장으로 해.)
102008 @ 삼일장?(삼일장?)
102008 #1 어. 택일도 안보고 우리 교회 ᄀᆞ튼 데는 또 일절 택일 ᄀᆞ튼 거 보지 않으니까.(어. 택일도 안보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또 일절 택일 같은 거 보지 않으니까.)
102008 @ 그면 여기 뭐 그 누구 돌아가시믄 여기 장례 치르는 곳은 옹포리에 엇인가마씨?(그러면 여기 뭐 그 누구 돌아가시면 여기 장례 치르는 곳은 옹포리에 없나요?)
102008 #1 음 장례도 여기서.(음 장례도 여기서.)
102008 @ 한림?(한림?)
102008 #1 아니 한림 장례식장도 잇주마는 옹포도 여기서 장례도 치를 수 잇주.(아니 한림 장례식장도 있지마는 옹포도 여기서 장례도 치를 수 있지.)
102008 @ 예.(예.)
102008 #1 여기서는 손님 받고 뭐ᄒᆞ고 다헤서 가족 공동묘지에 가든지 또 아니면 화장허는 말이지 제주 양지공원에 가든지 이렇게 헐 수 잇인 것은 돼 잇곡. 요거 뭐 무슨 이렇게 뭐 정식적으로 허가 받은 장례식장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여기서는 손님 받고 뭐하고 다해서 가족 공동묘지에 가든지 또 아니면 화장하는 말이지 제주 양지공원에 가

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돼 있고. 요거 뭐 무슨 이렇게 뭐 정식적으로 허가 받은 장례식장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102008 @ 예.(예.)
102008 #1 어려우면 이듸 와서 ᄒᆞ겟다면 하루에 한 십만 원인가 얼마 정도 사용료 허주게.(어려우면 여기 와서 하겠다면 하루에 한 십만 원인가 얼마 정도 사용료 하지.)
102008 @ 아 옆에 옆에.(아 옆에 옆에.)
102008 #1 ᄋᆞ. 저쪽에는 시신 놓는 냉동고가 잇곡 사람들 불편ᄒᆞ진 않지. 이듸 와서 이삼백 명 와그넹 주문헤도 여기 차가 한 건줌 칠팔십 대 이상 세울 수 잇거든. 게민 큰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결혼헐 땐 여기 빌렁 헤. 여기 장소가 넓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잇인 능력이 많으니까 딴 데는 식당 빌려 가지고 웬만큼 손님 많은 사람들은 장례식을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엇어.(어. 저쪽에는 시신 놓는 냉장고가 있고 사람들 불편하지는 않니. 여기 와서 이삼백 명 와서 주문해도 여기 차가 한 거의 칠팔십 대 이상 세울 수 있거든. 그러면 큰 사람들 왠만한 사람들 결혼할 때는 여기 빌려서 해. 여기 장소가 넓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니까 다른 데는 식당 빌려 가지고 웬만큼 손님 많은 사람들은 장례식을 결혼식을 치를 수가 없어.)
102008 @ 예. 보난 여기 잘도 넓은 거 닮아마씨.(예. 보니까 여기 매우 넓은 거 같아요.)
102008 #1 ᄋᆞ. 잘도 넓어. 게난 여기서 윳도 놀고 헐 수 잇인 공간도 많고 여기 전부 다 저쪽가지 전부 다 차량 말이여 세울 수 잇곡 웬만한 큰 행사는 한림에서도 여기 농협에서도 게이트볼 ᄀᆞ튼 거라든가 이런 거 헐 데는 여기 빌어 가지고 여기서 한 몇천 명 와서 먹게 뒈면은.(어. 매우 넓어. 그러니 여기서 윷도 놀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여기 전부 다 저쪽까지 전부 다 차량 말이야 세울 수 있고 웬만한 큰 행사는 한림에서도 여기 농협에서도 게이트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데는 여기 빌려 가지고 여기서 한 몇천 명 와서 먹게 되면.)
102008 @ 옛날 어르신 어렷을 때는 장례는 어떵 헤신가마씨?(옛날 어르신 어렸을 때는 장례는 어떻게 했었어요?)
102008 #1 옛날에 장례는 죽으민.(옛날에 장례는 죽으면.)
102008 @ 예.(예.)
102008 #1 집에서 택일 보고 헤 가지고.(집에서 택일 보고 해 가지고.)
102008 @ 예.(예.)
102008 #1 상여를 메어 상여.(상여를 메어 상여.)
102008 @ 상여를 메마씨?(상여를 메요?)
102008 #1 상여 다리 진 나무 영 헹 두 개 넣고.(상여 다리 긴 나무 이렇게 해서 두 개 넣고.)
102008 @ 예.(예.)
102008 #1 이렇게 줄로 얽어서 관을 거기다 놔서 무꺼 가지고 동네 사람을 이제 그걸 차출헤여.(이렇게 줄러 얽어서 관을 거기다 놔서 무꺼 가지고 동네 사람을 이제 그걸

차출해.)
102008 @ 예. 상여 메는 사람마씨?(예. 상여 메는 사람이요?)
102008 #1 응. 메는 사람은 이제 그날 아침 네 시면 네 시 다섯 시면 다섯 시에 그 장난 집으로 와그넹 아침에.(어. 메는 사람은 이제 그날 아침 네 시면 네 시 다섯 시면 다섯 시에 그 장난 집으로 와서 아침에.)
102008 @ 예.(예.)
102008 #1 돗궤기 석 점 헤그넹 찍으로 꿰 가지고 말이여 이제 그 돼지 잡은 저기 저 톳 저기 뭐 몸 놔 가지고 그 몸쿡[41]이라 허지.(돼지고기 석 점 해서 짚으로 꿰 가지고 말이야 이제 그 돼지 잡은 저기 저 톳 저기 뭐 모자반 놔 가지고 그 '몸쿡'이라 하지.)
102008 @ 몸쿡.('몸쿡'.)
102008 #1 몸쿡에다가 그거 석 점 놩 그걸 술 한 잔 먹고 헤 가지고 상여를 메 가지고.('몸쿡'에다가 그거 석 점 놔서 그걸 술 한 잔 먹고 해 가지고 상여를 메 가지고.)
102008 @ 예.(예.)
102008 #1 차량이 엇이난 객기리라는 공동묘지까지 이제 메고 가는 거야.(차량이 없으니까 '객기리'라는 공동묘지까지 이제 메고 가는 거야.)
102008 @ 아 공동묘지 여기 위에 잇어마씨?(아, 공동묘지 여기 위에 있어요?)
102008 #1 어 우에 객기리는 고림동[42] 거기 객기리라는 데가 잇인데 여기서 삼 키로 정도 뒈나.(어 위에 '객기리'는 고림동 거기 '객기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삼 키로 정도 되나.)
102008 @ 아, 지금도 잇어마씨?(아, 지금도 있어요?)
102008 #1 어 게. 거기까지 가는데 버치니까 사람들이 두 번 세 번을 교대헤서 올라가.(어 그럼. 거기까기 가는데 부치니까 사람들이 두 번 세 번을 교대해서 올라가.)
102008 @ 그래야지마씨.(그래야지요.)
102008 #1 음. 그 시신도 무거와. 사람이 살 때 들은 거ᄒᆞ고 죽엇을 때 들은 거ᄒᆞ고 곱빼기 더 차이 나. 아 그거 그거 이상허데.(음. 그 시신도 무거워. 사람이 살았을 때 들은 거하고 죽었을 때 들은 거하고 곱빼기 더 차이가 나. 아 그거 그거 이상하대.)
102008 @ 아, 어르신도 이렇게 상여 멘 적 잇어마씨?(아, 어르신도 이렇게 상여 멘 적 있어요?)
102008 #1 어, ᄀᆞ치 메고 말이여 ᄀᆞ치 올라간 적도 잇곡.(어, 같이 메고 말이야 같이 올라간 적도 있고.)
102009 @ 아까 그 결혼 얘기 다시 돌아가서 어르신 결혼 허실 때 요즘에는 막 그 혼수품이나 예물 ᄀᆞ튼 거 허는데 옛날에는 별로 없지 않안마씨?(아까 그 결혼 얘기 다시 돌아가서 어르신 결혼 하실 때 요즘에는 막 그 혼수품이나 예물 같은 거 하는데 옛날에는 별로 없지 않았어요?)

41) '몸쿡'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의미한다.
42) '고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102009 #1 옛날에는 우리가 결혼 헐 때만 헤도 뭐 부인들이 조끔 이불이나.(옛날에는 우리가 결혼 할 때만 해도 뭐 부인들이 조금 이불이나.)
102009 @ 예.(예.)
102009 #1 뭐 장롱이나 이렇게 하나 두 개 가져와그넹 당장 살 그 뭐 솟단지나 이런 거 뭐 기본적인 거.(뭐 장롱이나 이렇게 하나 두 개 가져와서 당장 살 그 뭐 솥단지나 이런 거 뭐 기본적인 거.)
102009 @ 기본적인 거만.(기본적인 거만.)
102009 #1 어게. 기본적인 것만 헤온 걸로 알아.(어. 기본적인 것만 해온 걸로 알아.)
102009 @ 그럼 어르신은 어떵 헨마씨?(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했어요?)
102009 #1 아, 내가 헐 때만 헤도 우리 집사람 이제 데려올 때만 헤도 이불 부모 줄 이불 ᄒᆞ나허고.(아, 내가 할 때만 해도 우리 집사람 이제 데려올 때만 해도 이불 부모 줄 이불 하나하고.)
102009 @ 예.(예.)
102009 #1 우리 더끌 이불 ᄒᆞ나허고 솟이영 요강 단지인가 무신 거 ᄒᆞ나허고 그 장롱ᄒᆞ나 허고 헤서 나는 그때 차가 엇어서 쓰리쿼터라고 헤 가지고 군용차 반 쓰리쿼터 그 큰 군용차 반으로 뭰 쓰리쿼터라고 허는 차를 타 가지고 여기서 판포[43]까지 나 색시를 데리러 가.(우리 덮을 이불 하나하고 솥과 요강 단지인가 무엇 하나하고 그 장롱 하나하고 해서 나는 그때 차가 없어서 쓰리쿼터라고 해 가지고 군용차 반 쓰리쿼터 그 큰 군용차 반으로 된 쓰리쿼터라고 하는 차를 타 가지고 여기서 판포까지 내 색시를 데리러 가.)
102009 @ 아, 판포? 판포 출신마씨?(아, 판포? 판포 출신이에요?)
102009 #1 그 판포 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상점 ᄒᆞ는 집 딸이엇는데 거기 거기 가서 데려왓인디 옛날엔 혼수가 엇어.(그 판포 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상점 하는 집 딸이었는데 거기 거기 가서 데려왔는데 옛날에는 혼수가 없어.)
102009 @ 엇엇지예?(없었지요?)
102009 #1 기본적인 게 이불허고 뭐 무신 옷가지 넣을 궤 그런 거나 ᄒᆞ나 가져오고 뭐 지금도 우리 집사람 가져온 궤도 지금도 잇어.(기본적인 게 이불하고 뭐 무슨 옷가지 넣을 궤 그런 거나 하나 가져오고 뭐 지금도 우리 집사람 가져온 궤도 지금도 있어.)
102009 @ 할머님이랑 나이 차이는 어떵 돼마씨?(할머님이랑 나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102009 #1 나보다 세 살 밑이 사오 년생 나 사이 년생이고.(나보다 세 살 밑에 사오 년생 나 사이 년생이고.)
102010 @ 판포로 할머니 데리고 온 다음에 결혼식은 어디서 하션마씨?(판포로 할머니 데리고 온 다음에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102010 #1 결혼식은 그때 그 진주사진관인가 허는데 잇어 사진관.(결혼식은 그때 그 진주사진관인가 하는데 있어 사진관.)

43) '판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2010 @ 아, 게난 그럼 그 결혼사진 찍언마씨?(아, 그러니 그럼 그 결혼사진 찍었어요?)
102010 #1 어게. 결혼사진 찍은 걸로 보민 진주사진관에서 결혼식은 헌 것 같애.(어. 결혼사진 찍은 걸로 보면 진주사진관에서 결혼식은 한 것 같아.)
102010 @ 그럼 그 진주사진관은 어디 잇어마씨?(그럼 그 진주사진관은 어디 있어요?)
102010 #1 한림, 한림에 잇인데 사진 찍어 주는 데인데 거기서 사진 찍고 말이지 결혼 예식 헌 거 같애.(한림, 한림에 있는데 사진 찍어 주는 데인데 거기서 사진 찍고 말이지 결혼 예식 한 거 같아.)
102010 @ 뭐 손님들은 따로 마당에서 하는 거 아니마씨?(뭐 손님들은 따로 마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102010 #1 아니 게난 그거 헤그넹 집에 왕 집에서 이제는 손님들 접대헹 돼지고기도 두 마리 잡고 뭐 무슨 허고 헷는데 내가 아이들 팔 때는 말이여 소도 잡고 말이여 돼지도 일곱 마리 잡고 뭐 바닷고기도 뭐 히라쓰 ᄀᆞ튼 거 열 몇 마리 차에 실렁 말이여 이렇게 헌 기억이 나지.(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서 집에 와서 집에서 이제는 손님들 접대해서 돼지고기도 두 마리 잡고 뭐 무슨 하고 했는데 내가 아이들 팔 때는 말이야 소도 잡고 말이야 돼지도 일곱 마리 잡고 뭐 바닷고기도 뭐 부시리 같은 거 열 몇 마리 차에 실어서 말이야 이렇게 한 기억이 나지.)
102010 @ 자식들 결혼 말고 어르신 결혼 할 때는 아버님이 결혼식 크게 열어주션마씨?(자식들 결혼 말고 어르신 결혼 할 때는 아버님이 결혼식 크게 열어주셨어요?)
102010 #1 아니 거 아버지가.(아니 거 아버지가.)
102010 @ 예.(예.)
102010 #1 거 뭐 별로 돈도 엇이난 돼지 한 마리 잡아도 동네잔치 헷거든 (거 뭐 별로 돈도 없으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도 동네잔치 했거든.)
102010 @ 예.(예.)
102010 #1 동네 사람만 와서 이제 먹고 잠깐 부주 그때 백 원인가 담고 지금이야 이삼만 원 오만 원 허주만 그때 당시에 부주는 한 백 원인가 영.(동네 사람만 와서 이제 먹고 잠깐 부주 그때 백 원인가 담고 지금이야 이삼만 원 오만 원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부조는 한 백 원인가 이렇게.)
102010 @ 그때도 부주는 잇엇다예?(그때도 부조는 있었군요?)
102010 #1 어, 부주는.(어, 부조는.)
102010 @ 지금도 잇인디 그때도 잇엇다예? 결혼식 하면 막 며칠 동안 허는 경우도 잇인데.(지금도 있는데 그때도 있었군요? 결혼식 하면 막 며칠 동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102010 #1 게난 잔치허젠 허민 전 삼일 후 삼일이라는 게 잇어 우리 저 제주도말로 전 삼일은 오늘 잔치허젠 허민 미리 준비헌덴 헤 가지고.(그러니까 잔치하려고 하면 전 삼일 후 삼일이라는 게 있어. 우리 저 제주도말로 전 삼일은 오늘 잔치하려고 하면 미

리 준비한다고 해 가지고.)
102010 @ 예.(예.)
102010 #1 뭐 돼지도 잡고 뭐 무신 전도 허고 전 삼일 헤 가지고 잔치 준비허여.(뭐 돼지도 잡고 뭐 무슨 전도 하고 전 삼일 해 가지고 잔치 준비해.)
102010 @ 예.(예.)
102010 #1 경 헹 잔칫날은 준비헌 걸 손님 먹이고.(그렇게 해서 잔칫날은 준비한 걸 손님 먹이고.)
102010 @ 예.(예.)
102010 #1 후 삼일은게 가문잔치[44]라고 헤 가지고.(후 삼일은 가문잔치라고 해 가지고.)
102010 @ 가문잔치가 후 삼일마씨?(가문잔치가 후 삼일이요?)
102010 #1 어. 후 삼일에 속하주게.(어. 후 삼일에 속하지.)
102010 @ 예.(예.)
102010 #1 가문잔치는 잔치를 잘 넘엇으니까 동네 사람들 와 가지고 뭐 남은 거 이거 잇으니까 ᄀᆞ치 먹고 이렇게 좀 오십쇼 헤 가지고게 이틀 삼일까지 먹엇다는 말이 잇거든.(가문잔치는 잔치를 잘 넘었으니까 동네 사람들 와 가지고 뭐 남은 거 이거 있으니까 같이 먹고 이렇게 좀 오십쇼 해 가지고 이틀 삼일까지 먹었다는 말이 있거든.)
102010 @ 음.(음.)
102010 #1 그게 전 삼일 후 삼일이 옛날 결혼의 풍습이고 집에서 헷고.(그게 전 삼일 후 삼일이 옛날 결혼의 풍습이고 집에서 했고.)
102010 @ 예.(예.)
102010 #1 이제는 뭐 무슨 예식장이여 뭐여 헷주마는. 그때는 집이 부족허민 옆집까지 빌엉 헷거든.(이제는 뭐 무슨 예식작이야 뭐야 했지만. 그때는 집이 부족하면 옆집까지 빌려서 했거든.)
102010 @ 예.(예.)
102010 #1 손님이 많이 오면 자기 집은게 뭐 한 열 사람도 못 앚을 방 말이여 두어 개밧긔 엇인디 오면 어쩔거야 마당에도 이 천막이라는 거 쳐 가지고 마당에 앚히고 다 헷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그러니까 다 이해허고 그렇게 살앗주.(손님이 많이 오면 자기 집은 뭐 한 열 사람도 못 앉을 방 말이야 두어 개밖에 없는데 오면 어쩔거야 마당에도 이 천막이라는 거 쳐 가지고 마당에 앉히고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지.)
102010 @ 게면 후 삼일은 가문잔치라고 허고 전 삼일은 무슨 잔치라고 헨마씨?(그러면 후 삼일은 가문잔치라고 하고 전 삼일은 무슨 잔치라고 했어요?)
102010 #1 그 그거는 준비 과정에 잇인 잔치난 그 잔치는 뭐라고 얘기헷는지 몰라도 분명히 후 삼일 잔치는 가문잔치라고 헤낫어. 일단 잔치가 본 잔치가 끗낭 다음 에 허

44) '가문잔치'는 제주 전통 혼례에서, 혼례 전날 가까운 친척들이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잔치를 의미한다.

는 거를 가문잔치라고 헷어.(그 그거는 준비 과정에 있는 잔치니까 그 잔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후 삼일 잔치는 '가문잔치'라고 했었어. 일단 잔치가 본 잔치가 끝나서 다음에 하는 거를 가문잔치라고 했어.)

102010 @ 아, 가문잔치를?(아, '가문잔치'를?)

102010 #1 어. 이제 그 가문들이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와 가지고.(어. 이제 그 가문들이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와 가지고.)

102010 @ 예.(예.)

102010 #1 이제 가문끼리 앚아서 남은 것도 음식도 먹고 남으면 조금 갈라도 주고 말이지.(이제 가문끼리 앉아서 남은 것도 음식도 먹고 남으면 조금 갈라도 주고 말이지.)

102010 @ 아, 경 헤 부난 가문잔치라고마씨.(아, 그렇게 해 버리니까 '가문잔치'라고요.)

102010 #1 응. 가문잔치라고 헤 가지고 그 가족들 외에 친족들이랑 그 외에는 동네 사람이라도 술 좋아허고 뭐 허는 사람은 와서 남은 거 잇으면 좀 나눠 먹고 말이야.(응. '가문잔치'라고 해 가지고 그 가족들 외에 친족들이랑 그 외에는 동네 사람이라도 술 좋아하고 뭐 하는 사람은 와서 남은 거 있으면 좀 나눠 먹고 말이야.)

102010 @ 어르신도 그렇게 길게 하는 잔치 가본 적 잇어마씨?(어르신도 그렇게 길게 하는 잔치 가본 적 있어요?)

102010 #1 아, 가 봣지 우리 할 때는 다 그런 거 잇으니까.(아, 가 봤지. 우리 할 때는 다 그런 거 있으니까.)

102010 @ 아, 전 삼일 후 삼일?(아, 전 삼일 후 삼일?)

102010 #1 응.(응.)

102010 @ 일주일 내내 하는 거다예?(일주일 내내 하는 거군요?)

102010 #1 게. 일주일로 봐야지.(그럼. 일주일로 봐야지.)

102010 @ 그면 결혼사진 찍은 건 가지고 잇어마씨?(그러면 결혼사진 찍은 거는 가지고 있어요?)

102010 #1 어. 가지고 잇지.(어. 가지고 있지.)

102011 @ 그믄 결혼헌 다음에 신혼살림은 어디서 헨마씨?(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신혼살림은 어디서 했어요?)

102011 #1 신혼살림은 우리 집에서 헷는데 뭐 그때는 말이여 아버지네가 말이야 별로 못 살고 헐 때니까 따로 집을 빌어서 내주거나 영 헐 정도는 못 뒈고 우리 집이 방 한 칸에.(신혼살림은 우리 집에서 했는데 뭐 그때는 말이야 아버지네가 말이야 별로 못 살고 할 때니까 따로 집을 빌려서 내주거나 이렇게 할 정도는 안 되고 우리 집이 방 한 칸에.)

102011 @ 예.(예.)

102011 #1 어머니도 살고 뭐 자식도 살고 뭐 이렇게 살앗지만 방 한 칸에 이제 그 한 몇 년 이삼 년 부모님네랑 ᄀᆞ치 살다그넹 그 인제 들어오는 이문간[45]이라고 헤 가

지고.(어머니도 살고 뭐 자식도 살고 뭐 이렇게 살았지만 방 한 칸에 이제 그 한 몇 년 이삼 년 부모님네랑 같이 살다가 그 인제 들어오는 문간채라고 해 가지고.)

102011 @ 예.(예.)

102011 #1 대문에 붙은 그걸 이제 좀 고쳐 가지고 그 쪽으로 가서 이제 단둘이만 살고 애기 낳고 살다그넹.(대문에 붙은 그걸 이제 좀 고쳐 가지고 그 쪽으로 가서 이제 단둘이만 살고 아기 낳고 살다가.)

102011 @ 아, 지금 잇인데 아니지예?(아, 지금 있는데 아니지요?)

102011 #1 어. 지금 잇인데.(어. 지금 있는데.)

102011 @ 아, 거기서 신혼살림 하션마씨?(아, 거기서 신혼살림 하셨어요?)

102011 #1 어. 허고 한 이년 간 부모네영 ᄀᆞ치 살다그넹 나중에는 대문 곧 들어오는 그 왼쪽 방에다가 옛날에는 그걸 이제 이문간방이라고 하는데 이문간.(어. 하고 한 이년 간 부모네와 같이 살다가 나중에는 대문 곧 들어오는 그 왼쪽 방에다가 옛날에는 그걸 이제 이문간방이라고 하는데 이문간.)

102011 @ 이문간 방.(문간채 방.)

102011 #1 이문간, 이문간이라는 건 대문이주게. 대문간을 이문간이라고 우리 제주도말로.(문간채, 문간채라는 건 대문이지. 대문간을 '이문간'이라고 우리 제주도말로.)

102011 @ 예. 예.(예. 예.)

102011 #1 이제 이야기허거든 이제 이문간 방에 이문간 방에다가 아버지가 조금 방 하나 꾸며 가지고 방 ᄒᆞ나 부엌 하나 헤서 둘이 거기서 살면서 아들 둘이 날 때까지 둘이 살앗나?(이제 이야기하거든 이제 문간채 방에 문간채 방에다가 아버지가 조금 방 하나 꾸며 가지고 방 하나 부엌 하나 해서 둘이 거기서 살면서 아들 둘이 날 때까지 둘이 살았나?)

102012 @ 그럼 아이들은 몇 명이라고 헷주마씨?(그럼 아이들은 몇 명이라고 했지요?)

102012 #1 삼남 일녀 낳아 가지고.(삼만 일녀 낳아 가지고.)

102012 @ 아, 삼남 일녀.(아, 삼남 일녀.)

102012 #1 하나는 한양대학 나오고 둘이는 서울 원광 광운 공대 나와 가지고 광운 공대 전자재료공학 나와서 삼성에 입사헤 가지고 디스플레이 부장이고 하나는 반도체 부장이고.(하나는 한양대학 나오고 둘이는 서울 원광 광운 공대 나와 가지고 광운 공대 전자재료공학 나와서 삼성에 입사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부장이고 하나는 반도체 부장이고.)

102012 @ 음.(음.)

102012 #1 이래 가지고 그 두 번째 놈은 일찍 진급헤 가지고 금방 한번 삼성 임원 헐 거야.(이래 가지고 그 두 번째 놈은 일찍 진급해 가지고 금방 한번 삼상 임원 할 거야.)

102012 @ 잘 나간다예?(잘 나가는군요?)

---

45) '이문간'은 집의 입구에 대문(大門) 곁에 있는 집채를 의미한다.

102012 #1 어. 아니, 아니 부장 뭔지도 칠팔 년 십 년 가까이 돼 가니깐.(어. 아니, 아니 부장 된지도 칠팔 년 십 년 가까이 돼 가니깐.)
102012 @ 그럼 손지 손녀들도?(그럼 손자 손녀들도?)
102012 #1 어 손지들은 이제 대학교에 가 잇인 애도 잇곡.(어. 손자들은 이제 대학교에 가 있는 애도 있고.)
102012 @ 벌써?(벌써?)
102012 #1 어. 뭐 웨국에 나가 잇인 애도 잇곡.(어.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애도 있고.)
102012 @ 아, 기꽝? 그럼 자녀분들은 삼남 일녀이니까 그 결혼은?(아, 그렇습니까? 그럼 자녀분들은 삼남 일녀이니까 그 결혼은?)
102012 #1 다 헷지.(다 했지.)
102012 @ 다 헷는데 다 제주도에서?(다 했는데 다 제주도에서?)
102012 #1 다 제주도에서 아니. 저 제주도에서도 허곡 큰아들은 서울서 헷어.(다 제주도에서 아니. 저 제주도에서도 하고 큰아들은 서울에서 했어.)
102012 @ 서울서 헨마씨?(서울에서 했어요?)
102012 #1 서울 한양대 나와그넹 거기 한양대 다니는 여자허고 그때 뭐허게 뒈서 서울서 결혼허게 돼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다 올라가낫주게. 며느리도 삼양[46]인데.(서울 한양대 나와서 거기 한양대 다니는 여자하고 그때 뭐하게 되서 서울에서 결혼하게 돼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다 올라갔었지. 며느리도 삼양인데.)
102012 @ 아. 며느님도 제주도 분마씨?(아. 며느님도 제주도 분이에요?)
102012 #1 어. 경 헹 저 두 번째 놈은 제주도에서 헷는데 첫 번째는.(어. 그렇게 해서 저 두 번째 놈은 제주도에서 했는데 첫 번째는.)
102012 @ 예.(예.)
102012 #1 제주 오라[47]인가 거기 잇인 데인데 여자가 경 헤 가지고 서울서 그때 대학교 무신 총장인가 뭔가 주례 어쩌구저쩌구 한다고 헤 가지고 부모만 올라오면 뭰다고 헤서 양쪽 양가 부모만 올라강 간단히 형제 친족만.(제주 오라인가 거기 있는 데인데 여자가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에서 그때 대학교 무슨 총장인가 뭔가 주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 가지고 부모만 올라오면 된다고 해서 양쪽 양가 부모만 올라가서 간단히 형제 친족만.)
102012 @ 간단하게 허고 밑에선 잔치 크게 허고마씨?(간단하게 하고 밑에서는 잔치 크게 하고요?)
102012 #1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앗주.(뭐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지.)

3. 밭일

46) '삼양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47)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다.

103001 @ 밧일에는 뭐 뭐가 잇주마씨 밧일에?(밭일에는 뭐 뭐가 있지요? 밭일에?)
103001 #1 지금은 옛날에 아까 얘기헷엇지마는 조, 콩, 보리 뭐 감자 고구마 이렇게 좀 헷는데.(지금은 옛날에 아까 얘기했었지만 조, 콩, 보리 뭐 감자 고구마 이렇게 좀 했는데.)
103001 @ 예.(예.)
103001 #1 지금은 조, 콩, 보리 이런 거는 별로 잘 안 허고.(지금은 조, 콩, 보리 이런 거는 별로 잘 안 하고.)
103001 @ 예.(예.)
103001 #1 주로 하는 게 감저 자색고구마라고 헤 가지고.(주로 하는 게 고구마 자색고구마라고 해 가지고.)
103001 @ 자색고구마마씨?(자색고구마요?)
103001 #1 그게 고구마라도 자색빛 띠는 고구마가 잇어.(그게 고구마라도 자색빛 띠는 고구마가 있어.)
103001 @ 예.(예.)
103001 #1 그거를 인제 계약 제배헤 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에 자색고구마 그 저기 저 그걸로 뭐 과자 ᄀᆞ튼 거 만들어 가지고 ᄑᆞ는 공장이 잇엇어. 그걸 계약 제배헤 가지고 자색고구마도 좀 제배허고.(그거를 인제 계약 제배해 가지고 여기다가 공장에 자색고구마 그 저기 저 그걸로 뭐 과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공장이 있었어. 그걸 계약 제배해 가지고 자색고구마도 좀 제배하고.)
103001 @ 계약 제배마씨?(계약 제배요?)
103001 #1 어. 계약 제배 공장에서 씨를 줘 가지고 농민안티 몇 사람.(어. 계약 제배 공장에서 씨를 줘 가지고 농민한테 몇 사람.)
103001 @ 예.(예.)
103001 #1 이거를 심게 허고 내가 그것이 수확 철이 뒈민 내가 다 산다는 그런 계약 제배를 허는 자색고구마 허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잇곡 뭐 갓낭이라든가 다마내기 마늘 뭐.(이거를 심게 하고 내가 그것이 수확 철이 되면 내가 다 산다는 그런 계약 제배를 하는 자색고구마 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고 뭐 양배추라든가 양파 마늘 뭐.)
103001 @ 마농도마씨?(마늘도요?)
103001 #1 마농, 브록콜리 뭐 그 콩도 조금 말이여 저기 우이 허는 사람도 잇곡. 인제 옛날 보리, 조 이렇게 허는 거 엇어.(마늘, 브로콜리 뭐 그 콩도 조금 말이야 저기 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인제 옛날 보리, 조 이렇게 하는 거 없어.)
103001 @ 아, 지금은 엇고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헨마씨?(아, 지금은 없고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했어요?)
103001 #1 다 그거지. 밧 쪼끔 잇인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주식을.(다 그거지. 밭 조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주식을.)
103001 @ 예.(예.)
103001 #1 원료로 허기 위헤서는 그거를 보리, 조, 콩 뭐 감자, 고구마 안 심지 못ᄒᆞ

지 그때는.(원료로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보리, 조, 콩 뭐 감자, 고구마 안 심지 못하지 그때는.)

103001 @ 과일 ᄀᆞ튼 거 뭐 안 헨마씨?(과일 같은 거 뭐 안 했어요?)

103001 #1 과일은 여기는 뭐 서귀포 ᄀᆞ트민 밀감 ᄀᆞ튼 거 헤 가지고 뭐 나무라도 헤 가지고 뭐 헷지마는 여긴 그때 기후도 안 맞고 뭐 그런 거 ᄒᆞ는 사람도 엇엇고 그것도 뭐 기술도 필요허고 여러 가지 정보도 잇어야 허고.(과일은 여기는 뭐 서귀포 같으면 밀감 같은 거 해 가지고 뭐 나무라도 해 가지고 뭐 했지만 여긴 그때 기후도 안 맞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도 뭐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있어야 하고.)

103001 @ 예.(예.)

103001 #1 밧도 말이지 뭐 무슨 좀 말이여 허고 말이여 허고 헤야 허는 건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허는 사람 엇고.(밭도 말이지 뭐 무슨 좀 말이야 하고 말이야 하고 해야 하는 건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 없고.)

103001 @ 그럼 밧일 하기는 옹포리는 어때마씨?(그럼 밭일 하기는 옹포리는 어때요?)

103001 #1 밧이 좋지 않지. 암반이 많아 가지고 옛날 그 쟁기로(밭이 좋이 않지. 암반이 많아 가지고 옛날 그 쟁기로.)

103001 @ 예.(예.)

103001 #1 밧을 갈지를 못할 정도엿어.(밭을 갈지를 못할 정도였어.)

103001 @ 아, 쟁기로도마씨?(아, 쟁기로도요?)

103001 #1 ᄋᆞ. 그 저기 그 아래 빌레[48]가 많아 가지고.(어. 그 저기 그 아래 '빌레'가 많아 가지고.)

103001 @ 빌레가 많아 부난.('빌레'가 많아 버리니까.)

103001 #1 ᄋᆞ. 빌레가 많아 부난 주로 웬만헤그넹 큰 밧에 아니ᄒᆞᆫ 사람들은 ᄀᆞᆯ겡이 농사라고 헤 가지고 ᄀᆞᆯ겡이로 이렇게 긁어 가지고 헷던 걸 헷엇고.(어. '빌레'가 많아 버리니까 주로 웬만해서 큰 밭에 안한 사람들은 호미 농사라고 해 가지고 호미로 이렇게 긁어 가지고 했던 걸 했었고.)

103001 @ 어르신 그럼 보리농사는 헤 보션마씨?(어르신 그럼 보리농사는 해 보셨어요?)

103001 #1 아, 보리농사 우리 뭐 몇 섬씩 헷지.(아, 보리농사 우리 뭐 몇 섬씩 했지.)

103001 @ 아, 몇 섬씩 한 섬이 어느 정도 돼마씨?(아, 몇 섬씩 한 섬이 어느 정도 돼요?)

103001 #1 한 섬이 이런 그 열, 열 말인가 열 말이 한 섬인가 헐 거라.(한 섬이 이런 그 열, 열 말인가 열 말이 한 섬인가 할 거야.)

103001 @ 아, 열 말이 한 섬이꽝?(아, 열 말이 한 섬입니까?)

103001 #1 아, 나가 알기로는.(아, 내가 알기로는.)

---

48) '빌레'는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혀진 돌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3001 @ 예.(예.)
103001 #1 열 말인가 열다섯 말인가가 한 섬인데 보리 헤다가 여기 와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 홀타 가지고 그 저기 저 보리고고리만 헤 가지고 ᄒᆞ면은 메타기로 그 기계 와 가지고 그걸 이제 돌려 가지고 알곡만 이렇게 열 섬 헐 정도로 헷주게.(열 말인가 열 다섯 말인가가 한 섬인데 보리 해다가 여기 와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 홅아 가지고 그 저기 저 보리이삭만 해 가지고 하면 탈곡기로 그 기계 와 가지고 그걸 이제 돌려 가지고 알곡만 이렇게 열 섬 할 정도로 했지.)
103001 @ 그럼 할머니 그냥 밧일 물어볼게예?(그럼 할머니 그냥 밭일 물어볼게요?)
103001 #2 응.(응.)
103001 @ 밧일에는 뭐, 뭐 잇언마씨? 옛날에는?(밭일에는 뭐, 뭐 있었어요? 옛날에는?)
103001 #2 옛날에 그자 조, 보리 많이 헷주게게. 조, 보리.(옛날에 그저 조, 보리 많이 했지. 조, 보리.)
103001 @ 아, 조, 보리.(아, 조, 보리.)
103001 #2 어. 조, 보리.(어. 조, 보리.)
103001 @ 두 개만?(두 개만?)
103001 #2 뚠 건 아니 허고. 이제 막 뚠 것들 헴주마는 옛날에는 조, 보리 그자.(딴 건 안 하고. 이제 막 딴 것들 하고 있지마는 옛날에는 조, 보리 그저.)
103001 @ 그럼 딴 거는 요즘에는 뭐헤마씨?(그럼 딴 거는 요즘에는 뭐해요?)
103001 #2 뚠 거는 야채들 헴주마는 옛날은 그런 것이 엇엇수게.(딴 거는 야채들 하고 있지마는 옛날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103001 @ 예.(예.)
103001 #2 멘딱 조허곡 보리허곡 그것만.(전부 조하고 보리하고 그것만.)
103001 @ 아, 그것만.(아, 그것만.)
103001 #2 응.(응.)

보리농사

103002 @ 어르신 이제 보리농사 좀 물어보젠 헴신디예.(어르신 이제 보리농사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03002 #1 어.(어.)
103002 @ 옛날 방식 그냥 ᄀᆞᆯ아 주면 돼마씨.(옛날 방식 그냥 말해 주면 돼요.)
103002 #1 게난 옛날 방식은 보리를 이제 헐 때는 옛날에 주로 말이여 보리씨 가져오면은 그 통지라고 헤 가지고.(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보리를 이제 할 때는 옛날에 주로 말이야 보리씨 가져 오면 그 돼지우리라고 해 가지고.)
103002 @ 예. 통지.(예. 돼지우리.)
103002 #1 통지 거기서 거름을 내어 가지고.(돼지우리 거기거 거름을 내어 가지고.)

103002 @ 예.(예.)
103002 #1 그 보리씨를 거기에 놩 사람 발로 밟아 가지고.(그 보리씨를 거기에 놔서 사람 발로 밟아 가지고.)
103002 @ 처음부터 궁금한 게 보리농사 하려면 준비를 헤야 하는데 뭐, 뭐 필요헤마씨?(처음부터 궁금한 게 보리농사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 뭐 필요해요?)
103002 #1 게난 그런 거름, 거름이 좀 필요허고.(그러니까 그럼 거름, 거름이 좀 필요하고.)
103002 @ 예.(예.)
103002 #1 그 저기 통지에 거름, 거름을 이제 쉐시랑으로 긁어그넹 내쳐 가지고 이렇게 헤서 그걸 찌어.(그 저기 돼지우리에 거름, 거름을 이제 쇠스랑으로 긁어서 내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쪄.)
103002 @ 예.(예.)
103002 #1 찌어 가지고 말이여 이제 이제 있다가 보리농사 할 때는 밧 갈아가지고 그 이제 거름에다가 말이지 그 이제 가서 뿌리면.(찌어 가지고 말이야 이제 이제 있다가 보리농사 할 때는 밭 갈아 가지고 그 이제 거름에다가 말이지 그 이제 가서 뿌리면.)
103002 @ 예.(예.)
103002 #1 보리가 나.(보리가 나.)
103002 @ 보리농사에 필요헌 거는 통지에 잇인 거름이랑 보리마씨?(보리농사에 필요한 거는 돼지우리에 있는 거름이랑 보리에요?)
103002 #1 어. 보리씨를 헤서 좀 말이여 제주도말로 버무려 가지고 말이지 이제는 좀 발로라도 좀 붋아그넹 말이여 그 씨허고 그 거름허고 이제는 말이여 그 영양분이 이제 아마 거름이 영양분인 모양이라. 그 한 걸 보니까 그래서 밧에 가그넹 뿌리면 보리 싹이 나.(어. 보리씨를 해서 좀 말이야 제주도말로 버무려 가지고 말이지 이제는 좀 발로라도 좀 밟아서 말이야 그 씨하고 그 거름하고 이제는 말이야 그 영양분이 이제 아마 거름이 영양분인 모양이야. 그 한 걸 보니까 그래서 밭에 가서 뿌리면 보리 싹이 나.)
103002 @ 아.(아.)
103002 #1 그래 가지고는 사월 내지 오월 내 생일날 때 뒈면은 보리를 말이여 ᄒᆞ여. 사월 이십 이 일이 말이여 대부분 말이지 보리를 그 때도 많이 헷어.(그래 가지고는 사월 내지 오월 내 생일날 때 되면 보리를 말이야 해. 사월 이십 이 일이 말이야 대부분 말이지 보리를 그 때도 많이 했어.)
103002 @ 그럼 보리씨는 뭐 예전에는 뭐 정부에서 줘신가마씨?(그럼 보리씨는 뭐 예전에는 뭐 정부에서 줬나요?)
103002 #1 아니 그거는 이제 자기가.(아니 그거는 이제 자기가.)
103002 @ 예.(예.)
103002 #1 보리 갈면은.(보리 갈면.)
103002 @ 예.(예.)
103002 #1 씨로 저기 보관헹 놔둬야 돼. 집에다가.(씨로 저기 보관해서 놔둬야 돼. 집

에다가.)
103002 @ 아, 씨도.(아, 씨도.)
103002 #1 어. 내년에 홀 거는.(어. 내년에 할 거는.)
103002 @ 예.(예.)
103002 #1 밥을 헤 먹거나 말이여 어디 가 지어서 그거는 굶어 죽어도 그거 씨는 말이지 ᄌᆞ냥[49] 정신이라 헤 가지고 그거는 거 내년에 살림살이를 위헤 가지고는 말이여 그거는 필요 꼭 헌 거니까.(밥을 해 먹거나 말이야 어디 가 지어서 그거는 굶어 죽어도 그거 씨는 말이지 'ᄌᆞ냥' 정신이라 해 가지고 그거는 거 내년에 살림살이를 위해 가지고는 말이야 그거는 필요 꼭 한 거니까.)
103002 @ 예.(예.)
103002 #1 보리씨는 절대 안 먹어.(보리씨는 절대 안 먹어.)
103002 @ 보리씨는 절대 안 먹고.(보리씨는 절대 안 먹고.)
103002 #1 ᄋᆞ. 저 예를 들어서 씨앗 조라던가 보리라던가 고구마 ᄀᆞ튼 것도 씨는 이제 겨울에 고구마 씨 홀 거는 이 저기 온돌에 말이여 방에 이렇게 놧다그넹 유지를 잘 헷다가 한 삼월이나 이월 달에 우영에 싱거그넹 그 고구마 줄기 나면 그 캐가지고 요만씩 잘라 가지고 밧에다가 싱거그넹 고구마를 헷거든.(어. 저 예를 들어서 씨앗 조라던가 보리라던가 고구마 같은 것도 씨는 이제 겨울에 고구마 씨 할 거는 이 저기 온돌에 말이야 방에 이렇게 놨다가 유지를 잘 했다가 한 삼월이나 이월 달에 텃밭에 심어서 그 고구마 줄기 나면 그 캐 가지고 요만씩 잘라 가지고 밭에다가 심어서 고구마를 했거든.)
103003 @ 그면 보리밧에 거름 필요하다고 헷잖아예?(그러면 보리밭에 거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103003 #1 응.(응.)
103003 @ 그면 그거 어떻게 준비하주마씨? 그깐 그거 통지에서 얻는데 옛날에는 통지에 돼지를 키웟수광?(그러면 그거 어떻게 준비하지요? 그러니까 그거 돼지우리에서 얻는데 옛날에는 돼지우리에 돼지를 키웠습니까?)
103003 #1 돼지들 키워낫는데.(돼지들 키웠었는데.)
103003 @ ᄃᆞ새기 키웟수광?(돼지 키웠습니까?)
103003 #1 ᄋᆞ. ᄃᆞ새기 이제 거름에 말이여 ᄇᆞ릿낭이라고 말이여 보리때.(어. 돼지 이제 거름에 말이야 보릿짚이라고 말이야 보리때.)
103003 @ 보릿낭마씨?(보릿짚이요?)
103003 #1 ᄋᆞ. 보릿낭 보리 헤나면 이만헌 보리때 잇거든?(어. 보릿짚 보리 하면 이만한 보리때 있거든?)
103003 @ 예. 보리때.(예. 보리때.)
103003 #1 보릿낭을 이제는 말이여 통지에 집어 넣으면은.(보릿짚을 이제는 말이야 돼지우리에 집어 넣으면.)
103003 @ 예.(예.)

49) 'ᄌᆞ냥'은 식량이나 물건을 아껴서 비축함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3003 #1 돼지가 다니멍 말이지 마 그거 붋아 가지고 똥 싸고 뭐 허고 계속 그 거름을 그 통지에서 만들어 주는 거지 일 년 내내.(돼지가 다니면서 말이지 마 그거 밟아 가지고 똥 싸고 뭐 하고 계속 그 거름을 그 돼지우리에서 만들어 주는 거지 일 년 내내.)

103003 @ 어르신 집에도 통지가 잇언마씨?(어르신 집에도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103003 #1 잇어낫지.(있었지.)

103003 @ 아, 이 여기 이쪽에?(아, 이 여기 이쪽에?)

103003 #1 여쪽에 잇어낫는데 이제는 다 그런 거 엇주마는 옛날에는 집집마다.(이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103003 @ 예.(예.)

103003 #1 똥돼지를 다 질뤄낫어.(똥돼지를 다 길렀었어.)

103003 @ 음.(음.)

103003 #1 그렇게 허다그넹 이제 그 후에 인제 그런 뭐 처음엔 걸름으로 말이지 그 보리씨 놔 가지고 주물러서 말이야 밧에다가 헤서 보리 헷지마는 그 후에는 씨만 가져다가 뿌리고.(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후에 인제 그런 뭐 처음에는 거름으로 말이지 그 보리씨 놔 가지고 주물러서 말이야 밭에다가 해서 보리 했지만 그 후에는 씨만 가져다가 뿌리고.)

103003 @ 아.(아.)

103003 #1 인제 거름이 없으니까.(인제 거름이 없으니까.)

103003 @ 그 예전에는 통지에서 헷인디 요즘에는 그 사서?(그 예전에는 돼지우리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 사서?)

103003 #1 ᄋᆞ. 그대로 보리씨만.(어. 그대로 보리씨만.)

103003 @ 예.(예.)

103003 #1 준비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맥주보리 ᄀᆞ튼 거 허면은 맥주훼사 ᄀᆞ튼 데서 말이여 받아 가그넹 말이여 중간에까지는 한 십년 전까지만 헤도 보리농사 많이 헤 가지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전부 다 등급 매겨 가지고 다 받아 가그넹 그렇게.(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맥주보리 같은 거 하면 맥주회사 같은 데서 말이야 받아 가서 말이야 중간에까지는 한 십년 전까지만 해도 보리농사 많이 해 가지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전부 다 등급 매겨 가지고 다 받아 가서 그렇게.)

103003 @ 아, 십년 전까지마씨?(아, 십년 전까지요?)

103003 #1 ᄋᆞ. 십년 전까지만 헤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우리 옹포가 공포헌다고 허면 마을훼관에다가 다 보리 뭐 흔 집이 열 가마 스무 가마 많이 한 데는 오십 가마 백 가마 막 갖다 놧거든.(어. 십년 전까지만 해도 농산물 검사소에서 우리 옹포가 공포한다고 하면 마을회관에다가 다 보리 뭐 한 집에 열 가마 스무 가마 많이 한 데는 오십 가마 백 가마 막 갖다 놨거든.)

103003 @ 예.(예.)

103003 #1 그래 가지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와서 말이여 그 이만한 대꼬쟁이 닮은 걸

로 말이야 이렇게 헤서 찔러 가지고 수분 ᄀᆞ튼 거 잘 말렷는지 안 말렷는지 봐 가지고 딱 말이여 이등 삼등 뭐 등외 일등 이렇게 다 검사를 헷엇주게.(그래 가지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와서 말이야 그 이만한 대꼬챙이 닮은 걸로 말이야 이렇게 해서 찔러 가지고 수분 같은 거 잘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봐 가지고 딱 말이야 이등 삼등 뭐 등외 일등 이렇게 다 검사를 했었지.)

103004 @ 음. 그러면 보리는 언제 어떻게 갈아마씨?(음. 그러면 보리는 언제 어떻게 갈아요?)

103004 #1 보리는게 그 겨울에 인제 갈아 가지고.(보리는 그 겨울에 인제 갈아 가지고.)

103004 @ 어떵 갈아마씨 갈 때는?(어떻게 갈아요 갈 때는?)

103004 #1 갈 때는 소 인제 헤서 쟁기 헤 가지고 인제 소가 꼭 쟁기 잇인 할아방이나 뭐 그런 마을에도 전문적으로 밧 갈레 뎅기는 사람이 잇어.(갈 때는 소 인제 해서 쟁기 해 가지고 인제 소가 꼭 쟁기 있는 할아버지나 뭐 그런 마을에도 전문적으로 밭 갈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103004 @ 아, 그 밧만 가는?(아, 그 밭만 가는?)

103004 #1 ᄋᆞ. 밧만 갈아주면은 것도 돈도 뒈고 ᄒᆞ니까.(어. 밭만 갈아주면 것도 돈도 되고 하니까.)

103004 @ 예.(예.)

103004 #1 밧도 갈아주고 말이여 그거 헤 가지고 밧 갈러 가면은 거 집에서는 보리씨 ᄀᆞ튼 거 장만허고 말이지 이렇게 보리씨 뿌리면.(밭도 갈아주고 말이야 그거 해 가지고 밭 갈러 가면 거 집에서는 보리씨 같은 거 장만하고 말이지 이렇게 보리씨 뿌리면.)

103004 @ 예.(예.)

103004 #1 섬비[50]라고 ᄒᆞ는 게 잇어. 나무로 말이여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끙게라고 하는 게 있어. 나무로 말이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103004 @ 섬비마씨?(끙게요?)

103004 #1 섬비가 뭐냐 허면은.(끙게가 뭐냐 하면.)

103004 @ 예.(예.)

103004 #1 나무를 말이여 막 영 여러 개 놔서 말이여 이렇게 헤 가지고 여꺼그넹 이렇게 그 밧을 갈면 보리씨 삐면 보리씨 삔 뒤로 그걸 끗어. 끗어 가지고 흑허고 보리허고 말이여 잘 범벅이 뒐 수 잇게끔 말이여 헤주는 게 거 섬비라고 하는 거여.(나무를 말이야 막 이렇게 여러 개 놔서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그 밭을 갈면 보리씨 뿌리면 보리씨 뿌린 뒤로 그걸 끌어. 끌어 가지고 흙하고 보리하고 말이야 잘 범벅이 될 수 있게끔 말이야 해주는 게 거 끙게라고 하는 거야.)

103004 @ 음.(음.)

103004 #1 섬비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말이여 이제는 밧을 전부 다 갈고 씨 뿌리면 돌

50) 끙게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끄서귀, 끄슬퀴, 끄슬피, 섬피'라고도 한다.

아다니면서 그걸 잘 버무려주면은 그다음에는 이월 달 정도 뒈면은 싹이 나면 사월 달에 수확허고.(끙게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말이야 이제는 밭을 전부 다 갈고 씨 뿌리면 돌아다니면서 그걸 잘 버무려주면 그다음에는 이월 달 정도 되면 싹이 나면 사월 달에 수확하고.)

103004 @ 보리 가는 사람이 따로 잇인 거는 처음 들어봐신디 옹포리에만 잇인 거마씨 아니면 다른 데도?(보리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옹포리에만 있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데도?)

103004 #1 아니 다른 데도 경운기 ᄀᆞ튼 거 트랙터 ᄀᆞ튼 거 잇어 가지고 밧 가는 사람이 잇듯이 옛날에도 이런 뭐 우리 마을에도 뭐 크게는 아니라도 한 열 집 정도 농가는 소나 쟁기 다 건줌 잇어. 그러면은 우리가 빌어다가 쓰지.(아니 다른 데도 경운기 같은 거 트랙터 같은 거 있어 가지고 밭 가는 사람이 있듯이 옛날에도 이런 뭐 우리 마을에도 뭐 크게는 아니라도 한 열 집 정도 농가는 소나 쟁기 다 거의 있어. 그러면 우리가 빌려다가 쓰지.)

103004 @ 아, 빌어다가 써마씨?(아, 빌려다가 써요?)

103004 #1 ᄋᆞ. 거 우리 뭐 보리 갈꺼난 와서 말이여 보리 갈아 ᄃᆞᆯ렌 헤그넹 아침 일곱 여덟 시에 오면은 소 것도 헤 놧당 소도 멕이고 말이여 사람 말이지 아침 점심 뭐 다 헤서 밧에 가져가그넹 말이여 쟁기로 밧 갈다 쉬어 가지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헤 가지고 헤 가지고는 인제 그 농사를 지엇는데.(어. 거 우리 뭐 보리 갈꺼니까 와서 말이야 보리 갈아 달라고 해서 아침 일곱 여덟 시에 오면 소 것도 해놨다가 소도 먹이고 말이야 사람 말이지 아침 점심 뭐 다 해서 밭에 가져가서 말이야 쟁기로 밭 갈다 쉬어 가지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가지고는 인제 그 농사를 지었는데.)

103004 @ 예.(예.)

103004 #1 그 후에 뭐 이제는 그런 것이 큰 소득도 엇고 허난 이제는 그런 것도 안 ᄒᆞ고.(그 후에 뭐 이제는 그런 것이 큰 소득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하고.)

103004 @ 음.(음.)

103004 #1 특수작물이라는 그런 계통으로 사람들이 다 전환이 돼서.(특수작물이라는 그런 계통으로 사람들이 다 전환이 돼서.)

103004 @ 예. 특수작물로?(예. 특수작물로?)

103004 #1 양파라든가 마농 뭐, 뭐 무슨 브로콜리 고추 이런 말이지 그런 특수작물 식으로 이 그런 걸로 갈아 가지고는.(양파라든가 마늘 뭐, 뭐 무슨 브로콜리 고추 이런 말이지 그런 특수작물 식으로 이 그런 걸로 갈아 가지고는.)

103004 @ 예.(예.)

103004 #1 육지에다가 올리면 돈도 많이 인제 벌고.(육지에다가 올리며 돈도 많이 인제 벌고.)

103005 @ 그럼 보리씨도 뿌려야 뒈잖아예? 그럼 어떵 뿌려마씨? 그냥 손으로 뿌려마씨?(그럼 보리씨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뿌려요? 그냥 손으로 뿌려요?)

103005 #1 아니.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보리씨를 가지고.(아니.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보리씨를 가지고.)
103005 @ 바구니?(바구니?)
103005 #1 어. 영 헤서 메어 가지고는 이것이 보리씨만 들면 우리 어머니는 그 이 바구니에 잇인 보리를 이제 밧 갈아가는 데로 이렇게 이렇게 뿌리지. 손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어. 이렇게 해서 메어 가지고는 이것이 보리씨만 들면 우리 어머니는 그 이 바구니에 있는 보리를 이제 밭 갈아가는 데로 이렇게 이렇게 뿌리지. 손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103005 @ 그걸 바구니라고 헤마씨? 아니면 다른 말로 뭐 엇인가마씨?(그걸 바구니라고 해요? 아니면 다른 말로 뭐 없나요?)
103005 #1 멩텡이, 멩텡이.(망태기, 망태기.)
103005 @ 멩텡이.(망태기.)
103005 #1 멩텡이에 보리씨 놔 가지고.(망태기에 보리씨 놔 가지고.)
103005 @ 예.(예.)
103005 #1 멩텡이가 영 헹 끈ᄒᆞ고 이디 멩텡이에 보리씨 놔 가지고.(망태기에 이렇게 해서 끈하고 여기 망태기에 보리씨 놔 가지고.)
103005 @ 예.(예.)
103005 #1 보리씨는 별도로 아졍 갓다가 멩텡이에 이젠 그 자꾸 뭐 가져다니기 불편하니깐 멩텡이에 보리씨 놩 밧 가는 데로 댕기면서.(보리씨는 별도로 가져서 갔다가 망태기에 이제는 그 자꾸 뭐 가져다니기 불편하니까 망태기에 보리씨 놔서 밭 가는 데로 다니면서.)
103005 @ 예.(예.)
103005 #1 뿌려주면 나중에 한 세 고지나 네 고지 말이지 다 뒈면 섬비로.(뿌려주면 나중에 한 세 이랑이나 네 이랑 말이지 다 되면 끙게로.)
103005 @ 예.(예.)
103005 #1 섬비로 이젠 그걸 끗는 거야.(끙게로 이제는 그걸 끄는 거야.)
103005 @ 아, 그까 손으로 우선 뿌린 다음에 섬비로 뒤에서.(아, 그러니까 손으로 우선 뿌린 다음에 끙게로 뒤에서.)
103005 #1 ᄋᆞ. 한 서너 고지 우선 밧 갈고 씨 뿌려 가지고 잇으면 아 이제는 섬비로 말이여 이거를 말이여 잘 말이지 흑을 더꺼줘야 뒈겟다 할 때는 섬비로 끗어 가지고 보리를 이제 좀 보리가 그대로 우에 놓으면 싹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어. 한 서너 이랑 우선 밭 갈고 씨 뿌려 가지고 있으면 아 이제는 끙게로 말이야 이거를 말이야 잘 말이지 흙을 덮어줘야 되겠다 할 때는 끙게로 끌어 가지고 보리를 이제 좀 보리가 그대로 위에 놓으면 싹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103005 @ 그렇주마씨.(그렇지요.)
103005 #1 묻을 수 잇게끔 섬비로 끗으면.(묻을 수 있게끔 끙게로 끌면.)
103005 @ 예.(예.)
103005 #1 보리가 잘 나.(보리가 잘 나.)

103005 @ 그러면 섬비는 뭐 소나 말이 허지예?(그러면 끙게는 뭐 소나 말이 하지요?)
103005 #1 아니. 사람도 끗고 뭐 저런 거 좀 동물이 엇이민 사람이 끗어 둘이.(아니. 사람도 끌고 뭐 저런 거 좀 동물이 없으면 사람이 끌어 둘이.)
103005 @ 둘이?(둘이?)
103005 #1 으. 남자 둘이.(어. 남자 둘이.)
103005 @ 어르신도 헤 보션마씨?(어르신도 해 보셨어요?)
103005 #1 으. 어깨에 질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거기 만들어서 쭉 가고 쭉 오면 얼마 안 헤서 그걸 싹 말이지 섬비로 말이야 밧을 다 더끌 수 잇어.(어. 어깨에 질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거기 만들어서 쭉 가고 쭉 오면 얼마 안 해서 그걸 싹 말이지 끙게로 말이야 밭을 다 덮을 수 있어.)
103005 @ 아, 그럼 그거 허는 것도 힘들엇겠다예?(아, 그럼 그거 하는 것도 막 힘들었겠군요?)
103005 #1 아, 게. 힘들지마는 그게 말이여 먹고 사는 방법이 그것밧긔 없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헤야주.(아, 그럼. 힘들지만 그게 말이야 먹고 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해야지.)
103005 @ 그럼 섬비도 집집마다 하나씩 잇언마씨?(그럼 끙게도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103005 #1 아, 한두 개씩 다 잇고 엇이민 저 섬비 빌어다그넹 말이여 ᄒᆞ기도 헤.(아, 한두 개씩 다 있고 없으면 저 끙게 빌려다가 말이야 하기도 해.)
103006 @ 보리도 종류가 잇잖아예?(보리도 종류가 있잖아요?)
103006 #1 보리도 살보리ᄒᆞ고 맥주보리ᄒᆞ고 두 가지가 잇거든.(보리도 쌀보리하고 맥주보리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
103006 @ 살보리랑 맥주보리마씨?(쌀보리랑 맥주보리요?)
103006 #1 으. 맥주보리는 맥주의 원료로 사용허는 거고.(어. 맥주보리는 맥주의 원료로 사용하는 거고.)
103006 @ 예.(예.)
103006 #1 살보리는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허는 게 살보리고.(쌀보리는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하는 게 쌀보리고.)
103006 @ 아, 살보리 그럼 살보리하고 맥주보리하고 어느 것을 주로 하션마씨?(아, 쌀보리 그럼 쌀보리하고 맥주보리하고 어느 것을 주로 하셨어요?)
103006 #1 우리는 주로 거 살보리 헤 가지고 먹는 걸 위주로 헷지. 맥주보리는 그 아주 우리 뭐 그 후에 그 후에 맥주 ᄀᆞ튼 거 이렇게 나올 때 즈음 헤서 맥주보리가 맥주 훼사에서 받아 가지고 단가도 좋고 하니까 그때부터 맥주보리 갈앗지. 건줌 다 처음에는 살보리 갈아서 방앗간 져 가지고 먹고 살앗거든.(우리는 주로 거 쌀보리 해 가지고 먹는 걸 위주로 했지. 맥주보리는 그 아주 우리 뭐 그 후에 그 후에 맥주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때 즈음 해서 맥주보리가 맥주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단가도 좋고 하니까 그때

부터 맥주보리 갈았지. 거의 다 처음에는 쌀보리 갈아서 방앗간 져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103006 @ 방앗간은 근처에 잇어마씨?(방앗간은 근처에 있어요?)

103006 #1 이 여기 옹포[51] 그 옛날부터 우리 옹포 마을에는 조그만 가정집에서 방아 지어 가지고 허는 사람이 잇엇거든.(이 여기 옹포 그 옛날부터 우리 옹포 마을에는 조그만 가정집에서 방아 지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103006 @ 옛날부터 잇언마씨?(옛날부터 있었어요?)

103006 #1 으. 웬만허민 마을에 그런 방앗간 ᄀᆞ튼 건 하나 정도는 잇어낫주게.(어. 웬만하면 마을에 그런 방앗간 같은 건 하나 정도는 있었지.)

103006 @ 작은 마을들은 엇어 부난 옆에 마을 갓는데.(작은 마을들은 없어 버리니까 옆에 마을 갔는데.)

103006 #1 으. 옆에 마을 가서 지어다그넹 먹엇는데 살보리를 가져다그넹 뭐 리어카에 끗어 가 가지고 말이여 거기 가서 그때는 물 조금 버물려서 이렇게 몇 번 돌려 가지고 껍질 벗겨 내서 안에 것만 가져강 밥헤 먹고 살앗는데.(어. 옆에 마을 가서 지어다가 먹었는데 쌀보리를 가져다가 뭐 리어카에 끌어 가 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서 그때는 물 조금 버무려서 이렇게 몇 번 돌려 가지고 껍질 벗겨 내서 안에 것만 가져가서 밥해 먹고 살았는데.)

103006 @ 예. 그면 그 살보리랑 맥주보리는 허는 거는 똑같애마씨? 예전 농사짓는 거는?(예. 그러면 그 쌀보리랑 맥주보리는 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전 농사짓는 거는?)

103006 #1 아니. 그때는 살보리보다 맥주보리가 가격이 더 나가낫어 나중에는.(아니. 그때는 쌀보리보다 맥주보리가 가격이 더 나갔었어 나중에는.)

103006 @ 그면 농사짓는 거는 똑같고?(그러면 농사짓는 거는 똑같고?)

103006 #1 으. 농사짓는 방법은 똑같고 지금은 살보리 짓는 데는 별로 엇고 맥주보리는 지어 가지고 지금도 맥주훼사에서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어. 농사짓는 방법은 똑같고 지금은 쌀보리 짓는 데는 별로 없고 맥주보리는 지어 가지고 지금도 맥주회사에서 받아간다고 하더라고.)

103006 @ 아, 지금도 맥주보리는 여기서 헤마씨?(아, 지금도 맥주보리는 여기서 해요?)

103006 #1 으. 지금도.(어. 지금도.)

103007 @ 그면 그 보리밧도 밟아야 뒈잖아예?(그러면 그 보리밭도 밟아야 되잖아요?)

103007 #1 게. 볼르는 게 섬비렌 ᄒᆞ는 나무로 이렇게 허고 조는 붑아.(그럼. 밟으는 게 끙게라고 하는 나무로 이렇게 하고 조는 밟아.)

103007 @ 아, 조는 밟고?(아, 조는 밟고?)

103007 #1 으. 조는 그 말로 말이지 영 헤 가지고.(어. 조는 그 말로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

51) '옹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3007 @ 예.(예.)
103007 #1 그 말 다섯 개나 한 열 개나 헤 가지고 그것도 밧 갈면.(그 말 다섯 개나 한 열 개나 해 가지고 그것도 밭 갈면.)
103007 @ 예.(예.)
103007 #1 좁씨를 이제 멩텡이에 담은 걸로 헤 가지고 막 이렇게 골고루 다 뿌려주민 말이 이제는 그거 막 불르주게.(좁씨를 이제 망태기에 담은 걸로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골고루 다 뿌려주면 말이 이제는 그거 막 밟지.)
103007 @ 조는 좀 이땅 다시 물어볼게마씨. 지금 그면 보리밧은 섬비로?(조는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보리밭은 끙게로?)
103007 #1 ᄋᆞ. 섬비로 끗고.(어. 끙게로 끌고.)
103007 @ 밟는 건 따로 보리는 엇어마씨?(밟는 건 따로 보리는 없어요?)
103007 #1 어. 불르는 거는 따로 엇어.(어. 밟는 거는 따로 없어.)
103007 @ 아, 그냥 섬비로.(아, 그냥 끙게로.)
103007 #1 섬비로 말이야 그거 끗어 가지고 흑을 더끄면 그걸로 끗나는 거주게.(끙게로 말이야 그거 끌어 가지고 흙을 덮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103007 @ 그럼 그냥 보리씨 뿌린 다음에 바로 섬비로 그날 하겟다예?(그럼 그냥 보리씨 뿌린 다음에 바로 끙게로 그날 하겠군요?)
103007 #1 아, 바로 헤야주게.(아, 바로 해야지.)
103007 @ 그면 그 씨 뿌리는 거는 언제 허주마씨?(그러면 그 씨 뿌리는 거는 언제 하지요?)
103007 #1 씨 뿌리는 게 겨울에.(씨 뿌리는 게 겨울에.)
103007 @ 겨울에.(겨울에.)
103007 #1 겨울 일월 달이나 이렇게 뒈면 보리는 갈지.(겨울 일월 달이나 이렇게 되면 보리는 갈지.)
103007 @ 다 비슷하게 일월 달에 시작헤마씨?(다 비슷하게 일월 달에 시작해요?)
103007 #1 ᄋᆞ. 일월 달에 ᄒᆞ면 사월 달에.(어. 일월 달에 하면 사월 달에.)
103007 @ 예.(예.)
103007 #1 싹이 나 가지고 건줌 저 사월 음력 사월 말 쯤 뒈면은 보리는 완전히 장만헤서.(싹이 나 가지고 거의 저 사월 음력 사월 말 쯤 되면 보리는 완전히 장만해서.)
103007 @ 음력 사월?(음력 사월?)
103007 #1 ᄋᆞ. 음력 사월 끗나면은 보리 장만허면은 여기 이제 장마철 오면 개역이라고 헤 가지고 개역 헤 가지고 그 보리 볶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갈아 가지고 개역으로 먹고.(어. 음력 사월 쯛나면 보리 장만하면 여기 이제 장마철 오면 미숫가루라고 해 가지고 미숫가루 해 가지고 그 보리 볶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갈아 가지고 미숫가루로 먹고.)
103007 @ 아, 개역 그거 아신다예? 미숫가루?(아, 미숫가루 그거 아시는군요? 미숫가루?)

103007 #1 미숫가루 그거를 이제는 말이야 헹다강 먹고 그렇게 헤서 살앗어.(미숫가루 그거를 이제는 말이야 해다가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3008 @ 그럼 보리밧에 김매기는 몇 번 헤마씨?(그럼 보리밭에 김매기는 몇 번 해요?)
103008 #1 보리밧에 김매기가 한두 번?(보리밭에 김매기가 한두 번?)
103008 @ 두 번? 그럼 김매기는 어떵 헤마씨?(두 번? 그럼 김매기는 어떻게 해요?)
103008 #1 거 김매기는 말이여 보리ᄒᆞ고 비슷한 깜부기라 헤 가지고 깜부기병이 거기다가 나오는 거는 아주 보리에 치명적인 거여.(거 김매기는 말이야 보리하고 비슷한 깜부기라 해 가지고 깜부기병이 거기다가 나오는 거는 아주 보리에 치명적인 거야.)
103008 @ 예.(예.)
103008 #1 깜부기는 보리 같이 나오면서도 까만 거야. 깜부기라고 꺼믄 거라고 깜부기 이제 그런 병 밧에다 말이여 막 그걸로 퍼지거나 그것도 씨가 떨어지면 그런 것이 계속 나서 그런 것을 주로 케내주.(깜부기는 보리 같이 나오면서도 까만 거야. 깜부기라고 까만 거라고 깜부기 이제 그런 병 밭에다 말이야 막 그걸로 퍼지거나 그것도 씨가 떨어지면 그런 것이 계속 나서 그런 것을 주로 캐내지.)
103008 @ 그럼 검질은 따로 일정은 안정 헹 해 지고 그냥?(그럼 김은 따로 일정은 안정 해서 해 지고 그냥?)
103008 #1 아, 게난 일월 달에 헤그넹 보리가 나면.(아, 그러니끼 일월 달에 해서 보리가 나면.)
103008 @ 예.(예.)
103008 #1 나 가지고 어느 정도 쪼금 자라면 검질메기 시작혜.(나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자라면 김매기 시작해.)
103008 @ 아, 그때 한 번 메고.(아, 그때 한 번 매고.)
103008 #1 ᄋᆞ. 이월에서 한 번 뭐 메고 마지막으로 삼월 정도 뒈면은 건줌 그 저기 싹이 저 그 고고리가 나올 정도 뒐락말락 헐 때 영 가면서 보면은 그 껌부기라고 허는 거는 확실히 나타나 게서 그걸 뽑는 거주.(어. 이월에서 한 번 뭐 매고 마지막으로 삼월 정도 되면 거의 그 저기 싹이 저 그 이삭이 나올 정도 될락말락 할 때 이렇게 가면서 보면 그 깜부기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나타나 그래서 그걸 뽑는 거지.)
103008 @ 그럼 뭘로 뽑아마씨?(그럼 뭘로 뽑아요?)
103008 #1 아, 그냥 손으로 뽑는 거야.(아, 그냥 손으로 뽑는 거야.)
103008 @ 기계 이렇게.(기계 이렇게.)
103008 #1 아니. 그런 건 엇고 손으로 뽑아야지 갓다 왓다 갔다 왓다 허면서.(아니. 그런 건 없고 손으로 뽑아야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103008 @ 아.(아.)
103008 #1 밧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03008 @ 그래도 검질멜 때 이렇게 잡앙 골겡이나.(그래도 김맬 때 이렇게 잡아서 호미나.)

103008 #1 ᄀᆞᆯ겡이로 메는 거는.(호미로 매는 거는.)
103008 @ 예.(예.)
103008 #1 초벌 때 초벌검질 멜 때는 ᄀᆞᆯ겡이 가져가 가지고 초벌검질 메고 두불 검질이라는 거는 초벌검질 헌 다음에 두 번째 메는 것이 두불검질로 멜 때는 사람이 깜부기 ᄀᆞ튼 거 이상한 보리 종류라도 대우리라고 허는 거 허고 대우리허고 깜부기허고 춧아내 가지고 대우리도 꼭 보리 닮아.(초벌 때 초벌 맬 때는 호미 가져가 가지고 초벌 매고 두벌이라는 거는 초벌 한 다음에 두 번째 매는 것이 두벌 김으로 맬 때는 사람이 깜부기 같은 거 이상한 보리 종류라도 귀리라고 하는 거 하고 귀리하고 깜부기하고 찾아내 가지고 귀리도 꼭 보리 같아.)
103008 @ 그 그면 처음 검질 하는 거를 초벌검질이라 헤마씨?(그 그러면 처음 김 하는 거를 초벌이라 해요?)
103008 #1 ᄋᆞ.(어.)
103008 @ 그때는 ᄀᆞᆯ겡이로.(그때는 호미로.)
103008 #1 ᄋᆞ. ᄀᆞᆯ겡이로 말이여 밧이 영 앚아 가지고 쭉 메 가고 메 오고.(어. 호미로 말이야 밭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쭉 매 가고 매 오고.)
103008 @ 그때도 그 깜부기를 없애는 거마씨?(그때도 그 깜부기를 없애는 거예요?)
103008 #1 ᄋᆞ. 그 깜부기가 알면 제거허고 모르면은 두불검질 헐 때는 건줌 자라가지고 고고리가 나올 때 즈음이면 대오리라던가 깜부기는 훤히 나타난다니까.(어. 그 깜부기가 알면 제거하고 모르면 두벌 할 때는 거의 자라 가지고 이삭이 나올 때 즈음이면 귀리라든가 깜부기는 훤히 나타난다니까.)
103008 @ 초벌 때는 잘 몰라마씨?(초벌 때는 잘 몰라요?)
103008 #1 ᄋᆞ. 초벌 때는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삼월 말 즈음 뭔 가면은 고고리가 피기 시작헹 한 달 정도 거 익거든.(어. 초벌 때는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삼월 말 즈음 되 가면 이삭이 피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거 익거든.)
103008 @ 예.(예.)
103008 #1 보리가.(보리가.)
103008 @ 예.(예.)
103008 #1 익기 전에 가서 한번 쑥 돌아보민 대우리나 깜부기병을 전부 다 제거헐 수 잇어.(익기 전에 가서 한번 쑥 돌아보면 귀리나 깜부기병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어.)
103008 @ 그면 보리밧에는 그 검질들이 깜부기랑 대우리?(그러면 보리밭에는 그 김들이 깜부기랑 귀리?)
103008 #1 대우리.(귀리.)
103008 @ 두 개 보통 나마씨?(두 개 보통 나요?)
103008 #1 ᄋᆞ. 그것이 제일 말이지 보리에서는 말이지 아주 치명적인 말이지 천적이나 마찬가지지.(어. 그것이 제일 말이지 보리에서는 말이지 아주 치명적인 말이지 천적이나 마찬가지지.)

103008 @ 음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잇어마씨?(음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어요?)
103008 #1 아, 그거는 안 메면 다음에 그 대우리 씨엔 헤 가지고 그것도 익으면 알드레 떨어지면 새에 또 난다니깐 그게.(아, 그거는 안 매면 다음에 그 귀리 씨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익으면 아래로 떨어지면 띠에 또 난다니깐 그게.)
103008 @ 깜부기는?(깜부기는?)
103008 #1 깜부기도 그런 종류지마는 대우리보다는 덜 헷주.(깜부기도 그런 종류지만 귀리보다는 덜 했지.)
103008 @ 그럼 대우리가 더?(그럼 귀리가 더?)
103008 #1 응. 대우리는 완전히 그 저 보리 고고리 ᄀᆞ치 이만큼 헤 가지고 그 안에.(어. 귀리는 완전히 그 저 보리 이삭 같이 이만큼 해 가지고 그 안에.)
103008 @ 싹이 잇어마씨?(싹이 있어요?)
103008 #1 응. 싹이 다 잇어 대우리도.(어. 싹이 다 있어 귀리도.)
103008 @ 대우리는 못 먹는 거지예?(귀리는 못 먹는 거지요?)
103008 #1 응. 못 먹는 거지. 말하자면 쭉젱이지 쭉젱이.(어. 못 먹는 거지. 말하자면 쭉정이지 쭉정이.)
103008 @ 아, 쭉젱이.(아, 쭉정이.)
103008 #1 거 제라하게 보리는 그 저 알곡이고.(거 완전히 보리는 그 저 알곡이고.)
103008 @ 예.(예.)
103008 #1 쭉징이는 그건 못 먹는 거니깐 이렇게 캐내 버리고 허니까.(쭉정이는 그건 못 먹는 거니깐 이렇게 캐내 버리고 하니까.)
103008 @ 그 고고리 나면 깜부기랑 대우리는 보리랑 확실히 달라마씨?(그 이삭 나면 깜부기랑 귀리는 보리랑 확실히 달라요?)
103008 #1 응. 틀려 확실히 알아.(어. 달라 확실히 알아.)
103008 @ 아, 그면 어떵 어떵 알아마씨?(아,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103008 #1 아, 그 그 보리 고고리가 나올 무렵에는 대오리 고고리나 깜부기나 전부 다 나오거든.(아, 그 그 보리 이삭이 나올 무렵에는 귀리 이삭이나 깜부기나 전부 다 나오거든.)
103008 @ 예.(예.)
103008 #1 그면 딱 보면 이게 보리인지 깜부기인지 대오리인지 대번에 알거든 농민들은.(그러면 딱 보면 이게 보리인지 깜부기인지 귀리인지 대번에 알거든 농민들은.)
103008 @ 그럼 어떵 달라마씨?(그럼 어떻게 달라요?)
103008 #1 대오리는 보리 ᄀᆞ치 조금 나는데.(귀리는 보리 같이 조금 나는데.)
103008 @ 예.(예.)
103008 #1 이 가닥이 보리추룩 막 촘촘허게 달려 잇인 게 아니라 가닥이 쪼금 한산허게 붙어 잇어.(이 가닥이 보리처럼 막 촘촘하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가닥이 조금 한산하게 붙어 있어.)

103008 @ 아, 한산하게 붙어 잇어마씨? 대오리는?(아, 한산하게 붙어 있어요? 귀리는?)
103008 #1 경 허면 것도 익으면은 떨어지면 또 나고 허니깐 그게 저 보리 짓는 ᄒᆞ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집에서 말이여 그 장만헐 때도 대오리는 쫌 웬만허민 ᄀᆞᆯ려. 왜냐하면 보리씨에 들어가 가지고 인제 다음 해에 헐 때에는 ᄀᆞ치 뿌릴 수가 잇으니까 그거를 집에서도 골라내고 하는 건데 일단은 말이지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장만하면은 내년에 보리 싱글 말이지 씨는 별도로 보관 허주게.(그렇게 하면 것도 익으면 떨어지면 또 나고 하니깐 그게 저 보리 짓는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집에서 말이야 그 장만할 때도 귀리는 좀 웬만하면 갈려. 왜냐하면 보리씨에 들어가 가지고 인제 다음 해에 할 때에는 같이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집에서도 골라내고 하는 건데 일단은 말이지 그 집에 와서 이렇게 장만하면 내년에 보리 심을 말이지 씨는 별도로 보관 하지.)
103008 @ 깜부기는 시커매마씨? 다 자라면?(깜부기는 시커매요? 다 자라면?)
103008 #1 ᄋᆞ. 시커매.(어. 시커매.)
103008 @ 아, 그면 깜부기는 좀 알기 쉽겟다예?(아, 그러면 깜부기는 좀 알기 쉽겠군요?)
103008 #1 ᄋᆞ. 깜부기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농민들은 그것만 헤서 살아노니까.(어. 깜부기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농민들은 그것만 해서 살았으니까.)
103008 @ 잘 알겟주마씨?(잘 알겠지요?)
103008 #1 잘 알지.(잘 알지.)
103008 @ 그럼 이제 보리를 사월 달에 수확하잖아예?(그럼 이제 보리를 사월 달에 수확하잖아요?)
103008 #1 사월 달. 사월 달.(사월 달. 사월 달.)
103008 @ 음력 사 월에? 그럼 수확은 어떻게 헤마씨?(음력 사 월에? 그럼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08 #1 그럼 베서 밧에다가.(그럼 베어서 밭에다가.)
103008 @ 예.(예.)
103008 #1 그때는 뭐 장비가 사람이 낫밧긔 없으니까 동네 사람 수눌음이라고 헤 가지고.(그때는 뭐 장비가 사람이 낫밖에 없으니까 동네 사람 품앗이라고 해 가지고.)
103008 @ 예.(예.)
103008 #1 이제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보리 간 사람들 말이지. 오늘은 우리가 보리 먼저 익엇이난.(이제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보리 간 사람들 말이지. 오늘은 우리가 보리 먼저 익었으니까.)
103008 @ 예.(예.)
103008 #1 우리 집부터 와그넹 조금 보리 비워둬라 허면 다 우리 집에 와.(우리 집부터 와서 조금 비워둬라 하면 다 우리 집에 와.)
103008 @ 아.(아.)
103008 #1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헤 가지고 이젠 호미 갖고 밧에 가

그넹 말이여 이제 비염시면 이제 주인은 점심 허고 헹 말이여 짊어지고 밧에 가 가지고.(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해 가지고 이제는 낫 갖고 밭에 가서 말이야 이제 베면 이제 주인은 점심 하고 해서 말이야 짊어지고 밭에 가 가지고.)
103008 @ 예.(예.)
103008 #1 보리 다 비면 이제 이제 점심 멕이고.(보리 다 베면 이제 이제 점심 먹이고.)
103008 @ 예.(예.)
103010 #1 그다음에 보리를 무끄어. 보리는 보리로 헤 가지고 이렇게 감아그넹 확 들어 가지고 말이여 무끄어 가지고 말이여 이렇게 헤서 흔 뭇 두 뭇 헤서 뭇이라고 하거든.(그다음에 보리를 묶어. 보리는 보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확 들어 가지고 말이야 묶어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한 뭇 두 뭇 해서 뭇이라고 하거든.)
103010 @ 아, 뭇이라고 헤마씨?(아, 뭇이라고 해요?)
103010 #1 응. 저 보리 무끈 거를 흔 뭇 두 뭇 헤 가지고 그 무끈 거를 이제는 비가 옴직 흐면 이렇게 말이여 쫌 다 착착 놔 가지고 말이여.(어. 저 보리 묵은 거를 한 뭇 두 뭇 해 가지고 그 묶은 거를 이제는 비가 오려고 하면 이렇게 말이야 좀 다 착착 놔 가지고 말이야.)
103010 @ 예.(예.)
103010 #1 가빠 ᄀᆞ튼 거나 뭐나 더끄고.(가빠 같은 거나 뭐나 덮고.)
103010 @ 아, 가빠로 덮어마씨?(아, 가빠로 덮어요?)
103010 #1 응. 그렇게 안 흐면은 밧에다가 잘 말려지게끔 놧다가.(어. 그렇게 안 하면 밭에다가 잘 말려지게끔 놨다가.)
103010 @ 예.(예.)
103010 #1 그걸 집에까지 이제 구루마로 헤 가지고 실어 오면.(그걸 집에까지 이제 수레로 해 가지고 실어 오면.)
103010 @ 예.(예.)
103010 #1 여기서 집에서 저기 저 타작 농기구가 잇어.(여기서 집에서 저기 저 타작 농기구가 있어.)
103010 @ 예.(예.)
103010 #1 뭐냐면 그것 보고 뭐 헹 흐는데.(뭐냐면 그것 보고 뭐 해서 하는데.)
103010 @ 그럼 보리타작 하기 전에 그럼 수확은 벤 다음에?(그럼 보리타작 하기 전에 그럼 수확은 벤 다음에?)
103010 #1 벤 다음에 무끄어.(벤 다음에 묶어.)
103010 @ 그럼 가리는 어떵 무끈 다음에 가져와마씨?(그럼 가리는 어떻게 묶은 다음에 가져와요?)
103010 #1 응. 집에 가져오지. 집에 가져왕 그거를 눌지.(응. 집에 가져오지. 집에 가져와서 그거를 가리지.)
103010 @ 아.(아.)

103010 #1 이레 이제 둥그렁ᄒᆞ게 눌엇다가.(이리 이제 둥그렇게 가렸다가.)
103010 @ 예.(예.)
103010 #1 날씨 보면서.(날씨 보면서.)
103010 @ 예.(예.)
103010 #1 인제 그다음날 말이지 그 훌트는 기계가 이렇게 돼 가지고 벼 홀트는 거 닮은 거 잇거든.(인제 그다음날 말이지 그 훑는 기계가 이렇게 돼 가지고 벼 훑는 거 닮은 거 있거든.)
103010 @ 예.(예.)
103010 #1 그런 거 이제 장치헤 가지고 말이지 한 사람이 앚아 가지고 보리 뭇을 얼마씩 주면은 그 장정 한 사람은 탁 그듸 놔 가지고 이렇게 훌터.(그런 거 이제 장치해 가지고 말이지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보리 뭇을 얼마씩 주면 그 장정 한 사람은 탁 거기 놔 가지고 이렇게 훑어.)
103010 @ 아.(아.)
103010 #1 보리를 훌트민 보리만 앞에 남고 보리때는 뒤로 내치고.(보리를 훑면 보리만 앞에 남고 보리때는 뒤로 내치고.)
103010 @ 보리때는 뒤로 내치고.(보리때는 뒤로 내치고.)
103010 #1 음.(음.)
103010 @ 어르신 타작하기 전에 수확한 다음에 비 올 것 같으면 가빠로 덥잖아예?(어르신 타작하기 전에 수확한 다음에 비 올 것 같으면 가빠로 덥잖아요?)
103010 #1 어.(어.)
103010 @ 그럼 그때 쓰는 가빠는 어떵 만들어마씨?(그럼 그때 쓰는 가빠는 어떻게 만들어요?)
103010 #1 가빠는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별로 말이지 가빠가 없으니깐 ᄂᆞ람지[52] 라는 게 잇어. ᄂᆞ람지.(가빠는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별로 말이지 가빠가 없으니깐 'ᄂᆞ람지'라는 게 있어. 'ᄂᆞ람지'.)
103010 @ 아, ᄂᆞ람지.(아, 'ᄂᆞ람지'.)
103010 #1 ᄂᆞ람지엔 헌 것이 뭐냐.('ᄂᆞ람지'라고 한 것이 뭐냐.)
103010 @ 예.(예.)
103010 #1 새로 말이지. 새로 이렇게 쭉 짜가는 거야.(띠로 말이지. 띠로 이렇게 쭉 짜가는 거야.)
103010 @ 예.(예.)
103010 #1 게서 그거를 쭉 더끄면 그 ᄂᆞ람지 안에는 비가 안 들어가.(그래서 그거를 쭉 덮으면 그 'ᄂᆞ람지' 안에는 비가 안 들어가.)
103010 @ 아, 비가 안 들어가마씨?(아, 비가 안 들어가요?)
103010 #1 ᄋᆞ.(어.)

52)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ᄂᆞ래미, ᄂᆞ라미, ᄂᆞ람쥐, ᄂᆞ레, 놀래'라고도 한다.

103010 @ 그럼 ᄂᆞ람지도 집집마다 잇어야겟다예?(그럼 'ᄂᆞ람지'도 집집마다 있어야겠군요?)

103010 #1 아, 집집마다 ᄂᆞ람지 엇인 집이 엇지. 그 만약에 그 비가 오거나 뭐 ᄒᆞ면은 그 ᄂᆞ람지로 그 보리를.(아, 집집마다 'ᄂᆞ람지' 없는 집이 없지. 그 만약에 그 비가 오거나 뭐 하면 그 'ᄂᆞ람지'로 그 보리를.)

103010 @ 예.(예.)

103010 #1 더끄어 놧다가 날 좋으면은 보리 기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말이여 홀터 가지고 말이여 보리를 말이여 ᄒᆞ면은 보리를 다 홀트면은 보릿낭은 보릿낭대로 눌에 눌어 놧다가 그때는 그걸 다 땔감으로 사용헷거든 옛날에.(덮어 놨다가 날 좋으면 보리 기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말이야 홅어 가지고 말이야 보리를 말이야 하면 보리를 다 홅으면 보릿짚은 보릿짚대로 가리에 가려 놨다가 그때는 그걸 다 땔감으로 사용했거든 옛날에.)

103010 @ 그럼 가빠랑 ᄂᆞ람지랑 뭐가 달라마씨?(그럼 가빠랑 'ᄂᆞ람지'는 뭐가 달라요?)

103010 #1 아, 가빠는 인제 예를 들어서 그 저기 그때 당시에는 가빠라는 것이 벨로 엇엇지마는.(아, 가빠는 인제 예를 들어서 그 저기 그때 당시에는 가빠라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103010 @ 예.(예.)

103010 #1 뭐 가끔 뭐 잘 사는 집에는 말이여 그런 말이여 그 저 그런 게 잇어.(뭐 가끔 뭐 잘 사는 집에는 말이야 그런 말이야 그 저 그런 게 있어.)

103010 @ 뭐 천으로 뭰 거꽝?(뭐 천으로 된 거입니까?)

103010 #1 아니 저거 저 보이는 저.(아니 저거 저 보이는 저.)

103010 @ 파란색?(파란색?)

103010 #1 ᄋᆞ. 그런 걸로 뭰 건데 그걸로 이렇게 더끄어 주면은 저런 거는 비가 안에 안 들어가고.(어. 그런 걸로 된 건데 그걸로 이렇게 덮어 주면 저런 거는 비가 안에 안 들어가고.)

103010 @ 예.(예.)

103010 #1 저런 게 엇인 사람들은 ᄂᆞ람지를 전부 다 이제 ᄂᆞ람지를 집에서 다 말이여 만들어그넹.(저런 게 없는 사람들은 'ᄂᆞ람지'를 전부 다 이제 'ᄂᆞ람지'를 집에서 다 말이야 만들어서.)

103010 @ 예.(예.)

103010 #1 주젱이엔 헤 가지고 ᄂᆞ람지 이렇게 쭉 하면 젤 위에 더끄는 게 주젱이라.(주저리라고 해 가지고 'ᄂᆞ람지' 이렇게 쭉 하면 제일 위에 덮는 게 주저리야.)

103010 @ 아, 주젱이?(아, 주저리?)

103010 #1 ᄋᆞ. 이렇게 동글락 허게 눌어 가지고 쭉 올라가면 ᄂᆞ람지로 다 더끄어그넹 그 위에 주젱이로 딱 그 더끄면 비가 쫙 빠져 가지고 옆으로 사방팔방으로 빠져나가게 끔 돼 잇곡. 그 이제 비가 와 난 다음에는 그 ᄂᆞ람지 주젱이영 다 걷언에 가지고 홀트

기 시작허주.(어. 이렇게 동그랗게 가려 가지고 쭉 올라가면 'ᄂᆞ람지'로 다 덮어서 그 위에 주저리로 딱 그 덮으면 비가 쫙 빠져 가지고 옆으로 사방팔방으로 빠져나가게끔 돼 있고. 그 이제 비가 와 난 다음에는 그 'ᄂᆞ람지' 주저리와 다 걷어내 가지고 홅기 시작하지.)

103011 @ 그럼 그 홀트는 거는 기계로 헨마씨?(그럼 그 홅는 거는 기계로 했어요?)

103011 #1 아니. 사람이 ᄒᆞ지 사람이.(아니. 사람이 하지 사람이.)

103011 @ 사람이.(사람이.)

103011 #1 ᄋᆞ.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보리 뭇 한 뭇씩 아져당 이렇게 주면.(어. 사람이 여자 한 사람이 보리 뭇 한 뭇씩 가져다가 이렇게 주면.)

103011 @ 예.(예.)

103011 #1 그걸 풀러 가지고 흔 줌씩 흔 줌씩 이렇게 그 남자한테 줘.(그걸 풀어 가지고 한 줌씩 한 줌씩 이렇게 그 남자한테 줘.)

103011 @ 예.(예.)

103011 #1 게면 남자는 거 놓아 가지고 힘 쎄니까 여자는 힘들엉 못 해.(그러면 남자는 거 놓아 가지고 힘 세니까 여자는 힘들어서 못 해.)

103011 @ 그면 그렇게 하는 기계 이름은 뭐주마씨?(그러면 그렇게 하는 기계 이름은 뭐지요?)

103011 #1 그게 뭐냐 허면 홀트는 그것이.(그게 뭐냐 하면 홅는 그것이.)

103011 @ 도리깬가마씨?(도리깨인가요?)

103011 #1 아니. 그 뭐라고 한다마는 이제 그 벼 ᄀᆞ튼 거 헐 때도 그런 걸로 헷는데.(아니. 그 뭐라고 한다만 이제 그 벼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걸로 했는데.)

103011 @ 예.(예.)

103011 #1 그런 걸 또 집에 집집마다 다 잇인 것도 아니고 뭐 잇인 집이 잇곡 ᄒᆞ면은 우리가 다 써나면 딴 사람도 그걸 빌어다그넹.(그런 걸 또 집에 집집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집이 있고 하면 우리가 다 쓰면 다른 사람도 그걸 빌려다가.)

103011 @ 아, 그거는 집집마다 엇언마씨?(아, 그거는 집집마다 없었어요?)

103011 #1 어. 뭐 집집마다 다 잇지는 안 ᄒᆞ고 건줌 말이지 그 없으면.(어. 뭐 집집마다 다 있지는 않고 거의 말이지 그 없으면.)

103011 @ 예.(예.)

103011 #1 옆에 사람 헤난 거 빌려다강 그 쓰고 헤낫어.(옆에 사람 했었던 거 빌어서 그 쓰고 했었어.)

103011 @ 그럼 타작하면 보리때랑 남은 게 뭐주마씨? 보리쌀인가?(그럼 타작하면 보리때랑 남은 게 뭐지요? 보리쌀인가?)

103011 #1 아니. 보리만 남지 보리만 이렇게 탁 이것이 이렇게 뒌 거거든. 게면 보리로 탁 찍어가지고 홀트민 보리 보리때는 뒤로 내치고.(아니. 보리만 남지 보리만 이렇게 탁 이것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보리로 탁 찍어가지고 홅으면 보리 보리때는 뒤로 내치고.)

103011 @ 아, 보리때는 내치고?(아, 보리때는 내치고?)
103011 #1 ᄋᆞ 보릿낭이라고 이제 보리때도 아니고 보릿낭은 뒤로 내쳣다그넹 그 뒤에서 이제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잇어.(어. 보릿짚이라고 이제 보리때도 아니고 보릿짚은 뒤로 내쳤다가 그 뒤에서 이제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103011 @ 아.(아.)
103011 #1 거기서 이제 봐서 말이지 보리 고고리가 타작기에서 잘 안 뭰 거는 또 손으로 뜯어 가지고 보리 고고리 ᄀᆞ치 합치고 그렇게 헤 가지고.(거기서 이제 봐서 말이지 보리 이삭이 타작기에서 잘 안 된 거는 또 손으로 뜯어 가지고 보리 이삭 같이 합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103012 @ 그럼 보리는 보리쌀로 어떻게 만들어마씨?(그럼 보리는 보리쌀로 어떻게 만들어요?)
103012 #1 게 보리를 다 홀터 놓면은.(게 보리를 다 홅어 놓면.)
103012 @ 예.(예.)
103012 #1 보릿낭은 이제 집이 눌엇다가.(보릿짚은 이제 집에 가리었다가.)
103012 @ 예.(예.)
103012 #1 매일 말이여 호꼼씩 호꼼씩 보리때를 보릿낭 빠다가 밥도 헹 먹고 그걸로 이제 그 뭐냐 허면 연료로 사용헷지 연료.(매일 말이야 조금식 조금씩 보리때를 보릿짚 빼다가 밥도 해서 먹고 그걸로 이제 그 뭐냐 하면 연료로 사용했지 연료.)
103012 @ 그럼 연자매나 맷돌로 이렇게 갈앗수광?(그럼 연자매나 맷돌로 이렇게 갈았습니까?)
103012 #1 아니, 아니. 그거 보리가 다 뒈면.(아니, 아니. 그거 보리가 다 되면.)
103012 @ 예.(예.)
103012 #1 멘탁기라고 ᄒᆞ는 보리 두드리는 기계가 잇어.(탈곡기라고 하는 보리 두드리는 기계가 있어.)
103012 @ 예.(예.)
103012 #1 그거는 마을에 말이여 두 개 세 개 다 잇어낫어.(그거는 마을에 말이야 두 개 세 개 다 있었어.)
103012 @ 아, 멘탁기?(아, 탈곡기?)
103012 #1 ᄋᆞ. 멘탁기 멘탁기엔 ᄒᆞ면은 원동력 한 오륙 마력짜리로 헤 가지고 기계 살려 가지고 말이여 작동헤 가지고 타자기를 멘탁기를 돌리면 거기다가 보리 고고리 집어넣으면은 알맹이만 나와.(어. 탈곡기 탈곡기라고 하면 원동력 한 오륙 마력짜리로 해 가지고 기계 살려 가지고 말이야 작동해 가지고 타자기를 탈곡기를 돌리면 거기다가 보리 이삭 집어넣으면 알맹이만 나와.)
103012 @ 아.(아.)
103012 #1 그 이제 고시락 ᄀᆞ튼 거 이런 쭉젱이는 딴 데로 나가고.(그 이제 까끄라기 같은 거 이런 쭉정이는 다른 데로 나가고.)
103012 @ 그 메탁기도 근데 좀 췌신 기계 아니꽝?(그 탈곡기도 근데 좀 최신 기계

아닙니까?)
103012 #1 아니. 이제는 그 멘탁기는 아주 구식이고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멘탁기 엇이면 보리를 장만할 수가 엇어.(아니. 이제는 그 탈곡기는 아주 구식이고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탈곡기 없으면 보리를 장만할 수가 없어.)
103012 @ 아, 메탁기로 맷돌이나 연자매로 그런 건?(아, 탈곡기로 맷돌이나 연자매로 그런 건?)
103012 #1 응. 그런 건 엇고 쪼그만한 거라야 맷돌로 갈앙 보리쌀 멘들어내지. 그렇게 많은 거는 못해.(어. 그런 건 없고 조그마한 거라야 맷돌로 갈아서 보리쌀 만들어내지. 그렇게 많은 거는 못해.)
103012 @ 아, 그럼 적은 거는 맷돌이나?(아, 그럼 적은 거는 맷돌이나?)
103012 #1 갈아 가지고 밥헤 먹을 정도로 뭐 보릿고개라든가 보리가 다 안 익을 때라도 먹을 거 엇을 때는 밧에 가서 보리를 비어다가 그런 식으로 말이여 헤 가지고 먹엇지.(갈아 가지고 밥해 먹을 저온로 뭐 보릿고개라든가 보리가 다 안 익을 때라도 먹을 거 없을 때는 밭에 가서 보리를 베어다가 그런 식으로 말이야 해 가지고 먹었지.)
103012 @ 그럼 많이 하면은 그렇게 못하겠다예?(그럼 많이 하면 그렇게 못하겠군요?)
103012 #1 못하지.(못하지.)
103012 @ 그럼 보리쌀로는 밥도 헤 먹고 그다음에 개역도 헤 먹어마씨?(그럼 보리쌀로는 밥도 해 먹고 그다음에 미숫가루도 해 먹어요?)
103012 #1 응. 보리, 보리로 개역 볶아 가지고.(어. 보리, 보리로 미숫가루 볶아 가지고.)
103012 @ 예.(예.)
103012 #1 이제 그걸 방앗간에 가서 갈아 들렌 하면은 그걸로 개역으로 헹 먹고.(이제 그걸 방앗간에 가서 갈아 달라고 하면 그걸로 미숫가루로 해서 먹고.)
103012 @ 예.(예.)
103012 #1 그 보리를 이제 방앗간에 가서 지면은 그게 이제 보리쌀이라.(그 보리를 이제 방앗간에 가서 지면 그게 이제 보리쌀이야.)
103012 @ 아, 방앗간에 가서?(아, 방앗간에 가서?)
103012 #1 어. 방앗간에 강 지면은 그 보리로 삯을 받아 돈이 없으니까.(어. 방앗간에 가서 지면 그 보리로 삯을 받아 돈이 없으니까.)
103012 @ 아, 삯을 보리로 받아마씨?(아, 삯을 보리로 받아요?)
103012 #1 예를 들어서 뭐 한 열 가마니 가져가면 전부 다 지어주는 걸로 한 가마니를 받던지 헤 가지고 아홉 가마는 본인이 가져가고 한 가마는 삯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헷주게.(예를 들어서 뭐 한 열 가마니 가져가면 전부 다 지어주는 걸로 한 가마니를 받던지 해 가지고 아홉 가마는 본인이 가져가고 한 가마는 삯으로 주고 그런 식으로 했지.)
103012 @ 요즘에는 다 그 쌀밥 먹는데 예전에는 보리밥 드션마씨?(요즘에는 다 그

쌀밥 먹는데 예전에는 보리밥 드셨어요?)
103012 #1 보리밥도 먹기 힘들엇지 옛날엔.(보리밥도 먹기 힘들었지 옛날에는.)
103012 @ 그럼 무슨 밥 먹언마씨?(그럼 무슨 밥 먹었어요?)
103012 #1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아니 그렇니까 옛날에는.)
103012 @ 예.(예.)
103012 #1 그 개벽년 숭년이라고 헤 가지고 말이여 백년만인가 백이십년인가 숭년이 한번 들어 가지고 제주도에도.(그 개벽년 흉년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백년만인가 백이십년인가 흉년이 한번 들어 가지고 제주도에서.)
103012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3012 #1 먹을 게 엇어 가지고 먹는 게 물밧긔 엇엇어. 물 바다에 가서 톳 ᄀᆞ튼 거 전분 공장에 말이여 헤서 말이여 전분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 놩 찌꺼기.(먹을 게 없어 가지고 먹는 게 물밖에 없었어. 물 바다에 가서 톳 같은 거 전분 공장에 말이야 해서 말이야 전분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 놔서 찌꺼기.)
103012 @ 예.(예.)
103012 #1 그 전분죽이라고 감저죽[53]이라고 감저죽을 가져다가 집에서 말이여 끓여 가지고 죽으로 헤서 먹고 톳 ᄀᆞ튼 거 바다에 공짜니까 좀 헤그넹 그거 ᄀᆞ치 넣어서 서끄어 가지고 연명ᄒᆞ고 살앗주.(그 전분죽이라고 '감저죽'이라고 '감저죽'을 가져다가 집에서 말이야 끓여 가지고 죽으로 해서 먹고 톳 같은 거 바다에 공짜니까 좀 해다가 그거 같이 넣어서 섞어 가지고 연명하고 살았지.)
103012 @ 아, 그렇게 심한 숭년이 들언마씨?(아, 그렇게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103012 #1 ᄋᆞ. 그거 개벽년 숭년이라고 말이여 잊어 불지 않ᄒᆞ여.(어. 그거 개벽년 흉년이라고 말이야 잊어 버리지 않아.)
103012 @ 개벽년?(개벽년?)
103012 #1 개벽년이라고 그 저기 백년 전 말이지 그런 저 우리 한 한 여섯 살 이제 한 칠팔십 년도 더 넘엇을 거라. 그 숭년이 와서 제주도에 먹다 남은 게 물이라고 한 게 잇거든.(개벽년이라고 그 저기 백년 전 말이지 그런 저 우리 한 한 여섯 살 이제 한 칠팔심 년도 더 넘었을 거야. 그 흉년이 와서 제주도에 먹다 남은 게 물이라고 한 게 있거든.)
103012 @ 아, 진짜 그렇게 힘든?(아, 진짜 그렇게 힘든?)
103012 #1 ᄋᆞ. 먹을 게 엇으니까 그래서 보리 ᄀᆞ튼 것도 갈면 미리 말이여 먹을 게 엇으니까 비어다가 설어도.(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리 같은 것도 갈면 미리 말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베어다가 설어도.)
103012 @ 예.(예.)
103012 #1 쪼금 말이여 그걸로 연명하려고 말이여 맷돌 ᄀᆞ튼 거에 비벼서 밥도 헤서 먹엇고 헷다니까.(조금 말이야 그걸로 연명하려고 말이야 맷돌 같은 거에 비벼서 밥도 해서 먹었고 했다니까.)

53) '감저죽'은 '고구마와 좁쌀을 섞어서 만든 죽'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감제죽'이라고도 한다.

103012 @ 아, 진짜 힘들엇겟다예?(아, 진짜 힘들었겠군요?)
103012 #1 아, 그때는 초근목피라고 헤서.(아, 그때는 초근목피라고 해서.)
103012 @ 예.(예.)
103012 #1 풀초자 뿌리근 나무뿌리나 어 풀이나 그 저기 목피 저기 나무껍질.(풀초자 뿌리근 나무뿌리나 어 풀이나 그 저기 목피 저기 나무껍질.)
103012 @ 예.(예.)
103012 #1 이런 걸로 연명헷다니까.(이런 걸로 연명했다니까.)
103012 @ 초근목피?(초근목피?)
103012 #1 초근목피. 초근목피는 풀초자에 뿌리근자 나무에 껍질, 껍질피 이런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먹고 그때 당시에는 살앗어.(초근목피. 초근목피는 풀초자에 뿌리근자 나무에 껍질, 껍질피 이런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먹고 그때 당시에는 살았어.)
103014 @ 이제 그럼 보리하면 보리때나 보릿낭 남잖아예? 그럼 그런 걸로는 뭐 헨마씨?(이제 그럼 보리하면 보리때나 보릿짚 남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는 뭐 했어요?)
103014 #1 아니 보릿낭 아까 얘기헷잖아.(아니 보릿짚 아까 얘기했잖아.)
103014 @ 예.(예.)
103014 #1 보릿낭은 보리 허여그넹 집이 강 눌엇다가.(보릿짚은 보리 해서 집에 가서 가렸다가.)
103014 @ 예.(예.)
103014 #1 것도 주젱이 다 떠끄엉 비 맞으면 썩고 ᄒᆞ니까.(것도 주정이 다 덮어서 비 맞으면 썩고 하니까.)
103014 @ 예.(예.)
103014 #1 주젱이로 영 헤 가지고 새로 만든 걸로 헤그넹 젤 위에는 주젱이 더끄어 그넹 불리지 않으게 말이여 노로 헤 가지고 딱 헷다가 조금씩 조금씩 빼면서 한 때 헤 먹을 걸로 자꾸 부엌에 갖다 놓곡.(주정이로 이렇게 해 가지로 띠로 만든 걸로 해서 제일 위에는 주정이 덮어서 불지 않게 말이야 노로 해 가지고 딱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빼면서 한때 해 먹을 걸로 자꾸 부엌에 갖다 놓고.)
103014 @ 예.(예.)
103014 #1 그걸로 밥헹 먹엇어.(그걸로 밥해서 먹었어.)
103014 @ 그니까 밥해 먹고 남은 거 안 쓰는 거 도새기한테 줘신가마씨?(그러니까 밥해 먹고 남은 거 안 쓰는 거 돼지한테 줬었나요?)
103014 #1 어. 거 그것도 보릿낭은 주로 통지에 많이 놔줘.(어. 거 그것도 보릿짚은 주로 돼지우리에 많이 놔줘.)
103014 @ 아, 주로 통지에?(아, 주로 돼지우리에?)
103014 #1 어. 통지가 막 그 물이 많이 잇이면 이런 통지에는 그런 보릿낭을 놔주면.(어. 돼지우리가 막 그 물이 많이 있으면 이런 돼지우리에는 그런 보릿짚을 놔주면.)
103014 @ 예.(예.)

103014 #1 돼지가 그거 붋아 다니고 돼지도 ᄒᆞ꼼 편하게 말이여 집 속에도 보릿낭 놔주면 돼지가 그 속에 가서 자고 헤 가지고 복삭ᄒᆞ게[54] 만들엉 살고 그렇게 헤.(돼지가 그거 밟아 다니고 돼지도 조금 편하게 말이야 집 속에서도 보릿짚 놔주면 돼지가 그 속에 가서 자고 해 가지고 '복삭ᄒᆞ게' 만들어서 살고 그렇게 해.)

103015 @ 그럼 어르신 마지막으로 보리농사 하면서 기억나는 거 엇인가마씨?(그럼 어르신 마지막으로 보리농사 하면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103015 #1 보리 뭐 ᄒᆞ는 거는 대동소이하게 집집마다 헷지마는 우리도 우리 형님이 말이지 우리 홀트는 거는 우리 형님이 ᄒᆞ고 우리 형님이 ᄒᆞ다가 버치면은 나도 ᄒᆞ고 우리 동생이나 누님들은 보리 이렇게 한 뭇 두 뭇 무끄엉 이렇게 눌러놔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다그넹 자꾸 놔주거든.(보리 뭐 하는 거는 대동소이하게 집집마다 했지만 우리도 우리 형님이 말이지 우리 홅는 거는 우리 형님이 하고 우리 형님이 하다가 부치면 나도 하고 우리 동생이나 누님들은 보리 이렇게 한 뭇 두 뭇 묶어서 이렇게 가려놔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다가 자꾸 놔주거든.)

103015 @ 예.(예.)

103015 #1 게믄 그것이 풀어 가지고 말이여 보리때 말이여 훌터 가지고 말이지 보릿낭은 보릿낭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분리헷다가 멘택기에 이제 행 보리 다 정리 분리가 뒈면 멘택기를 불러 우리 집 다 됐으니까 장만헤 달라.(그러면 그것이 풀어 가지고 말이야 보리때 말이야 홅어 가지고 말이지 보릿짚은 보릿짚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분리했다가 탈곡기에 이제 해서 보리 다 정리 분리가 되면 탈곡기를 불러. 우리 집 다 됐으니까 장만해 달라.)

103015 @ 예.(예.)

103015 #1 게면 이제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 그 멘택기에 다니는 사람 기계 돌리는 사람도 잇곡 말이여 보리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잇곡 말이지.(그러면 이제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 그 탈곡기에 다니는 사람 기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보리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103015 @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예?(사람이 많이 필요하군요?)

103015 #1 아, 그거 너다섯 사람 필요헤.(아, 그거 네다섯 사람 필요해.)

103015 @ 멘택기는 뭐 트럭으로 가져왕 헤마씨?(탈곡기는 뭐 트럭으로 가져와서 해요?)

103015 #1 아니. 리어카 ᄀᆞ튼 거에 실어 가지고 집집마다 다 들어가야 허니까.(아니. 리어카 같은 거에 실어 가지고 집집마다 다 들어가야 하니까.)

103015 @ 그런 게 잇엇구나예? 그럼 보리농사 하면서 제일 힘들엇던 적은 엇어마씨?(그런 게 있었군요? 그럼 보리농사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103015 #1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보리를 비엇다가.(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보리를 베었다가.)

103015 @ 예.(예.)

54) '복삭ᄒᆞ다'는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103015 #1 비가 와 가지고 젖으면 그걸 또 가서 이렇게 뒤집어서 또 다시 말려야 돼. 다시 말려가지고 비 맞아난 보리를 다시 무끄려면.(비가 와 가지고 젖으면 그걸 또 가서 이렇게 뒤집어서 또 다시 말려야 돼. 다시 말려 가지고 비 맞은 보리를 다시 묵으려면.)

103015 @ 예.(예.)

103015 #1 그게 과상헤[55] 가지고 막 그 차근차근 뒈지 않어 가지고 말이여 막 이제 부푼 상태가 뒈니까 무끄어 가민 보리때도 꺾어지고 말이지 뭐 고고리도 떨어지고 헤 가지고 말이여 상당히게 보리는 아까워가니까 그 떨어진 거는 주워도 오고.(그게 '과상헤' 가지고 막 그 차근차근 되지 않아 가지고 말이야 막 이제 부푼 상태가 되니까 묶어 가면 보리때도 꺾어지고 말이지 뭐 이삭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말이야 상당히 보리는 아까워 가니까 그 떨어진 거는 주워 오고.)

103015 @ 그럼 팔남매난 보리농사 헐 때는 다 동원헤 가지고?(그럼 팔남매니까 보리농사 할 때는 다 동원해 가지고?)

103015 #1 아. 다 동원헤야지 그게 우리 주식이니까. 그거 한 스무 섬 정도 말이야 헤야.(아, 다 동원해야지 그게 우리 주식이니까. 그거 한 스무 섬 정도 말이야 해야.)

103015 @ 예.(예.)

103015 #1 우리가 일 년 내내 먹고 내년에 또 그 보리씨로 갈아 가지고 밧이 한 이천 평 정도 뒈는 데다 갈아 가지고.(우리가 일 년 내내 먹고 내년에 또 그 보리씨로 갈아 가지고 밭에 한 이천 평 정도 되는 데다 갈아 가지고.)

103015 @ 그럼 어르신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보리농사 하션마씨?(그럼 어르신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보리농사 하셨어요?)

103015 #1 나가 저 국민학교 졸업헤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보리농사를 쭉 헷주게.(내가 저 국민학교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보리농사를 쭉 했지.)

103002 @ 그럼 보리 헌 거 좀 물어보젠 헴신디예.(그럼 보리 한 거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03002 #2 어, 보리.(어, 보리.)

103002 @ 그 보리 허젠 허민 뭐, 뭐 준비헤야 뒈마씨?(그 보리 하려고 하면 뭐, 뭐 준비해야 되요?)

103002 #2 뭐 보리 가는데 벨다른 거 아니게.(뭐 보리 가는데 별다른 거 아니.)

103002 @ 아.(아.)

103002 #2 비루 넣곡.(비료 넣고.)

103002 @ 예.(예.)

103002 #2 거름 뿌리고(거름 뿌리고.)

103002 @ 거름 허고.(거름 하고.)

103002 #2 막 옛날엔 거. 이젠 돼지 아니 키우는데 옛날엔 통지.(막 옛날에는 거. 이제는 돼지 안 키우는데 옛날엔 돼지우리.)

---

55) '과상ᄒᆞ다'는 '습기가 없이 푸석푸석하다'의 의미를 지닌 제주어이다.

103002 @ 예.(예.)
103002 #2 통지 걸름 내엉.(돼지우리 거름 내어서.)
103002 @ 예.(예.)
103002 #2 에이고 걸름 내엉 막 웃드리[56] 밧은 저 산간 밧들은 그 거름에다 보리씨 뿌령 막 찌어.(아이고 거름 내어서 막 '웃드리' 밭은 저 산간 밭들은 그 거름에다 보리씨 뿌려서 막 찌어.)
103002 @ 예.(예.)
103002 #2 범벅을 만들어 막.(범벅을 만들어 막.)
103002 @ 예.(예.)
103002 #2 경 헹 그걸 막 줘낫주게.(그렇게 해서 그걸 막 줬었지.)
103002 @ 예.(예.)
103002 #2 뿌령 씨.(뿌려서 씨.)
103002 @ 그 씨는 어디서 나마씨?(그 씨는 어디서 나요?)
103002 #2 보리씨, 보리씨.(보리씨, 보리씨.)
103002 @ 그러니까 보리씨는 놔두엇당?(그러니까 보리씨는 놔두었다가?)
103002 #2 어. 놔뒁당.(어. 놔뒀다가.)
103002 @ 게고 우리 우리 해변은 그렇게 거름에다 허지는 안 허고. 그냥 씨 뿌령 거름만 밧이 뿌리고.(그리고 우리 우리 해변은 그렇게 거름에다 하지는 않고. 그냥 씨 뿌려서 거름만 밭에 뿌리고.)
103003 @ 그럼 그 거름은 어디서 나마씨?(그럼 그 거름은 어디서 나요?)
103003 #2 통지에 거. 통지.(돼지우리에 거. 돼지우리.)
103003 @ 아, 통지에 거?(아, 돼지우리에 거?)
103003 #2 통지에 거 걸름 놧당 도새기 키우난.(돼지우리에 거 거름 놨다가 돼지 키우니까.)
103003 @ 예.(예.)
103003 #2 게고 그 비료가 경 엇어난 엿날은.(그리고 그 비료가 그렇게 없었어 옛날은.)
103003 @ 예.(예.)
103003 #2 몸. 옛날은 몸.(모자반. 옛날은 모자반.)
103003 @ 아, 예.(아, 예.)
103003 #2 바당에서 올라오는 몸.(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자반.)
103003 @ 예.(예.)
103003 #2 그거 허영 바당에 저 밧이다 더끄고게.(그거 해서 바다에 저 밭에다 덮고.)
103003 @ 아, 그것도 거름으로?(아, 그것도 거름으로?)
103003 #2 어. 거름으로.(어. 거름으로.)

56)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혹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3003 @ 먹는 거랑 밧에 뿌리는 거랑 같애마씨? 달라마씨? 몸.(먹는 거랑 밭에 뿌리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모자반.)
103003 #2 몸 먹는 것광 거름 허는 것광 틀린 거.(모자반 먹는 것과 거름 하는 것과 다른 거.)
103003 @ 틀린 거지예?(다른 거지요?)
103003 #2 응.(응.)
103003 @ 그럼 똑같이 몸이라고 헤마씨?(그럼 똑같이 모자반이라고 해요?)
103003 #2 춤몸[57]. 먹는 건 춤몸.('춤몸'. 먹는 건 '춤몸'.)
103003 @ 기지예?(그렇지요?)
103003 #2 응.(응.)
103003 @ 그다음 뿌리는 건?(그다음 뿌리는 건?)
103003 #2 뿌리는 건 그냥 몸.(뿌리는 건 그냥 '몸'.)
103003 @ 아, 그냥 몸?(아, 그냥 '몸'?)
103003 #2 응.(응.)
103003 @ 아, 그러니까 먹는 건 춤몸.(아, 그러니까 먹는 건 '춤몸'.)
103003 #2 춤몸. 먹는 건 춤몸.('춤몸'. 먹는 건 '춤몸'.)
103004 @ 그럼 보리는 언제 갈아마씨?(그럼 보리는 언제 갈아요?)
103004 #2 보리가 언제 가냐허면은. 이제 시월 낭.(보리가 언제 가냐하면. 이제 시월 나서.)
103004 @ 예.(예.)
103004 #2 시월 낭 갈앙.(시월 나서 갈아서.)
103004 @ 예.(예.)
103004 #2 으름에 비엉.(여름에 베어서.)
103004 @ 언제 비어마씨?(언제 베어요?)
103004 #2 으름에.(여름에.)
103004 @ 아.(아.)
103004 #2 으름에 비엉 허주. 경 헹 허는 거.(여름에 베어서 하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
103004 @ 그럼 그건 누가 갈아마씨?(그럼 그건 누가 갈아요?)
103004 #2 갈아줄 사람 엇이 홀로 사는 사롬은 그 갈아주는 사람 빌어오주게.(갈아줄 사람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은 그 갈아주는 사람 빌려오지.)
103004 @ 예. 빌어오는 사람은 뭐라 헤마씨 그러면?(예. 빌려오는 사람은 뭐라 해요 그러면?)
103004 #2 장남[58].('장남'.)
103004 @ 아.(아.)

57) '춤몸'은 모자반의 일종으로 '주몸'보다 잎과 줄기가 굵다. 주로 데쳐서 무쳐먹거나 자반으로 만들어 먹는다.
58) '장남'은 표준어의 '장남(長男)'이라는 의미 외에도 '건강한 일꾼' 혹은 '머슴'을 뜻한다.

103004 #2 장남.(‘장남’.)
103004 @ 장남이라고 헤마씨?(‘장남’이라고 해요?)
103004 #2 어. 장남. 게난.(어. ‘장남’. 그러니까.)
103004 @ 예.(예.)
103004 #2 장남 사는 집이 잇어. 흐끔 잘 사는 집은 장남 데령 살아.(‘장남’ 사는 집이 있어. 조금 잘 사는 집은 ‘장남’ 데리고 살아.)
103004 @ 아.(아.)
103004 #2 머슴추룩 우리 식모 둘앙 사는 식으로.(머슴처럼 우리 식모 데려서 사는 식으로.)
103004 @ 예.(예.)
103004 #2 경 헹 일 부려낫주게.(그렇게 해서 일 부렸었지.)
103004 @ 아, 그럼 가는 건 옛날엔 어떵 갈안마씨?(아, 그럼 가는 건 옛날엔 어떻게 갈았어요?)
103004 #2 밧가는 거?(밭가는 거?)
103004 @ 예.(예.)
103004 #2 밧가는 거 이제나 마찬가지. 잠데허영 쉐허영. 기계는 엇고.(밭가는 거 이제나 마찬가지. 쟁기해서 소해서. 기계는 없고.)
103004 @ 기계는 엇지요?(기계는 없지요?)
103004 #2 어. 쉐로. 쉐로 갈안. 남자가 그냥.(어. 소로. 소로 갈았어. 남자가 그냥.)
103004 @ 할머니도 밧일 많이 헷지예?(할머니도 밭일 많이 했지요?)
103004 #2 많이 헷주게.(많이 했지.)
103005 @ 그럼 보리씨 뿌리잖아예?(그럼 보리씨 뿌리잖아요?)
103005 #2 어.(어.)
103005 @ 그건 어떵 뿌려마씨?(그건 어떻게 뿌려요?)
103005 #2 거 보리씨 어떵 뿌려게. 고지 잡앙 살살 뿌려. 우린 보리 헤보지 안 허연. 어머니가 허난.(거 보리씨 어떻게 뿌려. 고지 잡아서 살살 뿌려. 우린 보리 해보지 않았어. 어머니가 하니까.)
103005 @ 아.(아.)
103005 #2 게난 거 보리 나믄 검질메곡 거름 뿌리곡 비료도 뭐 엇어 부난.(그러니까 거 보리 나면 김매고 거름 뿌리고 비료도 뭐 없어 버리니까.)
103005 @ 예.(예.)
103005 #2 씨 뿌려 그냥.(씨 뿌려 그냥.)
103005 @ 그냥 막 삐여마씨?(그냥 막 뿌려요?)
103005 #2 어. 그냥 막 삐여.(어. 그냥 막 뿌려.)
103006 @ 그럼 보리 종류도 잇잖아예?(그럼 보리 종류도 있잖아요?)
103006 #2 어?(어?)
103006 @ 종류.(종류.)

103006 #2 종류? 맥주보리허곡 쌀보리.(종류? 맥주보리하고 쌀보리.)
103006 @ 예. 쌀보리랑.(예. 쌀보리랑.)
103006 #2 쌀보리만 갈고 맥주는 잘 아니 갈아난 제주도.(쌀보리만 갈고 맥주는 잘 안 갈았어 제주도.)
103006 @ 아, 제주도는 맥주 잘 안 허곡?(아, 제주도는 맥주 잘 안 하고?)
103006 #2 으. 맥주는 육지 많이 허여.(어. 맥주는 육지 많이 해.)
103006 @ 아.(아.)
103006 #2 건 저 맥주 허는 데로 간덴 헷어. 먹고 사는 게 힘이 드니까 당장 먹을 걸로만 갈아낫주게 우리 제주도는.(건 저 맥주 하는 데로 간다고 했어. 먹고 사는 게 힘이 드니까 당장 먹을 걸로만 갈았었지 우리 제주도는.)
103006 @ 그럼 쌀보리랑 맥주보리는 어떵 달라마씨?(그럼 쌀보리랑 맥주보리는 어떻게 달라요?)
103006 #2 맥주보리는 이것이 길어.(맥주보리는 이것이 길어.)
103006 @ 아, 예. 이게 뭐주마씨?(아, 예. 이게 뭐지요?)
103006 #2 이게 고지 나오는 게 길어. 고고리가 고고리가 길곡.(이게 고지 나오는 게 길어. 이삭이 이삭이 길고.)
103006 @ 예.(예.)
103006 #2 쌀보리는 요만큼 짧아.(쌀보리는 요만큼 짧아.)
103006 @ 예.(예.)
103006 #2 저 더 앙삭거려.(저 더 엉거벌려.)
103006 @ 앙삭거려마씨?(엉거벌려요?)
103006 #2 어. 더 앙삭거려 영 앙삭거려 쌀보리가.(어. 더 엉거벌려 이렇게 엉거벌려 쌀보리가.)
103006 @ 아.(아.)
103006 #2 겐디 맥주는 잘 아니 갈아낫주게.(그런데 맥주는 잘 안 갈았었지.)
103006 @ 잘 아니 갈안마씨?(잘 안 갈았어요?)
103006 #2 잘 아니 갈아. 당장 먹어야 살 거난게.(잘 안 갈아. 당장 먹어야 살 거니까.)
103006 @ 그럼 언제부터 갈안마씨? 할머니는?(그럼 언제부터 갈았어요? 할머니는?)
103006 #2 나?(나?)
103006 @ 예.(예.)
103006 #2 아이고 열 몇 살 혼 열 살부터 헷인가?(아이고 열 몇 살 한 열 살부터 했었나?)
103006 @ 아, 몇 살부터?(아, 몇 살부터?)
103006 #2 혼 열 살부터 ᄀᆞ치 밧이 뎅기곡 허라는 공부는 안 허곡 그자. 어멍 ᄯᅳ랑 밧이 가곡 가믄 밧 구석에 앚앙 검질메곡. 비 와 가믄 막 지꺼져. 아이고 이젠 가젠 헴구나 집이 가젠 헴구나 허믄. 밧 구석에 앚앙 밧 구석에.(한 열 살부터 같이 밭에 다니

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저. 어머니 따라서 밭에 가고 가면 밭 구석에 앉아서 김매고. 비 와 가면 막 기꺼해. 아이고 이제는 가려고 하고 있구나 집에 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 밭 구석에 앉아서 밭 구석에.)

103006 @ 예.(예.)

103006 #2 아이고 비 넘어감샤? 어머니 글읍서 가게 허믄 ᄀᆞ만히 셔 보라 ᄀᆞ만히 셔 보라. 우리 어머니 성제들도 경 헷주 ᄀᆞ만히 셔 보라. 아이고 비 개 불믄 난 막 속상허연. 아이고 비도 호끔 더 오주게마는 원. 더 와 불엇이믄 집에 올 건디.(아이고 비 넘어가고 있느냐? 어머니 가시지요 가게 하면 가만히 있어 봐라. 가만히 있어 봐라. 우리 어머니 형제들도 그렇게 했지 가만히 있어 봐라. 아이고 비 개 버리면 난 막 속상했어. 아이고 비도 조금 더 오지마는 원. 더 와 버렸으면 집에 올 건데.)

103006 @ 예.(예.)

103006 #2 그추룩 허영 허믄 우리 어머니는 이제이 ᄒᆞᆫ 시간이라도 이거라도 다 메여지믄 가켜 가켜. 재기 허주게. 허믄 보믄 해ᄒᆞᆫ허여.(그처럼 해서 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한 시간이라도 이거라도 다 매어지면 가겠어 가겠어. 빨리 하지. 하면 보면 종일해.)

103006 @ 어디가마씨?(어디가요?)

103006 #2 해ᄒᆞᆫ허여 밧이 검질메는 거. 어머니는. ᄒᆞᆫ 시간이라도 요거만 다 하믄 가켜.(종일해. 밭에 김매는 거. 어머니는. 한 시간이라도 요거만 다 하면 가겠어.)

103006 @ 예.(예.)

103006 #2 어머니가 경 허믄.(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103006 @ 예.(예.)

103006 #2 난 막 재기 허영 오젠 막 죽자살자 허여도 해ᄒᆞᆫ헤도 다 그거 못헹 와.(난 막 빨리 해서 오려고 막 죽자살자 해도 종일해도 다 그거 못해서 와.)

103006 @ 아.(아.)

103006 #2 경 허멍 살앗어 나.(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나.)

103006 @ 아, 그럼 언제까지 헨마씨? 그 보리 그러니까 밧일.(아, 그럼 언제갔지 했어요? 그 보리 그러니까 밭일.)

103006 #2 ᄒᆞᆫ 열여덟ᄀᆞ정 헤졋을 거라.(한 열여덟까지 했었을 거야.)

103006 @ 아. 그때까지.(아. 그때까지.)

103007 @ 그럼 보리밧 밟앗잖아예? 보리밧.(그럼 보리밭 밟았잖아요? 보리밭.)

103007 #2 보리밧은 안 밟아난.(보리밭은 안 밟았었어.)

103007 @ 아, 안 밟안마씨?(아, 안 밟았어요?)

103007 #2 응. 조는 막 밟앙 허연.(응. 조는 막 밟아서 했어.)

103007 @ 아, 조는 밟는디.(아, 조는 밟는데.)

103007 #2 응. 응 보리는 아니.(응. 응 보리는 아니.)

103008 @ 그럼 검질은 보리밧은 몇 번 멘마씨?(그럼 김은 보리밭은 몇 번 맸어요?)

103008 #2 에이구 그 검질 약이 엇엇주게. 엿날은.(아이고 그 김 약이 없었지. 옛날은.)

103008 @ 예.(예.)
103008 #2 메엉 봉 엇이믄 두불메곡 또 시믄 세불도 메고.(매어서 봐서 없으면 두벌 매고 또 있으면 세벌도 매고.)
103008 @ 아.(아.)
103008 #2 겐디 조. 조팟이만이 안 허여. 조, 조팟은 검질 세불 네불 메민 벳겨져버려 다 벳겨져 버려.(그런데 조. 조밭만큼 안 해. 조, 조밭은 김 세벌 네벌 매면 벗겨져 버려 다 벗겨져 버려.)
103008 @ 조는 또 물어볼 건디 이따 또 골아줍서예.(조는 또 물어볼 건데 이따 또 말해주십시오.)
103008 #2 어, 어.(어, 어.)
103009 @ 그럼 보리밧에는 검질 막 나잖아예?(그럼 보리밭에는 김 막 나잖아요?)
103009 #2 어.(어.)
103009 @ 무슨 검질 나마씨?(무슨 김 나요?)
103009 #2 무슨 검질 알아져게? 보리 검질이라고 헤 것ᄀᆞ라 보리 검질.(무슨 김 알아져? 보리 김이라고 해 것보고 보리 김.)
103009 @ 아, 그냥 보리 검질이라고 헤마씨?(아, 그냥 보리 김이라고 해요?)
103009 #2 어.(어.)
103009 @ 뭐 제완지.(뭐 바랭이.)
103009 #2 제완지는 ᄋᆞ름에 벨로 엇엇고.(바랭이는 여름에 별로 없었고.)
103009 @ 아, 별로 엇고?(아, 별로 없고?)
103009 #2 제완지[59]는 엇고 막 물검질.(바랭이는 없고 막 '물검질'.)
103009 @ 아, 물검질.(아, '물검질'.)
103009 #2 이제 앚앙 보난 물검질이라 그것이.(이제 앉아서 보니까 '물검질'이야 그것이.)
103009 @ 제완지, 절롸니도 들어보션마씨? 절롸니?('제와니', '절롸니'도 들어보셨어요? '절롸니'?)
103009 #2 제완지는 하나썩 안 허민 막 발 버치는 거주게 그것이.(바랭이는 하나씩 안 하면 막 발 부치는 거지 그것이.)
103009 @ 아, 그건 보리에는 잘 안 나마씨?(아, 그건 보리에는 잘 안 나요?)
103009 #2 어 보리에는 잘 아니 난 거 닮아 비여. 어린 때난 경 기억이 잇어게.(어 보리에는 잘 안 난 거 같아 보여. 어린 때니까 그렇게 기억이 있어.)
103010 @ 그럼 보리 다 자라면 이제 수확허잖아예?(그럼 보리 다 자라면 이제 수확하잖아요?)
103010 #2 어.(어.)
103010 @ 그 베는 거부터.(그 베는 거부터.)
103010 #2 응.(응.)

59) '제완지'는 '바랭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절롸니, 절롼지, 제완지, 제환지'라고도 한다.

103010 @ 그다음에 무끄곡 다 허잖아예?(그다음에 묶고 다 하잖아요?)
103010 #2 그거 비엉.(그거 베어서.)
103010 @ 예.(예.)
103010 #2 무껑.(묶어서.)
103010 @ 예.(예.)
103010 #2 탈곡기 빌어당 탈곡허영.(탈곡기 빌려다가 탈곡해서.)
103010 @ 예.(예.)
103010 #2 경 널엉 ᄆᆞᆯ려 왕 방에간에 강 지어당 먹곡.(그렇게 널어서 말려 와서 방앗간에 가서 지어다가 먹고.)
103010 @ 아.(아.)
103010 #2 옛날은 ᄆᆞᆯ방에.(옛날은 연자방아에.)
103010 @ 예.(예.)
103010 #2 연자방아.(연자방아.)
103010 @ 예.(예.)
103010 #2 이제 연자방아 엿날은 ᄆᆞᆯ방.(이제 연자방아 옛날은 'ᄆᆞᆯ방'.)
103010 @ 예.(예.)
103010 #2 ᄆᆞᆯ방에서 막 둥그리곡 거 경 헤낫어.(연자방아에서 막 굴려서 거 그렇게 했었어.)
103010 @ 아, 다 둥그리곡 경 헨마씨?(아, 다 굴려서 그렇게 했어요?)
103010 #2 어. 저 기계가 엇어 부난게. 경 허여그넹 막 사름으로도 막 방에 둥그리곡. 쉐 신 사람은 쉐 허영 막 경 허여낫주게.(어. 저 기계가 없어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사람으로도 막 연자방안 굴리고. 소 있는 사람은 소 해서 막 그렇게 했었지.)
103011 @ 보리 눌어 가지고 막 타작도 허잖아예?(보리 쌓아 가지고 막 타작도 하잖아요?)
103011 #2 응.(응.)
103011 @ 그건 어떵 허주마씨?(그건 어떻게 하지요?)
103011 #2 그건 날씨 잘못 만나면은 눌엉 놔두는 거.(그건 날씨 잘못 만나면 쌓아서 놔두는 거.)
103011 @ 예.(예.)
103011 #2 날씨 잘못 만나면.(날씨 잘못 만나면.)
103011 @ 잘못 만나믄?(잘못 만나면?)
103011 #2 어. 잘 만날 때는 그거 그대로 허는 거고.(어. 잘 만날 때는 그거 그대로 하는 거고.)
103011 @ 그 도리깨질 허잖아예? 도께질.(그 도리깨질 하잖아요? 도리깨질.)
103011 #2 응 도께질 허멍 헷주게게. 엿날은게.(응 도리깨질 하면서 했지. 옛날은.)
103011 @ 그건 뭘로? 어떵 허주마씨? 그거 좀 설명 헤줍서.(그건 뭘로? 어떻게 하지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3011 #2 마당에 막 널어놔. 나도 막 잘 허여 그거.(마당에 막 널어놔. 나도 막 잘 해 그거.)
103011 @ 잘 헤마씨?(잘 해요?)
103011 #2 도리깨질. 이젠 도리깨라도 엿날은 도께.(도리깨질. 이젠 도리깨라도 옛날은 '도께'.)
103011 @ 예. 도께.(예. '도께'.)
103011 #2 엿날은 도께. 이짝 허당 버치믄 이짝으로 허고.(옛날은 도리깨. 이쪽 하다가 부치면 이쪽으로 하고.)
103011 @ 예.(예.)
103011 #2 도께. 그거 허영 마당에 막 널어놔. 막 널엉 놓으멍 그거 막 두드려. 막 두드려 가믄게 뒈싸멍 그거 막 허영 경 헹 헤낫주게게 춤. 경도 허연 마당에서.(도리깨. 그거 해서 마당에 막 널어놔. 막 널어서 놓으면서 그거 막 두드려. 막 두드려 가면 뒤집으면서 그거 막 해서 그렇게 해서 했었지 참. 그렇게도 했어 마당에서.)
103012 @ 아까 그럼 보리쌀 그러니까 보리 다 헹 쌀 나오젠 허믄 그 몰방 가야 뒈잖아예?(아까 그럼 보리쌀 그러니까 보라 다 해서 쌀 나오려고 하면 그 연자맷간 가야 되잖아요?)
103012 #2 몰방에 지엉. 몰방에.(연자매에 지어서. 연자매에.)
103012 @ 예. 몰방에 강 지엉.(예. 연자맷간에 가서 지어서.)
103012 #2 몰방에도 지곡 방앗간에도 영 영 방아톡에도 허곡.(연자매에도 지고 방앗간에도 이렇게 이렇게 돌방아에도 하고.)
103012 @ 방아톡에도.(돌방아에도.)
103012 #2 도구방에 잇잖아? 도구방에?(돌방아 있잖아? 돌방아?)
103012 @ 예.(예.)
103012 #2 그것에 놩 서이가 지어.(그것에 놔서 셋이서 지어.)
103012 @ 아, 서이가?(아, 셋이서?)
103012 #2 서이라.(셋이야.)
103012 @ 아.(아.)
103012 #2 세콜방에[60]라고 세콜방에. 거.('세콜방에'라고 '세콜방에'. 거.)
103012 @ 세콜방에?('세콜방에'?)
103012 #2 거 응 세콜방에라고 허주게. 방에 이 세 개 허영 허는 게 세콜방에.(거 응 '세콜방에'라고 하지. 방아 이 세 개 해서 하는 게 '세콜방에'.)
103012 @ 아, 그럼 그건 꼭 세 명이 헤야 뒈마씨?(아, 그럼 그건 꼭 세 명이 해야 되요?)
103012 #2 어. 세 명. 더는 못 허여.(어. 세 명. 더는 못 해.)
103012 @ 더는 못 허고.(더는 못 하고.)

60) '세콜방에'는 세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굿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방아를 찧는 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싀콜방에'라고도 한다.

103012 #2 네 사람 못 허여. 세 명 허는 거. 둘이는 허여도.(네 사람 못 해. 세 명 하는 거. 둘은 해도.)
103012 @ 아, 둘은 혜마씨?(아, 둘은 해요?)
103012 #2 어. 세 명 허는 거 아주 멋잇어. 톡, 톡, 톡, 톡 허멍.(어. 세 명 하는 거 아주 멋있어. 톡, 톡, 톡, 톡 하면서.)
103013 @ 그럼 이제 다 허믄 보리쌀 나오잖아예?(그럼 이제 다 하면 보리쌀 나오잖아요?)
103013 #2 어.(어.)
103013 @ 보리쌀 나오믄 뭐 만들주마씨?(보리쌀 나오면 뭐 만들지요?)
103013 #2 에고 보리쏠 허믄은 옛날은 그거 허영 지믄.(에고 보리쌀 하면 옛날은 그거 해서 지으면.)
103013 @ 예.(예.)
103013 #2 이젠 그냥 보리쏠 통보리로 그냥 먹는디. 그걸 이젠 마당에 ᄀᆞ렛방석 페왕.(이젠 그냥 보리쌀 통보리로 그냥 먹는데. 그걸 이젠 마당에 맷방석 펴서.)
103013 @ 예.(예.)
103013 #2 이런 멍석이 아니고 ᄀᆞ렛방석은 동글락헌 거.(이런 멍석이 아니고 맷방석은 동그란 거.)
103013 @ 동글락헌 거마씨?(동그란 거예요?)
103013 #2 ᄀᆞ레 ᄀᆞ레 놩 앚앙 어멍넨 밧이 가 불믄 난 똘이난 이거 허라 헤둥 가 불믄. 그거 ᄀᆞ렛방석에 발 벗엉 앚앙 ᄀᆞ레 ᄀᆞᆯ앙. 게믄 ᄀᆞ레 ᄀᆞᆯ믄 체가 세 가지 체가 잇어.(맷돌 맷돌 놔서 앉아서 어머니네는 밭에 가 버리면 나는 딸이니까 이거 해라 해둬서 가 버리면. 그거 맷방석에 발 벗어서 앉아서 맷돌 갈아서. 그러면 맷돌 갈면 체가 세 가지 체가 있어.)
103013 @ 아.(아.)
103013 #2 체 치는 거.(체 치는 거.)
103013 @ 세 가지?(세 가지?)
103013 #2 좀진체[61]는 좀진 좀쏠[62].(‘좀진체’는 자잘한 ‘좀쏠’.)
103013 @ 예.(예.)
103013 #2 그다음은 호끔 홁은 좀쏠. 그다음 우이 껀 밥헤 먹는 그거. 그추룩 허영 허믄 좀진 걸로는 죽도 끓영 먹고.(그다음은 조금 굵은 ‘좀쏠’. 그다음 위에 건 밥해 먹는 그거. 그처럼 해서 하면 자잘한 걸로는 죽도 끓여서 먹고.)
103013 @ 예.(예.)
103013 #2 누룩 만들아. 누룩.(누룩 만들어. 누룩.)
103013 @ 누룩.(누룩.)
103013 #2 누룩 만들엉 밥 허여그넹 순다리[63] 만들아.(누룩 만들어서 밥 해서 ‘순다

61) ‘좀진체’는 ‘체의 한 종류로 가루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하며, 구멍이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62) ‘좀쏠’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리’ 만들어.)
103013 @ 아, 순다리 만들어마씨?(아, ‘순다리’ 만들어요?)
103013 #2 어. 경 헹 먹어난.(어.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
103013 @ 아, 순다리도 만들엇언마씨?(아, ‘순다리’도 만들었어요?)
103013 #2 어. 만들어난.(어. 만들었었어.)
103013 @ 아까 체 세 가지 잇잖아예?(아까 체 세 가지 있잖아요?)
103013 #2 어.(어.)
103013 @ 좀진체랑 그다음에 중간 거는 뭐라고 헨마씨? 무슨 체라고 헨마씨?(‘좀진체’랑 그다음에 중간 거는 뭐라고 했어요? 무슨 체라고 했어요?)
103013 #2 중체[64].(‘중체’.)
103013 @ 중체라고?(‘중체’라고?)
103013 #2 중체, 좀진체, 중체. 이건 대체.(‘중체’, ‘좀진체’, ‘중체’. 이건 굵은체.)
103013 @ 아, 대체?(아, 굵은체?)
103013 #2 어. 경 헤낫주게게. 이거 나 알아지는양 곧는 거.(어. 그렇게 했었지. 이거 내가 알아지는 대로 말하는 거.)
103013 @ 예 그러니까마씨.(예 그러니까요.)
103013 #2 나 허여난 거 그자.(나 했었어 거 그저.)
103014 @ 그것만 골아주면 뒈마씨. 그 쌀 말앙 이제 막 허면 껍데기 같은 거 남잖아예?(그것만 말해주면 돼요. 그 쌀 말고 이제 막 하면 껍데기 같은 거 남잖아요?)
103014 #2 돼지 줘 그런 건. 돼지밥, 돼지밥. 옛날은 돼지 키우난 돼지밥.(돼지 줘 그런 건. 돼지밥, 돼지밥. 옛날은 돼지 키우니까 돼지밥.)
103014 @ 아, 키워난마씨?(아, 키웠었어요?)
103014 #2 응. 우리도 키와난.(응. 우리도 키웠었어.)
103014 @ 통지에? 몇 마리 정도 키워난마씨?(돼지우리에? 몇 마리 정도 키웠었어요?)
103014 #2 ᄒᆞ나.(하나.)
103014 @ 하나.(하나.)
103014 #2 저 새끼 때는 두 개.(저 새끼 때는 두 개.)
103014 @ 두 개?(두 개?)
103014 #2 응.(응.)
103014 @ 나중에는 그거 어떵 헷수광? 그냥 팔아 버련마씨?(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 버렸습니까?)
103014 #2 풀아 불주 뭐 허여.(팔아 버리지 뭐 해.)
103014 @ 기구나예.(그렇군요.)
103014 #2 똥싸믄 그거 도새기가 먹어.(똥싸면 그거 돼지가 먹어.)

63) ‘순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식’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쉰다리’라고도 한다.
64) ‘중체’는 ‘촛눈이 굵지도 잘지도 않은 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3014 @ 그건 언제까지 잇언마씨? 통지는?(그건 언제까지 있었어요? 돼지우리는?)
103014 #2 막 오래 키왓어. 경 헤그넹 이 개량변소 나온 지도 몇 년 안 뒛어.(아주 오래 키웠어. 그렇게 해서 이 개량변소 나온 지도 몇 년 안 됐어.)
103014 @ 아, 몇 년 안 뒌마씨?(아, 몇 년 안 됐어요?)
103014 #2 응. 우린 게도 먼저 헷주마는 아니 헌 집은 막 늦게까지 안 허연. 저 수세식 아니 그냥 푸어가는 걸로.(응. 우린 그래도 먼저 했지마는 안 한 집은 아주 늦게까지 안 했어. 저 수세식 아니 그냥 퍼가는 걸로.)
103014 @ 예.(예.)
103014 #2 우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리는 걸로 헷주.(우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리는 걸로 했지.)
103015 @ 할머니 옛날에 보리농사 허멍 잇엇던 거 추억 같은 거 잇수광?(할머니 옛날에 보리농사 하면서 있었던 거 추억 같은 거 있습니까?)
103015 #2 추억은 무시거게 고생헌 거 뿐이주게.(추억은 무엇. 고생한 거 뿐이지.)
103015 @ 기지예?(그렇지요?)
103015 #2 고생헌 거밧긔 엇어.(고생한 거밖에 없어.)
103015 @ 뭐 그럼 경험허거나 재미나는 건 엇일 건디.(뭐 그럼 경험하거나 재미나는 건 없을 건데.)
103015 #2 으이구 부리는 건 하나도 엇고 고생허멍. 보리 그 더운디 보리 비멍 ᄉᆞ뭇. 에이구 경 허멍 춤 지붕도 개량 안 헐 때는 저 산에 올라강 새 비어당 새.(으이고 부리는 건 하나도 없고 고생하면서. 보리 그 더운데 보리 베면서 사뭇. 에이구 그렇게 하면서 참 지붕도 개량 안 할 때는 저 산에 올라가서 띠 베어다가 띠.)
103015 @ 아, 예.(아, 예.)
103015 #2 새 비어당 집 몬 일곡. 각단[65] 헤당 줄 놓곡.(띠 베어다가 집 전부 일고. '각단' 해다가 줄 놓고.)
103015 @ 새랑 각단이랑은 어떵 다르주마씨?(띠와 '각단'은 어떠헤 다르지요?)
103015 #2 새는 커.(띠는 커.)
103015 @ 아.(아.)
103015 #2 지붕 더끌 거 그건. 지붕 이쁘게 더끌 거.(지붕 덮을 거 그건. 지붕 이쁘게 덮을 거.)
103015 @ 예.(예.)
103015 #2 각단은 줄 놓는 거 존존헌 거.('각단'은 줄 놓는 거 자잘한 거.)
103015 @ 예. 존존헌 거지예?(예. 자잘한 거지요?)
103015 #2 어. 존존헌 거 헤당 줄 놓아.(어. 자잘한 거 해다가 줄 놓아.)
103015 @ 요즘에는 그 두 가지도 잘 몰라마씨.(요즘에는 그 두 가지도 잘 몰라요.)
103015 #2 응?(응?)
103015 @ 요즘 아이들은 그것도 잘 몰라마씨.(요즘 아이들은 그것도 잘 몰라요.)

65)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각다니'라고도 한다.

103015 #2 몰르지 어떵 알아게? 당췌 모르주게.(모르지 어떻게 알아? 당최 모르지.)
103015 @ 예. 그런 것들 좀 골아줍서.(예. 그런 것들 좀 말해주십시오.)
103015 #2 각단, 각단. 각단 비엉당 줄 놓앙. 우리 아부지. 우리 아부지는 이거 잘 영 영 영 영 허여 줘. 영 영 영 허믄 저듸 둘이 상 비어.('각단', '각단'. '각단' 베어다가 줄 놓아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거 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기 둘이 서서 베어.)
103015 @ 예.(예.)
103015 #2 비엉 허면 그걸 또 합쳐. 합쳥 또 두 갠 영 한 가닥으로 만들아. 지금 영 무끌 거.(베어서 하면 그걸 또 합쳐. 합쳐서 또 두 개는 이렇게 한 가닥으로 만들어. 지금 이렇게 묶을 거.)
103015 @ 아, 그것도 다 보셧구나예?(아, 그것도 다 보셨군요?)
103015 #2 어. 다 그거 허여난. (어. 다 그거 했었어.)
103015 @ 아.(아.)
103015 #2 그거 허여당 끊어지믄 막 데와 불믄 막 끊어져 불어.(그거 해다가 끊어지면 막 데워 버리면 막 끊어져 버려.)
103015 @ 예.(예.)
103015 #2 경 끊어지믄 영 풀엉 또 잇엉 또 허곡.(그렇게 끊어지면 이렇게 풀어서 또 이어서 또 하고.)
103015 @ 아.(아.)
103015 #2 경 헤난.(그렇게 했었어.)
103015 @ 그럼 보리농사.(그럼 보리농사.)
103015 #2 이거 다 우리 헤난 거.(이거 다 우리 했었던 거.)
103015 @ 다 헤난 거?(다 했었던 거?)
103015 #2 어.(어.)

조농사

103016 @ 조 농사도 좀 아셔마씨?(조 농사도 좀 아셔요?)
103016 #1 조 농사는 보리 끗나면.(조 농사는 보리 끝나면.)
103016 @ 예.(예.)
103016 #1 보리 끗나면 조 농사를 ᄒᆞ는데.(보리 끝나면 조 농사를 하는데.)
103016 @ 예.(예.)
103016 #1 조 농사는 여름에 ᄒᆞ여 여름.(조 농사는 여름에 해 여름.)
103016 @ 그럼 조 농사 하려면 뭐 필요헤마씨?(그럼 조 농사 하려면 뭐 필요해요?)
103016 #1 조 농사는 뭐 일단은 좁씨가 필요헤. 씨앗이 필요ᄒᆞ겟지.(조 농사는 뭐 일단은 좁씨가 필요해. 씨앗이 필요하겠지.)
103016 @ 예.(예.)

103016 #1 씨앗ᄒᆞ고 또 동네 잇인 사람 헤 가지고 일단 보리씨 아니 좁씨를 구입ᄒᆞ면.(씨앗하고 또 동네 있는 사람 해 가지고 일단 보리씨 아니 좁씨를 구입하면.)
103016 @ 예.(예.)
103016 #1 이제 장마가 끗나면 유월 달 장마 끗나면 칠월에 좁씨를 말이지 뿌려.(이제 장마라 끝나면 유월 달 장마 끝나면 칠월에 좁씨를 말이지 뿌려.)
103016 @ 아, 좁씨를 뿌려마씨? 칠월에?(아, 좁씨를 뿌려요? 칠월에?)
103016 #1 칠월에 뿌려 가지고 인제 그 말을 말이여 빌려 가지고 말이여 말로 이제 그 밧 갈고 좁씨 삔 데를 일단 섬비로 한 번 끗어 주고.(칠월에 뿌려 가지고 인제 그 말을 말이야 빌려 가지고 말이야 말로 이제 그 밭 갈고 좁씨 뿌린 데를 일단 끙게로 한 번 끌어 주고.)
103016 @ 그럼 좁씨는 어떻게 뿌려마씨? 아까랑 똑같이 망텡이로?(그럼 좁씨는 어떻게 뿌려요? 아까랑 똑같이 망태기로?)
103016 #1 ᄋᆞ. 이제 망텡이에 담앙 사람 손으로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뿌려 주는데 그것도 일단은 뭐 섬비라고 ᄒᆞ는 나무로 만든 그 쪽 이렇게 끄는 나무로 말이지 나무로 만든 섬비로 끗어 가지고 일단 한번 끗은 다음에 그다음에 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붋아.(어. 이제 망태기에 담아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뿌려 주는데 그것도 일단은 뭐 끙게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그 쪽 이렇게 끄는 나무로 말이지 나무로 만든 끙게로 끌어 가지고 일단 한번 끌은 다음에 그다음에 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밟아.)
103016 @ 아, 말로 밟아마씨?(아, 말로 밟아요?)
103016 #1 ᄋᆞ. 말로 붋지 안 ᄒᆞ민 조는 잘 안 나.(어. 말로 밟지 안 하면 조는 잘 안 나.)
103016 @ 아, 소는 안 허고 말로?(아, 소는 안 하고 말로?)
103016 #1 ᄋᆞ. 말 그 소는 그렇게 말 ᄀᆞ치 막 자주 말이여 그 다니지 못 ᄒᆞ지. 느렁쉬[66]라서 말이여. 말 ᄀᆞ튼 거는 딱 때리면 휘휘 말이여 막 몇 바꾸 돌고 말이여 다 말이런 데 막 무끄어.(어. 말 그 소는 그렇게 말 같이 막 자주 말이야 그 다니지 못 하지. '느렁쉬'라서 말이야. 말 같은 거는 딱 때리면 휘휘 말이야 막 몇 바퀴 돌고 말이야 다 말 이런 데 막 묶어.)
103016 @ 아, 뭘 무꺼마씨?(아, 뭘 묶어요?)
103016 #1 이, 저.(이, 저.)
103016 @ 끌개?(고무래?)
103016 #1 아니. 말을 모가지에다가.(아니. 말을 모가지에다가.)
103016 @ 예.(예.)
103016 #1 그 저기 저 그 노로 헤서 말이지 말이 도망가지 못헤그넹 이렇게 돌라고 하면 여러 개 이렇게 쭉 쭉 돌아야 뒈니까.(그 저기 저 그 노로 해서 말이지 말이 도망가지 못해서 이렇게 돌라고 하면 여러 개 이렇게 쭉 쭉 돌아야 되니까.)
103016 @ 아, 가운데 이렇게 고정헤마씨?(아, 가운데 이렇게 고정해요?)

66) '느렁쉬'는 '느릿느릿 거동하는 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3016 #1 ᄋᆞ. 이제 그 말 끗는 할아방이 전문적이라. 물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모가지에다가 다 메서 이 말이 다 그것이 따라와. 그러면 빙 빙 빙 빙 돌면서 밧 전체를 붋아.(어. 이제 그 말 끄는 할아버지가 전문적이야. 말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모가지에다가 다 메서 이 말이 다 그것이 따라와. 그러면 빙 빙 빙 빙 돌면서 밭 전체를 밟아.)

103016 @ 그럼 말은 밟을 때 한 마리로 밟아마씨 아니면 두세 마리로?(그럼 말은 밟을 때 한 마리로 밟아요 아니면 두세 마리로?)

103016 #1 아니. 췌하 말이여 어떤 때는 열 마리까지 사용허지.(아니. 최하 말이야 어떤 때는 열 마리까지 사용하지.)

103016 @ 아, 열 마리까지?(아, 열 마리까지?)

103016 #1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붋고 말이지 빨리 끗나고 좋주게.(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밟고 말이지 빨리 끝나고 좋지.)

103016 @ 아, 경 헤도 좀 복잡할 거 닮으난마씨?(아, 그렇게 해도 좀 복잡할 거 같은데요?)

103016 #1 아니. 경 헤도 말들이 말이지.(아니. 그렇게 해도 말들이 말이지.)

103016 @ 예.(예.)

103016 #1 모가지에다가 무껑 다음 말에다가 무껑 쪼여지지만 않게 딱 무끄민 말들이 그게 잘 훈련이 돼 가지고 아주 잘 헤.(모가지에다가 묶어서 다음 말에다가 묶어서 쪼여지지만 않게 딱 묶으면 말들이 그게 잘 훈련이 돼 가지고 아주 잘 해.)

103017 @ 그럼 조밧에도 거름을 뿌릴 건 디 그거는 보리농사 거름이랑 똑ᄀᆞ튼 거마씨?(그럼 조밭에도 거름을 뿌릴 건 데 그거는 보리농사 거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103017 #1 아니. 조밧에는 거름은 이제 잘 안 ᄒᆞ고.(아니. 조밭에는 거름은 이제 잘 안 하고.)

103017 @ 아, 걸음 잘 안 헤마씨?(아, 걸음 잘 안 해요?)

103017 #1 ᄋᆞ. 그대로 말이지 조가 나면.(어. 그대로 말이지 조가 나면.)

103017 @ 예.(예.)

103017 #1 조는 세불 검질까지 메여.(조는 세벌 김까지 매.)

103017 @ 게믄 이제 물어보젠 헴신디예. 아, 그럼 조밧 검질은?(그러면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럼 조밭 김은?)

103017 #1 초불검질, 두불검질, 세불꺼지 메여.(초벌, 두벌, 세벌까지 매.)

103017 @ 초벌검질, 두불검질, 세 번째는 뭐라고 헤마씨?(초벌, 두벌,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103017 #1 세불 검질 ᄀᆞ튼 거는.(세벌 김 같은 거는.)

103017 @ 아, 세불 검질?(아, 세벌 김?)

103017 #1 세불 세 번째 메는 건데 그거는 조와 조 사이에 간격 ᄀᆞ튼 거.(세벌 세 번째 매는 건데 그거는 조와 조 사이에 간격 같은 거.)

103017 @ 예.(예.)

103017 #1 제주도말로 줒아[67] 조가 막 복상 나민.(제주도말로 '줒아' 조가 막 폭삭 나면.)
103017 @ 예.(예.)
103017 #1 그걸 몇 개 뽑아야 이것들이 말이여 잘 성장하게 말이여 ᄒᆞ는 거를 말이여 그 사람이 손으로 그걸 뽑아 줘 가지고 조가 건실허게 자랄 수 잇게 만들어 주는 거 주게.(그걸 몇 개 뽑아야 이것들이 말이야 잘 성장하게 말이야 하는 거를 말이야 그 사람이 손으로 그걸 뽑아 줘 가지고 조가 건실하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지.)
103017 @ 아.(아.)
103017 #1 검질메면서 조를 ᄉᆞ끄아 ᄉᆞ까낸다 이거여.(김매면서 조를 솎아 솎아낸다 이거야.)
103017 @ 그럼 조는 보리농사는 두 번 메는데?(그럼 조는 보리농사는 두 번 매는데?)
103017 #1 두 번이나 제일 나중에는 검부기나 그런 대우리 ᄀᆞ튼 거 멜 때까지 ᄒᆞ면 그것도 한 세 번 정도 가는데.(두 번이나 제일 나중에는 깜부기나 그런 귀리 같은 거 맬 때까지 하면 그것도 한 세 번 정도 가는데.)
103017 @ 조는 무조건 세 번?(조는 무조건 세 번?)
103017 #1 조는 췌하 세 번.(조는 최하 세 번.)
103017 @ 췌하 세 번?(최하 세 번?)
103017 #1 췌하 세 번 메엇거든.(최하 세 번 매었거든.)
103018 @ 그면 조는 시작하는 게 그 뭐냐 유월 달 이후에 뿌리잖아예?(그러면 조는 시작하는 게 그 뭐냐 유월 달 이후에 뿌리잖아요?)
103018 #1 ᄋᆞ.(어.)
103018 @ 장마 끗난 다음에 그럼 검질은 언제?(장마 끝난 다음에 그럼 김은 언제?)
103018 #1 칠팔월 달에 메야지.(칠팔월 달에 매야지.)
103018 @ 아, 검질은 칠팔월 달에?(아, 김은 칠팔월 달에?)
103018 #1 ᄋᆞ.(어.)
103018 @ 지금이 딱 검질멜 때다예?(지금이 딱 김맬 때군요?)
103018 #1 ᄋᆞ. 한 구월이나 시월 뒈면은 조도 말이여 끗나그넹 거두어.(어. 한 구월이나 시월 되면 조도 말이야 끝나서 거둬.)
103022 @ 그럼 조밧에는 검질 뭐가 나마씨? 조밧에도 똑같이?(그럼 조밭에는 김 뭐가 나요? 조밭에도 똑같이?)
103022 #1 조밧에는 뭐 제완지[68]라고 ᄒᆞ는 말이여.(조밭에는 뭐 바랭이라고 하는 말이야.)
103022 @ 제완제?(바랭이?)
103022 #1 제완지 ᄀᆞ튼 거 천상쿨 ᄀᆞ튼 거 잡초들 좀 나고.(바랭이 같은 거 개망초

67) '줒다'는 '몹시 애가 타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68) '제완지'는 '바랭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제와니, 절롼지, 절롸니, 제환지'라고도 한다.

같은 거 잡초들 좀 나고.)
103022 @ 예.(예.)
103022 #1 그 조를 주로.(그 조를 주로.)
103022 @ 예.(예.)
103022 #1 좁씨가 많이 삐어지면은 거 많이 나면은 그걸 좀 ᄉᆞᄁᆞ아 제주도말로.(좁씨가 많이 뿌려지면 거 많이 나면 그걸 좀 솎아 제주도말로.)
103022 @ 아, 그니까 오히려 검질보다 그냥 조들이 복삭ᄒᆞ게 나니깐?(아, 그러니까 오히려 김보다 그냥 조들이 '복삭ᄒᆞ게' 나니깐?)
103022 #1 ᄋᆞ. 나니까 그게 잘 자랄 수 잇도록 말이지 여건을 말이여 사람이 손으로.(어. 나니끼 그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이지 여건을 말이야 사람이 손으로.)
103022 @ 예.(예.)
103022 #1 두 번 세 번 ᄒᆞ면서 그걸 자꾸 만들어줘 한꺼번에 그걸 다 뽑지 못 ᄒᆞ고.(두 번 세 번 하면서 그걸 자꾸 만들어줘 한꺼번에 그걸 다 뽑지 못 하고.)
103022 @ 제완지나 천상쿨도 그냥 딱 보여마씨?(바랭이나 개망초도 그냥 딱 보여요?)
103022 #1 아니. 그런 거는 뭐 전혀 조ᄒᆞ고 틀린 것들이난 그런 거는 초벌검질 멜 때도 전부 다 그런 건 다 메고.(아니. 그런 거는 뭐 전혀 조하고 다른 것들이니까 그런 거는 초벌 멜 때도 전부 다 그런 건 다 메고.)
103022 @ 예.(예.)
103022 #1 두불검질 멜 때 즈음에는 조도 좀 ᄉᆞᄁᆞ앙 내고 말이지 세불 검질 헐 때도 조도 말이지 저 그 보리추룩 껌부기나 대오리 말이지 저기 저 그 ᄀᆞ랏이라는 것이 나와 꼭 조 같아.(두벌 맬 때 즈음에는 조도 좀 솎아 내고 말이지 세벌 김 할 때도 조도 말이지 저 그 보리처럼 깜부기나 귀리 말이지 저기 저 그 강아지풀이라는 것이 나와 꼭 조 같아.)
103022 @ ᄀᆞ랏이마씨?(강아지풀이요?)
103022 #1 ᄀᆞ랏, ᄀᆞ랏이 조 ᄀᆞ튼 데 조추룩 생겻는데 그거는 조는 아니고 꼭 조 ᄀᆞ치 생겻는데 바람이 말이여 흔들흔들 말이여 꼭 조 ᄀᆞ튼 데 그 ᄀᆞ랏이 말이지 꼭 뽑아야 돼.(강아지풀, 강아지풀이 조 같은 데 조처럼 생겼는데 그거는 조는 아니고 꼭 조 같이 생겼는데 바람이 말이야 흔들흔들 말이야 꼭 조 같은 데 그 강아지풀이 말이지 꼭 뽑아야 돼.)
103022 @ 아, 그거는 꼭 뽑아야 돼마씨?(아, 그거는 꼭 뽑아야 돼요?)
103022 #1 어. ᄀᆞ랏이 조밧에 말이지 세불 검질 헐 때는 건줌 말이지 조코고리 나올 때는 것도 나온다니까.(어. 강아지풀이 조밭에 말이지 세벌 김 할 때는 거의 말이지 조이삭 나올 때는 것도 나온다니까.)
103022 @ 아, 제완지, 천상쿨, ᄀᆞ랏 요렇게.(아, 바랭이, 개망초, 강아지풀 요렇게.)
103022 #1 어. 이런 것들 말이지.(어. 이런 것들 말이지.)
103023 @ 그럼 조 수확은 어떵 헤마씨?(그럼 조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23 #1 거 이제 것도 조는 이제 수눌음으로 헤 가지고 사람들 빌어 가지고 조를 비면.(거 이제 것도 조는 이제 품앗이로 해 가지고 사람들 빌려 가지고 조를 베면.)
103023 @ 예.(예.)
103023 #1 조는 밧에서 말이여 조코고리를 튿아.(조는 밭에서 말이야 조이삭을 뜯어.)
103023 @ 조코고리마씨?(조이삭이요?)
103023 #1 조코고리, 조코고리 조 나온 제일 끗에 그걸 조코고리라고 허여. 그걸 이렇게 놔 가지고.(조이삭, 조이삭 조 나온 제일 끝에 그걸 조이삭이라고 해. 그걸 이렇게 놔 가지고.)
103023 @ 예.(예.)
103023 #1 거기에다가 고고리는 고고리만 망텡이에 담고.(거기에다가 이삭은 이삭만 망태기에 담고.)
103023 @ 예.(예.)
103023 #1 조찍은 조찍대로 놧다그넹 집에 가져왕 가지고 그 뭐냐면 뭐 부엌에서 말이여 겨울에 땔감으로 사용허고 말이지.(조짚은 조짚대로 놨다가 집에 가져와서 가지고 그 뭐냐면 뭐 부엌에서 말이야 겨울에 땔감으로 사용하고 말이지.)
103023 @ 그럼 비는 거는 뭘로 낫으로 헤마씨?(그럼 베는 거는 뭘로 낫으로 해요?)
103023 #1 아니. 호미로 낫으로 비고 또 낫으로 빈 다음에 그거는 무끄거나 뭐 ᄒᆞ지. 그대로 밧에서 앚아 가지고 조코고리만 가져와그넹 여기 저 물방엣간라고 헤 가지고 물로 말이지 연자방아 잇잖아?(아니. '호미'로 낫으로 베고 또 낫으로 벤 다음에 그거는 묶거나 뭐 하지. 그대로 밭에서 앉아 가지고 조이삭만 가져와서 여기 저 연자맷간라고 해 가지고 말로 말이지 연자방아 있잖아?)
103023 @ 예.(예.)
103023 #1 그듸 놔 가지고 몇 번 이렇게 굴리면.(거기에 놔 가지고 몇 번 이렇게 굴리면.)
103023 @ 예.(예.)
103023 #1 그게 조가 다 부서져. 게민 건줌 큰 걸멩이[69]라는 체에다가 다 쳐 가지고 쭉젱이는 앚아 불곡 아래 그것만 놔서 잘 바람에 불려 가지고 지어다가 먹는 거라.(그게 조가 다 부서져. 그러면 거의 큰 '걸멩이'라는 체에다가 다 쳐 가지고 쭉정이는 버려 버리고 아래 그것만 놔서 잘 바람에 불려 가지고 지어다가 먹는 거야.)
103023 @ 체 이름이?(체 이름이?)
103023 #1 그 저기 걸멩이라고.(그 저기 '걸멩이'라고.)
103023 @ 걸멩이?('걸멩이'?)
103023 #1 걸멩이는 큰 거는 쳐 내고 작은 거는 아래 내리는 것이 걸멩이 체.('걸멩이'는 큰 거는 쳐 내고 작은 거는 아래 내리는 것이 '걸멩이' 체.)
103023 @ 조는 안 묶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헤마씨?(조는 안 묶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69) '걸멩이'는 멱둥구미의 일종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3023 #1 ᄋᆞ. 빈 다음에 낫으로 이렇게 이 다리에 영 놔 가지고 헤그넹 허민 조코고리 허주게.(어. 벤 다음에 낫으로 이렇게 이 다리에 이렇게 놔 가지고 해서 하면 조이삭 하지.)

103024 @ 그럼 수확한 다음에 타작도 하잖아예?(그럼 수확한 다음에 타작도 하잖아요?)

103024 #1 아 게난 그거 가졍 오면 집에다가 조코고리만 가졍 오면 이 동네에 ᄆᆞᆯ방엣간이라고 헤 가지고 말이여 말로.(아 그러니까 그거 가져서 오면 집에다가 조이삭만 가져서 오면 이 동네에 연자맷간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말로.)

103024 @ 예.(예.)

103024 #1 이렇게 빙빙 돌면 조를 놔 가지고 말이여 ᄒᆞᆫ 열 바퀴나 스무 바퀴 돌면 다 부서지면 걸멩이로 헹 쳐내 가지고 조는 조대로 쭉젱이는 쭉젱이대로 분리허고 그 ᄆᆞᆯ ᄀᆞ튼 거 엇이면 사람이 밀엉 허주게.(이렇게 빙빙 돌면 조를 놔 가지고 말이야 한 열 바퀴나 스무 바퀴 돌면 다 부서지면 '걸멩이'로 해서 쳐내 가지고 조는 조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분리하고 그 말 같은 거 없으면 사람이 밀어서 하지.)

103024 @ 여기도 ᄆᆞᆯ방엣간 잇어마씨?(여기도 연자맷간 있어요?)

103024 #1 ᄋᆞ. ᄆᆞᆯ방엣간.(어. 연자맷간.)

103024 @ 아, 그거 예전에 잇언마씨? 여기 옹포리에?(아, 그거 예전에 있었어요? 여기 옹포리에?)

103024 #1 아, 그거 이젠 엇지 다 이제 다.(아, 그건 이제는 없지 다 이제 다.)

103024 @ 옛날엔 잇언마씨?(옛날에는 있었어요?)

103024 #1 ᄋᆞ. 옛날엔 잇어낫지. 여기 다 거기다가 가 가지고 전부 다 말이여 사람들 ᄆᆞᆯ 엇이면 말이나 소나 엇인 사람들은 양쪽으로 다 밀어낫주게. 이만한 돌로 이렇게 막 밀엉 헤낫주게. 조는 메탁기라고 하는 데서 ᄒᆞ지 못헤.(어. 옛날에는 있었지. 여기 다 거기다가 가 가지고 전부 다 말이야 사람들 말 없으면 말이나 소나 없는 사람들은 양쪽으로 다 밀었지. 이만한 돌로 이렇게 막 밀어서 했었지. 조는 탈곡기라고 하는 데서 하지 못해.)

103024 @ 아, 보리는 하는데?(아, 보리는 하는데?)

103024 #1 ᄋᆞ. 보리는 메탁기에서 갈어낫는데 조는 안 돼.(어. 보리는 탈곡기에서 갈았었는데 조는 안 돼.)

103025 @ 그럼 조는 좁쌀은 ᄆᆞᆯ방엣간에서 나오는 거마씨?(그럼 조는 좁쌀은 연자맷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103025 #1 좁쌀이 나오는 게 아니고.(좁쌀이 나오는 게 아니고.)

103025 @ 예.(예.)

103025 #1 조만 나오지 조.(조만 나오지 조.)

103025 @ 그럼 좁쌀은 어떻게?(그럼 좁쌀은 어떻게?)

103025 #1 아, 게난 그거를 좁쌀을 걸멩이로 쳐서 허면 집이 와서 바람 잇인 곳에서 불려 가지고 조만 내면 방앗간에 가서 지어야 돼. 지어그넹 조를 말이지 껍데기를 벗기

면 그게 조가 뒈고 조채 ᄀᆞ튼 거는 거름으로 사용ᄒᆞ고.(아, 그러니까 그거를 좁쌀을 '걸멩이'로 쳐서 하면 집에 와서 바람 있는 곳에서 불려 가지고 조만 내면 방앗간에 가서 지어야 돼. 지어서 조를 말이지 껍데기를 벗기면 그게 조가 되고 조채 같은 거는 거름으로 사용하고.)

103026 @ 그럼 좁쌀로는 뭐 밥도 헤 먹고 뭐 헤 드션마씨?(그럼 좁쌀로는 뭐 밥도 해 먹고 뭐 해 드셨어요?)

103026 #1 아게, 좁쌀로 조 떡도 헹 먹고 뭐 거.(아, 좁쌀로 조 떡도 해서 먹고 뭐 거.)

103026 @ 술은 안 헤 먹언마씨?(술은 안 해 먹었어요?)

103026 #1 그 뭐냐 ᄌᆞ배기도 잇지마는 그 저기 저 누룩 헐 때 조로 만든 그 떡 잇어. 그런 거 헤서 먹기도 허고.(그 뭐냐 수제비도 있지만 그 저기 저 누룩 할 때 조로 만든 그 떡 있어. 그런 거 해서 먹기도 하고.)

103026 @ 누룩마씨? 누룩?(누룩이요? 누룩?)

103026 #1 누룩이영 뭐여 술 헐 때 멘드는 오메기떡[70]이나 그런 식으로 가운데 고망 뚤라진 거 그런 거 헷다가 그 술 담을 때 누룩이영 그거랑 같이 담강 먹고.(누룩과 뭐 술 할 때 만드는 '오메기떡'이나 그런 식으로 가운데 구멍 뚫린 거 그런 거 했다가 그 술 담을 때 누룩과 그거랑 같이 담가서 먹고.)

103027 @ 그럼 조찍은 거름으로 사용헌다고 헷잖아예?(그럼 조짚은 거름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103027 #1 게난 거름은 보통 안 허고 주로 조찍은 주로 집에서 땔감으로 많이 사용헤낫주게.(그러니까 거름은 보통 안 하고 주로 조짚은 주로 집에서 땔감으로 많이 사용했었지.)

103025 @ 예.(예.)

103027 #1 왜냐하면 보리때보다도 아주 단단허고 조금 오래가고 보릿낭은 이 곧 집어넣으민 대번에 붙어 불곡 조찍은 천천히 붙으지.(왜냐하면 보리때보다도 아주 단단하고 조금 오래가고 보릿짚은 이 곧 집어넣으면 대번에 붙어 버리고 조짚은 천천히 붙지.)

103027 @ 아, 조찍은 보릿낭은 한번에 붙으니까?(아, 조짚은 보릿짚은 한번에 붙으니까?)

103027 #1 ᄋᆞ. 한번에 붙으니까 계속 가야하는데 조찍은 얼마 엇어도 말이여 밥해. 한 삼분의 일 보릿낭 삼분의 일 안헤도 조찍은 말이지 주로 땔감으로 사용ᄒᆞ지.

103028 @ 조 농사에 대헤서 기억나는 거 엇인가마씨? 보리농사처럼.(조 농사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없나요? 보리농사처럼.)

103028 #1 조 농사는 뭐.(조 농사는 뭐.)

103028 @ 같이 하션마씨? 뭐 보통 일월 달부터 사월 달부터 보리ᄒᆞ고 그다음에 조.(같이 하셨어요? 뭐 보통 일월 달부터 사월 달부터 보리하고 그다음에 조.)

---

70)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 낸 떡'을 의미한다. 팥고물은 무치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하며, 술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103028 #1 조 허고 시월 달 정도 뒈면 조 수확허고.(조 하고 시월 달 정도 되면 조 수확하고.)
103028 @ 조 농사 하면서 힘든 건 엇언마씨? 보리농사가 힘들어마씨? 조 농사가 힘들어마씨?(조 농사 하면서 힘든 건 없었어요? 보리농사가 힘들어요? 조 농사가 힘들어요?)
103028 #1 아, 대게 비슷허주게. 조 농사 홀 때 뭐 밧이 말이여 딴 거 허고 싶으면 감자도 싱것다가 시월 달에 말이여 캐 가지고 고구마 공장에 가서 팔고.(아, 대게 비슷하지. 조 농사 할 때 뭐 밭에 말이야 다른 거 하고 싶으면 감자도 심었다가 시월 달에 말이야 캐 가지고 고구마 공장에 가서 팔고.)
103016 @ 조 농사도 헨마씨? 조 농사도?(조 농사도 했어요? 조 농사도?)
103016 #2 조도 허여난.(조도 했었어.)
103016 @ 조도 헤난마씨?(조도 했었어요?)
103016 #2 어.(어.)
103016 @ 그 아까 밧은 뭐 필요 준비헐 거 엇잖아예?(그 아까 밭은 뭐 필요 준비할 거 없잖아요?)
103016 #2 응. 밧은 그거게 그추룩.(응. 밭은 그거 그처럼.)
103016 @ 예. 근데 조 헐 때도 뭐 필요헌 거 엇어마씨?(예. 근데 조 할 때도 뭐 필요한 거 없어요?)
103016 #2 조 헐 때는 더 힘든 게 이 쉐 뭣이 엇는 사람은.(조 할 때는 더 힘든 게 이 소 뭣이 없는 사람은.)
103016 @ 예.(예.)
103016 #2 쉐나 물이나 엇는 사람은.(소나 말이나 없는 사람은.)
103016 @ 예.(예.)
103016 #2 사름으로만 불리젠 허믄 거 밧 얼만큼이나 불리면 불려? 막 지깍ᄒᆞ게[71] 불령.(사람으로만 밟으려고 하면 거 밭 얼마만큼이나 밟으면 밟혀? 막 '지깍ᄒᆞ게' 밟아서.)
103016 @ 아.(아.)
103016 #2 게난 그것이 너무 힘들엇어. 게난 우리 큰이모네가 물을 많이 키완. 우리 큰이모부가 도청에 다닐 때.(그러니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우리 큰이모네가 말을 많이 키웠어. 우리 큰이모부가 도청에 다닐 때.)
103016 @ 예.(예.)
103016 #2 물 탕 출근헷어.(말 타서 출근했어.)
103016 @ 아.(아.)
103016 #2 우리 이모부가 우리 큰이모부가.(우리 이모부가 우리 큰이모부가.)
103016 @ 예.(예.)

71) '지깍ᄒᆞ다'는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들어박혀 빽빽하다, 깊게 박혀 있어서 꼼짝달싹 않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디깍ᄒᆞ다, 직깍ᄒᆞ다'라고도 한다.

103016 #2 그렇게 헷는데 거기 물 빌어당.(그렇게 했는데 거기 말 빌려다가.)
103016 @ 예.(예.)
103016 #2 빌어당 우리 밧 불련. 그거 불리는 거주게. 밧 불리는 거 헤낫어.(빌려다가 우리 밭 밟았어. 그거 밟는 거지. 밭 밟는 거 했었어.)
103016 @ 아. 그럼 조는 따로 뭐 준비헐 거는 엇어마씨?(아. 그럼 조는 따로 뭐 준비할 거는 없어요?)
103016 #2 어. 뜨로 거 헤난 거는 이녁 가족끼리들 그거 허는 거난.(어. 따로 거 했었던 거는 자기 가족끼리들 그거 하는 거니까.)
103017 @ 음. 조밧에도 거름 잇잖아예?(음. 조밭에도 거름 있잖아요?)
103017 #2 거름게 그추룩게 그냥.(거름 그처럼 그냥.)
103017 @ 뭐 써마씨? 거름?(뭐 써요? 거름?)
103017 #2 보리허는 식으로 그자 그추룩.(보리하는 식으로 그저 그처럼.)
103017 @ 그추룩.(그처럼.)
103017 #2 근디 불리는게 질 힘이 들엇어요. 조 불리는 것이.(근데 밟는 게 제일 힘들 들었어요. 조 밟는 것이.)
103017 @ 아, 조 불리는 것이?(아, 조 밟는 것이?)
103017 #2 응.(응.)
103018 @ 그면 조는 그럼 언제 갈주마씨?(그러면 조는 그럼 언제 갈지요?)
103018 #2 에이고 돈은 너무 어렵게 살아 부난 돈들은.(에이고 돈은 너무 어렵게 살아 버리니까 돈들은.)
103018 @ 아니 언제 갈아마씨? 조는?(아니 언제 갈아요? 조는?)
103018 #2 조? 조?(조? 조?)
103018 @ 예.(예.)
103018 #2 조가 언제 갈앗인고게? 건 날짜를 잘 알아지크라? 어디?(조가 언제 갈았었나? 그건 날짜를 잘 알아지겠어? 어디?)
103018 @ 밧은 아까 시월에 간다고?(밭은 아까 시월에 간다고?)
103018 #2 보리, 보리 건.(보리, 보리 그건.)
103018 @ 아, 보리 예. 조는 잘 기억 안 나고마씨?(아, 보리 예. 조는 잘 기억 안 나고요?)
103018 #2 어.(어.)
103018 @ 조는 아까 말로 보통 그 물이나 쉐로 갈아마씨?(조는 아까 말로 보통 그 말이나 소로 갈아요?)
103018 #2 응. 쉐게 쉐.(응. 소 소.)
103018 @ 아, 쉐.(아, 소.)
103018 #2 죽으나 사나 조곡 보리곡 쉐로 밧 갈아 잠데허영 잠데.(죽으나 사나 조나 보리는 소로 밭 갈아 쟁기해서 쟁기.)
103018 @ 아, 잠데로?(아, 쟁기로?)

103018 #2 어. 잠데 허영(어. 쟁기 해서.)
103019 @ 그럼 조씨는 좁씨는 어떵 뿌려마씨?(그럼 조씨는 좁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19 #2 좁씨도 경 헹 뿌려. 보리 뿌리는 식으로 좁씨도 뿌려.(좁씨도 그렇게 해서 뿌려. 보리 뿌리는 식으로 좁씨도 뿌려.)
103019 @ 그냥 막?(그냥 막?)
103019 #2 좁씨를 잘 뿌려사. 너미 하영 허믄 막 그거 빼젠 허믄 막 힘들어.(좁씨를 잘 뿌려야. 너무 많이 하면 막 그거 빼려고 하면 막 힘들어.)
103019 @ 아, 그걸 잘 뿌리는 방법이 잇수광?(아, 그걸 잘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103019 #2 장남. 그거 허는 사람 빌어오주게게. 호끔 잘 뿌려 줍서게 허영.('장남' 그거 하는 사람 빌려오지. 조금 잘 뿌려 주십시오 해서.)
103019 @ 아, 것도 빌어와마씨?(아, 것도 빌려와요?)
103019 #2 어, 어. 호끔 빌어당 허고. 게믄 그 집이 헐 때는 또 이 사람이 강 또 일헤 주고. 수눌음.(어, 어. 조금 빌려다가 하고. 그러면 그 집에 할 때는 또 이 사람이 가서 또 일해 주고. 품앗이.)
103019 @ 아, 수눌음.(아, 품앗이.)
103019 #2 어. 수눌음. 경 헹 헤난.(어. 품앗이. 그렇게 해서 했었어.)
103019 @ 할머니도 경 헤낫수광?(할머니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103019 #2 난 어리난 그런 건 안 허고게.(난 어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103021 @ 그럼 검질은 몇 번 메마씨? 조는?(그럼 김은 몇 번 매요? 조는?)
103021 #2 조밧이 검질은 세 번 네 번 메여. 세 번 네 번. 이제추룩 저 약 엇일 때난 몬딱 이 사름으로만 헹 살앗주게게.(조밭에 김은 세 번 네 번 매. 세 번 네 번. 이제처럼 저 약 없을 때니까 전부 이 사람으로만 해서 살았지.)
103021 @ 예. 경 허주마씨.(예. 그렇게 하지요.)
103021 #2 옛사름들 너무 불쌍허게 살당 돌아갓어.(옛사람들 너무 불쌍하게 살다가 돌아갔어.)
103021 @ 두 번 검질 허는 걸 두불검질이라고 허잖아예?(두 번 김 하는 걸 두벌김이라고 하잖아요?)
103021 #2 어.(어.)
103021 @ 그럼 세 번은?(그럼 세 번은?)
103021 #2 세벌검질. 세불검질.(세 벌 김. 세 벌 김.)
103021 @ 아, 세불검질.(아, 세 벌 김.)
103021 #2 어.(어.)
103021 @ 네 번은 뭐라고 헤마씨?(네 번은 뭐라고 해요?)
103021 #2 네 번은 네불검질이옌 허긴 허는디 네 불은 별로 잘 안 허여.(네 번은 '네불검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네 벌은 별로 잘 안 해.)
103021 @ 아, 세 번까지만?(아, 세 번까지만?)
103021 #2 어. 조가 이만히 커 불믄.(어. 조가 이만큰 커 버리면.)

103022 @ 그믄 조는 검질은 뭐, 뭐 나요? (그러면 조는 김은 뭐, 뭐 나요?)
103022 #2 아이고 조컴질 뭐, 뭐 낫인고? 원 하간 거 하영 나노난 뭣 알아지쿠과게? (아이고 '조컴질' 뭐, 뭐 났지? 원 여러 거 많이 나니까 뭣 알아지겠어?)
103022 @ 아, 조컴질 하영 나 부난?(아, '조컴질' 많이 나 버리니까?)
103022 #2 어. 뭐 쇄비눔 ᄀᆞ튼 것도 나고. 옛날은 개자리옌 헌 검질이 핫엇어. 개자리.(어. 뭐 쇠비름 같은 것도 나고. 옛날은 개자리라고 한 김이 많았어. 개자리.)
103022 @ 개자리?(개자리?)
103022 #2 개자리.(개자리.)
103022 @ 아.(아.)
103022 #2 그거 나물도 헤 먹을 수 잇어. 개자리 나물.(그거 나물도 해 먹을 수 있어. 개자리 나물.)
103022 @ 쇄비, 쇄비눔이랑 개자리랑은 다른 거마씨?(쇠비, 쇠비름이랑 개자리랑은 다른 거예요?)
103022 #2 다른 거 아주 다른 거. 거름이 다 틀려.(다른 거 아주 다른 거. 거름이 다 달라.)
103022 @ 어떵 생견마씨? 쇄비눔.(어떻게 생겼어요? 쇠비름?)
103022 #2 쇄비눔은 이제도 잇어.(쇠비름은 이제도 있어.)
103022 @ 음.(음.)
103022 #2 그거는 뽑으믄 똑 똑 돌에 두드려 가믄 뻘겋게 뿌리가 싸져.(그거는 뽑으면 똑 똑 돌에 두드려 가면 뻘겋게 뿌리가 싸져.)
103022 @ 아, 뿌리가 싸져?(아, 뿌리가 싸져?)
103022 #2 어. 그거는 이제도 잇어 건.(어. 그거는 이제도 있어 건.)
103022 @ 음.(음.)
103022 #2 건 약 헤도 잘 아니 죽고 메역 놔둬도 아니 죽어.(건 약 해도 잘 안 죽고 미역 놔둬도 안 죽어.)
103022 @ 기지예?(그렇지요?)
103022 #2 어.(어.)
103023 @ 그럼 조는 수확은 어떻게 옛날에 헨마씨? 수확허는 거는?(그럼 조는 수확은 어떻게 옛날에 했어요? 수확하는 거는?)
103023 #2 조?(조?)
103023 @ 예.(예.)
103023 #2 조 다 비엉.(조 다 베어서.)
103023 @ 예.(예.)
103023 #2 비어그넹 그 저 뭐꼬? 튿아.(베어서 그 저 뭐꼬? 뜯어.)
103023 @ 예.(예.)
103023 #2 호미 영 놔그넹 그거 다 튿아.(낫 이렇게 놔서 그거 다 뜯어.)
103023 @ 예.(예.)

103023 #2 톹앙 그 뭐꼬 저 어디 와그넹 막 둥그려 거.(뜯어서 그 뭐고 저 어디 와서 막 굴려 거.)
103023 @ 아, 물방엣간 강?(아, 연자맷간 가서?)
103023 #2 물방엣간 와 막 둥그려 거.(연자맷간 와 막 굴려 거.)
103023 @ 둥그려?(굴려?)
103023 #2 어. 그거 조. 막 가멩이에 담아 왕.(어. 그거 조. 막 가마니에 담아 와서.)
103024 @ 조도 도께질 헤마씨?(조도 도리깨질 해요?)
103024 #2 도께질 잘 안 허여. 조.(도리깨질 잘 안 해. 조.)
103024 @ 아, 조는 뭐 허는 거?(아, 조는 뭐 하는 거?)
103024 #2 보리만 도께질 허주.(보리만 도리깨질 하지.)
103025 @ 아. 그럼 이젠 경 헹 물방엣간 강 쌀 나오는 거지예?(아. 그럼 이젠 그렇게 해서 연자맷간 가서 쌀 나오는 거지요?)
103025 #2 응. 조 나와. 조 나와. 그거 다 둥그려지면.(응. 조 나와. 조 나와. 그거 다 굴리면.)
103026 @ 그럼 좁쌀 나오면 그걸로는 뭐헤마씨? 좁쌀로는?(그럼 좁쌀 나오면 그걸로는 뭐해요? 좁쌀로는?)
103026 #2 밥헹 먹엇주게게. 감저 썰어 넣곡게. 방앗간에 강 이제 좁쏠을 만들어 오는 거.(밥해서 먹었지. 고구마 썰어 넣고. 방앗간에 가서 이제 좁쌀을 만들어 오는 거.)
103026 @ 예.(예.)
103026 #2 껍데기 깡.(껍데기 까서.)
103026 @ 밥 말고 또 먹는 건 엇수광? 좁쌀로는?(밥 말고 또 먹는 건 없습니까? 좁쌀로는?)
103026 #2 밥 말고 무신거 감저 썰어 놓곡 밥헹 먹는 거. 아이고.(밥 말고 무엇 고구마 썰어 놓고 밥해서 먹는 거. 아이고.)
103026 @ 떡은 안 헨마씨? 옛날에는?(떡은 안 했어요? 옛날에는?)
103026 #2 무사 큰일 때는 떡들 헷주게게.(왜 큰일 때는 떡들 했지.)
103026 @ 떡들 헷지예?(떡들 했지요?)
103026 #2 침떡 허주게. 침떡 것 굴앙.(시루떡 하지. 시루떡 것 '굴앙'.)
103026 @ 예.(예.)
103026 #2 감제 썰어 넣곡 침떡.(고구마 썰어 넣고 시루떡.)
103026 @ 예.(예.)
103026 #2 침떡 찌엉. 막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나 대상을 허거나 소상을 허거나 삼년상 헷거든.(시루떡 찌어서.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나 대상을 하거나 소상을 하거나 삼년상 했거든.)
103026 @ 예.(예.)
103026 #2 경 헹 허믄 막 방앗간에서 우리 친정집 우에도 방아가 싯주게. 게믄 그듸 왕 체를 치멍들 떡들 치엉. 떡 쳥 동네 다 주고. 침떡 치엉.(그렇게 해서 하면 막 방앗

간에서 우리 친정집 위에도 방아가 있지. 그러면 거기 와서 체를 치면서 떡들 쪄서. 떡 쪄서 동네 다 주고. 시루떡 쪄서.)
103026 @ 그 술 만드는 거 알아마씨? 막걸리 만드는 거?(그 술 만드는 거 알아요? 막걸리 만드는 거?)
103026 #2 응.(응.)
103026 @ 어떵 만들어마씨?(어떻게 만들어요?)
103026 #2 좁쌀 골아당.(좁쌀 갈아다가.)
103026 @ 예.(예.)
103026 #2 거 골아당.(거 갈아다가.)
103026 @ 예.(예.)
103026 #2 찌어게 막 찌어.(찌어 아주 찌어.)
103026 @ 예.(예.)
103026 #2 반죽 허영. 반죽 허여그넹 영 영 영 영 고망 똟어. 고망 똘랑 물에 솖아. 게믄 그거 이제 건져 내어.(반죽 해서. 반죽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어. 구멍 뚫어서 물에 삶아. 그러면 그거 이제 건져 내어.)
103026 @ 예.(예.)
103026 #2 건져 내면 옛날 고무장갑 셧서게. 막 어떵 허믄 식어. 막 찌어 물락허게 찌어. 경 헹 누룩 놔그넹 술 만드는 거.(건져 내면 옛날 고무장갑 있어. 막 어떻게 하면 식어. 아주 찌어 물렁하게 찌어. 그렇게 해서 누룩 놔서 술 만드는 거.)
103027 @ 그믄 조짚 잇잖아예?(그러면 조짚 있잖아요?)
103027 #2 응.(응.)
103027 @ 조 헹 남는 거. 그걸로는 그것도 그냥 도새기 줘마씨?(조 해서 남는 거. 그걸로는 그것도 그냥 돼지 줘요?)
103027 #2 조찍은 조찍은 쉐 멕이고.(조짚은 조짚은 소 먹이고.)
103027 @ 쉐 멕이고.(소 먹이고.)
103027 #2 어. 체는 도새기게 그자.(어. 겉겨는 돼지 그저.)
103027 @ 아. 체는 그냥 도새기.(아. 겉겨는 그냥 돼지.)
103027 #2 응. 응. 조찍 조찍 조찍이라고 허주게. 조찍은 쉐 먹이는 거. 경 허여.(응. 응. 조짚 조짚 조짚이라고 하지. 조짚은 소 먹이는 거. 그렇게 해.)

콩농사

103029 @ 콩 농사도 허셧다고 헷잖아예? 콩 농사.(콩 농사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콩 농사.)
103029 #1 아, 콩 농사도게.(아, 콩 농사도.)
103029 @ 콩 농사허려면 뭐 필요헤마씨?(콩 농사하려면 뭐 필요해요?)
103029 #1 콩 농사도 말이지 우리 살 때는 콩은 잘 안 헷어. 이제 와 가지고 대단히

말이지 농장 만 평 이만 평 가진 사람들이 거 기계로 갈아 가지고 말이지 헤 가지고 콩 값이 좋으난 뭐 그런 큰 농사짓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콩 농사도 말이지 우리 살 때는 콩은 잘 안 했어. 이제 와 가지고 대단히 말이지 농장 만 평 이만 평 가진 사람들이 거 기계로 갈아 가지고 말이지 해 가지고 콩 값이 좋으니까 뭐 그런 큰 농사짓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

103029 @ 아, 콩은마씨?(아, 콩은요?)

103029 #1 콩 ᄀᆞ튼 거는 값이 좋으난 그거 많이 헷주게.(콩 같은 거는 값이 좋으니까 그거 많이 했지.)

103030 @ 그럼 콩 농사 할 때는 그냥 콩만 잇으면? 콩은 언제 어떵 갈아마씨?(그럼 콩 농사 할 때는 그냥 콩만 있으면? 콩은 언제 어떻게 갈아요?)

103030 #1 콩도 뭐 한 시월이나 십일월 달에 그거 장만허려면은.(콩도 뭐 한 시 월이나 십일월 달에 그거 장만하려면.)

103030 @ 예.(예.)

103030 #1 뭐 봄에 갈아 가지고.(뭐 봄에 갈아 가지고.)

103030 @ 아, 그거는 보리 헐 때랑 콩은 겹쳐마씨?(아, 그거는 보리 할 때랑 콩은 겹쳐요?)

103030 #1 뭐 일단은 시기는 콩도 그때 헤 가지고.(뭐 일단은 시기는 콩도 그때 해 가지고.)

103030 @ 예.(예.)

103030 #1 콩이 다 익으면 시월 정도 뒐 거라.(콩이 다 익으면 시월 정도 될 거야.)

103030 @ 그럼 콩 농사는 언제 시작헤마씨?(그럼 콩 농사는 언제 시작해요?)

103030 #1 그게 콩 농사도 삼사월에 싱글 거라.(그게 콩 농사도 삼사월에 심을 거야.)

103030 @ 아, 그면 조 농사랑 비슷허겟다예?(아, 그러면 조 농사랑 비슷하겠군요?)

103030 #1 ᄋᆞ. 조 농사보다는 ᄒᆞ꼼 일찍 조 헐 때도 그것도 조보다 쪼금 일찍 싱거 가지고.(어. 조 농사보다는 조금 일찍 조 할 때도 그것도 조보다 조금 일찍 심어 가지고.)

103030 @ 예.(예.)

103030 #1 콩을 허는데 그 콩 허면은.(콩을 하는데 그 콩 하면.)

103030 @ 예.(예.)

103030 #1 익으면은 인제 콩을 이제 가그넹 전부 다 꺾어.(익으면 인제 콩을 이제 가서 전부 다 꺾어.)

103031 @ 콩은 그럼 거름은 안 써마씨?(콩은 그럼 거름은 안 써요?)

103031 #1 콩밧 거름은 콩깍지라고 헤 가지고.(콩밭 거름은 콩깍지라고 해 가지고.)

103031 @ 콩깍지.(콩깍지.)

103031 #1 ᄋᆞ. 콩깍지가 탈곡 헤 놓으민 콩깍지는 거기는 가져오기가 힘드난 밧에놩 거름으로 사용허주게.(어. 콩깍지가 탈곡 해 놓으면 콩깍지는 거기는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밭에 놔서 거름으로 사용하지.)

103031 @ 그니까 콩찍 ᄀᆞ튼 거는 콩깍지라고 헤마씨? 그걸 거름으로 사용허고?(그러니까 콩짚 같은 거는 콩깍지라고 해요? 그걸 거름으로 사용하고?)
103031 #1 ᄋᆞ.(어.)
103032 @ 그럼 콩씨는 어떵 뿌려마씨?(그럼 콩씨는 어떻게 뿌려요?)
103032 #1 콩씨도 내내 그런 방법으로 뿌리는 거주. 망텡이에 놔그넹 헤 가지고 섬비로 끗어 가지고.(콩씨도 내내 그런 방법으로 뿌리는 거지. 망태기에 놔서 해 가지고 끙게로 끌어 가지고.)
103032 @ 그럼 보리씨나 좁씨나 콩씨 뿌릴 때 이렇게 다 촘촘하게 뿌리는 게 조금씩 다르지 않아마씨?(그럼 보리씨나 좁씨나 콩씨 뿌릴 때 이렇게 다 촘촘하게 뿌리는 게 조금씩 다르지 않아요?)
103032 #1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이 감각이 아주 좋아 가지고 근데 거 전문이야. 전문성이라고 헐 정도로 말이야 이렇게.(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이 감각이 아주 좋아 가지고 근데 거 전문이야. 전문성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야 이렇게.)
103032 @ 예.(예.)
103032 #1 한 줌 잡아 가지고 싹 싹 삐는데 한꺼번에 다 삐는 게 아니라.(한 줌 잡아 가지고 싹 싹 뿌리는데 한거번에 다 뿌리는 게 아니야.)
103032 @ 조금씩?(조금씩?)
103032 #1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허여그넹 이 손에 걸 전부 다 뿌려 가.(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이 손에 걸 전부 다 뿌려 가.)
103032 @ 근데 보리나 조나 콩은 다르게 뿌리지 않아마씨?(근데 보리나 조나 콩은 다르게 뿌리지 않아요?)
103032 #1 건줌 거 방식은 거는 그런 방식이니까.(거의 거 방식은 거는 그런 방식이니까.)
103032 @ 예.(예.)
103032 #1 뿌리는 사람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잇기 때문에 크게 말이여 한 군데만 자락자락 뿌려 부는 것도 아니고 ᄒᆞ니까 말이지.(뿌리는 사람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말이야 한 군데만 주렁주렁 뿌려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말이지.)
103033 @ 그럼 콩밧은 검질 몇 번 메마씨?(그럼 콩밭은 김 몇 번 매요?)
103033 #1 콩밧도 초벌검질인가 두벌검질 정도 멜 거야. 몰라도.(콩밭도 초벌인가 두벌 정도 맬 거야. 몰라도.)
103033 @ 두벌검질 정도.(두벌 정도.)
103034 @ 그럼 콩밧에도 여러 가지 검질은 뭐 잇어마씨?(그럼 콩밭에도 여러 가지 김은 뭐 있어요?)
103034 #1 뭐 그것도 여러 가지 풀이라고 허는 거는 사시사철 다 틀려. 여름에 나는 풀 봄에 나는 풀 가을에 나는 풀 겨울에 나는 풀 다 사시사철 틀리거든.(뭐 그것도 여러 가지 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시사철 다 달라. 여름에 나는 풀 봄에 나는 풀 가을에 나는

풀 겨울에 나는 풀 다 사시사철 다르거든.)
103034 @ 예.(예.)
103034 #1 게난 뭐 풀이라고 허는 건 안 날 수가 엇어.(그러니까 뭐 풀이라고 하는 거는 안 날 수가 없어.)
103034 @ 종류가 보리는 뭐 깜부기.(종류가 보리는 뭐 깜부기.)
103034 #1 그런 것들이 주로 보리는 대오리 ᄀᆞ튼 거 나오고 조에는 말이여 대오리, 제완지 ᄀᆞ튼 거 조에는 많이 나오고 ᄀᆞ랏이라는 게 말이지.(그런 것들이 주로 보리는 귀리 같은 거 나오고 조에는 말이야 귀리, 바랭이 같은 거 조에는 많이 나오고 강아지풀이라는 게 말이지.)
103034 @ 예.(예.)
103034 #1 그런 것들이 조ᄒᆞ고 꼭 닮아 가지고.(그런 것들이 조하고 꼭 같아 가지고.)
103034 @ 예.(예.)
103034 #1 ᄀᆞ랏이 조허고 비슷헤놓으니까 이렇게 딱 나와야 그걸 알아. 게난 그다음에 그걸 뽑주게.(강아지풀이 조하고 비슷해놓으니까 이렇게 딱 나와야 그걸 알아. 그러니 그다음에 그걸 뽑지.)
103034 @ 그럼 콩밧에는 검질들은?(그럼 콩밭에는 김들은?)
103034 #1 콩 아니면 다 아니까.(콩 아니면 다 아니까.)
103034 @ 아, 다 비슷하게 나와마씨? 콩밧에도?(아, 다 비슷하게 나와요? 콩밭에도?)
103035 @ 그럼 콩 수확은 어떵 헤마씨?(그럼 콩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35 #1 콩 수확은 그것도 멘택기로 ᄒᆞ여.(콩 수확은 그것도 탈곡기로 해.)
103035 @ 맨 처음에 콩 꺾잖아예.(맨 처음에 콩 꺾잖아요.)
103035 #1 ᄋᆞ. 콩 꺼꺼 가지고 그거를 멘택기에 집어넣으면은.(어. 콩 꺾어 가지고 그거를 탈곡기에 집어넣으면.)
103035 @ 예.(예.)
103035 #1 멘택기에서 그걸 분리헤 가지고 영.(탈곡기에서 그걸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103035 @ 예.(예.)
103035 #1 콩깍지는 콩깍지대로 나오고 콩은 콩대로만 따로 나와.(콩깍지는 콩깍지대로 나오고 콩은 콩대로만 따로 나와.)
103035 @ 아, 콩은 콩대로 그럼 콩 나오면은 뭐 헤 먹언마씨?(아, 콩은 콩대로 그럼 콩 나오면 뭐 해 먹었어요?)
103036 #1 콩 뭐 뒌장도 뭐 삶아서 메주로 헤서 뒌장도 헹 먹고 주로 팔지 콩은.(콩 뭐 된장도 뭐 삶아서 메주로 해서 된장도 해서 먹고 주로 팔지 콩은.)
103036 @ 아, 콩이 좀 돈이 돼마씨?(아, 콩이 좀 돈이 돼요?)
103036 #1 돈이 뒈지 콩은.(돈이 되지 콩은.)
103036 @ 콩은 어떵 팔아마씨? 한꺼번에 공탁헤 가지고?(콩은 어떻게 팔아요? 한꺼번에 공탁해 가지고?)

103036 #1 아니. 저기 뭐 흔 말에 얼마 흔 말이렌 ᄒᆞ는 거는 요만한 뒈로 네 개가 흔 말이거든.(아니. 저기 뭐 한 말에 얼마 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한 되로 네 개가 한 말이거든.)

103036 @ 어느 정도마씨?(어느 정도요?)

103036 #1 뒈 이만큼 가로 세로 십센치 이렇게 사각 뒈로 하나 놓으민 한 뒈가 네 개를 헤야 흔 말이라.(되 이만큼 가로 세로 십센티 이렇게 사각 되로 하나 놓으면 한 되가 네 개를 해야 한 말이야.)

103036 @ 아, 네 개를 헤야 흔 말?(아, 네 개를 해야 한 말?)

103036 #1 ᄋᆞ. 경 헹 흔 말에 얼마 또 예를 들어서 꽤 ᄀᆞ튼 것도 흔 말에 지금 십만 원 이렇게 ᄒᆞ듯이 콩도 보통 칠팔 만 원 한 오륙 만 원 간다 허는 것 ᄀᆞ트드라고.(어. 그렇게 해서 한 말에 얼마 또 예를 들어서 깨 같은 것도 한 말에 지금 십만 원 이렇게 하듯이 콩도 보통 칠팔 만 원 한 오륙 만 원 간다 하는 것 같더라.)

103036 @ 그럼 예전에는 콩 농사는 많이 안 허고 요즘에 하는 거마씨?(그럼 예전에는 콩 농사는 많이 안 하고 요즘에 하는 거예요?)

103036 #1 ᄋᆞ. 요즘에는 콩이 말이지 아마 잘 팔려.(어. 요즘에는 콩이 말이지 아마 잘 팔려.)

103036 @ 어르신 어렷을 때는 콩 농사는 많이 안 헨마씨? 옹포리에.(어르신 어렸을 때는 콩 농사는 많이 안 했어요? 옹포리에.)

103036 #1 ᄋᆞ. 잘 안 헷어. 옛날에는 그 콩 헤 가지고 갈아 가지고 두부도 헤 먹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고 말이여 콩 갈아그넹 콩쿡도 헹 먹고 콩죽도 헹 먹고 말이지 뭐 콩이 다양헤. 그 밧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헤서 영양가도 많고 췌고야.(어. 잘 안 했어. 옛날에는 그 콩 해 가지고 갈아 가지고 두부도 해 먹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고 말이야 콩 갈아서 콩국도 해서 먹고 콩죽도 해서 먹고 말이지 뭐 콩이 다양해. 그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해서 영양가도 많고 최고야.)

103036 @ 그럼 어르신은 어렷을 때 콩 농사 안 헨마씨?(그럼 어르신은 어렸을 때 콩 농사 안 했어요?)

103036 #1 ᄋᆞ. 보기만 헷지 우리는 콩 농사는 안 헷어. 게 밧도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개 잇어야 허는 거고 이제 그게 절기마다 다 허는 게 또 어떤 때는 ᄀᆞ튼 것도 잇곡 틀린 것도 잇곡 헤그넹 밧이 여러 개 잇으면 헹 먹기도 ᄒᆞ고 팔기도 ᄒᆞ고.(어. 보기만 했지 우리는 콩 농사는 안 했어. 게 밭도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개 있어야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절기마다 다 하는 게 또 어떤 때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해서 밭이 여러 개 있으면 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103029 @ 그럼 혹시 할머니 콩 농사도 헤보션마씨?(그럼 혹시 할머니 콩 농사도 해보셨어요?)

103029 #2 콩은 엿날에 잘 안 허연게.(콩은 옛날에 잘 안 했어.)

103029 @ 잘 안 헨마씨?(잘 안 했어요?)

103029 #2 응. 그자 조, 보리 하영 헷주게.(응. 그저 조, 보리 많이 했지.)

103029 @ 조, 보리.(조, 보리.)
103029 #2 응.(응.)

밭벼농사

103039 @ 그럼 어르신 밧벼 농사는 알아마씨? 밧벼 농사헤 보션마씨?(그럼 어르신 밭벼 농사는 알아요? 밭벼 농사해 보셨어요?)
103039 #1 밧벼? 산듸[72]라고 헤 가지고 거 산듸는.(밭벼? '산디'라고 해 가지고 거 '산듸'는.)
103039 @ 예.(예.)
103039 #1 보리 잇인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보리 있는 곳에서 자라는 게 아니야.)
103039 @ 예.(예.)
103039 #1 밧에서 나는 벼야.(밭에서 나는 벼야.)
103039 @ 예.(예.)
103039 #1 벼가 그 밧에서 나는 벼라 헤서 산듸라고 헤 산듸.(벼가 그 밭에서 나는 벼라 해서 '산듸'라고 해 '산듸'.)
103039 @ 예 산듸.(예. '산듸'.)
103039 #1 산듸는 그런 밧에서 말이지 볍씨 닮은 걸로 뿌려 가지고.(밭벼는 그런 밭에서 말이지 볍씨 닮은 걸로 뿌려 가지고.)
103040 @ 그럼 산듸 농사하려면 뭐 준비해야 돼마씨?(그럼 밭벼 농사하려면 뭐 준비해야 돼요?)
103040 #1 뭐 것도 뭐 무슨 말이지 뭐 보리농사나 조 농사 ᄀᆞ치 산듸 저 갈 시기가 뒈면은 밧 갈 시기가 뒈면 갈아 가지고 산듸 뿌려 가지고 뭐 섬비로 끗어 가지고 말이지.(뭐 것도 뭐 무슨 말이지 뭐 보리농사나 조 농사 같이 밭벼 저 갈 시기가 되면 밭 갈 시기가 되면 갈아 가지고 밭벼 뿌려 가지고 뭐 끙게로 끌어 가지고 말이지.)
103040 @ 그럼 것도 보리농사랑 거의 비슷헤마씨?(그럼 것도 보리농사랑 거의 비슷해요?)
103040 #1 ᄋᆞ. 비슷헤.(어. 비슷해.)
103041 @ 그럼 밧벼에서 밧 거름 ᄀᆞ튼 것도 통지에서 가져와신가마씨?(그럼 밭벼에서 밭 거름 같은 것도 돼지우리에서 가져왔어요?)
103041 #1 아니. 그런 거는 별로 안 ᄒᆞ고.(아니. 그런 거는 별로 안 하고.)
103041 @ 예.(예.)
103041 #1 찍은 산듸찍이라던가 벼찍은 아주 귀헤.(짚은 밭벼짚이라든가 볏짚은 아주 귀해.)
103041 @ 아, 귀헤마씨?(아, 귀해요?)
103041 #1 ᄋᆞ.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인제 잘 나지도 아니ᄒᆞ고 그때는 그게 곤밥 먹

72) '산디'는 밭벼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산도, 산뒤'라고도 한다.

는 게 그 저 벼 아니야 벼.(어.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인제 잘 나지도 않고 그때는 그게 흰밥 먹는 게 그 저 벼 아니야 벼.)
103041 @ 힘들지예.(힘들지요.)
103041 #1 근디 벼인데.(근데 벼인데.)
103041 @ 예.(예.)
103041 #1 산듸허고 벼허고 조금 차이가 잇어.(밭벼하고 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103041 @ 어떤 차이 잇어마씨?(어떤 차이 있어요?)
103041 #1 아니게. 밥맛이 틀리거나 이런 정도지 ᄀᆞ튼 쏠이라도 밧에서 나는 산듸허고 그거허고 조금 틀려.(아니. 밥맛이 다르거나 이런 정도지 같은 쌀이라도 밭에서 나는 밭벼하고 그거하고 조금 달라.)
103041 @ 그럼 거름은 따로 뭐 산듸헐 때는 따로 준비 안 헨마씨?(그럼 거름은 따로 뭐 밭벼할 때는 따로 준비 안 했어요?)
103041 #1 거 안 홀 거라.(거 안 할 거야.)
103042 @ 그럼 산듸 농사는 언제 시작헤마씨?(그럼 밭벼 농사는 언제 시작해요?)
103042 #1 산듸도 이 벼 ᄒᆞ는 거 허고 건줌 같을 거라.(밭벼도 이 벼 하는 거 하고 거의 같을 거야.)
103042 @ 벼?(벼?)
103042 #1 벼도 그 벼 그 겨울에 모작 말이여 멘들어 가지고.(벼도 그 벼 그 겨울에 모작 말이야 만들어 가지고.)
103042 @ 모작하는 거랑 비슷헤마씨?(모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103042 #1 ᄋᆞ.(어.)
103042 @ 그럼 한 시월에 시작헤마씨?(그럼 한 시월에 시작해요?)
103042 #1 아니. 시월이 아니고 산듸도 그 벼 ᄒᆞ는 시기에 ᄀᆞ치 헐 거야. 한 삼 사월에.(아니. 시월이 아니고 밭벼도 그 벼 하는 시기에 같이 할 거야. 한 삼사월에.)
103042 @ 삼사월에?(삼사월에?)
103042 #1 한 이월 달에 벼 묘종 놧다그넹 그 저 논에 심을 때 산듸도 밧으로 가서 심고 그렇게.(한 이월 달에 벼 모종 놨다가 그 저 논에 심을 때 밭벼도 밭으로 가서 심고 그렇게.)
103043 @ 그럼 그거는 김메기는 몇 번 헤마씨?(그럼 그거는 김매기는 몇 번 해요?)
103043 #1 산듸도 김은 메지마는 그렇게 그 논에서 말이여 그 김메기하는 것이 피라고 하거든.(밭벼도 김은 매지만 그렇게 그 논에서 말이야 그 김매기하는 것이 피라고 하거든.)
103041 @ 예.(예.)
103043 #1 그 산 그 피가 꼭 그 뭐냐 허면 나록 닮아. 나록 꼭 같아 건줌 그 피가 그것도 사람 속이는 거라.(그 산 그 피가 꼭 그 뭐냐 하면 벼 같아. 벼 꼭 같아 거의 그 피가 그것도 사람 속이는 거야.)
103044 @ 비슷하겟다예?(비슷하겠군요?)

103044 #1 그러니까 그것도 고고리가 나오면 아 이거 피로구나 농민들이 뽑는 거야.(그러니까 그것도 고고리가 나오면 아 이거 피로구나 농민들이 뽑는 거야.)

103044 @ 그럼 초벌 때는 그거 잘 모르겟다예?(그럼 초벌 때는 그거 잘 모르겠군요?)

103044 #1 아 모르지 꼭 같애. 그 자랄 때는 건줌 말이지 모나 피나 말이야 꼭 ᄀᆞ치 인제 구분을 허기 힘들고 고고리가 나와야 이것이 피인지 나록인지 알지.(아 모르지 꼭 같아. 그 자랄 때는 거의 말이지 모나 피나 말이야 꼭 같이 인제 구분을 하기 힘들고 고고리가 나와야 이것이 피인지 벼인지 알지.)

103045 @ 그럼 그거 수확은 어떻게 헤마씨?(그럼 그거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45 #1 그 수확도 이렇게 비어 가지고.(그 수확도 이렇게 베어 가지고.)

103045 @ 예.(예.)

103045 #1 무꺼서.(묶어서.)

103045 @ 예.(예.)

103045 #1 그 탈곡허는 것추룩 헤 가지고 방앗간에서 지어.(그 탈곡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방앗간에서 져.)

103046 @ 그럼 그걸로 곤밥 헤 먹어마씨?(그럼 그걸로 흰밥 해 먹어요?)

103046 #1 ᄋᆞ. 그것이 바로 곤밥이여. 벼가 그럼 집에서 거 훌트는 걸로 훌터 가지고.(어. 그것이 바로 흰밥이야. 벼가 그럼 집에서 거 훑는 걸로 훑어 가지고.)

103046 @ 예.(예.)

103046 #1 방앗간에 강 지으면은 완전히 새쌀 뒈는 거지.(방앗간에 가서 지으면 완전히 새쌀 되는 거지.)

103046 @ 아, 방앗간에 가서 지어야 뒈마씨?(아, 방앗간에 가서 지어야 되요?)

103046 #1 응. 방앗간에 가서 그 껍질 벳겨야 뒈니까.(응. 방앗간에 가서 그 껍질 벗겨야 되니까.)

103047 @ 그거 남는 짚은 뭐 허주마씨?(그거 남는 짚은 뭐 하지요?)

103047 #1 볏찍 ᄀᆞ튼 거는 다양하게 써.(볏짚 같은 거는 다양하게 써.)

103047 @ 땔감으로 써마씨?(땔감으로 써요?)

103047 #1 아니. 땔감으로는 벨로 잘 안 쓰고 ᄂᆞ람지[73] ᄀᆞ튼 걸로 멘들고.(아니. 땔감으로는 별로 잘 안 쓰고 'ᄂᆞ람지' 같은 걸로 만들고.)

103047 @ 아, 걸로 ᄂᆞ람지를 그걸로 만들어마씨?(아, 걸로 'ᄂᆞ람지'를 그걸로 만들어요?)

103047 #1 ᄋᆞ. 멘들고 하면은 것도 비를 아주 잘 말이여 빼내. 그런 것도 잇곡 뭐 메주 담을 때나 장 담을 때나 볏찍이 잇어야주게.(어. 만들고 하면 것도 비를 아주 잘 말이야 빼내. 그런 것도 있고 뭐 메주 담글 때나 장 담글 때나 볏짚이 있어야지.)

103047 @ 아, 볏찍으로 이렇게 둘러쌍?(아, 볏짚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

73)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ᄂᆞ래미, ᄂᆞ라미, ᄂᆞ람쥐, ᄂᆞ레, 놀래'라고도 한다.

103047 #1 어. 그 저 메주를 싸고 말이여 ᄒᆞ니까 여기는 저 볏찍이 별로 엇이난 그러니까 아주 구하기가 힘들어.(어. 그 저 메주를 싸고 말이야 하니까 여기는 저 볏짚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구하기가 힘들어.)
103048 @ 그럼 옹포에는 산듸 농사 하는 사람 별로 엇언마씨?(그럼 옹포에는 밭벼 농사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103048 #1 아, 산듸 농사 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잇곡 잘 엇어.(아, 밭벼 농사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나 있고 잘 없어.)
103039 @ 밧벼는 안 헷수광?(밭벼는 안 했습니까?)
103039 #2 밧벼 이듸 엇어.(밭벼 여기 없어.)
103039 @ 이듸 엇어마씨?(여기 없어요?)
103039 #2 이듸는 엇어.(여기는 없어.)

고구마 농사

103049 @ 고구마 농사 잇잖아예?(고구마 농사 있잖아요?)
103049 #1 ᄋᆞ.(어.)
103049 @ 고구마 농사는 뭐가 필요혜마씨? 시작하려면?(고구마 농사는 뭐가 필요해요? 시작하려면?)
103049 #1 그거는 것도 고구마를.(그거는 것도 고구마를.)
103049 @ 예.(예.)
103049 #1 인제 일단은 고구마를 헤그넹.(인제 일단은 고구마를 해서.)
103049 @ 근데 고구마를 감저라고 허지예?(근데 고구마를 '감저'라고 하지요?)
103049 #1 감자는 지실이고 고구마는 그대로 고구마인데 고구마를 씨를 허려면 아주 건강한 걸로 헤 가지고 집에다가 온도를 잘 맞췽 온돌방에 놧다가.(감자는 '지실'이고 고구마는 그대로 고구마인데 고구마를 씨를 하려면 아주 건강한 걸로 해 가지고 집에다가 온도를 잘 맞춰서 온돌방에 놨다가.)
103049 @ 예.(예.)
103049 #1 한 일월이나 이월 뒈면 밧에 우영에 ᄀᆞ튼 곳에 비닐 더끄면 싹이 나와.(한 일월이나 이월 되면 밭에 텃밭에 같은 곳에 비닐 덮으면 싹이 나와.)
103049 @ 싹이 나와마씨?(싹이 나와요?)
103049 #1 ᄋᆞ. 싹이 나오민 그 싹을 비어다그넹 요만씩 짜르멍 강 밧에 강 싱그거든.(어. 싹이 나오면 그 싹을 베어다가 요만씩 자르면서 가서 밭에 가서 심거든.)
103049 @ 그렇게 그걸 싹이 나면 밧에 강 심어마씨?(그렇게 그걸 싹이 나면 밭에 가서 심어요?)
103049 #1 그것이 고구마가 생기는 거주게.(그것이 고구마가 생기는 거지.)
103049 @ 그럼 그 고구마는 보통 언제 심어마씨?(그럼 그 고구마는 보통 언제 심어요?)

103049 #1 지금 지금 싱거 가지고 시월 달에 시월 십일월에 그 저기 저 수확ᄒᆞ지.(지금 지금 심어 가지고 시월 달에 시월 십일월에 그 저기 저 수확하지.)
103049 @ 아, 팔구월에 심어마씨?(아, 팔구월에 심어요?)
103049 #1 아니, 아니. 지금 다 싱거실 거라.(아니, 아니. 지금 다 심었을 거야.)
103051 @ 그럼 그 고구마 밧 거름은 줘야 뒈잖아예?(그럼 그 고구마 밭 거름은 줘야 되잖아요?)
103051 #1 어?(어?)
103051 @ 고구마 밧에도 거름 주지 않아마씨?(고구마 밭에도 거름 주지 않아요?)
103051 #1 뭐 별로 주지 안 ᄒᆞ여. 우리 우영에 텃밧에 고구마 싱것는데 그게.(뭐 별로 주지 않아. 우리 텃밭에 텃밭에 고구마 심었는데 그게.)
103051 @ 예.(예.)
103051 #1 한 삼월 달 정도 사월 달 정도 싱그면 십일월에 캐주게.(한 삼월 달 정도 사월 달 정도 심으면 십일월에 캐지.)
103052 @ 그럼 그거 심을 때는 그냥 손으로 심어마씨?(그럼 그거 심을 때는 그냥 손으로 심어요?)
103052 #1 아니. 이제 이 밧 간 것추룩 헤서 고랑 멘들어 가지고.(아니. 이제 이 밭 간 것처럼 해서 고랑 만들어 가지고.)
103052 @ 예.(예.)
103052 #1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일자로 영 그어 가지고 그 고구마 줄을 거기다 놓고 흑으로 묻어주면 거기서 이제 고구마는 잘 죽지 않으난 전부 다 살아나 거기서.(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어 가지고 그 고구마 덩굴을 거기다 놓고 흙으로 묻어두면 거기서 이제 잘 죽지 않으니까 전부 다 살아나 거기서.)
103052 @ 예.(예.)
103052 #1 경 헹 이제 자기가 뿌리로 말이지 고구마를 멘들어 내는 거주게.(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뿌리로 말이지 고구마를 만들어 내는 거지.)
103053 @ 그럼 고구마 밧도 검질메마씨?(그럼 고구마 밭도 김매요?)
103053 #1 뭐 김메기는 고구마 줄기로 막 다 더꺼져 버리니까.(뭐 김매기는 고구마 줄기로 막 다 덮어져 버리니까.)
103053 @ 잘 안 헤마씨?(잘 안 해요?)
103053 #1 ᄋᆞ. 김이 저 김메는 것보다는 풀이 잘 살아나지 못ᄒᆞ여.(어. 김이 저 김매는 것보다는 풀이 잘 살아나지 못해.)
103054 @ 그럼 검질들도 별로 엇겟다예?(그럼 김들도 별로 없겠군요?)
103054 #1 ᄋᆞ. 검질들도 별로 엇지.(어. 김들도 별로 없지.)
103055 @ 아, 그믄 이제 고구마 다 자라면 수확은 언제 하주마씨? 한 시월?(아, 그러면 이제 고구마 다 자라면 수확은 언제 하지요? 한 시월?)
103055 #1 시월에서 십일월 사이에 헤 가지고.(시월에서 십일월 사이에 해 가지고.)
103055 @ 그럼 수확은 어떻게 헤마씨?(그럼 수확은 어떻게 해요?)

103055 #1 손으로도 강 허곡 골겡이로 파기도 허고.(손으로도 가서 하고 호미로 파기도 하고.)
103055 @ 예.(예.)
103055 #1 어떤 사람은 쟁기로 말이여 이렇게 갈면 고구마만 나오면.(어떤 사람은 쟁기로 말이야 이렇게 갈면 고구마만 나오면.)
103055 @ 예.(예.)
103055 #1 그거 주워그넹 푸데에 담아 가지고 말이지 차 위에 실어와 가지고 공장에 팔기도 허고 먹기도 허고 고구마 빼딱이라고 헤 가지고 절간 절간고구마를 멘들어서 집이서 말렷다가.(그거 주워서 포대에 담아 가지고 말이지 차 위에 실어와 가지고 공장에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고구마 말랭이라고 해 가지고 절간 절간고구마를 만들어서 집에서 말렸다가.)
103055 @ 예.(예.)
103055 #1 뻣아 가지고 감자떡도 헤 먹고 말이지.(빻아 가지고 감자떡도 해 먹고 말이지.)
103056 @ 그럼 씨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헤마씨?(그럼 씨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해요?)
103056 #1 집에 이런 잠자는 방에 다 놧어. 옛날엔 옛날에는 온도 온도가 너무 얼면은 한겨울을 넘기가 힘들면.(집에 이런 잠자는 방에 다 놨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온도 온도가 너무 추우면 한겨울을 넘기가 힘들면.)
103056 @ 예.(예.)
103056 #1 집에 말이야 저런 궤 속에다가 신문지 ᄀᆞ튼 거 놔 가지고 딱 헤서 그 좀 말이지 저 담요 ᄀᆞ튼 걸로 더꺼 두면 고구마가 썩지도 안 ᄒᆞ고.(집에 말이야 저런 궤 속에다가 신문지 같은 거 놔 가지고 딱 해서 그 좀 말이지 저 담요 같은 걸로 덮어 두면 고구마가 썩지도 않고.)
103056 @ 경 허영 고구마 많이 보관헨마씨?(그렇게 해서 고구마 많이 보관했어요?)
103056 #1 아니. 씨고구마는 얼마 안 헤도 그게 줄이 많이 자라면 한 밧 싱그는 거는 금방 그걸로 헤. 그거 하나 싱그면 한 십 평정도 말이여 싱글 줄기가 나와.(아니. 씨고구마는 얼마 안 해도 그게 줄이 많이 자라면 한 밭 심는 거는 금방 그걸로 해. 그거 하나 심으면 한 십 평정도 말이야 심을 줄기가 나와.)
103056 @ 아, 하나만 잇으면?(아, 하나만 있으면?)
103056 #1 ᄋᆞ. 하나만 잘 커도게.(어. 하나만 잘 커도.)
103056 @ 고구마 옛날에는 어떵 보관헨마씨? 땅 파 가지고?(고구마 옛날에는 어떻게 보관했어요? 땅 파 가지고?)
103056 #1 ᄋᆞ. 땅 파 가지고 새 아까 주젱이 만들엇던 새로 그 땅 파 가지고.(어. 땅 파 가지고 띠 아까 주저리 만들었던 띠로 그 땅 파 가지고.)
103056 @ 예.(예.)
103056 #1 아래도 찍 놓고 옆에다가는 새로 놔 가지고 거기다 놔 가지고.(아래도 짚 놓고 옆에다가는 띠로 놔 가지고 거기다 놔 가지고.)

103056 @ 예.(예.)

103056 #1 그다음에 흑 더꺼서 이렇게 젤 위로는 주젱이로는 씌어 가지고 비가 물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게 그렇게 헤 놧다가 이 옆으로 말이여 긁어내 가지고 말이지 몇 개 꺼내다가 겨울에 쪄도 먹고 먹다 먹다 남으면 나중에 다 전부 다 이월 달에는 그거 다 고구마 숫 만들지.(그다음에 흙 덮어서 이렇게 제일 위로는 주저리로 씌어 가지고 비가 물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해 놨다가 이 옆으로 말이야 긁어내 가지고 말이지 몇 개 꺼내다가 겨울에 쪄도 먹고 먹다 먹다 남으면 나중에 다 전부 다 이월 달에는 그거 다 고구마 숯 만들지.)

103056 @ 그럼 저장한 거기를 뭐라고 안헤마씨? 감저눌[74] 이런 식으로?(그럼 저장한 거기를 뭐라고 안 해요? '감저눌' 이런 식으로?)

103056 #1 아, 감저눌게.(아, '감저눌'.)

103056 @ 아, 감저눌이라 헤마씨?(아, '감저눌'이라고 해요?)

103056 #1 감저눌이옌 ᄒᆞ주게. 감저눌에 말이지 고구마 담앗다가 말이여 그거 뭐 먹고 싶으면 말이지 흔 열 개씩 스무 개씩 가져다그넹 쪄도 먹고.('감저눌'이라고 하지. '감저눌'에 말이지 고구마 담았다가 말이야 그거 뭐 먹고 싶으면 말이지 한 열 개씩 스무 개씩 가져다가 쪄도 먹고.)

103056 @ 감저눌은 그러면 밧에다가 만드는 거마씨?('감저눌'은 그러면 밭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103056 #1 아, 집에게. 집에 이 우영에 우영 밧에.(아, 집에. 집에 이 텃밭에 텃밭 밭에.)

103056 @ 아, 우영에?(아, 텃밭에?)

103056 #1 뭐 우영팟 엇인 사람은 말이여 뭐 밧에 강 헹 놔두민 딴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잇잖아.(뭐 텃밭 없는 사람은 말이야 뭐 밭에 가서 놔두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

103056 @ 그거 물어보젠 헷거든마씨. 그냥 밧에다가 허면 딴 사람이 가져갈 수 잇으니까.(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냥 밭에다가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103056 #1 ᄋᆞ. 경 허니까 그건 아주 귀한 거거든.(어.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주 귀한 거거든.)

103056 #1 아, 고구마가마씨?(아, 고구마가요?)

103056 @ 아, 먹고 사는데 제일 그것이 말이여 생명을 유지허는 거기 때문에 간수도 잘 하지마는.(아, 먹고 사는데 제일 그것이 말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간수도 잘 하지만.)

103057 @ 절간고구마는 그렇게 허고 씨고구마는 어떵 헤마씨?(절간고구마는 그렇게 하고 씨고구마는 어떻게 해요?)

103057 #1 씨고구마는 좋은 걸로 헤 가지고 상처도 안 나고. 이런 걸로 골라 가지

74) '감저눌'은 '집 옆에 1.5m 정도 땅을 파서 짚을 깔고 고구마를 보관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감저눌'은 땅 밑 온도 변화가 적어 그런지 2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였으며, 감저눌에 보관한 고구마는 쌀이 없는 제주민들의 겨울 점심 식량이 되었던 것이다.

고.(씨고구마는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상처도 안 나고. 이런 걸로 골라 가지고.)
103058 @ 그럼 고구마 줄기는 남은 건 어떵 써마씨?(그럼 고구마 줄기는 남은 건 어떻게 써요?)
103058 #1 줄기는 주로 말이여 소 멕이고.(줄기는 주로 말이야 속 먹이고.)
103058 @ 아, 소 멕여마씨?(아, 소 먹여요?)
103058 #1 으. 소에 사료로 인제 소 사료로 사용흐고 지금은 지금도 말이여 그 고구마 줄기로 이렇게 좀 벗겨서 말이여 먹기도 헤.(어. 소에 사료로 인제 소 사료로 사용하고 지금은 지금도 말이야 그 고구마 줄기로 이렇게 좀 벗겨서 말이야 먹기도 해.)
103058 @ 그럼 고구마 줄기는 먹기도 허고마씨?(그럼 고구마 줄기는 먹기도 하고요?)
103059 @ 그럼 어르신 고구마 농사도 헤 보션마씨? 어렷을 때?(그럼 어르신 고구마 농사도 해 보셨어요? 어렸을 때?)
103059 #1 아, 우리 어릴 때 고구마 밧에다가 말이지 한 천 평 이천 평 싱것다가 그거 차로 말이여 고구마 공장에서 차 보내주면.(아, 우리 어릴 때 고구마 밭에다가 말이지 한 천 평 이천 평 심었다가 그거 차로 말이야 고구마 공장에서 차 보내주면.)
103059 @ 예.(예.)
103059 #1 거 푸대에 담은 거를 말이여 인부들이 와 가지고 말이여 다 실어 가지고 허면은 뭐 몇 십 만원 어떤 때는 백만 원씩도 나오고.(거 포대에 담은 거를 말이야 인부들이 와 가지고 말이야 다 실어 가지고 하면은 뭐 몇 십 만원 어떤 때는 백만 원씩도 나오고.)
103059 @ 그면 조 농사, 보리농사 그다음에 고구마 농사?(그러면 조 농사, 보리농사 그다음에 고구마 농사?)
103059 #1 게. 그렇게 주로 세 가지 많이 헷지.(그럼. 그렇게 주로 세 가지 많이 했지.)
103059 @ 아, 세 가지 주로.(아, 세 가지 주로.)
103059 #1 으. 그 시기는 한 보리는 한 이월 달에 갈고이.(어. 그 시기는 한 보리는 한 이월 달에 갈고.)
103059 @ 예.(예.)
103059 #1 조는 유월 달 장마 끗나자마자 갈고.(조는 유월 달 장마 끝나자마자 갈고.)
103059 @ 아.(아.)
103059 #1 고구마도 유월 달 정도 장마 끗나면 싱거 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많이 크고 고구마도 생겻어.(고구마도 유월 달 정도 장마 끝나면 심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많이 크고 고구마도 생겼어.)
103059 @ 아, 생견마씨?(아, 생겼어요?)
103049 @ 그믄 그 고구마.(그러면 그 고구마.)
103049 #2 응.(응.)
103049 @ 고구마도 헷수광?(고구마도 했습니까?)

103049 #2 응. 그거 심어사주게.(응. 그거 심어야지.)
103049 @ 고구마 어떵 그 심을 때 뭐 준비헤야 뒈마씨?(고구마 어떻게 그 심을 때 뭐 준비해야 돼요?)
103049 #2 아이고 계메. 그것도 걸름 놓은 채로. 고구마는 그자 땅바닥에 그자 고지 둥그랗게 갈아 놩.(아이고 글쎄. 그것도 거름 놓은 채로. 고구마는 그저 땅바닥에 그저 이랑 둥그렇게 갈아 놓아서.)
103049 @ 음.(음.)
103049 #2 줄 크믄. 그때는 요만썩 줄이 길어.(덩굴 크면. 그때는 요만씩 덩굴이 길어.)
103049 @ 그 고구마도 엿날에 제주도말로 뭐라고 헷주마씨?(그 고구마도 옛날에 제주도말로 뭐라고 했지요?)
103049 #2 감제.('감제'.)
103049 @ 예. 감제.(예. 고구마.)
103049 #2 감제.(고구마.)
103049 @ 예. 그거는 그니까 다시 좀 얘기헤 줍서.(예.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좀 얘기해 주십시오.)
103049 #2 감제.(고구마.)
103049 @ 예.(예.)
103049 #2 그거게 줄 이만썩 크믄 서너 개 끊어.(그거 덩굴 이만큼 크면 서너 개 끊어.)
103049 @ 예.(예.)
103049 #2 끊엉 그거 싱그주게게. 싱경 경 헹 생기믄 파당 먹고게.(끊어서 그거 심지. 심어서 그렇게 해서 생기면 파다가 먹고.)
103050 @ 그 고구마는 언제 갈아마씨? 보통?(그 고구마는 언제 갈아요? 보통?)
103050 #2 고구마가 언제 가는 철인고?(고구마가 언제 가는 철인가?)
103050 @ 밧 한 다음에 허는 가마씨? 아니면 그 벼 그 뭐냐 보리 헌 다음에?(밭 한 다음에 하는 가요? 아니면 그 벼 그 뭐냐 보리 한 다음에?)
103050 #2 어, 어, 어.(어, 어, 어.)
103050 @ 보리 헌 다음에?(보리 한 다음에?)
103050 #2 응.(응.)
103051 @ 그럼 거기에도 거름 잇어마씨? 따로?(그럼 거기에도 거름 있어요? 따로?)
103051 #2 거름 별로 엇언게.(거름 별로 없었어.)
103051 @ 별로 엇언?(별로 없어?)
103051 #2 보리 갈 때 들어가 불곡 허믄 경 통지 걸름 경 잇어게?(보리 갈 때 들어가 버리고 하면 그렇게 돼지우리 거름 그렇게 있어?)
103051 @ 예. 게난 고구마 헐 때는 그냥?(예. 그러니 고구마 할 때는 그냥?)
103051 #2 응. 그자 비료 어떵 허당 생긴 사름은 호끔썩 놓는 체허곡. 거 옛사람 불

쌍허게 살앗어.(응. 그저 비료 어떻게 하다가 생긴 사람은 조금씩 놓는 체하고. 거 옛사람 불쌍하게 살았어.)
103052 @ 고구마는 어떵 심어마씨? 감저는?(고구마는 어떻게 심어요? 고구마는?)
103052 #2 고지 만들아. 요만큼 납작허게 만들앙.(이랑 만들어. 요만큼 납작하게 만들어서.)
103052 @ 예.(예.)
103052 #2 줄 이제나 마찬가지 심는 건.(덩굴 이제나 마찬가지 심는 건.)
103052 @ 심는 건 마찬가지?(심는 건 마찬가지?)
103052 #2 지금 심는 거랑 같아.(지금 심는 거랑 같아.)
103052 @ 어떵?(어떻게?)
103052 #2 고지 영 만들곡 줄 영 가운디 팡 묻엉게.(이랑 이렇게 만들고 덩굴 이렇게 가운데 파서 묻어서.)
103053 @ 그믄 고구마도 검질메마씨?(그러면 고구마도 김매요?)
103053 #2 검질메야주게.(김매야지.)
103053 @ 아, 몇 번 메마씨?(아, 몇 번 매요?)
103053 #2 게도 보리추룩 메지는 안 허여.(그래도 보리처럼 매지는 않아.)
103053 @ 음.(음.)
103053 #2 혼 번 두 번 그자 어쩌구저쩌구 영 끄덕끄덕 난 거 메영 내 불믄 건 좋아.(한 번 두 번 그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끄덕끄덕 난 거 매어서 내 버리면 건 좋아.)
103053 @ 아.(아.)
103053 #2 막 줄 벗는 거난.(막 덩굴 벗는 거니까.)
103054 @ 거 뭐 다른 검질 나마씨? 고구마밧에는?(거 뭐 다름 김 나요? 고구마밭에는?)
103054 #2 검질 그자 그 종류가 그 종류 그자.(김 그저 그 종류가 그 종류 그저.)
103054 @ 아, 그자 그 종류?(아, 그저 그 종류?)
103054 #2 어, 어.(어, 어.)
103055 @ 그럼 그거는 어떵 수확헤마씨? 이렇게 줄 벤 다음에.(그럼 그거는 어떻게 수확해요? 이렇게 덩굴 벤 다음에.)
103055 #2 그 고구마는 많이 허면은 고구마삣데기 헷주게.(그 고구마는 많이 하면은 고구마고지 했지.)
103055 @ 예.(예.)
103055 #2 기계로 썰엉 물령 막 밧에 널엉 물령 공장에 막 팔아낫주게 그거.(기계로 썰어서 말려서 막 밭에 널어서 말려서 공장에 막 팔았었지 그거.)
103056 @ 예. 그 고구마 막 수확헹 오잖아예?(예. 그 고구마 막 수확해서 오잖아요?)
103056 #2 어.(어.)
103056 @ 그럼 그거 보관은 어떵 헨마씨?(그럼 그거 보관은 어떻게 했어요?)
103056 #2 보관?(보관?)

103056 @ 예.(예.)
103056 #2 그거 파당 막 밧에서 기계 갖다 놩 막 썰어 그냥 그듸서 씨치지 안 허영 그냥.(그거 파다가 막 밭에서 기계 갖다 놔서 막 썰어 그냥 거기서 씻지 않고 그냥.)
103056 @ 감저눌[75] ᄀᆞ튼 거 이렇게 안 만들언마씨?('감저눌' 같은 거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103056 #2 옛날에 우리 먹을 가져 온 거는 이런 우영팟.(옛날에 우리 먹을 가져 온 거는 이런 텃밭.)
103056 @ 예.(예.)
103056 #2 이런 텃밭이.(이런 텃밭에.)
103056 @ 예.(예.)
103056 #2 구뎅이 파.(구덩이 파.)
103056 @ 예.(예.)
103056 #2 구뎅이 팡 그듸 영 조찍 놔. 조찍.(구덩이 파서 거기 이렇게 조짚 놔. 조짚.)
103056 @ 아, 조찍을 먼저 놔마씨?(아, 조짚을 먼저 놔요?)
103056 #2 조찍을 영 놔그넹.(조짚을 이렇게 놔서.)
103056 @ 예.(예.)
103056 #2 경 헹 고구마 갖당 놔둬그넹 요만히 고망 뚧엉 꺼내당 겨울에 꺼내당 먹어.(그렇게 해서 고구마 갖다가 놔둬서 요만큼 구망 뚧어서 꺼내다가 겨울에 꺼내다가 먹어.)
103056 @ 그게 그걸 뭐라고 허주마씨?(그게 그걸 뭐라고 하지요?)
103056 #2 구뎅이 팡 것ᄀᆞ라 뭣이옌 허나? 감젯눌, 감젯눌.(구덩이 파서 것보고 뭣이라고 하나? '감젯눌', '감젯눌'.)
103056 @ 예. 감젯눌.(예. '감젯눌'.)
103056 #2 응. 감젯눌.(응. '감젯눌'.)
103057 @ 그럼 아까 고구마 허믄 절간고구마영.(그럼 아까 고구마 하면 절간고구마와.)
103057 #2 어. 절간고구마.(어. 절간고구마.)
103057 @ 그다음에 씨고구마 잇잖아예?(그다음에 씨고구마 있잖아요?)
103057 #2 경 허믄 씨 헐 건 뚜로 잘 어디 묻엇당.(그렇게 하면 씨 할 건 따로 잘 어디 묻었다가.)
103057 @ 묻엇당 그다음.(묻었다가 그다음.)
103057 #2 그거 또 내년에 심을 걸로 씨 허곡.(그거 또 내년에 심을 걸로 씨 하고.)
103057 @ 예.(예.)
103057 #2 많이 허영 허는 사람은 밧에서 막 기계 갖다 놩 썰엉. 그 공장이 잇엇어

75) '감저눌'은 집 옆에 1.5m 정도 땅을 파서 짚을 깔고 고구마를 보관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 '감저눌'은 땅 밑 온도 변화가 적어 그런지 2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였으며, 감저눌에 보관한 고구마는 쌀이 없는 제주민들의 겨울 점심 식량이 되었던 것이다.

요.(많이 해서 하는 사람은 밭에서 막 기계 갖다 놔서 썰어서. 그 공장이 있었어요.)
103057 @ 예.(예.)
103057 #2 그 빼때기 사는 공장.(그 고지 사는 공장.)
103057 @ 빼때기 사는 공장?(고지 사는 공장?)
103057 #2 응. 그듸 강 또 풀곡. 우린 그런 건 안 헤봔게. 그저 영 구뎅이 팡 허곡. 경 허당 내중에 전분공장이 나오기 시작헹 그듸 풀안.(응. 거기 가서 또 팔고. 우린 그런 건 안 해봤어. 그저 이렇게 구덩이 파서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분공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거기 팔았어.)
103058 @ 그럼 고구마줄기는 또 뭘로 써마씨? 남은 거는?(그럼 고구마줄기는 또 뭘로 써요? 남은 거는?)
103058 #2 거 몰령 거 줄 몰리믄 쉐출게 쉐출.(거 말려서 거 줄 마르면 쇠꼴 쇠꼴.)
103058 @ 아, 쉐출.(아, 쇠꼴.)
103058 #2 쉐밥 쉐밥. 몰려 막 눌어.(소밥 소밥. 말려 막 쌓아.)
103058 @ 예.(예.)
103058 #2 눌엉 놔둥 요만썩 무꺼. 혼 뭇썩. 그거 빠멍 쉐 주주게. 쉐밥.(쌓아 놔둬서 요만큼 묶어. 한 뭇씩. 그거 빼면서 소 주지. 소밥.)
103058 @ 그럼 그 감저 말앙 다른 거 농사는?(그럼 그 고구마 말고 다른 거 농사는?)
103058 #2 벨다른 거 엇어. 그것이 그거 우리 제주도는.(별다른 거 없어. 그것이 그거 우리 제주도는.)
103058 @ 수박이나 참웨는?(수박이나 참외는?)
103058 #2 건 이제사 시작헴주. 그런 건 엇엇수다 우리 어렷을 적은.(건 이제야 시작하고 있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은.)
103058 @ 지실 농사는 안 헨마씨?(감자 농사는 안 했어요?)
103058 #2 안 허연.(안 했어.)

기타 농사

103060 @ 옹포리[76]에서 수박 농사는 안 헷지예?(옹포리에서 수박 농사는 안 했지요?)
103060 #1 수박 ᄀᆞ튼 거는 이제야 신엄[77] ᄀᆞ튼 데.(수박 같은 거는 이제야 신엄 같은데.)
103060 @ 예.(예.)
103060 #1 거 이제 그거 한 지도 한 십 년밧긔 안 됐을 거라?(거 이제 그거 한 지도 한 십 년밖에 안 됐을 거야?)

76) '옹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77) '신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103060 @ 옹포는 안 허고마씨?(옹포는 안 하고요?)
103060 #1 옹포는 그런 건 안 ᄒᆞ고 주로 브로콜리 ᄀᆞ튼 거.(옹포는 그런 건 안 하고 주로 브로콜리 같은 거.)
103060 @ 그럼 브로콜리 농사는 어떵 헤마씨?(그럼 브로콜리 농사는 어떻게 해요?)
103060 #1 브로콜리도 그자 거 뭐 채소 종류인데.(브로콜리도 그저 거 뭐 채소 종류인데.)
103060@ 예.(예.)
103060 #1 그거를 밧에다가 갈아 가지고 말이여 브로콜리가 날 때는 그거 따다가 육지부에 올리지.(그거를 밭에다가 갈아 가지고 말이야 브로콜리가 날 때는 그거 따다가 육지부에 올리지.)
103060 @ 브로콜리는 뭐 검질메는 거 엇인가마씨?(브로콜리는 뭐 김매는 거 없나요?)
103060 #1 그런 것도 별로 엇고.(그런 것도 별로 없고.)
103060 @ 편하겟다예?(편하겠군요?)
103060 #1 편허고 뭐 위에 고고리 닮은 거나 나오면 가서 그거 따다그넹 포장헹 육지부에 보내면.(편하고 뭐 위에 고고리 닮은 거나 나오면 가서 그거 따다가 포장해서 육지부에 보내면.)
103060 @ 예.(예.)
103060 #1 시세에 따라 돈도 나오고 겅 ᄒᆞ지.(시세에 따라 돈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103060 @ 음. 브로콜리는 한 팔십 년대부터 헷인가마씨?(음. 브로콜리는 한 팔십 년대부터 했었나요?)
103060 #1 겅 헷일 거라. 한 이십년 뒈나마나 제주도에서 ᄒᆞᆫ 거는 십년 정도.(그렇게 했을 거야. 한 이십년 되나마나 제주도에서 한 거는 십년 정도.)
103060 @ 얼마 안 됏다예?(얼마 안 됐군요?)
103060 #1 ᄋᆞ.(어.)
103061 @ 참웨 농사는 하션마씨?(참외 농사는 하셨어요?)
103061 #1 참웨는 여기는 잘 안 헤.(참외는 여기는 잘 안 해.)
103062 @ 그럼 고추 농사는 헤마씨? 여기서?(그럼 고추 농사는 해요? 여기서?)
103062 #1 고치 농사는 이 우영에.(고추 농사는 이 텃밭에.)
103062 @ 예.(예.)
103062 #1 심어서 자기네 먹을 정도로 말이지 헷지. 그거를 전문적으로 고치 농사를 한 것도 한 오륙 년밧긔 안 됏을 거라.(심어서 자기네 먹을 정도로 말이지 했지. 그거를 전문적으로 고추 농사를 한 것도 한 오륙 년밖에 안 됐을 거야.)
103062 @ 아, 얼마 안 됏다예?(아, 얼마 안 됐군요?)
103062 #1 ᄋᆞ. 전문적으로 밧에다가 막 그걸 부업으로.(어. 전문적으로 밭에다가 막 그걸 부업으로.)
103062 @ 예.(예.)

103062 #1 헤 가지고 고치를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은 고치 따오면 그것도 건조허기가 상당히 힘들주게.(해 가지고 고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고추 따오면 그것도 건조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103062 @ 그치예? 건조기 따로 잇어야 뒈지예?(그렇지요? 건조기 따로 있어야 되지요?)

103062 #1 건조기도 뭐 사서 말이지 헤야 뒈난 것도 농사는 아주 잘 뒈지마는.(건조기도 뭐 사서 말이지 해야 되니까 것도 농사는 아주 잘 되지만.)

103062 @ 예.(예.)

103062 #1 고치낭 하나가 몇 백 개씩 나니까 것도 일손이 많이 가는 거 닮아.(고추나무 하나가 몇 백 개씩 나니까 것도 일손이 많이 가는 거 같아.)

103063 @ 그럼 배추 농사는 혹시 아셔마씨?(그럼 배추 농사는 혹시 아세요?)

103063 #1 배추 배추는 여기는 별로 저 강원도 고랭지 배추 와 가지고 여기서 주로 사서 먹고 집안에 이제는 말이여 이제니까 조금 싱것다가 김치도 담강 먹고 헷지 여기는 배추를 전문적으로 허는 데 엇엇주게.(배추 배추는 여기는 별로 저 강원도 고랭지 배추 와 가지고 여기서 주로 사서 먹고 집안에 이제는 말이야 이제니까 조금 심었다가 김치도 담가서 먹고 했지 여기는 배추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없었지.)

103064 @ 그럼 놈삐 농사는?(그럼 무 농사는?)

103064 #1 놈삐도 마찬가지 여기선 놈삐 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 이제야 저기 웃드리[78]라고 헤 가지고 금악[79]이나 그런 데서 허주게.(무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무 농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사람 이제야 저기 '웃드리'라고 해 가지고 금악이나 그런 데서 하지.)

103064 @ 예.(예.)

103064 #1 대단위 농장 가진 사람들이 놈삐 농사 ᄀᆞ튼 거는 헤 가지고 위에다가 올리면 이 육지가 막 한파로 농작물이 죽거나 허면은 제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 벌고 시기를 잘 봐야 돼 농산물은 시기가 아주 중요허고.(대단위 농장 가진 사람들이 무 농사 같은 거는 해 가지고 위에다가 올리면 이 육지가 막 한파로 농작물이 죽거나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 벌고 시기를 잘 봐야 돼 농산물은 시기가 아주 중요하고.)

103064 @ 예.(예.)

103064 #1 그 육지부에 막 얼어서 말이지 피해가 왓을 때는 여긴 좀 뜨뜻허니까.(그 육지부에 막 추워서 말이지 피해가 왔을 때는 여긴 좀 따뜻하니까.)

103064 @ 잘 뒈겟다예?(잘 되겠군요?)

103064 #1 ᄋᆞ. 관리만 잘 헤그넹 조금 올라 불면 그때가 떼돈 버는 거주게.(어. 관리만 잘 해서 조금 올라 버리면 그때가 떼돈 버는 거지.)

103064 @ 아, 예.(아, 예.)

103064 #1 다마내기 ᄀᆞ튼 것도 여기 와 가지고 말이여 우리 집에 와서 살던 사람들

78)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혹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79) '금악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속한 행정리 중 하나이다.

도 다마내기 가져와 가지고 무안에서 와서 말이여 열흘 보름 작업헹 가는데.(양파 같은 것도 여기 와 가지고 마리야 우리 집에 와서 살던 사람들도 양파 가져와 가지고 무안에서 와서 말이야 열흘 보름 작업해서 가는데.)

103064 @ 예.(예.)

103064 #1 이 억 삼 억 벌엉 가.(이 억 삼 억 벌어서 가.)

103064 @ 아, 몇 달 만에마씨?(아, 몇 달 만에요?)

103064 #1 으. 두어 달 만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만나면.(어. 두어 달 만에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만나면.)

103064 @ 예.(예.)

103064 #1 그렇게 돈 버는 거야.(그렇게 돈 버는 거야.)

103064 @ 다마내기도 경 돈 많이 뭰다예?(양파도 그렇게 돈 많이 되는군요?)

103064 #1 여기가 이제 건줌 다마내기 ᄀᆞ튼 거 헤서 돈 벌어나니까.(여기가 이제 거의 양파 같은 거 해서 돈 벌었으니까.)

103064 @ 예.(예.)

103064 #1 그거를 또 많이 돈 벌엇다고 헤서 다 헤 불민.(그거를 또 많이 돈 벌었다고 해서 다 해 버리면.)

103064 @ 또 잘 안 뒈지예?(또 잘 안 되지요?)

103064 #1 또 이제는 시세가 말이여 떨어지고 그거를 상인들은 사서 시세 낮출 때는 사서 말이여 저장고에 일 년간 저장헷다가 저기가 한파 나서 얼어 가지고 말이여 다마내기가 나오지 안 홀 때 딱 내치면 것도 뭐 몇 억 벌고 이런 것이 지금은 현대 농업이라.(또 이제는 시세가 말이야 떨어지고 그거를 상인들은 사서 시세 낮출 때는 사서 말이야 저장고에 일 년간 저장했다가 저기가 한파 나서 추워 가지고 말이야 양파가 나오지 안 할 때 딱 내치면 것도 뭐 몇 억 벌고 이런 것이 지금은 현대 농업이야.)

103064 @ 시기를 잘 타야겟다예?(시기를 잘 타야겠군요?)

103064 #1 으. 시기를 이건 뭐 농사는 시기가 절대 뭐 중요헌 거지.(어. 시기를 이건 뭐 농사는 시기가 절대 뭐 중요한 거지.)

103065 @ 그럼 지실 농사는?(그럼 감자 농사는?)

103065 #1 지실은 여기는 안 ᄒᆞ고 고산[80].(감자는 여기는 안 하고 고산.)

103065 @ 아, 고산.(아, 고산.)

103065 #1 고산이 제주도에서는 지실 농사가 제일 거 거기가 고단위고 지실 고단위고 당근은 구좌[81]가 구좌가 고단위고 다 그 저기 뭐가 잇어.(고산이 제주도에서는 감자 농사가 제일 거 거기가 고단위고 감자 고단위고 당근은 구좌가 구좌가 고단위고 다 그 저기 뭐가 있어.)

103065 @ 옹포는 뭐가 고단위꽝?(옹포는 뭐가 고단위입니까?)

103065 #1 옹포는 뭐 그런 특별헌 게 구좌는 당근허고 지실이 구좌 지실은 전국에서

80) '고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81) '구좌읍'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읍 가운데 하나이다.

도 알아줘.(옹포는 뭐 그런 특별한 게 구좌는 당근하고 감자가 구좌 감자는 전국에서도 알아줘.)
103065 @ 아, 구좌 지실이?(아, 구좌 감자가?)
103065 #1 ᄋᆞ. 아주 맛잇어.(어. 아주 맛있어.)
103065 @ 그럼 지실 농사는 헤 본 적 엇겟다예?(그럼 감자 농사는 해 본 적 없겠군요?)
103065 #1 ᄋᆞ. 씨앗을 잘 관리헤 가지고 그 저기 저장고에다가.(어. 씨앗을 잘 관리해 가지고 그 저기 저장고에다가.)
103065 @ 예.(예.)
103065 #1 잘 저장헷다가 그 적기에 딱 싱거 가지고 허면 구좌 지실은 전국에서도 알아줘.(잘 저장했다가 그 적기에 딱 심어 가지고 하면 구좌 감자는 전국에서도 알아줘.)
103066 @ 어르신 그럼 피 농사도 알아마씨?(어르신 그럼 피 농사도 알아요?)
103066 #1 피? 피 농사도 그거 저 그 그저 뭐 뭔가 저기 저 벼 농사 닮은 건데.(피? 피 농사도 그거 저 그 그저 뭐 뭔가 저기 저 벼 농사 닮은 건데.)
103066 @ 예.(예.)
103066 #1 그것도 피가 또 먹는 피가 잇인 모양이야.(그것도 피가 또 먹는 피가 있는 모양이야.)
103066 @ 그건 옹포에서 안 헷지예?(그건 옹포에서 안 했지요?)
103067 @ 그럼 모멀 농사는?(그럼 메밀 농사는?)
103067 #1 그것도 안 ᄒᆞ고.(그것도 안 하고.)
103068 @ 담배 농사도 안 헷지예?(담배 농사도 안 했지요?)
103068 #1 담배 농사도 안 헤.(담배 농사도 안 해.)
103069 @ 그럼 제가 말한 거 말고 브로콜리 말고 또 다른 농사 뭐 허는 거 잇어마씨?(그럼 제가 말한 거 말고 브로콜리 말고 또 다른 농사 뭐 하는 거 있어요?)
103069 #1 브로콜리 아니면 다마내기.
103069 @ 그럼 다마내기는 어떵 헤마씨?(그럼 양파는 어떻게 해요?)
103069 #1 다마내기는 밧에 팔아 불주게.(양파는 밭에 팔아 버리지.)
103069 @ 아.(아.)
103069 #1 밧떼기로.(밭떼기로.)
103069 @ 밧떼기로?(밭떼기로?)
103069 #1 ᄋᆞ. 상인이 와서 말이여 뭐 천 평이면 천 평이면 ᄒᆞ면 평당 얼마 왓다갓다 헹.(어. 상인이 와서 말이야 뭐 천 평이면 천 평이면 하면 평당 얼마 왔다갔다해서.)
103069 @ 그럼 그건 농사는 어떵 헤마씨? 뿌리거나 그런 거는?(그럼 그건 농사는 어떻게 해요? 뿌리거나 그런 거는?)
103069 #1 아니 그거는.(아니 그거는.)
103069 @ 심어마씨?(심어요?)

103069 #1 묘종으로 말이여.(모종으로 말이야.)
103069 @ 예.(예.)
103069 #1 집에다가 이 우영 ᄀᆞ튼 데 묘종 ᄀᆞ튼 다마내기 묘종 놔 가지고 거기 강 적기에 싱그는데.(집에다가 이 텃밭 같은 데 모종 같은 양파 모종 놔 가지고 거기 가서 적기에 심는데.)
103069 @ 예.(예.)
103069 #1 이제는 묘종 ᄀᆞ튼 것도 전부 다 거 종묘사 ᄀᆞ튼 데서 묘종이 와.(이제는 모종 같은 것도 전부 다 거 종묘사 같은 데서 모종이 와.)
103069 @ 묘종이 와마씨?(모종이 와요?)
103069 #1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하면 그거 사서 싱거 가지고 싱근 다음에 바로 팔아.(어라 정도 필요하다 하면 그거 사서 심어 가지고 심은 다음에 바로 팔아.)
103069 @ 아, 바로 팔아마씨?(아, 바로 팔아요?)
103069 #1 ᄋᆞ. 밧떼기로 평당 얼마 헤 가지고 게면 상인이 사서 시세 주면 돈 먹고 일단 그 저기 그 돈 먹고 말이지 싱근 사람은 인건비 농약 비료 뭐 이런 저런 묘종 때 다 계산 헤 가지고 이익이 조금 나면 팔아 불주게.(어. 밭떼기로 평당 얼마 해 가지고 그러면 상인이 사서 시세 주면 돈 먹고 일단 그 저기 그 돈 먹고 말이지 심은 사람은 인건비 농약 비료 뭐 이런 저런 모종 때 다 계산 해 가지고 이익이 조금 나면 팔아 버리지.)
103069 @ 아.(아.)
103069 #1 게면 그 산 사람이 관리헷다가.(그러면 그 산 사람이 관리했다가.)
103069 @ 예.(예.)
103069 #1 다마내기 딱 캘 때 뒈면은 사람 육지서 데령와 가지고 육지로 올라가지.(양파 딱 캘 때 되면 사람 육지에서 데려와 가지고 육지로 올라가지.)
103069 #1 아, 기구나예. 그럼 그렇게까지 농사 막 이렇게. 예. 알겟습니다 어르신.(아,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까지 농사 막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어르신 쉐에 대헤서 좀 물어보려고 헴신디예. 쉐 키워보션마씨?(어르신 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소 키워보셨어요?)
104001 #1 쉐는 안 키워봔.(소는 안 키워봤어.)
104001 @ 그래도 어떵 키우는지 대충 알지예?(그래도 어떻게 키우는지 대충 알지요?)
104001 #1 아, 소는 저 그때 당시에는 지금 ᄀᆞ치 사료 ᄀᆞ튼 것이 잇인 게 아니고.(아,

소는 저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이 사료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고.)
104001 @ 예.(예.)
104001 #1 풀 풀을 먹이고 들에 가그넹 풀을 먹이고 말이여 여름에는 그 저기 저 이제 들판에 가서 풀 먹이고 겨울에는 그 저기 저 소 먹이 꼴이라고 ᄒᆞ는데 꼴을 말이여 풀일 비어다가 사료를 주고 이렇게.(풀 풀을 먹이고 들에 가서 풀을 먹이고 말이야 여름에는 그 저기 저 이제 들판에 가서 풀 먹이고 겨울에는 그 저기 저 소 먹이 꼴이라고 하는데 꼴을 말이야 풀일 베어다가 사료를 주고 이렇게.)
104001 @ 촐이라고 하지 않안마씨?('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04001 #1 촐, 촐이지. 그게 촐이라. 꼴이 촐인데.('촐', '촐'이지. 그게 '촐'이야. 꼴이 '촐'인데.)
104001 @ 예.(예.)
104001 #1 육지에서는 꼴이라고 ᄒᆞ고 여기서는 촐이라고 ᄒᆞ고.(육지에서는 꼴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촐'이라고 하고.)
104001 @ 그럼 소는 마을마다 소는 안 키원마씨?(그럼 소는 마을마다 소는 안 키웠어요?)
104001 #1 마을마다 그 집단으로 키우는 건 엇엇고 자기 농사를 짓기 위혜서 한 집에.(마을마다 그 집단으로 키우는 건 없었고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집에.)
104001 @ 예.(예.)
104001 #1 한 마리 정도 말이지 많으민 두 마리 정도 키웟던 걸로 알고 잇어 옆에 집에서도.(한 마리 정도 말이지 많으면 두 마리 정도 키웠던 걸로 알고 있어 옆에 집에서도.)
104001 @ 예.(예.)
104001 #1 소 키우고 ᄒᆞ면 우리도 밧을 갈라고 하면 동네.(소 키우고 하면 우리도 밭을 갈라고 하면 동네)
104001 @ 예.(예.)
104001 #1 할아방안티 강 빌려 가지고 갈아 달렌 ᄒᆞ면 와 가지고 날짜 봐 가지고 말이지 한걸ᄒᆞ면 와서 갈아주고.(할아버지한테 가서 빌려 가지고 갈아 달라고 하면 와 가지고 날짜 봐 가지고 말이지 한가하면 와서 갈아주고.)
104001 @ 소도 말처럼 잘 모는 사람 잇어마씨?(소도 말처럼 잘 모는 사람 있어요?)
104001 #1 아니. 그런 건 엇고.(아니. 그런 건 없고.)
104001 @ 예.(예.)
104001 #1 소 주인이 쟁기.(소 주인이 쟁기.)
104001 @ 예.(예.)
104001 #1 쟁기를 말이여 소 등에다가 질메라고 헤 가지고 질메 위에다고 영 실고 와 가지고는 소를 끗엉 끗어 가지고 밧에까지 가.(쟁기를 말이야 소 등에다가 길마라고 해 가지고 길마 위에다가 이렇게 싣고 와 가지고는 소를 끌어서 끌어 가지고 밭에까지 가.)

104001 @ 끗어 가지고?(끌어 가지고?)
104001 #1 밧에 가서 이제 밧에 가면은 이제 쟁기를 다 조립혜 가지고 그때부터 밧을 갈기 시작ᄒᆞ주게.(밭에 가서 이제 밭에 가면 이제 쟁기를 다 조립해 가지고 그때부터 밭을 갈기 시작하지.)
104002 @ 그럼 소도 종류가 잇지 않아마씨? 털 색깔로도?(그럼 소도 종류가 있지 않아요? 털 색깔로도?)
104002 #1 아, 주로 황소들만 여기는 옛날에 털이 노란 거 그런 것들로 헷고 까만 소라던가 이런 거는 별로 많지 않앗어.(아, 주로 황소들만 여기는 옛날에 털이 노란 거 그런 것들로 했고 까만 소라던가 이런 거는 별로 많지 않았어.)
104002 @ 아, 까만 소는 안 많안마씨?(아, 까만 소는 안 많았어요?)
104002 #1 ᄋᆞ. 한 열이면 하나 잇이나 마나ᄒᆞ고 전부 다 노란색.(어. 한 열이면 하나 있으나 마나하고 전부 다 노란색.)
104002 @ 뿔도 잇지 않아예?(뿔도 있지 않아요?)
104002 #1 뿔도 잇지.(뿔도 있지.)
104002 @ 뿔 종류로도 소가 나누어 지지 않아마씨?(뿔 종류로도 소가 나누어 지지 않아요?)
104002 #1 ᄋᆞ. 그런 건 엇고 옛날 우리 속담에.(어. 그런 건 없고 옛날 우리 속담에.)
104002 @ 예.(예.)
104002 #1 그 거무롱ᄒᆞᆫ 암쉐가 정이월 ᄇᆞ름살에 뿔이 오그라진다는 그런 속담이 잇거든.(그 거무스름한 암소가 정이월 바람살에 뿔이 오그라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거든.)
104002 @ 아.(아.)
104002 #1 그거는.(그거는.)
104002 @ 예.(예.)
104002 #1 저기 저 소막에 잇다가.(저기 저 외양간에 있다가.)
104002 @ 예.(예.)
104002 #1 이제 그 하도 추운 바람이 정이월 바람에.(이제 그 하도 추운 바람이 정이월 바람에.)
104002 @ 예.(예.)
104002 #1 끌고 갈 때는 걸어가는 암쉐 걸어가는 암쒜가 뿔이 오그라진다고 ᄒᆞ는 추위가 잇다는 그거를 표현한 건데 걸어가는 암쉐가 뿔이 오그라진다.(끌고 갈 때는 걸어가는 암소 걸어가는 암소가 뿔이 오그라진다고 하는 추위가 있다는 그거를 표현한 건데 걸어가는 암소가 뿔이 오그라진다.)
104002 @ 그럼 뿔이 암소가 수소와 다르게 나마씨?(그럼 뿔이 암소가 수소와 다르게 나요?)
104002 #1 ᄋᆞ. 수소는 아주 강허고 암소는 뿔이 약혜.(어. 수소는 아주 강하고 암소는 뿔이 약해.)
104002 @ 아, 약혜마씨?(아, 약해요?)

104002 #1 ᄋᆞ.(어.)
104003 @ 예전에도 소는 주로 농사에 이용하지예?(예전에도 소는 주로 농사에 이용하지요?)
104003 #1 주로 농사에 이용허다가 만약에 늙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팔 거나 도살헤서 동네에서 추렴헤 가지고 먹거나 그렇게 헷지.(주로 농사에 이용하다가 만약에 늙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팔 거나 도살해서 동네에서 추렴해 가지고 먹거나 그렇게 했지.)
104003 @ 농사지을 때 어떵 어떵 헐 때 소 이용헷주마씨?(농사지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할 때 소 이용했지요?)
104003 #1 소는게 주로 밧갈이용으로 사용헷고.(소는 주로 밭갈이용으로 사용했고.)
104003 @ 예.(예.)
104003 #1 또 구루마라고 헤 가지고 구루마에다가 소를 말이지 이렇게 헤서 짐 이동 뭐 농산물 ᄀᆞ튼 거 밧에 말이여 고구마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 보리 이런 거 홀 때는 말로 안 ᄒᆞ고 주로 소로 말이지 구루마에다가 그 저기 저 끗엉 다닐 수 잇있게 소 주인이 밧에 가서 집에까지 이동하는 걸로 사용헷주게.(또 수레라고 해 가지고 수레에다가 소를 말이지 이렇게 해서 짐 이동 뭐 농산물 같은 거 밭에 말이야 고구마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 보리 이런 거 할 때는 말로 안 하고 주로 소로 말이지 수레에다가 그 저기 저 끌어서 다닐 수 있게 소 주인이 밭에 가서 집에까지 이동하는 걸로 사용했지.)
104003 @ 아, 그니깐 밧 가는 거랑 그다음에 운반허는 거.(아, 그러니까 밭 가는 거랑 그다음에 운반하는 거.)
104003 #1 ᄋᆞ. 농작물 밧에다 흔 거를 집에까지 운반허는 용으로 주로 그거 뭐 사용이 두 가지라.(어. 농작물 밭에다 한 거를 집에까지 운반하는 용으로 주로 그거 뭐 사용이 두 가지야.)
104003 @ 두 가지지예?(두 가지이지요?)
104004 @ 그럼 소 어렷을 때 소 사오면 소는 어디서 사오지마씨?(그럼 소 어렷을 때 소 사오면 소는 어디서 사오지요?)
104004 #1 보통 집에서 새끼 내왕 키우주게.(보통 집에서 새끼 나오게 해서 키우지.)
104004 @ 새끼 내왕? 그럼 팔 때는 어디서 팔아마씨?(새끼 나오게 해서? 그럼 팔 때는 어디서 팔아요?)
104004 #1 그때는 뭐 풀 때는 어디 우시장 이런 것도 엇고.(그때는 뭐 팔 때는 어디 우시장 이런 것도 없고.)
104004 @ 예.(예.)
104004 #1 그저 뭐 소 사켄 흔 사람 잇이면 가 가지고 말이여 동네에서 말이지 소 두 개 잇으니까 ᄒᆞ나 풀아 달렌 ᄒᆞ민 그 주인허고 흥정헤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하나 키와서 또 크면 그거를 자기 사용하는 걸로.(그저 뭐 소 사겠다고 한 사람 있으면 가 가지고 말이야 동네에서 말이지 소 두 개 있으니까 하나 팔아 달라고 하면 그 주인하고 흥정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하나 키워서 또 크면 그거를 자기 사용하는 걸로.)

104004 @ 주변에 우시장 ᄀᆞ튼 거는 없엇지예?(주변에 우시장 같은 거는 없었지요?)
104004 #1 그런 건 엇고 옛날에는 절대 그런 것도 엇고.(그런 건 없고 옛날에는 절대 그런 것도 없고.)
104004 @ 예.(예.)
104004 #1 집에서 새끼 내와서 암소니까 동네에 여름철에는 목장지[82]라고 헤 가지고 여름에는 일 안 ᄒᆞ여 소가.(집에서 새끼 나오게 해서 암소니까 동네에 여름철에는 목장지라고 해 가지고 여름에는 일 안 해 소가.)
104004 @ 예.(예.)
104004 #1 그러니까 목장 ᄀᆞ튼 데서 놀면 풀을 말이여 인제 풀을 먹다가.(그러니까 목장 같은 데서 놀면 풀을 말이야 인제 풀을 먹다가.)
104004 @ 예.(예.)
104004 #1 거기서 교미 붙어 가지고 다음해 이듬해 이월 달이나 삼월 달 나면 새끼 나.(거기서 교미 붙어 가지고 다음해 이듬해 이월 달이나 삼월 달 되면 새끼 나.)
104004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4004 #1 새끼 나면 한 일 년 즈음 키우다가 이제 딴 사람이 송아지가 좋거나 하면.(새끼 나면 한 일 년 즈음 키우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송아지가 좋거나 하면.)
104004 @ 예.(예.)
104004 #1 그 송아지를 사지. 동네 사람이라도 나 이걸 풀아 달라 허민 이제 이 삼 년 키와 가지고 밧갈이용이라든가 아니면 구루마로도 농산물도 실고 말이지 이렇게.(그 송아지를 사지. 동네 사람이라도 나 이걸 팔아 달라 하면 이제 이삼 년 키워 가지고 밭갈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수레로도 농산물도 싣고 말이 이렇게.)
104004 @ 그럼 소도 길들여야 뒈지 않아마씨?(그럼 소도 길들여야 되지 않아요?)
104004 #1 소는 주로 여기 소들은 그때 소들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순헷주게. 아주 순헤 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을 헤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농사용으로 주로 사용허고 가서 뿔도 만지고 뭐 소를 만져도 소가 말이여 절대 말이지 사납거나 이렇진 않아.(소는 주로 여기 소들은 그때 소들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순했지. 아주 순해 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농사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가서 뿔도 만지고 뭐 소를 만져도 소가 말이야 절대 말이지 사납거나 이렇지는 않아.)
104004 @ 그래도 밧 갈젠 허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영 길들여야 하는 건 엇언마씨?(그래도 밭 갈려고 하면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길들여야 하는 건 없었어요?)
104004 #1 그거를 ᄒᆞ려면.(그거를 하려면.)
104004 @ 예.(예.)
104004 #1 이제 옛날에 송아지가 검줌 이제 한 세 살 네 살 밧 갈 힘이 생기면 그런 이제 뒤에다가 나무토막 긴 거 ᄃᆞᆯ아메 가지고 여기서 말이지 뿔에다가 뭐 걸던지 모가지에 말이지 이렇게 멍에라고 헤 가지고 멍에로 헤 가지고.(이제 옛날에 송아지가 거의

82) '목장지'는 말이나 소를 놓아 먹여 기르기도 하고 경작하기도 하는 땅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제 한 세 살 네 살 밭 갈 힘이 생기면 그런 이제 뒤에다가 나무토막 긴 거 달아매 가지고 여기서 말이지 뿔에다가 뭐 걸던지 모가지에 말이지 이렇게 멍에라고 해 가지고 멍에로 해 가지고.)

104004 @ 예.(예.)

104004 #1 글로 헤 가지고 줄 소 뒤로 헤 가지고 줄 길게 헤 가지고 큰 나무토막을 메 가지고 끗엉 다녀났주게.(거기로 해 가지고 줄 소 뒤로 해 가지고 줄 길게 해 가지고 큰 나무토막을 매 가지고 끌고 다녔었지.)

104004 @ 아, 끗엉 다년마씨?(아, 끌고 다녔어요?)

104004 #1 그게 이제 그 밧갈이를 시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 말하자면.(그게 이제 밭갈이를 시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 말하자면.)

104004 @ 예. 그거마씨.(예. 그거요.)

104004 #1 소를 이제 길들이기 위헌 그거는 그런 나무토막 긴 거 메달아 가지고 주인이 끗어서 쭉 가고 또 끗어 오고 허다그넹 밧 갈 때가 뒈면은 나무토막을 벳겨 내 가지고.(소를 이제 길들이기 위한 그거는 그런 나무토막 긴 거 매달아 가지고 주인이 끌어서 쭉 가고 또 끌어 오고 하다가 밭 갈 때가 되면 나무토막을 벗겨 내 가지고.)

104004 @ 그럼 그 나무토막은 이름이 엇인가마씨?(그럼 그 나무토막은 이름이 없나요?)

104004 #1 그 나무토막은 뭐 여기 통나무지 통나무.(그 나무토막은 뭐 여기 통나무이지 통나무.)

104004 @ 아, 통나무마씨? 그냥 밧 가는 거 말고.(아, 통나무요? 그냥 밭 가는 거 말고.)

104004 #1 통나무로 두어 개 메어 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지.(통나무로 두어 개 매어 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지.)

104004 @ 예.(예.)

104004 #1 소가 이제 밧 갈 수 잇인 힘을 키우기 위헤서 허는 정도 일 년 정도 그렇게 훈련 받고.(소가 이제 밭 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정도 일 년 정도 그렇게 훈련 받고.)

104004 @ 예.(예.)

104004 #1 그다음에 주인이 소를 쟁기를 메고 뒤에서 쟁기를 잡은 사람ᄒᆞ고 앞에는 소를 끗어 줘.(그다음에 주인이 소를 쟁기를 매고 뒤에서 쟁기를 잡은 사람하고 앞에는 소를 끌어 줘.)

104004 @ 예.(예.)

104004 #1 그래야 그 밧을 쭉 갈고 또 저기서 쭉 ᄒᆞ고 한 몇 개월 허민 앞에 주인이 엇어도 그 고랑대로 소가 밧을 잘 갈아.(그래야 그 밭을 쭉 갈고 또 저기서 쭉 하고 한 몇 개월 하면 앞에 주인이 없어도 그 고랑대로 소가 밭을 잘 갈아.)

104004 @ 그게 그 소 교육을 시키는 거마씨?(그게 그 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04004 #1 ᄋᆞ. 교육시키는 거지 말하자면.(어. 교육시키는 거지 말하자면.)

104006 @ 그럼 아까 얘기한 거 쟁기 잇잖아예?(그럼 아까 얘기한 거 쟁기 있잖아요?)

104006 #1 ᄋᆞ.(어.)

104006 @ 쟁기도 부분마다 이름 다르지 않아마씨?(쟁기도 부분마다 이름 다르지 않아요?)

104006 #1 쟁기엔 ᄒᆞ면 앞부분 보섭이라고 헤 가지고 지금 말하면 스뎅[83] 종류로 보섭이 제일 앞에 잇곡.(쟁기라고 하면 앞부분 보습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하면 스테인리스 종류로 보습이 제일 앞에 있고.)

104006 @ 예.(예.)

104006 #1 이렇게 삼각형 비슷허게 헤 가지고 그 안에 말이지 이제 나무를 말이여 들어내 가지고 거기에 딱 고정허게 됏어.(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안에 말이지 이제 나무를 말이야 들어내 가지고 거기에 딱 고정하게 됐어.)

104006 @ 예. 게난 그거는 따로 이름이 엇어마씨?(예.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이름이 없어요?)

104006 #1 그거는 이제 그 쟁기에 속한 나무지 말하자면 제일 앞에 잇인 것이 보섭 보섭에 뒤에 잇인 거는 쟁기의 일부분으로 나무로 돼 가지고 이렇게 헤서 사람의 손잡이가 딱 뒈고.(그거는 이제 그 쟁기에 속한 나무이지 말하자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보습 보습에 뒤에 있는 거는 쟁기의 일부분으로 나무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손잡이가 딱 되고.)

104006 @ 예.(예.)

104006 #1 요쪽에는 또 그거를 영 걸러메 가지고 말이여 이렇게 ᄒᆞ고 소 앞에는 줄을 말이여 두 개 메달아그넹 말이여 갈면은 이쪽으로 이레 가민 이레 잡아뎅기면 소가 굳장 가고 또 이레 잡아뎅기면 또 가고 이런 것들이 잇지.(요쪽에는 또 그거를 이렇게 걸어매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소 앞에는 줄을 말이야 두 개 매달아서 말이야 갈면 이쪽으로 이리 가면 이리 잡아당기면 소가 곧장 가고 또 이리 잡아당기면 또 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

104006 @ 잘 알암신게마씨?(잘 아시네요?)

104006 #1 ᄋᆞ. 그런 것들을 이용헹 밧을 가는 거지.(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거지.)

104007 @ 그럼 보섭말고 손잡이는 따로 이름을 뭐라고 허주마씨?(그럼 보습말고 손잡이는 따로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104007 #1 그런 거는 잘 들어보지도 안 ᄒᆞ고 질메 ᄀᆞ튼 거라고 헤 가지고.(그런 거는 잘 들어보지도 안 하고 길마 같은 거라고 해 가지고.)

104007 @ 예.(예.)

104007 #1 뭐 이런 이 앞에 목에 질메인가 뭔가 그런 거 헤 가지고 소에도 메다는 장치가 많주게.(뭐 이런 이 앞에 목에 길마인가 뭔가 그런 거 해 가지고 소에도 매다는

83) '스뎅'은 일본어 'ステンレス'(스테인리스)의 준말이다.

장치가 많지.)
104008 @ 예. 그런 다른 장치도 좀 얘기헤주면 좋을 거 닮아마씨.(예. 그런 다른 장치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104008 #1 질메는 뭐 아마 등어리에 놔 가지고 웬만한 그 저 짐을 지을 수 잇인 그런 말이지 등어리에 이렇게 돼 가지고 소 위에 딱 놓아 가지고 이렇게 조금 헤 가지고 이쪽에 짐 놔 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실고 다니는 것들도 잇곡.(길마는 뭐 아마 등에 놔 가지고 웬만한 그 저 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이지 등에 이렇게 돼 가지고 소 위에 딱 놓아 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 가지로 이쪽에 짐 놔 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싣고 다니는 것들도 있고.)
104008 @ 아, 그게 질메마씨?(아, 그게 길마에요?)
104008 #1 또 이 앞에는 멍에라고 헤 가지고.(또 이 앞에는 멍에라고 해 가지고.)
104008 @ 멍에도 이름이 달리 잇지 않아마씨?(멍에도 이름이 달리 있지 않아요?)
104008 #1 아니, 아니. 멍에는 이렇게 저 ᄒᆞ고 뭐 코에이 코에도 동글락허게 돌아메는 것 잇곡.(아니, 아니. 멍에는 이렇게 저 하고 뭐 코에 코에도 동그랗게 달아매는 거 있고.
104008 @ 예.(예.)
104008 #1 소에도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잇주게.(소에도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104008 @ 많이 잇지예? 그럼 소 안 키웟는 데도 잘 아신다예?(많이 있지요? 그럼 소 안 키웠는 데도 잘 아시는구요?)
104008 #1 아니 봐서 잘 알지 그러니까 주로 말이여 쟁기는.(아니 봐서 잘 알지 그러니까 주로 말이야 쟁기는.)
104008 @ 예.(예.)
104008 #1 소가 갓다 오면은 말이여 그 쟁기는 잘 보관헤 비도 안 맞는 곳으로 말이지.(소가 갔다 오면 말이야 그 쟁기는 잘 보관해. 비도 안 맞는 곳으로 말이지.)
104008 @ 창고에다가?(창고에다가?)
104008 #1 창고에다가 놧다그넹.(창고에다가 놨다가.)
104008 @ 예.(예.)
104008 #1 밧은 매일 가는 게 아니고.(밭은 매일 가는 게 아니고.)
104008 @ 예.(예.)
104008 #1 게난 그 시기가 봄 때 봄 때 주로 말이지 한 석 달 정도 말이지 소로 말이여 이렇게 밧 갈아 놓으면 여름에는 휴식허기 위헤서 농장에다 말이지 목장에다가 올려 (그러니 그 시기가 봄 때 봄 때 주로 말이지 한 석 달 정도 말이지 소로 말이야 이렇게 밭 갈아 놓으면 여름에는 휴식하기 위해서 농장에다 말이지 목장에다가 올려.)
104008 @ 예.(예.)
104008 #1 한 삼사 개월 정도 전부 다 끗나면 육칠팔월까지는 목장에 잇다가 한 시월 달 정도 뒈면은 주인이 소를 데려와.(한 삼사 개월 정도 전부 다 끝나면 육칠팔월까

지는 목장에 있다가 한 시월 달 정도 되면 주인이 소를 데려와.)
104008 @ 아, 수확헌 거 구루마에 싣젠 허면?(아, 수확한 거 수레에 실으려고 하면?)
104008 #1 아니, 아니. 그 소만 이제 그 목장에 올려 가지고 여름 한동안 물 먹고 풀 먹고 거기 관리허는 사람이 잇어.(아니, 아니. 그 소만 이제 그 목장에 올려 가지고 여름 한동안 물 먹고 풀 먹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104008 @ 아.(아.)
104008 #1 그 여러 사람이 옹포에서 예를 들어서 소 열 마리인가 스무 마리인가 오면 그 목장에서 소 한 마리당 얼마 보린 한 말이면 한 말, 조 한 말이면 조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헤 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여름 한 몇 개월을 관리헤 주는 거주게.(그 여러 사람이 옹포에서 예를 들어서 소 열 마리인가 스무 마리인가 오면 그 목장에서 소 한 마리당 얼마 보리는 한 말이면 한 말, 조 한 말이면 조 한 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여름 한 몇 개월을 관리해 주는 거지.)
104008 @ 아, 품삯으로?(아, 품삯으로?)
104008 #1 응. 품삯으로 주고 관리허다가 이제 그 가을 뒈면은 이제 주인이 소 찾으레 가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겨울 내내 그 쉐막이라고 헤 가지고.(어. 품삯으로 주고 관리하다가 이제 그 가을 되면 이제 주인이 소 찾으러 가 가지고 집에 와 가지고 겨울 내내 그 외양간이라고 해 가지고.)
104008 @ 예. 쉐막.(예. 외양간.)
104008 #1 쉐막에다가 소를 가두엇다가 봄에는 밧갈이용으로 또 나가고.(외양간에다가 소를 가두었다가 봄에는 밭갈이용으로 또 나가고.)
104008 @ 봄에는 밧갈이용으로 소 이용헷다가.(봄에는 밭갈이용으로 소 이용했다가.)
104008 #1 응.(어.)
104008 @ 여름에는 잠깐 목장에 보내고.(여름에는 잠깐 목장에 보내고.)
104008 #1 응. 그걸 또 한 시월 달이나 뒈면 집에 데려와 가지고.(어. 그걸 또 한 시월 달이나 되면 집에 데려와 가지고.)
104008 @ 예.(예.)
104008 #1 휴식을 말이여 꼴 촐 ᄀᆞ튼 거 잘 멕이면서 조금 이삼월에 밧갈이용으로 할라면.(휴식을 말이야 촐 촐 같은 거 잘 먹이면서 조금 이삼월에 밭갈이용으로 하려면.)
104008 @ 예.(예.)
104008 #1 힘을 말이지 충분히 비축시켜 놓는 거지.(힘을 말이지 충분히 비축시켜 놓는 거지.)
104008 @ 그럼 소 그럼 옹포리에도 목장 근처에 잇언마씨?(그럼 소 그럼 옹포리에도 목장 근처에 있었어요?)
104008 #1 옹포 목장 잇다그넹 팔아버렷지마는 중간에 한 십년 전에 말이야.(옹포 목장 있다가 팔아버렸지마는 중간에 한 십년 전에 말이야.)

104008 @ 아, 잇언마씨?(아, 있었어요?)
104008 #1 아, 그거를 옹포 사람이 임대헤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을 안에 임대헤 가지고 그 임대를 마을에다가 임대 수익으로 주고.(아, 그거를 옹포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을 안에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를 마을에다가 임대 수익으로 주고.)
104008 @ 예.(예.)
104008 #1 자기는 그 소 ᄀᆞ튼 거 말이지 꼭 옹포 것만 아니고 한림읍 관내나 그 한경면에서 오면 그 사람이 혼자 관리ᄒᆞ여.(자기는 그 소 같은 거 말이지 꼭 옹포 것만 아니고 한림읍 관내나 그 한경면에서 오면 그 사람이 혼자 관리해.)
104008 @ 아.(아.)
104008 #1 그럼 그 사람 수입도 보통이 아니주게. ᄒᆞᆫ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니까.(그럼 그 사람 수입도 보통이 아니지. 한 마리가 아니고 수십 마리니까.)
104009 @ 그럼 집이 소 잇인 집이 쉐막도 잇어마씨?(그럼 집이 소 있는 집이 외양간도 있어요?)
104009 #1 아, 쉐막 다 잇어야지. 겨울에는 쉐막에 안 넣으면.(아, 외양간 다 있어야지. 겨울에는 외양간에 안 넣으면.)
104009 @ 추워서.(추워서.)
104009 #1 추와 가지고 견딜 수가 엇엇어 여기 겨울도.(추워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 여기 겨울도.)
104009 @ 그믄 겨울이랑 봄에는 쉐막을 쉐막에다가 소를 집어넣고 여름에는 쉐막은 그냥 비워두는 거마씨?(그러면 겨울이랑 봄에는 외양간을 외양간에다가 소를 집어넣고 여름에는 외양간은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104009 #1 아, 여름은 비워두는 거지.(아, 여름은 비워두는 거지.)
104009 @ 아, 그럼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 헤마씨?(아, 그럼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 해요?)
104009 #1 뭐 무슨 뭐 깨끗이 창고용으로 사용허다가.(뭐 무슨 뭐 깨끗이 창고용으로 사용하다가.)
104009 @ 예.(예.)
104009 #1 소가 오면 또 쉐막에다가 소를 키우고 그렇게 그 쉐막에서 새끼 낳고 그래 그 농장에서 교미 붙으면.(소가 오면 또 외양간에다가 소를 키우고 그렇게 그 외양간에서 새끼 낳고 그래 그 농장에서 교미 붙으면.)
104009 @ 예.(예.)
104009 #1 그 한 일 년 후에 말이지 그 저기 오면은 배 불엉 나오면 말이지 새끼는 쉐막에서 낳주게.(그 한 일 년 후에 말이지 그 저기 오면 배 불어서 나오면 말이지 새끼는 외양간에서 낳지.)
104009 @ 옛날엔 뭐 수의사 엇고예?(옛날에는 뭐 수의사 없고요?)
104009 #1 아, 자연분만이지 자연으로 소가 그대로 낳으면 말이여 주인이 가서 잘 관리 헤 주고 말이지.(아, 자연분만이지 자연으로 소가 그대로 낳으면 말이야 주인이 가서

잘 관리해 주고 말이지.)
104010 @ 그럼 어렷을 때 어르신 소들 보면서 추억 ᄀᆞ튼 거 잇어마씨?(그럼 어렸을 때 어르신 소들 보면서 추억 같은 거 있어요?)
104010 #1 그런 거는 엇고 주로 말이지 밧 갈레 가는 거 보면은 아침 일찍 말이지 그 자기네 밧을 먼저 다 갈고.(그런 거는 없고 주로 말이지 밭 가려고 가는 거 보면 아침 일찍 말이지 그 자기네 밭을 먼저 다 갈고.)
104010 @ 예.(예.)
104010 #1 그다음에 말이지 옆집에 소가 엇는 집도 많으니까.(그다음에 말이지 옆집에 소가 없는 집도 많으니까.)
104010 @ 예.(예.)
104010 #1 그런 집에 부탁을 받아 갖고 말이지 인제 밧 갈레 다니는 사람이 잇어 마을에도 자기 밧만 가는 게 아니라.(그런 집에 부탁을 받아 갖고 말이지 인제 밭 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마을에도 자기 밭만 가는 게 아니라.)
104010 @ 남의 밧도?(남의 밭도?)
104010 #1 놈의 밧도 갈아주면 일당 이삼 만원이나 그때 돈 이렇게 헤 가지고 일 이만원이나 이렇게 주기도 ᄒᆞ고 뭐 아니면은 쌀 ᄀᆞ튼 거 줄 수도 잇으니까 그때 당시만 헤도 어려우난.(남의 밭도 갈아주면 일당 이삼 만원이나 그때 돈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만원이나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쌀 같은 거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려우니까.)
104010 @ 예.(예.)
104010 #1 그렇게 큰돈이 오고가고 허지 안 ᄒᆞ고 보통 뭐 한 하루 밧 갈면 만 원 오천 원 이렇게.(그렇게 큰돋이 오고가고 하지 않고 보통 뭐 한 하루 밭 갈면 만 원 오천 원 이렇게.)
104010 @ 경 도와줫구나예?(그렇게 도와줬군요?)
104010 #1 ᄋᆞ. 그러니깐 마을에 한 소가 열군데 잇이면 그 열 사람이 동네 사람들 밧을 건줌 다 갈아준다고 생각허면 뒈주게.(어. 그러니깐 마을에 한 소가 열군데 있으면 그 열 사람이 동네 사람들 밭을 거의 다 갈아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104010 @ 그럼 어르신도 농사 어렷을 때 헐 때는 옆에 사람들이 소 갖고 와서 이렇게 밧 갈아주션마씨?(그럼 어르신도 농사 어렸을 때 헐 때는 옆에 사람들이 소 갖고 와서 이렇게 밭 갈아주셨어요?)
104010 #1 ᄋᆞ. 게. 밧은 뭐 우리는 한 이천 평 정도 뒈니깐 하루면 하루 빌면 아침 여섯시부터 ᄒᆞ면 하루에 밧은 다 갈아.(어. 그럼. 밭은 뭐 우리는 한 이천 평 정도 되니깐 하루면 하루 빌리면 아침 여섯시부터 하면 하루에 밭은 다 갈아.)
104010 @ 아, 하루에 다 갈아마씨? 이천 평을?(아, 하루에 다 갈아요? 이천 평을?)
104010 #1 ᄋᆞ.(어.)

말 기르기

104011 @ 그 말 길러보셧지예?(그 말 길러보셨지요?)
104011 #1 ᄋᆞ. 우리 ᄆᆞᆯ은 우리 집에 ᄆᆞᆯ막이라고 헤서 말이지 그 길러 길러낫어. 우리 아버지가 말을 좋아헤서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어. 우리 말은 우리 집에 마구간이라고 해서 말이지 그 길러 길렀었어. 우리 아버지가 말을 좋아해서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104011 @ 아, 타고 다니는 말마씨?(아, 타고 다니는 말이요?)
104011 #1 ᄋᆞ. 일반 뭐 무슨 그 저기 저 ᄆᆞᆯ도 구루마용으로 많이 사용허거든 소추룩.(어. 일반 뭐 무슨 그 저기 저 말도 수레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 소처럼.)
104011 @ 말은 그럼 어떻게 기르주마씨? 딱 데리고 왓을 때부터.(말은 그럼 어떻게 기르지요? 딱 데리고 왔을 때부터.)
104011 #1 길르는 것도 뭐 사료 먹고 말이지 풀 ᄀᆞ튼 거 그런 거 먹고 말이지 아침 하루에 한 번 말이지 그 ᄆᆞᆯ 물 먹이는 데 요기 말이여 다리에 가 가지고 물 잇인데 강.(기르는 것도 뭐 사료 먹고 말이지 풀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말이지 아침 하루에 한 번 말이지 그 말 물 먹이는 데 요기 말이야 다리에 가 가지고 물 있는데 가서.)
104011 @ 아, 옹포교 잇는 데마씨?(아, 옹포교 있는 데요?)
104011 #1 ᄋᆞ. 저기 옹포다리에 잇인데 가서 끗어 가 가지고.(어. 저기 옹포다리에 있는데 가서 끌어 가 가지고.)
104011 @ 예.(예.)
104011 #1 끗엉 강 ᄆᆞᆯ을 ᄆᆞᆯ 물 멕여그넹 오거든.(끌고 가서 말을 말 물 먹여서 오거든.)
104011 @ 예.(예.)
104011 #1 ᄆᆞᆯ도 물을 먹어야 허니깐 그래 가지고 하루에 저녁 때 가서 물 멕여 가지고 다음날은 또 아침, 점심, 저녁 촐 주고.(말도 물을 먹어야 하니깐 그래 가지고 하루에 저녁 때 가서 물 먹여 가지고 다음날은 또 아침, 점심, 저녁 꼴 주고.)
104011 @ 촐 주고마씨?(꼴 주고요?)
104011 #1 촐 줭 또 저녁에 말 끌고 가서 물 멕영 오고.(꼴 줘서 또 저녁에 말 끌고 가서 물 먹여서 오고.)
104011 @ 말은 몇 년 정도 살주마씨?(말은 몇 년 정도 살지요?)
104011 #1 말도 한 오륙십년 살 거라.(말도 한 오륙십년 살 거야.)
104011 @ 아, 경 오래 살아마씨?(아, 그렇게 오래 살아요?)
104011 #1 ᄋᆞ.(어.)
104011 @ 그럼 어렷을 때부터 어르신도 말 많이 봣겟다예?(그럼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도 말 많이 봤겠군요?)
104011 #1 ᄋᆞ. 나가 말 끗어 가지고 물 멕이러 많이 다녀낫지.(어. 내가 말 끌어 가지고 물 먹이러 많이 다녔었지.)
104012 @ 그럼 말은 뭐냐 그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그럼 말은 뭐냐 그 종류가 뭐, 뭐 있지요?)
104012 #1 말은 뭐 종류가 무슨 주로 벌경ᄒᆞᆫ 그 적태 적태마 백마 이런 거 잇주마

는.(말은 뭐 종류가 무슨 주로 벌건 그 적다 적다마 백마 백마 이런 거 있지마는.)
104012 @ 예.(예.)
104012 #1 흑마도 잇곡 여러 가지 종류가 잇주마는 제주에서 주로 사용헷던 물은 보통 적토 벌건 말이여 그 저기 색깔이 적색을 띤 적토마를 많이 썻고 그 외에 백마라는 거는 가끔 하나 보이나마나 헷어.(흑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마는 제주에서 주로 사용했던 말은 보통 적다만 벌건 말이야 그 저기 색깔이 적색을 띤 적토마를 많이 썼고 그 외에 백마라는 거는 가끔 하나 보이나마나 했어.)
104012 @ 아, 보이긴 헨마씨?(아, 보이기는 했어요?)
104012 #1 응.(어.)
104012 @ 어르신네는 말 몇 마리 키우션마씨?(어르신네는 말 몇 마리 키우셨어요?)
104012 #1 혼 마리 타고 다니는 용으로 그 옛날에는 물이 교통수단으로 아주 물이여 췌고거든.(한 마리 타고 다니는 용으로 그 옛날에는 말이 교통수단으로 아주 말이 최고거든.)
104012 @ 아, 교통수단으로마씨?(아, 교통수단으로요?)
104012 #1 아, 그거 뭐 타고 말이여 멀리 모슬포까지 갓당 올라허민 걸엉 갓다 올라허민 제주시 갓당 올라허민.(아, 그거 뭐 타고 말이야 멀리 모슬포까지 갔다가 올라하면 걸어서 갔다 올라하면 제주시 갔다가 올라하면.)
104012 @ 못 가주마씨.(못 가지요.)
104012 #1 힘들잖아. 겐디 말로 가면 금방 말이여 타고 앚앙 말안장 멘들어 놓고 말이여 타고 말이여 이렇게 헤 가지고 허면 금방 갓다 와.(힘들잖아. 그런데 말로 가면 금방 말이야 타고 앉아서 말안장 만들어 놓고 말이야 타고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금방 갔다 와.)
104012 @ 어르신 아버지는 그렇게 탓는데 어르신도 타본 적은 잇어마씨?(어르신 아버지는 그렇게 탔는데 어르신도 타본 적은 있어요?)
104012 #1 아니. 말안장 위에 헤서 말 타본 적은 잇지. 어디 심부름 가는 거는 아니고.(아니. 말안장 위에 해서 말 타본 적은 있지. 어디 심부른 가는 거는 아니고.)
104012 @ 말 보통 그 제주도에서 조랑말 잇지 않아마씨?(말 보통 그 제주도에서 조랑말 있지 않아요?)
104012 #1 그 조랑물 종류가 크면은.(그 조랑말 종류가 크면.)
104012 @ 예.(예.)
104012 #1 길들이면 물도 타 조랑말도.(길들이면 말도 타 조랑말도.)
104012 @ 그럼 조랑말이랑 그냥 말이랑 크기가 달라마씨? 아니면 그냥 생긴 게 달라마씨?(그럼 조랑말이랑 그냥 말이랑 크기가 달라요? 아니면 그냥 생긴 게 달라요?)
104012 #1 아니. 그게 조랑물이옌 혼 거는 뭐냐면.(아니. 그게 조랑말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
104012 @ 예.(예.)
104012 #1 제주도 고유에 토종 저기 저 물인데 크지 않어. 일본말 같이 말이여 큰 군

마라고 헤 가지고 말이여 일본말 군마추룩 크지도 않고 군마의 반 정도밧긔 안 ᄒᆞ여 조랑말은.(제주도 고유에 토종 저기 저 말인데 크지 않아. 일본말 같이 말이야 큰 군마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일본말 군마처럼 크지도 않고 구마의 반 정도밖에 안 해 조랑말은.)

104012 @ 그럼 마구간도 잇언마씨?(그럼 마구간도 있었어요?)

104012 #1 마구간 잇엇지. 집이 들어오는 이쪽이 마구간이엇어.(마구간 있었지. 집에 들어오는 이쪽이 마구간이었어.)

104012 @ 아, 원래 들어오는 요쪽마씨?(아, 원래 들어오는 요쪽이요?)

104012 #1 우리 정문으로 들어오는 오른쪽이 마구간이라낫어. 거기 말 웬만헤그넹 두 마리 세 마리도 들어가게끔 뒈어 잇인 곳이라. 마구간이라는 데는.(우리 정문으로 들어오는 오른쪽이 마구간이었었어. 거기 말 웬만해서는 두 마리 세 마리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곳이야. 마구간이라는 데는.)

104013 @ 그럼 말은 이용헐 때 여기서 키울 때는 타젠 산 거잖아예? 근데 보통 촌에서 말 기를 때는 뭐 헐 때 주로 이용허주마씨?(그러 말은 이용할 때 여기서 키울 때는 타려고 산 거잖아요? 근데 보통 촌에서 말 기를 때는 뭐 할 때 주로 이용하지요?)

104013 #1 주로 말 사서 기르는 사람은 수단이 타는 거 아니면 구루마 끗는 용 ᄆᆞᆯ구루마라고 헤 가지고.(주로 말 사서 기르는 사람은 수단이 타는 거 아니면 수레 끄는 용 말수레라고 해 가지고.)

104013 @ 예.(예.)

104013 #1 옛날부터 말이여 소구루마도 잇지마는 ᄆᆞᆯ구루마가 구루마는 말이여 아주 ᄆᆞᆯ이 말이여 제격이여 소보다.(옛날부터 말이야 소수레도 있지마는 말수레가 수레는 말이야 아주 말이 말이야 제격이야 소보다.)

104013 @ 소보다 빠르니까?(소보다 빠르니까?)

104013 #1 ᄋᆞ. 빠르기도 하지마는 말이여 웬만헤서는 ᄆᆞᆯ구루마라고 헤 가지고 ᄆᆞᆯ구루마로 말이여 짐 실어 가지고 말이여 장에 다 돌아다니멍 장돌배기 허는 사람도 옹포에 잇엇거든 ᄆᆞᆯ구루마에다가.(어. 빠르기도 하지마는 말이야 웬만해서는 말수레라고 해 가지고 말수레로 말이야 짐 실어 가지고 말이야 장에 다 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 하는 사람도 옹포에 있었거든 말수레에다가.)

104013 @ 예.(예.)

104013 #1 장사 뭐 물건들 실어 가지고 한림장이면 이디 뭐 사일 오일이면 뭐 예를 들어서 신창[84] 칠일이면 모슬포 이런 식으로 제주도 뱅뱅 돌아뎅기는 사람도 잇엇다니까 ᄆᆞᆯ구루마로.(장사 뭐 물건들 실어 가지고 한림장이면 여기 뭐 사일 오일이면 뭐 예를 들어서 신창 칠일이면 모슬포 이런 식으로 제주도 뱅뱅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말수레로.)

104013 @ 타고 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구루마 밧 갈 때도?(타고 다니는 사람 그다음에 수레 밭 갈 때도?)

84) '신창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의 행정리 중 하나이다.

104013 #1 밧 붋는 거 조 붋으는 ᄆᆞᆯ 조는 ᄆᆞᆯ로 붋아 가지고 그게 아마 잘 붋아지면 조가 윤택허게 잘 자란다고 ᄒᆞ는 거라.(밭 밟는 거 조 밟으는 말 조는 말로 밟아 가지고 그게 아마 잘 밟아지면 조가 윤택하게 잘 자란다고 하는 거야.)

104013 @ 그럼 보통 조 농사 할 때는 소는 안 밟고 말로?(그럼 보통 조 농사 할 때는 소는 안 밟고 말로?)

104013 #1 아, 조는 말은 인제 그 붋고 소는 갈고 사람은 씨 뿌리고 그다음 섬비[85]로 끗고 그다음 말로 붋으면 조 농사가 끗나는 거라.(아, 조는 말은 인제 그 밟고 소는 갈고 사람은 씨 뿌리고 그다음 끙게로 끌고 그다음 말로 밟으면 조 농사가 끝나는 거야.)

104013 @ 아, 섬비로 덮은 다음에 말로 이렇게.(아, 끙게로 덮은 다음에 말로 이렇게.)

104013 #1 ᄋᆞ. 섬비로 끗은 다음에 고량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잇어 가지고 밧 갈잖아.(어. 끙게로 끌은 다음에 고랑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가지고 밭 갈잖아.)

104013 @ 예.(예.)

104013 #1 그럼 사람이 말이여 씨를 말이여 한 서너네 고량 말이여 가운데 서 가지고 네 개 정도 뒈는 걸 양쪽으로 뿌리고 가면 섬비가 한 네 고량 정도 끗을 수 잇인 섬비가 잇어.(그럼 사람이 말이야 씨를 말이야 한 서너네 고랑 말이야 가운데 서 가지고 네 개 정도 되는 걸 양쪽으로 뿌리고 가면 끙게가 한 네 고랑 정도 끌을 수 있는 끙게가 있어.)

104013 @ 아, 네 고랑 정도?(아, 네 고랑 정도?)

104013 #1 ᄋᆞ. 그걸 이제는 끗어 가지고 말이여 가면 그다음에 섬비가 다 끗은 다음에 그다음 말로부터 이제 밟아 가기 시작허는 거라. 근데 그것이 여덟 개 정도 돼야.(어. 그걸 이제는 끌어 가지고 말이야 가면 그다음에 끙게가 다 끌은 다음에 그다음 말로부터 이제 밟아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여덟 개 정도 돼야.)

104013 @ 예.(예.)

104013 #1 여덟 개 정도 이렇게 씨 뿌리고 섬비 끗어야 말이 이제 이렇게 붋기 시작ᄒᆞ지. 대번에 가서 붋는 거는 아니.(여덟 개 정도 이렇게 씨 뿌리고 끙게 끌어야 말이 이제 이렇게 밟기 사작하지. 대번에 가서 밟는 거는 아니.)

104013 @ 아, 대번에 말이 밟는 거는 아니마씨?(아, 대번에 말이 밟는 거는 아니에요?)

104013 #1 주위에 아니 ᄒᆞᆫ 데도 붋아 버리면 안 뒈니까.(주위에 안 한 데도 밟아 버리면 안 되니까.)

104013 @ 그믄 말도 이렇게 그 소도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예? 일로 가라 절로 가라.(그러면 말도 이렇게 그 소도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104013 #1 뭐 소는 교육 시킨다기보다도 말이지 거 말 듣는 것도 아니니까.(뭐 소는

85) '섬비'는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끄서귀, 끄슬퀴, 끄슬피, 섬피'라고도 한다.

교육 시킨다기보다도 말이지 거 말 듣는 것도 아니니까.
104013 @ 예.(예.)
104013 #1 사람이 그자 말이여 가다가 말이여 가다가 말이여 이레 가면 왕 허면 소가 서고 이레 줄 메어 가지고 이레 뎅기면 소가 이레 오고 이레 댕기면 이레 가고 ᄒᆞ는 거는 밧 갈 때도 그거 다 이제 그거 저 조정 줄이 잇어.(사람이 그저 말이야 가다가 말이야 가다가 말이야 이리 가면 왕 하면 소가 서고 이리 줄 매어 가지고 이리 당기면 소가 이리 오고 이리 당기면 이리 가고 하는 거는 밭 갈 때도 그거 다 이제 그거 저 조정 줄이 있어.)
104013 @ 예.(예.)
104013 #1 그 이렇게 뎅기면 곧장 가고 이렇게 뎅기면 이레 가고 다 가면 소가 이레 갈지 저레 갈지 모르잖아?(그 이렇게 당기면 곧장 가고 이렇게 당기면 이리 가고 다 가면 소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잖아?)
104013 @ 예.(예.)
104013 #1 예를 들어서 밧이 이거면 이디 다 가면 소가 이레 갈런지 이레 갈런지 모르잖아?(예를 들어서 밭이 이거면 여기 다 가면 소가 이리 갈런지 이리 갈런지 모르잖아?)
104013 @ 예.(예.)
104013 #1 소가 이레 갈 때는 이레 뎅기면 소가 알아먹엉 이레 돌아. 그다음에 이디 오면 일로 뎅겨 영 헹 뎅겨.(소가 이리 갈 때는 이리 당기면 소가 알아먹어서 이리 돌아. 그다음에 여기 오면 여기로 당겨 이렇게 해서 당겨.)
104013 @ 그럼 말 할 때는 그런 거 엇언마씨?(그럼 말 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104013 #1 말은 저 그 쟁긴가 뭔가 자갈인가 물려 가지고.(말은 저 그 쟁기인가 뭔가 재갈인가 물려 가지고.)
104013 @ 예.(예.)
104013 #1 저 달릴 때 말이여 빨리 달려가면 자갈 뎅기고 안 달리면 채찍으로 똥고망 때리고 이렇게.(저 달릴 때 말이야 빨리 달려가면 재갈 당기고 안 달리면 채찍으로 똥구멍 때리고 이렇게.)
104013 @ 말로 밟을 때 탄 다음에 밟는 거마씨?(말로 밟을 때 탄 다음에 밟는 거예요?)
104013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13 @ 그건 아니지예?(그건 아니지요?)
104013 #1 말이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잇으면 목에다가 줄을 걸어(말이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있으면 목에다가 줄을 걸어.)
104013 @ 예.(예.)
104013 #1 게믄 주인이 이 말을 끗엉 가민 이 말이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쭉 돌아가면서 붋아. 잘 붋아 물도.(그러면 주인이 이 말을 끌고 가면 이 말이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죽 돌아가면서 밟아. 잘 밟아 말도.)

104014 @ 말은 아까 한 오륙십 년 살면 말 이렇게 보면서 나이는 어떵 알아마씨? 뭘로?(말은 아까 한 오륙십 년 살면 말 이렇게 보면서 나이는 어떻게 알아요? 뭘로?)

104014 #1 그거 뭐 제일 처음 나오면 금승, 이수, 삼수, 사수 뭐 이런 ᄆᆞᆯ 나이가 말이여 그렇게 것도 나이가 잇어.(그거 뭐 제일 처음 나오면 하릅, 이듭, 세습, 나릅 뭐 이런 말 나이가 말이야 그렇게 것도 나이가 있어.)

104014 @ 예.(예.)

104014 #1 제일 처음 나오면 금승이라고 헤서 이수는 두 살 삼수는 세 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ᄆᆞᆯ 나이도 말이야 다 잇인데 정확허게는 잘 모르고.(제일 처음 나오면 하릅이라고 해서 이듭은 두 살 세습은 세 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말 나이도 말이야 다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104014 @ 예.(예.)

104014 #1 그렇게 잇다는 거는 조금 알고 잇어.(그렇게 있다는 거는 조금 알고 있어.)

104014 @ 그럼 크면 이빨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봐 가지고 몇 살 정도 아는 거 잇어마씨?(그럼 크면 이빨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봐 가지고 몇 살 정도 아는 거 있어요?)

104014 #1 ᄋᆞ. 이빨 보고 안다고 허더라고 ᄆᆞᆯ이나 소나 저 주인이 이빨을 이렇게 말이여 들러보면 아 이거는 몇 년생이구나 알더라고.(어. 이빨 보고 안다고 하더라고 말이나 소나 저 주인이 이빨을 이렇게 말이야 들어보면 아 이거는 몇 년생이구나 알더라고.)

104014 @ 아, 소도 이빨 보고마씨?(아, 소도 이빨 보고요?)

104014 #1 ᄋᆞ. 소도.(어. 소도.)

104014 @ 소는 뿔도 잇이난 그거로는 몰라마씨?(소는 뿔도 있으니까 그거로는 몰라요?)

104014 #1 그것도 뭐 참작은 하겟지. 보통 어느 정도 큰 거나 뭐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주로 말이지 소나 ᄆᆞᆯ에 대헤서 잘 아니까 사람들이 그것밧긔 엇이니까 밧에 가서 일ᄒᆞ거나 구루마로 다니거나 뭐 ᄒᆞ거나 헹 모든 거는 소허고 ᄆᆞᆯ을 의존헤 가지고 우리가 ᄀᆞ치 살앗다고 헤도 과언이 아니주게.(그것도 뭐 참작은 하겠지. 보통 어느 정도 큰 거나 뭐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주로 말이지 소나 말에 대해서 잘 아니까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일하거나 수레로 다니거나 뭐 하거나 해서 모든 거는 소하고 말을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104014 @ 보통 이빨 보고 나이를.(보통 이빨 보고 나이를.)

104014 #1 ᄋᆞ. 이빨 보고도 건줌 알고.(어. 이빨 보고도 거의 알고.)

104014 @ 예.(예.)

104014 #1 뭐.(뭐.)

104014 @ 털 ᄀᆞ튼 거는?(털 같은 거는?)

104014 #1 털로는 잘 모르고 그 말의 크기라든가 뭐 이렇게 그 주로 이빨 보고 안다는 말은 내가 들엇어.(털로는 잘 모르고 그 말의 크기라든가 뭐 이렇게 그 주로 이빨 보고 안다는 말은 내가 들었어.)

104015 @ 어르신 말 키우면서 기억 남는 거나 그런 거 좀 얘기헤줍서.(어르신 말 키우면서 기억 남는 거나 그런 거 좀 얘기해주십시오.)
104015 #1 뭐 그런 거는 별로 엇고 뭐 물 말이여 촐이나 주고 물 멕이러 다녓다는 그런 기억밧긔 엇고.(뭐 그런 거는 별로 없고 뭐 말 말이야 꼴이나 주고 물 먹이러 다녔다는 그런 기억밖에 없고.)
104015 @ 어렷을 때 처음 말 봣을 때는 무섭지 않안마씨? 몇 살 때 처음 봔마씨?(어렸을 때 처음 말 봤을 때는 무섭지 않았어요? 몇 살 때 처음 봤어요?)
104015 #1 나가 한 열두 살 정도에 그래도 말이 순허니까 아버지가 가서 물 먹이고 오라 하민 그 물막에 가 가지고 말이여 그걸 풀어 가지고 허면 나와 이제 턱이 잇인데 탁 넘엉 나오면 끗어 가지고 말이지 물 실컷 멕이고 또 데려와서 그대로 무끄어서 나오면 그것이 끗이여.(내가 한 열두 살 정도에 그래도 말이 순하니까 아버지가 가서 물 먹이고 오라 하면 그 마무간에 가 가지고 말이야 그걸 풀어 가지고 하면 나와 이제 턱이 있는데 탁 넘서어 나오면 끌어 가지고 말이지 물 실컷 먹이고 또 데려와서 그대로 묶어서 나오면 그것이 끝이야.)
104015 @ 그걸로 끗마씨?(그걸로 끝이요?)
104015 #1 게면 그다음에 촐 줘 불면 뭐 그게 다이주게.(그러면 그다음에 꼴 줘 버리면 뭐 그게 다이지.)
104015 @ 그럼 옹포리에도 다른 집도 키원마씨?(그럼 옹포리에도 다른 집도 키웠어요?)
104015 #1 으. 말도 잇인 사람도 많이 잇엇지. 물구루마라고 헤 가지고 소는 비싸지 말보다.(어. 말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 말수레라고 해 가지고 소는 비싸지 말보다.)
104015 @ 아, 소가 더 비싸마씨?(아, 소가 더 비싸요?)
104015 #1 으. 그러니깐 호꼼 헌 걸로 구루마 끗는 거는 말로 충분허니까게 물구루마라고 헤 가지고 유명헤. 물구루마로 헤 가지고 말이여 돈 버는 사람도 그때는 교통수단이 물구루마라.(어. 그러니깐 조그마한 걸로 수레 끄는 거는 말로 충분하니까 말수레라고 해 가지고 유명해. 말수레로 해 가지고 말이야 돈 버는 사람도 그때는 교통수단이 말수레야.)
104014 @ 예.(예.)
104015 #1 자동차나 이런 게 엇고 흐니까 주로 사람이 사용흐는 거는 물구루마 뭐 이사 헐 때라든가 보리, 조, 감자 이렇게 밧에서 집까지 운반허는 거 전부 다 물구루마로 운반허고 말이여 이렇게 허멍 다녓지.(자동차나 이런 게 없고 하니까 주로 사람이 사용하는 거는 말수레 뭐 이사 할 때라든가 보리, 조, 감자 이렇게 밭에서 집까지 운반하는 거 전부 다 말수레로 운반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녔지.)

먹이

104016 @ 그럼 말이나 소나 먹이는 똑같아마씨?(그럼 말이나 소나 먹이는 똑같아

요?)
104016 #1 건줌 같애.(거의 같아.)
104016 @ 건줌 같애마씨?(거의 같아요?)
104016 #1 ᄋᆞ. 풀 먹는 거는 촐 먹는 거는 똑같애.(어. 풀 먹는 거는 꼴 먹는 거는 똑같아.)
104016 @ 그럼 그 촐은 종류가 뭐, 뭐 잇어마씨?(그럼 그 꼴은 종류가 뭐, 뭐 있어요?)
104016 #1 아, 거게. 쉐촐이나 ᄆᆞᆯ촐이나 주로 말이지 뭐 그 목장에다가.(아, 그거. 쇠꼴이나 말꼴이나 주로 말이지 뭐 그 목장에다가.)
104016 @ 예.(예.)
104016 #1 오깨기기라고 그 풀이 잇어.(얼치기완두라고 그 풀이 있어.)
104016 @ 무슨 풀?(무슨 풀?)
104016 #1 오깨기라는 풀이 말이여.(얼치기완두라는 풀이 말이야.)
104016 @ 오깨기.(얼치기완두.)
104016 #1 오깨기라는 풀이 그거를 헤다그넹 ᄆᆞᆯ도 주고 소도 멕이고 뭐 개자리풀도 멕이고 뭐 풀은 말이여 아무런 거나 잘 먹어.(얼치기완두라는 풀이 그거를 해다가 말도 주고 소도 먹이고 뭐 개자리도 먹이고 뭐 풀은 말이야 아무런 거나 잘 먹어.)
104016 @ 그럼 소한테 멕이면 쉐촐이라고 허고 말한테 먹이면 말촐이라고 헤마씨? 촐을?(그럼 소한테 먹이면 쇠꼴이라고 하고 말한테 먹이면 말꼴이라고 해요? 꼴을?)
104016 #1 뭐 ᄆᆞᆯ도 그거 뭐 ᄆᆞᆯ촐 줘 불라 영 ᄀᆞᆯ아 ᄆᆞᆯ도.(뭐 말도 그거 뭐 말꼴 줘 버려라 이렇게 말해 말도.)
104016 @ 보릿짚은 땔감으로 사용허난 촐로는 안 쓰겟다예?(보릿짚은 땔감으로 사용하니까 꼴르는 안 쓰겠군요?)
104016 #1 보릿낭은게 보통 불 때는 데 사용ᄒᆞ주게.(보릿짚은 보통 불 때는 데 사용하지.)
104016 @ 땔감으로 사용하니깐 촐로는 사용 안 허고만씨?(땔감으로 사용하니깐 꼴로는 사용 안 하고요?)
104016 #1 그거 먹지 안 ᄒᆞ여.(그거 먹지 않아.)
104017 @ 그럼 촐 베기는 엇언마씨?(그럼 꼴 베기는 없었어요?)
104017 #1 저기 팔월 추석 넘으면 그 촐 쉐촐 비어다그넹 말이지 무끄어 놔그넹 눌어 놧다그넹 한 줌씩 빠다그넹 겨울에 주거든. 그 ᄆᆞᆯ이나 소나 기르는 사람은.(저기 팔월 추석 넘으면 그 꼴 쇠꼴 베어다가 말이지 묶어 놔서 쌓아 놨다가 한 줌씩 빻아서 겨울에 주거든. 그 말이나 소나 기르는 사람은.)
104017 @ 예.(예.)
104017 #1 그 위에다가 뭐 농사 못 짓는 땅에 ᄆᆞᆯ촐이나 쉐촐 키와. 경 헤그넹 그걸 가면은 팔월 추석 넘어그넹 멩질 넘어믄 말이지.(그 위에다가 뭐 농사 못 짓는 땅에 말꼴이나 쇠꼴 키워. 그렇게 해서 그걸 가면은 팔월 추석 넘어서 명절 넘으면 말이지.)

104017 @ 아, 멩질 넘엉 헤마씨?(아, 명절 넘어서 해요?)
104017 #1 응. 강 자리젓 싸고 말이여 밥 싸고 헤 가지고 말이여 옛날에는 호미로 다 비어 가지고 한 뭇씩 한 뭇씩 촐 한 뭇씩 무끄어 가지고 말이지 그걸 구루마에 실엉 집에다가 와 가지고 말이여 촐눌 눌이엔 ᄒᆞ여.(어. 가서 자리젓 싸고 말이야 밥 싸고 해 가지고 말이야 옛날에는 낫으로 다 베어 가지고 한 뭇씩 한 뭇씩 꼴 한 뭇씩 묶어 가지고 말이지 그걸 수레에 실어서 집에다가 와 가지고 말이야 꼴단 가리라고 해.)
104017 @ 예.(예.)
104017 #1 눌 눌 헤 가지고 촐눌을 눌어 놧다그넹 주젱이로 ᄂᆞ람지[86]로 다 더껑 주젱이 젤 위에 더꺼그넹 것도 비 맞으면 안 뒈니까.(가리, 가리 해 가지고 꼴단을 쌓아 놨다가 주저리로 'ᄂᆞ람지'로 다 덮어서 주저리 젤 위에 덮어서 것도 비 맞으면 안 되니까.)
104017 @ 예.(예.)
104017 #1 경 헤 가지고 집에다가 촐을 눌어 놧다가 매일 아침 하나 점심 하나 뭐 저녁 하나씩 조금씩 나눠주고.(그렇게 해 가지고 집에다가 꼴을 쌓아 놨다가 매일 아침 하나 점심 하나 뭐 저녁 하나씩 조금씩 나눠주고.)
104017 @ 촐 베러 갈 때는 팔월 추석 지나 가지고?(꼴 베러 갈 때는 팔월 추석 지나 가지고?)
104017 #1 응. 추석 지나 가지고 그 저기 저 목장에.(어. 추석 지나 가지고 그 저기 저 목장에.)
104017 @ 그럼 옹포리에도 촐 베는 데 잇언마씨?(그럼 옹포리에도 꼴 베는 데 있었어요?)
104017 #1 아, 촐 베는 거. 자기 다 그 농사짓는 사람이나 소나 물 가진 사람은 다 자기 먹을 말이지 준비할 수 잇인 그런 밧이 잇어. 촐왓, 촐왓이엔 헤그넹.(아, 꼴 베는 거. 자기 다 그 농사짓는 사람이나 소나 말 가진 사람은 다 자기 먹을 말이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밭이 있어. 꼴밭, 꼴밭이라고 해서.)
104017 @ 촐왓.(꼴밭.)
104017 #1 촐왓이 촐 베는 밧이라. 그거를 우리 제주도말로 촐왓이엔 ᄒᆞ주게.(꼴밭이 꼴 베는 밭이야. 그거를 우리 제주도말로 '촐왓'이라고 하지.)
104017 @ 그럼 그건 다 따로 가지고 잇언마씨?(그럼 그건 다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104017 #1 응. 건줌 말이여 갖고 잇다고 헤도 과언이 아니라. 경 허면 자기가 팔월 추석 넘으면 가서 혼 두서너 사람 데려가그넹 수눌음헹 가서 비엉 무껑 무꺼 가지고 말이여 뭐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나 비어그넹 말려.(어. 거의 말이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자기가 팔월 추석 넘으면 가서 한 두서너 사람 데려가서 품앗이해서 가서 베어서 묶어서 묶어 가지고 말이야 뭐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나 베어서

86)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ᄂᆞ래미, ᄂᆞ라미, ᄂᆞ람쥐, ᄂᆞ레, 놀래'라고도 한다.

말려.)
104017 @ 예.(예.)
104017 #1 어느 정도.(어느 정도.)
104017 @ 그 촐왓에서마씨?(그 꼴밭에서요?)
104017 #1 으. 촐왓에서 말려 가지고.(어. 꼴밭에서 말려 가지고.)
104017 @ 예.(예.)
104017 #1 한 삼사일 정도 헹 이제 말랏다 허면 무껑.(한 삼사일 정도 해서 이제 말랐다 하면 묶어서.)
104017 @ 예.(예.)
104017 #1 무꺼 가지고 구루마에 실엉 와그넹 집에 왕 눌어 촐눌.(묶어 가지고 수레이 실어서 와서 집에 와서 쌓아 꼴단.)
104017 @ 아, 구루마에 실어 가지고 집에 가져와서.(아, 수레에 실어 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104017 #1 가져와서 촐을 동그락허게 계단 계단 쌓으면서 우에까지 올라와. 경 헹 우에까지 오면은 마무리 뒈게끔 영 놓아. 경 ᄒᆞ면 ᄂᆞ람지로 이렇게 더끄어 가지고 젤 위에 주젱기로 더끄면은 비 뭐 비바람 쳐도 절대 끄덕도 안 헤. 그리고 제일 끗에 거는.(가져와서 꼴을 동그랗게 계단 계단 쌓으면서 위에까지 올라와. 그렇게 해서 위에까지 오면 마무리 되게끔 이렇게 놓아. 그렇게 하면 'ᄂᆞ람지'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젤 위에 주저리로 덮으면 비 뭐 비바람 쳐도 절대 끄덕도 안 해. 그리고 제일 끝에 거는.)
104017 @ 예.(예.)
104017 #1 뭐 조금 비가 맞을 수 잇지. 그렇지만 그런 건 관계엇고 안에 것이 중요헌 거니까.(뭐 조금 비를 맞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런 건 관계없고 안에 것이 중요한 거니까.)
104017 @ 아, 경 헹 집안에다가 촐을 가져왕 저장혜마씨?(아, 그렇게 해서 집안에다가 꼴을 가져와서 저장해요?)
104017 #1 촐눌 눌엉 겨울엔 목장에도 못 올라가고 추우니까 그런 ᄆᆞᆯ막이나 쉐막에서 말이지 키우는 거라. 이제 이삼월 뒈면은 밧 갈러 나가기 위헤서 말이지 여물 ᄀᆞ튼 저 뭐 콩 ᄀᆞ튼 거나 좀 맛잇인 거 죽으로 쒀서 멕이기도 ᄒᆞ고.(꼴단 쌓아서 겨울에는 목장에도 못 올라가고 추우니까 그런 마구간이나 외양간에서 말이지 키우는 거야. 이제 이삼월 되면 밭 갈러 나가기 위해서 말이지 여물 같은 저 뭐 콩 같은 거나 좀 맛있는 거 죽으로 쒀서 먹이기도 하고.)
104020 @ 그럼 그때 여물은 어떻게 마련헤마씨?(그럼 그때 여물은 어떻게 마련해요?)
104020 #1 콩깍지 ᄀᆞ튼 거나 이런 소가 좋아허는 특별헌 음식을 주인들이 잘 알거든. 이제 그걸 등개[87] ᄀᆞ루엔 헤그넹 보리 말이여 지어낫어. 제일 나중에 나오는 체가 잇어 체.(콩깍지 같은 거나 이런 소가 좋아하는 특별한 음식을 주인들이 잘 알거든. 이제 그

87) '등개'는 정미소에서 보리르 도정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등게'라고도 한다.

걸 ‘등개’ 가루라고 해서 보리 말이야 지었었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겨가 있어 겨.)
104020 @ 아, 그게 등개 가루.(아, 그게 ‘등개’ 가루.)
104020 #1 그게 우리말로는 체 보리체라고 허는데.(그게 우리말로는 겨 보릿겨라고 하는데.)
104020 @ 예.(예.)
104020 #1 보리 것도 즘쏠[88]이옌 헤 가지고 보리 갈아그넹 쌀이 안 뒈그넹 나오는 즘쏠 건 쏠이 아닌 즘쏠 ᄀᆞ튼 거 이런 등개 가루 뭐 보리 그런 말이여 그런 거를 ᄀᆞ치 놔 가지고.(보리 것도 ‘즘쏠’이라고 해 가지고 보리 갈아서 쌀이 안 되서 나오는 ‘즘쏠’ 건 쌀이 아닌 ‘즘쏠’ 같은 거 이런 ‘등개’ 가루 뭐 보리 그런 말이야 그런 거를 같이 놔 가지고.)
104020 @ 예.(예.)
104020 #1 그 저 콩깍지 ᄀᆞ튼 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소가 좋아허는 말이여 놓아그넹 가마솟에다가 끓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호꼼 식혀 가지고 소가 먹을 수 잇을 정도면 이만한 소 그릇에다가 말이여 퍼다 주면.(그 저 콩깍지 같은 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소가 좋아하는 말이야 놓아서 가마솥에다가 끓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금 식혀 가지고 소가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이만한 소 그릇에다가 말이야 퍼다 주면.)
104020 @ 아, 그렇게 여물을 준비헤마씨?(아, 그렇게 여물을 준비해요?)
104020 #1 ᄋᆞ. 그 여물을 먹으면 소가 힘이 나 가지고 밧 가는 데 충분한 영양을 보충ᄒᆞ고.(어. 그 여물을 먹으면 소가 힘이 나 가지고 밭 가는 데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고.)
104020 @ 그럼 여물은 보통 밧 갈 때만 주겠다예.(예.)
104020 #1 ᄋᆞ. 밧 갈 때만 주지. 일 안 헐 때는 안 주지. 자기 놀면서 그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허는 거니까 그땐 힘을 쓸 필요가 엇거든. 겐디 이삼월 뒈면은 원기를 차려 가지고 밧 갈아야 뒈니깐.(어. 밭 갈 때만 주지. 일 안 할 때는 안 주지. 자기 놀면서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니까 그땐 힘을 쓸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이삼월 되면 원기를 차려 가지고 밭 갈아야 되니깐.)
104020 @ 그때는 여물을.(그때는 여물을.)
104020 #1 여물을 말이여 끓여 가지고 말이여 맛잇게 끓여 가지고 한 이삼일 한 일주일 간격으로 멕여.(여물을 말이야 끓여 가지고 말이야 맛있게 끓여 가지고 한 이삼일 한 일주일 간격으로 먹여.)
104020 @ 예.(예.)
104020 #1 게면 그 소가 힘도 나고 잘 먹기도 하지마는 경 헤서 밧이 가서 힘도 나서.(그러면 그 소가 힘도 나고 잘 먹기도 하지마는 그렇게 해서 밭에 가서 힘도 나서.)
104020 @ 그럼 고산이나 신도 ᄀᆞ튼 데는 촐 베기 할 때는 단체로 하지 않안마씨?(그럼 고산이나 신도 같은 데는 꼴 베기 할 때는 단체로 하지 않았어요?)
104020 #1 아, 여기다가 그게 말하자면 수눌음이라고 헤 가지고 나가 소가 두 마리인

88) ‘즘쏠’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가 잇고 밧은 한 천 평 정도 잇으면 혼자 가그넹 그걸 다 비지 못허잖아.(아, 여기다가 그게 말하자면 품앗이라고 해 가지고 내가 소가 두 마리인가 있고 밭은 한 천 평 정도 있으면 혼자 가서 그걸 다 베지 못하잖아.)

104020 @ 기주마씨.(그렇지요.)

104020 #1 그러니까 동네 사람 하루에 그듸 가 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서너 시까지 헤 가지고 다 빌 사람이 주인이 다 알아.(그러니까 동네 사람 하루에 거기 가 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 서너 시까지 해 가지고 다 벨 사람이 주인이 다 알아.)

104020 @ 예.(예.)

104020 #1 멧 사람이면 그 밧을 촐왓을 다 빌 거라 다 알면 몇 사람만 빌엉 가그넹 점심 거기 가 가지고 말이여 집에서 보리밥 차롱착에 보리밥 싸고 자리젓 싸고 가졍 강.(몇 사람이면 그 밭을 꼴밭을 다 벨 거야 다 알면 몇 사람만 빌려서 가서 점심 거기 가 가지고 말이야 집에서 보리밥 채롱짝에 보리밥 싸고 자리젓 싸고 가지고 가서.)

104020 @ 예.(예.)

104020 #1 거기 가 가지고 말이여 한 열두시 넘으면 말이여 촐 비던 손으로 말이여 자리젓 헤그넹 말이여 보리밥 그때는 보리밥밧긔 엇이난 그것도 보리밥을 차롱에 놔야 쉬지 안 ᄒᆞ여 여름엔.(거기 가 가지고 말이야 한 열두시 넘으면 말이야 꼴 베던 손으로 말이야 자리젓 해서 말이야 보리밥 그때는 보리밥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보리밥을 채롱에 놔야 쉬지 않아 여름에는.)

104020 @ 아, 차롱?(아, 채롱?)

104020 #1 차롱 저기 저 차롱에 말이여 보리밥 놓으민 쉬지 안 ᄒᆞ거든.(채롱 저기 저 채롱에 말이야 보리밥 놓으면 쉬지 않거든.)

104020 @ 어르신 그 차롱은 어떵 생긴 거마씨?(어르신 그 채롱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104020 #1 아, 이만큼 헤 가지고 알차롱 우차롱이 잇어.(아, 이만큼 해 가지고 아래채롱 위채롱이 있어.)

104020 @ 그게 뭐마씨?(그게 뭐예요?)

104020 #1 아래에는 밥 놓고 식으면은 그거 더꺼서 가면.(아래에는 밥 놓고 식으면 그거 덮어서 가면.)

104020 @ 예.(예.)

104020 #1 대로 만든 거니까 바람이 다 들어가게 뒈어 잇어.(대로 만든 거니까 바람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

104020 @ 예.(예.)

104020 #1 그래 가지고 밥이 쉬지 안 ᄒᆞ여.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점심 먹고 그때는 반찬도 엇이난 주로 자리젓 말이지 가졍 가그넹 자리젓에 말이여 물 가져가그넹 먹어 가지고 그 촐 다 비면.(그래 가지고 밥이 쉬지 않아.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점심 먹고 그때는 반찬도 없으니까 주로 자리젓 말이지 가지고 가서 자리젓에 말이야 물 가져가서 먹어 가지고 그 꼴 다 베면.)

104020 @ 예.(예.)
104020 #1 이제 왓다그넹 한 이삼일 이제 날씨가 좋거든.(이제 왔다가 한 이삼일 이제 날씨가 좋거든.)
104020 @ 예.(예.)
104020 #1 가을이니까 한 이삼일 말려 가지고 그다음에 무꺼.(가을이니까 한 이삼일 말려 가지고 그다음에 묶어.)
104020 @ 예.(예.)
104020 #1 무끈 다음에는 물구루마 ᄒᆞ는 사름안티 빌엉 촐 실엉 집에 오면 경 ᄒᆞ면 이제 그 말이나 소에 대한 겨우살이가 준비 끗이라.(묶은 다음에는 말수레 하는 사람한테 빌려서 꼴 실어서 집에 오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말이나 소에 대한 겨우살이가 준비 끝이야.)
104020 @ 그럼 그것도 꽤 많이 준비허겟다예?(그럼 그것도 꽤 많이 준비하겠군요?)
104020 #1 많이 헌 사람은 많이 헤야 뒈고 또 적은 사람은 적게 허고.(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해야 되고 또 적은 사람은 적게 하고.)
04020 @ 예.(예.)
104020 #1 말이영 소랑 ᄀᆞ치 가진 사람은 곱빼기 준비헤야 뒈고.(말과 소랑 같이 가진 사람은 곱빼기 준비해야 되고.)
104020 @ 그럼 지금은 촐 베는 사람도 엇겟다예?(그럼 지금은 꼴 베는 사람도 없겠군요?)
104020 #1 이제는 엇고 그거는 이제는 전부 다 뭐 제초기 옛날 촐 베던 제초기는 벌초허는데 다 사용ᄒᆞ니깐 우리 부락에도 이제 말이나 소나 가진 사람은 엇어.(이제는 없고 그거는 이제는 전부 다 뭐 제초기 옛날 꼴 베던 제초기는 벌초하는데 다 사용하니까는 우리 부락에도 이제 말이나 소나 가진 사람은 없어.)
104020 @ 아, 그럼 옹포에는 촐왓은 엇겟다예?(아, 그럼 옹포에는 꼴밭은 없겠군요?)
104020 #1 아, 촐왓이야 잇주마는 그건 필요엇이난 가만히 내부는 거지. 뭐 땅 사는 사람 잇으면 팔기도 허고 말이지.(아, 꼴밭이야 있지만 그건 필요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리는 거지. 뭐 땅 사는 사람 있으면 팔기도 하고 말이지.)
104020 @ 지금 이제 소나 말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엇인가마씨?(지금 이제 소나 말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없나요?)
104020 #1 옹포리에는 소나 말이나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한 집안도 엇어.(옹포리에는 소나 말이나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한 집안도 없어.)

땔감

104022 @ 어르신 땔감 종류에는 뭐가 잇언마씨?(어르신 땔감 종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104022 #1 땔감의 종류는 주로 보리찍, 조찍. 보릿낭을 보리찍이렌 ᄒᆞ여. 보릿낭, 조

찍 그다음에 소나무.(땔감의 종류는 주로 보릿짚, 조짚. '보릿낭'을 보릿짚이라고 해. '보릿낭', 조짚 그다음에 소나무.)
104022 @ 솔낭?(소나무?)
104022 #1 소나무 입 떨어진 거 솔입 잇잖아. 솔입 긁어내 가지고 막 긁어다그넹 그거를 등짐으로 지어다가 말이여 집에다가 놔두면은.(소나무 잎 떨어진 거 솔잎 있잖아. 솔잎 긁어내 가지고 막 긁어다가 그거를 등짐으로 지어다가 말이야 집에다가 놔두면.)
104022 @ 예.(예.)
104022 #1 그 솔입이 불이 아주 잘 붙어.(그 솔잎이 불이 아주 잘 붙어.)
104022 @ 그게 솔가리 걷기꽝?(그게 솔가리 걷기입니까?)
104022 #1 솔입을 긁어다가 글겡이 닮은 거를 소낭 밑에 떨어진 거 잇이믄 그걸 긁어서 모으고 모으고 ᄒᆞ민 한 짐 질 수 잇게끔 딱 무꺼 가지고 헤서 등짐으로 지어다가 놔두고 또 그다음에 섬비라고 헤 가지고.(솔잎을 긁어다가 갈퀴 같은 거를 소나무 밑에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걸 글어서 모으고 모으고 하면 한 짐 지을 수 있게끔 딱 묶어 가지고 해서 등짐으로 지어다가 놔두고 또 그다음에 끙게라고 해 가지고.)
104022 @ 섬비.(끙게.)
104022 #1 섬비낭[89] 요 위에 좀 올라가면 그 나무 못 쓰는 나무들 잇어.('섬비낭' 요 위에 좀 올라가면 그 나무 못 쓰는 나무들 있어.)
104022 @ 예.(예.)
104022 #1 그런 것을 호미로 이렇게 헤 가지고 하면 그것이 섬비낭이고 그런 걸로 헤 가지고 섬비 만들고 ᄒᆞ는 거지.(그런 것을 낫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섬비낭'이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끙게 만들고 하는 거지.)
104022 @ 아, 그런 나무로?(아, 그런 나무로?)
104022 #1 ᄋᆞ. 그런 낭으로 자잘한 낭으로 막 무꺼 가지고 하면 그게 섬비뒈고 섬비낭들 비어 가지고 집에 갓당 놔둬그넹.(어. 그런 나무로 자잘한 나무로 막 묶어 가지고 하면 그게 끙게되고 '섬비낭'들 베어 가지고 집에 갔다가 놔둬서.)
104022 @ 예.(예.)
104022 #1 그거는 뭐 돼지고기 솖을 때나 그런 큰 거 헐 때는 낭 종류로 ᄒᆞ고 또 옛날에는 저기 저 그 소나무 비고 나면 소나무 뿌리가 이만히 남잖아.(그거는 뭐 돼지고기 삶을 때나 그런 큰 거 할 때는 나무 종류로 하고 또 옛날에는 저기 저 그 소나무 베고 나면 소나무 뿌리가 이만큼 남잖아.)
104022 @ 예.(예.)
104022 #1 게면 그걸로 도치로 찍어그넹 그것이 그거를 주로 말이지 영 캐다가 사용허고.(그러면 그걸로 도끼로 찍어서 그것이 그거를 주로 말이지 이렇게 캐다가 사용하고.)
104022 @ 예.(예.)
104022 #1 말똥도 아, 소똥. 소똥 ᄀᆞ튼 것도 뭐 파싹 말른 거 주워그넹 땔감으로도

89) '섬비낭'은 밭모퉁이에 자라는 잡목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사용허고 굴목[90]도 짓고 말이지.(말똥도 아, 소똥. 소똥 같은 것도 뭐 바싹 마른 거 주워서 땔감으로도 사용하고 '굴목'도 짓고 말이지.)

104023 @ 소똥, 말똥은 땔감으로도 이용하지예?(소똥, 말똥은 땔감으로도 이용하지요?)

104023 #1 으. 소똥도 이용허고 말똥은 잘 주워오지 안 헤.(어. 소똥도 이용하고 말똥은 잘 주워오지 않아.)

104023 @ 아, 말똥은 안 허고마씨?(아, 말똥은 안 하고요?)

104023 #1 주로 소똥만 소똥만 말이지 그때는 뭐 땔감이 엇일 때니까.(주로 소똥만 소똥만 말이지 그때는 뭐 땔감이 없을 때니까.)

104023 @ 예.(예.)

104023 #1 주로 말이지 목장 소 멕이는 데 그런 데 가면 내내 소똥이 많이 말이여 싸 가지고 파싹 말려야 뒈거든.(주로 말이지 목장 소 먹이는 데 그런 데 가면 내내 소똥이 많이 말이야 싸 가지고 바싹 말려야 되거든.)

104023 @ 예.(예.)

104023 #1 말려야 불 붙으지. 그게 다 촐이옌 헤 가지고 그 뭐고 풀 먹은 거니까.(말려야 불 붙지. 그게 다 꼴이라고 해 가지고 그 뭐고 풀 먹은 거니까.)

104023 @ 예.(예.)

104023 #1 뭐 냄새도 안 나. 일단 말르면 경 헤그넹 그걸 말이여 다 말이여 푸대에 담앙 집에 가져오민 그것도 불 잘 붙어.(뭐 냄새도 안 나. 일단 마르면 그렇게 해서 그걸 말이야 다 말이야 포대에 담아서 집에 가져오면 그것도 불 잘 붙어.)

104023 @ 아, 잘 붙어마씨?(아, 잘 붙어요?)

104023 #1 그거 오래가고 그런 것도 굴목이라고 헤 가지고 굴목 짓는 것도 소똥 많이 쓰고 ᄀᆞ스락허고 소똥이랑 ᄀᆞ스락에 불 붙영 그 위에 놓으면 이튿날까지 뜨뜻혜.(그거 오래가고 그런 것도 '굴목'이라고 해 가지고 '굴목' 짓는 것도 소똥 많이 쓰고 까끄라기하고 소똥이랑 까끄라기에 불 붙여서 그 위에 놓으면 이튿날까지 뜨뜻해.)

104023 @ ᄀᆞ스락은 뭐꽝?(까끄라기는 뭐입니까?)

104023 #1 ᄀᆞ스락은 보리의 그 껍질 보리껍질을 ᄀᆞ스락이라고 허거든.(까끄라기는 보리의 그 껍질 보리껍질을 까끄라기라고 하거든.)

104023 @ 예.(예.)

104023 #1 그걸 모여 놧다그넹 겨울에 굴목 짓는데 사용ᄒᆞ고.(그걸 모여 놨다가 겨울에 '굴목' 짓는데 사용하고.)

104025 @ 그럼 나무도 하진 않안마씨?(그럼 나무도 하지는 않았어요?)

104025 #1 게니깐 그 나무가 나뭇가지가.(그러니까 그 나무가 나뭇가지가.)

104025 @ 예.(예.)

104025 #1 큰 것들은 아니고 족은 것들 헤그넹 호미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헐 수 잇

90)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굴묵'이라고도 한다.

는 거를 요디 가면은 상당히 많거든.(큰 것들은 아니고 작은 것들 해서 낫으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가면 상당히 많거든.)
104025 @ 예.(예.)
104025 #1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걸 말이야 아침에 가 가지고 한두 시나 세 시까지 헹 거기서 점심까지 먹고 한 짐 차면.(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걸 말이야 아침에 가 가지고 한두 시나 세 시까지 해서 거기서 점심까지 먹고 한 짐 차면.)
104025 @ 예.(예.)
104025 #1 이제 짊어서 오다가 우리도 말이지 마중 나가. 버치니깐.(이제 짊어서 오다가 우리도 말이지 마중 나가. 힘드니까.)
104025 @ 많이 가져오니까마씨?(많이 가져오니까요?)
104025 #1 응. 나무를 지어오면은 뭐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많이 지어서 오래 걷지도 못ᄒᆞ면은 우리가 중간까지 마중 나가는 팡[91]이 잇어.(어. 나무를 지어오면 뭐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 많이 지어서 오래 걷지도 못하면 우리가 중간까지 마중 나가는 '팡'이 있어.)
104025 @ 예.(예.)
104025 #1 그디 가면 건줌 사람들이 다 대기ᄒᆞ여.(거기 가면 거의 사람들이 다 대기해.)
104025 @ 대기헤마씨?(대기해요?)
104025 #1 응. 뭐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강 대기ᄒᆞ면 그 시간 뒈면은 사람들이 내려와.(어. 뭐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가서 대기하면 그 시간 되면 사람들이 내려와.)
104025 @ 예.(예.)
104025 #1 겅 허면 짐을 이젠 우리가 지엉 집까지 오거든.(그렇게 하면 짐을 이제는 우리가 지어서 집까지 오거든.)
104025 @ 나무헐 때 요만한 장작같이 하는데 그렇게는 나무는 안 헨마씨?(나무할 때 요만한 장작같이 하는데 그렇게는 나무는 안 했어요?)
104025 #1 그런 큰 것들은 안 ᄒᆞ고 호미로 이렇게 찍을 수 잇인 정도.(그런 큰 것들은 안 하고 낫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정도.)
104025 @ 그럼 좀 작겟다예?(그럼 좀 작겠군요?)
104025 #1 작지. 많이 커 봐야 요정도라 두께가.(작지. 많이 커 봐야 요정도야 두께가.)
104025 @ 그럼 겨울 지내려면 많이 헤야 뒈지 않아마씨?(그럼 겨울 지내려면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104025 #1 어?(어?)

91) '팡'은 말(馬)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4025 @ 겨울 지내려면.(겨울 지내려면.)
104025 #1 그러니까 여름 내내 가서 ᄒᆞ는 거라. 몇 개월 허당 놔두믄 그것도 쌓여. 놔두면은 비 맞아도 문제엇주게.(그러니까 여름 내내 가서 하는 거야. 몇 개월 하다가 놔두면 그것도 쌓여. 놔두면 비 맞아도 문제없지.)
104025 @ 예.(예.)
104025 #1 날만 좋으면은 또 불 때면은 바로 ᄒᆞ니까 그것도 말이여 열 짐 스물 짐씩 솔입 ᄀᆞ튼 거 이런 땔감 ᄀᆞ튼 거는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다 저장헹 놔두는 거라.(날만 좋으면 또 불 때면 바로 하니까 그것도 말이야 열 짐 스물 심씩 솔잎 같은 거 이런 땔감 같은 거는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다 저장해서 놔두는 거야.)
104025 @ 예.(예.)
104025 #1 비 맞앙 안 뒈는 거는 ᄂᆞ람지로 헤서 덖으고.(비 맞아서 안 되는 거는 'ᄂᆞ람지'로 해서 덮고.)
104025 @ 비 맞으면 안 뒈는 거는 뭐, 뭐 잇어마씨?(비 맞으면 안 되는 거는 뭐, 뭐 있어요?)
104025 #1 뭐 보릿낭, 조찍 뭐 무슨 이런 말이지 뭐 솔입 ᄀᆞ튼 거 다 말이지 젖으면 안 뒈주.(뭐 보릿짚, 조짚 뭐 무슨 이런 말이지 뭐 솔잎 같은 거 다 말이지 젖으면 안 되지.)
104025 @ 그럼 여름에는 그 땔감 준비허느라고 고생 많앗겟다예?(그럼 여름에는 그 땔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겠군요?)
104025 #1 ᄋᆞ. 그렇지. 경 안 ᄒᆞ면은 겨울에 뭘로 살아? 부탄가스도 무슨 뭐 아무 것도 엇이난 방법이 엇잖아.(어.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겨울에 뭘로 살아? 부탄가스도 무슨 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104025 @ 아궁이 불 때려고 헤도 땔감 필요허잖아예?(아궁이 불 때려고 해도 땔감 필요하잖아요?)
104025 #1 ᄋᆞ. 아궁이에도 다 말이지 그걸로 다 땟거든. 밥을 엿날도 보리밥이나 뭐나 헤 먹을 때도 조찍으로 불 때고 다 헤 먹엇어.(어. 아궁이에도 다 말이지 그걸로 다 땠거든. 밥을 옛날도 보리밥이나 뭐나 해 먹을 때도 조짚으로 불 때고 다 해 먹었어.)
104025 @ 그럼 삼백육십오일 내내 땔감은 필요헷겟다예?(그럼 삼백육십오일 내내 땔감은 필요했겠군요?)
104025 #1 그렇지 언제나 땔감은 말이지 솔입도 긁어당 놔두고 뭐 한걸ᄒᆞ면.(그렇지 언제나 땔감은 말이지 솔잎도 긁어다가 놔두고 뭐 한가하면.)
104025 @ 예.(예.)
104025 #1 농사지을 때를 제외허고는 주로 땔감을 하러 다녓주.(농사지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땔감을 하러 다녔지.)
104025 @ 어르신도 어렷을 때 땔감 헤난마씨?(어르신도 어렸을 때 땔감 했었어요?)
104025 #1 아, 땔감 허러도 많이 다녀낫지.(아, 땔감 하러 많이 다녔었지.)
104025 @ 그럼 그 나무한 경험 좀 ᄀᆞᆯ아 줍서.(그럼 그 나무한 경험 좀 말해 주십시

오.)
104025 #1 그런 거는 나무 ᄀᆞ튼 거 어머니랑 ᄀᆞ치 가 가지고 말이지 어머니가 비어 주면 내가 짊어질 수 잇인 정도로 쪼금만 헤그넹 거 어머니 벗도 헤 주고 그렇게 헤 주고.(그런 거는 나무 같은 거 어머니랑 같이 가 가지고 말이지 어머니가 베어주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정도로 조금만 해서 거 어머니 벗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104025 @ 예.(예.)
104025 #1 어머니도 적당하게 한꺼번에 허려면 힘드난 그런 걸로 몇 번 갓다 오고 내가 못 갈 때는.(어머니도 적당하게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그런 걸로 몇 번 갔다 오고 내가 못 갈 때는.)
104025 @ 예.(예.)
104025 #1 어머니 나무ᄒᆞ영 오는 거를 내가 마중 나가 가지고 요 마을 훼관 뒤에다가 크게 헤 가지고 그 짐 내려놓고 지고 말이여 그런 쉬는 곳들이 잇어.(어머니 나무해서 오는 거를 내가 마중 나가 가지고 요 마을 회관 뒤에다가 크게 해 가지고 그 짐 내려놓고 지고 말이야 그런 쉬는 곳들이 있어.)
104025 @ 예.(예.)
104025 #1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마중 나가 가지고 집에 말이여 섬비 헤온 거를 집까지 지어오고 헷거든.(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마중 나가 가지고 집에 말이야 '섬비' 해온 거를 집까지 지어오고 했거든.)
104025 @ 그럼 여기 나무하는 데는 어디서 주로 헨마씨?(그럼 여기 나무하는 데는 어디서 주로 했어요?)
104025 #1 옹포는 주로 여기 저 그 그 경 멀지 않아 옹포 내용드르[92] 좀 지나면은 나무들이 옛날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앗거든.(옹포는 주로 여기 저 그 그 그렇게 멀지 않아 옹포 '내용드르' 좀 지나면 나무들이 옛날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104025 @ 예.(예.)
104025 #1 지금 ᄀᆞ치 말이지 무슨 뭐 전부 다 들이엔 ᄒᆞ주. 들에 나가면은 전부 다가 땔감이라. 저 협재 소나무 밑에는 전부 다 솔입이 말이여 이만큼 쌓여 잇어.(지금 같이 말이지 무슨 뭐 전부 다 들이라고 하지. 들에 나가면 전부 다가 땔감이야. 저 협재 소나무 밑에는 전부 다 솔잎이 말이야 이만큼 쌓여 있어.)
104025 @ 예.(예.)
104025 #1 게면 글겡이로 긁어 가지고 모아그넹 사각으로 노로 무꺼그넹 지어오고.(그러면 갈퀴로 긁어 가지고 모아서 사각으로 노로 묶어서 지어오고.)
104025 @ 아, 솔입은 이렇게 무꺼 가지고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마씨?(아, 솔잎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104025 #1 ᄋᆞ.(어.)
104025 @ 어떵 뭉쳐져마씨?(어떻게 뭉쳐져요?)
104025 #1 ᄋᆞ. 뭉쳐지게끔 흩어지지 못허게 열십자 ᄀᆞ튼 식으로.(어. 뭉쳐지게끔 흩어

92) '내용드르'는 옹포리에 있는 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형의 용 같아서 내용이라고도 한다.

지지 못하게 열십자 같은 식으로.)
104025 @ 그러니깐 뭘로 무꺼마씨?(그러니까는 뭘로 묶어요?)
104025 #1 아, 노로 노 가져가그넹 경 헤사 빠지지 않잖아.(아, 노로 노 가져가서 그렇게 해야 빠지지 않잖아.)
104026 @ 그럼 숫은 어떵 안 썬마씨?(그럼 숯은 어떻게 안 썼어요?)
104026 #1 ᄋᆞ?(어?)
104026 @ 숫, 숫은 만들어본 적 엇언마씨?(숯, 숯은 만들어본 적 없었어요?)
104026 #1 아, 숫은 옹포에서나 이 제주도에서 숫 만드는 디는 한 군데 옛날 잇엇다는 소리는 들엇인디 그거는 참나무 아니면 숫이 안 뒌다고 ᄒᆞ여.(아, 숯은 옹포에서나 이 제주도에서 숯 만드는 데는 한 군데 옛날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거는 참나무 아니면 숯이 안 된다고 해.)
104026 @ 아, 숫은 참나무만?(아, 숯은 참나무만?)
104026 #1 ᄋᆞ. 참나문가 그걸로 헤 가지고 천이백돈가 몇 도에 구워 가지고 식혀 가지고 숫 만든다는 말은 들엇는데.(어. 참나문가 그걸로 해 가지고 천이백도인가 몇 도에 구워 가지고 식혀 가지고 숯 만든다는 말은 들었는데.)
104026 @ 예.(예.)
104026 #1 그것도 뭐 가마솟 저런 말이지 도자기 굽는 식으로 말이지 숫도 만든다고 허더라고.(그것도 뭐 가마솥 저런 말이지 도자기 굽는 식으로 말이지 숯도 만든다고 하더라고.)
104026 @ 참나무로?(참나무로?)
104026 #1 참나무 아니면 안 뒌다고 ᄒᆞ여.(참나무 아니면 안 된다고 해.)
104026 @ 그럼 숫 굽는 거는 잘 모르시겟다예?(그럼 숯 굽는 거는 잘 모르시겠군요?)
104026 #1 ᄋᆞ. 몰르지 구경헤 보지도 안 ᄒᆞ고.(어. 모르지 구경해 보지도 못하고.)

사냥

104028 @ 어르신 사냥은 헤 보신 적 잇어마씨?(어르신 사냥은 해 보신 적 있어요?)
104028 #1 사냥은 안 헤 봇어.(사냥은 안 해 봤어.)
104028 @ 보통 사람들이 사냥가면 뭐, 뭐 잡안마씨?(보통 사람들이 사냥가면 뭐, 뭐 잡았어요?)
104028 #1 꿩.(꿩.)
104028 @ 꿩 그다음에.(꿩 그다음에.)
104028 #1 지달이.(오소리.)
104028 @ 아, 지달이.(아, 오소리.)
104028 #1 지달이도 잡앗고 꿩도 잡앗고 뭐 그 웨에는 사냥헤 가지고 잡아오는 거는.(오소리도 잡았고 꿩도 잡았고 뭐 그 외에는 사냥해 가지고 잡아오는 거는.)

104028 @ 노루는?(노루는?)
104028 #1 노루는 근래 와서 헷지마는 우리 어릴 때는 노루가 눈이 막 오니까 옹포 부두까지 내려온 기억이 잇어.(노루는 근래 와서 했지마는 우리 어릴 때는 노루가 눈이 막 오니까 옹포 부두까지 내려온 기억은 있어.)
104028 @ 아, 노루가 한라산에서?(아, 노루가 한라산에서?)
104028 #1 으. 눈이 많이 오니까 옹포 포구까지 와그넹 그거 막 잡는 소동도 나고 헷는데.(어. 눈이 많이 오니까 옹포 포구까지 와서 그거 막 잡는 소동도 나고 했는데.)
104028 @ 예.(예.)
104028 #1 노루는 고기가 말이지 노린내 난다고 허더라고.(노루는 고기가 말이지 노린내 난다고 하더라고.)
104029 @ 꿩 사냥 갈 때는 뭐, 뭐 가졍간마씨?(꿩 사냥 갈 때는 뭐, 뭐 가져갔어요?)
104029 #1 꿩 사냥은 그때는 총이 엇이니까 꿩코[93].(꿩 사냥은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꿩코'.)
104029 @ 꿩코?('꿩코'?)
104029 #1 꿩콕이라고 뭐냐면 요만한 그 저기 저 철사 가는 철사로 동글락허게 만들어서 꿩이 다니는 길목에 나무 옆에다가.('꿩코'이라고 뭐냐면 요만한 그 저기 저 철사 가는 철사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꿩이 다니는 길목에 나무 옆에다가.)
104029 @ 예.(예.)
104029 #1 그걸 메 가지고 이렇게 꿩이 들어가면은 확 홅아지게끔 말이여 만드는 것이 꿩코라. 꿩코를 한 스무 개 서른 개 놓으면은.(그걸 매 가지고 이렇게 꿩이 들어가면 확 홅아지게끔 말이야 만드는 것이 '꿩코'야. '꿩코'를 한 스무 개 서른 개 놓으면.)
104029 @ 예.(예.)
104029 #1 보통 열 마리도 잡고 말이여 다섯 마리도 잡고 말이여 걸 전문적으로 ᄒᆞ는 사람들은 말이지 잘 잡아.(보통 열 마리도 잡고 말이야 다섯 마리도 잡고 말이야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잘 잡아.)
104029 @ 옛날엔 꿩이 많안마씨?(옛날엔 꿩이 많았어요?)
104029 #1 많앗지. 꿩이 게난 꿩코로 헤서 잡고 사냥이라 헤그넹 총 쏴 가지고 잡는 그런 사냥이 아니고 주로 말이지 저 지달이도 말이여 거 굴에 살고 헤 가지고는.(많았지. 꿩이 그러니까 '꿩코'로 해서 잡고 사냥이라 해서 총 쏴 가지고 잡는 그런 사냥이 아니고 주로 말이지 저 오소리도 말이야 거 굴에 살고 해 가지고는.)
104031 @ 예. 그럼 그 지달이는 어떵 잡안마씨?(예. 그럼 그 오소리는 어떻게 잡았어요?)
104031 #1 지달이는 굴속에 사니까 이쪽에 말이여 연기로 말이여 사람이 그 불 피와서 연기를 피우민.(오소리는 굴 속에 사니까 이쪽에 말이야 연기로 말이야 사람이 그 불 피워서 연기를 피우면.)
104031 @ 예.(예.)

93)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4031 #1 저 쪽 꼭 지달이는 양쪽이 터 잇인 곳에서 사니까 거 그렇게 영리흔 놈이거든. 그 지달이 하나 잡으면 그때 돈 돈 십만 원 줫거든.(저 쪽 꼭 오소리는 양쪽이 터 있는 곳에서 사니까 거 그렇게 영리한 놈이거든. 그 오소리 하나 잡으면 그때 돈 돈 십만 원 줬거든.)

104031 @ 예.(예.)

104031 #1 이제 이제는 건줌 백만 원도 넘을 거라.(이제 이제는 거의 백만 원도 넘을 거야.)

104031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4031 #1 응. 그거 하나 잡으면 지달이로 엿 딸려 먹으면은 한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어디 뭐 지달이엿이라고 헤 가지고 그거 기름으로 뭰 거거든 건줌.(어. 그거 하나 잡으면 오소리로 엿 딸려 먹으면 한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어디 뭐 오소리엿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기름으로 된 거거든 거의.)

104031 @ 아.(아.)

104031 #1 그 지달이 습성이 뭐냐면 자기가 잘 먹어졋는지 못 먹어졋는지 밧에 가서 이렇게 둥글러 가지고 이걸로 어 넘어가지 못허면 넘어가면 잘 먹고 그런 속담도 잇어.(그 오소리 습성이 뭐냐면 자기가 잘 먹어졌는지 못 먹어졌는지 밭에 가서 이렇게 굴러 가지고 이걸로 어 넘어가지 못하면 넘어가면 잘 먹고 그런 속담도 있어.)

104030 @ 노루 사냥은 옛날에 어떵 헷주마씨?(노루 사냥은 옛날에 어떻게 했지요?)

104030 #1 노루 사냥도 나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구물로 헤서 잡앗는지는 몰라도 노루는 그때 잘 내려오지 않앗어.(노루 사냥도 나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물로 해서 잡았는지는 몰라도 노루는 그때 잘 내려오지 않았어.)

104032 @ 그럼 족제비 잡을 때 덧은 어떵 뀡코랑 비슷헤마씨?(그럼 족제비 잡을 때 덫은 어떻게 '뀡코'랑 비슷해요?)

104032 #1 아니 그건 전혀 틀려. 족제비 덧은 어떻게 헷냐면.(아니 그건 전혀 달라. 족제비 덫은 어떻게 했냐면.)

104032 @ 예.(예.)

104032 #1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먹이를 놓고 헤서 이것이 족제비가 먹으면 말이여 탁 눌러지게 돼 잇어. 여기다가 두꺼운 돌이나 뭐나 놔 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먹이면 딱 뎅기면 딱 이렇게.(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먹이를 놓고 해서 이것이 족제비가 먹으면 말이야 탁 눌러지게 돼 있어. 여기다가 두꺼운 돌이나 뭐나 놔 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먹으면 딱 당기면 딱 이렇게.)

104032 @ 덮치게?(덮치게?)

104032 #1 응.(어.)

104032 @ 뀡코는 이런 거 아니마씨?('뀡코'는 이런 거 아니에요?)

104032 #1 뀡코는 이만큼헌 철사로 멘들어 가지고 여기다 코로 영 헤서 이듸 하나는 나무에 메고 동글락허게 놔두면 뀡이 들어가는 길목에 다 알아.('뀡코'는 이만큼한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올무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는 나무에 매고 동그랗게 놔두

면 꿩이 들어가는 길목에 다 알아.)
104032 @ 아, 길목에 놓고 이렇게.(아, 길목에 놓고 이렇게.)
104032 #1 으. 경 허면 꿩이 말이여 싹 들어가다가 목에 탁 걸리면 그대로 죽는 거주게 아주 예리한 가는 철사가 잇어. 그거 꿩 눈에는 잘 안 보이지.(어. 그렇게 하면 꿩이 말이야 싹 들어가다가 그대로 죽는 거지 아주 예리한 가는 철사가 있어. 그거 꿩 눈에는 잘 안 보이지.)
104032 @ 좀 다르다예?(좀 다르군요?)

5. 바다일

105001 @ 그면 그 바다에서 하는 일은 뭐 어떤 것들이 있주마씨 옹포리는?(그러면 그 바다에서 하는 일은 뭐 어떤 것들이 있지요 옹포리는?)
105001 #1 주로 바다에는 옛날 사람들이 그 비식용 해조료 가고 헷어. 제주도말로 ᄆᆞᆷ, ᄆᆞᆷ이.(주로 바다에는 옛날 사람들이 그 비식용 해조류 가고 했어. 제주도말로 모자반, 모자반이.)
105001 @ 예.(예.)
105001 #1 겨울에 말이야 파도에 의헤서 그것이 밀려들어와 이 저 해안가에.(겨울에 말이야 파도에 의해서 그것이 밀려들어와 이 저 해안가에.)
105001 @ 예.(예.)
105001 #1 밀려 들어오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말이여 ᄆᆞᆷ통이라고 헤 가지고 이제 반으로 말이여 뭐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ᄆᆞᆷ통 몇 반 몇 반 헤 가지고 그 사람들이 ᄆᆞᆷ이 올라오면은 그걸 건져다가 집에서 말려서.(밀려 들어오면 그거를 사람들이 말이야 모자반통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반으로 말이야 뭐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모자반통 몇 반 몇 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자반이 올라오면 그걸 건져다가 집에서 말려서.)
105001 @ 예.(예.)
105001 #1 그 거름으로 사용허던지 아니면은 말이지 뭐 그런 비식용 ᄆᆞᆷ은 주로 거름으로 사용ᄒᆞ고.(그 거름으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말이지 뭐 그런 비식용 모자반은 주로 거름으로 사용하고.)
105001 @ 예.(예.)
105001 #1 말렷다가 그 저기 저 감귤 하는 디 팔기도 ᄒᆞ고.(말렸다가 그 저기 저 감귤 하는 데 팔기도 하고.)
105001 @ 예.(예.)
105001 #1 그 뭐 꼭 ᄆᆞᆷ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태랑 파래 종류도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말이지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류에서 춤ᄆᆞᆷ[94]이라고 ᄒᆞᆫ ᄆᆞᆷ도 잇어.(그 뭐 꼭

94) '춤ᄆᆞᆷ'은 '주ᄆᆞᆷ(이파리와 공기주머니가 가늘고 자잘한 모자반)'보다 잎과 줄기가 굵으며, 데쳐서 무쳐 먹거나 자반으로 만들어 먹는 모자반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모자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태랑 파래 종류도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말이지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류에서 '춤몸'이라고 한 모자반도 있어.)

105001 @ 아, 그건 몸 종류마씨?(아, 그건 모자반 종류예요?)

105001 #1 어. 몸 종류인데 비식용 해조류라고 헤서 몸은 못 먹는 거고.(어. 모자반 종류인데 비식용 해조류라고 해서 모자반은 못 먹는 거고.)

105001 @ 못 먹는 거는 뭐에 써마씨?(못 먹는 거는 뭐에 써요?)

105001 #1 거름, 거름으로 주로 아주 거름이 잘 돼. 과수원에는 몸 거름보다 좋은 게 엇어.(거름, 거름으로 주로 아주 거름이 잘 돼. 과수원에는 모자반 거름보다 좋은 게 없어.)

105001 @ 그럼 제주도에서만 거의 잘 쓰겟다예?(그럼 제주도에서만 거의 잘 쓰겠군요?)

105001 #1 어. 그렇게 헤서 몸 사가는 사람이 잇어게. 몸을 말이여 많이 말려두면 뭐 사가.(어. 그렇게 해서 모자반 사가는 사람이 있어. 모자반을 말이야 많이 말려두면 뭐 사가.)

105001 @ 그럼 몸쿡 헐 때 몸은?(그럼 모자반국 할 때 모자반은?)

105001 #1 그거는 춤몸이라고 헤 가지고 그 몸 자체가 파란색을 띠어 가지고 아주 말이여 돼지고기에는 그 춤몸 아니면은 음식 궁합이 딱 맞는 게.(그거는 '춤몸'이라고 해 가지고 그 모자반 자체가 파란색을 띠어 가지고 아주 말이야 돼지고기에는 그 '춤몸' 아니면 음식 궁합이 딱 맞는 게.)

105001 @ 예.(예.)

105001 #1 돼지 숢아 나면은 그 몸쿡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 저 돼지에는 아주 뭐 천생연분이나 마찬가지주게.(돼지 삶으면 그 모자반국이라고 하면 그게 그 저 돼지에는 아주 뭐 천생연분이나 마찬가지이지.)

105001 @ 그건 춤몸?(그건 '춤몸'?)

105001 #1 어. 춤몸 그런 게 일단은 올라오면은.(어. '춤몸' 그런 게 일단은 올라오면.)

105001 @ 예.(예.)

105001 #1 바당으로 가 가지고 말이지 몸을 말이지 자기 헐만큼 지어서 집에 와서 말려 가지고 말이지 그 바닷가에서라도 말려 가지고 말리면은 또 집으로 가져놧당 팔기도 허고.(바다로 가 가지고 말이지 모자반을 말이지 자기 할만큼 지어서 집에 와서 말려 가지고 말이지 그 바닷가에서라도 말려 가지고 말리면 또 집으로 가져놨다가 팔기도 하고.)

105001 @ 예.(예.)

105001 #1 거름으로 밧에도 거름으로 사용ᄒᆞ고 이렇게 ᄒᆞ고 춤몸 ᄀᆞ튼 거는 몸자반[95]이라고 헤 가지고 춤몸 자반이라고 헤서 간장이나 뒌장 담으면 그 장물 잇잖아?(거름으로 밭에도 거름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춤몸' 같은 거는 '몸자반'이라고 해 가지

95) '몸자반'은 모자반으로 만든 자반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고 '춤몸' 자반이라고 해서 간장이나 된장 담으면 그 장물 있잖아?)
105001 @ 예.(예.)
105001 #1 그듸 담가 놧다그넹 말이여 먹으면 몸자반이라고 헤 가지고 상당히 맛잇인 반찬이거든 그게. 그때 당시에는 먹을 거 벨로 엇을 때니까 말이여 자리도 ᄒᆞ고 그런 몸자반이라든가 이런 거밧긔 서민들이 먹을 게 엇엇주게.(거기 담가 놨다가 말이야 먹으면 '몸자반'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맛있는 반찬이거든 그게. 그때 당시에는 먹을 거 별로 없을 때니까 말이야 자리돔도 하고 그런 '몸자반'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서민들이 먹을 게 없었지.)
105001 @ 그 배로 낚시는 많이 안 하션마씨?(그 배로 낚시는 많이 안 하셨어요?)
105001 #1 아니 그때는 동력이 별로 엇으니깐 사람들이 배를 지어 가지고 말이여 생선을 낚으다가 팔지.(아니 그때는 동력이 별로 없으니깐 사람들이 배를 지어 가지고 말이야 생선을 낚다가 팔지.)
105001 @ 아, 그렇게 헤 가지고?(아, 그렇게 해 가지고?)
105001 #1 ᄋᆞ. 거 뭐 세 마리 네 마리 한 꿰미라고 헤 가지고.(어. 거 뭐 세 마리 네 마리 한 꿰미라고 해 가지고.)
105001 @ 한 꿰미?(한 꿰미?)
105001 #1 꿰미, 꿰미 한 꿰미에 얼마 그 저 묶음인지 말하자면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은 한 묶음 한 꿰미에 얼마하면 이거 한 만 원 세 마리 네 마리 헤그넹 그 어부들이 꿰는 게 똑같애. 떠봐도 정확헤.(꿰미, 꿰미 한 꿰미에 얼마 그 저 묶음인지 말하자면 우리 현대말로 말하면 한 묶음 한 꿰미에 얼마하면 이거 한 만 원 세 마리 네 마리 해서 그 어부들이 꿰는 게 똑같아. 떠봐도 정확해.)
105001 @ 무게가 똑같은 거마씨?(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105001 #1 ᄋᆞ. 그렇게 정확성을 가졋다고 헤도 과언이 아니주게.(어. 그렇게 정확성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105002 @ 그럼 아까 어르신 얘기헷던 것 중에 나온 건디예. 감태나 듬북[96]은 어떵 채취헤마씨?(그럼 아까 어르신 얘기했던 것 중에 나온 건데요. 감태나 모자반은 어떻게 채취해요?)
105002 #1 듬북 ᄀᆞ튼 것도 전부 다 해조류인데 그런 것도 다 저기 저 거름용으로 사용ᄒᆞ지.(모자반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조류인데 그런 것도 다 저기 저 거름용으로 사용하지.)
105002 @ 감태도?(감태도?)
105002 #1 감태는 원래 말이지 저기 저 옥도정기 원료로 저기 저 사용됏는데 그것만 그때 말이여 받아가는 사람이 잇어낫는데.(감태도 원래 말이지 저기 저 요오드팅크 원료로 저기 저 사용됐는데 그것만 그때 말이야 받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105002 @ 예.(예.)
105002 #1 그거는 벨도로 말이여 구분헤그넹 그때도 감태는 감태대로 팔기도 헤.(그

96) '듬북'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로써, 먹지 않는 거름용 해조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거는 별도로 말이야 구분해서 그때도 감태는 감태대로 팔기도 해.)
105002 @ 아, 감태는?(아, 감태는?)
105002 #1 듬북은 아니고.(모자반은 아니고.)
105002 @ 아, 감태만?(아, 감태만?)
105002 #1 ᄋᆞ.(어.)
105002 @ 그럼 그거는 개인적으로 채취헤마씨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헤마씨?(그럼 그거는 개인적으로 채취해요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해요?)
105002 #1 아니 개인적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거는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해안선에 인제 바닷가에 인제 온 거니까.(아니 개인적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거는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해안선에 인제 바닷가에 인제 온 거니까.)
105002 @ 예.(예.)
105002 #1 그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서 말이여 영 보면은 말이여 ᄆᆞᆷ 올라왓저 허면은 내려가 가지고 말이여 강 말이여 다 지어오곡 말이여 웃밧[97]에 올려가지고 말이여 말려 가지고 또 집으로 가져오곡.(그 마을 사람들이 내려가서 말이야 이렇게 보면 말이야 모자반 올라왔어 하면 내려가 가지고 말이야 가서 말이야 다 지어오고 말이야 '웃밧'에 올려가지고 말이야 말려 가지고 또 집으로 가져오고.)
105002 @ 근데 공동으로 하는 데도 잇더라고마씨.(근데 공동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05002 #1 아, 공동으로 헐 수 잇겟지. 뭐 마을 공동으로 이거 뭐 그거는 마을 총훼에서 뭐 이건 공동으로 말렷당 공동으로 팔아서 말이지 그 나온 사람들 일당이라도 주고 말이여 뭐 어떻게 ᄒᆞ는 거는 마을에서 지정허는 데로 뭐 허겟지마는 우리 옛날에는.(아, 공동으로 할 수 있겠지. 뭐 마을 공동으로 이거 뭐 그거는 마을 총회에서 뭐 이건 공동으로 말렸다가 공동으로 팔아서 말이지 그 나온 사람들 일당이라도 주고 말이야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마을에서 지정하는 데로 뭐 하겠지마는 우리 옛날에는.)
105002 @ 예.(예.)
105002 #1 개인으로 헤낫어.(개인으로 했었어.)
105002 @ 아, 그럼 여기는 다 개인으로 헨마씨?(아, 그럼 여기는 다 개인으로 했어요?)
105002 #1 ᄋᆞ.(어.)
105002 @ 감태가 다 그 감태도 팔 수 잇구나예?(감태가 다 그 감태도 팔 수 있군요?)
105002 #1 ᄋᆞ. 거 ᄆᆞᆷ도 팔앗어. 자기가 필요허지 안 헹 거름으로 사용 안 ᄒᆞ면.(어. 거 모자반도 팔았어. 자기가 필요하지 안 해서 거름으로 사용 안 하면.)
105002 @ 예.(예.)
105002 #1 ᄆᆞᆷ 받아가는 사람 잇어낫다니깐.(모자반 받아가는 사람 있었다니깐.)
105002 @ 그면 옛날에 그 그냥 손으로 다 바닷가에서 올라온 거 채취헨마씨?(그러면

97) '웃밧'은 '조간대(潮間帶)의 상층'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옛날에 그 그냥 손으로 다 바닷가에서 올라온 거 채취했어요?)
105002 #1 아, 게. 손으로 그거는 다 끊어져서 올라온 거니까 그 저기 뭐 채취헐 만한 도구도 필요엇지.(아, 그럼. 손으로 그거는 다 끊어져서 올라온 거니까 그 저기 뭐 채취할만한 도구도 필요없지.)
105002 @ 망텡이나 뭐 이런 거 필요허지 않아마씨?(망태기나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105002 #1 게난 그거 가져올라면 고약이라고 ᄒᆞ는 말이여 저 뭐냐 소 껍질로 뭰 걸로 말이여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뭰 로.(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려면 고약이라고 하는 말이야 저 뭐냐 소 껍질로 된 걸로 말이야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걸로.)
105002 @ 예.(예.)
105002 #1 거기다가 놔 가지고 지면은 이 등에 안 젖잖아. 이 소가죽으로 만든 그 고약이라고 허는 건데.(거기다가 놔 가지고 지면 이 등에 안 젖잖아. 이 소가죽으로 만든 그 고약이라고 하는 건데.)
105002 @ 예.(예.)
105002 #1 그거에 놓아서 주로 지어 와.(그거에 놓아서 주로 지어 와.)
105002 @ 아, 그걸로?(아, 그걸로?)
105002 #1 ᄋᆞ. 그 뭐 망텡이나 놓으민 물 질질 흘령 사람 뭐 다니질 못 ᄒᆞ지. 옷 다 젖고 안 뒈니깐 그런 걸로 사용헹 지어 왓어.(어. 그 뭐 망태기나 놓으면 물 질질 흘려서 사람 뭐 다니지를 못 하지. 옷 다 젖고 안 되니깐 그런 걸로 사용해서 지어 왔어.)
105003 @ 그면 고둥이나 게도 잡안마씨?(그러면 고둥이나 게도 잡았어요?)
105003 #1 아, 고동이나 게 ᄀᆞ튼 거는 그 일 년을 통헤서 삼월 음력 삼월 보롬이라 헤서 물지라고 헤 물지.(아, 고동이나 게 같은 거는 그 일 년을 통해서 삼월 음력 삼월 보름이라 해서 무수기라고 해 무수기.)
105003 @ 물지?(무수기?)
105003 #1 ᄋᆞ. 삼월 보롬 물지에는 집에 앚으면 도독놈이라고 헐 정도로 말이여 인제 다 저기 가서 고동 잡고 게 잡고 보멀 잡고 한 때가 잇어. 옛날엔 삼월 보롬 물지라고 헤서 물이 제일 많이 나갈 때가.(어. 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집에 앉으면 도둑놈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야 인제 다 저기 가서 고둥 잡고 게 잡고 고둥 잡고 한 때가 있어. 옛날에는 삼월 보름 무수기라고 해서 물이 제일 많이 나갈 때가.)
105003 @ 아, 제일 많이 나갈 때?(아, 제일 많이 나갈 때?)
105003 #1 ᄋᆞ.(어.)
105003 @ 그럼 고동이나 게는 것도 손으로 캐마씨?(그럼 고둥이나 게는 것도 손으로 캐요?)
105003 #1 아, 거 손으로 ᄀᆞᆯ겡이 가졍 가그넹 말이여 조개도 케고 뭐 무슨 깅이도 잡고 보멀도 잡고 말이여 뭐 별로 먹을 거 엇일 때니까 그때는 그걸 주로 말이여 케다가 먹고 헷지.(아, 거 손으로 호미 가지고 가서 말이야 조개도 캐고 뭐 무슨 게도 잡고 고둥도 잡고 말이야 뭐 별로 먹을 거 없을 때니까 그때는 그걸 주로 말이야 캐다가 먹고

했지.)

105005 @ 그럼 종류는 뭐 엇인가마씨? 깅이나 뭐.(그럼 종류는 뭐 없을까요? 게나 뭐.)

105005 #1 아, 종류도 여러 가지가 가면 깅이도 돌킹이도 잇고 풋깅이[98]도 잇고 뭐 깅이도 춤깅이도 잇곡 뭐 여러 가지가 잇어 종류도.(아, 종류도 여러 가지가 가면 게도 부채게도 있고 '풋깅이'도 있고 뭐 게도 참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종류도.)

105005 @ 그럼 종류는 어떵 구별하주마씨?(그럼 종류는 어떻게 구별하지요?)

105005 #1 아, 그거 색깔로 보면 다 알아. 풋깅이 ᄀᆞ튼 거는 풋 색깔 ᄀᆞ치 말이여 얼룩덜룩ᄒᆞ고 돌킹이 ᄀᆞ튼 거는 등어리가 돌 닮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 손으로 헤도 이렇게 헤도 문드러지지 안 헤.(아, 그거 색깔로 보면 다 알아. '풋깅이' 같은 거는 팥 색깔 같이 말이야 얼룩덜룩하고 부채게 같은 거는 등이 돌 닮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해도 이렇게 해도 문드러지지 않아.)

105005 @ 문드러지지 않아마씨?(문드러지지 않아요?)

105005 #1 춤깅이 ᄀᆞ튼 거는 예쁘고 말이여 먹기도 좋고 말이지 뭐 또 저기 내킹이[99]라고 헤서 내에서 자라는 깅이 ᄀᆞ튼 것도 이 뭐고 엄지발가락에다가 털 막 달리고 그런 내킹이도 잇고 말이여 깅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참게 같은 거는 예쁘고 말이야 먹기도 좋고 말이지 뭐 또 저기 '내킹이'라고 해서 내에서 자라는 게 같은 것도 이 뭐고 엄지발가락에다가 털 막 달리고 그런 '내킹이'도 있고 말이야 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105005 @ 깅이도 종류가 많구나예?(게도 종류가 많군요?)

105005 #1 ᄋᆞ. 한 스무 가지 이상 될 거야 종류가.(어. 한 스무 가지 이상 될 거야 종류가.)

105005 @ 그럼 색깔이나 생긴 거 특징 ᄀᆞ튼 거 보고.(그럼 색깔이나 생긴 거 특징 같은 거 보고.)

105005 #1 ᄋᆞ. 그렇게 헤서 ᄒᆞ고 깅이는 건줌 다 먹어. 똥깅이[100]도 잇고 말이지 뭐 벌건 깅이도 잇고 여러 가지고 웃밧[101]에 사는 깅이도 잇고 말이여.(어. 그렇게 해서 하고 게도 거의 다 먹어. '똥깅이'도 있고 말이지 뭐 빨간 게도 있고 여러 가지고 '웃밧'에 사는 게도 있고 말이야.)

105004 @ 그믄 보멀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그러면 고둥 종류는 뭐, 뭐 있었어요?)

105004 #1 보멀 종류는 말이지 뭐 셍이보멀[102]도 잇고 말이지 뭐 저 뭐 가마귀보멀도 잇고 무슨 먹보멀도 잇고 셍이보멀도 잇고 뭐 메옹이렌 그런 보멀도 잇고 보멀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둥 종류는 말이지 뭐 '셍이보멀'도 있고 말이지 뭐 저 뭐 타래고둥도 있고 무슨 밤고둥도 있고 '셍이보멀'도 있고 뭐 두드럭고둥이라고 그런 고둥도 있고

98) '풋깅이'는 '아주 작은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풋겡이, 풋긍이'라고도 한다.
99) '내킹이'는 '냇물에 사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냇깅이, 냇겡이'라고도 한다.
100) '똥깅이'는 '먹을 수 없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똥겡이'라고도 한다.
101) '웃밧'은 '윗밭'의 뜻으로 조간대 위쪽을 말한다.
102) '셍이보멀'은 '조간대(潮間帶) 상층에 서식하는 패류의 일종'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셍이벨망'이라고도 한다.

고둥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105004 @ 그럼 그 보멀은 어떵 구별헤마씨?(그럼 그 고둥은 어떻게 구별해요?)
105004 #1 아, 그것도 대충 모양새 봐서 다 ᄒᆞ여.(아, 그것도 대충 모양새 봐서 다 해.)
105004 @ 그럼 대충 어떵 생겻인지 얘기헤줍서.(그럼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105004 #1 이 보멀 종류는 전부 다 이 여기 잇잖아. 이런 종류를 그 가면은 말이여 그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잇거든.(이 고둥 종류는 전부 다 이 여기 있잖아. 이런 종류를 그 가면 말이야 그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
105004 @ 예.(예.)
105004 #1 보멀 게난 뭐 무슨 뭐 수들이보멀도 잇고 먹보멀도 잇고 웃밧에는 셍이보멀도 잇고 뭐 무슨 저 뭐 아주 많아. 보멀도 그 그렇게 헤 가지고 그거를 잡아다가 그 보멀 종류도 다 먹어.(고둥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두드럭고둥도 있고 밤고둥도 있고 '웃밧'에는 '셍이보멀'도 있고 뭐 무슨 저 뭐 아주 많아. 고둥도 그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잡아다가 그 고둥 종류도 다 먹어.)
105004 @ 아, 다 먹고. 그럼 그건 어떵 먹주마씨?(아, 다 먹고. 그럼 그건 어떻게 먹지요?)
105004 #1 그 삶아서 이렇게 내어서 먹는데 주로 말이여 먹는 거는 먹보멀이랑 수두리보멀이라고 헤 가지고 그거는 좀 커, 거 맛도 잇고.(그 삶아서 이렇게 내어서 먹는데 주로 말이야 먹는 거는 밤고둥이랑 두드럭고둥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좀 커. 거 맛도 있고.)
105004 @ 그럼 어르신이 이거 다 잡은 거마씨?(그럼 어르신이 이거 다 잡은 거예요?)
105004 #1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그 종류별로 죽은 거를 다 가져다가 모양을 내어서 흔 거지.(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그 종류별로 죽은 거를 다 가져다가 모양을 내어서 한 거지.)
105004 @ 보멀도 종류가 진짜 많다예?(고둥도 종류가 진짜 많군요?)
105004 #1 ᄋᆞ. 종류 많지. 한 열 가지 이상 될 거라. 조개도 종류가 많아.(어. 종류 많지. 한 열 가지 이상 될 거야. 조개도 종류가 많아.)
105004 @ 조개는 어떤 종류가 잇언마씨?(조개는 어떤 종류가 있었어요?)
105004 #1 조개는 옛날 저기 저 협재에는 말이지 조개가 아주 맛잇인 조개가 낫는데 이제는 조개 캐는 해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캐지도 안 ᄒᆞ고 이 아래 가면 쪼그만헌 꼬막 종류 몇 개 이제는 조개 ᄀᆞ튼 것도 잘 안 캐.(조개는 옛날 저기 저 협재에는 말이지 조개가 아주 맛있는 조개가 났는데 이제는 조개 캐는 해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캐지도 않고 이 아래 가면 쪼그마한 꼬막 종류 몇 개 이제는 조개 같은 것도 잘 안 캐.)
105004 @ 아, 무사마씨?(아, 왜요?)

105004 #1 그게 주로 육지서 오는 거 사 먹고 그러니깐.(그게 주로 육지에서 오는 거 사 먹고 그러니깐.)
105006 @ 옛날에는 그 해산물 잡을 때 횃불을 이용헨마씨?(옛날에는 그 해산물 잡을 때 횃불을 이용했어요?)
105006 #1 ᄋᆞ. 밤에 가서 그 해산물을 잡는 게 뭐냐면은 무꾸럭이라고 헤 가지고 낙지 그거를 여 우리 제주도말로 무꾸럭이라고 ᄒᆞ여. 무꾸럭 잡으러 갈 때는 횃불 들렁 처음에는 뭐 대롱으로 만들어서 기름 담아 가지고 앞에다가 험벅 말이여 못 쓰는 험벅 놔 가지고.(어. 밤에 가서 그 해산물을 잡는 게 뭐냐면 문어라고 해 가지고 낙지 그거를 여 우리 제주도말로 '무꾸럭'이라고 해. 문어 잡으러 갈 때는 횃불 들어서 처음에는 뭐 대롱으로 만들어서 기름 담아 가지고 앞에다가 헝겊 말이야 못 쓰는 헝겊 놔 가지고.)
105006 @ 예.(예.)
105006 #1 이렇게 헤 가지고 불붙이면 불붙엇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무꾸럭 잡으러 갈 때는 조찍 잇잖아.(이렇게 해 가지고 불붙이면 불붙었는데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문어 잡으러 갈 때는 조짚 있잖아.)
105006 @ 예.(예.)
105006 #1 조, 조찍을 막 이렇게 촘촘촘촘 막 무꺼 가지고.(조, 조짚을 막 이렇게 촘촘촘촘 막 묶어 가지고.)
105006 @ 예.(예.)
105006 #1 그거를 불붙여 가지고 한꺼번에 확 타지 못ᄒᆞ게 천천히, 천천히 탈 수 있게끔 헤 가지고 ᄒᆞ다가 그 후에 대롱이라는 게 나왓어.(그거를 불붙여 가지고 한꺼번에 확 타지 못하게 천천히, 천천히 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하다가 그 후에 대롱이라는 게 나왔어.)
105006 @ 대롱?(대롱?)
105006 #1 대롱 그 파이프에 알로 막고 그 속에 기름 놓고 제일 우에는 험벅 놔 가지고 말이지 그걸 딱 막아 가지고 기름 이렇게 헤서 ᄒᆞ면은 기름이 조금 흘러나오면은 불똥이 떨어지면 무꾸럭이 착착 나오면은 그게 잡고 그렇게 그 무꾸럭 잡는 것이 그때 바다에 가면 꼭 무꾸럭만 잡는 것이 아니고.(대롱 그 파이프에 아래로 막고 그 속에 기름 놓고 제일 위에는 헝겊 놔 가지고 말이지 그걸 딱 막아 가지고 기름 이렇게 해서 하면 기름이 조금 흘러나오면 불똥이 떨어지면 문어가 착착 나오면 그게 잡고 그렇게 그 문어 잡는 것이 그때 바다에 가면 꼭 문어만 잡는 것이 아니고.)
105006 @ 다른 거는 뭐 잡안마씨?(다른 거는 뭐 잡았어요?)
105006 #1 소라도 잇으면 소라도 잡고 말이지 문어 ᄀᆞ튼 것도 잇으면 잡고.(소라도 있으면 소라도 잡고 말이지 문어 같은 것도 있으면 잡고.)
105006 @ 횃불로도?(횃불로도?)
105006 #1 ᄋᆞ. 횃불로도 가면은 그때 가면은 밤에는 웬만하면은 그 많이 나와. 보멀 ᄀᆞ튼 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물이 말이여 물때라고 헤 가지고 물에 들락날락하는 거에 아주 민감하거든. 이렇게 딱 쌋다가 물이 들기 시작허면은 그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

작헤.(어. 횃불로도 가면 그때 가면 밤에는 웬만하면 그 많이 나와. 고둥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물이 말이야 물때라고 해 가지고 물에 들락날락하는 거에 아주 민감하거든. 이렇게 딱 썼다가 물이 밀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105006 @ 아, 나오기 시작헤마씨?(아, 나오기 시작해요?)
105006 #1 응. 소라나 전복이나 무슨 뭐 보멀이나 뭐 큰 돌 아래 잇인 것도 이놈들이 물들어오는 거를 감지허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어. 소라나 전복이나 무슨 뭐 고둥이나 뭐 큰 돌 아래 있는 것도 이놈들이 물밀려오는 거를 감지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105006 @ 그럼 이렇게 비춰 가지고 잡는 거마씨?(그럼 이렇게 비춰 가지고 잡는 거예요?)
105006 #1 응. 뭐 힘들이지 않게 ᄒᆞ고 잡는 거지. 위에 나왕 보이는 것만 잡는 거니깐.(어. 뭐 힘들이지 않게 하고 잡는 거지. 위에 나와서 보이는 것만 잡는 거니깐.)
105006 @ 그걸로 유인하는 거지예?(그걸로 유인하는 거지요?)
105006 #1 불 비치면 나오거든 건줌. 게고 저 불 비춰 가지고 나오는 것이 고기도 집어등이라고 헤 가지고 큰 배에다가 전기 ᄀᆞ튼 거 싸 가지고 고기를 그 모이는 거주게. 등불 밑에다가.(불 비추면 나오거든 거의. 그리고 저 불 비춰 가지고 나오는 것이 고기도 집어등이라고 해 가지고 큰 배에다가 전기 같은 거 켜 가지고 고기를 그 모이는 거지. 등불 밑에다가.)
105006 @ 오징어 배 ᄀᆞ튼 거예?(오징어 배 같은 거요?)
105006 #1 응. 오징어나 뭐 한치나 오징어나 고등어나 집어등이라고 헤 가지고 등을 크게 불 싸 가지고 고기를 유인헹 갈치나 낚으고 말이여 한치도 낚으고 고등어도 낚으고.(어. 오징어나 뭐 한치나 오징어나 고등어나 집어등이라고 해 가지고 등을 크게 불 켜 가지고 고기를 유인해서 갈치나 낚고 말이야 한치도 낚고 고등어노 낚고.)
105006 @ 그럼 옛날엔 그래서 횃불로 그거를.(그럼 옛날에는 그래서 횃불로 그거를.)
105006 #1 횃불로 바다에 내려가 가지고 물지 물때 봐 가지고 아무 때나 강 허는 것도 아니고.(횃불로 바다에 내려가 가지고 무수기 물때 봐 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105006 @ 예.(예.)
105006 #1 보통 뭐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물까지.(보통 뭐 너무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무날까지.)
105006 @ 예.(예.)
105006 #1 물때가 그 계속 물들어잇을 때는 안 뒈고 그 여기가 물때가 말이지 한 물로 시작헤서 열두물까지 잇어 가지고 보름 정도에 순환으로 왓다갓다ᄒᆞ니깐 한 달에 두 번은 말이여 물지가 오지.(물때가 그 계속 물밀어있을 때는 안 되고 그 여기가 물때가 말이지 한무날로 시작해서 열두무날까지 있어 가지고 보름 정도에 순환으로 왔다갔다하니까 한 달에 두 번은 말이야 무수기가 오지.)
105006 @ 물때는 어떵 알아마씨?(물때는 어떻게 알아요?)
105006 #1 보름이 여섯물. 구뭄이 여섯물 이렇게 주기적으로 돼 잇어. 게고 이제는

수협에 말이여 그 칼렌다에 몇 물, 몇 물, 몇 물 다 물때가 몇 물이 다 나와 칼렌다 엇어도 보름이면은 여섯물. 구뭄, 구뭄이면 여섯물 이게 딱 입력이 뒈니까 오늘이 음력 며칠이면 다 알아.(보름이 여섯무날. 그믐이 여섯무날 이렇게 주기적으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는 수협에서 말이야 그 캘린더에 몇 물, 몇 물, 몇 물 다 물때가 몇 물이 다 나와 캘리더 없어도 보름이면 여섯무날. 그믐, 그믐이면 여섯무날 이게 딱 입력이 되니까 오늘이 음력 며칠이면 다 알아.)

105007 @ 그면 그 원담[103]이나 갯담으로도 고기 잡지 않안마씨?(그러면 그 '원담'이나 '갯담'으로도 고기 잡지 않아요?)

105007 #1 거 옛날에 원담 쌓아 가지고 말이여 멜 말이여 엄청나게 말이여 멜사둘이라고 헤 가지고 사둘.(거 옛날에 '원담' 쌓아 가지고 말이야 멸치 말이야 엄청나게 말이야 멸치사둘이라고 해 가지고 사둘.)

105007 @ 사둘(사둘.)

105007 #1 사둘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둥그렇게 헤서 아래는 구물로 헤 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헤 가지고.(사둘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동그랗게 해서 아래는 그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해 가지고.)

105007 @ 예.(예.)

105007 #1 원담이 이렇게 뒈면 물만 잇인 데로 말이여 나갈라고 할 때 거기 대어 가지고 딱 뜨면 한번에 한 말도 뜨고 말이지 뭐 몇 번 안 떠 가지고 구루마로도 한 두 구루마 뜨고 말이여.('원담'이 이렇게 되면 물만 있는 데로 말이야 나가려고 할 때 거기 데어 가지고 딱 뜨면 한번에 한 말도 뜨고 말이지 뭐 몇 번 안 떠 가지고 수레로도 한 두 수레 뜨고 말이야.)

105007 @ 그럼 원담은 어떵 만들어마씨?(그럼 '원담'은 어떻게 만들어요?)

105007 #1 원담은 그 물 지형을 봐 가지고 담을 쌓아 놔두는 거라. 양쪽에 말이여 다 빌레고.('원담'은 그 물 지형을 봐 가지고 담을 쌓아 놔두는 거야. 양쪽에 말이야 다 너럭바위고.)

105007 @ 예.(예.)

105007 #1 물이 왓다갓다허는 사이가 요만큼 잇으면 거기다고 돌로 말이야 다 헤서.(물이 왔다갔다하는 사이가 요만큼 있으면 거기다가 돌라 말이야 다 해서.)

105007 @ 물 들어왓다 나갈 때?(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105007 #1 멜이 막 들어와 가지고 물 나갈 때까지도 멜은 잘 안 나가.(멸치가 막 들어와 가지고 물 나갈 때까지도 멸치는 잘 안 나가.)

105007 @ 아.(아.)

105007 #1 건줌 물이 물 싸기 시작헤 가지고 그 원담이 말이여 보여야 멜 나갈라고 하니까 이놈들은 나가다 보니까 걸리니까 또 다시 물 잇인 데로 헤엄치고 헤엄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물이 다 나가면 막 죽기도 헤. 멜 막 주워도 한 뒈 두 뒈 주어와.(거의

103) '갯담,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물이 물 써기 시작해 가지고 그 '원담'이 말이야 보여야 멸치 나가려고 하니까 이놈들은 나가다 보니까 걸리니까 또 다시 물 있는 데로 헤엄치고 헤엄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물이 다 나가면 막 죽기도 해. 멸치 막 주워도 한 되 두 되 주어와.)

105007 @ 아, 기구나예?(어, 그렇군요?)

105007 #1 ᄋᆞ.(어.)

105007 @ 그럼 갯담은?(그럼 '갯담'은?)

105007 #1 아, 동네 사람들이 헹 놔두지 거. 이제 우리 동네 여기 잇인 사람들이.(아, 동네 사람들이 해서 놔두는 거. 이제 우리 동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5007 @ 예.(예.)

105007 #1 바다에 관심 잇인 사람들이.(바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105007 @ 예.(예.)

105007 #1 가서 뭐 조금만 허면 어디 큰 데는 원담이 굉장히 길어. 뭐 한 이삼백 미터 뒈는 정도도 잇어.(가서 뭐 조금만 하면 어디 큰 데는 '원담'이 굉장히 길어. 뭐 한 이삼백 미터 되는 정도도 있어.)

105008 @ 여름에 태풍 오면 다 무너지고 막 보수헤야 허잖아예? 보수는 어떵 허주마씨? 개인으로?(여름에 태풍 오면 다 무너지고 막 보수해야 하잖아요? 보수는 어떻게 하지요? 개인으로?)

105008 #1 우리 ᄀᆞ튼 경우는 길지 안 ᄒᆞ니까 그 뭐 두어 사람만 강 올려놔도 한 시간만 그디 강 올려놔도 충분ᄒᆞ고.(우리 같은 경우는 길지 않으니까 그 뭐 두어 사람만 가서 올려놔도 한 시간만 거기 가서 올려놔도 충분하고.)

105008 @ 예.(예.)

105008 #1 길게 마을 원담들은 전부 다 동원헤.(길게 마을 '원담'들은 전부 다 동원해.)

105008 @ 아, 전부 다?(아, 전부 다?)

105008 #1 ᄋᆞ. 어촌계원이든지 뭐 그 저기 멜 뜨러 주로 원인이 고기라고 하면은 그거밧긔 엇엇으니까 자리허고 멜밧긔 엇엇으니까 인제 그거를 헤서 먹을라면 원담은 보수헤야 허니까 한 사람으로 ᄒᆞ는 거는 안뒈니까 주민들 다 나와 가지고.(어. 어촌계원이든지 뭐 그 저기 멸치 뜨러 주로 원인이 고기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자리돔하고 멸치밖에 없었으니까 인제 그거를 해서 먹으려면 '원담'은 보수해야 하니까 한 사람으로 하는 거는 안되니까 주민들 다 나와 가지고.)

105008 @ 어르신은 그거 보수 헤 보신 적 없지예?(어르신은 그거 보수 해 보신 적 없지요?)

105008 #1 아니 보수헤 봣지. 게서 우리도 어 그 원에 가서 말이지 멜도 막 떠다가 팔기도 허고 먹기도 허고.(아니 보수해 봤지. 그래서 우리도 어 그 '원'에 가서 말이지 멸치도 막 떠다가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105009 @ 멜 말고 또 어떤 고기 잡아마씨 원담에서?(멸치 말고 또 어떤 고기 잡아요 '원담'에서?)

105009 #1 아니 원담에는 주로 멜밧긔 주로 들어오는 게 멜.(아니 '원담'에는 주로 멸치밖에 주로 들어오는 게 멸치.)
105009 @ 어쩌다가 다른 고기 들어오는 거는?(어쩌다가 다른 고기 들어오는 거는?)
105009 #1 ᄋᆞ. 어쩌다가 멜 따라 들어오는 고기가 잇주마는 주로 따치라는 그 저 그런 거라든가 뭐 별로 오징어 종류 쪼금 하나 두 개 들어오곡.(어. 어쩌다가 멸치 따라 들어오는 고기가 있지마는 주로 독가시치라는 그 저 그런 거라든가 뭐 별로 오징어 종류 쪼금 하나 두 개 들어오고.)
105009 @ 멜은 그럼 주로 떼로 다니니까 경 허지예?(멸치는 그럼 주로 떼로 다니니까 그렇게 하지요?)
105009 #1 ᄋᆞ.(어.)
105010 @ 그럼 멜 말고 그냥 고기들은 그냥 물고기들은 어떵 낚주마씨?(그럼 멸치 말고 그냥 고기들은 그냥 물고기들은 어떻게 낚지요?)
105010 #1 옛날 사람들이야 주로 말이지 그 낚시로 가서 생선도 낚으고 중간에는 주낫이라고 헤 가지고 그 저기 말이야 앞에다가 낚시에다가 미끼 꿰어 가지고 쭉 풀어 가지고 두어 시간 잇다가 거둬 오면은 우럭, 볼락 뭐 무슨 여러 가지 생선 ᄀᆞ튼 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주낫에 올라오고 이제는 말이여 주로 시기에 따라서 뭐 갈치 뭐 벤자리 뭐 무슨 고등어 시기적으로 그 고기가 왓다갓다하는 것들이 잇어.(옛날 사람들이야 주로 말이지 그 낚시로 가서 생선도 낚고 중간에는 주낙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저기 말이야 앞에다가 낚시에다가 미끼 꿰어 가지고 쭉 풀어 가지고 두어 시간 있다가 거둬 오면 우럭, 볼락 뭐 무슨 여러 가지 생선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주낙에 올라오고 이제는 말이야 주로 시기에 따라서 뭐 갈치 뭐 벤자리 뭐 무슨 고등어 시기적으로 그 고기가 왔다갔다하는 것들이 있어.)
105010 @ 아, 시기적으로?(아, 시기적으로?)
105010 #1 시기적으로 정착성 어류라고 헤 가지고 잇인 거는 여기에서만 사는 고기는 주로 말이여 코셍이라던가 어렝이라던가 물메기라던가 뭐 무슨 볼락이라던가 이런 아주 그 해안선에 말이여 인접헤서 사는 감팍, 졸락, 볼락 뭐 이런 것들은.(시기적으로 정착성 어류라고 해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만 사는 고기는 주로 말이야 놀래기라든가 황놀래기라든가 물메기라든가 뭐 무슨 볼락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해안선에 말이야 인접해서 사는 쏨뱅이, 노래미, 볼락 뭐 이런 것들은.)
105010 @ 예.(예.)
105010 #1 정착성 어류라고 헤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사는 거고.(정착성 어류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사는 거고.)
105010 @ 예.(예.)
105010 #1 훼유성 어류라고 허면 돌아다니게끔 말이지 때가 뒈면 한치가 말이여 일로 와서 말이여 한 번에 몇 백 킬로 잡힌다던가 갈치가 와서 말이지 몇 상자 뭐 낚은다던가 말이여 고등어가 뭐 한다거나 말이지 도미나 돔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기를 이 어부들이 다 잘 알아. 그 시기에 그에 맞는 구물로 가서 들어오는 길목에 구물을 쳐 가지

고 고기 잡아당 풀주.(회유성 어류라고 하면 돌아다니게끔 말이지 때가 되면 한치가 말이야 이리로 와서 말이야 한 번에 몇 백 킬로 잡힌다든가 갈치가 와서 말이지 몇 상자 뭐 낚은다든가 말이야 고등어가 뭐 한다거나 말이지 도미나 돔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기를 이 어부들이 다 잘 알아. 그 시기에 그에 맞는 그물로 가서 들어오는 길목에 그물을 쳐 가지고 고기 잡아다가 팔지.)

105010 @ 아, 경 잡앗구나예.(아, 그렇게 잡았군요.)

105010 #1 많이 잡아와. 이제는 어군 탐지기 웬만허면 다 배에 잇어 가지고 딱 보면 어디가 고기가 많이 다니고 그 고기 들어오는 그 길목들을 다 안다니까.(많이 잡아와. 이제는 어군 탐지기 웬만하면 다 배에 있어 가지고 딱 보면 어디가 고기가 많이 다니고 그 고기 들어오는 그 길목들을 다 안다니까.)

105010 @ 옛날엔 그런 것도 엇엇인디 잘도 잡앗다예?(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잘 잡았군요?)

105010 #1 아, 게. 사람들이 그거는 거 자기 지혜로 ᄒᆞ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주로 자리뜰에를 자리뜰에 큰 이만한 사둘을 가져 가그넹 이 비양도 앞에 저기 수경이라고 헤 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래 말이여 유리 놓고 영 보면 자리가 다니는 거를 다 알아.(아, 그럼. 사람들이 그거는 거 자기 지혜로 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주로 자리뜰에를 자리뜰에 큰 이만한 사둘을 가져 가서 이 비양도 앞에 저기 수경이라고 해 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래 말이야 유리 놓고 이렇게 보면 자리돔이 다니는 거를 다 알아.)

105010 @ 아.(아.)

105010 #1 자리가 밑에 바위에 잇으면 사둘 이렇게 내려그넹 자리가 그쪽으로 싹 모엿다 하면 그대로 말이여 사둘 이렇게 올리면 한 말도 뜨고 어떨 때는 두 말도 뜨고 뭐 한 뒈도 뜨고 게서 몇 번을 헤 가지고 떠서 가경 와서 팔고 헷지.(자리돔이 밑에 바위에 있으면 사둘 이렇게 내려서 자리돔이 그쪽으로 싹 모였다 하면 그대로 말이야 사둘 이렇게 올리면 한 말도 뜨고 어떨 때는 두 말도 뜨고 뭐 한 되도 뜨고 그래서 몇 번을 해 가지고 떠서 가지고 와서 팔고 했지.)

105010 @ 그럼 여기서는 주로 어떤 물고기가 잡현마씨?(그럼 여기서는 주로 어떤 물고기가 잡혔어요?)

105010 #1 옛날에는 주로 뭐 자리. 자리를 자리가 주로 말이여 서민들 말이여 제일 많이 그거 헤 오면은 그 자리를 젓 담아. 젓을 담아 놓으면은 일 년 내내 먹을 수 잇으니까 촐 홀 때도 자리젓 가져가. 밧이 갈 때도 그거 자리젓 가져가. 겨울에는 자리젓 요만한 곳에 밥ᄒᆞ는 데에 놔 가지고 좀 뜸 들이고 하면은 자리도 상당히 맛잇어.(옛날에는 주로 뭐 자리돔. 자리돔을 자리돔이 주로 말이야 서민들 말이야 제일 많이 그거 해 오면 그 자리돔을 젖 담아. 젓을 담아 놓으면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 꼴 할 때도 자리젓 가져가. 밭에 갈 때도 그거 자리젓 가져가. 겨울에는 자리젓 요만한 곳에 밥하는 데에 놔 가지고 좀 뜸 들이고 하면 자리돔도 상당히 맛있어.)

105011 @ 그 낚시 헐 때 낚싯대나 낚싯줄이나 뽕돌 ᄀᆞ튼 거는 옛날엔 어떵 만들엇주

마씨?(그 낚시 할 때 낚싯대나 낚싯줄이나 봉돌 같은 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지요?)
105011 #1 그, 그거는 다 사서 만들엇지.(그, 그거는 다 사서 만들었지.)
105011 @ 요즘에는 막 현대식으로 잘 나오잖아예?(요즘에는 막 현대식으로 잘 나오잖아요?)
105011 #1 ᄋᆞ. 이제는 만들어서 다 나오고 구물도 다 기계로 찍어서 나오니깐.(어. 이제는 만들어서 다 나오고 그물도 다 기계로 찍어서 나오니깐.)
105011 @ 지금은 기계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만들엇인가마씨?(지금은 기계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만들었었나요?)
105011 #1 손으로 다 만들엇주게.(손으로 다 만들었지.)
105012 @ 그 고기 잡을 때 작살로도 잡잖아예?(그 고기 잡을 때 작살로도 잡잖아요?)
105012 #1 ᄋᆞ.(어.)
105012 @ 그럼 작살은 어떵 대나무로 만들엇수광 옛날에?(그럼 작살은 어떻게 대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105012 #1 ᄋᆞ. 대나무로.(어. 대나무로.)
105012 @ 예.(예.)
105012 #1 거 총살이라고 ᄒᆞ는데.(거 총살이라고 하는데.)
105012 @ 예.(예.)
105012 #1 대나무에다가 우이로 이렇게 파서 안에는 전부 다 공간 만들고 게서 이만한 큰 말이지 그 저기 쉐로 말이여 좋은 쉐로 이렇게 두 개 살 만들어서 하나로 이렇게 헤 가지고 이제 그 고무줄로 땡겨 가지고 그 작살에다가 헤서 이것 땡기는 걸로 땡기면 촥 나가 가지고 고기 쏘게 뒈는 거라.(대나무에다가 위로 이렇게 파서 안에는 전부 다 공간 만들고 그래서 이만한 큰 말이지 그 저기 쇠로 말이야 좋은 쇠로 이렇게 두 개 살 만들어서 하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당겨 가지고 그 작살에다가 해서 이것 당기는 걸로 당기면 착 나가 가지고 고기 쏘게 되는 거야.)
105012 @ 아.(아.)
105012 #1 작살이 그거 다 집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건줌 불미왕 그 저기 가 가지고 앞에 거는 못 만드니까.(작살이 그거 다 집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거의 대장간 그 저기 가 가지고 앞에 거는 못 만드니까.)
105012 @ 예.(예.)
105012 #1 그거는 불미왕이라고 헤 가지고 말이지 그 저기 칼 뭐 무슨 ᄀᆞᆯ겡이 뭐 호미 ᄀᆞ튼 거 만드는 대장간에 가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다가.(그거는 대장간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 그 저기 칼 뭐 무슨 호미 뭐 낫 같은 거 만드는 대장간에 가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다가.)
105012 @ 예.(예.)
105012 #1 인제 그 대나무 헤다가 자기대로 소살을 만들주게.(인제 그 대나무 해다가

자기대로 작살을 만들지.)
105013 @ 고깃배 잇잖아예?(고깃배 있잖아요?)
105013 #1 ᄋᆞ.(어.)
105013 @ 고깃배는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고깃배는 종류가 뭐, 뭐 있지요?)
105013 #1 고깃배는 주로 어선들 종류가 고기도 다양허게 잇으니까.(고깃배는 주로 어선들 종류가 고기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105013 @ 예.(예.)
105013 #1 어종마다 틀리지. 예를 들어서 저 멜 잡는 배는 멜만 잡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고기 종류에 따라서 달를 수 잇주게.(어종마다 다르지. 예를 들어서 저 멸치 잡는 배는 멸치만 잡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고기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105013 @ 아, 고기 종류에 따라 배가 달라마씨?(아, 고기 종류에 따라 배가 달라요?)
105013 #1 배가 예를 들어서 갈치 ᄀᆞ튼 어선 저기 저거 갈치 ᄀᆞ튼 것도 낚으는 것도 갈치만 낚으곡 또 예를 들어서 고등어 ᄀᆞ튼 거는 잘 뭐 그 예를 들어서 낚아서 오지 안ᄒᆞ고 갈치 낚을 때 가끔 하나씩 낚은다고 ᄒᆞ고.(배가 예를 들어서 갈치 같은 어선 저기 저거 갈치 같은 것도 낚는 것도 갈치만 낚고 또 예를 들어서 고등어 같은 거는 잘 뭐 그 예를 들어서 낚아서 오지 않고 갈치 낚을 때 가끔 하나씩 낚는다고 하고.)
105013 @ 예.(예.)
105013 #1 주로 여기서 나는 거는 뭐 갈치ᄒᆞ고 그런 이런 저 덤장이라고 헤 가지고 그 고정시켜놔 가지고 구물 고정시켜놔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때 가 가지고 물 때 봐 가지고 구물 봐 가지고 고기 가져오는 것도 잇곡.(주로 여기서 나는 거는 뭐 갈치하고 그런 이런 저 덤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고정시켜놔 가지고 그물 고정시켜놔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때 가 가지고 물때 봐 가지고 그물 봐 가지고 고기 가져오는 것도 있고.)
105013 @ 예전에는 동력선이 엇엇잖아예?(예전에는 동력선이 없었잖아요?)
105013 #1 ᄋᆞ.(어.)
105013 @ 그때는 무슨 테우 타신가마씨?(그때는 무슨 떼 탔었나요?)
105013 #1 아니, 아니. 그 저기 저 무동력선이라도 그 저기 노 저어서 다니는 배가 잇어.(아니, 아니. 그 저기 저 무동력선이라고 그 저기 노 저어서 다니는 배가 있어.)
105013 @ 그거는 무슨 배라고 헤마씨?(그거는 무슨 배라고 해요?)
105013 #1 그거는 낚배.(그거는 낚배.)
105013 @ 낚배?(낚배?)
105013 #1 낚배에 돗 달고.(낚배에 돛 달고.)
105013 @ 예.(예.)
105013 #1 그 바람의 풍향에 의헤서 갓다 왓다 허고 허는데 주로 그거는 인제 이런 뭐 생선 낚으러 그런 걸로 주로 사용ᄒᆞ고.(그 방향의 풍향에 의해서 갔다 왔다 하고 하는데 주로 그거는 인제 이런 뭐 생선 낚으러 그런 걸로 주로 사용하고.)
105013 @ 아, 조금 낚을 때는 그걸 사용허고마씨?(아, 조금 낚을 때는 그걸 사용하고요?)

105013 #1 ᄋᆞ, ᄋᆞ. 저 여기는 제주에는 방어 축제ᄒᆞ는 모슬포에서 말이여 뭐 ᄒᆞ고. 저기 저 그 서귀포에 그 그쪽에는 자리돔 축제도 자리돔도 계속 뭐 ᄒᆞ고. 뭐 요새 잡아오는 거는 주로 나가 가지고 갈치 뭐 동남아로 요쪽으로 많이 나가 가지고 가서 갈치 ᄀᆞ튼 거 한 며칠씩 그 배에다가 전부 다 그 먹을 거 일주일, 일주일, 십일 분은 십일 분 얼음 다 저장허고 기름 ᄀᆞ튼 거 다 저장ᄒᆞ고 나가서 고기를 하루에 잡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어, 어. 저 여기는 제주에는 방어 축제하는 모슬포에서 말이야 뭐 하고. 저기 저 그 서귀포에 그 그쪽에는 자리돔 축제도 자리돔도 계속 뭐 하고. 뭐 요새 잡아오는 거는 주로 나가 가지고 갈치 뭐 동남아로 요쪽으로 많이 나가 가지고 가서 갈치 같은 거 한 며칠씩 그 배에다가 전부 다 그 먹을 거 일주일, 일주일, 십일 분은 십일 분 얼음 다 저장하고 기름 같은 거 다 저장하고 나가서 고기를 하루에 잡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야.)

105013 @ 예.(예.)

105013 #1 그 며칠 거기서 작업헤그넹 잡으면 갈치, 조기. 조기 ᄀᆞ튼 것도 이쪽에 나가 가지고 ᄒᆞ고 그 겨울쯤 뒈면은 그 무슨 그 추자에서 나는 그 저기 고기가 뭐 거 무슨 고기인가 그 고기 잡으러 뎅기고 종류에 따라서 배도 달라지주게.(그 며칠 거기서 작업해서 잡으면 갈치, 조기. 조기 같은 것도 이쪽에 나가 가지고 하고 그 겨울쯤 되면 그 무슨 그 추자에서 나는 그 저기 고기가 뭐 거 무슨 고기인가 그 고기 잡으러 다니고 종류에 따라서 배도 달라지지.)

105013 @ 이름은 따로 엇어인가마씨? 낚배랑 돗배?(이름은 따로 없었나요? 낚배랑 돛배?)

105013 #1 아니 낚배도 이제ᄒᆞ고 돗단배 그 낚배는 돗 달아서 다니는 배 낚배 동력선 어 무신 주로 낚배허고 동력선허고 두 개 뿐이지.(아니 낚배도 이제하고 돛단배 그 낚배는 돛 달아서 다니는 배 낚배 동력선 어 무슨 주로 낚배하고 동력선하고 두 개 뿐이지.)

105013 @ 아, 낚배허고 동력선 두 개마씨?(아, 낚배하고 동력선 두 개요?)

105013 #1 뭐 주로 뭐 그, 그 조그마허게 말이여 그 저기 ᄒᆞ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뽀트 닮은 걸로 그 저기 자기 취미 삼아그넹 고기 낚으러 다니고 뭐ᄒᆞ고 이렇게.(뭐 주로 뭐 그, 그 조그마하게 말이야 그 저기 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보트 같은 걸로 그 저기 자기 취미 삼아서 고기 낚으러 다니고 뭐하고 이렇게.)

105014 @ 그러면 줌녀들이 물질헹 채취한 해산물은 뭐, 뭐가 잇주마씨?(그러면 해녀들이 물질해서 채취한 해산물은 뭐, 뭐가 있지요?)

105014 #1 주로 소라.(주로 소라.)

105014 @ 소라.(소라.)

105014 #1 성게, 천초.(성게, 우뭇가사리.)

105014 @ 천초?(우뭇가사리?)

105014 #1 천초, 톳 뭐 그런 종류지. 뭐 미역 ᄀᆞ튼 거 좀 ᄒᆞ고 해녀들이 ᄒᆞ는 거는 주로 해산물 많이 ᄒᆞ는 거 소라를 제일 많이 ᄒᆞ고 성게 그 구살이라고 ᄒᆞ는 이제 제주도말로 구살.(우뭇가사리, 톳 뭐 그런 종류지. 뭐 미역 같은 거 좀 하고 해녀들이 하는

거는 주로 해산물 많이 하는 거 소라를 제일 많이 하고 성게 그 '구살'이라고 하는 이제 제주도말로 '구살'.)

105014 @ 예.(예.)

105014 #1 구살허고 그다음에 톳, 톳, 우뭇가사리.(성게하고 그다음에 톳, 톳, 우뭇가사리.)

105014 @ 예. 우뭇가사리도 많이 헤마씨?(예. 우뭇가사리도 많이 해요?)

105014 #1 ᄋᆞ. 우뭇가사리도 해녀들 들어강 직접 캐 놧다가.(어. 우뭇가사리도 해녀들 들어가서 직접 캐 놨다가.)

105014 @ 예.(예.)

105014 #1 공동으로 헤 가지고 팔아. 톳허고 ᄀᆞ치.(공동으로 해 가지고 팔아. 톳하고 같이.)

105015 @ 그럼 좀녀들이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들은 뭐, 뭐 잇엇주마씨?(그럼 해녀들이 물질할 때 필요한 도구들은 뭐, 뭐 있었지요?)

105015 #1 해녀들이 주로 말이야 사용허는 거는 테왁[104]이라고 헤 가지고 옛날에는 저기 저 그 두렁박이라고 헤 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놓으면 뜰 수 잇인 건데 지금은 뭐냐면 스티로폼으로 헤 가지고 그 정부에서 그 사람이 사고가 나도 말이여 빨리 알 수 잇게끔 빨갛게 그 저기 주황색으론가 뭔가 헤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어촌계별로 나눠줘 가지고 거기서 인제 아래는 구물 망사리[105] 허고 우에는 짚어 가지고.(해녀들이 주로 말이야 사용하는 거는 '테왁'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저기 저 그 두레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놓으면 뜰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 스티로폼으로 해 가지고 그 정부에서 그 사람이 사고가 나도 말이야 빨리 알 수 있게끔 빨갛게 그 저기 주황색으론가 뭔가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어촌계별로 나눠줘 가지고 거기서 인제 아래는 그물 '망사리' 하고 위에는 짚어 가지고.)

105015 @ 예.(예.)

105015 #1 이렇게 자기 발로 주위에 인제 그 해산물을 채취허는데 옹포 ᄀᆞ튼 경우에는 옹포 부두에서 해녀들 칠팔십 명이 그 배를 타서 비양도 근해에 가 가지고 그 비양도 근해에 가 가지고 네 시간 내지 다섯 시간 해녀들 잠수ᄒᆞ여.(이렇게 자기 발로 주위에 인제 그 해산물을 채취하는데 옹포 같은 경우에는 옹포 부두에서 해녀들 칠팔십 명이 그 배를 타서 비양도 근해에 가 가지고 그 비양도 근해에 가 가지고 네 시간 내지 다섯 시간 해녀들 잠수해.)

105015 @ 지금도 하지예?(지금도 하지요?)

105015 #1 지금은 금채 기간이라 안 ᄒᆞ고 시월 달부터 또 시작헤서 허는데 뭐 유월 달부터 시월 동안은 시월 달은 건줌 금채 기간이라서 안 ᄒᆞ고.(지금은 금채 기간이라 안 하고 시월 달부터 또 시작해서 하는데 뭐 유월 달부터 시월 동안은 시월 달은 거의 금

104)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두룽박'이라고도 한다.

105)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나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망시리, 망아리'라고도 한다.

채 기간이라서 안 하고.)
105015 @ 예.(예.)
105015 #1 그 웨에로는 그런 방법으로 헤 가지고 쭉 나가 가지고 그 저 배로 가서 일단 작업장 현장에 가서 내려주고 다시 들어왓다가 그 시간 뒈면 또 나가 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그 외에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쭉 나가 가지고 그 저 배로 가서 일단 작업장 현장에 가서 내려주고 다시 들어왔다가 그 시간 되면 또 나가 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
105015 @ 테왁 말고 또 이렇게 굴겡이인가 호미 ᄀᆞ튼 것도 가져가지 않아마씨?('테왁' 말고 또 이렇게 호미인가 낫 같은 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105015 #1 아니. 그 저기 그 바닷굴겡이라고 헤 가지고.(아니. 그 저기 그 바다호미라고 해 가지고.)
105015 @ 바닷굴겡이?(바다호미?)
105015 #1 ᄋᆞ. 굴겡이도 가면은 그걸로 말이지 뭐 무슨 그 오분제기도 떼고 말이지 뭐 무슨 돌도 일리면 구살 ᄀᆞ튼 것도 그걸로 톡 헤서 손으로 잡고 말이지 그 도구는 주로 그 굴겡이 가졍 굴겡이 ᄒᆞ나 가졍.(어. 호미도 가면 그걸로 말이지 뭐 무슨 그 떡조개도 떼고 말이지 뭐 무슨 돌도 일으키면 성게 같은 것도 그걸로 톡 해서 손으로 잡고 말이지 그 도구는 주로 그 호미 가지고 호미 하나 가지고.)
105016 @ 그럼 예전 지금도 물질은 잇잖아예?(그럼 예전 지금도 물질은 있잖아요?)
105016 #1 ᄋᆞ.(어.)
105016 @ 어르신 어렷을 때랑 요즘이랑 달라진 것이 뭐 잇어마씨?(어르신 어렸을 때랑 요즘이랑 달라진 것이 뭐 있어요?)
105016 #1 달라진 거는 이제는 테왁이라는 거는 그 옛날엔 두렁박이라고 헤서 그런 걸로 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게 그런 두렁박으로 인제 테왁을 헤놧는데 지금은 전부 다 스티로폼.(달라진 거는 이제는 '테왁'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는 두레박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물에 가라앉지 않게 그런 두레박으로 인제 '테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스티로폼.)
105016 @ 아, 스티로폼?(아, 스티로폼?)
105016 #1 스티로폼으로 헤 가지고 말이야 빨갛게 주황색으로 뭰 스티로폼으로 하면은.(스티로폼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빨갛게 주황색으로 된 스티로폼으로 하면.)
105016 @ 예.(예.)
105016 #1 만약에 사람이 그 테왁이 말이지 이렇게 떠다니면 아 저기는 사고가 날 수 잇구나허고 선명허게 알 수 잇게끔 그렇게 헤서 정부에서도 말이여 맨들어 가지고 제주도 각 어촌계별로 나눠줘 가지고 그걸로 작업허고 잇인 걸루 알고.(만약에 사람이 그 '테왁'이 말이지 이렇게 떠다니면 아 저기는 사고가 날 수 있구나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말이야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각 어촌계별로 나눠줘 가지고 그걸로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105016 @ 아, 그럼 지금보다 확실히 예전에가 해녀들은 많앗인가마씨?(아, 그럼 지금

보다 확실히 예전에가 해녀들은 많았었나요?)
105016 #1 지금은 적지. 옛날에는 주로 바다에 안 나간 사람이 엇엇주게.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그것밧긔 엇고 그러니까 돈 날 때가 엇거든.(지금은 적지. 옛날에는 주로 바다에 안 나간 사람이 없었지.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그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돈 날 때가 없거든.)
105016 @ 예.(예.)
105016 #1 게고 그때 당시에는 물건도 많앗고 지금은 많이 고갈돼 부난 많이 잡히지도 안 ᄒᆞ여.(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물건이 많았고 지금은 많이 고갈돼 버리니까 많이 잡히지도 않아.)
105017 @ 그 물옷도 달라지지 않안마씨?(그 물옷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105017 #1 물옷은 예전에 소중기라고 헤 가지고 소중기는 이 저 그 빤스허고 여기만 가리는 것을 소중기라고 허는데. 소중기 물옷만 입고 말이지 바다에 들어갓는데 지금은 고무옷이라고 헤서.(물옷은 예전에 '소중기'라고 해 가지고 '소중기'은 이 저 그 팬티하고 여기만 가리는 것을 '소중기'이라고 하는데. '소중기' 물옷만 입고 말이지 바다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잠수복이라고 해서.)
105017 @ 예.(예.)
105017 #1 고무옷을 입고 머리에다 그것도 쓰고 오리발 허고 헤 가지고 가면은 겨울에도 다섯 시간, 여섯 시간까지 견뎌.(잠수복을 입고 머리에다 그것도 쓰고 오리발 하고 해 가지고 가면 겨울에도 다섯 시간, 여섯 시간까지 견뎌.)
105017 @ 예전에는 그럼 그렇게 오래는 못 견뎟겟다예?(예전에는 그럼 그렇게 오래는 못 견뎠겠군요?)
105017 #1 ᄋᆞ, 그렇지. 그때는 추워서 한 시간, 두 시간 말이지 겨울에는 기껏헤야 신체의 한계를 느끼면 올라와야지 무슨.(어, 그렇지. 그때는 추워서 한 시간, 두 시간 말이지 겨울에는 기껏해야 신체의 한계를 느끼면 올라와야지 무슨.)
105017 @ 물옷도 많이 바뀌엇다예?(물옷도 많이 바뀌었군요?)
105017 #1 ᄋᆞ. 물옷이 전면적으로 옛날은 소중기 입고 작업을 헷다가 지금은 그게 전면적으로 그 저기 고무옷으로 다 입어 가지고 ᄒᆞ주게.(어. 물옷이 전면적으로 옛날은 '소중기' 입고 작업을 했다가 지금은 그게 전면적으로 그 저기 잠수복으로 다 입어 가지고 하지.)
105018 @ 그럼 톳은 어떵 채집허주마씨? 개인별로 헤마씨?(그럼 톳은 어떻게 채집하지요? 개인별로 해요?)
105018 #1 톳은 공동으로 어촌계에서.(톳은 공동으로 어촌계에서.)
105018 @ 예.(예.)
105018 #1 한 삼월 달 뒈면은 물이 많이 나가는 때를 이용헤서.(한 삼월 달 되면 물이 많이 나가는 때를 이용해서.)
105018 @ 예.(예.)
105018 #1 웅포리 어촌계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부두에 모여 달렌 헤 가지고 그 이

제 그걸 공동 채취헤서 말려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 시간별로 헤 가지고 말이지 일당 식으로.(옹포리 어촌계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부두에 모여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이제 그걸 공동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팔아 가지고 그 시간별로 해 가지고 말이지 일당 식으로.)

105018 @ 아, 개인으로 안 허고 공동으로 어촌계에서?(아, 개인으로 안 하고 공동으로 어촌계에서?)

105018 #1 ᄋᆞ. 어촌계에서 헤서 조금 분배헤 주고 어촌계도 좀 갖고.(어. 어촌계에서 해서 조금 분배해 주고 어촌계도 좀 갖고.)

105018 @ 톳은 채집허면 어떵 바다에서 말려마씨?(톳은 채칩하면 어떻게 바다에서 말려요?)

105018 #1 부두 ᄀᆞ튼 데 말릴 수 잇인 장소에서 말려두면 수협에서 와 가지고.(부두 같은 데 말릴 수 있는 장소에서 말려두면 수협에서 와 가지고.)

105018 @ 예.(예.)

105018 #1 그거 입찰하허 사람이 와 가지고 떠가져그넹 떠가그넹 수협에서 말이지 입찰헤 가지고 말이지 팔아 줘. 어촌계에서 개별적으로 파는 것은 아니고.(그거 입찰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떠가져서 떠가서 수협에서 말이지 입찰해 가지고 말이지 팔아 줘. 어촌계에서 개별적으로 파는 것은 아니고.)

105018 @ 그럼 그 어촌계는 언제 만들어젼마씨?(그럼 그 어촌계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105018 #1 어촌계도 만들어진 것이 오래주게.(어촌계도 만들어진 것이 오래지.)

105018 @ 오래지예?(오래지요?)

105018 #1 이거 뭐 마을이 생겨 가지고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때부터 말이지.(이거 뭐 마을이 생겨 가지고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때부터 말이지.)

105018 @ 예.(예.)

105018 #1 수협이 잇을 때부터 말이지 그 옛날엔 어업협동조합이라고 헤 가지고 크게 말이지 조합원들이 말이여 뭐 무슨 받앙 꼭 권리를 주장허지는 않앗고 옛날엔 말이지 완전히 자율적으로 물질 ᄒᆞ레도 다니고 바다에 강 보멀 아무 거라도 잡고 먹엇는데.(수협이 있을 때부터 말이지 그 옛날에는 어업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말이지 조합원들이 말이야 뭐 무슨 받아서 꼭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고 옛날에는 말이지 완전히 자율적으로 물질 하러도 다니고 바다에 가서 고둥 아무 거라도 잡고 먹었는데.)

105018 @ 예.(예.)

105018 #1 지금은 완전히 규제가 돼 가지고 수협에다가 어촌계원으로 말이지 가입허고 조합원이 아니면 바다에 내려가지도 못허고.(지금은 완전히 규제가 돼 가지고 수협에다가 어촌계원으로 말이지 가입하고 조합원이 아니면 바다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105018 @ 아.(아.)

105018 #1 내려가서 잡으면 벌금도 내고 법적인 조치도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엇고.(내려가서 잡으면 벌금도 내고 법적인 조치도 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고.)
105018 @ 어르신 태어낫을 때도 어촌계는 잇언마씨?(어르신 태어났을 때도 어촌계는 있었어요?)
105018 #1 그 어촌계라고 ᄒᆞ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촌계라는 명칭이 엇엇고 그자 바다에 나가 가지고 여자들은 물질 헹 와그넹 말이지.(그 어촌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촌계라는 명칭이 없었고 그저 바다에 나가 가지고 여자들은 물질 해서 와서 말이지.)
105018 @ 예.(예.)
105018 #1 생계를 꾸리고 남자들은 뭐 무슨 말이지 여자들 갓당 온 거 뒷바라지 좀 헤주고 농사헐 때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거주게.(생계를 꾸리고 남자들은 뭐 무슨 말이지 여자들 갔다가 온 거 뒷바라지 좀 해주고 농사할 때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거지.)
105018 @ 그럼 그때도 어촌계 엇엇을 때도 톳은 공동으로 헷인가마씨?(그럼 그때도 어촌계 없었을 때도 톳은 공동으로 했었나요?)
105018 #1 그때는 개인으로 그냥 헤그넹 팔지도 못ᄒᆞ고 먹엇지. 그때는 먹고 그게 돈이 뭴 때부터 어촌계로 헤서 입찰헤 가지고 어촌계별로 쭉 판매를 수협에서 허고 잇인 거고.(그때는 개인으로 그냥 해서 팔지도 못하고 먹었지. 그때는 먹고 그게 돈이 될 때부터 어촌계로 해서 입찰해 가지고 어촌계별로 쭉 판매를 수협에서 하고 있는 거고.)
105019 @ 그럼 우뭇가사리도 공동으로 헤마씨?(그럼 우뭇가사리도 공동으로 해요?)
105019 #1 우뭇가사리도 공동으로 헤 가지고 수협에서 헤서 상인이 받아 가고.(우뭇가사리도 공동으로 해 가지고 수협에서 해서 상인이 받아 가고.)
105019 @ 것도 톳이랑 거의 똑같다예?(것도 톳이랑 거의 똑같군요?)
105019 #1 ᄋᆞ. 톳허고 우뭇가사리는 꼭 ᄀᆞ튼 방법으로 우리는 허고 잇어.(어. 톳하고 우뭇가사리는 꼭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고 있어.)
105019 @ 그니깐 채취허는 것도 비슷헤마씨?(그러니까 채취하는 것도 비슷해요?)
105019 #1 ᄋᆞ. 채취허는 것도 아 우뭇가사리는 해녀가 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 캐내는 거고.(어. 채취하는 것도 아 우뭇가사리는 해녀가 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 캐내는 거고.)
105019 @ 예. 톳은 그냥 이렇게.(예. 톳은 그냥 이렇게.)
105019 #1 톳은 물이 많이 나가는 만조가 제일 말이야 그 많이 나가는 여섯 물 날 뭴 때 내려가 가지고 그 우에 사람이.(톳은 물이 많이 나가는 만조가 제일 말이야 그 많이 나가는 여섯 물 날 될 때 내려가 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105019 @ 예.(예.)
105019 #1 호미로 다 자를 수 잇으니까 그때는 그때 가 가지고 채취는 웃밧들에 올려 가지고 웃밧에서 ᄆᆞᆯ려 가지고 창고에 놧다가 판매허는 거라.(낫으로 다 자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가 가지고 채취는 ‘웃밧’들에 올려 가지고 ‘웃밧’에서 말려 가지고 창고에 놨다가 판매하는 거야.)
105019 @ 우뭇가사리는 들어간 다음에 채취헤 오는 거고예.(우뭇가사리는 들어간 다음에 채취해 오는 거고요.)

105019 #1 우뭇가사리는 해녀가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그 돌에 붙은 거를.(우뭇가사리는 해녀가 들어가서 손으로 이렇게 그 돌에 붙은 거를.)
105019 @ 예.(예.)
105019 #1 뜯어가 가지고 망사리에 놔 가지고는 와 가지고는 자기 개인별로 말려 가지고 이제 어촌계에 놧다가 파는 거주.(뜯어가 가지고 망사리에 놔 가지고는 와 가지고는 자기 개인별로 말려 가지고 이제 어촌계에서 놨다가 파는 거지.)
105019 @ 아, 기구나예. 쪼금 다르긴 하다예 톳이랑 우뭇가사리는.(아, 그렇군요. 쪼금 다르기는 하군요 톳이랑 우뭇가사리는.)
105019 #1 응.(어.)
105020 @ 그럼 전복과 소라는 어떵 채취혜마씨?(그럼 전복과 소라는 어떻게 채취해요?)
105020 #1 아, 전복은 별로 안 나고 소라는 나면은 그거 말이지 자기가 가져 온 거를 하루나 이틀 담가 놧다가.(아, 전복은 별로 안 나고 소라는 나면 그거 말이지 자기가 가져 온 거를 하루나 이틀 담가 놨다가.)
105020 @ 예.(예.)
105020 #1 수협에서 와서 말이지 인제 떠가.(수협에서 와서 말이지 인제 떠가.)
105020 @ 예전에 수협 엇을 때 예전에도 수협은 잇엇지예?(예전에 수협 없을 때 예전에도 수협은 있었지요?)
105020 #1 예전에 우리가 뭐 자랏을 때는 어떻게 됏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큰 다음에는 잇인 걸로 알고 잇인데. 내가 한 중학교 뭴 때부터도 잇인 걸로 보면은 그때도 그 소라 ᄀᆞ튼 거 ᄒᆞ면은 그 여기 통조림 공장에서 저기 저 해안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구젱기 받아당 통조림 헷거든.(예전에 우리가 뭐 자랐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큰 다음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한 중학교 될 때부터도 있는 걸로 보면 그때도 그 소라 같은 거 하면 그 여기 통조림 공장에서 저기 저 해안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소라 받아다가 통조림 했거든.)
105020 @ 구젱기 받아당마씨?(소라 받아다가요?)
105020 #1 응.(어.)
105021 @ 그믄 전복은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그러면 전복은 종류가 뭐, 뭐 있지요?)
105021 #1 전복은 종류가.(전복은 종류가.)
105021 @ 예.(예.)
105021 #1 전복의 종류는 오분제기 그거는 적은 건디.(전복의 종류는 떡조개 그거는 적은 건데.)
105021 @ 예.(예.)
105021 #1 아무리 커도 전복만이 크지를 안 ᄒᆞ주게 오분제기는.(아무리 커도 전복만큼 크지를 안 하지 떡조개는.)
105021 @ 그럼 오분제기랑 전복이랑 구분은 어떵 혜마씨?(그럼 떡조개랑 전복이랑

구분은 어떻게 해요?)
105021 #1 아, 그거 보면은 작은 거는 오분제기고.(아, 그거 보면 작은 거는 떡조개고.)
105021 @ 그거 고냥, 구멍으로 구분은 안 헤마씨?(그거 구멍, 구멍으로 구분은 안 해요?)
105021 #1 구녕으로 구별ᄒᆞ는 거는 아니라도 딱 보면 전복허고 확연히 틀려. 좀 종류는 비슷헤도.(구멍으로 구별하는 거는 아니라도 딱 보면 전복하고 확연히 달라. 좀 종류는 비슷해도.)
105021 @ 예.(예.)
105021 #1 그래서 그 천년은 이거 자라도 오분제기는 더 크지 않는 거고.(그래서 그 천년은 이거 자라도 떡조개는 더 크지 않는 거고.)
105021 @ 예.(예.)
105021 #1 전복은 커 가지고 그 자기 숨구멍이 다 멕히면 자연사헌다고.(전복은 커 가지고 그 자기 숨구멍이 다 막히면 자연사한다고.)
105021 @ 아, 숨구멍이 자연사헤마씨?(아, 숨구멍이 자연사해요?)
105021 #1 이듸 보면은 전복이 고망 쭉 여기 하나 두 개 구멍 뚫려 잇어.(여기 보면 전복으 구멍 쭉 여기 하나 두 개 구멍 뚫려 있어.)
105021 @ 예.(예.)
105021 #1 게 그게 나중에 다 막아지면 자연 폐사한다는 말 들엇는데.(그럼 그게 나중에 다 막히면 자연 폐사한다는 말 들었는데.)
105021 @ 그럼 전복도 암수 잇잖아예?(그럼 전복도 암수 있잖아요?)
105021 #1 암수 잇지.(암수 있지.)
105021 @ 그거 구별은 어떵 헤마씨?(그거 구별은 어떻게 해요?)
105021 #1 그 우리도 잘 구분은 못 ᄒᆞ는데 해녀들은 수첨복[106]이라고 헤 가지고.(그 우리도 잘 구분은 못 하는데 해녀들은 '수첨복'이라고 해 가지고.)
105021 @ 수첨복?('수첨복'?)
105021 #1 수첨복이 거 숫놈이지. 암첨복[107]이 영 헤 가지고 허면은 수첨복은 이 그 알이 큰 거 닮아. 수컷은 게고 암놈은 베짝헤[108] 가지고 좀 ᄒᆞ면은 그게 서로 교미헤 가지고 아마 나는데.('수첨복'이 거 숫놈이지. '암첨복'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수첨복'은 이 그 알이 큰 거 같아. 수컷은 그리고 암놈은 '베짝헤' 가지고 좀 하면 그게 서로 교미해 가지고 아마 나는데.)
105021 @ 그럼 전복 말앙 소라는 암수 엇인가마씨?(그럼 전복 말고 소라는 암수 없나요?)

106) '수첨복'은 '전복의 수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색이 거무죽죽하고 살쪄서 뭉뚝한 꼴이며, 껍질이 움푹한 편이다. '수춤복, 수핏, 숫퉁이'라고도 한다.
107) '암첨복'은 '전복의 암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색이 희멀건 편이며, 둥글고 넙데데한 모습이다. '암춤복, 암핏, 암퉁이'라고도 한다.
108) '베짝ᄒᆞ다'는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5021 #1 소라 암수는 내가 구분허는 거는 잘 모르지마는 그것도 잇긴 잇겟주.(소라 암수는 내가 구분하는 거는 잘 모르지마는 그것도 있기는 있겠지.)
105022 @ 그럼 어르신 테우 잇잖아예?(그럼 어르신 떼 있잖아요?)
105022 #1 ᄋᆞ.(어.)
105022 @ 테우에 대헤서 아는 거 잇으면 ᄀᆞᆯ아 줍서.(떼에 대해서 아는 거 있느면 말해 주십시오.)
105022 #1 테우는 보기는 봣주마는 타 본 적도 엇고 우리 마을에도 테우 뭐 허는 사람도 엇고 ᄒᆞ니까는 그런 거는 잘 몰라.(떼는 보기는 봤지만 타 본 적도 없고 우리 마을에도 떼 뭐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는 잘 몰라.)
105022 @ 아, 옹포리에는 테우 엇언마씨?(아, 옹포리에는 떼 없었어요?)
105022 #1 ᄋᆞ.(어.)
105023 @ 그럼 여긴 돗배는 잇엇지예?(그럼 여기는 돛단배는 있었지요?)
105023 #1 어?(어?)
105023 @ 돗배.(돛단배.)
105023 #1 돗단배?(돛단배?)
105023 @ 예. 돗단배.(예. 돛단배.)
105023 #1 아, 돗단배는 풍선이라고 헤 가지고 풍선이라. 그게 이름이 바람 풍자 그런 바람을 받고 다니는 선 풍선배가.(아, 돛단배는 풍선이라고 해 가지고 풍선이야. 그게 이름이 바람 풍자 그런 바람을 받고 다니는 선 풍선배가.)
105023 @ 예.(예.)
105023 #1 그 낚배에다가 돗 달아 다니는 것을 풍선이라고 허거든.(그 낚배에다가 돛 달아 다니는 것을 풍선이라고 하거든.)
105023 @ 음.(음.)
105023 #1 글자 그대로 바람, 바람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배.(글자 그대로 바람, 바람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배.)
105023 @ 예.(예.)
105023 #1 바람 풍자 배 선자 써 가지고 풍선.(바람 풍자 배 선자 써 가지고 풍선.)
105024 @ 그면 풍선은 부분, 부분 이름이 좀 또 잇지 않아마씨? 돗이랑 배 이름 그런 거?(그러면 풍선은 부분, 부분 이름이 좀 또 있지 않아요? 돛이랑 배 이름 그런 거?)
105024 #1 보통 돗단배는 가운데 돗을 길게 달고 또 앞에도 달고.(보통 돛단배는 가운데 돛을 길게 달고 또 앞에도 달고.)
105024 @ 예.(예.)
105024 #1 이 이돗단배 돗, 돗이 두 개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제 중간에 하나.(이 이돛단배 돛, 돛이 두 개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제 중간에 하나.)
105024 @ 예.(예.)
105024 #1 그래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봐서 앞의 돗도 내릴 때가 잇곡 또 올릴 때가 잇곡 두 개 다 올려서 그 바람의 방향대로 그거를 말이야 조절헤서 말이지 배가 다니는

거야.(그래 가지고 바람의 방향을 봐서 앞의 돛도 내릴 때가 있고 또 올릴 때가 있고 두 개 다 올려서 그 바람의 방향대로 그거를 말이야 조절해서 말이지 배가 다니는 거야.)
105024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5024 #1 어. 상당히 배가 뿔라. 동력선보다도 바람이 불면 더 뿔라.(어. 상당히 배가 빨라. 동력선보다도 바람이 불면 더 빨라.)
105024 @ 그럼 돗이 두 개 잇인 게 잇곡 뭐 세 개, 네 개 잇인 건 엇어마씨?(그럼 돛치 두 개 있는 게 있고 뭐 세 개, 네 개 있는 건 없어요?)
105024 #1 세 개까지 잇지. 육지에서 오는 것들은 보 보통 삼돗단배로.(세 개까지 있지. 육지에서 오는 것들은 보 보통 삼돛단배로.)
105024 @ 예.(예.)
105024 #1 여기 말이야 항아리 강진 ᄀᆞ튼 데서 그 전라도 근방에서는 와 가지고.(여기 말이야 항아리 강진 같은 데서 그 전라도 근방에서는 와 가지고.)
105024 @ 예.(예.)
105024 #1 바람의 방향을 봐 가지고 말이야 그거 항아리를 전부 다 안에다 싣그곡 그때는 뭐 동력선이 엇일 때니까 그런 그런 거 싣그곡 말이지. 또 아니면 소금 ᄀᆞ튼 거.(바람의 방향을 봐 가지고 말이야 그거 항아리를 전부 다 안에다 싣고 그때는 뭐 동력선이 없을 때니까 그런 그런 거 싣고 말이지. 또 아니면 소금 같은 거.)
105024 @ 예.(예.)
105024 #1 소금 ᄀᆞ튼 거 큰 거 싣그곡 와 가지고 제주도에 왕 풀고 말이지.(소금 같은 거 큰 거 실어 와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팔고 말이지.)
105024 @ 음.(음.)
105001 @ 자 할머니 그 바다에서 허는 일 바당에서 허는 일.(자 할머니 그 바다에서 하는 일 바다에서 하는 일.)
105001 #2 바다에서 헌 거 엿날엔.(바다에서 한 거 옛날에는.)
105001 @ 예.(예.)
105001 #2 몸들 ᄌᆞ물앙.(모자반들 캐서.)
105001 @ 예.(예.)
105001 #2 밧디 거름.(밭에 거름.)
105001 @ 예.(예.)
105001 #2 거 거름으로 비료가 엇이난.(거 거름으로 비료가 없으니까.)
105001 @ 예.(예.)
105001 #2 몸 ᄌᆞ물앙 헤낫수다 거.(모자반 캐서 했었습니다 거.)
105001 @ 그거 말앙 또 뭐, 뭐 또.(그거 말고 또 뭐, 뭐 또.)
105001 #2 그저 대충 거름 헐 거 몸.(그저 대충 거름 할 거 모자반.)
105001 @ 예.(예.)
105001 #2 몸 헤당 밧디 ᄀᆞ는 거. 거.(모자반 해다가 밭에 가는 거. 거.)
105001 @ 그 바당에서 채 그 따는 건 뭐, 뭐 잇어마씨?(그 바다에서 채 그 따는 건

뭐, 뭐 있어요?)
105001 #2 따는 거는게 소라, 점북.(따는 거는 소라, 전복.)
105001 @ 예.(예.)
105001 #2 그자 성게 그거.(그저 성게 그거.)
105001 @ 아, 그거.(아, 그거.)
105001 #2 이젠 성게라도 엿날엔 구살.(이제는 성게라도 옛날에는 '구살'.)
105001 @ 구살.('구살'.)
105001 #2 구살. 것ᄀᆞ라 구살.('구살'. 것보고 '구살'.)
105002 @ 그 듬북[109]이랑 감태는 어떵 채취허주마씨?(그 '듬북'이랑 감태는 어떻게 채취하지요?)
105002 #2 감태는.(감태는.)
105002 @ 예.(예.)
105002 #2 호끔 미역같추룩 생긴 거 그건.(조금 미역같이 생긴 거 그건.)
105002 @ 예.(예.)
105002 #2 듬북은 막 커.('듬북'은 아주 커.)
105002 @ 아, 듬북은 막 커마씨?(아, '듬북'은 아주 커요?)
105002 #2 막 커. 어.(아주 커. 어.)
105002 @ 그럼 그건 개인별로 헨마씨? 아니면?(그럼 그건 개인별로 했어요? 아니면?)
105002 #2 개인별로 개인별로. 이녁 허는 이 ᄀᆞᆺ바당[110] 강.(개인별로 개인별로. 이녁 하는 이 'ᄀᆞᆺ바당' 가서.)
105002 @ 아.(아.)
105002 #2 ᄀᆞᆺ바당 이듸서.('ᄀᆞᆺ바당' 여기서.)
105002 @ 듬북이랑 감태는 개인별로?('듬북'이랑 감태는 개인별로?)
105002 #2 응. 겐디 감태는이 가까운 데가 벨로 엇어. 지픈 디나 나지.(응. 그런데 감태는 가까운 데가 별로 없어. 깊은 데나 나지.)
105002 @ 깊은 데?(깊은 데?)
105002 #2 응. 게난 듬북 헤당 그자양. 테왁[111]에 거 얼마나 담읍니까게.(응. 그러니 '듬북' 해다가 그저. '테왁'에 거 얼마나 담습니까.)
105002 @ 예.(예.)
105002 #2 두룽박에 얼마 못 담으난. 길게 베에 창.('두룽박'에 얼마 못 담으니까. 길게 배에 차서.)
105002 @ 예.(예.)
105002 #2 베에 창 절로부터 착착착착 감아.(배에 차서 저기로부터 착착착착 감아.)

109) '듬북'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로써, 먹지 않는 거름용 해조류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0) 'ᄀᆞᆺ바당'은 '물 가까이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11)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두룽박'이라고도 한다.

105002 @ 음.(음.)
105002 #2 감앙 또 ᄌᆞ물아난 또 감곡 감곡 또 영 영 허영 줄 ᄃᆞᆼ겨오멍 헹 헤낫수다. 옛날에.(감아서 또 캐서 또 감고 감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 당겨오면서 해서 했었습니다. 옛날에.)
105002 @ 감태는 그럼 어떵 헨마씨?(감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105002 #2 감태는 그거 허연 막 풀앗수다. 풀안.(감태는 그거 해서 막 팔았습니다. 팔았어.)
105002 @ 풀안마씨? 그건 엿날에 어떵 채취헤마씨?(팔았어요? 그건 옛날에 어떻게 채취해요?)
105002 #2 채취 마찬가지. 미역추룩 놔 감태. 호미 가졍 강.(채취 마찬가지. 미역처럼 놔 감태. 낫 가지고 가서.)
105002 @ 호미 가졍 강?(낫 가지고 가서?)
105002 #2 응. 호미 가졍 강. 감태.(응. 낫 가지고 가서. 감태.)
105003 @ 그럼 고둥은 어떵 잡안마씨?(그럼 고둥은 어떻게 잡았어요?)
105003 #2 고둥?(고둥?)
105003 @ 예.(예.)
105003 #2 그거 깊이 가는 사롬은게 뭐꼬 감태 아래도 가멍 감태 아래도 싯고.(그거 깊이 가는 사람은 뭐꼬 감태 아래도 가면서 감태 아래도 있고.)
105003 @ 예.(예.)
105003 #2 감태 이파리에도 막 소라 올라가는 거 싯고.(감태 이파리에도 막 소라 올라가는 거 있고.)
105003 @ 예.(예.)
105003 #2 경 허곡 아랜게 고냥에도 싯고 우이도 싯고게. 엿날은 소라가 하낫주마는 이젠 어려원양. 어려와.(그렇게 하고 아래는 구멍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옛날은 소라가 많았지마는 이제는 어려워. 어려워.)
105003 @ 예. 그 깅이도 잡안마씨?(예. 그 게도 잡았어요?)
105003 #2 깅인 그저 이 ᄆᆞ른밧으로 강 보멀 잡으멍 거 허는 거게.(게는 그저 이 마른밭으로 가서 고둥 잡으면서 거 하는 거.)
105004 @ 그 보멀은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그 고둥은 종류가 뭐, 뭐 있지요?)
105004 #2 보멀?(고둥?)
105004 @ 예.(예.)
105004 #2 수두리보멀.(두드럭고둥.)
105004 @ 예.(예.)
105004 #2 먹보멀.(밤고둥.)
105004 @ 예.(예.)
105004 #2 ᄀᆞᆷ셍이[112].(남방울타리고둥.)

112) ‘ᄀᆞᆷ셍이’는 남방울타리고둥을 의미하는 제주어로 ‘ᄀᆞ메기, ᄀᆞᆷ세기, ᄀᆞ메기보멀, 여자보말, 지름보말,

105004 @ 곰셍이?(남방울타리고둥?)
105004 #2 코ᄐᆞ데기.(‘코ᄐᆞ데기’.)
105004 @ 뭐마씨?(뭐요?)
105004 #2 코ᄐᆞ데기. 또 저 가마구보멀.(‘코ᄐᆞ데기’. 또 저 타래고둥.)
105004 @ 가마구보멀.(타래고둥.)
105004 #2 어. 그거.(어. 그거.)
105004 @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마씨?(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105004 #2 다 틀려.(다 달라.)
105004 @ 아, 어떵?(아, 어떻게.)
105004 #2 수두리는.(두드럭고둥은.)
105004 @ 예.(예.)
105004 #2 호끔 영 길어.(조금 이렇게 길어.)
105004 @ 아, 예.(아, 예.)
105004 #2 먹보멀은 몽클락허곡.(밤고둥은 몽톡하고.)
105004 @ 몽클락허고.(몽톡하고.)
105004 #2 몽클락허고.(몽톡하고.)
105004 @ 예.(예.)
105004 #2 곰셍이는 그저 코ᄐᆞ데기 그저 영 헌 거.(남방울타리고둥은 그저 ‘코ᄐᆞ데기’ 그저 이렇게 한 거.)
105004 @ 예.(예.)
105004 #2 또 가마구보멀이라는 건 소곱에 까망헌 거 요만썩 헌 거.(또 타래고둥이라는 건 속에 까만 거 요만씩 한 거.)
105004 @ 아.(아.)
105004 #2 어. 그거.(어. 그거.)
105005 @ 그럼 깅이도 종류가 잇엇수광?(그럼 게도 종류가 있었습니까?)
105005 #2 응.(응.)
105005 @ 뭐, 뭐 잇어마씨?(뭐, 뭐 있어요?)
105005 #2 식킹이[113].(‘식킹이’.)
105005 @ 어.(어.)
105005 #2 픗깅이[114].(‘픗깅이’.)
105005 @ 예.(예.)
105005 #2 춤깅이.(참게.)
105005 @ 예.(예.)
105005 #2 그거 그거 세 가지밧긔 모르크라. 돌킹이[115]도 잇곡.(그거 그거 세 가지밖

코ᄐᆞ데기’이라고도 한다.
113) ‘식킹이’는 ‘등어리에 검정과 갈색 무늬가 있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싯깅이’라고도 한다.
114) ‘픗깅이’는 ‘아주 작은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픗겡이, 픗긍이’라고도 한다.
115) ‘돌킹이’는 ‘등과 배으 ㅣ딱지가 매우 딴딴한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돌겡이, 돌켕이’라고도

에 모르겠어. ‘돌킹이’도 있고.)
105005 @ 그건 어떵 달라마씨?(그건 어떻게 달라요?)
105005 #2 다 틀려. 식킹이는 이 등때기가 이 등때기가 얼룩얼룩 허여.(다 달라. ‘식킹이’는 이 등때기가 이 등때기가 얼룩얼룩 해.)
105005 @ 예.(예.)
105005 #2 춤깅이는 볼고룽허영 곱닥허곡. 또 풋깅이는 볼그스롱허영 호끔 커 건.(참게는 발그레해서 아주 매끈하고 곱고. 또 ‘풋깅이’는 발그스름해서 조금 커 건.)
105005 @ 건 호끔 커마씨?(건 조금 커요?)
105005 #2 어. 호끔 커. 게 돌킹이는 딱딱허여.(어. 조금 커. 게 ‘돌킹이’는 딱딱해.)
105005 @ 아, 딱딱헤?(아, 딱딱해?)
105005 #2 거 거무룽허영 딱딱허여.(거 거무스름해서 딱딱해.)
105005 @ 뭐가 딱딱헤마씨?(뭐가 딱딱해요?)
105005 #2 이 몸뚱이가 딱딱허여.(이 몸뚱이가 딱딱해.)
105006 @ 그 횃불로도 그 막 뭐 비췽 잡안마씨? 바다에서?(그 횃불로도 그 막 뭐 비춰서 잡았어요? 바다에서?)
105006 #2 아니. 그런 건 엇어.(아니. 그런 건 없어.)
105006 @ 아, 그런 건 엇어?(아, 그런 건 없어?)
105006 #2 어. 횃불 횃불로 허는 건 낙지 잡는 거.(어. 횃불 횃불로 하는 건 낙지 잡는 거.)
105006 @ 아, 낙지 잡는 거.(아, 낙지 잡는 거.)
105006 #2 어. 낙지 잡는 거. 횃불로.(어. 낙지 잡는 거. 횃불로.)
105006 @ 그 제주도에서도 헤마씨?(그 제주도에서도 해요?)
105006 #2 이듸 이듸서도 허여.(여기 여기서도 해.)
105006 @ 어떵 헤마씨?(어떻게 해요?)
105006 #2 야의네 큰이모 잘 허여.(이 아이네 큰이모 잘 해.)
105006 @ 아, 기꽝? 그럼 뭐 이렇게 비췽 그냥 잡는 거마씨?(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비춰서 그냥 잡는 거예요?)
105006 #2 횃불 영 헹 가믄.(횃불 이렇게 해서 가면.)
105006 @ 예.(예.)
105006 #2 그 낙지가 졸락졸락 나오는 거 잇는 모냥이지?(그 낙지가 졸딱졸딱 나오는 거 있는 모양이지?)
105006 @ 아.(아.)
105006 #2 경 헹 심어 와.(그렇게 해서 붙잡아 와.)
105007 @ 그 원담[116] 잇잖아예?(그 ‘원담’ 있잖아요?)
105007 #2 응.(응.)

한다.
116)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5007 @ 그거는 어떵 만들주마씨?(그거는 어떻게 만들지요?)
105007 #2 원담은. 지금 우리 잇는 데는 벨로 엇어도. 금능.('원담'은. 지금 우리 있는 데는 별로 없어도. 금능[117].)
105007 @ 예.(예.)
105007 #2 금능 가면은 그 저 협재[118]와 금능 사이에 해수욕장 허는 디. 그 할아버지 무신 돌하르방 세운 디 잇는디.(금능 가면 그 저 협재와 금능 사이에 해수욕장 하는데. 그 할아버지 무슨 돌하르방 세운 데 있는데.)
105007 @ 예.(예.)
105007 #2 그듸가 원담을 잘 헤놩 관광지를 헷다고 허는데.(거기가 '원담'을 잘 해놔서 관광지를 했다고 하는데.)
105007 @ 예.(예.)
105007 #2 그듸가 원담은 잘 헤놧어요. 우리도 옛날엔 여기 원담 잇어낫인디.(거기가 '원담'은 잘 해놨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여기 '원담' 있었었는데.)
105007 @ 예.(예.)
105007 #2 자꾸 뭣들 잡으멍 허난 잘 안 뒈연게.(자꾸 뭣들 잡으면서 하니까 잘 안 되었어.)
105007 @ 거기 들어온 고기는 어떵 잡안마씨? 여기 원담에 들어오는 고기.(거기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았어요? 여기 '원담'에 들어오는 고기.)
105007 #2 그듸에 들어오는 고기는 멜 많이 들어와낫주게. 엿날에 멜.(거기에 들어오는 고기는 멸치 많이 들어왔었지. 옛날에 멸치.)
105007 @ 예.(예.)
105007 #2 멜 들어오면 거 영 뜨는 거 가져강 막 뜨곡 경 헤낫는디 이젠 원담이 엇어져 부난.(멸치 들어오면 거 이렇게 뜨는 거 가져가서 막 뜨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젠 '원담'이 없어져 버리니까.)
105007 @ 예.(예.)
105007 #2 그런 것이 엇어 이젠.(그런 것이 없어 이젠.)
105007 @ 아, 이젠 엇고. 예.(아, 이젠 없고. 예.)
105007 #2 응.(응.)
105007 @ 멜도 종류가 잇수광? 멜?(멸치도 종류가 있습니까? 멸치?)
105007 #2 멜?(멸치?)
105007 @ 예.(예.)
105007 #2 춤멜이엔 헌 거 이만썩 또 홁은 고두리엔 헌 거 이만썩.('춤멜'이라고 한 거 이만큼 또 굵은 '고두리'라고 한 거 이만큼.)
105007 @ 고둘?(고둘?)
105007 #2 고두리.('고두리'.)

117) '금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를 의미한다.
118) '협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를 의미한다.

105007 @ 고두리.(‘고두리’.)
105007 #2 고두리.(‘고두리’.)
105008 @ 원 막 그 원도 이렇게 부서지잖아예?(‘원’ 막 그 ‘원’도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105008 #2 응.(응.)
105008 @ 태풍 바람 쎄게 불믄 그건 어떵 보수헤마씨?(태풍 바람 세게 불면 그건 어떻게 보수해요?)
105008 #2 무을에서 다 와낫주게. 겐디 이젠 너냥 나냥 다 헤 부난 우리 이듸 엇어.(마을에서 다 왔었지. 그런데 이젠 너나 나나 다 해 버리니까 우리 여기 없어.)
105008 @ 아, 엿날에는 마을에서 다같이?(아, 옛날에는 마을에서 다같이?)
105008 #2 응, 응, 응, 응.(응, 응, 응, 응.)
105009 @ 그럼 멜은 어떵 잡주마씨? 원담 말앙 또 따로 잡는 건 엇어마씨?(그럼 멸치는 어떻게 잡지요? ‘원담’ 말고 또 따로 잡는 건 없어요?)
105009 #2 잡는 건 엇어. 들어왕 바당에서는 봐 져도 그거 어떵 잡아게.(잡는 건 없어. 들어와서 바다에서는 봐 져도 그거 어떻게 잡아.)
105009 @ 그지예?(그렇지요?)
105009 #2 경 허난 저 구물 놩 베들 잡는 거밧긔게. 베. 저 비양도선 거 허여.(그렇게 하니까 저 그물 놔서 배들 잡는 거밖에. 배. 저 비양도에서는 거 해.)
105010 @ 그럼 고기는 어떵 나끄주마씨? 옛날에는? 고기 낚는 건?(그럼 고기는 어떻게 낚지요? 옛날에는? 고기 낚는 건?)
105010 #2 고기 낚는 건?(고기 낚는 건?)
105010 @ 예.(예.)
105010 #2 옛날에는 집이서들 밥들 헹 싸곡 하르방들. 우리 아부지는 허여 보난.(옛날에는 집에서 밥들 해서 싸고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는 해 보니까.)
105010 @ 아, 예.(아, 예.)
105010 #2 밥들 헹 동고량[119] 헹 밥 싸주게.(밥들 해서 ‘동고량’ 해서 밥 싸지.)
105010 @ 예.(예.)
105010 #2 밥 쌍 베에 나가. 나가면 생선 주낫.(밥 싸서 배에 나가. 나가면 생선 주낙.
105010 @ 예.(예.)
105010 #2 베 주낫.(배 주낙.)
105010 @ 예.(예.)
105010 #2 배 주낫 헹 막 잡아오곡. 막 모두리. 지금은 상어 상어 허는디 엿날은 모두리.(배 주낙 해서 막 잡아오고. 막 돌묵상어. 지금은 상어 상어 하는데 옛날은 ‘모두리’.)

119) ‘동고량’은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은 도시락’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동고령, 밥당석, 밥장석, 밥차반이’라고도 한다.

105010 @ 모두리.(돌묵상어.)
105010 #2 지금은 저 뭐꼬 사롬 헤치는 벡상어 잇지이?(지금은 저 뭐고 사람 해치는 별상어 있지?)
105010 @ 아, 예.(아, 예.)
105010 #2 벡상어가 아니곡 벡사옥. 옛날은 그 벡사옥.(별상어가 아니고 '벡사옥'. 옛날은 그 '벡사옥'.)
105010 @ 벡사옥?('벡사옥'?)
105010 #2 벡사옥. 그 이름이. 또 호꼼 모두리허고 건 색깔이 좀 틀려. 벡사옥은 조금 희미허곡.('벡사옥'. 그 이름이. 또 조금 돌묵상어하고 건 색깔이 좀 달라. '벡사옥'은 조금 희미하고.)
105010 @ 예.(예.)
105010 #2 그냥 상어는 검어.(그냥 상어는 검어.)
105010 @ 아, 그냥 상어는 검고.(아, 그냥 상어는 검고.)
105010 #2 어. 껍데기가 좀 검어. 게고 뿔 이듸 달린 거.(어. 껍데기가 좀 검어. 그리고 뿔 여기 달린 거.)
105010 @ 예.(예.)
105010 #2 뿔 이듸 달린 건 뿔상어.(뿔 여기 달린 건 돔발상어.)
105010 @ 아, 뿔상어.(아, 돔발상어.)
105010 #2 그거는 무끼 무끼. 거 이름이 무끼라낫어. 우리 어릴 때 듣기로는 우리 아버지네 베 허양 잡을 때는 무끼 거. 경 헹 헤난 거. 거.(그거는 귀상어, 귀상어. 거 이름이 '무끼'었어. 우리 우릴 때 듣기로는 우리 아버지네 배 해서 잡을 때는 귀상어 거. 그렇게 해서 했었던 거. 거.)
105011 @ 그럼 옛날에 뽕돌이나 낚싯대는 어떵 만들엇주마씨?(그럼 옛날에 봉돌이나 낚싯대는 어떻게 만들었지요?)
105011 #2 어떵사 만들어신지 이제 납으로 다.(어떻게야 만들었는지 이제 납으로 다.)
105011 @ 아, 납으로.(아, 납으로.)
105011 #2 납으로 다 만들언.(납으로 다 만들었어.)
105012 @ 그럼 작살로도 고기 옛날에 잡앗잖아예?(그럼 작살로도 고기 옛날에 잡았잖아요?)
105012 #2 작살질 별로 안 허여낫주게.(작살질 별로 안 했었지.)
105012 @ 별로 안 허연?(별로 잘 안 했어?)
105012 #2 응. 별로 안 허연.(응. 별로 안 했어.)
105013 @ 그럼 고깃베도 막 종류가 여러 가지 잇잖아예?(그럼 고깃배도 막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105013 #2 응. 갈치도 나끄지. 생선도 낚지 그자.(응. 갈치도 낚지. 생선도 낚지 그저.)
105013 @ 할머니 테우도 타난마씨? 테?(할머니 떼 탔었어요? 떼?)

105013 #2 응?(응?)
105013 @ 테, 테우.(떼, 떼.)
105013 #2 그런 건 엇어게.(그런 건 없어.)
105013 @ 아, 이쪽에는 엇지예? 아, 바람 쎄 부난예.(아, 이쪽에는 없지요? 아, 바람 세 버리니까요.)
105014 @ 그럼 그 좀녀들 바다에 들어강.(그럼 그 해녀들 바다에 들어가서.)
105014 #2 응.(응.)
105014 @ 막 뭐 따오잖아예?(막 뭐 따오잖아요?)
105014 #2 어.(어.)
105014 @ 그럼 뭐, 뭐 종류가 잇주마씨? 점북이랑 또.(그럼 뭐, 뭐 종류가 있지요? 전복이랑 또.)
105014 #2 점북, 구젱기.(전복, 소라.)
105014 @ 구젱기.(소라.)
105014 #2 오분자구.(떡조개.)
105014 @ 오분자구.(떡조개.)
105014 #2 응.(응.)
105014 @ 점북이랑 오분자구는 어떵 달라마씨?(전복이랑 떡조개는 어떻게 달라요?)
105014 #2 아주 틀리지.(아주 다르지.)
105014 @ 예.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105014 #2 등때기 사이로가 틀려. 이추룩 족은 거라도. 알아져.(등때기 사이로가 달라. 이처럼 작은 거라도. 알아져.)
105014 @ 아, 알아져마씨?(아, 알아져요?)
105014 #2 오분자구는 크지 안 허여.(떡조개는 크지 않아.)
105014 @ ᄒᆞ끌락허지예?(아주 작지요?)
105014 #2 어. 준준허여.(어. 자잘해.)
105014 @ 아, 준준하고.(아, 자잘하고.)
105014 #2 어.(어.)
105014 @ 그거 말앙 또 채취허는 건 엇수광?(그거 말고 또 채취하는 건 없습니까?)
105014 #2 채취허는 건 성게 잇어도 건 철에 따라게 다.(채취하는 건 성게 있어도 건 철에 따라 다.)
105014 @ 아, 철에 따라?(아, 철에 따라?)
105014 #2 응. 철에 따라.(응. 철에 따라.)
105015 @ 그럼 물에 들어갈 때 지금 말앙.(그럼 물에 들어갈 때 지금 말고.)
105015 #2 응.(응.)
105015 @ 엿날에는 뭐, 뭐 준비헹 들어간마씨?(옛날에는 뭐, 뭐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105015 #2 뭐, 뭐 준비허여게 그자.(뭐, 뭐 준비해 그저.)

105015 @ 물질헐 때 필요헌 거.(물질할 때 필요한 거.)
105015 #2 이제 이제는.(이제 이제는.)
105015 @ 예.(예.)
105015 #2 고무옷 입주마는 엿날은 속곳[120].(잠수복 입지마는 옛날은 '속곳'.)
105015 @ 예. 속곳 입엇지예.(예. '속곳' 입었지요.)
105015 #2 속곳 광목으로 만들엉 요만히 와.('속곳' 광목으로 만들어서 요만큼 와.)
105015 @ 예.(예.)
105015 #2 속곳이옌 헤. 속곳 요추룩 만들엉 그거 입곡. 물적삼[121] 입곡. 수건 씌고 쪽쉐눈[122].('속곳'이라고 헤. '속곳' 이처럼 만들어서 그거 입고. '물적삼' 입고. 수건 씌고 '쪽쉐눈'.)
105015 @ 쪽쉐눈?('쪽쉐눈'?)
105015 #2 쪽쉐눈. 요런 쪽쉐눈 써낫어 우리 어린 때는.('쪽쉐눈'. 요런 '쪽쉐눈' 썼어 우리 어린 때는.)
105015 @ 예.(예.)
105015 #2 쪽쉐눈.('쪽쉐눈'.)
105015 @ 그건 뭘로 뭰 거마씨?(그건 뭘로 된 거예요?)
105015 #2 이리 똑같이 뒈여. 이추룩. 요만썩 헌 거.(이리 똑같이 돼. 이처럼. 요만씩 한 거.)
105015 @ 아.(아.)
105015 #2 요만헌 거 씌엉 헤낫어. 영 광목으로 수건 씌곡.(요만한 거 씌어서 했었어. 이렇게 광목으로 수건 씌고.)
105015 @ 예.(예.)
105015 #2 이제 고무옷 허난 뭐 세상 추운 거 몰르게 살암주마는.(이제 잠수복 하니까 뭐 세상 추운 거 모르게 살고 있지마는.)
105015 @ 걸 쪽쉐눈이라고 허는 구나예?(걸 '쪽쉐눈'이라고 하는 군요?)
105015 #2 어, 쪽쉐눈. 쪽쉐눈.(어. '쪽쉐눈'. '쪽쉐눈'.)
105016 @ 그럼 물질은 예전에는 어떵 헷주마씨?(그럼 물질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105016 #2 그냥 그식이주게게. 겐디 고무옷 안 입어 부난 오래는 물에 강 못 살아.(그냥 그식이지. 그런데 잠수복 안 입어 버리니까 오래는 물에 가서 못 살아.)
105016 @ 아, 오래는 못 살고?(아, 오래는 못 살고?)
105016 #2 응. 추우니까.(응. 추우니까.)

---

120) '속곳'는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소중의, 소중기'이라고도 한다.
121) '물적삼'은 '제주도 전통 해녀복의 윗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잠수할 때 소중기 위에 입는다. 소매의 배래는 직선이며 소맷부리에 고무줄을 넣어서 잠수하기에 간편하도록 하고, 천은 무명이나 광목을 사용한다.
122) '쪽쉐눈'은 '해녀들이 물질 할 때 눈에 쓰는 쇠로 만든 알이 두 개인 물안경'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족쉐눈'이라고도 한다.

105016 @ 예.(예.)
105016 #2 경 헹 헷주게.(그렇게 해서 했지.)
105016 @ 그럼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어떵 달라마씨? 물질은?(그럼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물질은?)
105016 #2 물질 허는 건 달른 것이 엇는 것 같은데?(물질 하는 건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105016 @ 거의 비슷헤마씨?(거의 비슷해요?)
105016 #2 응. 시간만 달르곡.(응. 시간만 다르고.)
105016 @ 그럼 옷이 옷은 많이 달라졋지예?(그럼 옷이 옷은 많이 달라졌지요?)
105016 #2 고무옷 입으니까 이제.(잠수복 입으니까 이제.)
105016 @ 편헤마씨? 고무옷이 좋아마씨?(편해요? 잠수복이 좋아요?)
105016 #2 에이고 뚯앙게 뚯앙.(아이고 따스워서 따스워서.)
105016 @ 아, 뚯앙.(아, 따스워서.)
105016 #2 겨울철에게 눈 바득바득 와도 거 들어가믄 뚯앙들.(겨울철에 눈 바득바득 와도 거 들어가면 따스워서.)
105016 @ 아, 괜찮아마씨?(아, 괜찮아요?)
105016 #2 응.(응.)
105017 @ 그럼 물옷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곳입곡 지금은 고무옷 입잖아예?(그럼 물옷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곳'입고 지금은 잠수복 입잖아요?)
105017 #2 응, 응.(응, 응.)
105017 @ 그 중간에는 뭐 변헌 건 엇수광?(그 중간에는 뭐 변한 건 없습니까?)
105017 #2 어, 변헌 건 엇어. 그냥 그저 입당 그저 고무옷 나와 부난.(어, 변한 건 없어. 그냥 그저 입다가 그저 잠수복 나와 버리니까.)
105017 @ 광목으로 만든 속곳.(광목으로 만든 '속곳'.)
105017 #2 응. 광목으로 속곳.(응. 광목으로 '속곳'.)
105017 @ 입다가 언제 그럼 고무옷으로 바뀌언마씨?(입다가 언제 그럼 잠수복으로 바뀌었어요?)
105017 #2 그 언제들 철인고? 아이고 언제 철인지 모르컨게. 언제 철인지 모르컨게.(그 언제들 철인가? 아이고 언제 철인지 모르겠어. 언제 철인지 모르겠어.)
105017 @ 아, 어쨌든 속곳으로 입다가 물옷으로 아니 고무옷으로.(아, 어쨌든 '속곳'으로 입다가 물옷으로 아니 잠수복으로.)
105017 #2 응. 고무옷 저거 일본서 나오기 시작헷주게.(응. 잠수복 저거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했지.)
105018 @ 그럼 톳은 어떵 채취허주마씨?(그럼 톳은 어떻게 채취하지요?)
105018 #2 톳?(톳?)
105018 @ 예.(예.)
105018 #2 톳은 이제 나기 시작헴거든.(톳은 이제 나기 시작하고 있거든.)

105018 @ 예.(예.)
105018 #2 이제 나기 시작허면은 그것이 에 헌 정월 이월?(이제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에 한 정월 이월?)
105018 @ 정월 이월?(정월 이월?)
105018 #2 응. 그때 가면 채취허영.(응. 그때 가면 채취해서.)
105018 @ 예.(예.)
105018 #2 겐디 올해는 잘 사가지를. 우리 하영 내불언.(그런데 올해는 잘 사가지를. 우리 많이 내버렸어.)
105018 @ 그냥 내불언마씨?(그냥 내버렸어요?)
105018 #2 호끔 주카?(조금 줄까?)
105018 @ 아니 괜찮아마씨.(아니 괜찮아요.)
105018 #2 나 헤당 놔둔 거 잇어. 솖앙 막 식혀 놔둔 거 잇어.(내가 해다가 놔둔 거 있어. 삶아서 아주 식혀 놔둔 거 있어.)
105018 @ 지금은 다 개인별로 허잖아예? 톳도?(지금은 다 개인별로 하잖아요? 톳도?)
105018 #2 아니.(아니.)
105018 @ 아니?(아니?)
105018 #2 우리 어촌계.(우리 어촌계.)
105018 @ 아, 어촌계로.(아, 어촌계로.)
105018 #2 응.(응.)
105018 @ 예전에도 어촌계로 헨마씨?(예전에도 어촌계로 했어요?)
105018 #2 응. 어촌계로 헹 그냥. 그전엔 우리가 채취를 허면은 우리가 건주를 헷는데 이제는 건주 안 허영.(응. 어촌계로 해서 그냥. 그전엔 우리가 채취를 하면 우리가 건주를 했는데 이제는 건주 안 해서.)
105018 @ 예.(예.)
105018 #2 그냥 팔아 불엇주게.(그냥 팔아 버렸지.)
105018 @ 아, 그냥 팔안마씨?(아, 그냥 팔았어요?)
105018 #2 게난 얼마 받지 못 허연.(그러니까 얼마 받지 못 했어.)
105018 @ 톳은 먹는 거. 톳은 종류가 엇수광?(톳은 먹는 거. 톳은 종류가 없습니까?)
105018 #2 톳은 그냥 그것이 그거게.(톳은 그냥 그것이 그거.)
105018 @ 그게 그거?(그게 그거?)
105018 #2 개자리톳 허곡 무신 톳 싯덴 헤도 그자 그것이 그거.('개자리톳' 하고 무슨 톳 있다고 해도 그저 그것이 그거.)
105018 @ 아, 그게 그거?(아, 그게 그거?)
105018 #2 응.(응.)
105019 @ 그럼 우미도 채취허잖아예?(그럼 우뭇가사리도 채취하잖아요?)
105019 #2 응. 우미도.(응. 우뭇가사리도.)

105019 @ 우미도 어촌계로 같이 헤마씨?(우뭇가사리도 어촌계로 같이 해요?)
105019 #2 우리 개인별로.(우리 개인별로.)
105019 @ 아, 우미는 개인별로.(아, 우뭇가사리는 개인별로.)
105019 #2 개인별로 허는디.(개인별로 하는데.)
105019 @ 예.(예.)
105019 #2 공동어장이라고 쪼그만 공동.(공동어장이라고 조그만 공동.)
105019 @ 예. 아, 공동어장으로 공동으로 허고?(예. 아, 공동어장으로 공동으로 하고?)
105019 #2 어. 공동으로.(어. 공동으로.)
105020 @ 그럼 점북은 어떻게 채취허주마씨? 들어강?(그럼 전복은 어떻게 채취하지요? 들어가서?)
105020 #2 점북은 요즘 어려와.(전복은 요즘 어려워.)
105020 @ 아, 요즘 어려와마씨?(아, 요즘 어려워요?)
105020 #2 아, 어려와. 참 죽은 사람 살아온덴 헤도 비양도 강 헤 오기 어려와. 빗창[123] 가졍 뎅기주게. 빗창.(아, 어려워. 참 죽은 사람 살아온다고 해도 비양도 가서 해 오기 어려워. '빗창' 가지고 다니지. '빗창'.)
105020 @ 아, 그걸 빗창이라고 허지예?(아, 그걸 '빗창'이라고 하지요?)
105020 #2 어, 빗창.(어, '빗창'.)
105020 @ 그럼 어떵 따마씨? 물에 들어강.(그럼 어떻게 따요? 물에 들어가서.)
105020 #2 빗창 거 점북 부뜬 것에 허여.('빗창' 거 전복 붙은 것에 해.)
105020 @ 예.(예.)
105020 #2 겐디 점북이 영 부떠 잇이믄 이 빗창을 영 허면 안 돼. 이거 영 놩 영 잦혀야지.(그런데 전복이 이렇게 뿥어 있으면 이 '빗창'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놔서 이렇게 잦혀야지.)
105020 @ 아, 경 허영.(아, 그렇게 해서.)
105020 #2 영 허영 영 잦히면 술 헤싸져 불어.(이렇게 해서 이렇게 잦히면 살 헤벌어져 버려.)
105020 @ 아, 술 헤싸져 불어.(아, 살 헤벌어져 버려.)
105020 #2 어. 그거 따는 식이 잇어 그거.(어. 그거 따는 식이 있어 그거.)
105020 @ 그럼 구젱기는 어떵 허주마씨?(그럼 소라는 어떻게 하지요?)
105020 #2 구젱기는 아무렇게나 강 시믄 줏엉 오곡.(소라는 아무렇게나 가서 있으면 주워서 오고.)
105020 @ 아.(아.)
105020 #2 고냥에 건 골겡이로도 파곡.(구멍에 건 호미로도 파고.)
105020 @ 골겡이로도 파곡?(호미로도 파고.)

123) '빗창'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길이는 30센티미터쯤이며 동그랗게 말린 머리에는 손잡이끈이 달려 있다.

105020 #2 어.(어.)
105020 @ 구살은마씨?(성게는요?)
105020 #2 구살은 죽으나 사나 골겡이 헤사.(성게는 죽으나 사나 호미 해야.)
105020 @ 아, 골겡이로.(아, 호미로.)
105020 #2 돌 일령. 돌 일령.(돌 일으켜서. 돌 일으켜서.)
105021 @ 그럼 그 점복 종류 잇잖아예?(그럼 그 전복 종류 있잖아요?)
105021 #2 어.(어.)
105021 @ 뭐, 뭐 잇주마씨?(뭐, 뭐 있지요?)
105021 #2 점복 종류 그것이 그거.(전복 종류 그것이 그거.)
105021 @ 그것이 그거.(그것이 그거.)
105021 #2 큰 거 족은 거나 달랏지.(큰 거 작은 거나 달랐지.)
105021 @ 그믄 암첨복[124] 수첨복[125] 잇잖아예?(그러면 '암첨복' '수첨복' 있잖아요?)
105021 #2 어, 어. 겐디.(어, 어. 그런데.)
105021 @ 그거 어떵 구별헤마씨?(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105021 #2 암첨복은 베짝허여[126].('암첨복'은 '베짝해'.)
105021 @ 베짝허영.('베짝해서'.)
105021 #2 수첨복은 영 좀 크곡.('수첨복'은 이렇게 좀 크고.)
105021 @ 예.(예.)
105021 #2 또 마대리[127]엔 헌 거 잇어. 마대리엔 헌 건 영 헌 거 잇어.(또 '마대리'라고 한 거 있어. '마대리'라고 한 건 이렇게 한 거 있어.)
105021 @ 마대리는 마대리는 뭐마씨?('마대리'는 '마대리'는 뭐예요?)
105021 #2 마대리엔 헌 것이 잇어. 마대리엔 헌 거.('마대리'라고 한 것이 있어. '마대리'라고 한 거.)
105021 @ 아.(아.)
105021 #2 근데 어려와. 그건 보기 힘들어.(근데 어려워. 그건 보기 힘들어.)
105021 @ 보기 힘들어마씨?(보기 힘들어요?)
105021 #2 어. 점북도 어려와.(어. 전복도 어려워.)
105021 @ 그럼 물질 허는 거 좀 그 골아 줍서. 그냥 어떵 헷인지. 뭐 테왁[128]이나 이런 거 들엉 어떻게 예전에 헷엇인지.(그럼 물질 하는 거 좀 그 말해 주십시오. 그냥 어떻게 했는지. 뭐 '테왁'이나 이런 거 들어서 어떻게 예전에 했었는지.)
105021 #2 에이고. 뒈나마나 물 소곱에 들어강게 숨 진 놈은 오래 오래 살앙 왕 호이

124) '암첨복'은 '전복의 암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색이 희멀건 편이며, 둥글고 넙데데한 모습이다. '암춤복, 암핏, 암퉁이'라고도 한다.
125) '수첨복'은 '전복의 수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색이 거무죽죽하고 살쪄서 뭉뚝한 꼴이며, 껍질이 움푹한 편이다. '수춤복, 수핏, 숫퉁이'라고도 한다.
126) 베짝ᄒᆞ다'는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27) '마대리'는 전복의 한 가지로 전복의 암컷과 비슷하면서도 좀 길쭉하고 껍질이 울퉁불퉁한 모양인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마드레'라고도 한다.
128)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두룽박'이라고도 한다.

호이 허멍 숨비[129] 허멍들 물에 들어강 거 숨 쉬는 거주게.(아이고. 되나마나 물 속에 들어가서 숨 긴 놈은 오래 오래 살아서 와서 호이호이 하면서 '숨비' 하면서 물에 들어가서 거 숨 쉬는 거지.)

105021 @ 예.(예.)

105021 #2 그것이 OOO이 저 뭣일 때에 책 나와낫어.(그것이 OOO이 저 뭣일 때에 책 나왔었어.)

105021 @ 아, 무슨 책? 그 소리 책?(아, 무슨 책? 그 소리 책?)

105021 #2 응. 소리 책 나왕 어머니가 물질 헤낫덴 허멍.(응. 소리 책 나와서 어머니가 물질 했었다고 하면서.)

105021 @ 예.(예.)

105021 #2 OOO이 도지사 때 나왓더만.(OOO이 도지사 때 나왔더만.)

105021 @ 예.(예.)

105021 #2 참 슬프게 책 나와십디다. 그때 보난.(참 슬프게 책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105021 @ 그럼 그 물질허러 갈 때는 골겡이영 빗창이영.(그럼 그 물질하러 갈 때는 호미와 '빗창'과.)

105021 #2 빗창, 테왁 그거 뿐.('빗창', '테왁' 그거 뿐.)

105021 @ 테왁.('테왁'.)

105021 #2 신는 건 오리발.(신는 건 오리발.)

105021 @ 신는 건 오리발.(신는 건 오리발.)

105021 #2 뽕돌.(봉돌.)

105021 @ 뽕돌.(봉돌.)

105021 #2 어. 수경. 수경허고 모자 그자 그런 거.(어. 수경. 수경하고 모자 그저 그런 거.)

105021 @ 아까 얘기헤 준 건디 테왁도 종류가 잇잖아예?(아까 얘기해 준 건데 '테왁'도 종류가 있잖아요?)

105021 #2 응. 테왁은 엿날은 두룽박이주게. 저 테왁이주게 테왁 옛날은.(응. '테왁'은 옛날은 '두룽박'이지. 저 '테왁'이지 '테왁' 옛날은.)

105021 @ 예.(예.)

105021 #2 겐디 이젠 저런 스펀지로 안 허고게.(그런데 이제 저런 스펀지로 안 하고.)

105021 @ 예.(예.)

105021 #2 콜락박세기[130]로 헤낫주게 콜락박세기.('콜락박세기'로 했었지 '콜락박세기'.)

---

129) '숨비'는 '해녀가 물위에서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물속에 잠기어 숨을 멈추고 작업을 하다가 물위로 올라왔을 때, 허파에 압축되었던 공기가 입 밖으로 한꺼번에 새어나오면서 나는 소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30) '콜락박세기'는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콕박, 콕박세기'라고도 한다.

105021 @ 콜락박세기.(‘콜락박세기’.)

105021 #2 이젠 저거 암만 데꼇든 꼴아 앉든 까지지 안 허난 좋아. 그건 까져 불어.(이젠 저거 암만 던졌든 깔아 앉든 까지지 않으니까 좋아. 그건 까져 버려.)

105021 @ 아, 그건 까져 불어마씨?(아, 그건 까져 버려요?)

105021 #2 어.(어.)

105021 @ 그건 어떵 만들어마씨? 콜락박세기는.(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콜락박세기’는.)

105021 #2 그것을 이제 두룽박 만든 이제 만든 거는 우리집 셔게. 박을 키워 가지고 속을 파내.(그것을 이제 ‘두룽박’ 만든 이제 만든 거는 우리집 있어. 박을 키워 가지고 속을 파내.)

105021 @ 예.(예.)

105021 #2 그래 가지고서 그 구멍을 막아 가지고서 겅 헹 헤낫주게. 옛날에 막 어렵게 어렵게 살안. 옛날에 우리 살아올 땐. 에이고 진짜 어떵사 살앗인지.(그래 가지고서 그 구멍을 막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했었지. 옛날에 아주 어렵게 어렵게 살았어. 옛날에 우리 살아올 땐. 아이고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105021 @ 물질은 보통 옛날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션마씨?(물질은 보통 옛날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105021 #2 대강 영 보믄 혼 열 몇 살부터들 물질헷수다.(대강 이렇게 보면 한 열 몇 살부터 물질했습니다.)

105021 @ 아, 열 몇 살 때부터?(아, 열 몇 살 때부터?)

105021 #2 열 몇 살 때부터. 게난 공부허렌 헌 건 안 허고게 그냥 그저 바당들에만 들어가곡.(열 몇 살 때부터. 그러니 공부하라고 한 건 안 하고 그냥 그저 바다에만 들아가고.)

105021 @ 그럼 줌녀들도 오래 허면 무슨 줌녀라고 허주 않아마씨?(그럼 해녀들도 오래 하면 무슨 해녀라고 하지 않아요?)

105021 #2 상줌녜[131]게. 상줌녜.(‘상줌녜’. ‘상줌녜’.)

105021 @ 예. 금방 한 줌녜는 뭐라고 헤마씨?(예. 금방 한 해녀는 뭐라고 해요?)

105021 #2 건 그냥 건 어린 것들.(건 그냥 건 어린 것들.)

105021 @ 어린 것들.(어린 것들.)

105021 #2 소줌녜[132].(‘소줌녜’.)

105021 @ 소줌녜. 대상군[133] 이런 건?(‘소줌녜’. ‘대상군’.)

105021 #2 그런 건 엇고 그냥 상줌녜, 소줌녜 그자.(그런 건 없고 그냥 ‘상줌녜’, ‘소줌녜’ 그저.)

---

131) ‘상줌녜’는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상군, 상줌수, 왕줌녜, 왕줌수, 큰줌녜, 큰줌수’라고도 한다.

132) ‘소줌녜’는 ‘작업하는 기량이 서투른 해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하군, 깍줌녜, 깍줌수, 돌파리, 돌ᄑᆞ레, 똥군, 불락줌녜, 불락줌수, 족은줌녜, 족은줌수, 하줌녜, 하줌수, 핫바리’라고도 한다.

133) ‘대상군’은 ‘작업하는 기량이 월등하게 뛰어난 해녀’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기량이 뛰어난 해녀 상군 가운데도 특출한 해녀를 말한다.

105021 @ 아, 상즘녜, 소즘녜 그냥 두 개?(아, '상즘녜', '소잠녜' 그냥 두 개?)
105021 #2 어.(어.)
105021 #2 물에 들엉 이 비양도 너릴 때 옷들 입엉 베 타는 거 혼 번 봣서사 춤 재미나주.(물에 들어서 이 비양도 내릴 때 옷들 입어서 배 타는 거 한 번 봤어야 참 재미나지.)
105021 @ 아, 그건 재미나마씨 그건? 아, 베 타 가지고 물질 허는 건 안 힘들어마씨? 할머니?(아, 그건 재미나요 그건? 아, 배 타 가지고 물질 하는 건 안 힘들어요? 할머니?)
105021 #2 베 탕 가믄 다 그때는 빠지주게게. 비양도 가믄. 나 가고 싶은 디 강 다 빠져.(배 타서 가면 다 그때는 빠지지. 비양도 가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다 빠져.)
105021 @ 다 빠져.(다 빠져.)
105021 #2 응.(응.)
105021 @ 그건 몇 시간 정도?(그건 몇 시간 정도?)
105021 #2 다섯 시간.(다섯 시간.)
105021 @ 다섯 시간이나? 안 힘들엇수광?(다섯 시간이나? 안 힘들었습니까?)
105021 #2 딱 다섯 시간 살앙 건지주게. 너무 힘들게 시켜.(딱 다섯 시간 살아서 건지지. 너무 힘들게 시켜.)
105021 @ 아, 힘들게 시켜?(아, 힘들게 시켜?)
105021 #2 경 ᄒᆞ난 ᄉᆞ뭇 요즘 ᄉᆞ뭇 ᄒᆞᆫ 달에 두 개썩 서 개썩만 헴수게.(그렇게 하니까 사뭇 요즘 사뭇 한 달에 두 개씩 세 개씩만 하고 있습니다.)
105021 @ 아, 한 달에 두 깨썩 세 개썩.(아, 한 달에 두 개씩 세 개씩.)
105021 #2 OOO도 어제 강 주사 맞고 경 협디다. 아이구, 약 먹는 거 많어.(OOO도 어제 가서 주사 맞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약 먹는 거 많아.)
105021 @ 그믄 또 언제 물질허레 갈 거마씨?(그러면 또 언제 물질하러 갈 거예요?)
105021 #2 시월 일일 날부터.(시월 일일 날부터.)
105021 @ 아, 할머니도 가실 거마씨?(아, 할머니도 가실 거예요?)
105021 #2 난 아니 가젠.(난 안 가려고.)
105021 @ 아, 경 협서.(아, 그렇게 하십시오.)
105021 #2 설러 불젠. 이젠 설러 불젠.(그만둬 버리려고. 이젠 그만둬 버리려고.)

6. 의생활

옷감

106001 @ 그 옛날에 옷감 잇잖아예 어르신. 옷감. 옷 만드는 거 옷감. 옷감에는 뭐, 뭐 잇엇주마씨?(그 옛날에 옷감 있잖아요 어르신. 옷감. 옷 만드는 거 옷감. 옷감에는

뭐, 뭐 있었지요?)
106001 #1 주로 농사일 헐 때 입는 갈중의[134]라는, 그 옷이 잇인디.(주로 농사일 할 때 입는 '갈중의'라는, 그 옷이 있는데.)
106001 @ 예.(예.)
106001 #1 그게 그, 일반 그 저기 저 그 천에다가 그 감, 감 말이야.(그게 그, 일반 그 저기 저 그 천에다가 그 감, 감 말이야.)
106001 @ 예.(예.)
106001 #1 빻아 가지고, 그 물을, 물로 헤그넹 그 옷감에다 인제 그 감물을 들여 가지고.(빻아 가지고, 그 물을. 물로 해서 그 옷감에다 인제 그 감물을 들여 가지고.)
106001 @ 예.(예.)
106001 #1 갈중의라고 헤서 입으면 그 옷은 농사지을 때 입어도 땀나도 뭐, 몸에 붙으지도 않으고. 아주 유용하게 썻던 그 우리 제주도에 그 아주 대표적인 옷이라.('갈중의'라고 해서 입으면 그 옷은 농사지을 때 입어도 땀나도 뭐, 몸에 붙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썼던 그 우리 제주도에 그 아주 대표적인 옷이야.)
106001 @ 어르신 어렷을 때도 갈중의 ᄀᆞ튼 옷을 입언마씨?(어르신 어렸을 때도 '갈중의' 같은 옷을 입었어요?)
106001 #1 아, 그 갈중의 입고 다 말이야 밧 갈러 다니는 사람이고.(아, 그 '갈중의' 입고 다 말이야 밭 갈러 다니는 사람이고.)
106001 @ 예.(예.)
106001 #1 이 뭐 바지저고리를 다 갈중의로 들여서 입으면 여름 한철도 시원허고 그래.(이 뭐 바지저고리를 다 '갈중의'로 들여서 입으면 여름 한철도 시원하고 그래.)
106001 @ 갈중의는 뭘로 만들어마씨?('갈중의'는 뭘로 만들어요?)
106001 #1 갈중의는 거, 저기 저, 면 소재인 그, 미녕이라고 허는.('갈중의'는 거, 저기 저, 면 소재인 그, 무명이라고 하는.)
106001 @ 예.(예.)
106001 #1 그 미녕옷에다가 그 인제, 그 바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제, 제, 감 딸 적에 그, 막 익으며는 안 뒈고, 조금 열매로서 요만큼, 인자 할 적에 따 가지고 그걸 짜야 물이 많이 나와.(그 무명옷에다가 그 인제, 그 바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제, 제, 감 딸 적에 그, 막 익으면 안 되고, 조금 열매로서 요만큼, 인자 할 적에 따 가지고 그걸 짜야 물이 많이 나와.)
106001 @ 예.(예.)
106001 #1 익어버리면 물이 안 나오거든.(익어 버리면 물이 안 나오거든.)
106001 @ 갈중의는 미녕으로 만들어마씨?('갈중의'는 무명으로 만들어요?)
106001 #1 미녕옷에다가 갈중의를 들이면 그렇게 몸에 붙으지도 않고, 여름에도 말이야 예전에 경 입엉 다니고. 요새는 보통 말이지, 그 저기, 면 소재에다가 그거를 말이야,

134)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남자의 여름 홑바지)로 보통 노동복으로 입는 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갈중의를 말이야, 물 들여서 입는 것도 이제 아주 현대식으로 말이지, 여름에도 조끼로도 나오고 말이야. 반스봉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고.(무명옷에다가 '갈중의'를 들이면 그렇게 몸에 붙지 않고, 여름에도 말이야 예전에 그렇게 입고 다니고. 요새는 보통 말이지, 그 저기, 면 소재에다가 그거를 말이야, '갈중의'를 말이야, 물 들여서 입는 것도 이제 아주 현대식으로 말이지, 여름에도 조끼로도 나오고 말이야. 반바지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고.)

106001 @ 옛날에는 갈중의 말앙 머 또 입언마씨?(옛날에는 '갈중의' 말고 머 또 입었어요?)

106001 #1 갈중의 말앙은 뭐 일반 소재, 뭐 그때는 나이롱도 별로 엇고 그러니까 말이지, 머 주로 뭐 미녕 소재로 만들어 잇는 옷으로 입엇주. 우리 어릴 때만 허더라도.('갈중의 말고는 뭐 일반 소재, 뭐 그때는 나일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말이지, 머 주로 뭐 무명 소재로 만들어 있는 옷으로 입었지.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106001 @ 갈중의랑 나이롱 ᄀᆞ튼 거만 입언마씨?('갈중의'랑 나일론 같은 거만 입었어요?)

106001 #1 나이롱은 나중에 나오고 그때 당시는 나이롱도 별로 엇엇어. 우리 어릴 때는이.(나일론은 나중에 나오고 그때 당시는 나일론도 별로 없었어. 우리 어릴 때는.)

106001 @ 게난 어릴 때는 나이롱 말앙 갈중의 말앙 뭐 입언마씨?(그러니까 어릴 때는 나일론 말고 '갈중의' 말고 뭐 입었어요?)

106001 #1 입기도 입엇지. 난닝구 ᄀᆞ튼 것도 입고 뭐 무슨 말이지, 뭐 옷도 쪼끔은 잇지 아무래도. 그때도 뭐, 여러 가지고 뭐. 겨울에는 세타 ᄀᆞ튼 것도 입고 말이지. 뭐, 그렇게 헷는데.(입기도 입었지. 러닝 같은 것도 입고 뭐 무슨 말이지, 뭐 옷도 쪼끔은 있지 아무래도, 그때도 뭐, 여러 가지고 뭐. 겨울에는 스웨터 같은 것도 입고 말이지. 뭐, 그렇게 했는데.)

명주

106002 @ 그면 옛날에 멩주실 잇엇잖아예. 멩주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마씨?(그러면 옛날에 명주실 있었잖아요. 명주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요?)

106002 #1 멩주실게, 그 누에고치로 멘들어 가지고 말이여, 멩주옷 멘들어 입고.(명주실, 그 누에고치로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명주옷 만들어 입고.)

106002 @ 그럼 그 멩주실은 어떵 만들주마씨?(그럼 그 명주실은 어떻게 만들지요?)

106002 #1 그 누에고치로 헤 가지고, 그 뭐, 실 뽑아 가지고, 베틀로 짜 가지고, 미녕, 미녕을 멘들어 가지고 말이여.(그 누에고치로 해 가지고, 그 뭐, 실 뽑아 가지고, 베틀로 짜 가지고, 무명, 무명은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106002 @ 예.(예.)

106002 #1 그 멩주옷으로 모시도 멘들고, 뭐 모시옷으로 말이지. 뭐, 바지저고리 만들고 입고 겅 헷어.(그 명주옷으로 모시도 만들고, 뭐 모시옷으로 말이지. 뭐, 바지저고리

만들고 입고 그렇게 했어.)
106002 @ 그럼 누에치기도 헤 보션마씨?(그럼 누에치기도 해 보셨어요?)
106002 #1 그런 건 우리 헤 보는 것도 엇고, 여기는 제주도에는 별로. 뭐 허는 사람도 엇엇지만 전부 다, 다 육지에서 그렇게 헤 가지고, 명주, 누에고치로 빻아 가지고 실 뽑아 가지고 말이여, 베틀로 짜 가지고 말이여, 미녕으로, 저, 뭐, 명주 ᄀᆞ튼 걸로, 모시 ᄀᆞ튼 걸로 허면 여기 와서, 사 가지고, 거 재단헤 가지고, 옷집에 가 가지고 만들어서 입엇지.(그런 건 우리 해 보는 것도 없고, 여기는 제주도에는 별로. 뭐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전부 다, 다 육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명주, 누에고치로 빻아 가지고 실 뽑아 가지고 말이야, 베틀로 짜 가지고 말이야, 무명으로, 저, 뭐, 명주 같은 걸로, 모시 같은 걸로 하면 여기 와서, 사 가지고, 거 재단해 가지고, 옷집에 가 가지고 만들어서 입었지.)
106002 @ 아, 멩주실 베틀로 하는 건 보션마씨?(아, 명주실 베틀로 하는 건 보셨어요?)
106002 #1 베틀로 허는 거는 여기도 잇엇어.(베틀로 하는 거는 여기도 있었어.)
106002 @ 아, 잇언마씨?(아, 있었어요?)
106002 #1 어, 베, 베로, 베 짱 헤 가지고, 베틀이라고 헤 가지고 잇엇지. 에 누에고치로 짜는 명주 ᄀᆞ튼 거, 모시 ᄀᆞ튼 거는 별로 엇어도, 베라고 하는 말이지, 그거는 짠 거는 우리가 말이지. 상주복 입을 때 두건 쓰고 말이야, 상주옷 입는 그것을 제주도에서도 그것 짯어.(어, 베, 배로, 베 짜서 해 가지고, 베틀이라고 해 가지고 있었지. 에 누에고치로 짜는 명주 같은 거, 모시 같은 거는 별로 없어도, 베라고 하는 말이지, 그거는 짠 거는 우리가 말이지. 상복 입는 그것을 제주도에서도 그것 짰어.)
106002 @ 마을마다 짯수광?(마을마다 짰습니까?)
106002 #1 뭐 마을마다 짜는 건 아니고, 거 특별허게 노인들이 말이여 거, 전수 받아 가지고 허는 사람이, 뭐 한 마을에나 하나 정도 잇이나 마나, 하나 둘 잇이나 마나 잇어.(뭐 마을마다 짜는 건 아니고, 거 특별하게 노인들이 말이야 거, 전수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뭐 한 마을에나 하나 정도 있으나 마나, 하나 둘 잇으나 마나 있어.)
106002 @ 옹포에도 잇언마씨?(옹포에도 있었어요?)
106002 #1 뭐, 옹포에는 내가 엇는 걸로 아는데, 그거 인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거기 가서 이제 정도 이제 사와. 뭐 이제 베 짠 거를 얼마 정도 사오면 그걸로 인제 상복 ᄀᆞ튼 것도 만들어 입고 말이지, 여름에 시원허니까.(뭐, 옹포에는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거 인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거기 가서 이제 정도 이제 사와. 뭐 이제 베 짠 거를 얼마 정도 사오면 그걸로 인제 상복 같은 것도 만들어 입고 말이지, 여름에 시원하니까.)
106002 @ 예.(예.)
106002 #1 뭐 그 저기, 반팔이라든가, 뭐 반바지라든가 이렇게도 만들어도 입고 헤 가지고, 그렇게 헌 생각이 나.(뭐 그 저기, 반팔이라든가, 뭐 반바지라든가 이렇게도 만들어도 입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생각이 나.)

106003 @ 그럼 그렇게 멩주 만들면 종류 잇잖아예. 멩주실. 멩주실 종류가 잇수광? 뭐, 뭐 잇언마씨?(그럼 그렇게 명주 만들면 종류 있잖아요. 명주실. 명주실 종류가 있습니까? 뭐, 뭐 있었어요?)

106003 #1 멩주는 고급이고, 그다음 모시, 그다음 베, 이렇게 나오는 게.(명주는 고급이고, 그다음 모시, 그다음 베, 이렇게 나오는 게.)

106003 @ 그럼 생명주, 수아주는 안 들어보션마씨?(그럼 생명주, 수아주는 안 들어보셨어요?)

106003 #1 그건 술이루?(그건 술이야?)

106003 @ 아, 그 맹준데예. 멩주 종류마씨.(아, 그 명주인데요. 명주 종류요.)

106003 #1 그거는 들어보지 못헷는데.(그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106004 @ 그러면 이제 명주실을 뽑잖아예 누에로 헤 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뒈잖아예. 어떤 옷을 만들주마씨?(그러면 이제 명주실을 뽑잖아요 누에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옷을 만들지요?)

106004 #1 멩주로써 멘드는 거는 말이지, 그 선비들 주로 말이지. 바지저고리로 입어 가지고. 거 여름에 뭐 쫌, 부를 나타내는 거지 한 마디로.(명주로써 만드는 거는 말이지, 그 선비들 주로 말이지. 바지저고리로 입어 가지고. 거 여름에 뭐 쫌, 부를 나타내는 거지 한 마디로.)

106004 @ 제주도에서도 많이 입언마씨?(제주도에서도 많이 입었어요?)

106004 #1 아, 많이 입엇지. 노인들도 그거, 여름에는 그거, 입어 가지고 말이지.(아, 많이 입었지. 노인들도 그거, 여름에는 그거, 입어 가지고 말이지.)

106004 @ 예.(예.)

106004 #1 뭐 좀 제주도 말로 건드렁ᄒᆞ게[135] 말이지. 좀 낭 아래에 강 앚아 가지고 쉬면서 말이야 여름을 보낸 옷 중에 하나가, 그거는 아주 고급이고, 옷 중에도. 그다음 모시, 그다음 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며는 명주로 짠 옷을 수의로 입혀 가지고, 옛날 이제 관에다가 넣고 말이지, 그리 헷어.(뭐 좀 제주도 말로 '건드렁ᄒᆞ게' 말이지. 좀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아 가지고 쉬면서 말이야 여름을 보낸 옷 중에 하나가, 그거는 아주 고급이고, 옷 중에도. 그다음 모시, 그다음 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명주로 짠 옷을 수의로 입혀 가지고, 옛날 이제 관에다가 넣고 말이지, 그리 했어.)

106005 @ 그럼 미녕 잇잖아예, 미녕실 뽑잖아예. 미녕실은 어떵 만들주마씨? 만드는 과정 좀 설명혜 줍서.(그럼 무명 있잖아요, 무명실 뽑잖아요. 무명실은 어떻게 만들지요? 만드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6005 #1 글쎄 그것도, 그 미녕실 허는 거는 옛날에 여기, 방직공장 ᄀᆞ튼 거, 쪼끔, 쪼끄만허게 소규모로 잇어 가지고. 거기서 그 저기 뭐 짜고. 또 어린애들 말이지, 기저귀 허는 그런 말이지,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저 나오고 면으로 뭔 거거든.(글쎄 그것도, 그 무명실 하는 거는 옛날에 여기, 방직공장 같은 거, 쪼끔, 쪼그마하게 소규모로 있어

135) '건드렁ᄒᆞ다'는 '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②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심신이 흐릿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문맥상 위 문장에서는 ①의 의미를 지니고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지고. 거기서 그 저기 뭐 짜고. 또 어린애들 말이지, 기저귀 하는 그런 말이지, 그런 것도 다 거기서 저 나오고 면으로 된 거거든.)

106005 @ 예.(예.)

106005 #1 그것이 어린애들 기저귀는 그, 저기 저, 뭐냐면 그 면으로 뒈지 않은 거면 살이 물러 가지고 안 돼. 게난 그 명주, 아니 그 저기, 그 미녕으로 만들어져 잇는 그런 것들은 아주 그 흡수력이 좋아 가지고 오줌 ᄀᆞ튼 거 누믄 그게 싹 다 빨아 버리니깐 여기, 저기 뭐 물러지지도 자주 갈아주는 데도 용이허고.(그것이 어린애들 기저귀는 그, 저기 저, 무냐면 그 면으로 되지 않은 거면 살이 물러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그 명주, 아니 그 저기, 그 무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아주 그 흡수력이 좋아 가지고 오줌 같은 거 누면 그게 싹 다 빨아 버리니깐 여기 저기 뭐 물러지지도 자주 갈아주는 데도 용이하고.)

106005 @ 예.(예.)

106005 #1 인제 빨기도 쉽고, 빨리 말르고. 이렇게 헤서 여러 번 자꾸 갈아주고 이렇게 허고, 허는 건데. 그게 인제 주로 우리 마을에도 방직공장이 잇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 필 두 필 사서 알맞게 짤라 가지고, 애기 기저귀도 허고.(인제 빨기도 쉽고, 빨리 마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자꾸 갈아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인제 주로 우리 마을에도 방직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 필 두 필 사서 알맞게 잘라 가지고, 아기 기저귀도 하고.)

106005 @ 예.(예.)

106005 #1 뭐 그 뭐 뭐냐며는 그 저기 저, 멘네 하면 그 저기 저, 그 소게라고 하지 소게. 소게를 그듸에 강 소게방에 가 가지고 딱 씨를 그 안에 씨 뽑아 가지고 허며는 복삭ᄒᆞ며는[136] 그걸 이제 이불식으로 만들면, 그것도 싸고 그랫어.(뭐 그 뭐 뭐냐면 그 저기 저, 목화 하면 그 저기 저, 그 솜이라고 하지 솜. 솜을 거기에 가서 솜방에 가 가지고 딱 씨를 그 안에 씨 뽑아 가지고 하면 '복삭ᄒᆞ면' 그걸 이제 이불식으로 만들면, 그것도 켜고 그랬어.)

106005 @ 예.(예.)

106005 #1 경 헤그넹 그걸로 싸 가지고, 그래야 그게 이동허지도 별로 않곡, 그 안에 딱 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불 허며는 가볍고 여름에는 말이지 잘 안 닦으지만 겨울에는 아주 따뜻허고 보온이 잘 뒈고.(그렇게 해서 그걸로 켜 가지고, 그래야 그게 이동하지도 별로 않고, 그 안에 딱 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불 하면 가볍고 여름에는 말이지 잘 안 닦지만 겨울에는 아주 따뜻하고 보온이 잘 되고.)

106005 @ 그럼 옹포에 방직공장은 언제까지 잇언마씨?(그럼 옹포에 방직공장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106005 #1 방직공장은 내가 한 스무, 열 한, 이십, 스무 살 때까지는 잇인 걸로 알아. 옹포도 잇어낫어.(방직공장은 내가 한 스무, 열 한, 이십, 스무 살 때까지는 있는 걸로 알아. 옹포오 있었어.)

---

136) '복삭ᄒᆞ다'는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106005 @ 그럼 방직공장에서는 뭐, 뭐 사완마씨?(그럼 방직공장에서는 뭐, 뭐 사왔어요?)
106005 #1 모기장 ᄀᆞ튼 것도 만들고, 거기서 뭐. 무슨 뭐, 애기 기저귀 ᄀᆞ튼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지 뭐. 옷감 ᄀᆞ튼 종류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모기장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서 뭐. 무슨 뭐, 아기 기저귀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지 뭐. 옷감 같은 종류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106005 @ 예.(예.)
106005 #1 하나만 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고.(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고.)
106005 @ 근데 그 모기장을 옛날에도 만들언마씨?(근데 그 모기장을 옛날에도 만들었어요?)
106005 #1 어어. 모기장 만들엇어. 우리 방직공장 잇을 때도 모기장 만들어 가지고, 그 모기장을 우리 삿어. 여름에는 그때는 말이지. 모기장 안 치면 자질 못허주게. 여름에 방충망도 엇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살 때는 모기장 전부 다 사서, 마루에 말이지 큰 모기장, 중간 거, 적은 거, 다 분류가 많이 돼. 모기는 옛날이 더 많은 거 같애. 경 허민 모닥불 많이 피워놔서 모기도 말이야 내쫓으고 허난 기억이 나.(어어. 모기장 만들었어. 우리 방직공장 있을 때도 모기장 만들어 가지고, 그 모기장을 우리 샀어. 여름에는 그때는 말이지. 모기장 안 치면 자지를 못하지. 여름에 방충망도 없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살 때는 모기장 전부 다 사서, 마루에 말이지 큰 모기장, 중간 거, 작은 거, 다 분류가 많이 돼. 모기는 옛날이 더 많은 거 같아. 그렇게 하면 모닥불 많이 피워놔서 모기도 말이야 내쫓고 한 기억이 나.)
106006 @ 옹포에서는 누에는 안 쳔마씨?(옹포에서는 누에는 안 쳤어요?)
106006 #1 누에치기 허는 건 엇어.(누에치기 하는 건 없어.)
106006 @ 그럼 누에치기 본 적도 엇으션마씨?(그럼 누에치기 본 적도 없으셨어요?)
106006 #1 들은 적은 잇는데 치는 거 본 적은 엇어.(들은 적은 있는데 치는 거 본 적으 없어.)
106006 @ 들엇을 때 뭐 어떵 하는 건지 대충 ᄀᆞᆯ아 줍서.(들었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말해 주십시오.)
106006 #1 그 뭐 뽕나무 뭐, 헤 가지고, 누에고치에 주며는 그거 먹고 말이지 뭐 무슨 그 뭐 실을 뽑고 뭐 허고 헌다고.(그 뭐 뽕나무 뭐, 해 가지고, 누에고치에 주면 그거 먹고 말이지 뭐 무슨 그 뭐 실을 뽑고 뭐 하고 한다고.)

무명

106007 @ 미녕 잇잖아예, 미녕은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무명 있잖아요, 무명은 종류가 뭐, 뭐 있지요?)
106007 #1 미녕이 주로 뭐, 광목이라고 헤 가지고, 그 미녕으로 만든 천, 천 종류지.

(무명이 주로 뭐, 광목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무명으로 만든 천, 천 종류지.)
106007 @ 예.(예.)
106007 #1 광목으로 만든 것이 면이라 면. 한 마디로 지금 우리가 입는 그 면 종류에서는 광목 기지로 만들어 가지고.(광목으로 만든 것이 면이야 면. 한 마디로 지금 우리가 입는 그 면 종류에서는 광목 기지로 만들어 가지고.
106007 @ 예.(예.)
106007 #1 아까 감물 들이고 뭐 허고, 다 허는 것도 말이지 그 광목으로 말이여, 그 바지저고리 만들고 헤 가지고 감물 들여 가지고 주로 뭐 한 집에 하나 두 개 엇는 집이 엇어 당시만 ᄒᆞ더래도.(아까 감물 들이고 뭐 하고, 다 하는 것도 말이지 그 광목으로 말이야, 그 바지저고리 만들고 해 가지고 감물 들여 가지고 주로 뭐 한 집에 하나 두 개 없는 집이 없어 당시만 하더라도.)
106007 @ 예.(예.)
106007 #1 게고 이 저, 갈중의 ᄀᆞ튼 거는 이 바지저고리를 집에 가서 만들어 달랑 헤 가지고. 가지고 오면 이제 감, 한 삼사 월쯤 되며는 감 열어 가지고 숙성허기 전에 따 가지고 그걸 이제 방에에 강 놔 가지고 막 뿟아 가지고, (그리고 이 저, '갈중의' 같은 거는 이 바지저고리를 집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 이제 감, 한 삼사 월쯤 되면 감 열어 가지고 숙성하기 전에 따 가지고 그걸 이제 방아에 가서 놔 가지고 막 빻아 가지고.)
106007 @ 예.(예.)
106007 #1 그 이제 물을 짜 가지고 물 쪼끔 희석헤 가지고 쪼금 희석헤서 거기다 이제 감물을 묻혀 가지고 널어 놔두민 바짝 ᄆᆞ르주게.(그 이제 물을 짜 가지고 물 쪼금 희석해 가지고 쪼금 희석해서 거기다 이제 감물을 묻혀 가지고 널어 놔두면 바짝 마르지.)
106007 @ 예.(예.)
106007 #1 그거 입으민 이 사람 땀이 나도 그 옷이 달라붙으질 않아 몸에. 절대 안 달라붙어. 그거 참 희한한 옷이라. 내가 보더래도 말이야. 지금도 거 이제 금능, 그 저기 저 어디고 그 한림공원 앞에도 갈중의 멘들어서 파는 데도 잇주마는 여 전문적으로 이제 저 명월 그 명월 국, 초등학교 ᄒᆞ던 데가 감물 감물로 정, 뭐,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모자도 만들고, 핸드백도 만들고, 뭐, 조끼도 만들고 반바지도 만들고 치마저고리 엇는 게 엇이 만들어 내는 게 지금도 현재 여기 잇어.(그거 입으면 이 사람 땀이 나도 그 옷이 달라붙지를 않아 몸에. 절대 안 달라붙어. 그거 참 희한한 옷이야. 내가 보더라도 말이야. 지금도 거 이제 금능, 그 저기 저 어디고 그 한림공원 앞에도 '갈중의' 만들어서 파는 데도 있지만 여 전문적으로 이제 저 명월 그 명월 국, 초등학교 하던 데가 감물 감물로 정, 뭐,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모자도 만들고, 핸드백도 만들고, 뭐, 조끼도 만들고 반바지도 만들고 치마저고리 없는 게 없이 만들어 내는 게 지금도 현재 여기 있어.)
106007 @ 그렇구나예. 그럼 광목 말고 생목이나 토목은 안 들어보션마씨?(그렇군요. 그럼 광목 말고 생목이나 토목은 안 들어보셨어요?)
106007 #1 생목 ᄀᆞ튼 거는 잘 들어본 적이 엇는.(생목 같은 거는 잘 들어본 적이 없

는.)
106008 @ 그럼 닷세미녕이나, 잊세미녕, 으덟새미녕 ᄀᆞ튼 건 안 들어보션마씨?(그럼 닷새무명이나, 엿새무명, 여덟새무명 같은 건 안 들어보셨어요?)
106008 #1 아, 뭐 미녕 ᄀᆞ튼 거는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잇을 거야.(아, 뭐 무명 같은 거는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야.)
106008 @ 그럼 미녕 종류 좀 아시는 거 잇이면 좀.(그럼 무명 종류 좀 아시는 거 있으면 좀.)
106008 #1 미녕도 우리는 뭐 옷 ᄒᆞ는 사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뭐 포목점 ᄀᆞ튼 데서나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말이야 전부 다 만드는 사람들이 포목점에 가서 팔든지. 포목점에서 거기 가서 사다가 이제 팔든지 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옷 종류는 어렷을 땐 잘 몰르고. 주로 미녕, 광목 그런 옷 만들어서 입엇어.(무명도 우리는 뭐 옷 하는 사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뭐 포목점 같은 데서나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말이야 전부 다 만드는 사람들이 포목점에 가서 팔든지. 포목점에서 거기 가서 사다가 이제 팔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옷 종류는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주로 무명, 광목 그런 옷 만들어서 입었어.)
106009 @ 미녕으로는 어떤 옷 만든다고 헷주마씨?(무명으로는 어떤 옷 만든다고 했지요?)
106009 #1 뭐, 바지저고리 ᄀᆞ튼 거, 뭐 빤스 ᄀᆞ튼 것도 다 만들고 말이야. 저 조끼 ᄀᆞ튼 거 다 만들어 입고, 그걸로도 생활필수품 안 만드는 게 엇엇으니까.(뭐, 바지저고리 같은 거, 뭐 팬티 같은 것도 다 만들고 말이야. 저 조끼 같은 거 다 만들어 입고, 그걸로도 생활필수품 안 만드는 게 없었으니까.)
106010 @ 토목은 못 들어보셧다고 헷지예? 광목은 다 미녕이우광?(토목은 못 들어보셨다고 했지요? 광목은 다 무명입니까?)
106010 #1 미녕허고 광목이 다 ᄀᆞ튼 걸로 봐도 뒐 거 같애 내가 보기엔.(무명하고 광목이 다 같은 걸로 봐도 될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106010 @ 아.(아.)
106010 #1 그게 면이라. 광목이나 미녕이나 전부 다 면으로 뒌 실로 뒌 거거든. 그러니까 몸에 아주, 아주 좋은 거야. 나이롱보다는 백 배 말이지, 천 배 좋은 게 몸에 미녕옷, 광목곳이 췌고 좋아.(그게 면이야. 광목이나 무명이나 전부 다 면으로 된 실로 된 거거든. 그러니까 몸에 아주, 아주 좋은 거야. 나일론보다는 백 배 말이지, 천 배 좋은 게 몸에 무명옷, 광목옷이 췌고 좋아.)
106011 @ 그러면 홍세미녕[137]은 들어보션마씨?(그러면 '홍세미녕'은 들어보셨어요?)
106011 #1 홍세미녕 ᄀᆞ튼 거는 아마 고급스러운 미녕 ᄀᆞ튼데. 내가 보기에.('홍세미녕' 같은 거는 아마 고급스러운 무명 같은데. 내가 보기에.)
106011 @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예물이나 그런 거 보내는 함 ᄀᆞ튼 데 넣

137)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는 거를 홍세미녕이라 헴신디.(결혼하는 신랑이 신부집에 보내는 예물이나 그런 거 보내는 함 같은 데 넣는 거를 '홍세미녕'이라 하는데.)
106011 #1 그런 포장용 말이지, 보따리 ᄀᆞ튼데. 그런 것도 잇겟지. 뭐 나는 보기는 봣지마는 그렇게 들어보긴 좀 생소하네. 저기 저 함 들고 다니는 포는 특별난 걸로 싸고 간다고 헤. 예물도 그 집에 인제 그 신랑 말이지. 함 사시오 함 사시오 옛날도 허면서 헷지만.(그런 포장용 말이지, 보따리 같은데. 그런 것도 있겠지. 뭐 나는 보기는 봤지만 그렇게 들어보기는 좀 생소하네. 저기 저 함 들고 다니는 포는 특별난 걸로 싸고 간다고 해. 예물도 그 집에 인제 그 신랑 말이지. 함 사시오 함 사시오 옛날도 하면서 했지만.)
106011 @ 예.(예.)
106011 #1 우리 헐 때만 헤도 그 함 장시는 제주도에 크게 엇엇어. 우리는 제주도에, 그 우리가 어릴 때 말이지, 결혼허는 거 보면은 그 신랑도 말 타고 말이여, 앞에 말이지, 그 말 이끄는 마부 하나 잇어 가지고, 말로 신랑이 타고 사모관대 쓰고 말이여, 헤 가지고 신부집에 내려 가지고 신부 데려오는 걸로 말이여, 그런 걸로 주로 많이 허고, 우리가 결혼홀 때쯤 됀니깐 그때도 택시도 별로 엇고, 군용 반 트럭 그걸로 타서는 저 결혼날 여기서 판포까지 말이야 색시 데리러 가면서 말이야, 갓다 온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쭉 이제 시발택시도 나오고, 그때부터는 뭐 그 신랑 신부용 말이지, 자동차들도 말이여 택시 ᄀᆞ튼 걸로 이렇게. 우리가 스무 살 때니깐 뭐.(우리 할 때만 해도 그 함 장수는 제주도에 크게 없었어. 우리는 제주도에, 그 우리가 어릴 때 말이지, 결혼하는 거 보면 그 신랑도 말 타고 말이야, 앞에 말이지, 그 말 이끄는 마부 하나 있어 가지고, 말로 신랑이 타고 사모관대 쓰고 말이야, 해 가지고 신부집에 내려 가지고 신부 데려오는 걸로 말이야, 그런 걸로 주로 많이 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쯤 되니깐 그때도 택시도 별로 없고, 군용 반 트럭 그걸로 타서는 저 결혼날 여기서 판포[138]까지 말이야 색시 데리러 가면서 말이야,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쭉 이제 시발택시도 나오고, 그때부터는 뭐 그 신랑 신부용 말이지, 자동차들도 말이여 택시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스무 살 때니깐 뭐.)
106012 @ 그럼 멘네는 들어봣지예?(그럼 목화는 들어봤지요?)
106012 #1 멘네가 그거 ᄒᆞ며는 멘네 이제 그 저기 솜집에 가며는 멘네 테와 달렌 그러며는 기계로 이래 이래 다 집어넣으면 씨는 씨대로 다 빠지고 멘네만 남으면 그걸로 이제 이불이나 요나 멘들어 가지고 헤난 거주게.(목화가 그거 하면 목화 이제 그 저기 솜집에 가면 목화 태워 달라고 그러면 기계로 이리 이리 다 집어넣으면 씨는 씨대로 다 빠지고 목화만 남으면 그걸로 이제 이불이나 요나 만들어 가지고 했던 거지.)
106012 @ 멘네 농사는 안 지언마씨?(목화 농사는 안 지었어요?)
106012 #1 농사지엇지. 우리도 직접 지어 가지고, 멘네 따면 하얀 거만 따다가 집에서 막 말려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말리면 소게집에라고 헤 가지고 소게집에 가 가지고 이제 주면 거기서 전부 다 이런 기계로 돌리면 씨는 씨대로 다 빠져.(농사지었지. 우리

138) '판포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행정리 중 하나이다.

도 직접 지어 가지고, 목화 따면 하얀 거만 따다가 집에서 막 말려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말리면 솜집이라고 해 가지고 솜집에 가 가지고 이제 주면 거기서 전부 다 이런 기계로 돌리면 씨는 씨대로 다 빠져.)

106012 @ 예.(예.)

106012 #1 경 ᄒᆞ민 이제 솜만 남으면 솜공장에서 알맞은 이불 규격대로 딱 멘들어 줘. 이불이면 이불, 요면 요대로. 경 ᄒᆞ며는 아까 그 광목 닮은 말이지 미녕 닮은 걸로 안에 싸서 또 그 포장 인제 하는 거는 ᄒᆞ꼼 좀 나은 말이지 뭐, 비단도 그때는 나오고, 유단도 나오고, 뭐 무슨 그 쫌 고급스러운 걸로 이제 이불 ᄀᆞ튼 거 요 ᄀᆞ튼 거 멘들엉 시집 갈 때도 가졍 가고 말이여 이렇게 허고.(그렇게 하면 이제 솜만 남으면 솜공장에서 알맞은 이불 규격대로 딱 만들어 줘. 이불이면 이불, 요면 요대로. 그렇게 하면 아까 그 광목 같은 말이지 무명 같은 걸로 안에 싸서 또 그 포장 인제 하는 거는 조금 좀 나은 말이지 뭐, 비단도 그때는 나오고, 유단도 나오고, 뭐 무슨 그 쫌 고급스러운 걸로 이제 이불 같은 거 요 같은 거 만들어서 시집 갈 때도 가지고 가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106012 @ 멘네 농사는 어떵 ᄒᆞ는지 농사에 대해 좀 ᄀᆞᆯ아 주면 안 뒐까마씨?(목화 농사는 어떻게 하는지 농사에 대해 좀 말해 주면 안 될까요?)

106012 #1 농사는 뭐 멘네 실을 가져 가지고, 그것도 말이지 멘네를 말이여 밧 갈아 가지고 씨 뿌려 가지고. 거 저 섬비로 말이여 끗어 가지고 가면 그 저기 멘네가 나. 나면은 가을에 막 꼿이 막 피엇어. 다음에 이만한 열매가 다 열려. 그다음에 익으면 그게 이렇게 베르싸면 그 안에 솜이 말이지 네 가달로 나와. 이렇게 뒌 건디. 이렇게 헤서 사각으로 헤 가지고, 네 개 다 뽑아내 가지고. 집에 와서 말려 가지고 솜집에 가 가지고 솜을 빼내서 이불이나 요나 만들고 그랫지. 방석도 멘들고, 뭐 여러 가지.(농사는 뭐 목화 실을 가져 가지고, 그것도 말이지 목화를 말이야 밭 갈아 가지고 씨 뿌려 가지고. 거 저 끙게로 말이야 끌어 가지고 가면 그 저기 목화가 나. 나면은 가을에 막 꽃이 막 피었어. 다음에 이만한 열매가 다 열려. 그다음에 익으면 그게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솜이 말이지 네 가닥으로 나와.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해 가지고, 네 개 다 뽑아내 가지고. 집에 와서 말려 가지고 솜집에 가 가지고 솜을 빼내서 이불이나 요나 만들고 그랬지. 방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모시

106013 @ 모시도 아셔마씨?(모시도 아세요?)

106013 #1 모시는 그 명주실로 인제 그 나오는 일종인데 명주 다음에 모시. 그다음 베 종류로 일, 이, 삼 등급ᄀᆞ치 나오고 그럴걸?(모시는 그 명주실로 인제 그 나오는 일종인데 명주 다음에 모시. 그다음 베 종류로 일, 이, 삼 등급같이 나오고 그럴걸?)

106013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6013 #1 ᄋᆞ. 모시는 멩주보다는 조금 굵곡 그다음에 베는 그보다 더 굵고게. 제일 가는 게 멩주라. 명주가 말이여 명주옷은 그렇게 말이여 사람이 입으며는 말이지 고급

스럽지마는 수의로도 명주옷으로 말이여 사람이 죽으면 명주로 말이여 우알 말이여 이 빤스까지 전부 다 멘들엇당 돌아가면 저 목욕 시켜 가지고 말이여 그거 입혀 가지고 관에 넣고 말이여 매장헷어.(어. 모시는 명주보다는 조금 굵고 그다음에 베는 그보다 더 굵고. 제일 가는 게 명주야. 명주가 말이야 명주옷은 그렇게 말이야 사람이 입으면 말이지 고급스럽지만 수의로도 명주옷으로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명주로 말이야 위아래 말이야 이 팬티까지 전부 다 만들었다가 돌아가면 저 목욕 시켜 가지고 말이야 그거 입혀 가지고 관에 넣고 말이야 매장했어.)

106013 @ 실 뽑는 건 명주실이나 베나 똑같아마씨?(실 뽑는 건 명주실이나 베나 똑같아요?)

106013 #1 뽑는 거는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식으로 말이여 뽑아내는 거는 마찬가지.(뽑는 거는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식으로 말이야 뽑아내는 거는 마찬가지.)

106014 @ 멩주로는 좋은 옷 만들잖아예. 모시로는 어떵 옷 만들어마씨?(명주로는 좋은 옷 만들잖아요. 모시로는 어떻게 옷 만들어요?)

106014 #1 보통 그 멩주허고 ᄀᆞ트주마는 급이 한 급 떨어진다고 허면 뒈지. ᄀᆞ튼 건데 베는 또 그, 저 색깔이. 베옷 잇잖아.(보통 그 명주하고 같지만 급이 한 급 떨어진다고 하면 되지. 같은 건데 베는 또 그, 저 색깔이. 베옷 있잖아.)

106014 @ 예.(예.)

106014 #1 베옷은 상주덜 입는 그 옷이지마는 멩주나 모시는 하양 하얗게. 예를 들으 그넹 설탕 흑설탕 빻아 놓은 다음에 막 빠다 보면 백설탕 나오듯이 그런 형태로 뭰 거주게. 제일 나중에 막 백설탕 막 가는 거고 그다음에 황설탕 그다음에 흑설탕 이렇게 허는 거지. 그렇게 ᄒᆞ듯이 멩주가 제일 가늘고 그다음에 말이여 중간에 모시는 그다음에 황설탕 종류 뒈고 제일 흑설탕은 말이지 베가 뒈는 식으로. 일, 이, 삼 등급으로 이렇게 분리가 뒈주게.(베옷은 상주들 입는 그 옷이지만 명주나 모시는 하양 하얗게. 예를 들어서 설탕 흑설탕 빻아 놓은 다음에 막 빻다 보면 백설탕 나옷듯이 그런 형태로 된 거지. 제일 나중에 막 백설탕 막 가는 거고 그다음에 황설탕 그다음에 흑설탕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듯이 명주가 제일 가늘고 그다음에 말이야 중간에 모시는 그다음에 황설탕 종류 되고 제일 흑설탕은 말이지 베가 되는 식으로. 일, 이, 삼 등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106015 @ 그럼 모시도 재배를 헨마씨?(그럼 모시도 재배를 했어요?)

106015 #1 모시는 나 생각에는 말이여 누에고치로 말이지.(모시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누에고치로 말이지.

106015 @ 예.(예.)

106015 #1 그 저기 대량으로 말이지 뽕나무 잎 따다가 누에고치 멕여 가지고 고치로써 그 저 실이 나오거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요만헌 거 하나라도. 게서 계속 물레로 돌려서 뽑아 가지고 그걸 이걸 틀에서 짜는 거야.(그 저기 대량으로 말이지 뽕나무 잎 따다가 누에고치 먹여 가지고 고치로써 그 저 실이 나오거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요만한 거 하나라도. 그래서 계속 물레로 돌려서 뽑아 가지고 그걸 이제 틀에서 짜는 거야.)

삼

106016 @ 그럼 베 잇잖아예. 베 실은 어떵 만드는지 알아마씨?(그럼 베 있잖아요. 베 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106016 #1 그런 것도 똑같다고 봐. 질 나중에 나온 것이 나쁜 것이 아마 그 정도로 허는데. 베는 뭘로 그렇게 뽑아서 말이지 짜는지 모르겟네.(그런 것도 똑같다고 봐. 제일 나중에 나온 것이 나쁜 것이 아마 그 정도로 하는데. 베는 뭘로 그렇게 뽑아서 말이지 짜는지 모르겠네.)

도구

106019 @ 그럼 멘네 뽑는 기계는 씨아라고 하션마씨? 물레라고 하션마씨?(그럼 목화 뽑는 기계는 씨아라고 하셨어요? 물레라고 하셨어요?)
106019 #1 그거는 물레로 돌리는 건 가정용에서 이만큼 돌리면 따온 거를 말린 거를 영 와그넹 물레에 돌리면 씨는 빠지고 멘네만 저리 나가주게. 그거를 이제 크게 헐라면 공장 솜공장에 가면 대량으로 놔도 말이여 그거를 다 이제 분리허면서 씨는 씨대로 솜은 솜대로 만들어 내는 게, 공장이고. 집에서는 옛날에 심심허니까 밤새 뭐 물레 돌리다가 말이여, 좀 말이지 피곤허면 자고 말이야, 다음 날도 말이야 일 엇으니까 그거를 ᄒᆞ고, 그렇게 헷어.(그거는 물레로 돌리는 건 가정용에서 이만큼 돌리면 따온 거를 말린 거를 이렇게 와서 물레에 돌리면 씨는 빠지고 목화만 저리 나가지. 그거를 이제 크게 하려며 공장 솜공장에 가면 대량으로 놔도 말이야 그거를 다 이제 분리하면서 씨는 씨대로 솜은 솜대로 만들어 내는 게, 공장이고. 집에서는 옛날에 심심하니까 밤새 뭐 물레 돌리다가 말이야, 좀 말이지 피곤하면 자고 말이야, 다음 날도 말이야 일 없으니까 그거를 하고, 그렇게 했어.)
106020 @ 그럼 물레랑 베틀이랑 뭐가 다르주마씨?(그럼 물레랑 베틀이랑 뭐가 다르지요?)
106020 #1 베틀? 베틀은 이렇게 왓다갓다 그저 옷감을 짜내는 거고, 그 물레는 멘네를 말이야 분리ᄒᆞ는 거지. 씨허고 소게허고, 솜허고 분리하는 게 베틀이고.(베틀? 베틀은 이렇게 왔다갔다 그저 옷감을 짜내는 거고, 그 물레는 목화를 말이야 분리하는 거지. 씨하고 솜하고, 솜하고 분리하는 게 베틀이고.)
106020 @ 그럼 씨아는 안 들어보션마씨?(그럼 씨아는 안 들어보셨어요?)
106020 #1 씨아는. 그런 건 들어본 적은.(씨아는. 그런 건 들어본 적은.)
106020 @ 그럼 물레는 멘네랑 씨를 분리허고, 소게 가지고 베틀로 옷감 짜는 거마씨?(그럼 물레는 목화랑 씨를 분리하고, 솜 가지고 베틀로 옷감 짜는 거예요?)
106020 #1 아니, 아니 그거는 베틀로 옷 짜는 거는 누에고치 명주나 솜, 저기 저, 모시 ᄀᆞ튼 거는 베틀로 이제 착, 착착착 허면 하나씩 하나씩 말이여 한 번 갈 때마다 이

렇게, 이렇게 저 밀려줘.(아니, 아니 그거는 베틀로 옷 짜는 거는 누에고치 명주나 솜, 저기 저, 모시 같은 거는 베틀로 이제 착, 착착착 하면 하나씩 하나씩 말이야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저 밀려줘.)

106020 @ 예.(예.)

106020 #1 경 헤가민 계속 헤가민 이렇게 뭐 물건 영 살 때 이렇게, 이렇게 감아지면서 말이여 나중엔 말이여 굉장히 많은 것이 뒈지. 옷감이 만들어지지. 게서 한 필, 두 필 헤 가지고 파는 거라.(그렇게 해가면 계속 해가면 이렇게 뭐 물건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이렇게 감아지면서 말이야 나중에는 말이야 굉장히 많은 것이 되지. 옷감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한 필, 두 필 해 가지고 파는 거야.)

106020 @ 그럼 물레는 집집마다 잇엇신가마씨?(그럼 물레는 집집마아 있었나요?)

106020 #1 집집마다 거의 잇엇다고 볼, 아 저기 멘네를 가는 사람네 집에는 필수적으로 잇엇지. 게난 그거를 왜냐면 많이는 안 헤도 자기네가 말이지.(집집마다 거의 있었다고 볼, 아 저기 목화를 가는 사람네 집에는 필수적으로 있었지. 그러니 그거를 왜냐면 많이는 안 해도 자기네가 말이지.)

106020 @ 예.(예.)

106020 #1 이불 ᄀᆞ튼 거라든가 혼숫감을 마련허기 위헤서는 멘네를 갈아 가지고. 그 솜으로 말이여, 그 저기 저 새각시, 신붓집에서는 옷을 말이지, 아니 그 이불을 뭐 자기네 덖을 거라든가 시집에 부모한테라든가 헤서 세 채, 네 채 정도 헤 갈라면 멘네를 한 번 헤 가지고 그거 뭐, 이불이 뭐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해 농사에 한 채, 두 채밧긔 안 나와. 거 많이 안 나와. 큰 밧에 갈아 봐야. 그게 모여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다 보니까.(이불 같은 거라든가 혼숫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화를 갈아 가지고. 그 솜으로 말이야, 그 저기 저 새색시, 신붓집에서는 옷을 말이지, 아니 그 이불을 뭐 자기네 덮을 거라든가 시집에 부모한테라든가 해서 세 채, 네 채 정도 해 가려면 목화를 한 번 해 가지고 그거 뭐, 이불이 뭐 여러 개 나오는 게 아니야. 한 해 농사에 한 채, 두 채밖에 안 나와. 거 많이 안 나와. 큰 밭에 갈아 봐야. 그게 모여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다 보니까.)

106020 @ 베틀은 옷 만드는 집, 가게에만 잇언신가마씨?(베틀은 옷 만드는 집, 가게에만 있었나요?)

106020 #1 거 집에다가 베틀을 말이여 헤 가지고, 명주실을 사다가 짜.(거 집에다가 베틀을 말이야 해 가지고, 명주실을 사다가 짜.)

106020 @ 베틀을 집에다가 많이 사다 놘마씨?(베틀을 집에다가 많이 사다 놨어요?)

106020 #1 뭐 마을에 하나 두 개 잇이나 마나 헷지. 우리 어릴 때 보면 한 집 짜는 걸 내가 가서 봣는데, 아주 희한헤. 정말 많이 그걸로 옷감을 짜낸다는 게 말이지.(뭐 마을에 하나 두 개 있으나 마나 했지. 우리 어릴 때 보면 한 집 짜는 걸 내가 가서 봤는데, 아주 희한해. 정말 많이 그걸로 옷감을 짜낸다는 게 말이지.)

바느질

106022 @ 그 어르신 바느질 헐 때 쓰는 도구는 뭐, 뭐 잇언마씨? 지금이랑 옛날이랑 많이 안 다를 거 닮은디.(그 어르신 바느질 할 때 쓰는 도구는 뭐, 뭐 있었어요? 지금이랑 옛날이랑 많이 안 다를 거 같은데.)

106022 #1 바농허고 뭐, 실허고 말이야 옷감이 잇으며는 말이지, 그거허고 뭐. 미녕 ᄀᆞ튼 거 옷 좀 잘라내그넹 말이여, 양말도 빵꾸 나면 말이지, 거기다 짤라서 말이여. 옛날에는 말이여 학생복 이런 데도 터지면 이렇게 헤 가지고 그만큼 짤랏어. 그랫어 다. 옛날엔 재봉틀이라는 게 거의 엇엇지.(바늘하고 뭐, 실하고 말이야 옷감이 있으면 말이지, 그거하고 뭐. 무명 같은 거 옷 좀 잘라내서 말이야, 양말도 펑크 나면 말이지, 거기다 잘라서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학생복 이런 데도 터지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만큼 잘랐어. 그랬어 다. 옛날에는 재봉틀이라는 게 거의 없었지.)

106022 @ 손에 끼는 건 엇엇주마씨?(손에 끼는 건 없었지요?)

106022 #1 글쎄 그거는 바농 말이지 뭐라고 허는디. 그것도게 뭐 이름이 잇기는 잇겟주게.(글쎄 그거는 바늘 말이지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이름이 있기는 있겠지.)

106022 @ 서울에서는 골무라고 하는데예.(서울에서는 골무라고 하는데요.)

106022 #1 골무 맞아. 골무라고 들어봣다. 그거는 나도 기억이 좀 나멘.(골무 맞아. 골무라고 들어봤다. 그거는 나도 기억이 좀 난다.)

106022 @ 바농이랑 실 넣는 상자 ᄀᆞ튼 건 혹시?(바늘이랑 실 넣는 상자 같은 건 혹시?)

106022 #1 그거는 인제 바농쌈지. 바농쌈지라고 헤 가지고, 바농쌈지에는 주로 말이여 실, 바농, 바농도 말이여, 멕바농도 잇고, 옷바농, 뭐 무슨. 바농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 멕, 멕바농이라고 헤서 맹태기 짜는 바농도 잇고 말이지, 뭐, 중간에 큰 가빠도 말이여 그런 거 허기도 허고. 바늘 종류가 상당히 많아.(그거는 인제 바늘쌈지. 바늘쌈지라고 해 가지고, 바늘쌈지에는 주로 말이야 실, 바늘, 바늘도 말이야, 돗바늘도 있고, 옷바늘, 뭐 무슨. 바늘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 돗, 돗바늘이라고 해서 망태기 짜는 바늘도 있고 말아지, 뭐, 중간에 큰 가빠도 말이야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바늘 종류가 상당히 많아.)

106022 @ 많아마씨?(많아요?)

106022 #1 맹태기도 헐려면 멕바늘이라고 헤 가지고 큰 바늘로 말이여, 큰 바늘로 멕바늘로 헹 꿰어 가지고 터진 데를 메꾼다니까. 각바농은 잘 모르겟네. 옷바농, 옷을 말이여, 꿰매고 허는 거는 옷바농으로, 옷바늘로 말이여 다 이제 꼬매고. 멕바늘 ᄀᆞ튼 것도 큰 바늘도 잇어 가지고 멍석 ᄀᆞ튼 것도 헐면 짜깁기 말이여 이렇게 허고 헷주.(망태기도 하려면 돗바늘이라고 해 가지고 큰 바늘로 말이야, 큰 바늘로 돗바늘로 해서 꿰어 가지고 터진 데를 메꾼다니까. '각바농'은 잘 모르겠네. 옷바늘, 옷을 말이야, 꿰매고 하는 거는 옷바늘로, 옷바늘로 말이야 다 이제 꿰매고. 돗바늘 같은 것도 큰 바늘도 있어 가지고 멍석 같은 것도 헐면 짜깁기 말이야 이렇게 하고 했지.)

106022 @ 멍석은 어떵 만들주마씨?(멍석은 어떻게 만들지요?)

106022 #1 멍석은 찍으로 만들지. 찍으로. 멍석 만드는 사람은 마을에 한두 사람이 잇엇어. 손으로 다 이렇게 말이여, 그 이렇게 베 짜듯이 말이여, 그게 삼베거든힘든 거라.(멍석은 짚으로 만들지. 짚으로. 멍석 만드는 사람은 마을에 한두 사람이 있었어. 손으로 다 이렇게 말이야, 그 이렇게 베 짜듯이 말이야, 그게 삼베거든 힘든 거야.)

106022 @ 예.(예.)

106022 #1 경 허영 멍석 짜면은 말이여 그때 돈 오천 원이나 받고 팔앗주. 그때 돈 오천 원이면 굉장히 비쌋지. 그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멍석 엇는 집은 엇어. 왜냐면 널어놓는 그것이 멍석밧긔 엇으니까. 곡식이나 뭐나 모든 것은 멍석 우에다 말렷으니까.(그렇게 해서 멍석 짜면 말이야 그때 돈 오천 원이나 받고 팔았지. 그때 돈 오천 원이면 굉장히 비쌌지. 그러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멍석 없는 집은 없어. 왜냐면 널어놓는 그것이 멍석밖에 없으니까. 곡식이나 뭐나 모든 것은 멍석 위에다 말렸으니까.)

옷 종류

106024 @ 옛날에 지금이랑 옛날이랑 남자들 입는 옷 잇잖아예. 달라진 거 얘기해줍서.(옛날에 지금이랑 옛날이랑 남자들 입는 옷 있잖아요. 달라진 거 얘기해주십시오.)

106024 #1 남자 옷이야, 옛날 사람들이야 뭐 주로 그 설날 때 입는 그 말이여, 멩질 저고리 바지에 두루마기라고 허는 걸 주로 그, 한가위, 한가위는 안 입고, 그 설날 때는 그런 거 주로 입고. 보통 때는 뭐 그냥 양복도 잘 사는 사람은 입기도 허고. 양복이야 나중에 나왓주만 그때 당시도 다 잇엇어.(남자 옷이야, 옛날 사람들이야 뭐 주로 그 설날 때 입는 그 말이야 명절 저고리 바지에 두루마기라고 하는 걸 주로 그, 한가위, 한가위는 안 입곡, 그 설날 때는 그런 거 주로 입고. 보통 때는 뭐 그냥 양복도 잘 사는 사람은 입기도 하고. 양복이야 나중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도 다 있었어.)

106024 @ 보통은 한복을 입지 않안마씨?(보통은 한복을 입지 않았어요?)

106024 #1 한복도 입지마는 한복이 그렇게 뭐, 큰일 때 ᄀᆞ튼 때, 집안에 행사나 뭐 이렇게 날 때 입지. 그렇게 잘 입지는 안 헤.(한복도 입지마는 한복이 그렇게 뭐, 큰일 때 같은 때, 집안에 행사나 뭐 이렇게 날 때 입지. 그렇게 잘 입지는 않아.)

106024 @ 그럼 평상시엔 뭐 입언마씨?(그럼 평상시에는 뭐 입었어요?)

106024 #1 보통 뭐 지금ᄀᆞ튼 그런 옷감도 건줌 다 잇엇어. 그때도 우리가 어릴 때도.(보통 뭐 지금같은 그런 옷감도 거의 다 있었어. 그때도 우리가 어릴 때도.)

106025 @ 그럼 여자 옷은 어땐마씨?(그럼 여자 옷은 어땠어요?)

106025 #1 옛날에도 무슨 말이지, 적삼이나 헤 가지고 미녕, 광목으로 멘든 것들 주로 입엇지. 적삼 말이지 그것도 다 감물 들여서도 입고. 빤스 헤그넨 말이여 그런 것도 다 광목, 뭐 미녕으로 다 멘들어서 입고. 여자들은 주로 몸뻬라고 헤 가지고 그 입고. 치마도 광목 치마, 뭐 몸뻬 ᄀᆞ튼 거 말이여, 광목으로 미녕으로 멘든 걸 주로 입엇지. 소중기[139]는 여자들, 해녀들 입는 빤쓰라.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 허면 해녀들 입는 물

139) '소중기'는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소중의, 속곳'

옷.(옛날에도 무슨 말이지, 적삼이나 해 가지고 무명, 광목으로 만든 것들 주로 입었지. 적삼 말이지 그것도 다 감물 들여서도 입고. 팬티 해서 말이야 그런 것도 다 광목, 뭐 무명으로 다 만들어서 입고. 여자들은 주로 몸빼라고 해 가지고 그 입고. 치마도 광목 치마, 뭐 몸빼 같은 거 말이야, 광목으로 무명으로 만든 걸 주로 입었지. '소중기'은 여자들, 해녀들 입는 팬티야.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 하면 해녀들 입는 물옷.)

106026 @ 그럼 옛날에는 애들 옷 뭐 입현마씨?(그럼 옛날에는 애들 옷 뭐 입혔어요?)

106026 #1 애기들이야 뭐 별로 입을 거 잇나. 그 뭐 무슨 어릴 그 저기 저 그 면으로 뭰 그 저기 말이여. 그걸로 애기 옷을 집에서 쪼끔 멘들어서 입히곤 헷주. 방직공장에서 나온 그 애들 말이지, 면으로 뭰 것들. 쪼끔 헤 가지고 집에서 웬만허믄 빤스 ᄀᆞ튼 거, 우에 이렇게 조끼 ᄀᆞ튼 거는 웬만허게 다 만들엇어.(아기들이야 뭐 별로 입을 거 있나. 그 뭐 무슨 어릴 그 저기 저 그 면으로 된 그 저기 말이야. 그걸로 아기 옷을 집에서 쪼끔 만들어서 입히곤 했지. 방직공장에서 나온 그 애들 말이지, 면으로 된 것들. 쪼끔 해 가지고 집에서 웬만하면 팬티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조끼 같은 거는 웬만하게 다 만들었어.)

106026 @ 아.(아.)

106026 #1 집에서 다 만들어 입히고. 애기 커 가면 애기 또 옷 사주고 말이여. 우리 어릴 때도 다 그래도게 장에 가면 멩질 때 신발도 다, 고무신이영 뭐영 그때는 운동화는 별로, 고급 사람들이 사 신엇고, 검은 고무신 신은 사람 위에는 흰 고무신이 조금 낫고, 흰 고무신보다 ᄒᆞ꼼 잘 사는 데는 운동화 신고, 운동화보다 좋은 데는 구두 ᄀᆞ튼 거 신고 말이여 이렇게 헤서 살앗주.(집에서 다 만들어 입히고. 아기 커 가면 아기 또 옷 사주고 말이야. 우리 어릴 때도 다 그래도 장에 가면 명절 때 신발도 다, 고무신이나 뭐나 그때는 운동화는 별로, 고급 사람들이 사 신었고, 검은 고무신 신은 사람 위에는 흰 고무신이 조금 낫고, 흰 고무신보다 조금 잘 사는 데는 운동화 신고, 운동화보다 좋은 데는 구두 같은 거 신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살았지.)

106027 @ 어르신 아까 옷을 치수 재그넹 만든다고 헷잖아예. 어떵 만들주마씨?(어르신 아까 옷을 치수 재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만들지요?)

106027 #1 아, 짤라그넹게 손으로도 바늘로 헤그넨 미싱 신 집에 가서 말이여, 몇 개 안 뒈는 거난 주워 오고, 허기도 허고, 그때 당시 어디 가서 또 옷감만 갖다가 멥겨 가지고 멘들어 달렝 허면 만들어 주기도 허고.(아, 짤라서 손으로도 바늘로 해서 재보틀 있는 집에 가서 말이야,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주워 오고, 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어디 가서 또 옷감만 갖다가 맡겨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기도 하고.)

106026 @ 그면 옷 만들 때는 우선 옷감을 방직공장에서 사온 다음에 자르잖아예. 가위로 잘랏주마씨? 그다음에 붙일 때는 바느질로 헷인가마씨?(그러면 옷 만들 때는 우선 옷감을 방직공장에서 사온 다음에 자르잖아요. 가위로 잘랐지요? 그다음에 붙일 때는 바느질로 했었나요?)

이라고도 한다.

106026 #1 그 일단은 가봉 ᄀᆞ튼 걸로 바농으로 꿰맨 다음에 그다음 미싱으로 이렇게 만들지. 손으로 윤곽을 멘들어 놓고 그다음 다 뒈면 미싱으로 한 바퀴 돌리면 옷이 뒈는 거지.(그 일단은 가봉 같은 걸로 바늘로 꿰맨 다음에 그다음 재봉틀로 이렇게 만들지. 손으로 윤곽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다 되면 재봉틀로 한 바퀴 돌리면 옷이 되는 거지.)

106027 @ 어르신도 어머님이 옷을 만들어 주션마씨?(어르신도 어머님이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106027 #1 아이, 만들어줫지. 우리 어머니 멘들어 준 옷도 많이 입고 뭐. 사서도 입고.(아이, 만들어줬지. 우리 어머니 만들어 준 옷도 많이 입고 뭐. 사서도 입고.)

106027 @ 바지나 저고리 ᄀᆞ튼 거 부분, 부분 이름이 잇지 않아마씨?(바지나 저고리 같은 거 부분, 부분 이름이 있지 않아요?)

106027 #1 뭐 무슨, 저고리면 뭐, 이런 디 에리에는 뭐 동전? 동전인가 뭐 헤그넹 여자 옷들에는 에리에 동전 붙인덴 ᄒᆞ고, 뭐 이 저, 이 앞에 무슨 뭐, 노리갠가 뭐 그런 것도 잇고 말이지. 그 부분, 부분 명칭은 잘 몰라.(뭐 무슨, 저고리면 뭐, 이런 데 옷깃에는 뭐 동전? 동전인가 뭐 해서 여자 옷들에는 옷깃에 동전 붙인다고 하고, 뭐 이 저, 이 앞에 무슨 뭐, 노리개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지. 그 부분, 부분 명칭은 잘 몰라.)

106029 @ 옛날에는 단추 종류 엇언마씨?(옛날에는 단추 종류 없었어요?)

106029 #1 아, 단추는게 와이사쓰 단추공장도 여기서 말이지, 우리 저 옹포에서도 그 소라, 전복 껍데기로 말이여, 단추를 멘들엇거든. 직접 나 어릴 때도 봣는데 와이사쓰 이런 적은 단추만 멘드는 게 아니라 단추도 다양헤여.(아, 단추는 와이셔츠 단추공장도 여기서 말이지, 우리 저 옹포에서도 그 소라, 전복 껍데기로 말이야, 단추를 만들었거든. 직접 나 어릴 때도 봤는데 와이셔츠 이런 작은 단추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단추도 다양해.)

106029 @ 아, 뭐, 뭐 잇언마씨?(아, 뭐, 뭐 있었어요?)

106029 #1 크게 오바 단추도 만들고. 겨울 코트, 오바 단추도 멘들고, 뭐 무신 와이사쓰 단추도 만들고, 보통 단추도 만들고, 다양허고 말이야. 장식장에 뭐 붙이는 말이지, 그림 ᄀᆞ튼 것도 멘들고. 자개로. 자개공장에서 그거 다 단추를 멘들엇거든. 옹포에서도 그 단추공장이 잇엇어. 어릴 때도.(크게 외투 단추도 만들고. 겨울 코트, 외투 단추도 만들고, 뭐 무슨 와이셔츠 단추도 만들고, 보통 단추도 만들고, 다양하고 말이야. 장식장에 뭐 붙이는 말이지, 그림 같은 것도 만들고. 자개로. 자개공장에서 그거 다 단추를 만들었거든. 옹포에서도 그 단추공장이 있었어. 어릴 때도.)

재단과 염색

106030 @ 그믄 어르신 옷감 사오면, 손질은 안 허고 바로 잘라마씨?(그러면 어르신 옷감 사오면, 손질은 안 하고 바로 잘라요?)

106030 #1 옷감이야 일단은 뭐, 저, 재단헤 가지고, 재단흔 다음에 어느 정도 가봉이라고 헤서 말이지. 바늘로 말이여 듬성듬성 쭉 긋어 난 다음에 모양이 뒈면 재봉틀로 말이야 이렇게 만들고.(옷감이야 일단은 뭐, 저, 재단해 가지고, 재단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봉이라고 해서 말이지. 바늘로 말이야 듬성듬성 쭉 그어 난 다음에 모양이 되면 재봉틀로 말이야 이렇게 만들고.)

106030 @ 그면 방직공장에서 사온 옷감이 좋아부난 따로 안 헤도 뒈잖아예. 근데 거친 옷감이 잇이면 부드럽게 허는 방법은 엇언마씨?(그러면 방직공장에서 사온 옷감이 좋아버리니까 따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친 옷감이 있으며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106030 #1 일단 한 번 세탁을 한다든지 헤서, 거 허면은 줄어들 거는 줄어들고, 이렇게 허거든?(일단 한 번 세탁을 한다든지 해서, 거 하면 줄어들 거는 줄어들고, 이렇게 하거든?)

106030 @ 아. 경 헤마씨?(아. 그렇게 해요?)

106030 #1 계메 그렇지 안 헤그넹 만들면 옷 자기 치수에 맞춰서 말이야 하면은 그 다음 입어서 빨아 놓으면 싹 쫄아 불민 못 입으니까. 그걸 한 번 일단 시험헤 가지고, 그 물에다가 말이여, 빨래허고 헤서 말려 가지고,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것도 헤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글쎄 그렇지 안 해서 만들면 옷 자기 치수에 맞춰서 말이야 하면은 그다음 입어서 빨아 놓으면 싹 줄어 버리면 못 입으니까. 그걸 한 번 일단 시험해 가지고, 그 물에다가 말이야, 빨래하고 해서 말려 가지고,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것도 해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106031 @ 그믄 갈중의 ᄀᆞ튼 건 감으로 염색허잖아예. 감 말고 그 다른 건 엇언마씨?(그러면 '갈중의' 같은 건 감으로 염색하잖아요. 감 말고 그 다른 건 없었나요?)

106031 #1 감 말고는 그때 당시에는 크게 말이여, 물들이는 거는, 뭐 물들이는. 그 저기 저 오일장에 가며는 그런 사람이 잇어. 검정 물 들여 달렌 허민 검정 물 들여 주고. 자기 원하는 색깔. 빨간 물 들여 달렌 허민 빨간 물, 뭐 무슨 파란 물 들여 달렌 허민 파란 물. 이런 말이여, 종류별로 말이여, 옷감 취향에 맞게 입을라고 하며는 그런 물은 말이지, 그런 데서 가서 들이고.(감 말고는 그때 당시에는 크게 말이야, 물들이는 거는, 뭐 물들이는. 그 저기 저 오일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 검정 물 들여 달라고 하면 검정 물 들여 주고. 자기 원하는 색깔. 빨간 물 들여 달라고 하면 빨간 물, 뭐 무슨 파란 물 들여 달라고 하면 파란 물. 이런 말이야, 종류별로 말이야, 옷감 취향에 맞게 입으려고 하면 그런 물은 말이지, 그런 데서 가서 들이고.)

106031 @ 예.(예.)

106031 #1 감물은 집에서. 집에서 주로 말이여, 도구리라고 헤 가지고, 이렇게 뭔 도구에다가 빻아 가지고 말이지, 다 빻아지믄 거 긁어서 말이여 짜 가지고 그 물로. 그 물로 허든지 감 신 거에다가 막 같이 이렇게 헤그넹 털어 가지고 말이야, 널면 감물 들여지고.(감물은 집에서. 집에서 주로 말이야, 함지박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도구에다가 빻아 가지고 말이지, 다 빻아지면 거 긁어서 말이야 짜 가지고 그 물로. 그 물로 하

든지 감 있는 거에다가 막 같이 이렇게 해서 털어 가지고 말이야 널면 감물 들여 지고.)
106031 @ 감 냄새는 안 나는가마씨?(감 냄새는 안 나요?)
106031 #1 감물로 하며는 냄새는 안 나.(감물로 하면 냄새는 안 나.)
106031 @ 아, 안나마씨?(아, 안나요?)
106031 #1 으. 빨수록 말이야 거무롱 색깔로 말이야 그렇게 인제 나면서. 착착착착 첨엔 뻣뻣허다가 색은 말이여 빨면 빨수록 거무롱헤 가. 그 물이 거 이상허더라고. 경헤 가지고 빨면 빨수록 첨엔 번짝 헤서 입으면 이 저 살에 붙을 수가 엇어.(어. 빨수록 말이야 거무스름한 색깔로 말이야 그렇게 인제 나면서. 착착착착 처음에는 뻣뻣하다가 색은 말이야 빨면 빨수록 거무스름해 가. 그 물이 거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빨면 빨수록 처음에는 번쩍 해서 입으면 이 저 살에 붙을 수가 없어.)
106031 @ 아.(아.)
106031 #1 옷이 거 뭐 그냥 완전히 빳빳헤 가지고 헤 놓으니까. 그러니깐 뭐 자꾸 사람이 발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헤그넹 땀도 말이여 나고 허면은 빨아야 뭘 거 아니?(옷이 거 뭐 그냥 완전히 빳빳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러니깐 뭐 자꾸 사람이 발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손도 움지이고 해서 땀도 말이야 나고 하면 빨아야 될 거 아니?)
106031 @ 예.(예.)
106031 @ 빨고 널고 빨고 널고 열 번 스무 번을 빨아가민 그게 부드러와져 가. 경허민 그때는 입기가 아주 편헤. 편허고 아주 좋고. 그렇게 헤도 땀도 안 붙어. 아, 뭐 내가 보기엔 췌고 좋은 옷이라. 이제 아무리 좋은 옷 난다 그래도 옛날말이야. 갈중의만이 좋은 옷이 엇어.(빨고 널고 빨고 널고 열 번 스무 번을 빨아가면 그게 부드러워져 가. 그렇게 하면 그때는 입기가 아주 편해. 편하고 아주 좋고. 그렇게 해도 땀도 안 붙어. 아, 뭐 내가 보기에는 최고 좋은 옷이야. 이제 아무리 좋은 옷 난다 그래도 옛날말이야. '갈중의'만한 좋은 엇이 없어.)
106031 @ 요즘에도 촌에 가면 갈중의 많이 입고 농사허잖아예?(요즘에도 촌에 가면 '갈중의' 많이 입고 농사하잖아요?)
106031 #1 요새는 집에서 허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만드는 디 가 가지고 사와. 이제는 뭐 감물도 물감으로 사다가 말이여 감물 들영 입는 사람 천태만태라.(요새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 가 가지고 사와. 이제는 뭐 감물도 물감으로 사다가 말이야 감물 들여서 입는 사람 천태만태야.)

신발

106032 @ 옛날에 신발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옛날에 신발 종류는 뭐, 뭐 있었어요?)
106032 #1 옛날에는 고무신. 뭐 나막신도 잇고 뭐 조리, 조리, 조리, 조리 ᄀᆞ튼 것도 잇고. 뭐, 뭐 신은 말이여 나막신, 조리, 게다 뭐 게다는 일본말이지마는 뭐, 뭐 운동화,

고무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뭐 구두 뭐 장화, 찍신, 찍신, 찍신으로 조리도 만들어서 사용헷고.(옛날에는 고무신. 뭐 나막신도 있고 뭐 조리, 조리, 조리, 조리 같은 것도 있고. 뭐, 뭐 신은 말이야 나막신, 조리, 게다 뭐 게다는 일본말이지나는 뭐, 뭐 운동화, 고무신,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뭐 구두 뭐 장화, 짚신, 짚신, 짚신으로 조리도 만들어서 사용했고.)

106033 @ 가죽신은 어떵 만들주마씨?(가죽신은 어떻게 만들지요?)

106033 #1 가죽신 그거는 거 구둣방에 가서 삿지. 멘들진 못 ᄒᆞ니까. 일반 사람들이 만들기가 힘드니까 소가죽으로 헤 가지고 말이여 오면 구두집에서 수제화라고. 이제는 딱, 기계로 딱, 딱 만들고 허지마는 그때는 다 손으로 말이여 일일이 말이여 재단ᄒᆞ고 멘들어 가지고. 구두 헷엇주게.(가죽신 그거는 거 구둣방에 가서 샀지. 만들지는 못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만들기가 힘드니까 소가죽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오면 구두집에서 수제화라고. 이제는 딱, 기계로 딱, 딱 만들고 하지마는 그때는 다 손으로 말이야 일일이 말이야 재단하고 만들어 가지고. 구두 했었지.)

106033 @ 가죽신은 바느질로 헷인가마씨? 재단한 다음에?(가죽신은 바느질로 했었나요? 재단한 다음에?)

106033 #1 손으로. 그 바늘도 아주 희안헌 바늘이라. 쫌 휘어져 가지고 말이여, 나이롱 실 든든한 걸로 아주 말이지 잘 꼬매게 됏어.(손으로. 그 바늘도 아주 희안한 바늘이야. 쫌 휘어져 가지고 말이야, 나일론 실 든든한 걸로 아주 말이지 잘 꿰매게 됐어.)

106034 @ 나막신은 혹시 만드는 거 알아마씨?(나막신은 혹시 만드는 거 알아요?)

106034 #1 나막신은 다 만들어서 신엇주. 나막신은 뭐 무슨 오동나무 ᄀᆞ튼 거라든가 무신 가벼운 걸로 멘들엇겟지. 오동나무가 가볍거든. 가벼우면 그게 신은 무거우면 신기가 골치 아프잖아. 가벼운 나막신 ᄀᆞ튼 걸로.(나막신은 다 만들어서 신었지. 나막신은 뭐 무슨 오동나무 같은 거라든가 무슨 가벼운 걸로 만들었겠지. 오동나무가 가벽거든. 가벼우면 그게 신은 무거우면 신기가 골치 아프잖아. 가벼운 나막신 같은 걸로.)

106034 @ 게다랑 나막신은 다른가마씨?(게다랑 나막신은 다른가요?)

106034 #1 나막신을 이렇게 홈 파져 가지고 발이 들어가서 신게 뒈고. 게다는 조리지. 조리 그. 게다는 우리가 일본 통치 받고 헐 때고 허니깐 말이여. 거 주로 그것도 많이 멘들어 신엇지. 집에서 나무, 나무만 이렇게 잇어.(나막신을 이렇게 홈 파져 가지고 발이 들어가서 신게 되고. 게다는 조리지. 조리 그. 게다는 우리가 일본 통치 받고 할 때고 하니깐 말이야. 거 주로 그것도 많이 만들어 신었지. 집에서 나무, 나무만 이렇게 있어.)

106034 @ 예.(예.)

106034 #1 이거만 하나, 이렇게 못 대면은 그게 게다라. 아주 편허고. 여름에는 그것이 제일 편헤여. 나무 하나 놔 가지고 말이지, 그 나무에다가 이거 하나 발 들어가는 것만 허면 게다가 뒈는 거니까. 나막신은 완전히 파서 들여놓고 신게 뭔 게 나막신이고. 게다는 나무에다가 발만 이렇게 좀 씌울 수 잇게끔 지금 쓰레빠식으로 나온 게. 찍신은

주로 바다에 나갈 때 신고. 찍신은 말이여.(이거만 하나, 이렇게 못 대면 그게 게다야. 아주 편하고. 여름에는 그것이 제일 편해. 나무 하나 놔 가지고 말이지, 그 나무에다가 이거 하나 발 들어가는 것만 하면 게다가 되는 거니까. 나막신은 완전히 파서 들여놓고 신게 된 게 나막신이고. 게다는 나무에다가 발만 이렇게 좀 씌울 수 있게끔 지금 슬리퍼식으로 나온 게. 짚신은 주로 바다에 나갈 때 신고. 짚신은 말이야.)

106034 @ 예.(예.)

106034 #1 절대 말이여 미끄러지질 안 헤. 절대 물에 젖으며는 그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움직이기를 잘 안 헤. 그러니 바다에 내려가려며는 조리 종류나 뭐나 미끄러지면 대반에 위험하니깐 주로 조리, 찍으로 멘든 거 그 신이 아주 좀 췌고야.(절대 말이야 미끄러지지를 않아. 절대 물에 젖으면 그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움직이기를 잘 않아. 그러니 바다에 내려가려면 조리 종류나 뭐나 미끄러지면 대번에 위험하니까는 주로 조리, 짚으로 만든 거 그 신이 아주 좀 최고야.)

106034 @ 찍신은 종류가 엇인가마씨?(짚신은 종류가 없었나요?)

106034 #1 찍신도 주로 말이여 이렇게 파져 가지고 발등을 내어 가지고 신는 것도 잇고.(짚신도 주로 말이야 이렇게 파져 가지고 발등을 내어 가지고 신는 것도 있고.)

106034 @ 예.(예.)

106034 #1 조리식으로 뒈어 가지고 요기만 멘들어 가지고 말이여 아래론 그대로 허는 것도 잇고. 그것도 여러 가지고 잇어.(조리식으로 되어 가지고 요기만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아래로는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고 있어.)

106034 @ 아.(아.)

106034 #1 찍신은 고무신 종류로도 뭐 그런 식으로 여자 것들도 멘들고, 남자 것들도 멘들고. 볏찍으로 만드는데. 거 지어나면 그거 이제 나오며는 그걸 막 이제 뺏아. 거 저기 저 덩드렁마께[140]로 놔 가지고 막.(짚신은 고무신 종류로도 뭐 그런 식으로 여자 것들도 만들고, 남자 것들도 만들고. 볏짚으로 만드는데. 거 지어나면 그거 이제 나오면 그걸 막 이제 빻아. 거 저기 저 '덩드렁마께'로 놔 가지고 막.)

106034 @ 덩드렁마께마씨?('덩드렁마께'요?)

106034 #1 응. 덩드렁마께라고 나무 이렇게 헤 가지고 잡아 가지고 말이여.

106034 @ 예.(예.)

106034 #1 그 아래는 먹돌[141] 놔 가지고 그걸 막 두들면 그 찍이 막 부드러와져.(그 아래는 '먹돌' 놔 가지고 그걸 막 두드리면 그 짚이 막 부드러워져.)

106034 @ 예.(예.)

106034 #1 부드러와지멘 그걸로 이제 각종 멩탱이도 만들고 말이여, 뭐 멍석도 만들고 말이지 뭐. 뭐 안 만드는 거 엇어. 그걸로 뭐 엄청나게 다양허게 멘들어 내지.(부드러워지면 그걸로 이제 각종 망태기도 만들고 말이야, 뭐 멍석도 만들고 말이지 뭐. 뭐 안 만드는 거 없어. 그걸로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어 내지.)

---

140)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41)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6034 @ 아.(아.)
106034 #1 뭐 췌고로 유용허지. 거 옛날에, 거 저기, 뭐고. 메주 쒀 가지고 말이지, 거 장 헐 때도 찍으로 안 돌아메며는 뒈질 안 헤. 거기에 곰팡이가 형성뒈고 말이야, 뭐 ᄒᆞ고 홀라민 그 찍이 메주허고 말이여 천생연분이엇어. 그게 인제 돌아메야 그게 인제 숙성이 돼. 그 찍 엇으면 만들지 못헤.(뭐 최고로 유용하지. 거 옛날에, 거 저기, 뭐고. 메주 쒀 가지고 말이지, 거 장 할 때도 짚으로 안 달아매면 되질 않아. 거기에 곰팡이가 형성되고 말이야, 뭐 하고 하려면 그 짚이 메주하고 말이야 천생연분이엇어. 그거 인제 달아매야 그게 인제 숙성이 돼. 그 짚 없으면 만들지 못해.)

모자 등

106037 @ 어르신 옛날에도 모자는 썻지예? 모자 종류는 뭐 잇언마씨?(어르신 옛날에도 모자는 썼지요? 모자 종류는 뭐 있었어요?)
106037 #1 모자는 밀찍모자. 밀낭퍼랭이. 밀낭퍼랭이ᄀᆞ치 말이여, 주로 농부들 사용허는 건 뭐. 그 밀랑퍼랭이는 보리 저 헤놔민 보리찍으로. 보리찍으로 말이여, 보리때로. 집에서도 웬만큼 다 만들어 쓰고 헤놧는데. 농사용으로. 주로 뭐 농부들은 밀찍모자를 많이 쓰고.(모자는 밀짚모자. 밀짚모자. 밀짚모자같이 말이야, 주로 농부들 사용하는 건 뭐. 그 밀짚모자는 보리 저 해놓으면 보릿짚으로. 보릿짚으로 말이야, 보릿대로. 집에서도 웬만큼 다 만들어 쓰고 했었는데. 농사용으로. 주로 뭐 농부들은 밀짚모자를 많이 쓰고.)
106038 @ 여름에는 주로 밀낭퍼랭이를 많이 썻겟다예?(여름에는 주로 밀짚모자를 많이 썼겠군요?)
106038 #1 응. 지금도 전부 다 쓰고 다니고 잇어. 아, 그게 왜냐면 가볍고 말이지. 헷빛도 가려주고 말이여 아주 좋아. 시원ᄒᆞ고 공기도 잘 통허고.(응. 지금도 전부 다 쓰고 다니고 있어. 아, 그게 왜냐면 가볍고 말이지. 햇빛도 가려주고 말이야 아주 좋아. 시원하고 공기도 잘 통하고.)
106039 @ 그럼 겨울에 쓰는 모자는 따로 엇엇인가마씨?(그럼 겨울에 쓰는 모자는 따로 없었나요?)
106039 #1 겨울에는 말이여 일본식으로 말은 보수깽이라고 말이여 헤 가지고, 딱 쓰며는 얼굴만 나와그넹 여기서 이레 무끄는 거 잇어.(겨울에는 말이야 일본식으로 말은 보수깽이라고 말이야 해 가지고, 딱 쓰면 얼굴만 나와서 여기서 이리 묶는 거 있어.)
106039 @ 예.(예.)
106039 #1 경 ᄒᆞ민 얼굴만 보이면 귀도 머리도 뜨뜻헤지는 말이지. 그런 말이여, 그런 모자들이 잇어. 그거는 보드라운 천으로 멘들어. 그 안에 그 솜 놔 가지고. 왜냐면 상당히 겨울에 따뜻ᄒᆞ고 좋아.(그렇게 하면 얼굴만 보이면 귀도 머리도 뜨뜻해지는 말이지. 그런 말이야, 그런 모자들이 있어. 그거는 보드라운 천은로 만들어. 그 안에 그 솜 놔 가지고. 왜냐면 상당히 겨울에 따뜻하고 좋아.)

106040 @ 양태 겯기는 들어보션마씨?(양태 겯기는 들어보셨어요?)
106040 #1 아니 그거는. 지금은 인제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은 엇어 버리고. 나도 거 모자 우리 집사람 거 허고, 나허고 오 만원씩 줘그넹 머리 재고 헤 가지고 직접 가서 만들어 가지고 썻는데.(아니 그거는. 지금은 인제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 버리고. 나도 거 모자 우리 집사람 거 하고, 나하고 오 만원씩 줘서 머리 재고 해 가지고 직접 가서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106040 @ 예.(예.)
106040 #1 그게 정동줄로 만들어. 정동줄. 정동줄로 말이, 이렇게 말이여, 테 두르면서 거기에다가 말이지 가상자리에는 말이지. 그 색깔 잇인 걸로 만들어서 헤 놓고 허면 말이지. 아주 보기 좋게. 지금 말이지 웬만한 모자보담도 엄청나게 좋아. 비 맞아도 별로 변허지도 않고 말이야. 그거는 내 생각에 한 십 년, 이십 년 써도 끄떡엇어. 한 삼십 년째 지금 잇어도 모자가 깨끗헤.(그게 댕댕이덩굴로 만들어. 댕댕이덩굴. 댕댕이덩굴로 말이, 이렇게 말이야, 테 두르면서 거기에다가 말이지 가장자리에는 말이지. 그 색깔 있는 걸로 만들어서 해 놓고 하면 말이지. 아주 보기 좋게. 지금 말이지 웬만한 모자보다도 엄청나게 좋아. 비 맞아도 별로 변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거는 내 생각에 한 십 년, 이십 년 써도 끄떡없어. 한 삼심 년째 지금 있어도 모자가 깨끗해.)
106040 @ 아, 그럼 그건 평상시에도 쓰는 거마씨?(아, 그럼 그건 평상시에도 쓰는 거예요?)
106040 #1 아, 여름 때는 그거 써 가지고 말이여 놀러 갈 때나 나들이 갈 때나 뭐 홀 때나 그거 쓰고 말이야. 색안경 쓰고 ᄒᆞ면은 췌고지 뭐.(아, 여름 때는 그거 써 가지고 말이야 놀러 갈 때나 나들이 갈 때나 뭐 할 때나 그거 쓰고 말이야. 색안경 쓰고 하면 최고지 뭐.)
106042 @ 그럼 총모자는 안 들어보셨지예? 그럼 탕건이나 망건은?(그럼 총모자는 안 들어보셨지요? 그럼 탕건이나 망건은?)
106042 #1 탕건, 망건은 여기서도게 만들어낫지.(탕건, 망건은 여기서도 만들었었지.)
106042 @ 아, 만들언마씨?(아, 만들었어요?)
106042 #1 ᄋᆞ. 탕건이나 망건은 거 말총으로. 말총으로 말이여 만드는 사람이 말이지, 주로 그거는 저,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엇어. 그것도 아주 정교한 제품이 돼서, 주로 여자분들이 만들어. 나이 많은 말이여, 칠팔십대 할머니들이 앚아 가지고 말이지 만드는데 아주 말이야, 말총으로 만드니깐 말이지, 막 가볍기도 하지만 모양도 좋고 말이지. 아주 좋아.(어. 탕건이나 망건은 거 말총으로. 말총으로 말이야 만드는 사람이 말이지, 주로 그거는 저,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것도 아주 정교한 제품이 돼서, 주로 여자분들이 만들어. 나이 많은 말이야, 칠팔십대 할머니들이 앉아 가지고 말이지 만드는데 아주 말이야, 말총으로 만드니깐 말이지, 매우 가볍기도 하지만 모양도 좋고 말이지. 아주 좋아.)
106042 @ 아.(아.)
106042 #1 탕건은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헤서 위에 영 ᄒᆞ고. 망건은 그저

통으로 말이여 탁 이렇게 뒈고 말이여. 어디 저기 저, 귀덕[142]인가 어디서 거 탕건, 망건 만드는 사람들이 잇어낫어. 중간에가 잇엇다고 ᄒᆞ는디 이제 말총도 엇고. ᄒᆞ기도 힘들고 허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전수 받아 가지고 헤야 뒈고. 거 뭐 이제는 뭐, 무슨 문화재로 등록뒈고 ᄒᆞ는 거 잇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인가 뭐 잇일 거라.(탕건은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해서 위에 이렇게 하고. 망건은 그저 통으로 말이야 탁 이렇게 되고 말이야. 어디 저기 저, 귀덕인가 어디서 거 탕건, 망건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 중간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말총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전수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거 뭐 이제는 뭐, 무슨 문화재로 등록되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인가 뭐 있을 거야.)

106042 @ 잘 아신다예. 문화재로 한 명씩 남아 잇다고 허거든예.(잘 아시는군요. 문화재로 한 명씩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106042 #1 우리 한림읍에도 한 사람인가 두 사람, 문화재로 지정돼 잇인데.(우리 한림읍에도 한 사람인가 두 사람,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106044 @ 아, 기구나예. 그럼 어르신 도롱이 알아마씨?(아, 그렇군요. 그럼 어르신 도롱이 알아요?)

106044 #1 도롱이는 뭘로 멘들엇냐면은 새, 새. 그 옛날 초가집 짓는데 사용허는. 그게 인제 새라고 허는데. 그걸로 인제 도롱이를 쭉 멘들엉 톡 씌와. 경 ᄒᆞ민 비가 오민 그 알드레 비가 빠져 가지고 안에는 젖지 않게 돼.(도롱이는 뭘로 만들었냐면 띠, 띠. 그 옛날 초가집 짓는데 사용하는. 그게 인제 띠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제 도롱이를 쭉 만들어서 톡 씌워. 그렇게 하면 비가 오면 그 아래로 비가 빠져 가지고 안에는 젖지 않게 돼.)

106044 @ 도롱이는 종류가 엇엇인가마씨?(도롱이는 종류가 없었나요?)

106044 #1 뭐 사람 키에 맞춰 가지고. 새 길이에 맞춰 가지고. 새 길이가 길면 길게 나오고. 짧으면 짧게 나오고. 도롱이도 그때는 옛날에 말이여, 비 오며는 헐려면 웬만한 집에는 하나씩 잇지. 농사 잇을 때 비 와그넹 어디에 좀 나갈 때 그거 뭐 그 도롱이 이렇게 감아 가지고 밧에 가고. 밀랑퍼랭이 쓰고 헤그넹 가면 말이지. 별로 젖을 데가 엇잖아.(뭐 사람 키에 맞춰 가지고. 띠 길이에 맞춰 가지고. 띠 길이가 길면 길게 나오고. 짧으면 짧게 나오고. 도롱이도 그때는 옛날에 말이야, 비 오면 하려면 웬만한 집에는 하나씩 있지. 농사 있을 때 비 와서 어디에 좀 나갈 때 그거 뭐 그 도롱이 이렇게 감아 가지고 밭에 가고. 밀짚모자 쓰고 해서 가면 말이지. 별로 젖을 데가 없잖아.)

106044 @ 아까 그 말한 장화 잇잖아예? 장화는 어르신 어렷을 때부터 잇언마씨? 운동화도?(아까 그 말한 장화 있잖아요? 장화는 어르신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운동화도?)

106044 #1 장화는 어렷을 때부터 잇엇어.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헐 때도 말이지 장화 ᄀᆞ튼 건 잇엇어. 그때는 주로 검은 고무신을 많이 신엇지. 검은 고무신이 젤 싸고, 조금 질기고. 그다음은 흰 고무신 말이여, ᄒᆞ꼼 고급이지, 검은 고무신에 비헤서.(장화는

142) '귀덕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행정리 가운데 하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할 때도 말이지 장화 같은 건 있었어. 그때는 주로 검은 고무신을 많이 신었지. 검은 고무신이 젤 싸고, 조금 질기고, 그다음은 흰 고무신 말이야, 조금 고급이지, 검은 고무신에 비해서)

106044 @ 예.(예.)

106044 #1 그다음 생고무신이라고 헤서 조금 고무가 질겨. 생고무신으로 헹 나오면 그게 인제 제일 좋은. 그것도 예전에는 코고무신이라고 헤 가지고. 여자들도 말이여, 검은 코고무신, 흰 코고무신도 다 잇어낫어.(그다음 생고무신이라고 해서 조금 고무가 질겨. 생고무신으로 해서 나오면 그게 인제 제일 좋은. 그것도 예전에는 코고무신이라고 해 가지고. 여자들도 말이야, 검은 코고무신, 흰 코고무신도 다 있었어.)

106044 @ 아.(아.)

106044 #1 영 앞에 쪼짝[143] 나와 가지고. 여자들 신는 건 코고무신. 남자들 신는 건 반고무신이라고 헤서 다 이름이 잇어 그것도. 반고무신은 편평헌 거. 편평헤 가지고 안에 발 들어가게 뭰 것이 반고무신이지. 옛날에는 양말 별로 안 신어. 양말이 귀허다고 헤서 겨울 때나 신지. 여름에는 안 신어. 여름에는 조리지, 조리. 게다 ᄀᆞ튼 거. 게다가 집에서 나가라 그면 제일 돈도 안 들고 말이지. 소리는 나. 딸깍 딸깍 딸깍. 소리 나면 말이여 누게 왐저. 누게 왐저. 누가 조리 신고 데니는 거 다 아난 게다.(이렇게 앞에 '쪼짝' 나와 가지고. 여자들 신는 건 코고무신. 남자들 신는 건 반고무신이라고 해서 다 이름이 있어 그것도. 반고무신은 평평한 거. 평평해 가지고 안에 발 들어가게 된 것이 반고무신이지. 옛날에는 양말 별로 안 신어. 양말이 귀하다고 해서 겨울 때나 신지. 여름에는 안 신어. 여름에는 조리지, 조리. 게다 같은 거. 게다가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제일 돈도 안 들고 말이지. 소리는 나. 딸깍 딸깍 딸깍. 소리 나면 말이야 누가 오고 있다. 누가 오고 있다. 누가 조리 신고 다니는 거 다 아니깐 게다.)

106044 @ 옛날엔 도롱이 말앙 우산 쓰고 다년마씨?(옛날에는 도롱이 말고 우산 쓰고 다녔어요?)

106044 #1 옛날에도 우산은 다 잇었지. 주로 비로 주로 맞앗지. 비니루 쓰고 다녓지.(옛날에도 우산은 다 있었지. 주로 비로 주고 맞았지. 비닐 쓰고 다녔지.)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에는 뭐, 뭐 잇주마씨?(밥 종류에는 뭐, 뭐 있지요?)

107001 #1 보리밥.(보리밥.)

107001 @ 예.(예.)

143) '쪼짝ᄒᆞ다'는 '물건의 윗부분이 뾰족이 솟아 있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쭈짝ᄒᆞ다'라고도 한다.

107001 #1 조팝.(조밥.)
107001 @ 예.(예.)
107001 #1 곤밥.(쌀밥.)
107001 @ 예.(예.)
107001 #1 또 그런 뭐 감제범벅[144].(또 그런 뭐 '감제범벅'.)
107001 @ 아, 감제범벅도 잇구나예.(아, '감제범벅'도 있군요.)
107001 #1 응. 감제범벅도 잇곡.(어. '감제법벅'도 있고.)
107001 @ 톳밥은 엇엇인가마씨? 옛날에?(톳밥은 없었나요? 옛날에?)
107001 #1 톳으로 밥 만든 밥 톳밥.(톳으로 밥 만든 밥 톳밥.)
107001 @ 아, 톳밥도 잇엇고.(아, 톳밥도 있었고.)
107001 #1 메밀범벅밥.(메밀범벅밥.)
107001 @ 아, 메밀범벅밥도 잇언마씨?(아, 메밀범벅밥도 있었어요?)
107001 #1 응. 메밀범벅.(어. 메밀범벅.)
107001 @ 아, 많이 잇엇다예?(아, 많이 있었군요?)
107001 #1 응.(어.)
107002 @ 그면 밥 종류 이렇게 다양허게 잇인데 밥헐 때 쌀 종류가 잇잖아마씨?(그러면 밥 종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밥할 때 쌀 종류가 있잖아요?)
107002 #1 게 보리, 쌀, 조, 쑤숙 뭐 콩도 놔서 먹고 팟도 놔서 먹고.(그럼 보리, 쌀, 조, 수수 뭐 콩도 놔서 먹고 팥도 놔서 먹고.)
107002 @ 아, 팟도 놔서 먹고. 팟밥도 잇엇겟다예?(아, 팥도 놔서 먹고. 팥밥도 있었겠군요?)
107002 #1 응. 팟밥, 콩밥.(어. 팥밥, 콩밥.)
107002 @ 그럼 팟은 어떵 만들언마씨? 옛날엔?(그럼 팥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옛날엔?)
107002 #1 팟은 저 농사지어 가지고 갈아 가지고.(팥은 저 농사지어 가지고 갈아 가지고.)
107002 @ 예.(예.)
107002 #1 팟밥, 콩밥, 녹두, 녹두도 놓고 말이여.(팥밥, 콩밥, 녹두, 녹두도 놓고 말이야.)
107002 @ 녹두도 놓고.(녹두도 놓고.)
107002 #1 녹두밥도 잇고.(녹두밥도 있고.)
107002 @ 예. 아, 녹두밥도 잇언마씨?(예. 아, 녹두밥도 있었어요?)
107002 #1 응. 녹두로 저 밥 만들면 녹두밥도 뒈는 거고.(어. 녹두로 저 밥 만들면 녹두밥도 되는 거고.)
107003 @ 보리밥 잇잖아예?(보리밥 있잖아요?)
107003 #1 응.(어.)

144) '감제범벅'은 '고구마를 넣어 만든 범벅'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감저범벅'이라고도 한다.

107003 @ 보리밥은 어떵 만들어마씨?(보리밥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03 #1 보리는 저 헤서 말이지 그 보리쌀 방앗간에 강 지어 가지고.(보리는 저 해서 말이지 그 보리쌀 방앗간에 가서 지어 가지고.)
107003 @ 예.(예.)
107003 #1 보리는 놔서 만든 밥이 보리밥이지.(보리는 놔서 만든 밥이 보리밥이지.)
107003 @ 그럼 보리밥은 언제 먹언마씨 보통?(그럼 보리밥은 언제 먹었어요 보통?)
107003 #1 계속 뭐 보리밥으로 먹엇지. 저 우리 살 때는 곤밥은 인제 근래 와서 저 육십 년도 이후에 말이여 주로 먹엇지. 육십 년도 전에는 보통 보리밥이.(계속 뭐 보리밥으로 먹었지. 저 우리 살 때는 쌀밥은 인제 근래 와서 저 육십 년도 이후에 말이야 주로 먹었지. 육십 년도 전에는 보통 보리밥이.)
107003 @ 아, 보통 보리밥?(아, 보통 보리밥?)
107003 #1 보리밥에 쪼끔 잘 살면은 쌀 ᄀᆞ치 놔서 반지기라고 헤서 그게 반지기라.(보리밥에 쪼끔 잘 살면 쌀 같이 놔서 반지기라고 해서 그게 반지기야.)
107004 @ 그럼 반지기밥[145]은 보통 좀 잘 사는 집 그나마?(그럼 '반지기밥'은 보통 좀 잘 사는 집 그나마?)
107004 #1 ᄋᆞ. 주로 쌀 반 보리 반 그다음에 조 쪼끔 놓곡 이제 오곡밥식으로 만드는 거지. 이제 팟도 좀 넣고 콩도 넣고 뭐 헤서 다섯 가지 놓으면 오곡밥이 뒈는 거지.(어. 주로 쌀 반 보리 반 그다음에 조 쪼끔 놓고 이제 오곡밥식으로 만드는 거지. 이제 팥도 좀 넣고 콩도 넣고 뭐 해서 다섯 가지 놓으면 오곡밥이 되는 거지.)
107004 @ 아, 다섯 가지 오곡밥이고 반지기밥은 쌀이랑 보리로?(아, 다섯 가지 오곡밥이고 '반지기밥'은 쌀이랑 보리로?)
107004 #1 ᄋᆞ. 주로 그거 놓으면 반지기.(어. 주로 그거 놓으면 반지기.)
107004 @ 아, 옛날에 반지기밥이라 헷구나예?(아, 옛날에 '반지기밥'이라 했군요?)
107004 #1 ᄋᆞ. 반지기밥이 웬만한 사람은 학교 뎅길 때도 반지기밥 벤또 싸오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어. '반지기밥'이 웬만한 사람은 하곡 다닐 때도 '반지기밥' 도시락 싸오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107004 @ 예.(예.)
107004 #1 보리밥만 싸 오는 사람은 쪼금 못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옛날에도 학교가 그넹 말이여 밥 먹을 때는 보리밥 싸온 사람은 쫌 부끄러왕 따로 앚아서 먹기도 ᄒᆞ고 이레 보리밥 싸온 끼리만 먹고 그때는 주로 이제 반지기밥에 계란으로 이렇게 반찬으로.(보리밥만 싸 오는 사람은 쪼금 못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옛날에도 학교 가서 말이야 밥 먹을 때는 보리밥 싸온 사람은 쫌 부끄러워서 따로 앉아서 먹기도 하고 이리 보리밥 싸온 끼리만 먹고 그때는 주로 이제 '반지기밥'에 계란으로 이렇게 반찬으로.)
107004 @ 예.(예.)
107004 #1 헤서 온 사람은 췌고로 그때는 알아준 이제.(해서 온 사람은 최고로 그때는 알아준 이제.)

145)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04 @ 반지기밥 만들 때는 그냥 곤밥 만들 때랑?('반지기밥' 만들 때는 그냥 쌀밥 만들 때랑?)
107004 #1 으. 보리ᄒᆞ고 쌀ᄒᆞ고 반반 넣엉 만드니까 반지기주게.(어. 보리하고 쌀하고 반반 넣어서 만드니까 반지기지.)
107004 @ 기구나예.(그렇군요.)
107005 @ 그럼 곤밥 잇잖아예?(그럼 쌀밥 있잖아요?)
107005 #1 으.(어.)
107005 @ 옛날에는 곤밥은 자주 못 드셧잖아예?(옛날에는 쌀밥은 자주 못 드셨잖아요?)
107005 #1 곤밥은 멩질 때, 제사 때 또 무슨 뭐 경조사 일에만 곤밥 사용헤.(쌀밥은 명절 때, 제사 때 또 무슨 뭐 경조사 일에만 쌀밥 사용해.)
107005 @ 아, 경조사 때?(아, 경조사 때?)
107005 #1 또 곤밥 사용ᄒᆞ고 또 보통 상 날 때나 이제 뭐 무슨 결혼 때도 말이지.(또 쌀밥 사용하고 또 보통 상 날 때나 이제 뭐 무슨 결혼 때도 말이지.)
107005 @ 예.(예.)
107005 #1 반지기밥에다가 말이여 팟 놔 가지고 말이여 주로 말이여 먹엇어.('반지기밥'에다가 말이야 팥 놔 가지고 말이야 주로 말이야 먹었어.)
107005 @ 아, 반지기에다가 팟 놓앙 헷수광?(아, 반지기에다가 팥 놔서 했습니까?)
107005 #1 팟을 놔서 손님 대접허고 말이여 영장날 때 그런 때는 말이지 좀 사람오고 ᄒᆞ니까.(팥을 놔서 손님 대접하고 말이야 초상날 때 그런 때는 말이지 좀 사람 오고 하니까.)
107005 @ 예.(예.)
107005 #1 조금 어려와도 말이지 반지기밥에 팟 놔 가지고 말이지 먹고 말이지 이렇게.(조금 어려워도 말이지 '반지기밥'에 팥 놔 가지고 말이지 먹고 말이지 이렇게.)
107005 @ 아, 그럼 곤밥은 자주 못 먹엇겟다예?(아, 그럼 쌀밥은 자주 못 먹었겠군요?)
107005 #1 아, 곤밥은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삼시 먹기가 힘들엇지. 그때도 주로 뭐 반지기로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곤밥도 먹기는 먹엇지마는.(아, 쌀밥은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삼시 먹기가 힘들었지. 그때도 주루 뭐 반지기로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쌀밥도 먹기는 먹었지마는.)
107005 @ 예.(예.)
107005 #1 그 곤밥은 멩질 때, 제사 때 이런 말이지 경조사 잔치 때 뭐 사람 돌아가거나 이런 때 그런 때나 먹고게.(그 쌀밥은 명절 때, 제사 때 이런 말이지 경조사 잔치 때 뭐 사람 돌아가거나 이런 때 그런 때나 먹고.)
107005 @ 그럼 옛날에 보리밥 ᄀᆞ튼 경우에는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뒈신가마씨?(그럼 옛날에 보리밥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됐나요?)
107005 #1 보리밥 먹으면은 방구도 잘 나오고 말이지 뭐 무슨 말이지 거치니까.(보리

밥 먹으면 방구도 잘 나오고 말이지 뭐 무슨 말이지 거치니까.)
107005 @ 예.(예.)
107005 #1 거 위가 그때는 이제 좀 그 소화를 못 시켯는지도 모르지마는.(거 위가 그때는 이제 좀 그 소화를 못 시켰는지도 모르지마는.)
107005 @ 예.(예.)
107005 #1 지금은 지금 사람들은 말이여 뭐 우유, 계란, 빵 이런 것만 먹으니깐 위가 말이지 뭐 작용을 잘 안 ᄒᆞ니까. 아주 위병도 많이 나주마는 옛날 사람들은 그런 큰 거 엇엇거든 속병은.(지금은 지금 사람들은 말이야 뭐 우유, 계란, 빵 이런 것만 먹으니깐 위가 말이지 뭐 작용을 잘 안 하니까. 아주 위병도 많이 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큰 거 없었거든 속병은.)
107005 @ 보리밥 많이 먹어 부난?(보리밥 많이 먹어 버리니깐?)
107005 #1 ᄋᆞ. 보리밥 ᄀᆞ튼 거 조, 감저 뻿데기 ᄀᆞ튼 것도 놔서 먹고 감자도 썰엉 생감자로 밥ᄒᆞᆯ 때 놔서 먹고. 감저밥[146]도 헹 먹고. 조팝에도 말이여 고구마 넣어그넹 먹고 여러 가지로 헤서 먹으니깐.(어. 보리밥 같은 거 조, 고구마 고지 같은 것도 놔서 먹고 감자도 썰어서 생감자로 밥할 때 놔서 먹고. '감저밥'도 해서 먹고. 조밥에도 말이야 고구마 넣어서 먹고 여러 가지로 해서 먹으니깐.)
107005 @ 예.(예.)
107005 #1 그, 그렇게 큰 뭐 지금ᄀᆞ치 암 ᄀᆞ튼 거는 몰라서 육십 대면 건줌 죽엇으니깐. 오십 대, 육십 대는 지금은 백 살이여 뭐여 ᄒᆞ지마는.(그, 그렇게 큰 뭐 지금같이 암 같은 거는 몰라서 육십 대면 거의 죽었으니깐. 오십 대, 육십 대는 지금은 백 살이야 뭐야 하지마는.)
107005 @ 예.(예.)
107005 #1 주로 말이여 농사지어 온 거에다 말이여 농약 안 헌 우영에 말이여 뭐 배추는 뭐 무수나 말이여 이런 거 마농 ᄀᆞ튼 거 갈아서 고추 ᄀᆞ튼 거 좀 싱거 가지고 그거 뒌장에다 먹고 말이여 남편은 바당에 가서 고기 낚어 가지고 살고 이렇게 헷으니까.(주로 말이야 농사지어 온 거에다 말이야 농약 안 한 텃밭에 말이야 뭐 배추는 뭐 무나 말이야 이런 거 마늘 같은 거 갈아서 고추 같은 거 좀 심어 가지고 그거 된장에다 먹고 말이야 남편은 바다에 가서 고기 낚아 가지고 살고 이렇게 했으니까.)
107005 @ 옹포에서도 고기는 잘 잡앗지예?(옹포에서도 고기는 잘 잡았지요?)
107005 #1 그렇지. 바로 바다 붙은 마을이니까.(그렇지. 바라 바다 붙은 마을이니까.)
107005 @ 예.(예.)
107005 #1 배 타면 가서 말이여 고기는 낚아당 먹엇지.(배 타면 가서 말이야 고기는 낚아다가 먹었지.)
107006 @ 조팝 잇잖아예?(조밥 있잖아요?)
107006 #1 ᄋᆞ.(어.)
107006 @ 보리밥은 저도 몇 번 먹어 봣인디 조팝은 안 먹어 봣인디.(보리밥은 저도

146) '감저밥'은 '고구마와 쌀을 섞어서 지은 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감제밥'이라고도 한다.

몇 번 먹어 봤는데 조밥은 안 먹어 봤는데.)
107006 #1 조팝은 먹으면.(조밥은 먹으면.)
107006 @ 예.(예.)
107006 #1 상당히 오래 가.(상당히 오래 가.)
107006 @ 배부른 게마씨?(배부른 게요?)
107006 #1 으. 배부르민.(어. 배부르면.)
107006 @ 예.(예.)
107006 #1 보리밥은 먹으면 집안 문턱 넘어서면 소화뒌다고 허주마는.(보리밥은 먹으면 집안 문턱 넘어서면 소화된다고 하지마는.)
107006 @ 예.(예.)
107006 #1 조팝은 먹으면 저녁까지 간다 이거야 거 끈기가.(조밥은 먹으면 저녁까지 간다 이거야 거 끈기가.)
107006 @ 끈기가.(끈기가.)
107006 #1 그러니까 옛날도 말이지 거 고소리술[147] 헤 가지고 조로 만들어 가지고 술 멘들어서 말이여 그거 먹으면.(그러니까 옛날도 말이지 거 '고소리술' 해 가지고 조로 만들어 가지고 술 만들어서 말이야 그거 먹으면.)
107006 @ 예.(예.)
107006 #1 한 사발 먹으면 한 때 저 식사대용으로 가고 상당히 오래 가 부난 조가 그렇게 상당히 영앙가가 잇인 것 같애.(한 사발 먹으면 한 때 저 식사대용으로 가고 상당히 오래 가 버리니까 조가 그렇게 상당히 영양가가 있는 것 같아.)
107006 @ 그럼 조팝도 만들기 자주 드션마씨? 옛날에는?(그럼 조밥도 만들기 자주 드셨어요? 옛날에는?)
107006 #1 아, 옛날에는 주로 보리ᄒᆞ고 조밧긔 안 갈앗으니까 감자ᄒᆞ고 세 가지가 주산물 주식량의 원인이.(아, 옛날에는 주로 보리하고 조밖에 안 갈았으니까 감자하고 세 가지가 주산물 주식량의 원인이.)
107006 @ 예.(예.)
107006 #1 조, 보리, 감자라.(조, 보리, 감자야.)
107006 @ 조, 보리, 감자 그 세 가지고. 조팝도 많이 헹 먹엇겟다예?(조, 보리, 감자 그 세 가지고. 조밥도 많이 해서 먹었겠군요?)
107006 #1 으. 조팝도 많이 헹 먹지. 게난 보리쏠에 조 쪼금 넣어그넹 먹고.(어, 조밥도 많이 해서 먹지. 그러니 보리쌀에 조 쪼금 넣어서 먹고.)
107006 @ 예.(예.)
107006 #1 그다음에 쪼금 뭐 ᄒᆞ는 데는 감자 말이여 생감자.(그다음에 쪼금 뭐 하는 데는 감자 말이야 생감자.)
107006 @ 예.(예.)

147) '고소리술'은 '솥에 오메기술(차좁쌀 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을 넣고 그 위세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뽑아낸 제주 전통 소주'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06 #1 썰어서 무수 ᄀᆞ추룩 썰어서 놓아서 먹으면은 어린애들은 감자 맛이 달콤허니까 감자만 밥에서 골라먹고 저기 헷지.(썰어서 무 같이 썰어서 놓아서 먹으면 어린애들은 감자 맛이 달콤하니까 감자만 밥에서 골라먹고 저기 했지.)

107006 @ 그럼 반지기밥은 무조건 쌀 들어가야겟다예?(그럼 '반지기밥'은 무조건 쌀 들어가야겠군요?)

107006 #1 ᄋᆞ. 쌀 안 들어가면 반지기가 아니라.(어. 쌀 안 들어가면 반지기가 아니야.)

107006 @ 그럼 조랑 보리 서끄면은 반지기가 아니고?(그럼 조랑 보리 섞으면 반지기가 아니고?)

107006 #1 아니. 그것도 반지기라고 볼 수 잇주게. 조 반, 쌀 반 넣으면 그것도 반지기.(아니. 그것도 반지기라고 불 수 있지. 조 반, 쌀 반 넣으면 그것도 반지기.)

107006 @ 예.(예.)

107006 #1 쌀 반, 보리 반 그것도 반지기. 반은 반반씩 놔서 반지기거든.(쌀 반, 보리 반 그것도 반지기. 반은 반반씩 놔서 반지기거든.)

107006 @ 그럼 반지기밥이라고 하면?(그럼 '반지기밥'이라고 하면?)

107006 #1 반지기밥이라고 허면 보리 반, 쌀 반 헤서 헌 것이 주로 반지기라.('반지기밥'이라고 하면 보리 반, 쌀 반 해서 한 것이 주로 반지기야.)

107007 @ 그럼 그 팟밥은 주로 언제 드션마씨?(그럼 그 팥밥은 주로 언제 드셨어요?)

107007 #1 팟밥은 주로 잔치 때.(팥밥은 주로 잔치 때.)

107007 @ 예.(예.)

107007 #1 그 보리ᄒᆞ고 쌀ᄒᆞ고 팟 놔서.(그 보리하고 쌀하고 팥 놔서.)

107007 @ 예.(예.)

107007 #1 그때는 이 쌀밥으로만 다 먹기 힘들엇어. 우리가 장가갈 때만 허더래도 주로 잔칫집에도 쌀 반, 보리 반, 팟 놓고 헤서 벌거롱헤서 보기도 좋아. 먹기도 좋고.(그때는 이 쌀밥으로만 다 먹기 힘들었어. 우리가 장가갈 때만 하더라도 주로 잔칫집에서 쌀 반, 보리 반, 팥 놓고 해서 벌게서 보기도 좋아. 먹기도 좋고.)

107007 @ 아, 근데 그면 팟만 집어넣어서는 밥은 안 만들엇지예?(아, 근데 그러면 팥만 집어넣어서는 밥은 안 만들었지요?)

107007 #1 팟은 팟죽. 팟죽은 동지팟죽에 쒀 먹고 뭐 팟은 그렇게 허고. 녹두는 녹두죽만 그렇게 헤서 쒀 먹고,(팥은 팥죽. 팥죽은 동지팥죽에 쒀 먹고 뭐 팥은 그렇게 하고. 녹두는 녹두죽만 그렇게 해서 쒀 먹고.)

107007 @ 그러니까 팟밥이라고 허면 약간 팟이랑 밥이랑 서껑 먹는 거지예?(그러니까 팥밥이라고 하면 약간 팥이랑 밥이랑 섞어서 먹는 거지요?)

107007 #1 ᄋᆞ.(어.)

107008 @ 어르신 피밥은 들어보션마씨?(어르신 피밥은 들어보셨어요?)

107008 #1 ᄋᆞ?(어?)

107008 @ 피밥. 피로 만든 밥마씨.(피밥. 피로 만든 밥이요.)
107008 #1 피. 어. 그런 밥도 잇엇주게.(피. 어. 그런 밥도 있었지.)
107008 @ 근데 제주도에선 피밥은 잘 안 드시지 않안마씨?(근데 제주도에서는 피밥은 잘 안 드시지 않았어요?)
107008 #1 그 옥수수 아니고 저 뭐고 것이 뭐냐면은.(그 옥수수 아니고 저 뭐고 것이 뭐냐면.)
107008 @ 예.(예.)
107008 #1 그, 저, 수수. 수수밥.(그, 저, 수수, 수수밥.)
107008 @ 예. 수수밥.(예. 수수밥.)
107008 #1 수수밥이라고 헤 가지고 그것도 옛날엔 잇어낫주게.(수수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옛날에는 있었지.)
107008 @ 아, 옛날엔 잇언마씨?(아, 옛날에는 있었어요?)
107008 #1 어.(어.)
107008 @ 수수밥도 뭐 아니 보리랑 수수 넣은 거마씨?(수수밥도 뭐 아니 보리랑 수수 넣은 거예요?)
107008 #1 어. ᄀᆞ치 놔서 먹으면 그것도 반지기가 뒈는 거지.(어. 같이 놔서 먹으면 그것도 반지기가 되는 거지.)
107009 @ 그럼 감저밥은 아까 말헷듯이 감저 이렇게 무수처럼 헹 썰엉 넣은 거마씨?(그럼 '감저밥'은 아까 말했듯이 고구마 이렇게 무처럼 해서 썰어서 넣은 거예요?)
107009 #1 어. 집어넣어서 만들면 뭐 그것도 고구마밥도 뒈고 말이지 아이들도 먹기도 좋고 좀 좋고 말이지.(어. 집어넣어서 만들면 뭐 그것도 고구마밥도 되고 말이지 아이들도 먹기 좋고 좀 좋고 말이지.)
107009 @ 그럼 곤밥 말고는 다 다른 것들은 그냥 아무 때나 먹엇겟다예?(그럼 쌀밥 말고는 다 다른 것들은 그냥 아무 때나 먹었겠군요?)
107009 #1 서숙밥이라고 헷어. 그 서숙.(서속밥이라고 했어. 그 서속.)
107009 @ 서숙밥?(서속밥?)
107009 #1 서숙밥이.(서속밥이.)
107009 @ 예.(예.)
107009 #1 곤밥이 아닌 다른 밥이 서숙밥이라고 헤 가지고.(쌀밥이 아닌 다른 밥이 서속밥이라고 해 가지고.)
107009 @ 예.(예.)
107009 #1 일반인들이 그자 그런 서숙밥을 먹고 생활헷지게.(일반인들이 그저 그런 서속밥을 먹고 생활했지.)
107009 @ 아, 서숙밥은 팟밥, 조팝 다 들어간 거마씨?(아, 서속밥은 팥밥, 조밥 다 들어간 거예요?)
107009 #1 그런 그저 곤밥이 아닌.(그런 그저 쌀밥이 아닌.)
107009 @ 전부 다?(전부 다?)

107009 #1 ᄋᆞ. 그런 이제 서민적인 밥이라고 헤서 서숙. 서민이 먹는 음식이라는 뜻일 거라. 그 서숙밥이라고 헷어.(어. 그런 이제 서민적인 밥이라고 해서 서속. 서민이 먹는 음식이라는 뜻일 거야. 그 서속밥이라고 했어.)

107010 @ 그럼 무수밥도 잇엇수광?(그럼 무밥도 있었습니까?)

107010 #1 거 무수 썰어그넹 밥 허면 무수밥이라고 허는데 옛날에는 저 빙떡[148] 홀 때 무수를 이렇게 ᄒᆞ고.(거 무 썰어서 밥 하면 무밥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 '빙떡' 할 때 무를 이렇게 하고.)

107010 @ 예.(예.)

107010 #1 무수에 그 저기 모밀이.(무에 그 저기 메밀이.)

107010 @ 예.(예.)

107010 #1 찰떡궁합이라.(찰떡궁합이야.)

107010 @ 아, 무수에 모밀이?(아, 무에 메밀이?)

107010 #1 ᄋᆞ. 모밀 저 그 저 빙이라고 빙떡알지?(어. 메밀 저 그 저 '빙'이라고 '빙떡'알지?)

107010 @ 예. 빙떡 알주마씨.(예. '빙떡' 알지요.)

107010 #1 빙떡에는 무수가 안 들어가면 안 뒈어.('빙떡'에는 무가 안 들어가면 안 돼.)

107010 @ 무수가 안 들어가면 안 돼.(무가 안 들어가면 안 돼.)

107010 #1 ᄋᆞ. 게. 무수 쪼금 이제 솖아 가지고 간 쪼금 헤 가지고 꽤ᄀᆞ루 쪼금 뿌려 가지고 거기다 놓고 말이지. 옛날에는 뭐 뭐 콩나물도 놓고 뭐 무신 요새는 잡채도 놓고 무신 거 여러 가지 많이 놔서 말기도 ᄒᆞ는데.(어. 그럼. 무 쪼금 이제 삶아 가지고 간 쪼금 해 가지고 깻가루 쪼금 뿌려 가지고 거기다 놓고 말이지. 옛날에는 뭐, 뭐 콩나물도 놓고 뭐 무슨 요새는 잡채도 놓고 무엇 여러 가지 많이 놔서 말기도 하는데.)

107010 @ 예.(예.)

107010 #1 옛날에는 주로 무수 썰어 놔서 넣엇주게. 그 저 빙, 빙떡에는.(옛날에는 주로 무 썰어 놔서 넣었지. 그 저 '빙', '빙떡'에는.)

107010 @ 빙떡에는.('빙떡'에는.)

107010 #1 ᄋᆞ. 그게 저 찰떡궁합이라고 헤서 말이여 음식 궁합이 딱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잔칫집에 말이야.(어. 그게 저 찰떡궁합이라고 해서 말이야 음식 궁합이 딱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에서 잔칫집에 말이야.

107010 @ 예.(예.).

107010 #1 돼지고기 솖아 놩 ᄆᆞᆷ 놓아 가지고 ᄆᆞᆷ쿡[149] 끓여 가지고 먹는 것이.(돼지고기 삶아 놔서 모자반 놓아 가지고 '몸쿡' 끓여 가지고 먹는 것이.)

---

148) '빙떡'은 '메밀 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팥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빙, 전기, 전기떡, 장기, 정기떡'이라고도 한다.

149) '몸쿡'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몸국'이라고도 한다.

107010 @ 예.(예.)
107010 #1 돼지고기에 춤믐이 저 궁합이 딱 맞는 거여.(돼지고기에 '춤믐'이 저 궁합이 딱 맞는 거야.)
107010 @ 아, 돼지고기영 믐이영.(아, 돼지고기와 몸과.)
107010 #1 어. 믐 또 곤밥에 생선이라고 헤서 곤밥에는 생선 고기가 딱 거 옛날에도 그 저기 멩질 때 곤밥에 말이지 미역국 헤그넹 생선국 끓이면 그 췌고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말이여.(어. 모자반 또 쌀밥에 생선이라고 해서 쌀밥에는 생선 고기가 딱 거 옛날에도 그 저기 명절 때 쌀밥에 말이지 미역국 해서 생선국 끓이면 그 최고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말이야.)
107010 @ 음식.(음식.)
107010 #1 어. 음식이주게 멩질밥은 곤밥에 생선 미역국 ᄒᆞ면 그거 이상은 엇어.(어. 음식이지. 명절밥은 쌀밥에 생선 미역국 하면 그거 이상은 없어.)
107010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10 #1 어.(어.)
107011 @ 그럼 톳밥 잇잖아예. 톳 집어넣어서 허는 거 그거는 자주 헤 먹언마씨?(그럼 톳밥 있잖아요. 톳 집어넣어서 하는 거 그거는 자주 해 먹었어요?)
107011 #1 아니 그때는 인제 못 살아서 말이여 계벽년 숭년 때나.(아니 그때는 인제 못 살아서 말이야 계해년 흉년 때나.)
107011 @ 예.(예.)
107011 #1 바다에 가서 비여다가.(바다에 가서 베어다가.)
107011 @ 예.(예.)
107011 #1 그 저기 초근목피. 나무껍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는 다 먹고 물 먹고 살 때엿거든 그때는.(그 저기 초근목피. 나무껍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는 다 먹고 물 먹고 살 때였거든 그때는.)
107011 @ 나무껍질 드션마씨?(나무껍질 드셨어요?)
107011 #1 아니 나무껍질도 먹는 나무껍질이 잇어. 그런 거를 먹고 살앗다니까. 그때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저 톳은 말이여 조금 비어 오면은 말이여.(아니 나무껍질도 먹는 나무껍질이 있어. 그런 거를 먹고 살았다니까. 그때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저 톳은 말이야 조금 베어 오면 말이야.)
107011 @ 예.(예.)
107011 #1 그 보리 쪼끔 넣고 톳을 ᄀᆞ치 넣어그넹 먹고 헷주게. 그게 톳밥이라.(그 보리 쪼끔 넣고 톳을 같이 넣어서 먹고 했지. 그게 톳밥이야.)
107012 @ 그면 패밥[150]도 잇언마씨?(그러면 '패밥'도 있었어요?)
107012 #1 패?(패?)
107012 @ 패밥은 안 들어보셧구나예.('패밥'은 안 들어보셨군요.)
107013 @ 그럼 그 국은 무슨 종류가 잇언마씨?(그럼 그 국은 무슨 종류가 있었어

150) '패밥'은 '보리쌀에 패를 섞어서 지은 밥'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요?)
107013 #1 뭐 국은 말이지. 뭐 뒌장국 뭐 ᄂᆞ물국 무신 생선국 뭐 국 종류도 많지. 호박국, 갈칫국 무신 뭐, 뭐 여러 가지고 국 종류도 많아.(뭐 국은 말이지. 뭐 된장국 뭐 나물국 무슨 생선국 뭐 국 종류도 많지. 호박국, 갈칫국 무슨 뭐, 뭐 여러 가지고 국 종류도 많아.)
107014 @ 그럼 ᄂᆞ물국 잇잖아예. ᄂᆞ물국은 뭘로 만들언마씨?(그럼 나물국 있잖아요. 나물국은 뭘로 만들었어요?)
107014 #1 배추 놓고 무수 썰어놔그넹 그럼 그건 ᄂᆞ물국이고. 멜국에는 ᄂᆞ물 어린 애기 ᄂᆞ물 넣어 가지고 끓이면 멜국에도 그거는 딱 말이여 적성이 딱 맞아 가지고 음식 궁합이 딱 맞고.(배추 놓고 무 썰어놔서 그럼 그건 나물국이고. 멸치국에는 나물 어린 아기 나물 넣어 가지고 끓이면 멸치국에도 그거는 딱 말이야 적성이 딱 맞아 가지고 음식 궁합이 딱 맞고.)
107014 @ 그럼 ᄂᆞ물국을 제일 자주 헤 먹언마씨?(그럼 나물국을 제일 자주 해 먹었어요?)
107014 #1 ᄋᆞ. 제일 많이 먹는 게 서민들 서숙밥에다가 ᄂᆞ물국이 말이여 주로 먹는 거고.(어. 제일 많이 먹는 게 서민들 서속밥에다가 나물국이 말이야 주로 먹는 거고.)
107014 @ 예.(예.)
107014 #1 그다음에는 자리젓. 자리젓 헤그넹 말이여 반찬으로는 자리젓. 뭐 고기가 엇거든. 고기 주로 말이지 그 낚아 온 것들은 팔고 뭐 ᄒᆞ고 사먹을 그 뭐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그다음에는 자리젓. 자리젓 해서 말이야 반찬으로는 자리젓. 뭐 고기가 없거든. 고기 주로 말이지 그 낚아 온 것들은 팔고 뭐 하고 사먹을 그 뭐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107014 @ 그 그럼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서숙밥에다가 ᄂᆞ물국에다가 자리젓?(그 그럼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서속밥에다가 나물국에다가 자리젓?)
107014 #1 ᄋᆞ. 그게 서민들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앗다고 헤도 과언이 아니.(어. 그게 서민들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107015 @ 지금은 막 술 많이 먹고 그다음날 콩나물국 많이 먹는디예?(지금은 아주 술 많이 먹고 그다음날 콩나물국 많이 먹는데요?)
107015 #1 ᄋᆞ.(어.)
107015 @ 옛날에는 콩나물국은 뭐 주로 드션마씨?(옛날에는 콩나물국은 뭐 주로 드셨어요?)
107015 #1 그 콩나물은 그때 술 취헤서 끓여 먹는 게 아니라.(그 콩나물은 그때 술 취해서 끓여 먹는 게 아니야.)
107015 @ 예.(예.)
107015 #1 이제야 그 콩나물국은 말이야. 술 먹어나면 그 아스파라긴산인가 뭐 그게 나와 가지고.(이제야 그 콩나물국은 말이야. 술 먹어나면 그 아스파라긴산인가 뭐 그게 나와 가지고.)

107015 @ 예.(예.)
107015 #1 그게 숙취헤소에 좋다고 헤서 지금이야 뭐 판명뒌 거주게.(그게 숙취해소에 좋다고 해서 지금이야 뭐 판명된 거지.)
107015 @ 예.(예.)
107015 #1 그때 당시에는 조상들은 말이지 그거 그런 거 아스파라기산 그런 거 뭐 아나게. 무조건 말이여 술 먹어나면 뒌장국에 말이여 콩나물 넣엉 먹으민 헤장 흡서 헹 먹은 거니까.(그때 당시에는 조상들은 말이지 그거 그런 거 아스파라기산 그런 거 뭐 아나. 무조건 말이야 술 먹어나면 된장국에 말이야 콩나물 넣어서 먹으면 해장 하십시오 해서 먹은 거니까.
107015 @ 예.(예.)
107015 #1 게난 조상들 지혜가 보통이 아니주게.(그러니 조상들 지혜가 보통이 아니지.)
107016 @ 그럼 무수 집어넣엉 국 만들잖아예?(그럼 무 집어넣어서 국 만들잖아요?)
107016 #1 무수국은.(뭇국은.)
107016 @ 예.(예.)
107016 #1 주로 그 생선 ᄀᆞ튼 거 놔서 끓이면 아주 좋아.(주로 그 생선 같은 거 놔서 끓이면 아주 좋아.)
107016 @ 아, 생선마씨?(아, 생선이요?)
107016 #1 ᄋᆞ. 생선 저 뭐 미역도 좋주마는 거 미역 엇일 때는 놈삐. 놈삐가 무순디.(어. 생선 저 뭐 미역도 좋지마는 거 미역 없을 때는 무. '놈삐'가 무인데.)
107016 @ 예.(예.)
107016 #1 놈삐국으로 헤 가지고 말이여 생선국 만들면 참 말이여 그것도 잘 어울려.(뭇국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생선국 만들면 참 말이야 그것도 잘 어울려.)
107016 @ 게난 놈삐국에 뭐 그 소고기도 넣잖아예 요즘?(그러니 뭇국에 뭐 그 소고기도 넣잖아요 요즘?)
107016 #1 어. 소고기도 놈삐국에 그게 놈삐가 인삼 종류 ᄀᆞ튼 거야. 그렇게 그 영양분도 좋주마는 그렇게 몸에 좋은 거거든.(어. 소고기도 뭇국에 그게 무가 인삼 종류 같은 거야. 그렇게 그 영영분도 좋지마는 그렇게 몸에 좋은 거거든.)
107016 @ 궁합도 잘 맞앙 생선이랑 쉐고기 다 뒈고?(궁합도 잘 맞아서 생선이랑 쇠고기 다 되고?)
107016 #1 ᄋᆞ.(어.)
107017 @ 콩국은 안 들어보션마씨?(콩국은 안 들어보셨어요?)
107017 #1 아, 콩국은 장콩 장만헤다그넹 말이여 갈아다가 겨울에.(아, 콩국은 장콩 장만해다가 말이야 갈아다가 겨울에.)
107017 @ 예.(예.)
107017 #1 콩국 끓여 먹으면은 그 콩국 끓일 때는 꼭 놈삐나 말이여 그 저기 저 뭐 꼬 배추를 넣지 않으면은 콩국이 안 돼.(콩국 끓여 먹으면 그 콩국 끓일 때는 꼭 무나

말이야 그 저기 저 뭐냐 배추를 넣지 않으면 콩국이 안 돼.)
107017 @ 아, 무사마씨?(아, 왜요?)
107017 #1 아니. 그렇게 궁합이 맞게끔 조상들이 헤 먹고 지금도 해 먹으면은 그게 그렇게 맛이 좋아.(아니. 그렇게 궁합이 맞게끔 조상들이 해 먹고 지금도 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이 좋아.)
107017 @ 그럼 콩국은 그냥 보통 겨울에 드션마씨?(그럼 콩국은 그냥 보통 겨울에 드셨어요?)
107017 #1 겨울에 여름에는 안 먹지. 추울 때 그거 헤 가지고 콩국 한 사발 말이여. 밥에 밥 한두 숟가락 말아 먹으면은 든든ᄒᆞ지.(겨울에 여름에는 안 먹지. 추울 때 그거 해 가지고 콩국 한 사발 말이야. 밥에 밥 한두 숟가락 말아 먹으면 든든하지.)
107017 @ 옛날에는 그니까 요즘에는 여름에는 콩국수 많이 먹잖아예?(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름에는 콩국수 많이 먹잖아요?)
107017 #1 ᄋᆞ.(어.)
107017 @ 옛날에는 콩국에다가 이렇게 무수 넣엉?(옛날에는 콩국에다가 이렇게 무 넣어서?)
107017 #1 그런 건 엇고. 옛날에는 그런 건 엇고.(그런 건 없고. 옛날에는 그런 건 없고.)
107017 @ 콩국은 겨울에만?(콩국은 겨울에만?)
107017 #1 ᄋᆞ. 겨울에만 그자 ᄂᆞ물 그 저기 뺏대기라고 헤 가지고 ᄂᆞ물도 막 그 눈 맞아 가지고 말이여. 이 속 말앙 겉에 거 그거를 넣어서 먹엇거든.(어. 겨울에만 그저 나물 그 저기 뺏대기라고 해 가지고 나물도 막 그 눈 맞아 가지고 말이야. 이 속 말고 겉에 거 그거를 넣어서 먹었거든.)
107017 @ 그걸 뺏대기라고 헤마씨?(그걸 뺏대기라고 해요?)
107017 #1 ᄋᆞ. 뺏대기 막 놓고 말이지 그거를 국 끓여서 먹으면.(어. 뺏대기 막 놓고 말이지. 그거를 국 끓여서 먹으면.)
107017 @ 예.(예.)
107017 #1 콩국이 말이여 일미가 잇어.(콩국이 말이야 일미가 있어.)
107018 @ 그럼 호박잎국은 들어보션마씨?(그럼 호박잎국은 들어보셨어요?)
107018 #1 호박잎은 뭐 주로 말이지 그 호박 열 때 여름에.(호박잎은 뭐 주로 말이지 그 호박 열 때 여름에.)
107018 @ 예.(예.)
107018 #1 따 가지고 그 호박 줄기를 전부 다 이렇게 벗기면 그 까실까실헌 부분을 전부 다 벗겨주면.(따 가지고 그 호박 줄기를 전부 다 이렇게 벗기면 그 까실까실한 부분을 전부 다 벗겨주면.)
107018 @ 예.(예.)
107018 #1 옛날엔 좀쏠[151]이라는 게 잇어. 보리 지어나면은 보리 그 ᄲᅳᆺ아 가지고 나

151) '좀쏠'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온 거 잇어. 그게 줌쏠인데. 줌쏠에 호박잎 넣엉 국 끓이면 그것도 음식 궁합이 딱 맞아.(옛날에는 '줌쏠'이라는 게 있어. 보리 지어나면 보리 그 빻아 가지고 나온 거 있어. 그게 '줌쏠'인데. '줌쏠'에 호박잎 넣어서 국 끓이면 그것도 음식 궁합이 딱 맞아.)

107018 @ 어르신 뭐 다 잘 안다예?(어르신 뭐 다 잘 아시는구요?)

107018 #1 아니, 아니. 그게 줌쏠 호박국이 그렇게 말이여 호박잎국은 줌쏠이 엇으면 지금 멘들어그넹 지금은 줌쏠 대신에.(아니, 아니. 그게 '줌쏠' 호박국이 그렇게 말이야 호박잎국은 '줌쏠'이 없으면 지금 만들어서 지금은 '줌쏠' 대신에.)

107018 @ 예.(예.)

107018 #1 수제비 쪼금씩 때그넹 먹거든. 줌쏠이 엇어 버리니깐 줌쏠이렌 흔 거는 보리 지어나면은 그 저 그 제일 막 부서졍 나오는 거 잇주게.(수제비 쪼금씩 때서 먹거든. '줌쏠'이 있어 버리니까 '줌쏠'이라고 한 거는 보리 지어나면 그 저 그 제일 막 부서져서 나오는 거 있지.)

107018 @ 예.(예.)

107018 #1 그게 상당히 그거 저 씨눈이라. 거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 놔서 먹으면 말이여.(그게 상당히 그거 저 씨눈이야. 거 말하자면 그게 그렇게 놔서 먹으면 말이야.)

107018 @ 맛 좋아마씨?(맛 좋아요?)

107018 #1 맛도 좋주마는 일품이라니까. 음식 궁합이 딱 맞아. 옛날 사람들 그 호박에는 예를 들어서 갈치 넣어서 호박 갈칫국 이렇게 맞듯이. 생선에 아까 미역이나 무수ᄀᆞ튼 거 놓고 말이야. 돼지고기에 ᄆᆞᆷ국 말이여. 이렇게 궁합이 딱 맞는 게 잇거든.(맛도 좋지마는 일품이라니까. 음식 궁합이 딱 맞아. 옛날 사람들 그 호박에는 예를 들어서 갈치 넣어서 호박 갈칫국 이렇게 맞듯이. 생선에 아까 미역이나 무 같은 거 놓고 말이야. 돼지고기에 'ᄆᆞᆷ국' 말이야. 이렇게 궁합이 딱 맞는 게 있거든.)

107019 @ ᄆᆞᆷ국 잇잖아예?('ᄆᆞᆷ국' 있잖아요?)

107019 #1 ᄋᆞ.(어.)

107019 @ ᄆᆞᆷ국 ᄀᆞ튼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영장낫을 때 주로 먹엇인가마씨?('ᄆᆞᆷ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초상났을 때 주러 먹었나요?)

107019 #1 아. 주로 그 잔치 때나 그 영장 때는.(아, 주로 그 잔치 때나 그 초상 때는.)

107019 @ 예.(예.)

107019 #1 돼지를 잡거든게.(돼지를 잡거든.)

107019 @ 예.(예.)

107019 #1 잡으면은 이제 그 그거를 다 한 마리를 다 숢을 거 아니?(잡으면 이제 그 그거를 다 한 마리를 다 삶을 거 아니?)

107019 @ 예.(예.)

107019 #1 숢아난 물에는 ᄆᆞᆷ이 췌고여. ᄆᆞᆷ이 그거를 이제 그 지방 ᄀᆞ튼 거 이렇게 분해허고 뭐 ᄒᆞ고 ᄒᆞ는 것도 아마 ᄆᆞᆷ이 췌고인 모양이라 춤ᄆᆞᆷ이라. 것도 춤ᄆᆞᆷ으로 아니ᄒᆞ면은 그런 일반 ᄆᆞᆷ으로는 비식용은 먹지도 못 헤. 비식용 해조류는 ᄆᆞᆷ이라도 거름으

로 사용ᄒᆞ고.(삶은 물에는 모자반이 최고야. 모자반이 그거를 이제 그 지방 같은 거 이렇게 분해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아마 모자반이 최고인 모양이야. ‘츰ᄆᆞᆷ’이야. 것도 ‘츰ᄆᆞᆷ’으로 안 하면 그런 일반 모자반으로는 비식용은 먹지도 못 해. 비식용 해조류는 모자반이라도 거름으로 사용하고.)

107019 @ 예.(예.)

107019 #1 츰ᄆᆞᆷ은 장 담글 때 간장에 이렇게 넣엇당 말이여. 꺼내그넹 어 한 몇 개월 놧다그넹 모자반이라고 헤 가지고 ᄆᆞᆷ 말이여. 그거 자반으로 헤그넹 반찬으로도 먹고.(‘츰ᄆᆞᆷ’은 장 담글 때 간장에 이렇게 넣었다가 말이야. 꺼내서 어 한 몇 개월 놨다가 모자반이라고 해 가지고 모자반 말이야. 그거 자반으로 해서 반찬으로도 먹고.)

107019 @ 예.(예.)

107019 #1 돼지고기 숢아난 국물에는 꼭 ᄆᆞᆷ이 츰몸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여. 국 끓여 가지고 말이여. 돼지고기 석 점 그 저 ᄆᆞᆷ국에다 말이여 집어넣어그넹.(돼지고기 삶은 국물에는 꼭 모자반이 ‘츰ᄆᆞᆷ’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국 끓여 가지고 말이야. 돼지고기 석 점 그 저 ‘ᄆᆞᆷ국’에다 말이야 집어넣어서.)

107019 @ 예.(예.)

107019 #1 상여매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찍으로 고기 석 점을 이만씩 ᄒᆞᆫ 거 꿰 가지고 국에다가 뜨뜻한 국에 들이쳐그넹 아침에 한 잔 먹고 상여매고 헤 가지고 거 굉장히 멀어. 게난 세 번, 네 번 사람들이 쉬어 가야 뒈여.(상여매고 나가는 사람한테는 짚으로 고기 석 점을 이만큼 한 거 꿰어 가지고 국에다가 뜨뜻한 국에 들이쳐서 아침에 한 잔 먹고 상여매고 해 가지고 거 굉장히 멀어. 그러니 세 번, 네 번 사람들이 쉬어 가야 돼.)

107019 @ 멀어 부난예?(멀어 버리니까요?)

107019 #1 어디 그때는 차도 엇고 아무 것도 엇이민 사람으로 다 매 가지고 객기리라는 그 우리 공동묘지까지 운반헤그넹 갓거든.(어디 그때는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사람으로 다 매 가지고 ‘객기리’라는 그 우리 공동묘지까지 운반해서 갔거든.)

107019 @ 그렇구나예. 그믄 아까 츰ᄆᆞᆷ, 츰ᄆᆞᆷ이랑 비식용이랑 좀 다르게 생견마씨?(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츰ᄆᆞᆸ’, ‘츰ᄆᆞᆷ’이랑 비식용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107019 #1 ᄋᆞ. 비식용은 꺼믄 ᄆᆞᆷ인디 거 동글동글헌 것이 커.(어. 비식용은 꺼먼 모자반인데 거 동글동글한 것이 커.)

107019 @ 아, 커마씨?(아, 커요?)

107019 #1 ᄋᆞ. 크고 츰ᄆᆞᆷ은 퍼렁ᄒᆞᆫ 게 상당히 그 알맹이가 좀들아. 완전히 육안으로도 구분뒈어.(어. 크고 ‘츰ᄆᆞᆷ’은 퍼런 게 상당히 그 알맹이가 작아. 완전히 육안으로도 구분되어.)

107019 @ 아, 구분뒈는구나예?(아, 구분되는군요?)

107019 #1 게난 지금에는 그 ᄆᆞᆷ 올라올 때 말이여. ᄆᆞᆷ 통으로 말이여 헤 가지고 가 가지고는 제일 먼저 츰ᄆᆞᆷ만 다 건지주게. 먹을 거니까. 그거는 장 담글 때 간장에만 담강 나둬도 일 년 내내 반찬이 뒈어. 그렇게 좋아.(그러니 지금에는 그 모자반 올라올 때

말이야. 모자반 통으로 말이야 해 가지고 가 가지고는 제일 먼저 '춤몸'만 다 건지지. 먹을 거니까. 그거는 장 담글 때 간장에만 담가서 나둬도 일 년 내내 반찬이 되어. 그렇게 좋아.)

107020 @ 생선국 잇잖아예?(생선국 있잖아요?)

107020 #1 ᄋᆞ.(어.)

107020 @ 생선국도 종류가 많잖아예?(생선국도 종류가 많잖아요?)

107020 #1 생선은 이 육지에서는 날 거면은 생선이라고 허주마는.(생선은 이 육지에서는 날 거면 생선이라고 하지마는.)

107020 @ 예.(예.)

107020 #1 제주도 생선은 지금 이제 이제야 표준어로 옥돔이주마는 옥돔만 생선이라고 헤. 제주도는.(제주도 생선은 지금 이제 이제야 표준어로 옥돔이지마는 옥돔만 생선이라고 해. 제주도는.)

107020 @ 아, 옥돔만 생선마씨?(아, 옥돔만 생선이요?)

107020 #1 옥돔만 생선이라고 허지. 딴 거는 고등어, 갈치는 생선이라고 안 ᄒᆞ여.(옥돔만 생선이라고 하지. 다른 거는 고등어, 갈치는 생선이라고 안 해.)

107020 @ 그럼 고등어, 갈치는 그냥 고등어, 갈치라고 헤마씨?(그럼 고등어, 갈치는 그냥 고등어, 갈치라고 해요?)

107020 #1 ᄋᆞ. 그렇게 하지. 지금은 생선을 옥돔이라고 안 ᄒᆞ는 게.(어. 그렇게 하지. 지금은 생선을 옥돔이라고 안 하는 게.)

107020 @ 예.(예.)

107020 #1 그대로 말이여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이 생선이라.(그대로 말이야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이 생선이야.)

107020 @ 아.(아.)

107020 #1 그 생선 중에 왕이여. 우리가 지금 먹는 중에 고기 맛은 그러니까 젤 곤밥에 생선이라고 헤서 제사상이고 뭐고 말이여 멩질 때 뭐고 올라가는 게 곤밥에 생선이거든. 곤밥에 생선도 생선도 이렇게 커 가지고.(그 생선 중에 왕이야. 우리가 지금 먹는 중에 고기 맛은 그러니까 제일 쌀밥에 옥돔이라고 해서 제사상이고 뭐고 말이야 명절 때 뭐고 올라가는 게 쌀밥에 옥돔이거든. 쌀밥에 옥돔도, 옥돔도 이렇게 커 가지고.)

107020 @ 예.(예.)

107020 #1 소금 뿌려 놧다가 구워서 그대로 올리거든.(소금 뿌려 놨다가 구워서 그대로 올리거든.)

107020 @ 예. 그렇주마씨.(예. 그렇지요.)

107020 #1 또 생으로 놧다가 그때는 냉장고 엇엇주마는 그때는 인제 그 멩질 때 뒈 가면 낚으러 가면 낚아 온 거.(또 생으로 놨다가 그때는 냉장고 없었지마는 그때는 인제 그 명절 때 뒈 가면 낚으러 가면 낚아 온 거.)

107020 @ 예.(예.)

107020 #1 이렇게 헤그넹 말이여 일단 말이지 좀 끓여그넹 변허지 않게 놧다가 말이

지. 국 끓여그넹 몸이나 그 저 미역이나 말이여 무수 놔서 국 끓여서 제사상에 올리고 그렛지.(이렇게 해서 말이야 일단 말이지 좀 끓여서 변하지 않게 놨다가 말이지. 국 끓여서 모자반이나 그 저 미역이나 말이야 무 놔서 국 끓여서 제사상에 올리고 그랫지.)

107020 @ 아, 그럼 제주도에서 생선국은 그냥 옥돔?(아, 그럼 제주도에서 생선국은 그냥 옥돔?)

107020 #1 응. 옥돔이 생선이고.(어. 옥돔이 생선이고.)

107020 @ 예.(예.)

107020 #1 그 옥돔만이 맛잇인 게 엇어. 이 옥돔도 종류가 비양도 근해에 잇인 게 제일 맛잇곡.(그 옥돔만큼 맛있는 게 없어. 이 옥돔도 종류가 비양도 근해에 있는 게 제일 맛있고.)

107020 @ 비양도 근해마씨?(비양도 근해요?)

107020 #1 응. 저기 서귀포나 성산포는 크고 벌겅ᄒᆞ고 보기는 좋아도 이디 것만큼 맛이 좋지 안 ᄒᆞ주게.(어. 저기 서귀포나 성산포는 크고 벌겋고 보기는 좋아도 여기 것만큼 맛이 좋지 않지.)

107020 @ 아, 여기는 크기는 작은데.(아, 여기는 크기는 작은데.)

107020 #1 응. 쪼끔 작지마는 상당히 맛이 잇어. 이 뻘바다에서 나는 옥돔이.(어. 쪼끔 작지마는 상당히 맛이 있어. 이 갯벌에서 나는 옥돔이.)

107020 @ 예.(예.)

107020 #1 그 먹이랑 그 조류가 다 틀리고 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선 맛이 지금 엇어.(그 먹이랑 그 조류가 다 다르고 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옥돔 맛이 지금 없어.)

107020 @ 비양도 옥돔이?(비양도 옥돔이?)

107020 #1 옥돔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췌고. 자리도.(옥돔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최고. 자리돔도.)

107020 @ 예.(예.)

107020 #1 비양도 근해에서 나는 쪼그마헌 자리가 맛이 잇곡. 그대로 뼈도 복삭복삭 씹어 먹지마는.(비양도 근해에서 나는 쪼그마한 자리돔이 맛이 있고. 그대로 뼈도 폭삭폭삭 씹어 먹지마는.)

107020 @ 예.(예.)

107020 #1 이 모슬포나 저기 저 동복리[152] 말이지. 그 저기 자리돔 축제하는 디. 거기 거는 자리가 굵고 가시도 쎄고 그래 가지고 이빨이 좋지 안 ᄒᆞ면 씹기도 저 뭐 ᄒᆞ고 헤서 제주도 자리도 여기가 비양도 근해가 췌고야. 이 비양도에 이 근해에 잇인 고기가 황금어장이라. 뭐 각종 문어나 뭐 헐 거 엇이 여기서 서식ᄒᆞ는 그 고기들이 다 맛이 잇어.(이 모슬포나 저기 저 동복리 말이지. 그 저가 지리돔 축제하는 데. 거기 거는 자리돔이 굵고 가시도 세고 그래 가지고 이빨이 좋지 않으면 씹기도 저 뭐 하고 해서 제주도 자리도 여기가 비양도 근해가 최고야. 이 비양도에 이 근해에 있는 고기가 황금어장

152) '동복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정리 중 하나이다.

이야. 뭐 각종 문어나 뭐 할 거 없이 여기서 서식하는 그 고기들이 다 맛이 있어.)
107020 @ 아, 그 문어도 여기서 잡히긴 헤마씨?(아, 그 문어도 여기서 잡히기는 해요?)
107020 #1 어. 문어도 비양도 근해에서 잡히고 그렇지.(어. 문어도 비양도 근해에서 잡히고 그렇지.)
107020 @ 제주도에서 옛날에 제사상에 문어는 안 올렷지예?(제주도에서 옛날에 제사상에 문어는 안 올렸지요?)
107020 #1 문어는 젓갈은 헤. 솖아서 그 저기 그 경북 그런 저기 어디고 경주인가 그런 데는.(문어는 젓갈은 해. 삶아서 그 저기 그 경북 그런 저기 어디고 경주인가 그런 데는.)
107020 @ 그냥 통째로?(그냥 통째로?)
107020 #1 아니. 통째로가 아니고.(아니. 통째로가 아니고.)
107020 @ 예.(예.)
107020 #1 거기는 상어 젓갈이 엇이면 제사상에 뭐 혼다고 헤. 상어, 상어젓갈은 꼭 올린다고 허고.(거기는 상어 젓갈이 없으면 제사상에 뭐 한다고 해. 상어, 상어 젓갈은 꼭 올린다고 하고.
107020 @ 예.(예.)
107020 #1 제주도는 주로 돼지고기 주로 돼지고기 허고 말이지 그 저기 XX이라고 헤 가지고 그런 것도 놧을 때는 젓갈허고 문어허고 소고기는 췌근에 허고. 우리 어렷을 때는 거의 못 봣어.(제주도는 주로 돼지고기 주로 돼지고기 하고 말이지 그 저기 XX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놨을 때는 젓갈하고 문어하고 소고기는 최근에 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못 봤어.)
107020 @ 거의 못봣지예?(거의 못봤지요?)
107020 #1 거의 멩질 때 아니 아무 때라도 말이지 소고기 그걸 먹지 못 헤. 돼지고기는 한 달에 추렴이라고 헤 가지고 동네에서 추렴허면.(거의 명절 때 아니 아무 때라도 말이지 소고기 그걸 먹지 못 해. 돼지고기는 한 달에 추렴이라고 해 가지고 동네에서 추렴하면.)
107020 @ 예.(예.)
107020 #1 뭐 우리 동네에서 혼 마리나 두 마리나 잡으면 그 동네에서 혼 다리씩 다 사가.(뭐 우리 동네에서 한 마리나 두 마리나 잡으면 그 동네에서 한 다리씩 다 사가.)
107020 @ 아.(아.)
107020 #1 또 여기서도 혼 두어 마리 잡으면 혼 다리씩 다 사가그넹 그걸 솖아서 젓갈허고 나머지 먹고 그렇게 헷지 주로.(또 여기서도 한 두어 마리 잡으면 한 다리씩 다 사가서 그걸 삶아서 젓갈하고 나머지 먹고 그렇게 했지 주로.)
107021 @ 미역국은 그냥 미역 놩 먹엇지예?(미역국은 그냥 미역 놔서 먹었지요?)
107021 #1 어. 미역게 주로 말이지 그 돼지고기이.(어. 미역 주로 말이지 그 돼지고기.)

107021 @ 예.(예.)
107021 #1 썰어 놔그넹 끓일 때도 몸 썰어 놔그넹 국 끓령 돼지고기 국이라도.(썰어 놔서 끓일 때도 모자반 썰어 놔서 국 끓여서 돼지고기 국이라도.)
107021 @ 예.(예.)
107021 #1 몸 봉 끓이면 참 맛잇어. 그게 아마 음식 궁합이 딱 맞아.(모자반 놔서 끓이면 참 맛있어. 그게 아마 음식 궁합이 딱 맞아.)
107022 @ 여름에는 냉국 먹지 않아마씨?(여름에는 냉국 먹지 않아요?)
107022 #1 냉국게 그 저기 저 물웨.(냉국 그 저기 저 물외.)
107022 @ 예.(예.)
107022 #1 물웨 ᄀᆞ튼 거 그 싱경 놧다그넹 말이여 뒌장 풀어 넣고 다마내기ᄒᆞ고 저 세우리, 세우리 알지?(물외 같은 거 그 심어 놨다가 말이야 된장 풀어 넣고 양파하고 저 부추, 부추 알지?)
107022 @ 예. 세우리 알주마씨.(예. 부추 알지요.)
107022 #1 세우리 말이여 그고 쪼끔 말이여 썰어그넹 말이지 그자 말이여 자리나 잇이면 자리 호꼼 썰어 넣고 헤그넹 말이지 그거만이 뭐 좋은 거 잇나.(부추 말이야 그거 쪼끔 말이야 썰어서 말이지 그저 말이야 자리돔이나 있으면 자리돔 조금 썰어 넣고 해서 말이지 그거만큼 뭐 좋은 거 있나.)
107022 @ 그주마씨.(그렇지요.)
107022 #1 거 여름에는 그 뒌장수 ᄀᆞ튼 거 먹으면은 그렇게 우리 몸이 온몸에 독소도 다 빠진다 ᄒᆞ여.(거 여름에는 그 된장수 같은 거 먹으면 그렇게 우리 몸이 온몸에 독소도 다 빠진다 해.)
107022 @ 아, 뒌장수가.(아, 된장수가.)
107022 #1 뒌장을 뭐 한 숟가락 컵에다 놔서 막 저어 가지고.(된장을 뭐 한 숟가락 컵에다 놔서 막 저어 가지고.)
107022 @ 예.(예.)
107022 #1 그걸 이제 말이지 이제 이삼 분 잇이면 그 뒌장 찌꺼기가 가라앚으면 우에 물만 한 컵만 마시면.(그걸 이제 말이지 이제 이삼 분 있으면 그 된장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위에 물만 한 컵만 마시면.)
107022 @ 아, 그냥 물로?(아, 그냥 물로?)
107022 #1 ᄋᆞ. 물로 먹으면 온몸에 잇인 독소가 다 빠져.(어. 물로 먹으면 온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
107022 @ 아, 국이 냉국을 뒌장으로 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로?(아, 국이 냉국을 된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로?)
107022 #1 물로도 먹지마는 그렇게 뒌장이.(물로도 먹지마는 그렇게 된장이.)
107022 @ 예.(예.)
107022 #1 과학적인 말이지 그 근거로써.(과학적인 말이지 그 근거로써.)
107022 @ 예.(예.)

107022 #1 췌고의 발효 식품은 말이여 뒌장이 말이여 췌고라. 췌고. 뒌장만큼 좋은 말이여 음식이 엇어. 뒌장, 마늘 뭐 이런 거 뭐 췌고. 제주도 사람들 옛날게 뒌장국만 끓여 먹어도 건강헤낫거든.(최고의 발효 식품은 말이야 된장이 말이야 최고야. 최고. 된장만큼 좋은 말이야 음식이 없어. 된장, 마늘 뭐 이런 거 뭐 최고. 제주도 사람들 옛날 된장국만 끓여 먹어도 건강했었거든.)

107022 @ 물훼는 요즘에는 한치물훼, 자리물훼 여러 가지 나오는 데 옛날에는 자리물훼지예?(물회는 요즘에는 한치물회, 자리물회 여러 가지 나오는 데 옛날에는 자리물회지요?)

107022 #1 주로 자리밧긔 먹을 게 엇이니까. 싸고 그때는 한 뒈에도 얼마 안 가거든. 자리는 막 팔러 다녓거든. 팔지 못하면 무리면[153] 젓 담그는 거라. 성헐 때는 훼로 먹고 풀지 못 헹 ᄒᆞ면은 그거 가져오면 소금 첫다가 젓 담아. 왜냐면 무린 것이 젓 담아야 소금에 간이 잘 들어가서 젓이 맛잇어.(주로 자리돔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싸고 그때는 한 되에도 얼마 안 가거든. 자리돔은 막 팔러 다녔거든. 팔지 못하면 '무리면' 젓 담그는 거야. 성할 때는 회로 먹고 팔지 못 해서 하면 그거 가져오면 소금 쳤다가 젓 담가. 왜냐하면 '무린' 것이 젓 담가야 소금에 간이 잘 들어가서 젓이 맛있어.)

107023 @ 성게국은 많이 안 먹언마씨?(성게국은 많이 안 먹었어요?)

107023 #1 성게국은 이제 근간에나 이제 해녀들 잡아오니까 이렇게 먹고 헷지마는.(성게국은 이제 근간에나 이제 해녀들 잡아오니까 이렇게 먹고 했지마는.)

107023 @ 그럼 옛날에는.(그럼 옛날에는.)

107023 #1 옛날에는 그거 잡아도 돈 뒈지 안 ᄒᆞ니까 먹질 안 헷지. 잡아오질 안 헹 내버렷어. 지금은 일 키로에 칠 만원, 팔 만원 가니깐 해녀들 잡아다강 그거 세 시간, 네 시간 세 사람, 네 사람 앚아 가지고 알맹이 분리허려면 그 안에도 노랑헌 알맹이만 먹주게.(옛날에는 그거 잡아도 돈 되지 않으니까 먹지를 안 했지. 잡아오지를 안 해서 내버렸어. 지금은 일 킬로에 칠 만원, 팔 만원 가니깐 해녀들 잡아다가 그거 세 시간, 네 시간 세 사람, 네 사람 앉아 가지고 알맹이 분리하려면 그 안에도 노란 알맹이만 먹지.)

107023 @ 아.(아.)

107023 #1 또 다른 것들 내장 ᄀᆞ튼 것들 분리허려면 상당히 힘들어. 그걸 일 키로 만들엉 파는 거지.(또 다른 것들 내장 같은 것들 분리하려면 상당히 힘들어. 그걸 일 킬로 만들어서 파는 거지.)

107023 @ 그럼 옛날에는 성게를 안 잡앗겟다예?(그럼 옛날에는 성게를 안 잡았겠군요?)

107023 #1 아니 팔려고 하지도 안 ᄒᆞ고 사먹는 사람도 엇고 ᄒᆞ니까 말이야. 잡을 생각을 안 허는 거지. 우리 클 때만 허더라도 이게 한 오륙 년, 오륙 년 전부터 무슨게 이렇게 성게 헤서 먹어보니깐 국으로 헤 가지고 먹어 봐도 좋고 말이여. 성게 말이여 자리물훼에도 한 숟가락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고 말이여. 죽 쒀서도 오분제기죽이나

153) '무리다'는 '생선 따위가 습기나 열로 인하여 떠서 상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전복죽이나 쒀 가지고 다 뒈면 성게 한 숟가락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맥혀.(아니 파려고 하지도 않고 사먹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말이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 클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한 오륙 년, 오륙 년 전부터 무슨 이렇게 성게 해서 먹어보니깐 국으로 해 가지고 먹어 봐도 좋고 말이야. 성게 말이야 자리물회에도 한 숟가락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고 말이야. 죽 쒀서도 떡조개죽이나 전복죽이나 쒀 가지고 다 되면 성게 한 숟가락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혀.)

107023 @ 성게 그리고 요즘 비싸잖아예?(성게 그리고 요즘 비싸잖아요?)

107023 #1 팔 만원. 키로에 칠 만원, 팔 만원 가.(팔 만원. 킬로에 칠 만원, 팔 만원 가.)

107023 @ 옛날에는 무조건 팔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사람이 엇언마씨?(옛날에는 무조건 팔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없었어요?)

107023 #1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서 뭐 허겟냐? 그거 일부러 힘들게 가져와 가지고 먹지도 안 흐고 자기네 하나, 두 개 먹을 거면은 헤서 주지마는 그건 돈이 안 뒈니까 잡지를 안 헷지.(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서 뭐 하겠냐? 그거 일부러 힘들게 가져와 가지고 먹지도 않고 자기네 하나, 두 개 먹을 거면 해서 주지마는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잡지를 않았지.)

107023 @ 보멀국[154]도?('보멀국'도?)

107023 #1 보멀국도 수두리보멀이라고 헤서 해녀들이 저 이제 금채 기간이 유월 달부터는 시월 달까지 사 개월 기간은 그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 헤. 그 저기 산란하는 기간이랏어.('보멀국'도 두드럭고둥이라고 해서 해녀들이 저 이제 금채 기간이 유월 달부터는 시월 달까지 사 개월 기간은 그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 해. 그 저기 산란하는 기간이었어.)

107023 @ 예.(예.)

107023 #1 그러면은 그 중간에 보멀들은 한 번이나 두 번 들어가서 해녀들 잡주게. 일 키로에 사천원, 오천원인가?(그러면 그 중간에 고둥들은 한 번이나 두 번 들어가서 해녀들 잡지. 일 킬로에 사천 원, 오천 원인가?)

107023 @ 보멀은 옛날에도 먹언마씨?(고둥은 옛날에도 먹었어요?)

107023 #1 아, 보멀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아, 고둥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107023 @ 예.(예.)

107023 #1 삼월 보롬 물지에 바다에 가서 그거를 잡아다가 이제 보멀을 보멀도 궤기라고 헷거든. 그게 옛날에 하도 먹을 게 엇이니깐.(삼월 보름 불때에 바다에 가서 그거를 잡아다가 이제 고둥을 고둥도 고기라고 했거든. 옛날에 그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깐.)

107023 @ 보멀도 궤기라고 헨마씨?(고둥도 고기라고 했어요?)

107023 #1 어. 궤기, 궤기는 돼지고기 무슨 소고기만 고기가 아니라.(어. 고기, 고기는 돼지고기 무슨 소고기만 고기가 아니야.)

---

154) '보멀국'은 '고둥으로 끓인 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23 @ 예.(예.)
107023 #1 보멀도 궤기라고 베지근혼[155] 맛이 잇거든. 이제 그걸 까 가지고는 간장에 말이지 쫌 졸엿다가 하나씩 밥에 먹을 때도 먹고 ᄒᆞ면은 반찬도 뒈고 말이여 그렇게 헷지.(고둥도 고기라고 '베지근혼' 맛이 있거든. 이제 그걸 까 가지고는 가장에 말이지 쫌 졸였다가 하나씩 밥에 먹을 때도 먹고 하면 반찬도 되고 말이야 그렇게 했지.)
107023 @ 아, 보멀은 궤기라고 허는 거는 처음 들어봔마씨.(아, 고둥은 고기라고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107023 #1 ᄋᆞ. 여기 사람들은 보멀도 궤기라고 헷지.(어. 여기 사람들은 고둥도 고기라고 했지.)
107001 @ 그 지금 말앙 옛날 밥 먹엇던 거 물어보젠 헴신디예. 그 밥 종류는 뭐, 뭐 잇주마씨? 밥 종류.(그 지금 말고 옛날 밥 먹었던 거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밥 조류는 뭐, 뭐 있지요? 밥 종류.)
107001 #2 밥 종류?(밥 종류?)
107001 @ 예.(예.)
107001 #2 보리밥게. 보리밥.(보리밥. 보리밥.)
107001 @ 예. 보리밥이영.(예. 보리밥과.)
107001 #2 뒈나마나 감제 썰어 놩 고구마 썰어 놩.(되나마나 고구마 썰어 놔서 고구마 썰어 놔서.)
107001 @ 예.(예.)
107001 #2 감제 썰어 놓곡. 좁쏠도 놓곡 보리쏠도 놓곡 헹 밥허영.(고구마 썰어 놓고. 좁쌀도 놓고 보리쌀도 놓고 해서 밥해서.)
107001 @ 아.(아.)
107001 #2 에이고 경 허멍 먹엉 살안. 우린.(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먹어서 살았어. 우린.)
107002 @ 그럼 밥헐 때 쌀 종류는 뭐, 뭐 잇언마씨? 쌀.(그럼 밥할 때 쌀 종류는 뭐, 뭐 있었어요? 쌀.)
107002 #2 쌀 종류 보리밧긔 더 셧어게. 보리쏠게.(쌀 종류 보리밖에 더 있어. 보리쌀.)
107002 @ 아, 보리쏠.(아, 보리쌀.)
107002 #2 보리쏠허곡 좁쏠 이녁 허영 지난게. 그냥. 돈은 날 디 엇이난 돈들은 어렵게 살고게. 우리 아부지는 바당 뎅기난 궤기 잡아왕 풀믄 돈은 뭣 헷주마는 막 어렵게들 살앗어 옛날은.(보리쌀하고 좁쌀 이녁 해서 지으니까. 그냥. 돈은 날 데 없으니까 돈들은 어렵게 살고. 우리 아버지는 바다 다니니까 고기 잡아와서 팔면 돈은 뭐 했지마는 아주 어렵게 살았어 옛날은.)
107003 @ 보리밥은 어떵 만들주마씨?(보리밥은 어떻게 만들지요?)
107003 #2 보리밥?(보리밥?)

155) '베지근ᄒᆞ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107003 @ 예.(예.)
107003 #2 그땐 ᄀᆞ레 ᄀᆞᆯ멍 먹어도 이젠 통보리밥으로 허영 아이고 픗이나 ᄒᆞ끔 사는 집은 픗이나 넣곡 솖앙 쏠 서끄곡 헹 밥허믄 맛이 좋아.(그땐 맷돌 갈면서 먹어도 이젠 통보리밥으로 해서 아이고 팥이나 조금 사는 집은 팥이나 넣고 삶아서 쌀 섞고 해서 밥 하면 맛이 좋아.)
107003 @ 예. 맛이 좋아마씨?(예. 맛이 좋아요?)
107003 #2 맛 좋아. 경 헹 먹으믄.(맛 좋아. 그렇게 해서 먹으면.)
107004 @ 그 반지기도 허잖아예?(그 반지기도 하잖아요?)
107004 #2 반지기 계메 그것이 반지기.(반지기 글쎄 그것이 반지기.)
107004 @ 그것이 반지기지예?(그것이 반지기지요?)
107004 #2 거 엿날에 반지기 헤 먹은 사람 멫 엇어.(거 옛날에 반지기 해 먹은 사람 몇 없어.)
107004 @ 아, 무사마씨?(아, 왜요?)
107004 #2 돈 어려우난게. 돈 어려우난 경 곤쏠 사 졋어게.(돈 어려우니까. 돈 어려우니까 그렇게 흰쌀 사 졌어.)
107004 @ 아, 기지예.(아, 그렇지요.)
107004 #2 이제 곤쏠 영 좋아도 엿날은 안량미쏠.(이제 흰쌀 이렇게 좋아도 옛날은 안량미쌀.)
107004 @ 안량미쌀?(안량미쌀.)
107004 #2 안량미쏠이옌 헌 거 소롬, 소롬헌 거 잇어난.(안량미쌀이라고 한 거 갸름, 갸름한 거 있었어.)
107004 @ 예.(예.)
107004 #2 소롬, 소롬헌 거. 그거 먹는 사롬도 어려완. 엿날은.(갸름, 갸름한 거. 그거 먹는 사람도 어려웠어. 옛날은.)
107004 @ 그럼 반지기는 뭐 곤쌀 좀 집어넣고.(그럼 반지기는 뭐 흰쌀 좀 집어넣고.)
107004 #2 응. 경 서끈 것이 반지기.(응. 그렇게 섞은 것이 반지기.)
107004 @ 기지예?(그렇지요?)
107004 #2 응. 곤쏠 서끄믄 그거 반지기라고 헌 거.(응. 흰쌀 섞으면 그거 반지기라고 한 거.)
107005 @ 곤밥은 그럼 엿날에 잘 못 먹엇지예? 식게 때 아니믄.(흰밥은 그럼 옛날에 잘 못 먹었지요? 제사 때 아니면.)
107005 #2 식게 때게. 식게 때 가믄 요만썩 줭 한 숟가락 먹으면 곤밥.(제사 때. 제사 때 가면 요만씩 줘서 한 숟가락 먹으면 흰밥.)
107005 @ 한 숟가락?(한 숟가락?)
107005 #2 곤밥.(흰밥.)
107006 @ 그럼 조밥, 조밥은 어떵 먹언마씨?(그럼 조밥, 조밥은 어떻게 먹었어요?)
107006 #2 조밥 감제 썰엉 놩 좁쏠만 넣엉 허는 거.(조밥 고구마 썰어서 놔서 좁쌀만

넣어서 하는 거.)
107006 @ 좁쏠만 넣엉 허는 거?(좁쌀만 넣어서 하는 거?)
107006 #2 어.(어.)
107006 @ 그건 어떵 만들어마씨?(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107006 #2 그거? 감저 놩 바글바글바글 솟디 놩 막 불 숨으멍. 옛날엔 불 숨앙 헷주게게.(그거? 고구마 놔서 바글바글바글 솥에 놔서 막 불 때면서. 옛날엔 불 때면서 했지.)
107006 @ 기지예?(그렇지요?)
107006 #2 바글바글바글 헤 가믄 그듸 좁쏠 놔.(바글바글바글 해 가면 거기 좁쌀 놔.)
107006 @ 예.(예.)
107006 #2 좁쏠 놩 고구마 익어가믄 젓어.(좁쌀 놔서 고구마 익어가면 저어.)
107006 @ 예.(예.)
107006 #2 젓엉 익으면 밥 다 뒈는 거.(저어서 익으면 밥 다 되는 거.)
107006 @ 음.(음.)
107006 #2 아이고 맛 좋아낫어. 흐린좁쏠 허영.(아이고 맛 좋았었어. 차좁쌀 해서.)
107006 @ 아, 흐린좁쏠?(아, 차좁쌀?)
107006 #2 어. 검은 흐린좁쏠 밥 맛 좋아.(어. 검은 차좁쌀 밥 맛 좋아.)
107006 @ 검은조랑 흐린조랑 뭐가 달라마씨?('검은조'와 차조와 뭐가 달라요?)
107006 #2 검은조는 검은 거고.('검은조'는 검은 거고.)
107006 @ 예.(예.)
107006 #2 흐린조는 저 노란 거.(차조는 저 노란 거.)
107006 @ 노란 거?(노란 거?)
107006 #2 노란 흐린조는 아주 보기도 좋아. 맛도 좋곡.(노란 차조는 아주 보기도 좋아. 맛도 좋고.)
107007 @ 픗밥도 먹엇수광?(팥밥도 먹었습니까?)
107007 #2 응?(응?)
107007 @ 픗밥.(팥밥.)
107007 #2 픗밥?(팥밥?)
107007 @ 예.(예.)
107007 #2 이 하르방이 픗밥 좋아헹 픗 죽자 우리 상 먹어난.(이 할아버지가 팥밥 좋아해서 팥 죽자 우리 사서 먹었었어.)
107007 @ 아, 기꽝? 픗밥은 어떵 만들어마씨?(아, 그렇습니까? 팥밥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07 #2 픗은 보리쏠이영 ᄀᆞ치 서껑 숢아.(팥은 보리쌀과 같이 섞어서 삶아.)
107007 @ 아, 그냥 ᄀᆞ치?(아, 그냥 같이?)
107007 #2 숢앙. 숢앙 어느 정도 익어가믄 쏠 씻어당 밥허면 뒈는 거.(삶아서. 삶아서 어느 정도 익어가면 쌀 씻어다가 밥하면 되는 거.)

107007 @ 그거는 그냥 막 아무 때나 먹어마씨?(그거는 그냥 막 아무 때나 먹어요?)
107007 #2 응. 아무 때나 그냥 우리 밥 먹듯이 그냥.(응. 아무 때나 그냥 우리 밥 먹듯이 그냥.)
107008 @ 지장밥도 먹엇수광? 지장밥?(기장밥도 먹었습니까? 기장밥.)
107008 #2 지장밥은 우린 안 먹어난. 지장은 이제사 난 거주. 엿날은 엇어낫어.(기장밥은 우린 안 먹었었어. 기장은 이제야 난 거지. 옛날은 없었었어.)
107008 @ 음.(음.)
107008 #2 지장은 이제사 난 거.(기장은 이제야 난 거.)
107008 @ 이제사 난 거.(이제야 난 거.)
107008 #2 응. 옛날은 지장 엇어난.(응. 옛날은 기장 없었었어.)
107009 @ 예. 그럼 감저밥도 먹엇수광? 감저밥?(예. 그럼 고구마밥도 먹었습니까? 고구마밥?)
107009 #2 감저밥은 벨로 감저 안 허난 엇어. 고구마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엿날은 고구마엔 안 헨 감저여만 헤낫주게. 이젠 감자, 고구마 이렇게 구별뒈주마는. 엿날은 감저 엇어난.(고구마밥은 별로 고구마 안 하니까 없어. 고구마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옛날은 고구마라고 안 했어 '감저'라고만 했었었지. 이젠 감자, 고구마 이렇게 구별되지마는. 옛날은 고구마 없었었어.)
107010 @ 그럼 밥헐 때 놈삐도 넣엉 먹어마씨?(그럼 밥할 때 무도 넣어서 먹어요?)
107010 #2 놈삐?(무?)
107010 @ 예.(예.)
107010 #2 아이고 놈삐 말 골아사. 이 우리 사는 동네서는 놈삐가 엇이난.(아이고 무 말 말해야. 이 우리 사는 동네에서는 무가 없었었어.)
107010 @ 아, 놈삐 엇언마씨?(아, 무 없었어요?)
107010 #2 응. 이제 저 어디냐면 봉성[156].(응. 이제 저 어디냐면 봉성.)
107010 @ 예.(예.)
107010 #2 봉성이 옛날 이름으로 도노미[157]라. 도노미.(봉성이 옛날 이름으로 '도노미'야. '도노미'.)
107010 @ 도노미?('도노미'?)
107010 #2 도노미.('도노미'?)
107010 @ 아.(아.)
107010 #2 봉성이 아니고 도노미.(봉성이 아니고 '도노미'.)
107010 @ 예.(예.)
107010 #2 돌 그자 그 찍으로 만든 가마니 그거 가졍 그듸 강 상 지엉 왓어.(돌 그저

156) '봉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를 의미한다.
157) 봉성리의 리명의 유래는 속칭으로 불리우는 '도노미'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다. 도노미라고 불리우는 지역 명칭이 최초는 어음비도내산리로 불렀던 것으로 생각되며 한자표기 기록은 고려 희종 7년(1211) 당시에 도내산리로 표기되었고 그 후 고려 공민왕 원년(1352)까지 140여 년간 봉수대 위치를 도내리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도노미를 한자로는 도내산리로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짚으로 만든 가마니 그거 가져서 거기 가서 사서 지어서 왔어.)
107010 @ 아.(아.)
107010 #2 경 허영 놈삐 썰어 넣곡 좁쏠 넣곡 밥허믄 맛이 좋아.(그렇게 해서 무 썰어 넣고 좁쌀 넣고 밥하면 맛이 좋아.)
107010 @ 음. 허긴 헷다예?(음. 하긴 했군요?)
107010 #2 응?(응?)
107010 @ 넣긴 헷다예?(넣긴 했군요?)
107010 #2 응, 응, 응. 밥헐 때 놔. ᄒᆞ끔 셍각헌 집 그것도. 놈삐에다가 저 뭐꼬 그 모멀쏠.(응, 응, 응. 밥할 때 놔. 조금 생각한 집 그것도. 무에다가 저 뭐고 그 메밀쌀.)
107010 @ 예.(예.)
107010 #2 그거 허믄 참 맛잇어. 그건 아주 궁합이 맞아.(그거 하면 참 맛있어. 그건 아주 궁합이 맞아.)
107010 @ 아, 궁합이 맞아마씨?(아, 궁합이 맞아요?)
107010 #2 어. 게고 저 뭐꼬 모멀칼국수 헐 때 무수 썰어 놩 허믄 맛잇어. 그추룩 허믄.(으. 그리고 저 뭐고 메밀칼국수 할 때 무 썰어 놔서 하면 맛있어. 그처럼 하면.)
107011 @ 그믄 톳밥도 먹언마씨?(그러면 톳밥도 먹었어요?)
107011 #2 우리 옛날에 막 공출 때.(우리 옛날에 막 공출 때.)
107011 @ 예. 공출 때.(예. 공출 때.)
107011 #2 왜정 때 막 공출 헹 우리 아부지가 그때 반장 아니 이장 허멍 막 몇 년 허영. 이 공출 허렌 허믄 도새기 공출 ᄃᆞᆨ 공출 멘네 공출 안 헌 것이 엇어난.(왜정 때 막 공출 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반장 아니 이장 하면서 막 몇 해서. 이 공출 하라고 하면 돼지 공출 닭 공출 목화 공출 안 한 것이 없었었어.)
107011 @ 공출 때 헐 때도 기억나마씨?(공출 때 할 때도 기억나요?)
107011 #2 응.(응.)
107011 @ 거 기억나는 거 좀 ᄀᆞᆯ아 줍서.(거 기억나는 거 좀 말해 주십시오.)
107011 #2 그때 허며는.(그때 하며는.)
107011 @ 예.(예.)
107011 #2 톳 허여당 놔뒁당.(톳 해다가 놔뒀다가.)
107011 @ 예.(예.)
107011 #2 밥에 서껑 헌 건 아주 양반.(밥에 섞어서 한 건 아주 양반.)
107011 @ 아주 양반.(아주 양반.)
107011 #2 아주 양반 이제 곤밥 허믄 더 맛이 좋아.(아주 양반 이제 흰밥 하면 더 맛이 좋아.)
107011 @ 아.(아.)
107011 #2 경 헷는디 엿날에 술 공장에 술 닦을 때 감쥣주시[158].(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술 공장에 술 닦을 때 '감쥣주시'.)

158) '감쥣주시'는 '감주의 찌꺼기'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11 @ 예.(예.)
107011 #2 감쥣주시.('감쥣주시')
107011 @ 예.(예.)
107011 #2 그것도 가져당 먹는 사람이 잇엇지. 또 저 아이고 거 무신거고. 것도 갖당 먹엇지. 쏠도 어디 곱치지 못 허연. 몬딱 왕 조사허연.(그것도 가져다가 먹는 사람이 있었지. 또 저 아이거 거 무엇인고. 것도 갖다가 먹었지. 쌀도 어디 숨기지 못 했어. 전부 와서 조사했어.)
107011 @ 아. 몬딱 조사혜?(아. 전부 조사해?)
107011 #2 몬딱 조사혜. 땅 팡 묻어 놔두믄 땅 파난 데 왕 조사헹 다 가져가 불곡.(전부 조사해. 땅 파서 묻어 놔두면 땅 팠던 데 와서 조사해서 다 가져가 버리고.)
107011 @ 아.(아.)
107011 #2 그렇게 심들게 살안. 우린 특히나 아부지가 책임자라 부난.(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우린 특히 아버지가 책임자라 버리니까.)
107011 @ 예.(예.)
107011 #2 특히나 더 ᄒᆞ끔이라도 요만히 잇이믄 다 갈랑 줘 불어. 게믄 우린 뭐 먹엉 살아게. 게난 우리도 옹포에 왕. 우리 한수리 친정이 한수리주게.(특히나 더 조금이라도 요만큼 있으면 다 갈라서 줘 버려. 그러면 우린 뭐 먹어서 살아. 그러니 우리도 옹포에 와서. 우리 한수리 친정이 한수리지.)
107011 @ 예.(예.)
107011 #2 게난 그 감쥣주시 사당.(그러니 그 '감쥣주시' 사다가.)
107011 @ 예.(예.)
107011 #2 이 난간에 널엉 ᄆᆞᆯ리는 체 헷어.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산다 허영. 겐디 톳밥은 아주 양반.(이 난간에 널어서 말리는 체 했어. 우리도 이렇게 먹고 산다 해서. 그런데 톳밥은 아주 양반.)
107011 @ 아, 톳밥은 아주 양반?(아, 톳밥은 아주 양반?)
107011 #2 응. 아주 양반. 우리 먹어난.(응. 아주 양반. 우리 먹었었어.)
107011 @ 음.(음.)
107011 #2 톳밥. 게고 엿날은 밧에 물릇이옌 헌 거 잇어낫어.(톳밥. 그리고 옛날은 밭에 무릇이라고 한 거 있었었어.)
107011 @ 뭐마씨?(뭐요?)
107011 #2 물릇, 물릇.(무릇, 무릇.)
107011 @ 물릇?(무릇?)
107011 #2 물릇이옌 헌 것이 잇인디. 알멩이는 요만썩 들어가 우이 영 검질 허여튼 나.(무릇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알맹이는 요만씩 들어가 위에 이렇게 김 하여튼 나.)
107011 @ 예.(예.)
107011 #2 그거 캐어당.(그거 캐어다가.)
107011 @ 아, 것도 먹을 수 잇어마씨?(아, 것도 먹을 수 있어요?)

107011 #2 그거 허영 우리 딸령 먹어낫어.(그거 해서 우리 달여서 먹었었어.)
107011 @ 아.(아.)
107011 #2 저 바다에 강 저 넘패 헤당.(저 바다에 가서 저 넓패 해다가.)
107011 @ 예.(예.)
107011 #2 거기서 ᄀᆞ치 딸령 먹어낫어. 잘 허믄 목 안 아프곡 잘 아니 허믄 목 아프곡 경 헨게.(거기서 같이 달여서 먹었었어. 잘 하면 목 안 아프고 잘 안 하면 목 아프고 그렇게 했어.)
107011 @ 아.(아.)
107011 #2 우리 공출 때 그추룩 고생허멍 살앗어.(우리 공출 때 그처럼 고생하면서 살았어.)
107011 @ 기구나예.(그렇군요.)
107011 #2 아이고.(아이고.)
107011 @ 공출허는 사람이 다 일본놈이우꽝? 아니믄?(공출하는 사람이 다 일본놈입니까? 아니면?)
107011 #2 아이고 너무 너무 공출이 심헤난. ᄉᆞ뭇 통지에 강 몬 조사허곡.(아이고 너무 너무 공출이 심했었어. 사뭇 돼지우리에 가서 전부 조사하고.)
107011 @ 통지에 강?(돼지우리에 가서?)
107011 #2 통지에 강 뭐 쌀 팡 묻엇이카 부덴 몬 조사허곡.(돼지우리에 가서 뭐 쌀 파서 묻었을까 봐 전부 조사하고.)
107011 @ 아.(아.)
107011 #2 게난 우리도 돼지 소곱에 묻젠 허난 돼지 주둥이로 몬 파 부난 못 묻어낫어.(그러니 우리도 돼지 속에 묻으려고 하니까 돼지 주둥이로 전부 파 버리니까 못 묻었었어.)
107011 @ 아, 못 묻어난마씨?(아, 못 묻었었어요?)
107011 #2 응. 도새기 몬딱 그 갈안.(응. 돼지 전부 그 갈았어.)
107011 @ 음.(음.)
107011 #2 또 우영팟에 헤나난 우영팟 조사 안 허믄 알아지나?(또 텃밭에 했었으니까 텃밭 조사 안 하면 알아지나?)
107011 @ 예. 알아지주마씨.(예. 알아지지요.)
107011 #2 아이고 마루에 몬 쏠 곱져놓곡 나도 얼메나 어린 때 헌 건디.(아이고 마루에 전부 쌀 숨겨놓고 나도 얼마나 어린 때 한 건데.)
107011 @ 아이고 힘들엇다예?(아이고 힘들었군요?)
107011 #2 막 힘들언.(아주 힘들었어.)
107011 @ 예.(예.)
107011 #2 게난 우린 쏠도 엇어. 책임자네 집이난 막 왕 조사헹 몬딱 엇인 사롬들 주렌. 경 헤난. 우리 어린 때라도 그건 알아져.(그러니까 우린 쌀도 없어. 책임자네 집이니까 막 와서 조사해서 전부 없는 사람들 주라고. 그렇게 했었어. 우리 어린 때라도 그건

알아져.)
107011 @ 그건 알아지는구나예?(그건 알아지는군요?)
107011 #2 응.(응.)
107012 @ 패밥도 패밥도 드셔보션마씨? 패밥?(패밥도 패밥도 드셔보셨어요? 패밥?)
107012 #2 패밥은 못 먹어.(패밥은 못 먹어.)
107012 @ 못 먹어?(못 먹어?)
107012 #2 어. 못 먹어. 톳은 놓은 거 먹어져. 톳은 흐린좁쏠에 놩 밥 허믄 맛 좋안게 건.(어. 못 먹어. 톳은 놓은 거 먹어져. 톳은 차조에 놔서 밥 하면 맛 좋았어 건.)
107012 @ 흐린좁쏠에?(차조에?)
107012 #2 어. 어. 경 허곡. 이 산에 가믄 오깨기이옌 것이 셔.(어. 어. 그렇게 하고. 이 산에 가면 얼치기완두라는 것이 있어.)
107012 @ 오깨기마씨?(얼치기완두요?)
107012 #2 오깨기옌 검질.(얼치기완두라고 김.)
107012 @ 검질?(김?)
107012 #2 응. 검질인디 굵은 오깨기 싯곡 좀진 오깨기는 아니 먹는 거. 굵은 건 나물 헹 먹주.(응. 김인데 굵은 얼치기완두 있고 자잘한 얼치기완두는 안 먹는 거. 굵은 건 나물 해서 먹지.)
107012 @ 아, 굵은 건 먹을 수 잇어마씨?(아, 굵은 건 먹을 수 있어요?)
107012 #2 응. 굵은 건. 그 연헌 걸로 튿아당 허난 건 맛 좋안게.(응. 굵은 건. 그 연한 걸로 뜯어다가 하니까 건 맛 좋았어.)
107012 @ 아, 그건 맛 좋안마씨?(아, 그건 맛 좋았어요?)
107012 #2 어. 거 우리 아니 헤 먹은 거 엇어. 그 개자리옌 헌 풀 잇엇다고 헷잖아 아까?(어. 거 우리 안 해 먹은 거 없어. 그 개자리라고 한 풀 있었다고 했잖아 아까?)
107012 @ 예. 예. 아까.(예. 예. 아까.)
107012 #2 개자리.(개자리.)
107012 @ 예.(예.)
107012 #2 그것도 연헌 거 헤당 헤 봐 나물 헤 봐. 아주 맛잇어.(그것도 연한 거 해다가 해 봐 나물 해 봐. 아주 맛있어.)
107012 @ 음.(음.)
107012 #2 응.(응.)
107013 @ 그 밥 말앙 국. 국. 국은 어떤 종류 잇주마씨?(그 밥 말고 국. 국. 국은 어떤 종류 있지요?)
107013 #2 아이고 국은 뒌장국에 ᄂᆞ물 놩 뒌장국 그거주게.(아이고 국은 된장국에 나물 놔서 된장국 그거지.)
107014 @ ᄂᆞ물국은 어떵 만들주마씨?(나물국은 어떻게 만들지요?)
107014 #2 ᄂᆞ물국?(나물국?)
107014 @ 예.(예.)

107014 #2 멸치 다시 멸치 허여 놩.(멸치 다시 멸치 해 놔서.)
107014 @ 예.(예.)
107014 #2 멸치 놩 막 끓여.(멸치 놔서 막 끓여.)
107014 @ 예.(예.)
107014 #2 끓이믄 건지는 사름도 싯곡 그냥 그거 먹는 사람도 잇어.(끓이면 건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거 먹는 사람도 있어.)
107014 @ 예.(예.)
107014 #2 게믄 그것덜에 ᄂᆞ물 무신 돔베에서 썰엇어게. 북북 무지령 놔. 씻어당.(그러면 그것들에 나물 무슨 도마에서 썰었어. 북북 무지러 놔. 씻어다가.)
107014 @ 어떵마씨?(어떻게요?)
107014 #2 북북 무지려. ᄂᆞ물 무지려. 뒌장 풀어 놓은 것에 국 끓영.(북북 무지러. 나물 무지러. 된장 풀어 놓은 것에 국 끓여서.)
107014 @ 예.(예.)
107014 #2 무사 경 맛이 좋고. 경 헹 먹어낫어. 우린.(왜 그렇게 맛이 좋고.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 우린.)
107015 @ 콩나물국도 헤 드셧지예?(콩나물국도 해 드셨지요?)
107015 #2 콩나물국도 헹 먹어낫주마는 옛날에 그것도 돈 줘사 사난.(콩나물국도 해서 먹었었지마는 옛날에 그것도 돈 줘야 샀었어.)
107015 @ 아.(아.)
107015 #2 콩나물국도 먹는 집 별로 엇어.(콩나물국도 먹는 집 별로 없어.)
107015 @ 아, 별로 엇어?(아, 별로 없어?)
107015 #2 그저 우영에 놈삐 ᄂᆞ물 갈앙 그자 그거. 그거 먹는 거.(그저 텃밭에 무 나물 갈아서 그저 그거. 그거 먹는 거.)
107016 @ 놈삐국을 많이 헤 먹엇지예?(뭇국을 많이 해 먹었지요?)
107016 #2 어. 놈삐국 많이 먹어.(어. 뭇국 많이 먹어.)
107017 @ 콩국은 드션마씨? 콩국?(콩국은 드셨어요? 콩국?)
107017 #2 콩국은게 콩 사당 ᄀᆞᆯ앙 콩국 끓영 먹언게.(콩국은 콩 사다가 갈아서 콩국 끓여서 먹었어.)
107017 @ 아, 것도 사당 헤야 뒈지예?(아, 것도 사다가 해야 되지요?)
107017 #2 사당. 콩 옛날에 잘 아니 갈안게. 이제들은 영 갈아도.(사다가. 콩 옛날에 잘 안 갈았어. 이제는 이렇게 갈아도.)
107018 @ 호박잎국도 헹 먹언마씨?(호박잎국도 해서 먹었어요?)
107018 #2 응. 호박잎도게.(응. 호박잎도.)
107018 @ 거는 어떵?(거는 어떻게?)
107018 #2 호박잎국도 콕콕 씻엉 벅벅 찢엉 놔.(호박잎국도 콕콕 씻어서 벅벅 찢어서 놔.)
107018 @ 예.(예.)

107018 #2 그 놩 거 허는 식도 여러 가지 션게.(그 놔서 하는 식도 여러 가지 있어.)
107018 @ 예.(예.)
107018 #2 막 풀 빻당 허는 사람도 싯고 벅벅 찢엉 놩. 다시 영 놩. 부글부글 끓엉 가믄 밀가루 풀어.(막 풀 빻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벅벅 찢어서 놔서. 다시 이렇게 놔서. 부글부글 끓어서 가면 밀가루 풀어.)
107018 @ 밀가루 풀어마씨?(밀가루 풀어요?)
107018 #2 어. 수제비추룩 보글보글허게. 것도 맛잇엇요.(어. 수제비처럼 보글보글하게. 것도 맛있어요.)
107018 @ 아, 맛잇어마씨?(아, 맛있어요?)
107018 #2 건 이제도 헹 먹는 거주게게. 건.(건 이제도 해서 먹는 거지. 건.)
107018 @ 예. 이제도 헹 먹는 거지예.(예. 이제도 해서 먹는 거지요.)
107018 #2 응. 이제도 먹는 거.(응. 이제도 먹는 거.)
107019 @ 그럼 몸쿡도 좀 먹잖아예?(그럼 모자반국도 좀 먹잖아요?)
107019 #2 어. 게. 몸쿡도 먹지.(어. 그럼. 모자반국도 먹지.)
107019 @ 그건 언제 먹는 거마씨? 보통?(그건 언제 먹는 거예요? 보통?)
107019 #2 그건 이녁 먹고 싶은양게. 여름철은 아니고.(그건 이녁 먹고 싶을 때. 여름철은 아니고.)
107019 @ 여름철은 아니고. 무사마씨?(여름철은 아니고. 왜요?)
107019 #2 더와 놓으난게. 으름이난. 나 아까 주켄 헌 톳. 으름에는 거 좋주게 톳냉국.(더워 놓으니까. 여름이니까. 나 아까 주겠다고 한 톳. 여름에는 거 좋지 톳냉국.)
107019 @ 톳냉국?(톳냉국?)
107019 #2 어. 톳냉국 얼마나 좋아. 오이 썰어 넣곡.(어. 톳냉국 얼마나 좋아. 오이 썰어 넣고.)
107019 @ 그럼 냉국은 종류가 뭐, 뭐 잇주마씨?(그럼 냉국은 종류가 뭐, 뭐 있지요?)
107019 #2 냉국은?(냉국은?)
107019 @ 예. 톳냉국도 잇고 다른 건?(예. 톳냉국도 있고 다른 건?)
107019 #2 톳냉국도 잇지.(톳냉국도 있지.)
107019 @ 예.(예.)
107019 #2 오이냉국도 잇지. 미역냉국도 잇지. 미역도 냉국 허믄 맛잇어.(오이냉국도 있지. 미역냉국도 있지. 미역도 냉국 하면 맛있어.)
107019 @ 예. 기지예?(예. 그렇지요?)
107019 #2 응. 그추룩 허멍 먹주게. 저 몸쿡은 ᄒᆞ끔 추운 때게. 겨울에.(응. 그처럼 하면서 먹지. 저 모자반국은 조금 추운 때. 겨울에.)
107019 @ 추울 때. 겨울에.(추울 때. 겨울에.)
107019 #2 뼈 사다그넹이.(뼈 사서.)
107019 @ 예. 아니면 누구 돌아가셧을 때 몸쿡 헹 주지 않안마씨?(예. 아니면 누구 돌아가셨을 때 모자반국 해서 주지 않았어요?)

107019 #2 응.(응.)
107019 @ 경도 허지예?(그렇게도 하지요?)
107019 #2 응. 경도 허여.(응. 그렇게도 해.)
107021 @ 그럼 미역국 ᄀᆞ튼 것도 자주 헹 먹고마씨?(그럼 미역국 같은 것도 자주 해서 먹고요?)
107021 #2 겐디이 잔치 때는 미역국 안 헤 잘.(그런데 잔치 때는 미역국 안 해 잘.)
107021 @ 아, 잔치 때는 안 허고? 잔치 때는 보통 뭐?(아, 잔치 때는 안 하고? 잔치 때는 보통 뭐?)
107021 #2 저 새시방, 새시방 새각시만 주는 거. 뚠 국 줜. 그냥 먹는 사람은 미역국도 허여.(저 새서방, 새서방 새색시 주는 거. 딴 국 줬어. 그냥 먹는 사람은 미역국도 해.)
107021 @ 새시방, 새각시는.(새서방, 새색시는.)
107021 #2 어. 그건 아니 줘. 미역국은 안 줘. 경 헌디 야의네 이모는 이제 부산서 선생 허는디.(어. 그건 안 줘. 미역국은 안 줘. 그렇게 한데 이 아이네 이모는 이제 부산에서 선생 하는데.)
107021 @ 예.(예.)
107021 #2 어머니 ᄆᆞᆷ 상 끓이주 ᄆᆞᆷ. ᄆᆞᆷ 이제 엇다. 나 ᄆᆞᆷ국 좋아허는디. 나 겨울 나믄 헤주마.(어머니 모자반 사서 끓이지 모자반. 모자반 이제 없다. 나 모자반국 좋아하는데. 나 겨울나면 해주마.)
107021 @ 겨울에는 좀 헤 먹고?(겨울에는 좀 해 먹고?)
107021 #2 어. 겐디 다 양식헌 ᄆᆞᆷ.(어. 그런데 다 양식한 모자반.)
107021 @ 요즘 그지예?(요즘 그렇지요?)
107021 #2 응. 다 양식헌 것들.(응. 다 양식한 것들.)
107021 @ 옛날에는 거 양식 엇엇잖아예? ᄆᆞᆷ?(옛날에는 거 양식 없었잖아요? 모자반?)
107021 #2 어. 양식 엇엇주게. 자연산. 고산[159] 자연산 셔. 고산.(어. 양식 없었지. 자연산. 고산 자연산 있어. 고산.)
107021 @ 고산?(고산?)
107021 #2 응. 고산.(응. 고산.)
107021 @ 그건 좀 비싸겟다예?(그건 좀 비싸겠군요?)
107021 #2 고산이 OO이라고 어촌 가의가 반장허는 아인디. 물질 잘 허여.(고산에 OO이라고 어촌 그 아이가 반장하는 아이인데. 물질 잘 해.)
107021 @ 아.(아.)
107021 #2 가의가 거 헤당 풀아낫주게.(그 아이가 거 해다가 팔았었지.)

죽류

159) '고산'은 제주특별자지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의미한다.

107024 @ 이제 죽을 좀 물어볼게예. 옛날엔 밥 대신 죽 많이 먹엇잖아예?(이제 죽을 좀 물어볼게요. 옛날엔 밥 대신 죽 많이 먹었잖아요?)
107024 #1 아, 주로 말이여. 저 그 저기 콩죽도 쒀 먹고 말이지 뭐 팟죽, 녹디죽 이런 말이여 죽은 서민들도 먹엇지.(아, 주로 말이야. 저 그 저기 콩죽도 쒀 먹고 말이지 뭐 팥죽, 녹두죽 이런 말이야 죽은 서민들도 먹었지.)
107025 @ 곤죽은?(흰죽은?)
107025 #1 곤죽은 쌀만 넣어그넹 쑨 것이 곤죽.(흰죽은 쌀만 넣어서 쑨 것이 흰죽.)
107025 @ 예.(예.)
107025 #1 또 조죽이라고 헤 가지고 좁쌀만 넣어서 쑨 죽이 조죽. 또 녹두죽은 녹두허고 조가 들어가야 헤.(또 조죽이라고 해 가지고 좁쌀만 넣어서 쑨 죽이 조죽. 또 녹두죽은 녹두하고 조가 들어가야 해.)
107025 @ 아, 녹두죽은 녹두랑 조가 들어가야 돼마씨?(아, 녹두죽은 녹두랑 조가 들어가야 돼요?)
107025 #1 ᄋᆞ. 조가 들어가면 녹두죽. 팟죽은 팟만 놔도 그건 곤쌀 조금 놔도 뒈 가지고.(어. 조가 들어가면 녹두죽. 팥죽은 팥만 놔도 그건 흰쌀 조금 놔도 되 가지고.)
107025 @ 예.(예.)
107025 #1 그 팟죽도 말이여 주로 동지팟죽에 그 밀가루로 말이여 저 그 수제비 쪼금 만들어서 놔 가지고 말이지.(그 팥죽도 말이야 주로 동지팥죽 그 밀가루로 말이야 저 그 수제비 쪼금 만들어서 놔 가지고 말이지.)
107025 @ 예.(예.)
107025 #1 그걸 먹으면 그 뭐 여러 가지 방지뒈고 말이여 뭐 혼다고 헷어. 동지팟죽은 꼭 쒀 먹엇거든 옛날엔.(그걸 먹으면 그 뭐 여러 가지 방지되고 말이야 뭐 한다고 했어. 동지팥죽은 꼭 쒀 먹었거든 옛날엔.)
107025 @ 그럼 그 곤죽은 주로 언제 드션마씨?(그럼 그 흰죽은 주로 언제 드셨어요?)
107025 #1 뭐 곤죽은 배 아플 때.(뭐 흰죽은 배 아플 때.)
107025 @ 배 아플 때, 몸 아플 때?(배 아플 때, 몸 아플 때?)
107025 #1 ᄋᆞ. 몸 아프면 곤죽 쒀 나면은 물 많이 놔 가지고 죽을 못 먹으면 물만 먹엇어 환자들은.(어. 몸 아프면 흰죽 쒀 나면 물 많이 놔 가지고 죽을 못 먹으면 물만 먹었어 환자들은.)
107025 @ 아, 물만마씨?(아, 물만요?)
107025 #1 ᄋᆞ. 거 물 하영 놔그넹 쭉 달리면.(어. 거 물 많이 놔서 쭉 달이면.)
107025 @ 예.(예.)
107025 #1 그 곤죽에 나온 물이 뿌옇게 헤 가지고 쌀든물 ᄀᆞ치 헤 가지고 그거를 말이여 몇 번 먹으면 배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래.(그 흰죽에 나온 물이 뿌옇게 해 가지고 쌀드물 같이 해 가지고 그거를 말이야 몇 번 먹으면 배 아픈 것도 나 낫고 그래.)

107025 @ 옛날엔 쌀이 귀헤 부난 곤죽도 잘 안 헤 먹엇겟다예?(옛날에는 쌀이 귀해 버리니까 흰죽도 잘 안 해 먹었겠군요?)
107025 #1 그러니까 아픈 사람 환자용이지 환자용.(그러니까 아픈 사람 환자용이지 환자용.)
107026 @ 그럼 조죽은 팟죽은 동지팟죽 때 주로 드셧는데?(그럼 조죽은 팥죽은 동지팥죽 때 주로 드셨는데?)
107026 #1 ᄋᆞ. 동지팟죽은 꼭 말이여 웬만헤서 말이여 어려운 집안도 동지팟죽은 꼭 쑤어 먹엇어.(어. 동지팥죽은 꼭 말이야 웬만해서 말이야 어려운 집안도 동지팥죽은 꼭 쑤어 먹었어.)
107026 @ 아, 꼭 쑤어 먹언마씨?(아, 꼭 쑤어 먹었어요?)
107026 #1 ᄋᆞ.(어.)
107026 @ 음 조죽은 자주 먹엇겟다예?(음 조죽은 자주 먹었겠군요?)
107026 #1 ᄋᆞ. 조죽은 뭐 쑤어 먹으면 끈기가 좀 오래가고 말이여. 녹두 좀 넣고 쑤어 먹으면 참 맛잇어.(어. 조죽은 뭐 쑤어 먹으면 끈기가 좀 오래가고 말이야. 녹두 좀 넣고 쑤어 먹으면 참 맛있어.)
107028 @ 그면 콩죽도 드션마씨?(그러면 콩죽도 드셨어요?)
107028 #1 콩죽 맛좋아. 아이 콩죽 ᄀᆞ치 그거 콩은 밧에서 나는 소고기야. 그거 글자 그대로 콩에는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콩도 맛있어. 아이 콩죽 같이 그거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야. 그거 글자 그대로 콩에는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107028 @ 예.(예.)
107028 #1 콩 헤서 수확헤서 뭰장 멘들다가 나머지 쪼금 한 뒈나 두 뒈나 남으면 말려 가지고 방앗간에 가 가지고 가루로 갈아다가 그 죽 쒀그넹 그것도 모인좁쏠이라고 헤 가지고 모인조.(콩 해서 수확해서 된장 만들다가 나머지 쪼금 한 되나 두 되나 남으면 말려 가지고 방앗간에 가 가지고 가루러 갈아다가 그 죽 쒀서 그것도 메조라고 해 가지고 메조.)
107028 @ 예.(예.)
107028 #1 조도 그 모인조, 흐린조 두 가지 잇어.(조도 그 메조, 차조 두 가지가 있어.)
107028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7028 #1 ᄋᆞ. 게. 모인조 놔그넹 말이여 같이 말이여 콩죽에 놔그넹 쒀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 좋아.(어. 그럼. 메조 놔서 말이야 같이 말이야 콩죽에 놔서 쒀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107028 @ 모인조랑 무슨 조마씨?(메조랑 무슨 조요?)
107028 #1 모인조ᄒᆞ고 흐린조.(메조하고 차조.)
107028 @ 흐린조.(차조.)
107028 #1 거 찰조라고 허주. 이제 거 많이 끈기가 딱딱 붙어 가지고 밥 한 숟가락

떠도 말이여 잘 짤라지지 않주게.(거 차조라고 하지. 이제 거 많이 끈기가 딱딱 붙어 가지고 밥 한 숟가락 떠도 말이야 잘 잘리지 않지.)
107028 @ 아, 찰조가 모인조?(아, 차조가 '모인조'?)
107028 #1 아니. 아니. 찰조는 흐린조. 모인조는 호꼼 말이지 그 사락사락 흐린조만이 당췌 안 ᄒᆞ여.(아니. 아니. 차조는 '흐린조'. '모인조'는 조금 말이지 그 사락사락 차조만 당최 안 해.)
107028 @ 그럼 콩국은 주로 겨울에 드셧다고 헷잖아예?(그럼 콩국은 주로 겨울에 드셨다고 했잖아요?)
107028 #1 ᄋᆞ. 겨울에.(어. 겨울에.)
107028 @ 그럼 콩죽도 겨울에 드션마씨?(그럼 콩죽도 겨울에 드셨어요?)
107028 #1 콩죽?(콩죽?)
107028 @ 예.(예.)
107028 #1 콩죽도 주로 겨울에 쒀 먹어.(콩죽도 주로 겨울에 쒀 먹어.)
107028 @ 그럼 콩으로 뭰 거는 주로 겨울에 드셧다예?(그럼 콩으로 된 거는 주로 겨울에 드셨군요?)
107028 #1 ᄋᆞ. 주로 콩 뭐 이런 거 팟도 동지에 쒀 먹고 말이지.(어. 주로 콩 뭐 이런 거 팥도 동지에 쒀 먹고 말이지.)
107029 @ 그럼 모멀죽은 언제 먹주마씨?(그럼 메밀죽은 언제 먹지요?)
107028 #1 모멀?(메밀?)
107029 @ 예. 모멀죽.(예. 메밀죽.)
107028 #1 모멀 ᄀᆞ튼 거는 모멀 끗나그넹 말이여 거 주로 모멀죽은 잘 모멀범벅인가 만들어서 먹엇다고 ᄒᆞ고 죽은 별로 엇고. 모멀범벅이라고 헤서.(메밀 같은 거는 메밀 끝나서 말이야 거 주로 메밀죽은 잘 메밀범벅인가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고 죽은 별로 없고. 메밀범벅이라고 해서.)
107031 @ 어르신 닭죽 잇잖아예. 그 닭죽은 요즘엔 많이 먹는데 옛날엔 어떵 헨마씨?(어르신 닭죽 있잖아요. 그 닭죽은 요즘에는 많이 먹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07031 #1 닭죽은 옛날에도 말이지 그 저기 저 몸이 허약헌 사람에.(닭죽은 옛날에도 말이지 그 저기 저 몸이 허약한 사람에.)
107031 @ 예.(예.)
107031 #1 그 닭 소곱에다 인삼 몇 뿌리 넣고 말이지 마늘 뭐 생강 이런 거 닭 소곱 넣어 가지고 닭죽을 쒀 가지고 산모라든가 뭐 아니면 아니 산모는 아니고 그 병원에 갓다 와 가지고 원기훼복 헐려면 닭죽을 쒀 가지고 원기훼복제로 이제 그 많이 사용헷어.(그 닭 속에다 인삼 몇 뿌리 넣고 말이지 마늘 뭐 생강 이런 거 닭 속에 넣어 가지고 닭죽을 쒀 가지고 산모라든가 뭐 아니면 아니 산모는 아니고 그 병원에 갔다 와 가지고 원기회복 하려면 닭죽을 쒀 가지고 원기회복제로 이제 그 많이 사용했어.)
107031 @ 원기훼복으로? 아플 때는 곤죽이나 닭죽 먹엇겟다예?(원기회복으로? 아플 때는 흰죽이나 닭죽 먹었겠군요?)

107031 #1 ᄋᆞ. 그런 거 쒀 주면은 그 영양분이 말이여 흡수뒈 가지고 몸이 훼복이 빠르고 이렇게.(어. 그런 거 쒀 주면 그 영양분이 말이야 흡수되 가지고 몸이 회복이 빠르고 이렇게.)

107032 @ 그럼 깅이죽은 안 드션마씨?(그럼 게죽은 안 드셨어요?)

107032 #1 깅이죽도 잇어. 깅이죽도 맛 좋아. 거 깅이죽은 깅이를 가져와 가지고.(게죽도 있어. 게죽도 맛있어. 거 게죽은 게를 가져와 가지고.)

107032 @ 예.(예.)

107032 #1 그 단물에 놓으면은.(그 단물에 놓으면.)

107032 @ 예.(예.)

107032 #1 깅이가 오줌을 싼다고 ᄒᆞ여.(게가 오줌을 싼다고 해.)

107032 @ 아, 단물에 놓으면은?(아, 단물에 놓으면?)

107032 #1 ᄋᆞ. 바닷물에 잇던 모든 거를 건줌 다 토헤 내.(어. 바닷물에 있던 모든 거를 거의 다 토해 내.)

107032 @ 예.(예.)

107032 #1 예를 들어서 불순물 ᄀᆞ튼 거 다 토헤 내면은 이제 깅이가 단물에 넣으면은 죽어. 죽으면은 그걸 이제 살살살 씻어 가지고 요만한 도구리에 넣어서 빻아 가지고 경 헤 가지고 뭐 쌀 놔 가지고 막 끓일 때 그거 깅이 넣어 가지고 ᄀᆞ치 쑤면 깅이죽이라. 그게 관절염 ᄀᆞ튼 데 아주 좋아.(예를 들어서 불순물 같은 거 다 토해 내면 이제 게가 단물에 넣으면 죽어. 죽으면 그걸 이제 살살살 씻어 가지고 요만한 함지박에 넣어서 빻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쌀 놔 가지고 막 끓을 때 그거 게 넣어 가지고 같이 쑤면 게죽이야. 그게 관절염 같은 데 아주 좋아.)

10703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32 #1 깅이가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뭐라서.(게가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뭐라서.)

107032 @ 예.(예.)

107032 #1 이런 뼈. 뼈와 뼈끼리 관절들이 말이여 아주 말이여 활발헌 활동을 허는 거라서 이 관절염에는 깅이가 특효야.(이런 뼈. 뼈와 뼈끼리 관절들이 말이야 아주 말이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거라서 이 관절염에는 게가 특효야.)

107032 @ 그믄 어 깅이는 옛날에도 많이 잡혓인가마씨?(그러면 어 게는 옛날에도 많이 잡혔었나요?)

107032 #1 옛날도 깅이는 많앗지. 깅이도 종류가 많아.(옛날에도 게는 많았지. 게도 종류가 많아.)

107032 @ 깅이는?(게는?)

107032 #1 춤깅이 무슨 뭐 픗깅이[160], 똥깅이[161] 뭐 무신 돌킹이[162] 뭐 무슨 뭐 여

160) '픗깅이'는 '아주 작은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픗겡이, 픗긍이'라고도 한다.
161) '똥깅이'는 '먹을 수 없는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똥겡이'라고도 한다.
162) '돌킹이'는 '등과 배의 딱지가 매우 딴딴한 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돌겡이, 돌켕이'라고도 한다.

러 가지 종류가 많아.(참게 무슨 뭐 '풋깅이', '똥깅이' 뭐 무슨 부채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107032 @ 주로 잡히는 건 어떤 깅이?(주로 잡히는 건 어떤 게?)
107032 #1 주로 춤깅이들을 많이 잡아당 먹지.(주로 참게들을 많이 잡아다가 먹지.)
107032 @ 아, 먹는 거로는?(아, 먹는 거로는?)
107032 #1 응. 춤깅이가 맛도 잇곡 작지마는 말이야 아주 말이여 빨라.(어. 참게가 맛도 있고 작지마는 말이야 아주 말이야 빨라.)
107033 @ 그럼 꿩죽은 안 드션마씨?(그럼 꿩죽은 안 드셨어요?)
107033 #1 꿩죽은 주로 꿩죽은 안 ᄒᆞ고 꿩엿으로 헤 먹엇지.(꿩죽은 주로 꿩죽은 안 하고 꿩엿으로 해 먹었지.)
107033 @ 아, 꿩은 엿으로 헤 먹언마씨?(아, 꿩은 엿으로 해 먹었어요?)
107033 #1 응. 꿩은 엿으로 꿩엿이라고 헷어. 지금도 말이여 제주 지방에서 말이지 뭐 전문으로 ᄒᆞ는 데가 잇어.(어. 꿩은 엿으로 꿩엿이라고 했어. 지금도 말이야 제주 지방에서 말이지 뭐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
107033 @ 전문으로?(전문으로?)
107033 #1 응. 지금도 요만한 통에 만 오천 원, 이만 원 ᄒᆞ고.(어. 지금도 요만한 통에 만 오천 원, 이만 원 하고.)
107033 @ 예.(예.)
107033 #1 꿩은 이제는 잡지 못허니까 저 사육헤 가지고 양식으로 구물 쳐 가지고 길러 가지고 말이지. 꿩 ᄒᆞ는데 꿩죽 멘드는 데서 대량으로 사다가 말이지 꿩죽 만들 때 그거 상 만들엉 먹으면 겨울에 보신도 뒈고 말이지 떡에 찍엉 먹고 말이여. 옛날에도 꿩엿은 말이여 알아줘. 꿩이 엇을 때는 닭. 닭 놓앙 엿을 ᄒᆞ고 닭이 엇일 때는 돼지고기 다리 한 다리 놔그넹 거 제일 좋은 거는 지달이엿.(꿩은 이제는 잡지 못하니까 저 사육해 가지고 양식으로 그물 쳐 가지고 길러 가지고 말이지. 꿩 하는데 꿩죽 만드는 데서 대량으로 사다가 말이지 꿩죽 만들 때 그거 사서 만들어서 먹으면 겨울에 보신도 되고 말이지 떡에 찍어서 먹고 말이야. 옛날에도 꿩엿은 말이야 알아줘. 꿩이 없을 때는 닭. 닭 놓아서 엿을 하고 닭이 없을 때는 돼지고기 다리 한 다리 놔서 거 제일 좋은 거는 오소리엿.)
107033 @ 지달이엿?(오소리엿?)
107033 #1 지달이.(오소리.)
107033 @ 지달이가 뭐꽝?(오소리가 뭐입니까?)
107033 #1 지달이 여우새끼 닮은 거 요만헌 저 그 지달이라고 잇어.(오소리 여우새끼 닮은 거 요만한 저 그 오소리라고 있어.)
107024 @ 그 죽도 잇잖아예? 죽은 옛날에 무슨 죽 먹엇주마씨?(그 죽도 있잖아요? 죽은 옛날에 무슨 죽 먹었지요?)
107024 #2 죽?(죽?)
107024 @ 예.(예.)

107024 #2 콩죽.(콩죽.)
107024 @ 콩죽.(콩죽.)
107024 #2 풋죽.(팥죽.)
107024 @ 풋죽.(팥죽.)
107024 #2 그자 그거.(그저 그거.)
107025 @ 곤죽은?(흰죽은?)
107025 #2 곤죽은게 심심허난게 잘 아니 먹언.(흰죽은 심심하니까 잘 안 먹었어.)
107025 @ 잘 아니 먹어.(잘 안 먹어.)
107025 #2 응.(응.)
107026 @ 그럼 조죽은 안 헨마씨?(그럼 조죽은 안 했어요?)
107026 #2 조죽은 안 쒀.(조죽은 안 쒀.)
107026 @ 아, 조죽은 안 쒀?(아, 조죽은 안 쒀?)
107026 #2 어. 조죽은 안 쒀.(어. 조죽은 안 쒀.)
107027 @ 풋죽은 그면?(팥죽은 그러면?)
107027 #2 풋죽 쑤고 콩죽 쑤고.(팥죽 쑤고 콩죽 쑤고.)
107027 @ 예. 그럼 풋죽은 언제 보통 쒀마씨?(예. 그럼 팥죽은 언제 보통 쒀요?)
107027 #2 이녁 먹고 싶은양 그자. 이 저슬철이주게 대충 그런 건.(이녁 먹고 싶을 때 그저. 이 겨울철이지 대충 그런 건.)
107027 @ 보통 저슬 때.(보통 겨울 때.)
107027 #2 응 으름엔 더우난 저슬철 그자.(응 여름에는 더우니까 겨울철 그저.)
107027 @ 콩죽도 그냥 저슬에?(콩죽도 그냥 겨울에?)
107027 #2 응. 응.(응. 응.)
107029 @ 모멀죽은 안 먹언마씨?(메밀죽은 안 먹었어요?)
107029 #2 모멀죽은 아니. 모멀ᄌᆞ베기 헹 먹주게 이제는 칼국수도 잘 허고. 모멀ᄌᆞ베기.(메밀죽은 아니. 메밀수제비 해서 먹지 이제는 칼국수도 잘 하고. 메밀수제비.)
107029 @ 모멀ᄌᆞ베기 허지예? 요즘엔?(메밀수제비 하지요? 요즘엔?)
107029 #2 다 돈 줭 사기 때문에 무신.(다 돈 줘서 사기 때문에 무슨.)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럼 범벅은 종류가 뭐 잇어마씨?(그럼 범벅은 종류가 뭐 있어요?)
107034 #1 범벅은 뭐 그 감저범벅이라든가 무슨 뭐 모멀범벅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범벅은 그저 한데 다 어우러진 거거든. 막 떡 ᄀᆞ치 그렇게 뭰 게 모벌범벅이고 조범벅이고 무슨 무슨 범벅이고 감자범벅이고 이렇게 ᄒᆞ는 거는 막 한꺼번에 놔서 막 그 저기 만들어 낸 게 범벅이주게.(범벅은 뭐 그 '감저범벅'이라든가 무슨 뭐 메밀범벅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범벅은 그저 한데 다 어우러진 거거든. 아주 떡 같이 그렇게 된 게 메밀범벅이고 조범벅이고 무슨 무슨 범벅이고 '감저범벅'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막 한꺼번에

놔서 아주 그 저기 만들어 낸 게 범벅이지.)
107034 @ 그럼 범벅으로 할 때는 아까 말한 거 다 들어가는 거마씨?(그럼 범벅으로 할 때는 아까 말한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7034 #1 으. 여러 가지 들어가면 거 모멀이 많이 들어가면 모멀범벅 감저가 많이 들어가면 감저범벅 뭐.(어. 여러 가지 들어가면 거 메밀이 많이 들어가면 메밀범벅. 고구마가 많이 들어가면 '감저범벅' 뭐.)
107034 @ 조가 많이 들어가면?(조가 많이 들어가면?)
107034 #1 조범벅 그런 식으로 돼지.(조범벅 그런 식으로 돼지.)
107034 @ 그럼 범벅은 어떵 만들어마씨?(그럼 범벅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34 #1 아, 그 저기 물 허고 많이 놔그넹 음식 조합헤그넹 그 좀 말이지 서꺼서 말이지 물에 놔서 말이여 막 끓이면 거기서 막 조합이 뒈는 거라. 그게 범벅이주게.(아, 그 저기 물 하고 많이 놔서 음식 조합해서 그 좀 말이지 섞어서 말이지 물에 놔서 말이야 막 끓이면 거기서 막 조합이 되는 거야. 그게 범벅이지.)
107035 @ 그 수제비도 먹엇잖아예?(그 수제비도 먹었잖아요?)
107035 #1 으. 수제비도 먹엇지.(어. 수제비도 먹었지.)
107035 @ 수제비는 그 재료가 뭐, 뭐 잇주마씨?(수제비는 그 재료가 뭐, 뭐 있지요?)
107035 #1 모멀수제비도 잇곡. 모멀로 멘든 거 모멀수제비가 제일 맛잇곡.(메밀수제비도 있고. 메밀로 만든 거 메밀수제비가 제일 맛있고.)
107035 @ 예.(예.)
107035 #1 또 밀가루 수제비도 잇곡 말이지.(또 밀가루 수제비도 있고 말이지.)
107035 @ 옛날에도 밀가루수제비는 드션마씨?(옛날에도 밀가루수제비는 드셨어요?)
107035 #1 아, 밀가루수제비를 주로 먹엇지. 모밀 ᄀᆞ튼 거는 좀 잘 사는 집에서 모밀수제비 헹 먹고 산모에는 미역국에 모밀 놔 가지고 수제비헤그넹 산모를 줘. 그게 피가 맑아져. 산, 산모에 거 모든 나쁜 피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잇게끔 만들어 주는 게 모멀이랑 미역이라. 모멀 말이지 그 저기 저 수제비 만들어 가지고 산모에게 줘.(아, 밀가루수제비를 주로 먹었지. 메밀 같은 거는 좀 잘 사는 집에서 메밀수제비 해서 먹고 산모에는 미역국에 메밀 놔 가지고 수제비해서 산모를 줘. 그게 피가 맑아져. 산, 산모에 거 모든 나쁜 피가 몸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메밀이랑 미역이야. 메밀 말이지 그 저기 저 수제비 만들어 가지고 산모에게 줘.)
107036 @ 그면 칼국수도 옛날엔 드션마씨?(그러면 칼국수도 옛날에는 드셨어요?)
107036 #1 칼국수도 밀가루칼국수도 있지마는 모밀칼국수가 췌고. 모밀칼국수에는 꿩이 들어가야 돼.(칼국수도 밀가루칼국수도 있지마는 메밀칼국수가 최고. 메밀칼국수에는 꿩이 들어가야 돼.)
107036 @ 꿩이 들어가야 돼마씨?(꿩이 들어가야 돼요?)
107036 #1 꿩이 들어가면 그게 제일 췌고. 꿩 육수가 들어가야 모밀칼국수가 시원허고 말이여 거 참.(꿩이 들어가면 그게 제일 최고. 꿩 육수가 들어가야 메밀칼국수가 시원하고 말이야 거 참.)

107036 @ 것도 궁합이?(것도 궁합이?)
107036 #1 췌고여 췌고라.(최고야 최고야.)
107035 @ ᄌᆞ베기는 모멀 모멀ᄌᆞ베기랑 뭐 또 다른 거 잇수광?(수제비는 메밀 메밀수제비랑 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107035 #2 모멀ᄌᆞ베기 말앙은 뭐 별다른 거게.(메밀수제비 말고는 뭐 별다른 거.)
107035 @ 별다른 게 엇어마씨?(별다른 게 없어요?)
107035 #2 저 밀ᄀᆞ루로 헹 먹엇주게 엿날은 밀ᄀᆞ루로.(저 밀가루로 햇 먹었지 옛날은 밀가루로.)
107035 @ 아, 밀가루 헹.(아, 밀가루 해서.)
107035 #2 모멀ᄌᆞ베기 모멀은 어려우니까.(메밀수제비 메밀은 어려우니까.)
107035 @ 예.(예.)
107035 #2 식게 때나 그자 떡도 허고 헷주마는.(제사 때나 그저 떡도 하고 했지마는.)
107035 @ 그걸로 무슨 떡 헨마씨?(그걸로 무슨 떡 했어요?)
107035 #2 모멀떡 인절미도 허곡. 세미떡[163]도 허곡. 그걸로.(메밀떡 인절미도 하고. '세미떡'도 하고. 그걸로.)
107035 @ 무슨 떡? 인절미 말앙 뭐마씨?(무슨 떡? 인절미 말고 뭐요?)
107035 #2 세미떡. 영 줍는 거. 세미떡.('세미떡'. 이렇게 접는 거. '세미떡'.)
107035 @ 예. 세미떡.(예. '세미떡'.)
107035 #2 경 허곡 저 모멀ᄀᆞ루로 제펜[164] 쳐.(그렇게 하고 저 메밀가루로 '제펜' 쳐.)
107035 @ 제펜 쳐?('제펜' 쳐?)
107035 #2 무수 썰어 놩 제펜 치믄 좋주. 막 그추룩도 헤나고. 겐디 이젠 그런 것도 엇어. 몬딱 사당 헤 놓으난게.(무 썰어 놔서 '제펜' 치면 좋지. 막 그처럼도 했었고. 그런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 전부 사다가 해 놓으니까.)
107035 @ 예. 이젠 사당 다 허주마씨.(예. 이젠 사다가 다 하지요.)
107035 #2 어. 이젠 몬딱 사당 적갈[165] 꿰는 것도 몬딱 사당 허난 요즘 젊은 사람들게.(어. 이젠 전부 사다가 '적갈' 꿰는 것도 전부 사다가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107035 @ 예.(예.)
107035 #2 아이고 계메.(아이고 글쎄.)
107035 @ 막 바쁜 것도 잇고예? 그냥 요즘은 다 펜하젠.(아주 바쁜 것도 있고요? 그냥 요즘은 다 편하려고.)
107035 #2 펜안허게게. 펜안허게. 게고 막 불에 허기 때문에 집에서 허들 못 허크란게. 게난 이 돌아간 망인도 그건 숭보지 말아야 돼.(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막 불에

163) '세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파토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새미, 새미떡, 세미'라고도 한다.
164) '제펜'은 '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앉혀 찐 시루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지펜'이라고도 한다.
165) '적갈'은 적(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지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 돌아간 망인도 그건 흉보지 말아야 돼.)
107035 @ 음.(음.)
107035 #2 내 새끼들이 먹고살려니까 먹고 벌어야지.(내 새끼들이 먹고살려니까 먹고 벌어야지.)

김치

107037 @ 그면 그 반찬 중에 김치 잇잖아예?(그러면 그 반찬 중에 김치 있잖아요?)
107037 #1 어.(어.)
107037 @ 김치는 뭐 종류가 배추김치, 열무김치, 물김치 다양허게 잇잖아예?(김치는 뭐 종류가 배추김치, 열무김치, 물김치 다양하게 있잖아요?)
107037 #1 뭐 김치도 여러 가지 갓김치여 여러 가지 뭐.(뭐 김치도 여러 가지 갓김치여 여러 가지 뭐.)
107037 @ 놈삐김치도 잇곡.(무김치도 있고.)
107037 #1 으. 놈삐김치영 뭐 총각김치영 깍두기영 배추김치영 뭐 여러 가지 잇인데.(어. 무김치와 뭐 총각김치와 깍두기와 배추김치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107037 @ 예.(예.)
107037 #1 그 김치도.(그 김치도.)
107037 @ 예.(예.)
107037 #1 좀 담아 가지고.(좀 담아 가지고.)
107037 @ 예.(예.)
107037 #1 일 년, 이 년 묵혀 가지고 잇어야 그게 다 산도.(일 년, 이 년 묵혀 가지고 있어야 그게 다 산도.)
107037 @ 예.(예.)
107037 #1 뭐 그 아주 형성이 뒈고 말이여 그 좋다더라고.(뭐 그 아주 형성이 되고 말이야 그 좋다더라고.)
107038 @ 배추김치도 옛날엔 배추김치 주로 헤 먹엇지예?(배추김치도 옛날에는 배추김치 주로 해 먹었지요?)
107038 #1 주로 배추김치 헷다그넹 말이여 겨울에 말이지 돼지고기나 좀 잇으면 좀 묵은 김치에 그거 헤그넹 김치찌개 헤 먹으면 그것만한 반찬 엇어. 경 안 ᄒᆞ면 멜이라도 ᄀᆞ치 놔그넹 말이여 돈 엇인 집은 마른멜이라도 ᄀᆞ치 놩 그 김치찌개 멘들어서 말이여 먹고 ᄒᆞ면은 그것도 일품이주게.(주로 배추김치 했다가 말이야 겨울에 말이지 돼지고기나 좀 있으면 좀 묵은 김치에 그거 해서 김치찌개 해 먹으면 그것만한 반찬 없어. 그렇게 안 하면 멸치라도 같이 놔서 말이야 돈 없는 집은 마른멸치라도 같이 놔서 그 김치찌개 만들어서 말이야 먹고 하면 그것도 일품이지.)
107039 @ 그럼 열무김치도 제주도에서 많이 헤 먹엇인가마씨?(그럼 열무김치도 제주도에서 많이 해 먹었었나요?)

107039 #1 ᄋᆞ. 여름에는 주로 열무김치 헹 먹고.(어. 여름에는 주로 열무김치 해서 먹고.)
107039 @ 열무김치는 뭘로 만들주마씨?(열무김치는 뭘로 만들지요?)
107039 #1 열무김치는게 주로 고추장. 고추 ᄀᆞ튼 거 생강, 마늘, 자리. 아, 저 멜젓 국물 ᄀᆞ튼 거 놔서 열무김치 ᄀᆞ튼 거 만들엉 먹고.(열무김치는 주로 고추장. 고추 같은 거 생강, 마늘, 자리돔. 아, 저 멸치젓 국물 같은 거 놔서 열무김치 같은 거 만들어서 먹고.)
107040 @ 여름에는 물김치도 많이 드셧지예?(여름에는 물김치도 많이 드셨지요?)
107040 #1 물김치 헹 그대로 물 먹으면 시원ᄒᆞ고 밥도 말아 먹고, 국수도 삶아서 그 물김치에.(물김치 해서 그대로 물 먹으면 시원하고 밥도 말아 먹고, 국수도 삶아서 그 물김치에.)
107040 @ 예.(예.)
107040 #1 말아 먹고 그렇게.(말아 먹고 그렇게.)
107040 @ 김치 종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헷겟다예?(김치 종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했겠군요?)
107040 #1 거 비슷헌 걸로 보면 뒐 거라. 김치라고 뭐 특별허게 말이지 뭐 재료가 뭐 딴 게 잇인 게 아니고.(거 비슷한 걸로 보면 될 거야. 김치라고 뭐 특별하게 말이지 뭐 재려가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107041 @ 그럼 동지팟죽처럼 동지김치도 잇언마씨?(그럼 동지팥죽처럼 동지김치도 있었어요?)
107041 #1 ᄋᆞ. 동지김치. 동지 뒈면.(어. 동지김치. 동지 되면.)
107041 @ 예.(예.)
107041 #1 배추에서 동지꼿이 펴.(배추에서 동지꽃이 펴.)
107041 @ 예.(예.)
107041 #1 게 그때 그걸 꺾어다그넹 동지김치 헤 먹으면 참 맛잇어. 그게 동지김치라. 동지김치는 정말 그거 먹어보지 않으면 그거 몰라.(그럼 그때 그걸 꺾어다가 동지김치 해 먹으면 참 맛있어. 그게 동지김치야. 동지김치는 정말 그거 먹어보지 않으면 그거 몰라.)
107043 @ 그면 무김치나 파김치는?(그러면 무김치나 파김치는?)
107043 #1 파김치도 주로 헹 먹고.(파김치도 주로 해서 먹고.)
107043 @ 예.(예.)
107043 #1 뭐 그 마늘은 마늘지. 마늘지 닮아 가지고 먹고. 마늘김치는 잘 안 헤 먹고. 마늘지로 담가 먹고. 패마농은 패마농김치로도 헤 먹고.(뭐 그 마늘은 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 같아 가지고 먹고. 마늘김치는 잘 안 해 먹고. 마늘장아찌로 담가 먹고. 파는 파김치로도 해 먹고.)
107044 @ 달래김치도 드셧수광?(달래김치도 드셨습니까?)
107044 #1 달래는 뭐냐면 꿩마농이주게 제주도말로 제주도 사투리로 꿩마농김치라고

그게 이 상당히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라. 봄에 나오는 건디 그게 헤다그넹 먹으면 거 쑥, 냉이 뭐 이런 달래, 달래가 췌고여.(달래는 뭐냐면 '꿩마농'이지. 제주도말로 제주도 사투리로 '꿩마농김치'라고 그게 이 상당히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야. 봄에 나오는 건데 그게 해다가 먹으면 거 쑥, 냉이 뭐 이런 달래, 달래가 최고야.)

107045 @ 그럼 갓김치도 들어보션마씨? 갓김치에 대헤서 골아 줍서.(그럼 갓김치도 들어보셨어요? 갓김치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107045 #1 갓김치는 여기 제주도에서는 별로 엇고. 여수 지방에서나 그런 데서 많이 헹 먹주.(갓김치는 여기 제주도에서는 별로 없고. 여수 지방에서나 그런 데서 많이 해서 먹지.)

107045 @ 제주도에선 많이 안 먹엇지예?(제주도에서는 많이 안 먹었지요?)

107045 #1 ᄋᆞ. 그런 김치가 갓김치는 여기서 잘.(어. 그런 김치가 갓김치는 여기서 잘.)

107046 @ 부추김치는 제주도에서 먹엇인가마씨?(부추김치는 제주도에서 먹었었나요?)

107046 #1 어?(어?)

107046 @ 부추김치.(부추김치.)

107046 #1 부추게. 저 새오리김치. 새오리김치도 거 새오리가.(부추. 저 '새오리김치'. '새오리김치'도 거 '새오리'가.)

107046 @ 예.(예.)

107046 #1 상당히 영양분이 많아 가지고 육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는 장자한테만 제일 처음 부추 나오는 걸 비어 가지고 장자한테 멕인다고 ᄒᆞ여.

107046 @ 아, 새오리.(아, 부추.)

107046 #1 그게 왜냐면 정력이 좋아 가지고 손자가 생기라고 헷다고 ᄒᆞ여. 그렇게 부추가 새오리가 그거 말이지 정력에 좋은 모양이야.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뒛어.(그게 왜냐면 정력이 좋아 가지고 손자가 생기라고 했다고 해. 그렇게 부추가 '새오리'가 그거 말이지 정력에 좋은 모양이야.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

107047 @ 어르신 이거 아시는 건데 김치 담그는 방식 옛날 방식 골아 줍서.(어르신 이거 아시는 건데 김치 담그는 방식 옛날 방식 말해 주십시오.)

107047 #1 뭐 주로 말이지 옛날에는.(뭐 주로 말이지 옛날에는.)

107047 @ 그.(그.)

107047 #1 배추도 말이여 바다에 가서 절엿어. 소금이 엇이난.(배추도 말이야 바다에 가서 절였어. 소금이 없으니까.)

107047 @ 예. 그랫다고.(예. 그랬다고.)

107047 #1 ᄋᆞ. 바다에 가서 절엿다가 하루나 이틀 헤 가지고 말이여 그 순이 다 죽으면.(어. 바다에 가서 절였다가 하루나 이틀 해 가지고 말이야 그 순이 다 죽으면.)

107047 @ 예.(예.)

107047 #1 집에 와서 이제 그 생수로 씻어 가지고 깨끗이 씻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

제는 뭐 고추 뭐 마늘 뭐 무슨 저 그 저 젓갈 종류 멜젓. 멜젓도 국물로 국물 ᄀᆞ튼 거 놓고 풀 저기 뭐 밀가루로 풀 ᄀᆞ튼 거 쒀서 양념 만들어 가지고 오만 이런 저런 조미료 놔 가지고 말이지 막 서꺼 가지고 배추에 넣어 놔두면.(집에 와서 이제 그 생수로 씻어 가지고 깨끗이 씻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고추 뭐 마늘 뭐 무슨 저 그 저 젓갈 종류 멸치젓. 멸치젓도 국물로 국물 같은 거 놓고 풀 저기 뭐 밀가루로 풀 같은 거 쒀서 양념 만들어 가지고 오만 이런 저런 조미료 놔 가지고 말이지 막 섞어 가지고 배추에 넣어 놔두면.)

107047 @ 예.(예.)

107047 #1 췌소한도 뭐 먹을 수 잇인 거는 한 바로 먹을 수도 잇주마는 보통 열흘이나 보롬 지나면은 먹기도 ᄒᆞ고 어떤 집에서는 겨울 저장용으로 땅 파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위에 비닐로 딱 무꺼다가 겨울에 꺼내 먹으면은 그 온도가 일정헤. 냉장고가 엇일 때니까 땅에 묻어 놔두면.(최소한도 뭐 먹을 수 있는 거는 한 바로 먹을 수도 있지마는 보통 열흘이나 보름 지나면 먹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겨울 저장용으로 땅 파 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위에 비닐로 딱 묶어다가 겨울에 꺼내 먹으면 그 온도가 일정해.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땅에 묻어 놔두면.)

107047 @ 하긴 옛날엔 냉장고 엇어시난예?(하긴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으니까요?)

107047 #1 지혜가 말이여 상당히 보통이 아니라.(지혜가 말이야 상당히 보통이 아니야.)

107047 @ 거난예.(그러니까요.)

107047 #1 그래 가지고 그렇게 헤서 말이여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내놔서 밥에 먹엇거든. 주로 이 저 반찬이 엇어. 김치영 보리밥에 먹는 거야. 뒌장국 끓여 가지고.(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이야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내놔서 밥에 먹었거든. 주로 이 저 반찬이 없어. 김치와 보리밥 먹는 거야. 된장국 끓여 가지고.)

107037 @ 그 김치도 종류가 잇잖아예? 김치.(그 김치도 종류가 있잖아요? 김치.)

107037 #2 김치?(김치?)

107037 @ 예.(예.)

107037 #2 김치는 별다른 종류가 엇지.(김치는 별다른 종류가 없지.)

107037 @ 음.(음.)

107037 #2 에 무수로 깍두기 허는 사람도 잇곡.(에 무로 깍두기 하는 사람도 있고.)

107037 @ 예.(예.)

107037 #2 통김치로 그 육지 보면은. 통김치 허영.(통김치로 그 육지 보면. 통기치 해서.)

107037 @ 예. 제주도는 그믄.(예. 제주도는 그러면.)

107037 #2 우리 제주도는 그런 거 별로 안 허고.(우리 제주도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107037 @ 별로 안 허고?(별로 안 하고?)

107037 #2 응. 육지는 허여.(응. 육지는 해.)

젓갈

107048 @ 젓갈 종류는 뭐, 뭐 잇엇주마씨?(젓갈 종류는 뭐, 뭐 있었지요?)
107048 #1 뭐 젓갈 종류는 자리젓, 멜젓, 갈치젓, 전갱이젓. 뭐 젓갈은 여러 가지고. 그 저기 저 여기서 나는 걸로 만들어서 먹엇어.(뭐 젓갈 종류는 자리젓, 멸치젓, 갈치젓, 전갱이젓. 뭐 젓갈은 여러 가지고. 그 저기 저 여기서 나는 걸로 만들어서 먹었어.)
107048 @ 젓갈은 일 년 내내 만들엉 먹언마씨?(젓갈은 일 년 내내 만들어서 먹었어요?)
107048 #1 아니. 그거 날 때만 그 저기 자리는 유월달 유월 스무 사흘 조곰[166]이라 헤 가지고 그때 나는 것이 알이 아주 많이 몸에 다 베여.(아니. 그거 날 때만 그 저기 자리돔은 유월 달. 유월 스무 사흘 조금이라 해 가지고 그때 나는 것이 알이 아주 많이 몸데 다 베어.)
107049 @ 아, 유월 달에 자리젓?(아, 유월 달에 자리젓?)
107049 #1 ᄋᆞ. 유월 달 자리젓이 그만큼 제일 암컷이나 수컷이 제일 말이여 그 저기 영양가가 많이 뒈고 금방 알을 말이여 낳을라고 할 때 떠 온 것이.(어. 유월 달 자리젓이 그만큼.(어. 유월 달 자리젓이 그만큼 제일 암컷이나 수컷이 제일 말이야 그 저기 영양가가 많이 되고 금방 알을 말이야 낳으려고 할 때 떠 온 것이.)
107049 @ 예.(예.)
107049 #1 제일 영양가가 많고 그거를 이제 자리젓 허려면 이제 이런 도고리에 대가리ᄒᆞ고 이제 창자를 조금씩 찍어 가지고.(제일 영양가가 많고 그거를 이제 자리젓 하려면 이제 이런 함지박에 대가리하고 이제 창자를 조금씩 찍어 가지고.)
107049 @ 예.(예.)
107049 #1 그걸 말이지 좀 나온 다음에 소금에서 딱 알맞게 놓으면은.(그걸 말이지 좀 나온 다음에 소금에서 딱 알맞게 놓으면.)
107049 @ 그게.(그게.)
107049 #1 그게 자리젓 뒈는 거라. 거 소금 많이 놓면 짜면 자리가 그대로 말이지 자리의 형태 그대로 뒈고.(그게 자리젓 되는 거야. 거 소금 많이 놓으면 짜면 자리돔이 그대로 말이지 자리돔의 형태 그대로 되고.)
107049 @ 예.(예.)
107049 #1 소금이 딱 알맞으면 인제 제일 좋은 자리 뒈고. 소금이 적으면 좀 고린내 비슷헤. 단내라고 해. 여기서 말로는 단내. 자리젓 먹으면 아주 단내라고 말이여 그, 그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소금이 적당히 좀 족은 거야.(소금이 딱 알맞으면 인제 제일 좋은 자리돔 되고. 소금이 적으면 좀 고린내 비슷해. 단내라고 해. 여기서 말로는 단내. 자리젓 먹으면 아주 단내라고 말이야 그, 그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소금이 적당히 좀 적은

166) '조곰'은 '조금(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 대개 매월 음력 7, 8일과 22, 23일에 있다.)'의 제주어이다.

거야.)
107049 @ 음.(음.)
107049 #1 이제는 과학적으로 말이여 자리 흔 뒈면.(이제는 과학적으로 말이야 자리 한 되면.)
107049 @ 예.(예.)
107049 #1 자리 흔 말이면 이런 뒈로 네 개면.(자리 한 말이면 이런 되로 네 개면.)
107049 @ 예.(예.)
107049 #1 소금은 한 뒈 놔서 버무려그넹 놓면 딱 젓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제는 말이여 과학적으로 이제 다 시험헤 봐 가지고 좀 자리젓, 멜젓 이렇게 다 한치젓, 오징어젓 뭐 무슨 젓 많이 잇잖아. 족은 것도 갈치젓 헹 먹고.(소금은 한 되 놔서 버무려서 놓으면 딱 젓도 마찬가지고. 아주 이제는 말이야 과학적으로 이제 다 시험해 봐 가지고 좀 자리젓, 멸치젓 이렇게 다 한치젓, 오징어젓 뭐 무슨 젓 많이 있잖아. 작은 것도 갈치젓 해서 먹고.)
107050 @ 그럼 그 멜젓은 몇 월 달에 헤마씨?(그럼 그 멸치젓은 몇 월 달에 해요?)
107050 #1 보통 삼사월 꼿멜젓이라고 헷어. 그거는 아주 알아줘 꼿멜.(보통 삼사월 꽃멸치라고 했어. 그거는 아주 알아줘 꽃멸치.)
107050 @ 꼿멜?(꽃멸치?)
107050 #1 응. 꼿멜젓이 그거는 아무리 소금이 적당헤그넹 딱 맞게끔 헹 놔둬도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어. 꽃멸치젓이 그거는 아무리 소금이 적당해서 딱 맞게끔 해서 놔둬도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돼.)
107050 @ 아, 그대로 형태가 유지뒈마씨?(아, 그대로 형태가 유지되요?)
107050 #1 응. 다른 말이지 그 저기 저 정어리멜이여 무슨 일반 멜들은.(어. 다른 말이지 그 저기 저 정어리멸치여 무슨 일반 멸치들은.)
107050 @ 예.(예.)
107050 #1 놔두면 물 뒈주게. 멜이 형태가 엇어저.(놔두면 물 되지. 멸치가 형태가 없어져.)
107051 @ 그면 제주도에서도 아감젓 먹언마씨?(그러면 제주도에서도 아감젓 먹었어요?)
107051 #1 아가미젓은 이 아가미로만. 생선 아가미젓이 제일 맛잇지.(아감젓은 이 아가미로만. 생선 아감젓이 제일 맛있지.)
107051 @ 아, 그때도 생선은 옥돔?(아, 그때도 생선은 옥돔?)
107051 #1 응. 옥돔, 옥돔, 아가미젓이 제일 맛잇지.(어. 옥돔, 옥돔, 아감젓이 제일 맛있지.)
107051 @ 아, 이것도. 그럼 옥돔은 보통 언제 잡히주마씨?(아, 이것도. 그럼 옥돔은 보통 언제 잡히지요?)
107051 #1 주로 시월 달부터 보통 십이월?(주로 시월 달부터 보통 십이월?)
107051 @ 아, 시월에서 십이월에 아감젓 많이 담갓겟다예?(아, 시월에서 십이월에 아

감젓 많이 담갔겠군요?)
107051 #1 응. 그때 그런 생선도 그때는 말이지 비싸니까 많이 ᄒᆞ지 못 ᄒᆞ고.(어. 그때 그런 생선도 그때는 말이지 비싸니까 많이 하지 못 하고.)
107051 @ 팔앗겟다예?(팔았겠군요?)
107051 #1 조금 많이 헹 온 집에서는 그것만 따로 좀 헷다가 이만헌 그 보시에다가 말이여 담아서 자기네만 먹고 헷지. 주로 크게 담앗어. 그거 팔 정도는 아니고 주로 멜젓. 자리젓은 또 오징어, 한치 많이 나니까 소금에 절엿다가 먹고 그랫어.(조금 많이 해서 온 집에서는 그것만 따로 좀 했다가 이만한 그 보시기에다가 말이야 담아서 자기네만 먹고 했지. 주로 크게 담았어. 그거 팔 정도는 아니고 주로 멸치젓. 자리젓은 또 오징어, 한치 많이 나니까 소금에 절였다가 먹고 그랬어.)
107052 @ 게젓은 깅이젓 잇잖아예?(게젓은 게젓 있잖아요?)
107052 #1 응. 게젓.(어. 게젓.)
107052 @ 깅이젓은 츰깅이로 깅이젓 헨마씨?(게젓은 참게로 게젓 했어요?)
107052 #1 응. 츰깅이로 헤그넹.(어. 참게로 해서.)
107052 @ 예.(예.)
107052 #1 그 저기 간장 헤그넹 말이지 그 저기 담그는 법이 그것도 잇어.(그 저기 간자 해서 말이지 그 저기 담그는 법이 그것도 있어.
107052 @ 예.(예.)
107052 #1 경 헤그넹 좀 간장에 말이지 좀 끓여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조미료 넣곡 깅이를 거기에 담아 가지고 한 열흘이나 보름 잇으면 간장 버려서 다시 끓여야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그렇게 해서 좀 간장에 말이지 좀 끓여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조미료 넣고 게를 거기에 담아 가지고 한 열흘이나 보름 있으면 간장 버려서 다시 끓여야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107053 @ 아까 자리젓 만드는 법 골아줫잖아예?(아까 자리젓 만드는 법 말해줬잖아요?)
107053 #1 응.(어.)
107053 @ 그럼 멜젓은 어떵 만들어마씨?(그럼 멸치젓은 어떻게 만들어요?)
107053 #1 멜젓도 꼭 같이 멜은 삼사월 뒈면은 그 구물로 헤 가지고 멜 잡아오면은 여기 망오름 밑에 가면 꼿멜젓 전문적으로 멘드는 굴이 잇어.(멸치젓도 꼭 같이 멸치는 삼사월 되면 그 그물로 해 가지고 멸치 잡아오면 여기 망오름 밑에 가면 꽃멸치 전문적으로 만드는 굴이 있어.)
107053 @ 아, 굴이 잇어마씨?(아, 굴이 있어요?)
107053 #1 굴에 넣으면은 그 온도가 예를 들어서 십도면 십도. 오도면 오도. 평상시 쭉 뒈서 일 년간 숙성시켜 가지고 육지 백화점 ᄀᆞ튼 데 오름 물산이라고 헤 가지고 서울 백화점에도 뭐 납품허고.(굴에 넣으면 그 온도가 예를 들어서 십도면 십도. 오도면 오도. 평상시 쭉 되서 일 년간 숙성시켜 가지고 육지 백화점 같은 데 오름 물산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 백화점에도 뭐 납품하고.)

107053 @ 그럼 젓갈도 김치추록 그 항아리에 보통 보관헨마씨?(그럼 젓갈도 김치처럼 그 항아리에 보통 보관했어요?)
107053 #1 그 옛날에는 큰 항아리가 엇이니까 도루무통 잇잖아.(그 옛날에는 큰 항아리거 없으니까 드럼통 있잖아.)
107053 @ 도루무통?(드럼통?)
107053 #1 응. 저기 저 그런 거에다가 건줌 다 담아서 거기 크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깐.(어. 저기 저 그런 거에다가 거의 다 담아서 거기 크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깐.)
107054 @ 출레[167]라고 하잖아예?('출레'이라고 하잖아요?)
107054 #1 어?(어?)
107054 @ 출레.('출레'.)
107054 #1 어. 반찬이 출레라고.(어. 반찬이 '출레'라고.)
107054 @ 보통 출레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밥이랑 국 빼고 출레라고 헨마씨?(보통 '출레'라고 하면 제주도에서 밥이랑 국 빼고 '출레'라고 했어요?)
107054 #1 그렇지. 게난 그게 반찬 종류는 출레지.(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반찬 종류는 '출레'지.)
107054 @ 옛날에는 반찬으로 젓갈을 많이 먹어 부난 주로 출레를 젓갈이라고 헨마씨? 그건 아니고?(옛날에는 반찬으로 젓갈을 많이 먹어 버리니까 주로 '출레'를 젓갈이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고?)
107054 #1 젓갈 종류도 출레지.(젓갈 종류도 '출레'지.)
107054 @ 나물 ᄀᆞ튼 것도 촐레마씨?(나물 같은 것도 '출레'에요?)
107054 #1 응. 반찬은 출레지. 밥이 아닌 거는 출레주게.(어. 반찬은 '출레'지. 밥이 아닌 거는 '출레'지.)
107048 @ 그 제주도 젓갈 좀 많이 헤 먹잖아예?(그 제주도 젓갈 좀 많이 해 먹잖아요?)
107048 #2 우리 제주도 김치 허는디 젓갈 넣는 사람은 넣곡 안 넣는 사람은 안 넣곡.(우리 제주도 김치 하는데 젓갈 넣는 사람은 넣고 안 넣는 사람은 안 넣고.)
107048 @ 음.(음.)
107048 #2 겐디 저 이 겨울 김치 김장김치는 젓갈 안 넣은 거 좋아.(그런데 저 이 겨울 김치 김장김치는 젓갈 안 넣은 거 좋아.)
107048 @ 무사마씨?(왜요?)
107048 #2 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
107048 @ 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오래 두고 먹을 거니까?)
107048 #2 어, 어. 젓갈 넣는 사람은 넣곡 안 넣는 사람은 안 넣곡.(어, 어. 젓갈 넣는 사람은 넣고 안 넣는 사람은 안 넣고.)
107049 @ 그 자리젓도 헹 드션마씨? 예전에?(그 자리젓도 해서 드셨어요? 예전에?)
107049 #2 자리젓은 그전에 집집마다 담앗는디 이젠 ᄒᆞ는 거 셔 부난들. 다 이젠 한

167)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걸이들 살젠 경 애쓰게 허염수과게.(자리젓은 그전에 집집마다 담았는데 이젠 파는 거 있어 버리니까. 다 이젠 한거하게 사려고 그렇게 애쓰게 하고 있습니까.)
107049 @ 옛날에 어떵 그 자리젓은 어떵 만들언마씨?(옛날에 어떻게 그 자리젓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107049 #2 자리젓?(자리젓?)
107049 @ 예.(예.)
107049 #2 옛날엔 사당 이만헌 다레에 놔.(옛날엔 사다가 이만한 대야에 놔.)
107049 @ 예.(예.)
107049 #2 게믄 대가리 막 뿟아 마께로.(그러면 대가리 막 빻아 방망이로.)
107049 @ 예.(예.)
107049 #2 대가리 쪽에 배알 조금 이 소금물 들어가게.(대가리 쪽에 배알 조금 이 소금물 들어가게.)
107049 @ 마께는 종류가 잇수광?(방망이는 종류가 있습니까?)
107049 #2 응. 마께 셔.(응. 방망이 있어.)
107049 @ 뭐, 뭐 잇어마씨 종류가?(뭐, 뭐 있어요 종류가?)
107049 #2 우리집이도 싯주 마께.(우리집에도 있지 방망이.)
107049 @ 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잇어마씨?(아니 그러니까 종류가 있어요?)
107049 #2 종류?(종류?)
107049 @ 예.(예.)
107049 #2 덩드렁마께[168]도 싯고.('덩드렁마께'도 있고.)
107049 @ 예. 덩드렁마께도 잇고.(예. '덩드렁마께'도 있고.)
107049 #2 덩등렁마께도 싯고. 덩드렁마께는 바깟디서 저 찍 두드리는 거 덩드렁마께.('덩드렁마께'도 있고. '덩드렁마께'는 바깥에서 저 짚 두드리는 거 '덩드렁마께'.)
107049 @ 예.(예.)
107049 #2 또 이 다듬이방멩이도 잇곡.(또 이 다듬이방망이도 있고.)
107049 @ 다듬이방멩이도 잇고.(다듬이방망이도 있고.)
107049 #2 이제 그런 거 놔둔 사람이 어디 셔게. 다 어디로 데껴 불엇지.(이제 그런 거 놔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어디로 던져 버렸지.)
107049 @ 다 데껴 불언마씨?(다 던져 버렸어요?)
107049 #2 어. 다 데껴 불언. 다듬이질도 나도 잘 헤낫어.(어. 다 던져 버렸어. 다듬이질도 나도 잘 했었어.)
107049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7049 #2 어. 나 저 군산 갓을 때에.(어. 나 저 군산 갔을 때에.)
107049 @ 예.(예.)
107049 #2 나 물질허러 가낫주게.(나 물질하러 갔었지.)

168)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던드런마께'라고도 한다.

107049 @ 예.(예.)
107049 #2 가난 OOO 그 시어멍이 메누리 보고 이불 광목에 이불 풀렌 그걸 다듬으렌 허난. 요즘 아이들 거 다듬을 줄 알아? 그거 두드릴 줄 알아?(가니까 OOO 그 시어머니가 며누리 보고 이불 광목에 이불 풀라고 그걸 다듬으라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 거 다듬을 줄 알아? 그거 두드릴 줄 알아?)
107049 @ 잘 모르주마씨.(잘 모르지요.)
107049 #2 아 별로 ᄆᆞ음에 안 든 메누리 헷젠 헨게. 그렇구나 허연. 이레 헤 놓으라 헹 놩 나가 다 다듬이질헹 나가 다 두드려 주난. 그 OOO 어머니 어디서 나서 어디서 베왓느냐고 헙디다.(아, 별로 마음에 안 든 며느리 했다고 했어. 그렇구나 했어. 이리 해 놓아라 해서 놔서 내가 다 다듬이질해서 내가 다 두드려 주니까. 그 OOO 어머니 어디서 나서 어디서 배웠느냐고 했습니다.)
107049 @ 아.(어.)
107049 #2 나 제주도 사람이여. 어떵 이런 걸 베왓냐?(나 제주도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걸 배웠냐?)
107049 @ 응.(응.)
107049 #2 아 거 어린 사람허고 허렌 허진 못 허고 너무 가엽더라구. 게난 내가 다 헤 줘낫어요.(아 거 어린 사람하고 하라고 하지는 못 하고 너무 가엽더라고. 그러니 내가 다 해 줬었어요.)
107049 @ 거기다 아까 젓 만든 자리젓 만들 때 어떵 대야에 놩?(거기다 아까 젓 만든 자리젓 만들 때 어떻게 대야에 놔서?)
107049 #2 경 헹 대야에 놩.(그렇게 해서 대야에 놔서.)
107049 @ 예.(예.)
107049 #2 그거 배알 ᄲᆞᆺ앙 소곰 어느 정도.(그거 배알 빻아서 소금 어느 정도.)
107049 @ 예.(예.)
107049 #2 마련허여. 겅 허영 젓 담앙 놔두민. 이것이 간 잘 맞춰사게. 근 맞추지 못허믄 맛이 엇어.(마련해. 그렇게 해서 젓 담아서 놔두면. 이것이 간 잘 맞춰야. 간 맞추지 못 하면 맛이 없어.)
107049 @ 간 잘 맞춰야지예?(간 잘 맞춰야지요?)
107049 #2 어.(어.)
107050 @ 자리젓 말앙 멜젓도 담갓수광?(자리젓 말고 멸치젓도 담갔습니까?)
107050 #2 응. 멜젓도 헤난.(응. 멸치젓도 했었어.)
107050 @ 멜젓은 어떵 헨마씨?(멸치젓은 어떻게 했어요?)
107050 #2 멜젓도 그추룩 두드리지 안 허여 그건.(멸치젓도 그처럼 두드리지 안 해 그건.)
107050 @ 아.(아.)
107050 #2 ᄒᆞ끔 씻엉.(조금 씻어서.)
107050 @ 그냥 씻엉.(그냥 씻어서.)

107050 #2 씻어그넹 이젠 대야에 떠내. 멜 혼 마리면 소금 얼마헤영 떠.(씻어서 이젠 저울을 대야에 퍼내. 멸치 한 마리면 소금 얼마해서 퍼내.)
107050 @ 예.(예.)
107050 #2 뒈로도 놓곡 나도 허엿인디 근 맞지 안 허여.(되로도 놓고 나도 했었는데 간 맞지 않아.)
107052 @ 깅이젓은?(게젓은?)
107052 #2 깅이젓은 경 이듸 그런 거 엇어.(게젓은 그렇게 여기 그런 거 없어.)
107052 @ 이듸 그런 거 엇어마씨?(여기 그런 거 없어요?)
107052 #2 야의네 어멍 부지런허난 그거 깅이 잡아당 요번에 허영. 아이 맛잇게 헷우다 그건.(이 아이네 어머니 부지런하니까 그거 게 잡아다가 요번에 해서. 아이 맛있게 했습니다 그건.)
107052 @ 구살젓이나 구젱기영 그런 거 군벗이영.(성게젓이나 소라와 그런 거 딱지 조개와.)
107052 #2 그거사 비싼 거주게. 고급.(그거야 비싼 거지. 고급.)
107052 @ 고급.(고급.)
107052 #2 아주 고급 건.(아주 고급 건.)
107054 @ 옛날에 그럼 출레[169]는 뭐, 뭐 보통 잇엇주마씨?(옛날에 그럼 '출레'는 뭐, 뭐 보통 있었지요?)
107054 #2 출레 그자 옛날은 자리젓 주로.('출레' 그저 옛날은 자리젓 주로.)
107054 @ 주로.(주로.)
107054 #2 자리젓 우리 저 촐 비레도 가멍 자리젓 아져강 촐 비는 디도.(자리젓 우리 저 꼴 베러도 가면서 자리젓 가져가서 꼴 베는 데도.)
107054 @ 아, 촐 비는 디도?(아, 꼴 베는 데도?)
107054 #2 어. 주로 그것이 반찬이라난. 자리젓.(어. 주로 그것이 반찬이었었어. 자리젓.)
107054 @ 이 근처에 촐 비는 데는 어디 잇어마씨?(이 근처에 꼴 베는 데는 어디 있었어요?)
107054 #2 저 금악[170] 우이들 어듸.(저 금악 위에 어디.)
107054 @ 아, 금악 쪽으로 가야돼마씨? 아, 촐밧이 잇는 거마씨?(아, 금악 쪽으로 가야돼요? 아, 꼴밭이 있는 거예요?)
107054 #2 우린 엇어. 난 놉 빌엉 ᄒᆞ루 가 봔. ᄒᆞ루.(우린 없어. 난 놉 빌려서 하루 가 봤어. 하루.)
107054 @ ᄒᆞ루?(하루?)
107054 #2 어.(어.)
107054 @ 놉 빌지 못헤그넹 나 가쿠다 헹 강 생전 거 봐 보도 안 헌 거 강 헤져게.

169)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70) '금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를 의미한다.

(놉 빌리지 못해서 나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생전 거 봐 보지도 안 한 거 가서 해져?)
107054 #2 기주마씨.(그렇지요.)
107054 @ 놉은 옛날에 빌릴 때 얼마 정도 들언마씨?(놉은 옛날에 빌릴 때 얼마 정도 들었어요?)
107054 #2 얼마썩 줘낫인고? 아이고.(얼마씩 줬었는가? 아이고.)
107054 @ 마을마다 놉이 좀 잇언마씨?(마을마도 놉이 좀 있었어요?)
107054 #2 아이고 놉 품 얼마 안 줫일 거라 그때. 몰라 한 오천 원썩 줘낫인가 원 얼마 헌 것도 모르크라.(아이고 놉 품 얼마 안 줬을 거야 그때. 몰라 한 오천 원씩 줬었는가 원 얼마 한 것도 모르겠어.)
107054 @ 그 밥 말앙 반찬 말앙 따로 별도로 먹는 순대 뭐.(그 밥 말고 반찬 말고 따로 별도로 먹는 순대 뭐.)
107054 #2 아, 뭣 엇어. 뭣 엇어. 그자 주로 밥 말앙 먹는 건 그저. 고구마 쪙 먹는 거 그거나밧긔.(아, 뭣 없어. 뭣 없어. 그저 주로 밥 말아서 먹는 건 그저. 고구마 쪄서 먹는 거 그거나밖에.)
107054 @ 순다리[171]는 어떵 만들언마씨?('순다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07054 #2 순다리?('순다리'?)
107054 @ 예.(예.)
107054 #2 순다린게 밥허영 놩.('순다리'는 밥해서 놔서.)
107054 @ 예.(예.)
107054 #2 그 누룩.(그 누룩.)
107054 @ 누룩으로.(누룩으로.)
107054 #2 누룩 넣곡 헹 놔두민 보그레기 궤여 와.(누룩 넣고 해서 놔두면 보글보글 괴어 와.)
107054 @ 예.(예.)
107054 #2 게민 그땐 걸러그넹 딸려.(그러면 그땐 걸러서 달여.)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잇잖아예?(장아찌 있잖아요?)
107055 #1 으.(어.)
107055 @ 장아찌는 뭐 마농장아찌가 많앗인가마씨?(장아찌는 뭐 마늘장아찌가 많았었나요?)
107055 #1 마늘장아찌가 제일 많고.(마늘장아찌가 제일 많고.)
107056 @ 그럼 그 마늘장아찌는 어떵 만들주마씨?(그럼 그 마늘장아찌는 어떻게 만들지요?)

171) '순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식'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쉰다리'라고도 한다.

107056 #1 마늘장아찌는 그저 마늘 요만씩 허게 잘라 가지고.(마늘장아찌는 그저 마늘 요만씩 하게 잘라 가지고.)
107056 @ 예.(예.)
107056 #1 것도 소금에 절엿다가 그다음에 간장인가 뭐 헤서 사이단가 조금 넣고 끓여 가지고 그걸 이제 부어 넣으면은 마늘장아찌.(것도 소금에 절였다가 그다음에 간장인가 뭐 해서 사이다인가 조금 넣고 끓여 가지고 그걸 이제 부어 넣으면 마늘장아찌.)
107056 @ 아까 몸장아찌도 말헤 주셧잖아예?(아까 모자반장아찌도 말해 주셨잖아요?)
107056 #1 응. 몸장아찌는 간장에 담강 허는 게 몸장아찌고.(어. 모자반장아찌는 간장에 담가서 하는 게 모자반장아찌고.)
107056 @ 아, 마늘. 마농은 간장에 안 담아마씨?(아, 마늘. 마늘은 간장에 안 담아요?)
107056 #1 것도 간장에 담는데 일반 간장에는 안 담고.(것도 간장에 담는데 일반 간장에는 안 담고.)
107056 @ 아, 일반 간장 말앙.(아, 일반 간장 말고.)
107056 #1 응. 다른 간장을 그 뭐 그 저기 헤 가지고 그 저기 마늘장아찌는 소금 헤 가지고 씻어서 장물 놩 만들 거라.(어. 다른 간장을 그 뭐 그 저기 해 가지고 그 저기 마늘장아찌는 소금 해 가지고 씻어서 장물 놔서 만들 거야.)
107056 @ 그럼 장아찌는 마늘이랑 몸 말앙 다른 거 엇언마씨?(그럼 장아찌는 마늘이랑 모자반 말고 다른 거 없었어요?)
107056 #1 장아찌?(장아찌?)
107056 @ 예.(예.)
107056 #1 장아찌는 우리 어릴 때 먹은 거는 몸장아찌나 마늘장아찌밧긔 생각나는 게 엇어.(장아찌는 우리 어릴 때 먹은 거는 모자반장아찌나 마늘장아찌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
107057 @ 어르신 옛날에는 훼도 좀 드션마씨?(어르신 옛날에는 회도 좀 드셨어요?)
107057 #1 훼는게 무슨 멜도 떠오면 멜도 훼로 먹고 자리도 먹고 말이지 생선은 훼로 안 먹는 게 엇어.(회는 무슨 멸치도 떠오면 멸치도 회로 먹고 자리돔도 먹고 말이지 생선은 회로 안 먹는 게 없어.)
107057 @ 아, 다?(아, 다?)
107057 #1 응. 살앗을 때는 먹고 그 무리면 제주도말로 선도가 뭐 나쁘면 건 못 먹고 싱싱할 때는 이제 훼로 먹고.(어. 살았을 때는 먹고 그 물면 제주도말로 선도가 뭐 나쁘면 그건 못 먹고 싱싱할 때는 이제 회로 먹고.)
107057 @ 그 고산 아니 모슬포 쪽에 방어훼가 유명허잖아예?(그 고산 아니 모슬포 쪽에 방어회가 유명하잖아요?)
107057 #1 응. 그건 방어축제 잇곡.(어. 그건 방어축제 잇고.)
107057 @ 여기 쪽에는 어떤 훼가 유명허주마씨?(여기 쪽에는 어떤 회가 유명하지

요?)
107057 #1 여기 쪽엔 뭐 자리훼가 제일 뭐 특산품이지.(여기 쪽에는 뭐 자리회가 제일 뭐 특산품이지.)
107057 @ 새끼훼라고 들어보션마씨?(새끼회라고 들어보셨어요?)
107057 #1 새끼훼는 돼지새끼훼, 소새끼훼 무신 뭐 그런 종류지 주로.(새끼회는 돼지새끼회, 소새끼회 무슨 뭐 그런 종류지 주로.)
107057 @ 아, 물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마씨?(아, 물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에요?)
107057 #1 으. 돼지새끼 돼지 배어 가지고.(어. 돼지새끼. 돼지 배어 가지고.)
107057 @ 예.(예.)
107057 #1 아직 나오지 않은 거. 새끼 봇에 담아진 새끼들 잇어. 그걸 막 난도질헤 가지고 말이여.(아직 나오지 않은 거. 새끼 태에 담아진 새끼들 있어. 그걸 막 난도질해 가지고 말이야.)
107057 @ 드셔보션마씨?(드셔보셨어요?)
107057 #1 으. 그렇게 헤서 먹고 소도 태어나기 전에 그 태아에 잇인 거 잡아서 죽엇을 때 꺼네그넹 소새끼훼로 엄청나게 보양뒈는 거라.(어. 그렇게 해서 먹고 소도 태어나기 전에 그 태아에 있는 거 잡아서 죽었을 때 꺼내서 소새끼회로 엄청나게 보양되는 거야.)
107057 @ 아, 일부러 먹는 건 아니고?(아, 일부러 먹는 건 아니고?)
107057 #1 으. 죽어그넹 도축헐 때 죽어 가지고 잡앗을 때 그 안에 잇인 거는 이제 소새끼훼, 돼지새끼훼 유명헤서 먹는데.(어. 죽어서 도축할 때 죽어 가지고 잡았을 때 그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소새끼회, 돼지새끼회 유명해서 먹는데.)
107057 @ 예.(예.)
107057 #1 요새는 주로 안 나와 그게. 뭐 새끼 밴 것들은 잡지도 못 ᄒᆞ고 혹시 잘못헤서 죽거나 하면은 가끔 하나 두 개 나왓인디 이젠 엇어.(요새는 주로 안 나와 그게. 뭐 새끼 밴 것들은 잡지도 못 하고 혹시 잘못해서 죽거나 하면 가끔 하나 두 개 나왔는데 이제는 없어.)
107057 @ 보양에 좋앗인가마씨?(보양에 좋았었나요?)
107057 #1 으. 몸에 좋앗지.(어. 몸에 좋았지.)
107057 @ 뭐 다금바리 그런 훼 ᄀᆞ튼 거는 어떵?(뭐 다금바리 그런 회 같은 거는 어떻게?)
107057 #1 다금바리는 제주도에서 제일 말이여 고급 어종이 다금바리.(다금바리는 제주도에서 제일 말이야 고급 어종이 다금바리.)
107057 @ 예.(예.)
107057 #1 그 다금바리는 우리나라에 저기 마라도 근해에서 많이 나.(그 다금바리는 우리나라에 저기 마라도 근해에서 많이 나.)
107057 @ 마라도?(마라도?)
107057 #1 마라도 근해에서 많이 나는데 그거는 부위별로 맛이 다 틀려. 그거는 우리

나라에서 다금바리 이상 그거는 고기 중에 왕이주.(마라도 근해에서 많이 나는데 그거는 부위별로 맛이 다 달라.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다금바리 이상 그거는 고기 중에 왕이지.)
107057 @ 어르신 드셔보션마씨?(어르신 드셔보셨어요?)
107057 #1 아, 먹어봣지. 그다음에 북바리라고 헤서 능성어라. 동물도감에 나오는 거는 북바리는 제주도말이고.(아, 먹어봤지. 그다음에 붉바리라고 해서 능성어야. 동물도감에 나오는 거는 '북바리'는 제주도말이고.)
107057 @ 예.(예.)
107057 #1 능성어라고 하는 건데.(능성어라고 하는 건데.)
107057 @ 예.(예.)
107057 #1 그거는 다금바리 다음에 능성어 그다음에 돌돔 그다음에 갓돔. 돔 종류 그다음에 황돔 이렇게 나와.(그거는 다금바리 다음에 능성어 그다음에 돌돔 그다음에 감성돔. 돔 종류 그다음에 황돔 이렇게 나와.)
107057 @ 아.(아.)
107057 #1 거 어종이 게난 일급이 다금바리 이급이 능성어, 북바리. 삼급이 돌돔, 갓돔 뭐 이런 그다음에 황돔 이렇게 헤서 황돔이 돔 중에서 제일 하위라.(거 어종이 그러니까 일급이 다금바리 이급이 능성어, 붉바리. 삼급이 돌돔, 감성돔 뭐 이런 그다음에 황돔 이렇게 해서 황돔이 돔 중에서 제일 하위야.)
107058 @ 요즘에는 냉장고 그런 거 때문에 반찬이 사시사철 먹을 수 잇인데 옛날에는 봄에 먹고 여름에 먹고 허는 게 종류가 달랏지예?(요즘에는 냉장고 그런 거 때문에 반찬이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봄에 먹고 여름에 먹고 하는 게 종류가 달랐지요?)
107058 #1 그러니까 주로 장아찌 종류, 젓 종류 먹엇지.(그러니까 주로 장아찌 종류, 젓 종류 먹었지.)
107058 @ 그럼 봄에만 주로 먹는 건 뭐가 잇엇주마씨?(그럼 봄에만 주로 먹는 건 뭐가 있었지요?)
107058 #1 봄에 종류는 뭐 멜 ᄀᆞ튼 거 들어오면은 우엉에 ᄂᆞ물 ᄀᆞ튼 거 갈앗다그넹 이 그거 멜국 끓여서 말이여 그것도 말이여 고기라고 멜도 고기라고 허거든.(봄에 종류는 뭐 멸치 같은 거 들어오면 텃밭에 나물 같은 거 갈았다가 그거 멸치국 끓여서 말이야 그것도 말이야 고기라고 멸치도 고기라고 하거든.)
107058 @ 예.(예.)
107058 #1 멜도 말이여 옛날도 그거를 말이지 헤서 멜국 끓여서 ᄂᆞ물도 금방 나오는 거 헤서 먹으면 맛잇어.(멸치도 말이야 옛날도 그거를 말이지 해서 멸치국 끓여서 나물도 금방 나오는 거 해서 먹으면 맛있어.)
107058 @ 꿩마농도 봄에 나오는데?(달래도 봄에 나오는데?)
107058 #1 꿩마농도 그거 헤다그넹 그 달래김치 담앙 먹고 또 꿩마농 그걸로 죽도 쒀 먹어.(달래도 그거 해다가 그 달래김치 담아서 먹고 또 달래 그걸로 죽도 쒀 먹어.)
107058 @ 거 맛은 어떵 헤마씨? 달래죽은?(거 맛은 어때요? 달래죽은?)

107058 #1 아니 무슨 뭐 거 마늘 종류로써는 아마 영양가가 대가리가 이 조금.(아니 무슨 뭐 거 마늘 종류로써는 아마 영양가가 대가리가 이 조금.)
107058 @ 예.(예.)
107058 #1 크주게. 이파리만 이렇게 잇어 가지고 그듸 아래 것이 영양분이 좋은 모양이라.(크지. 이파리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 아래 것이 영양분이 좋은 모양이야.)
107058 @ 어르신 그럼 여름에는 보통 물훼 먹잖아예?(어르신 그럼 여름에는 보통 물회 먹잖아요?)
107058 #1 ᄋᆞ.(어.)
107058 @ 그럼 우럭조림 ᄀᆞ튼 거는 언제 먹주마씨 우럭?(그럼 우럭조림 같은 거는 언제 먹지요 우럭?)
107058 #1 우럭은 주로 뭐 여름철에 말이지 그 저기 저 고망우럭이라고 헤서 뭐 옛날에는 낚시로 우럭 고망에만 살거든.(우럭은 주로 뭐 여름철에 말이지 그 저기 저 우럭 볼락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는 낚시로 우럭 구멍에만 살거든.)
107058 @ 예.(예.)
107058 #1 그게 젤 좋아허는 게 멜이라. 멜 꿰 가지고 주면 말이여 고망에 잇당 나와 가지고 비양도 가서는 멜만 가졍 가그넹 허면은 보통 사람도 열 개, 스무 개 낚아와.(그게 젤 좋아하는 게 멸치야. 멸치 꿰 가지고 주면 말이야 구멍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비양도 가서는 멸치만 가지고 가서 하면 보통 사람도 열 개, 스무 개 낚아와.)
107058 @ 아, 보통사람도마씨? 경 많이 헤 와마씨?(아, 보통사람도요? 그렇게 많이 해 와요?)
107058 #1 그렇게 많아 가지고 그거 헹 오면은 매운탕. 멜은 저기 저 우럭은 매운탕에 아주 일품이야. 우럭조림도 좋고.(그렇게 많아 가지고 그거 해서 오면 매운탕. 멸치는 저기 저 우럭은 매운탕에 아주 일품이야. 우럭조림도 좋고.)
107058 @ 그럼 고사리무침이나 호박무침 ᄀᆞ튼 거는 보통 가을, 겨울에 헹 먹엇인가마씨?(그럼 고사리무침이나 호박무침 같은 거는 보통 가을, 겨울에 해서 먹었었나요?)
107058 #1 그거는 주로 제사 때.(그거는 주로 제사 때.)
107058 @ 제사 때.(제사 때.)
107058 #1 멩질 때 그렇게 ᄒᆞ지. 일반 뭐 거 저 서민들은 말이지 고사리 무치거나 호박 무치거나 경 ᄒᆞ지 안 헤.(명절 때 그렇게 하지. 일반 뭐 거 저 서민들은 말이지 고사리 무치거나 호박 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107058 @ 그럼 겨울에는 주로 뭐 드셧주마씨? 출레로는 겨울에는?(그럼 겨울에는 주로 뭐 드셨지요? '출레'로는 겨울에는?)
107058 #1 겨울에는 뭐 주로 젓 종류도 먹고 콩국 ᄀᆞ튼 것도 먹고 콩국 주로 쒀 먹고 말이지 뭐 좀 그렇게 ᄒᆞ고 살앗지. 무슨 뭐 먹을 게 잇나.(겨울에는 뭐 주로 젓 종류도 먹고 콩국 같은 것도 먹고 콩국 주로 쒀 먹고 말이지 뭐 좀 그렇게 하고 살았지. 무슨 뭐 먹을 게 있나.)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그주마씨?(장은 언제 담그지요?)
107059 #1 그 장?(그 장?)
107059 @ 예.(예.)
107059 #1 뒌장 말이지?(된장 말이지?)
107059 @ 예.(예.)
107059 #1 뒌장은 지금 한 십이월 달에 거 제주도에 콩 장만헤 가지고.(된장은 지금 한 십이월 달에 거 제주도에 콩 장만해 가지고.)
107059 @ 예.(예.)
107059 #1 인제 그 콩 장만헤 가지고 거 이제 거둬들이면 그 콩 장만을 새콩을 갖고 십이월 달에 집에서 푹 끓여 가지고 그다음에 발로 붋거나 방에톡에 놔서 찌어 가지고.(인제 그 콩 장만해 가지고 거 이제 거둬들이면 그 콩 장만을 새콩을 갖고 십이월 달에 집에서 푹 끓여 가지고 그다음에 발로 밟거나 돌방아에 놔서 찌어 가지고.)
107059 @ 방에톡에 놔서?(돌방아에 놔서?)
107059 #1 방에. 방아에 이렇게 찌어 가지고 그 이제 요만큼 헤서 메주를 멘들어 가지고.(방아. 방아에 이렇게 찌어 가지고 그 이제 요만큼 해서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107059 @ 예.(예.)
107059 #1 찍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서 놧다그넹 한 이십일이나 한 달쯤 뒈면 그게 아마 숙성이 뒈는 모양이야 그래서.(짚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서 놨다가 한 이십일이나 한 달쯤 되면 그게 아마 숙성이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107059 @ 보통 십이월에 담간마씨?(보통 십이월에 담갔어요?)
107059 #1 응. 십이월에 나도 담그는 걸로 알고 잇인데.(어. 십이월에 나도 담그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7059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60 @ 그럼 장은 뒌장 말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잇잖아예?(그럼 장은 된장 말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107060 #1 뒌장 말고 뭐 고추장도 잇곡 뭐 뒌장에 이제 그 헐라면 소금물을 집어넣고 그 뭐 그 계란 띄어 가지고 소금의 농도를 딱 맞추려고 허면은 그 저기 메주에다가 소금물을 이제 놓는데.(된장 말고 뭐 고추장도 있고 뭐 된장에 이제 그 하려면 소금물을 집어넣고 그 뭐 그 계란 띄어 가지고 소금의 농도를 딱 맞추려고 하면 그 저기 메주에다가 소금물을 이제 놓는데.
107060 @ 예.(예.)
107060 #1 비율이 맞아야 간장도 나오고 그 뒌장도 숙성뒈고 허거든.(비율이 맞아야 간장도 나오고 그 된장도 숙성되고 하거든.)
107060 @ 아, 그럼 고추장도 십이월 달에 담간마씨?(아, 그럼 고추장도 십이월 달에 담갔어요?)

107060 #1 고추장은 뭐 별로 꼭 십이월 달에 담그는 게 아니고 고추가 그것도.(고추장은 뭐 별로 꼭 십이월 달에 담그는 게 아니고 고추가 그것도.)
107060 @ 예.(예.)
107060 #1 새로운 고추가 금년에 이제 뭐 한 시월 달 뒈면은 전부 다 수확이 뒈면은 그걸 이제 갈아 가지고 말이지(새로운 고추가 금년에 이제 뭐 한 시월 달 되면 전부 다 수확인 되면 그걸 이제 갈아 가지고 말이지.
107060 @ 예.(예.)
107060 #1 고추 딴 거를 말린 거를 갈아서 이제 분쇄헤 가지고 아주 그렇게 헤 가지고 인제 고추장을 만드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찹쌀가루인가 뭔가 쒀서 ᄀᆞ치 넣어서 만들고.(고추 딴 거를 말린 거를 갈아서 이제 분쇄해 가지고 아주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고추장을 만드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찹쌀가루인가 뭔가 쒀서 같이 넣어서 만들고.)
107061 @ 그럼 고추장이랑 뒌장이랑 간장 하나씩 간단허게 만드는 거 설명혜 줄 수 잇어마씨?(그럼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간장 하나씩 간단하게 만드는 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07061 #1 게. 그러니까 그 뒌장은 일단 그 콩을 콩을 사서.(그럼. 그러니까 그 된장은 일단 그 콩을 콩을 사서.)
107061 @ 예.(예.)
107061 #1 집에서 그걸 삶아 가지고.(집에서 그걸 삶아 가지고.)
107061 @ 예.(예.)
107061 #1 그걸 푹 삶은 다음에 발로 밟던지 아니면 방에톡에 넣어 가지고이. 찌어 가지고는 그거를 완전히 잘 그 제주도말로 민짝ᄒᆞ게[172] 잘 말이지 뻣아진 거를 사각형으로나 아니면 뭐 동글락허게 만들어 가지고.(그걸 푹 삶은 다음에 발로 밟던지 아니면 돌방아에 넣어 가지고. 찌어 가지고는 그거를 완전히 잘 그 제주도말로 '민짝ᄒᆞ게' 잘 말이지 빻아진 거를 사각형으로나 아니면 뭐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107061 @ 예.(예.)
107061 #1 이제 그 제주도 논에서 난 찍을 이용허지 안 ᄒᆞ면 메주가 그 뜨질 안 흔다 ᄒᆞ여.(이제 그 제주도 논에서 난 짚을 이용하지 않으면 메주가 그 뜨지를 않는다 해.)
107061 @ 아, 제주도 찍을 이용헤마씨?(아, 제주도 짚을 이용해요?)
107061 #1 ᄋᆞ. 제주 그 저기 저 논에서 나는 찍.(어. 제주 그 저기 저 논에서 나는 짚.)
107061 @ 예.(예.)
107061 #1 그 저기 나록찍이라고 헤 가지고 볏찍을 그걸 아래 깔던지 아니면 볏찍으로 무꺼서 이렇게 걸어놓고 헤 가지고는 한 이십 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숙성시켜 가지고 곰펭이가 피면.(그 저기 볏짚이라고 해 가지고 볏짚을 그걸 아래 깔든지 아니면

172) '민짝ᄒᆞ다'는 '미끈하고 평평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볏짚으로 묶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해 가지고는 한 이십 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숙성시켜 가지고 곰팡이가 피면.)
107061 @ 예.(예.)
107061 #1 그때 이제 그걸 잘 말리면 거기서 인제 깨끗ᄒᆞ게 곰팽이 ᄀᆞ튼 거 솔로 씻거내 가지고 그다음 항아리에 놔 가지고 항아리에 놓을 때도 제주도 뭐 보리찍이나 볏찍으로 그 항아리에다 말이지 균이 잇인 거라도.(그때 이제 그걸 잘 말리면 거기서 인제 깨끗하게 곰팡이 같은 거 솔로 씻겨내 가지고 그다음 항아리에 놔 가지고 항아리에 놓을 때도 제주도 뭐 보릿짚이나 볏짚으로 그 항아리에다 말이지 균이 있는 거라도.)
107061 @ 예.(예.)
107061 #1 그 전부 다 저기 저 죽여 버리려면 불로 그걸 항아리를 소독헤서 그다음에 깨끗허게 닦아난 다음에 메주 씻친 거를 놓고.(그 전부 다 저기 저 죽여 버리려면 불로 그걸 항아리를 소독해서 그다음에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메주 씻은 거를 놓고.)
107061 @ 예.(예.)
107061 #1 그다음 소금물을 이제 비율에 맞게 하려면 소금을 물에다가 뭐 이렇게 타면은 계란을 띄우면은 계란이 바르게 서면은 그 농도가 맞는다 ᄒᆞ여.(그다음 소금물을 이제 비율에 맞게 하려면 소금을 물에다가 뭐 이렇게 타면 계란을 띄우면 계란이 바르게 서면 그 농도가 맞는다고 해.)
107061 @ 아, 계란이 이렇게 뜨면마씨?(아, 계란이 이렇게 뜨면요?)
107061 #1 ᄋᆞ. 띄우면 겅 안 ᄒᆞ면 옆으로 논다거나 예를 들어서 싹 들어간다 허면은 그거는 뭔장에 들어갈 농도가 아니니까 그거를 조정헤 가지고 계란으로 그 딱 말이여 소금의 농도를 조정헤 가지고.(어. 띄우면 그렇게 안 하면 옆으로 논다거나 예를 들어서 싹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된장에 들어갈 농도가 아니니까 그거를 조정해 가지고 계란으로 그 딱 말이야 소금의 농도를 조정해 가지고.)
107061 @ 예.(예.)
107061 #1 그 항아리 깨끗이 소독헌 거에다가 닦아내 가지고 메주를 놓고 그다음에 소금물을 비워서 이제 그 천으로 말이지.(그 항아리 깨끗이 소독한 거에다가 닦아내 가지고 메주를 놓고 그다음에 소금물을 비워서 이제 그 천으로 말이지.)
107061 @ 예.(예.)
107061 #1 깨끗허게 우에다 말이여 싸 가지고 이렇게 덮어 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말이여 이제 숙성시켜 가지고 낮에는 헷볕 좀 보이게 열어주고 그렇게 딱 닫으면은 거기다가 말이여 가시나무 ᄀᆞ튼 거 놓고 말이여 숫허고 고추 놔 가지고 말이여 이렇게 좀 눌러.(깨끗하게 위에다 말이야 싸 가지고 이렇게 덮어 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말이야 이제 숙성시켜 가지고 낮에는 햇볕 좀 보이게 열어주고 그렇게 딱 닫으면 거기다가 말이야 가시나무 같은 거 놓고 말이야 숯하고 고추 놔 가지고 말이여 이렇게 좀 눌러.)
107061 @ 예.(예.)
107061 #1 그 메주가 올라오주 못허도록. 게서 그게 소금물에다가 잘 말이지 두 달 정도 숙성이 뒈면은.(그 메주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게 소금물에다가 잘 말이

지 두 달 정도 숙성이 되면.)
107061 @ 예.(예.)
107061 #1 인제 그 숙성이 됏다고 생각허면이 그다음에는 우에서 걷어내서 고추 숫ᄀᆞ튼 거는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을 다 소독도 헤주고 뭐 이렇게 고추허고 숫을 놓거든.(인제 그 숙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위에서 걷어내서 고추 숯 같은 거는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을 다 소독도 해주고 뭐 이렇게 고추하고 숯을 놓거든.)
107061 @ 예.(예.)
107061 #1 이제 그걸 걷어내서 이제 이렇게 그 메주를 끄내면.(이제 그걸 걷어내서 이제 이렇게 그 메주를 꺼내면.)
107061 @ 예.(예.)
107061 #1 쪼금 물렁물렁헤.(쪼금 물렁물렁해.)
107061 @ 예.(예.)
107061 #1 아, 이제는 이게 숙성이 됏구나 홀 때는 인제 그걸 다 끄집어내서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헤서 메주를 풀거든(아, 이제는 이게 숙성이 됐구나 할 때는 인제 그걸 다 끄집어내서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메주를 풀거든?)
107061 @ 예.(예.)
107061 #1 푼 다음에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담는 거라.(푼 다음에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담는 거야.)
107061 @ 어르신 뭰장 만드는 거 잘 아신다예?(어르신 된장 만드는 거 잘 아시는군요?)
107061 #1 그래 가지고 그 물은.(그래 가지고 그 물은.)
107061 @ 예.(예.)
107061 #1 따로 놓고 그 물은 이제 말허자면 간장이야.(따로 놓고 그 물은 이제 말하자면 간장이야.)
107061 @ 아.(아.)
107061 #1 그 소금물이 우리가 사용ᄒᆞ는 간장이거든.(그 소금물이 우리가 사용하는 간장이거든.)
107061 @ 예.(예.)
107061 #1 그 간장은 간장대로 사용ᄒᆞ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주물럭주물럭헤 가지고 딱 눌러 가지고 인제 항아리에 딱 놓아 가지고 또 우에다가 천으로 더끄어 가지고 고무줄로 사서 항아리 우에 덮개를 더끄어 가지고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숙성헤.(그 간장은 간장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주물럭주물럭해 가지고 딱 눌러 가지고 인제 항아리에 딱 놓아 가지고 또 위에다가 천으로 덮어 가지고 고무줄로 사서 항아리 위에 덮개를 덮어 가지고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숙성해.)
107061 @ 예.(예.)
107061 #1 숙성헤 가지고 우에다가 곰팽이 ᄀᆞ튼 거 피면.(숙성해 가지고 위에다가 곰팡이 같은 거 피면.)

107061 @ 예.(예.)
107061 #1 그거를 싹 걷어내 가지고 그때부터는 먹어도 뒈는 거주게.(그거를 싹 걷어내 가지고 그때부터는 먹어도 되는 거지.)
107061 @ 아, 그게 뒌장?(아, 그게 된장?)
107061 #1 으. 그게 뒌장이야. 거 뒌장 만드는 법은 그렇게 헤서 뒌장이 뒈는 걸로 난 알고 잇어.(어. 그게 된장이야. 거 된장 만드는 법은 그렇게 해서 된장이 되는 걸로 난 알고 있어.)
107061 @ 그럼 뒌장 말앙 고추장은 어떵 만들주마씨?(그럼 된장 말고 고추장은 어떻게 만들지요?)
107061 #1 고추장은 쉬워. 고추장은 뭐 고추 헷고추 사다가.(고추장은 쉬워. 고추장은 뭐 고추 햇고추 사다가.)
107061 @ 예.(예.)
107061 #1 그 방앗간 ᄀᆞ튼 데 가서 갈아 가지고 아주 좀질게 갈아 가지고 오면은 그걸 놓고 찹쌀인가 뭐 그 저기 풀 쒀 가지고.(그 방앗간 같은 데 가서 갈아 가지고 아주 잘게 갈아 가지고 오면 그걸 놓고 찹쌀인가 뭐 그 저기 풀 쒀 가지고.)
107061 @ 예.(예.)
107061 #1 그거 같이 놔 가지고 막 저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무슨 여러 가지 메실 ᄀᆞ튼 것도 메실도 넣어서 ᄒᆞ면은 메실고추장도 뒈고 마늘로 넣엉 마늘고추장도 뒈고 이런 식으로 다양허게 고추장에 들어가는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그거 같이 놔 가지고 막 저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무슨 여러 가제 매실 같은 것도 매실도 넣어서 하면 매실고추장도 되고 마늘로 넣어서 마늘고추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고추장에 들어가는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
107061 @ 아, 그럼 고추장은 뒌장보다 좀 만들기 쉬운 거 닮다예?(아, 그럼 고추장은 된장보다 좀 만들기 쉬운 거 같군요?)
107061 #1 으. 아주 쉽지 그건. 그건 아주 바로 숙성허거나 그런 것도 엇어.(어. 아주 쉽지 그건. 그건 아주 바로 숙성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107061 @ 그 뒌장은 아까 십이월 즈음에 담근다고 헷잖아예?(그 된장은 아까 십이월 즈음에 담근다고 했잖아요?)
107061 #1 으. 십이월 달이나 일월 달 쯤에 담그주게.(어. 십이월 달이나 일월 달 쯤에 담그지.)
107062 @ 그럼 메주는 메주 쑤는 것도 그냥 그때 시기에 비슷허게 허겟다예?(그럼 메주는 메주 쑤는 것도 그냥 그때 시기에 비슷하게 하겠군요?)
107062 #1 으. 게난 아무튼 콩이 한 시월 달이면 다 장만뒈거든(어. 그러니까 아무튼 콩이 한 시월 달이면 다 장만되거든.)
107062 @ 예.(예.)
107062 #1 이제 다 장만이 끗나거든 십일월 달이지마는 시월 달 정도 뒈면 콩이 다 장만뒈서 출하뒈면 헷콩으로 사다가.(이제 다 장만이 끝나거든 십일월 달이지마는 시월

달 정도 되면 콩이 다 장만되서 출하되면 햇콩으로 사다가.)
107062 @ 예.(예.)
107062 #1 거 집에서 말이지 이제 그걸 깨끗이 씻어서 푹 한 이십사 시간은 아니라도 한 열 몇 시간을 말이여 집에서 큰 가마솟에서 헤서 이렇게 삶아그넹.(거 집에서 말이지 이제 그걸 깨끗이 씻어서 푹 한 이십사 시간은 아니라도 한 열 몇 시간을 말이야 집에서 큰 가마솥에서 해서 이렇게 삶아서.)
107062 @ 예.(예.)
107062 #1 꺼내 가지고 이제 작업ᄒᆞ는 거야. 다락에 놔서 발로 붋던지 아니면 방에톡에 놔서 찌던지 건줌 다 그 알갱이가 뭐 다 잘 헤졋을 때는 그다음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달아놓는 거주게.(꺼내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거야. 다락에 놔서 발로 밟든지 아니면 돌방아에 놔서 찌던지 거의 다 그 알갱이가 뭐 다 잘 해졌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달아놓는 거지.)
107063 @ 장 담글 때 잇잖아예?(장 담글 때 있잖아요?)
107063 #1 ᄋᆞ.(어.)
107063 @ 뭐 보통 우리가 중요한 일 허면 뭐 하지마라 뭐 하지마라 금기하는 거 잇잖아예.(뭐 보통 우리가 중요한 일 하면 뭐 하지마라 뭐 하지마라 금기하는 거 있잖아요.)
107063 #1 장 담그면은 부정 탄 사람 들어오지 말라 헷어. 그 옛날에는 금줄이라고 헤서.(장 담그면 부정 탄 사람 들어오지 말라 했어. 그 옛날에는 금줄이라고 해서.)
107063 @ 예.(예.)
107063 #1 집 앞에다가 그 뭐 이렇게 저 새끼줄로 꼰 거에다가 뭐 꼬치 ᄀᆞ튼 거 ᄒᆞ고 숫 ᄀᆞ튼 거ᄒᆞ고 뭐 이렇게 꼽아 가지고 금줄이라고 헤 가지고 그거를 맷어.(집 앞에다가 그 뭐 이렇게 저 새끼줄로 꼰 거에다가 뭐 꼬치 같은 거하고 숯 같은 거하고 뭐 이렇게 꼽아 가지고 금줄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맸어.)
107063 @ 예.(예.)
107063 #1 장 담그면은 부정 탄 사람이 들어오면은 장이 말이여 고리고 뭐 헤서 잘 안 뭰다헤서 그거는 옛날 내려오는 하나의 그 풍속이지.(장 담그면 부정 탄 사람이 들어오면 장이 말이야 고리고 뭐 해서 잘 안 된다해서 그거는 옛날 내려오는 하나의 그 풍속이지.)
107063 @ 예.(예.)
107063 #1 뭐 그렇다고 뭐 부정헌 사람 왓다고 헤서 고리거나 말이여 못 먹을 정도로 뒈거나 ᄒᆞ지 않은 건데.(뭐 그렇다고 뭐 부정한 사람 왔다고 해서 고리거나 말이야 못 먹을 정도로 되거나 하지 않은 건데.)
107063 @ 예.(예.)
107063 #1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헷다는 말이 잇곡 직접 나도 그런 거 단 거 본 것도 잇곡 헷어.(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고 직접 나도 그런 거 단 거 본 것오 있고 했어.)

떡류

107064 @ 떡 종류가 뭐, 뭐 잇언마씨?(떡 종류가 뭐, 뭐 있었어요?)

107064 #1 떡은 옛날부터 보리상왜떡[173]이옌 ᄒᆞᆫ 것도 잇곡 보리로 멘든 상왜떡.(떡은 옛날부터 '보리상왜떡'이라고 한 것도 있고. 보리로 만든 '상왜떡'.)

107064 @ 아, 보리상왜떡.(아, '보리상왜떡'.)

107064 #1 ᄋᆞ. 보리상왜떡이옌 ᄒᆞᆫ 게 제주에서 우리 어릴 때는 주로 말이여 먹을 거 엇엇을 때는 보리 갈아 가지고.(어. '보리상왜떡'이라고 한 게 제주에서 우리 어릴 때는 주로 말이야 먹을 거 없었을 때는 보리 갈아 가지고.)

107064 @ 예.(예.)

107064 #1 그걸 이제 그 저기 그 막걸리 ᄀᆞ튼 걸로 놔서 말이지 그 저기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말이여 ᄯᅳᆺ한 방에 놓으면은 소다 ᄀᆞ튼 거 쪼끔 넣으면은 그 상왜떡 만드는 원료가 조금 부풀어 올르면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찌어 가지고 만들엉 먹은 게 보리상왜떡이고.(그걸 이제 그 저기 그 막걸리 같은 걸로 놔서 말이지 그 저기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말이야 따뜻한 방에 놓으면 소다 같은 거 쪼끔 넣으면 그 '상왜떡' 만드는 원료가 조금 부풀어 오르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찌어 가지고 만들어서 먹은 게 '보리상왜떡'이고.)

107064 @ 예.(예.)

107064 #1 조침떡이라고 헤서 조에다가 조 갈아 가지고.(조침떡이라고 해서 조에다가 조 갈아 가지고.)

107064 @ 예.(예.)

107064 #1 감자 ᄀᆞ튼 거 막 썰어서 그 안에 같이 버무려 가지고 침떡으로 말이여 이런 시리에 넣어 가지고 찌어 가지고 헹 조침떡.(감자 같은 거 막 썰어서 그 안에 같이 버무려 가지고 시루떡으로 말이야 이런 시루에 넣어 가지고 찌어 가지고 해서 조침떡.)

107064 @ 조침떡.(조침떡.)

107064 #1 조침떡은 감자 ᄀᆞ튼 것도 채로 썰어서 그래 놔 가지고는 ᄒᆞ여서 젤 위에는 팟 ᄀᆞ튼 거 놔 가지고는 말이지 이렇게 만드는 조침떡이 잇고.(조침떡은 감자 같은 것도 채로 썰어서 그래 놔 가지고는 해서 젤 위에는 팥 같은 거 놔 가지고는 말이지 이렇게 만드는 조침떡이 있고.)

107064 @ 예.(예.)

107064 #1 또 감제떡[174]도 잇어. 감저 그 저기 고구마 말려 가지고.(또 '감제떡'도 있어. 고구마 그 저기 고구마 말려 가지고.)

107064 @ 예.(예.)

---

173) '상왜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족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74) '감제떡'은 '제주도 지방 향토 음식의 하나로 고구마를 말려서 빻은 가루에 얇게 썬 날고구마를 버무려 찐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7064 #1 썰어서 말린 거를 분쇄헤 가지고 그걸로 만들엉 먹은 것이 감제떡. 그것도 상당히 맛잇인 것이엇고.(썰어서 말린 거를 분쇄해 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서 먹은 것이 '감제떡'. 그것도 상당히 맛있는 것이었고.)

107064 @ 예.(예.)

107064 #1 또 이제 주로 말이지 저기 제사에 멩질에나 쓰는 거는.(또 이제 주로 말이지 저기 제사에 명절에나 쓰는 거는.)

107065 @ 시루떡 알잖아예? 시루떡은 재료랑 어떵 만들주마씨?(시루떡 알잖아요? 시루떡은 재료랑 어떻게 만들지요?)

107065 #1 재료는 쏠가루. 그 주로 여기서 말하자면 나록쌀이라고 헤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ᄒᆞ는 게 시루떡에서 제일.(재료는 쌀가루. 그 주로 여기서 말하자면 입쌀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갈아 가지고 하는 게 시루떡에서 제일.)

107065 @ 아.(아.)

107065 #1 그 저기 근본이 쌀가루로 만드는 것이 시루떡이고.(그 저기 근본이 쌀가루로 만드는 것이 시루떡이고.)

107065 @ 그거는 어떵 만들주마씨?(그거는 어떻게 만들지요?)

107065 #1 그것도 아까 조침떡 만들 듯이.(그것도 아까 조침떡 만들 듯이.)

107065 @ 예.(예.)

107065 #1 그 저 그 이렇게 물 쫌 살짝 버무려 가지고 그다음에 말이여.(그 저 그 이렇게 물 쫌 살짝 버무려 가지고 그다음에 말이야.)

107065 @ 예.(예.)

107065 #1 시루에 놔 가지고 한 층 놔 가지고 팟 좀 넣고 또 한 층 놔서 또 팟 놓고 헤서 쭉 우에까지 이렇게 헤서 딱 이제 그 우에 더꺼 가지고 아래서 솟에 놔 가지고 찌거든.(시루에 놔 가지고 한 층 놔 가지고 팥 좀 넣고 또 한 층 놔서 또 팥 놓고 해서 쭉 위에까지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그 위에 엎어 가지고 아래에서 솥에 놔 가지고 찌거든.)

107065 @ 예.(예.)

107065 #1 시루를 그렇게 찌면은 뭐 한 시간 정도인가 찌면은 그게 영 떡이 뒈서 나오고.(시루를 그렇게 찌면 뭐 한 시간 정도인가 찌면 그게 이렇게 떡이 되서 나오고.)

107065 @ 예.(예.)

107065 #1 그다음에 시루떡 종류로 곤떡이라고 헤 가지고 곤떡은 쌀로 쌀가루로 헤 가지고 동글락 헌 떡도 만들고 반달떡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곡.(그다음에 시루떡 종류로 흰떡이라고 해 가지고 흰떡은 쌀로. 쌀가루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한 떡도 만들고 반달떡도 만들고 송편도 만들고.)

107066 @ 그럼 그 송편은 어떵 헤그넹 만들어마씨?(그럼 그 송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107066 #1 것도 쌀가루로 주로 재료는 쌀가루로 만드는 거야.(것도 쌀가루로 주로 재료는 쌀가루로 만드는 거야.)

107066 @ 그럼 송편이랑 곤떡이랑 다른 거마씨?(그럼 송편이랑 흰떡이랑 다른 거예

요?)
107066 #1 아니 그것도 옛날말로 말허자면 그거 하얗게 헤서 곱다고 헤서 곤떡이고 곤밥이고 이렇게 헷어.(아니 그것도 옛날말로 말하자면 그거 하얗게 해서 곱다고 해서 '곤떡'이고 '곤밥'이고 이렇게 했어.)
107066 @ 예.(예.)
107066 #1 밥도 옛날은 보리밥 먹다가 곤밥이라 헷거든.(밥도 옛날은 보리밥 먹다가 '곤밥'이라고 했거든.)
107066 @ 예.(예.)
107066 #1 왜 곤밥이라 헷느냐. 쌀밥이지마는 밥이 보리밥은 호꼼 거무룽ᄒᆞ고 쌀밥은 희고 하니까 곱다고 헤서 곤밥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곤밥, 곤쏠 뭐 이렇게 곤죽.(왜 '곤밥'이라 했느냐. 쌀밥이지마는 밥이 보리밥은 조금 거무룩하고 쌀밥은 희고 하니까 곱다고 해서 '곤밥'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곤밥', '곤쏠' 뭐 이렇게 '곤죽'.
107066 @ 예.(예.)
107066 #1 곤죽도 쌀로 쑨 죽은 곤죽이고 이렇게 헤 가지고 곱다는 뜻을 표현허기 위헤 가지고 그걸 사용헌 거 같애.('곤죽'도 쌀로 쑨 죽은 '곤죽'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곱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사용한 거 같아.)
107067 @ 그면 우리 제주도에서 빙떡 먹잖아예?(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빙떡 먹잖아요?)
107067 #1 빙떡은게 모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빙떡은 메밀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107067 @ 예.(예.)
107067 #1 모밀가루를 말이지 잘 말이지 저 갈아다가 말이지 뭐 물 놔서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뭐 후라이판에 놔 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면은 무수는 꼭 들어가야 돼 무수.(메밀가루를 말이지 잘 말이지 저 갈아다가 말이지 뭐 물 놔서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뭐 프라이팬에 놔 가지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무는 꼭 들어가야 돼 무.)
107067 @ 예.(예.)
107067 #1 무 삶아서 이렇게 채로 썬 거ᄒᆞ고 콩나물도 옛날엔 조금 들어가고.(무 삶아서 이렇게 채로 썬 거하고 콩나물도 옛날엔 조금 들어가고.)
107067 @ 예.(예.)
107067 #1 그 웨로는 이제는 뭐 잡채 ᄀᆞ튼 것도 이제는 넣는다고 허더라고 이제는 그런 거를 안에 속에다 넣고.(그 외로는 이제는 뭐 잡채 같은 것도 이제는 넣는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그런 거를 안에 속에다 넣고.)
107067 @ 예.(예.)
107067 #1 이렇게 말아서 먹엇는데 그게 이제 음식 궁합이 잘 맞는 것은 모밀허고 무가 아주 궁합이 잘 맞아 가지고 소화도 잘 뒈고 피도 맑게 헤 주는 것도 잇다고 헤 가지고.(이렇게 말아서 먹었는데 그게 이제 음식 궁합이 잘 맞는 것은 메밀하고 무가 아주 궁합이 잘 맞아 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피도 맑게 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해 가지고.)

107067 @ 예.(예.)
107067 #1 그리고 뭐 그 콩나물 ᄀᆞ튼 거는 술 먹어난 사람들 해독도 뭐 아스파라기산 ᄀᆞ튼 게 콩나물에 많이 들어잇어 가지고 무수허고 콩나물은 꼭 놔 가지고 말이여 빙떡을 만들어.(그리고 뭐 그 콩나물 같은 거는 술 먹어본 사람들 해독도 뭐 아스파라기산 같은 게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무하고 콩나물은 꼭 놔 가지고 말이야 빙떡을 만들어.
107067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7067 #1 다른 거는 이제까지 놔서 만드는 거 별로 못 봣어.(다른 거는 이제까지 놔서 만드는 거 별로 못 봤어.)
107067 @ 아, 빙떡은 무수랑 콩나물마씨?(아, 빙떡은 무랑 콩나물요?)
107067 #1 그 안에.(그 안에.)
107067 @ 예.(예.)
107067 #1 재료로 그걸 만들어서 놔 가지고 말이여 말아 가지고 먹엇어.(재료로 그걸 만들어서 놔 가지고 말이야 말아 가지고 먹었어.)
107068 @ 상왜떡은 뭐주마씨?('상왜떡'은 뭐지요?)
107068 #1 그 상왜떡 아까 얘기헌 게 보리상왜떡이라고.(그 '상왜떡' 아까 얘기한 게 '보리상왜떡'이라고.)
107068 @ 보리상왜떡.('보리상왜떡'.)
107068 #1 어. 그게 보릿가루로 헤 가지고 옛날에는.(어. 그게 보릿가루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107068 @ 예.(예.)
107068 #1 그 곤쌀 ᄀᆞ튼 게 별로 엇이니까.(그 흰쌀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107068 @ 예.(예.)
107068 #1 그 보리를 갈아다가 보리상왜떡으로 헤서 먹엇거든.(그 보리를 갈아다가 '보리상왜떡'으로 해서 먹었거든.)
107068 @ 예.(예.)
107068 #1 누룩 헤 가지고 누룩 헌 거허고 뭐 그 저기 보리 갈아온 가루허고 막걸리 ᄀᆞ튼 거랑 막 찌어 가지고 가루를 반죽헤서 따뜻헌 데 한 몇 시간, 두세 시간 놔두면.(누룩 해 가지고 누룩 한 거하고 뭐 그 저기 보리 갈아온 가루하고 막걸리 같은 거랑 막 찌어 가지고 가루를 반죽해서 따뜻한 데 한 몇 시간, 두세 시간 놔두면.)
107068 @ 예.(예.)
107068 #1 그게 자연히 소다 ᄀᆞ튼 것도 넣고 헤그넹 부풀어 올라. 그때부터는 동글락허게 마름모로 헤그넹 만들어 가지고 그 저기 그 치는 거주게.(그게 자연히 소다 같은 것도 넣고 해서 부풀어 올라. 그때부터는 동그랗게 마름모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저기 그 치는 거지.)
107069 @ 그럼 제사할 때도 영 떡 올리잖아예?(그럼 제사할 때도 이렇게 떡 올리잖아요?)

107069 #1 ᄋᆞ.(어.)
107069 @ 뭐, 뭐 올리주마씨?(뭐, 뭐 올리지요?)
107069 #1 제사떡에는 옛날에는 그 뭐 보리상왜떡이나 우리 어릴 때에는 조침떡 ᄀᆞ튼 거. 또 저기 저 시루떡 ᄀᆞ튼 것도 잇주마는 주로 그때 제사에도 곤떡도 쪼금 헷어. 많이는 안 헤도.(제사떡에는 옛날에는 그 뭐 '보리상왜떡'이나 우리 어를 때에는 조침떡 같은 거. 또 저기 저 시루떡 같은 것도 있지마는 주로 그때 제사에도 흰떡도 쪼금 했어. 많이는 안 해도.)
107069 @ 곤떡?(흰떡?)
107069 #1 동글락헌 곤떡도 잇곡 반달도 잇곡 송편도 잇곡 이런 종류는 쪼금씩 말이여 헤서 말이여 제사지낸 걸로 알고 잇어.(동그란 흰떡도 있고 반달도 있고 송편도 있고 이런 종류는 쪼금씩 말이야 해서 말이야 제사지낸 걸로 알고 있어.)
107070 @ 상례 때는 떡이 제사 때랑은 다르지 않아마씨?(상례 때는 떡이 제사 때랑은 다르지 않아요?)
107070 #1 상례?(상례?)
107070 @ 예.(예.)
107070 #1 상례홀 때도 떡은 어느 정도 말이여 곤떡 종류는 쪼금 헤 가지고 상에 영상에 올리고 ᄒᆞ는 거는 곤떡 종류도 쓰긴 썻어.(상례할 때도 떡은 어느 정도 말이야 흰떡 종류는 쪼금 해 가지고 상에 이렇게 상에 올리고 하는 거는 흰떡 종류도 쓰긴 썼어.)
107071 @ 어르신 설기떡도 들어보션마씨?(어르신 백설기도 들어보셨어요?)
107071 #1 설기, 설기떡이옌 ᄒᆞᆫ 거는 잘 안들어봣네.(설기, 백설기라고 한 거는 잘 안들어봤네.)
107072 @ 인절미도 만들지 않안씨?(인절미도 만들지 않았어요?)
107072 #1 ᄋᆞ. 인절미도 만들엇지. 인절미가 곤떡이여 곤떡.(어. 인절미도 만들었지. 인절미가 흰떡이야 흰떡.)
107072 @ 곤떡에다가 콩고물 무치는 거마씨?(흰떡에다가 콩고물 무치는 거예요?)
107072 #1 ᄋᆞ.(어.)
107073 @ 절편 잇잖아예?(절편 있잖아요?)
107073 #1 절편.(절편.)
107073 @ 절편은 어떵 만드는 거주마씨?(절편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요?)
107073 #1 절편 ᄀᆞ튼 게 그 아마 저 이렇게 썰어 가지고 만든 건데 (절편 같은 게 그 아마 저 이렇게 썰어 가지고 만든 건데.
107073 @ 예.(예.)
107073 #1 그 기증펜을 썰어 가지고 만든 것이 절편 아닌가 난 보는데.(그 기주떡을 썰어 가지고 만든 것이 절편 아닌가 난 보는데.)
107074 @ 솔변[175] 잇잖아예?('솔변' 있잖아요?)

175) '솔변'은 '반월형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솔벤, 솔펜, 수랑곤떡'이라고도 한다.

107074 #1 솔변은 이제 소나무 잎사귀를 따다가.(‘솔변’은 이제 소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107074 @ 예.(예.)
107074 #1 아래 놔서 그 곤떡을 만들거나 저기 저 송편 ᄀᆞ튼 걸 만들면 일단 찌면 솔잎 위에다 놔서 식혓거든.(아래 놔서 그 흰떡을 만들거나 저기 저 송편 같은 걸 만들면 일딴 찌면 솔잎 위에다 놔서 식혔거든.
107074 @ 예.(예.)
107074 #1 그렇게 헤서 식혀야 이 곤떡이 제 향기가 인제 나오고 맛도 잇곡 그 밑에다가 솔잎 뜯어온 거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물기 없게 헤서 ᄒᆞ주게.(그렇게 해서 식혀야 이 흰떡이 제 향기가 인제 나오고 맛도 있고 그 밑에다가 솔잎 뜯어온 거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물기 없게 해서 하지.)
107075 @ 웃기떡도 들어보션마씨?(웃기떡도 들어보셨어요?)
107075 #1 웃기떡 ᄀᆞ튼 거는 곤떡으로 별떡 ᄀᆞ튼 걸로 만들어. 그게 이 그것도 기름에 튀겨 가지고 쌀가루로 만드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제 그 설탕이나 꿀에나 이렇게 헤서 먹으면은 아주 맛잇주게.(웃기떡 같은 거는 흰떡으로 별떡 같은 걸로 만들어. 그게 이 그것도 기름에 튀겨 가지고 쌀가루로 만드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제 그 설탕이나 꿀에나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지.)
107076 @ 고사 지낼 때나 어디 당에 갈 때도 떡 가져가잖아예?(고사 지낼 때나 어디 당에 갈 때도 떡 가져가잖아요?)
107076 #1 ᄋᆞ.(어.)
107076 @ 그믄 뭐 다른 특별헌 떡이 잇인가마씨?(그러면 뭐 다른 특별한 떡이 있었나요?)
107076 #1 아니 당 ᄀᆞ튼 데 갈 때는 주로 뭐 촛불 가서 싸고 무슨 말이지 뭐 떡은 말이지 곤떡, 반달떡이나 달떡, 별떡 ᄀᆞ튼 거 간단히 헤 가지고 서낭당에 올라가서 빌어오고 크게 뭐 다른 건 엇고.(아니 당 같은 데 갈 때는 주로 뭐 촛불 가서 켜고 무슨 말이지 뭐 떡은 말이지 흰떡, 반달떡이나 달떡, 별떡 같은 거 간단히 해 가지고 서낭당에 올라가서 빌고 오고 크게 뭐 다른 건 없고.)
107077 @ 그면 굿헐 때는 굿헐 때도 마찬가지지예?(그러면 굿할 때는 굿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107077 #1 굿헐 때도 뭐 여러 가지 말이여 떡 종류는 곤떡 말이여 떡은 말이지 거 올렷어. 저기 저 침떡 헤그넹 말이지.(굿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말이야 떡 종류는 흰떡 말이야 떡은 말이지 거 올렸어. 저기 저 시루떡 해서 말이지.)
107077 @ 예.(예.)
107077 #1 그 쌀로 멘들어그넹 그런 떡 우에는.(그 쌀로 만들어서 그런 떡 위에는.)
107077 @ 예.(예.)
107077 #1 침떡 우에는 곤떡 올리주게.(시루떡 위에는 흰떡 올리지.)
107077 @ 침떡은 또 뭐꽝?(‘침떡’은 또 뭐입니까?)

107077 #1 침떡은 시루떡.(‘침떡’은 시루떡.)
107077 @ 아, 시루떡.(아, 시루떡.)
107077 #1 어. 시루떡을.(어. 시루떡을.)
107077 @ 예.(예.)
107077 #1 쌀로 이렇게 만들어그넹 쌀 일단 요만큼 간격으로 떡 두께로 놔그넹 그다음에 팟을 또 놔.(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쌀 일단 요만큼 간격으로 떡 두께로 놔서 그다음에 팥을 또 놔.)
107077 @ 예.(예.)
107077 #1 팟 그다음 또 요만헌 두께까지 가루 놓고 그 우에 또 뭐냐면은 팟 놓고 그렇게 허면 떡이 층층층층 뒈니까 이레 썰면 딱 들어나게 뒈주게. 딱 한꺼번에 ᄒᆞ면은 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침떡을 만들 때는 그렇게 헤서 만들어서 시루에서 이렇게 다 뒈면 엎어 놓으면 이렇게 들르면 시루만 나오게 뒈어.(팥 그다음 또 요만한 두께까지 가루 놓고 그 위에 또 뭐냐면 팥 놓고 그렇게 하면 떡이 층층층층 되니까 이리 썰면 딱 들어나게 되지. 딱 한꺼번에 하면 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시루떡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시루에서 이렇게 다 되면 엎어 놓으면 이렇게 들면 시루만 나오게 되어.)
107077 @ 예.(예.)
107077 #1 그다음에 칸칸 들러내면게 그다음에 이제 썰어서 이제는 자기 먹기 좋게 썰던지.(그다음에 칸칸 들어내면 그다음에 이제 썰어서 이제는 자기 먹기 좋게 썰든지.)
107077 @ 예.(예.)
107077 #1 길게 사용허려면 길게 사용허고 반으로 사용허려면 반으로 사용허게 헤서 사용허게끔 만드는 거주.(길게 사용하려면 길게 사용하고 반으로 사용하려면 반으로 사용하게 해서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지.)
107078 @ 요즘에는 제사 때나 명절 때 아니면 떡 잘 안 먹잖아예?(요즘에는 제사 때나 명절 때 아니면 떡 잘 안 먹잖아요?)
107078 #1 ᄋᆞ.(어.)
107078 @ 옛날도 마찬가진가마씨?(옛날도 마찬가지였나요?)
107078 #1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엇으니까 제사나 멩질 아니면 떡 먹을 기회가 엇엇지.(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제사나 명절 아니면 떡 먹을 기회가 없었지.)

소와 고물

107079 @ 떡 안에 막 들어가는 소나 고물 ᄀᆞ튼 거.(떡 안에 막 들어가는 소나 고물 같은 거.)
107079 #1 그거는 옛날에는 그 저기 팟도 들어가고.(그거는 옛날에는 그 저기 팥도 들어가고.)
107079 @ 예.(예.)

107079 #1 녹두라고 헤서 녹두도 삶아서 그 들어가고 옛날에는 콩가루도 넣고 그 저기 송편에 그 안에 콩가루도 놔서 말이지 먹고 헷어.(녹두라고 해서 녹두도 삶아서 그 들어가고 옛날에는 콩가루도 넣고 그 저기 송편에 그 안에 콩가루도 놔서 말이지 먹고 했어.

107079 @ 예.(예.)

107079 #1 콩가루도 넣고 허면 아주 맛잇어. 팟, 녹두, 콩가루 이런 것들을 주로 안에 소재로 놔서 만들어.(콩가루도 넣고 하면 아주 맛있어. 팥, 녹두, 콩가루 이런 것들을 주로 안에 소재로 놔서 만들어.)

107079 @ 떡마다 넣는 게 다른가마씨 아니면?(떡마다 넣는 게 다른가요 아니면?)

107079 #1 그렇지 뭐 다 틀리겟지. 빙떡 ᄀᆞ튼 거는 무수ᄒᆞ고 뭐 콩나물 넣고 ᄒᆞ듯이 송편에는 콩가루나 팟이나 녹두 ᄀᆞ튼 거 이런 거 이렇게 떡마다 다 틀려. 만두 ᄀᆞ튼 거 만두떡에는 말이지 돼지고기 다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이지 뭐 이런 거 놔 가지고 만들어서 알맹이는 떡마다 종류가 다 틀려.(그렇지 뭐 다 다르겠지. 빙떡 같은 거는 무하고 뭐 콩나물 넣고 하듯이 송편에는 콩가루나 팥이나 녹두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떡마다 다 달라. 만두 같은 거 만두떡에는 말이지 돼지고기 다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이지 뭐 이런 거 놔 가지고 만들어서 알맹이는 떡마다 종류가 다 달라.)

107081 @ 떡 만들 때 뭐 하지마라 이런 건 엇엇지예?(떡 만들 때 뭐 하지마라 이런 건 없었지요?)

107081 #1 떡 만들 때도 뭐 별로 옛날 사람들 떡 칠 때는 정지. 옛날에 부엌을 정지라 헷거든.(떡 만들 때도 뭐 별로 옛날 사람들 떡 칠 때는 '정지'. 옛날에 부엌을 '정지'라 했거든.)

107081 @ 예.(예.)

107081 #1 정지에 왓다갓다 영 헤 가면은 부정탄다 헤 가지고. 떡 삶을 때는 왓다갓다 영 허지 마라는 그런 말 어릴 때 들어낫주게.(부엌에 왔다갔다 이렇게 해 가면 부정탄다 해 가지고. 떡 삶을 때는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 마라는 그런 말 어릴 때 들었었지.)

별식

107082 @ 순대는 지금도 먹고 옛날에도 먹엇잖아예?(순대는 지금도 먹고 옛날에도 먹었잖아요?)

107082 #1 순대?(순대?)

107082 @ 예.(예.)

107082 #1 순대는 돼지 잡아 가지고 뭐 잔치헐 때나 말이여 영장이라고 헤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면 장례 지내려면 돼지를 꼭 잡앗거든 옛날엔.(순대는 돼지 잡아 가지고 뭐 잔치할 때나 말이야 장사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면 장례 지내려면 돼지를 꼭 잡았거든 옛날엔.)

107082 @ 예.(예.)
107082 #1 잘사는 집이든 못사는 집이든 돼지를 잡앗고.(잘사는 집이든 못사는 집이든 돼지를 잡았고.)
107082 @ 예.(예.)
107082 #1 잘사는 집은 두 마리, 세 마리 잡앗고. 못사는 집은 한 마리도 잡고 이렇게 헤 가지고 헐 때는 돼지에서 나오는 그 창자가.(잘사는 집은 두 마리, 세 마리 잡았고. 못사는 집은 한 마리도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때는 돼지에서 나오는 그 창자가.)
107082 @ 예.(예.)
107082 #1 창자를 깨끗이 세척헤서.(창자를 깨끗이 세척해서.)
107082 @ 예.(예.)
107082 #1 거기에다가 돼지 피허고 마늘 뭐 무슨 패마농 무슨 이런 말이지 여러 가지 말이여 거기다 재료를 막 넣어서 이제는 그 돼지창자에다가 담아서 요만씩 하게 무꺼. 양쪽으로.(거기에다가 돼지 피하고 마늘 뭐 무슨 파 무슨 이런 말이지 여러 가지 말이여 거기다 재료를 막 넣어서 이제는 그 돼지창자에다가 담아서 요만씩 하게 묶어. 양쪽으로.)
107082 @ 예.(예.)
107082 #1 무꺼 가지고 큰 솟에다가 삶지. 삶아 가지고 익어갈수록 톡톡톡톡 적고지 닮은 걸로 찔러봐. 거기서 공기도 쪼금 새어나오고 헤서 말이야 터지지 않은 거지.(묶어 가지고 큰 솥에다가 삶지. 삶아 가지고 익어갈수록 톡톡톡톡 적꼬치 같은 걸로 찔러봐. 거기서 공기도 쪼금 새어나오고 해서 말이야 터지지 않은 거지.)
107082 @ 예.(예.)
107082 #1 그디로 무끈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터져분다 ᄒᆞ여.(거기로 묶은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터져버린다 해.)
107082 @ 아.(아.)
107082 #1 그러니까 이제 중간 중간 영 찔러주면 걸로 공기도 나오고 헤서 안 터지기도 ᄒᆞ고 익엇는지 안 익엇는지 알아보고 말이여 이런 방법으로 헤서 순대를 삶아서 건져 가지고 식혀.(그러니까 이제 중간 중간 이렇게 찔러주면 걸로 공기도 나오고 해서 안 터지기도 하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고 말이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순대를 삶아서 건져 가지고 식혀.)
107082 @ 예.(예.)
107082 #1 뚜신 때는 썰지 못 ᄒᆞ지. 식혀 놧다가 손님 오면은 썰어서 고기 석 점에 순대 두 점이면 두 점. 한 점이면 한 점 놩.(따뜻할 때는 썰지 못 하지. 식혀놨다가 손님 오면 썰어서 고기 석 점에 순대 두 점이면 두 점. 한 점이면 한 점 놔서.)
107082 @ 제주도 순대는 특이허잖아예?(제주도 순대는 특이하잖아요?)
107082 #1 육지 거랑 다르지 들어가는 거는 그게 좀 틀리겟지. 여기는 옛날 뭐 그 돼지 잡으면은 그거를 주로 말이여 막 다져 가지고 돼지 피허고 안에 그런 돼지 내장에

그 쪼금 말이지 기름기 잇인 것들을 다져 가지고 ᄀᆞ치 패마농 ᄀᆞ튼 것도 요만씩 썰고 돼지 피도 좀 넣고 밀가루도 좀 넣고 여러 가지 말이여 저기 저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면 맛잇어.(육지 거랑 다르지 들어가는 거는 그게 좀 다르겠지. 여기는 옛날 뭐 그 돼지 잡으면 그거를 주로 말이야 막 다져 가지고 돼지 피하고 안에 그런 돼지 내장에 그 쪼금 말이지 기름기 있는 것들 다져 가지고 같이 파 같은 것도 요만씩 썰고 돼지 피도 좀 넣고 밀가루도 좀 넣고 여러 가지 말이야 저기 저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면 맛있어.)

107083 @ 그럼 두부는 어떵 만들주마씨?(그럼 두부는 어떻게 만들지요?)

107083 #1 두부는 이제 콩으로 만드는 거주마는.(두부는 이제 콩으로 만드는 거지마는.)

107083 @ 예.(예.)

107083 #1 콩을 말이지 뭐 두부는 콩으로는 만드는데.(콩을 말이지 뭐 두부는 콩으로는 만드는데.)

107083 @ 예.(예.)

107083 #1 익혀서 만드는 건지 생으로 ᄒᆞ는 건지 몰라도 나 생각에는 아마 그거 저기 저 그 콩, 생콩을 갈아 가지고 그 물 짜 가지고 그거를 물을 이제 끓여 가지고.(익혀서 만드는 건지 생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아마 그거 저기 저 그 콩, 생콩을 갈아 가지고 그 물 짜 가지고 그거를 물을 이제 끓여 가지고.)

107083 @ 예.(예.)

107083 #1 그다음에 식히면 두부가 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뒈는데. 그 두부 헐 때도 콩으로만 허는 것도 아니고 간수라고 헤 가지고.(그다음에 식히면 두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두부 할 때도 콩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간수라고 해 가지고.)

107083 @ 간수?(간수?)

107083 #1 바닷물이 간수주게. 바닷물이 아니면 소금물이 꼭 들어가야 두부가 엉켜. 그 두부만으로는 절대 콩으로만으로는 엉키지 안 헤.(바닷물이 간수지. 바닷물이 아니면 소금물이 꼭 들어가야 두부가 엉켜. 그 두부만으로는 절대 콩으로만으로는 엉키지 않아.)

107083 @ 그냥 물로도 안 뒈고?(그냥 물로도 안 되고?)

107083 #1 게난 그 간수라고 헤 가지고 주로 바닷물 중간에 가서 깨끗헌 데로 가서 떠다가 말이지 그거 넣는다고 허더라고.(그러니까 그 간수라고 해 가지고 주로 바닷물 중간에 가서 깨끗한 데로 가서 떠다가 말이지 그거 넣는다고 하더라고.)

107083 @ 그럼 옹포는 바다 바로 옆에 잇이난?(그럼 옹포는 바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107083 #1 옛날에는 두부 ᄀᆞ튼 거 잘 만들어서 뭐 집에서 먹지 안 헤.(옛날에는 두부 같은 거 잘 만들어서 뭐 집에서 먹지 않아.)

107083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07083 #1 ᄋᆞ. 그 옛날도 가면 두부공장 가면 비지. 콩 만들당 남은 비지라고 헤서 그 저기 저 생콩 막 갈면 비지라는 거 나오거든.(어. 그 옛날도 가면 두부공장 가면 비지. 콩 만들다가 남은 비지라고 해서 그 저기 저 생콩 막 갈면 비지라는 거 나오거든.)
107083 @ 예.(예.)
107083 #1 그거 사당 집에서 국으로 끓여서 먹엇거든. 아마 생으로 만드는 거 닮아. 생콩으로 이렇게 갈아 가지고.(그거 사다가 집에서 국으로 끓여서 먹었거든. 아마 생으로 만드는 거 같아. 생콩으로 이렇게 갈아 가지고.)
107083 @ 예.(예.)
107083 #1 그 물을 이제 뽑아서 그 생콩의 물을 끓여 가지고.(그 물을 이제 뽑아서 그 생콩의 물을 끓여 가지고.)
107083 @ 예.(예.)
107083 #1 그다음에 간수허고 서꺼 가지고 어떤 통에 이런 사각통에다가 놔 가지고 얼려 놔두면 한 몇 시간 말이여 응고뒈면 짤랏어 두부가.(그다음에 간수하고 섞어 가지고 어떤 통에 이런 사각통에다가 놔 가지고 얼려 놔두면 한 몇 시간 말이야 응고되면 짤랐어 두부를.)
107084 @ 모밀묵도 헤 드셔보션마씨?(메밀묵도 해 드셔보셨어요?)
107084 #1 모밀도게 아까 저기 저 두부 만드는 식으로 모밀도 저기 저 갈아 가지고 이제 죽 쒀. 죽 팔팔헐게 쒀 가지고 판대기에 놔 가지고 이렇게 딱 말이여 그 저기 저 보재기 ᄀᆞ튼 거로 말이여 딱 싸서 물 빠지게 하면 묵이 돼.(메밀도 아까 저기 저 두부 만드는 식으로 메밀도 저기 저 갈아 가지고 이제 죽 쒀. 죽 팔팔하게 쒀 가지고 판때기에 놔 가지고 이렇게 딱 말이야 그 저기 저 보시기 같은 거로 말이야 딱 싸서 물 빠지게 하면 묵이 돼.)
107085 @ 그럼 청묵은?(그럼 청포묵은?)
107085 #1 청묵은 뭐 아마 그 모르지. 그거 모밀 그 저기 저 익기 전에 헌 걸로 청목인가 모르켜.(청포묵은 뭐 아마 그 모르지. 그거 메밀 그 저기 저 익기 전에 한 걸로 청포묵인가 모르겠다.)
107086 @ 그 미숫가루 잇잖아예?(그 미숫가루 있잖아요?)
107086 #1 미숫가루?(미숫가루?)
107086 @ 제주도에서 미숫가루 뭐라고 헷주마씨?(제주도에서 미숫가루 뭐라고 했지요?)
107086 #1 저 개역이라고 ᄒᆞ주. 개역인데 이 개역이 주로 사월에서 오월 달에 보리를 채취헤서.(저 '개역'이라고 하지. '개역'인데 이 미숫가루가 주로 사월에서 오월 달에 보리를 채취해서.)
107086 @ 예.(예.)
107086 #1 보리를 채취헤 가지고 보리 장만헤 가지고 보리 도정허기 전에.(보리를 채취해 가지고 보리 장만해 가지고 보리 도정하기 전에.)
107086 @ 예.(예.)

107086 #1 보리만 알맹이만 나오면은 그 이제 말렷다가 유월 달 저기 저 장마철에는 집에서 솟뚜껑 놔 가지고 불을 때 가지고 그 솟뚜껑에 요만씩 보리 놔서 볶앙.(보리만 알맹이만 나오면 그 이제 말렸다가 유월 달 저기 저 장마철에는 집에서 솥뚜껑 놔 가지고 불을 때 가지고 그 솥뚜껑에 요만씩 보리 놔서 볶아서.)

107086 @ 예.(예.)

107086 #1 팍팍팍팍 퍼지면은 그걸 이제 모앗다가 방앗간에 가서 갈아온 게 개역이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콩을 갈아그넹 말이여 콩도 볶아그넹 ᄀᆞ치 넣을 수도 잇곡.(팍팍팍팍 퍼지면 그걸 이제 모았다가 방앗간에 가서 갈아온 게 미숫가루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콩을 갈아서 말이야 콩도 볶아서 같이 넣을 수도 있고.)

107086 @ 예.(예.)

107086 #1 또 뭐 예를 들어서 찹쌀 쌀도 말이여 갈아서 아니 갈아서가 아니고 찹쌀도 쪼끔 볶아 가지고 이 개역은 다 볶아야 돼.(또 뭐 예를 들어서 찹쌀 쌀도 말이야 갈아서 아니 갈아서가 아니고 찹쌀도 쪼끔 볶아 가지고 이 미숫가루는 다 볶아야 돼.)

107086 @ 다 볶은 다음에?(다 볶은 다음에?)

107086 #1 어 다 볶앙 다 놔그넹 그다음에 방앗간에 가그넹 갈아오면 그다음 먹을 때가 상당히 맛잇거든.(어 다 볶아서 다 놔서 그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갈아오면 그다음 먹을 때가 상당히 맛있거든.)

107086 @ 예.(예.)

107086 #1 보리허고 콩허고 찹쌀허고 갈아서 옛날에는 그렇게 세 가지를 갈아서 개역으로 헹.(보리하고 콩하고 찹쌀하고 갈아서 옛날에는 그렇게 세 가지를 갈아서 미숫가루로 해서.)

107086 @ 예.(예.)

107086 #1 순수한 보리밧긔 엇어.(순수한 보리밖에 없어.)

107086 @ 아, 옛날에는마씨?(아, 옛날에는요?)

107086 #1 ᄋᆞ. 옛날에는 지금은 콩도 넣고 뭐 찹쌀도 넣고 다양허게 말이지 우리 기호식품으로 만들어서 먹지마는 영양가도 좋고 아주 좋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흔허지도 않고 그렇게 헹 먹지도 않앗고.(어. 옛날에는 지금은 콩도 넣고 뭐 찹쌀도 넣고 다양하게 말이지 우리 기호식품으로 만들어서 먹지마는 영양가도 좋고 아주 좋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먹지도 않았고.)

107086 @ 보리로만.(보리로만.)

107086 #1 보리로만 보리가 오월 달 즈음에 끗나면 유월 달 장마 오면 이제 먹을 게 엇고 ᄒᆞ니까 보리를 흔 말 볶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집에 오면 그거를 이제 물에 타서 바로 먹을 수 잇곡. 설탕 놔서 먹기도 허고. 보리밥에도 개역 몇 숟가락 놩 비벼그넹 먹기도 허고 여러 가지로 먹엇지.(보리로만 보리가 오월 달 즈음에 끝나면 유월 달 장마 오면 이제 먹을 게 없고 하니까 보리를 한 말 볶아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갈아다가 집에 오면 그거를 이제 물에 타서 바로 먹을 수 있고. 설탕 놔서 먹기도 하고. 보리밥에도 미숫가루 몇 숟가락 놔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먹었지.)

107087 @ 그면 지짐이도 먹잖아예?(그러면 지짐이도 먹잖아요?)
107087 #1 지짐이 ᄀᆞ튼 것도 먹는데 그거 주로 밀가루로.(지짐이 같은 것도 먹는데 그거 주로 밀가루로.)
107087 @ 옛날에는 아니 요즘에는 다양허잖아예?(옛날에는 아니 요즘에는 다양하잖아요?)
107087 #1 ᄋᆞ. 지금은 다양허주마는 옛날에는 적이라고 헷지. 적 제사 때는 멩질 때나 적 지젓다고 헐 때 밀가루로 헤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넣은 순수헌 걸로 지금 아까 지짐이 그런 식으로 뭰 거를 옛날엔 적이라고 ᄒᆞ여. 적을 이렇게 지지면 제사에 쓰기 좋게 적고지에 꿰 가지고 적을 제일 밑에 넣고 그다음에 무슨 돼지고기 젤 위에는 생선 놓고 상에 올리주게.(어. 지금은 다양하지마는 옛날에는 적이라고 했지. 적 제사 때는 명절 때나 적 지졌다고 할 때 밀가루로 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넣은 순수한 걸로 지금 아까 지짐이 그런 식으로 된 거를 옛날엔 적이라고 해. 적을 이렇게 지지면 제사에 쓰기 좋게 적꼬치에 꿰 가지고 적을 제일 밑에 넣고 그다음에 무슨 돼지고기 젤 위에는 생선 놓고 상에 올리지.)
107088 @ 그럼 어르신 오메기술[176]도 알아마씨?(그럼 어르신 '오메기술'도 알아요?)
107088 #1 오메기술은 좁쌀로.('오메기술'은 좁쌀로.)
107088 @ 예.(예.)
107088 #1 좁쌀로 이렇게 동글락허게 멘들엉 가운데 고망 뚫어 가지고.(좁쌀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가운데 구멍 뚫어 가지고.)
107088 @ 예.(예.)
107088 #1 그게 이제 오메기[177]라고 허는 떡인데.(그게 이제 '오메기'라고 하는 떡인데.)
107088 @ 예.(예.)
107088 #1 그걸로 술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좁쌀 그 오메기술인데 그게 아주 여러 가지고. 옛날에도 청주 같이 만들어그넹 말이여 나중에는 계란도 넣고 무슨 참기름도 넣고 여러 가지로 말이지 막 영양분 잇인 걸로 만들면 그거 아주 한 그거 한 사발만 먹으면 말이여 한 때 말이여 식사까지도 대용헐 수 잇인 영양가가 잇인 술이엇주게.(그걸로 술을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좁쌀 그 '오메기술'인데 그게 아주 여러 가지고. 옛날에도 청주 같이 만들어서 말이야 나중에는 계란도 넣고 무슨 참기름도 넣고 여러 가지로 말이지 막 영양분 있는 걸로 만들면 그거 아주 한 그거 한 사발만 먹으면 말이야 한 때 말이야 식사까지도 대용할 수 있는 영양가가 잇인 술이엇지.)
107089 @ 그럼 쉰다리[178]는?(그럼 '쉰다리'는?)
107089 #1 순다리는 밥이 쉬어 가지고.('순다리'는 밥이 쉬어 가지고.)

176) '오메기술'은 '차좁쌀 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77)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 낸 떡'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술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178)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주로 여름철에 많이 해 먹으며 '순다리'라고도 한다.

107089 @ 예.(예.)
107089 #1 먹을 수 없으니까.(먹을 수 없으니까.)
107089 @ 예.(예.)
107089 #1 그대로 던져버리기가 아깝고 그래서.(그대로 던져버리기가 아깝고 그래서.)
107089 @ 예.(예.)
107089 #1 그거를 이제 끓여. 쉰밥을 끓여 가지고 거기 이제 그 곰펭이 ᄀᆞ튼 균. 여러 균을 다 죽여서 그거를 이제 따라 논 것이 순다리라.(그거를 이제 끓여. 쉰밥을 끓여 가지고 거기 이제 그 곰팡이 같은 균. 여러 균을 다 죽여서 그거를 이제 따라 논 것이 '순다리'야.)
107089 @ 그것은 언제 마셔마씨?(그것은 언제 마셔요?)
107089 #1 그것도 제사 때도 순다리도 나오고 말이지.(그것도 제사 때도 '순다리'도 나오고 말이지.)
107089 @ 오메기술도 제사 때 먹어마씨?('오메기술'도 제사 때 먹어요?)
107089 #1 아니 오메기술 ᄀᆞ튼 거는 제사 때는 별로 사용 안 ᄒᆞ고 사람 먹는데 주로 사용ᄒᆞ고.(아니 '오메기술' 같은 거는 제사 때는 별로 사용 안 하고 사람 먹는데 주로 사용하고.)
107089 @ 순다리는?('순다리'는?)
107089 #1 순다리도 뭐 만들어서 말이지 그 제사상에도 올리기도 헤낫뎅 허더라고. 그게 우리도 그 할머니댁에 멩질 먹으러 갓당 오다보민 순다리 한 병 담앙 먹은 기억도 나고.('순다리'도 뭐 만들어서 말이지 그 제사상에도 올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우리도 그 할머니댁에 명절 먹으러 갔다가 오다보면 '순다리' 한 병 담아서 먹은 기억도 나고.)
107090 @ 그럼 누룩도 만드는 법 알아마씨?(그럼 누룩도 만드는 법 알아요?)
107090 #1 누룩도 그 저기 보리인가 뭘로 밀인가 뭘로 헤서 만들 거야.(누룩도 그 저기 보리인가 뭘로 밀인가 뭘로 해서 만들 거야.)
107091 @ 그럼 엿도 만들엉 먹어 보신 적 잇어마씨?(그럼 엿도 만들어서 먹어 보신 적 있어요?)
107091 #1 엿도게 그 누룩 아까 말핫지. 누룩 ᄀᆞ튼 거 넣고 허면은 쌀보리가 맥주보리가 이제 그 쌀보리허고 맥주보리가 잇인데. 맥주보리는 맥주 멘드는 원료로 뭔 게 잇인데 그걸로 이제 그 그거를 이제 물 조금 넣고 이제 거기서 싹이 나와.(엿도 그 누룩 아까 말했지. 누룩 같은 거 넣고 하면 쌀보리가 맥주보리가 이제 그 쌀보리하고 맥주보리가 있는데. 맥주보리는 맥주 만드는 원료로 된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 그거를 이제 물 조금 넣고 이제 거기서 싹이 나와.)
107091 @ 예.(예.)
107091 #1 그것을 골이라고 ᄒᆞ는데. 그 골을 만들어 가지고 엿 멘들 때는 그거를 말이지 놔 가지고 말이여 엿을 만드는데.(그것을 엿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엿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엿 만들 때는 그거를 말이지 놔 가지고 말이야 엿을 만드는데.)

107091 @ 예.(예.)
107091 #1 그거를 놔 가지고 막 딸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도 넣을 수 잇곡 꿩도 넣을 수 잇곡 닭도 넣을 수 잇곡 말이지 여러 가지 말이여 거기다가 놔 가지고 하루 종일 말이지 이상 딸리면 그게 엿ᄀᆞ치 단맛이 나오고 엿ᄀᆞ치 뒈어.(그거를 놔 가지고 막 달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도 넣을 수 있고 꿩도 넣을 수 있고 닭도 넣을 수 있고 말이지 여러 가지 말이야 거기다가 놔 가지고 하루 종일 말이지 이상 달이면 그게 엿같이 단맛이 나오고 엿같이 되어.)
107091 @ 꿩도 넣어마씨?(꿩도 넣어쇼?)
107091 #1 아, 꿩엿도 잇곡 말이여 옛날엔 꿩 엇이믄 닭으로 사용헷고.(아, 꿩엿도 있고 말이야 옛날에는 꿩 없으면 닭으로 사용했고.)
107091 @ 예.(예.)
107091 #1 닭도 말이여 엇일 때는 돼지고기 쪼끔 사다그넹 넣엉 먹고 지달이 ᄀᆞ튼 것도 넣으면은 지달이 ᄀᆞ튼 것도 엿 헤서 먹으면은 아주 좋은 거주게.(닭도 말이야 없을 때는 돼지고기 쪼끔 사다가 넣어서 먹고 두더지 같은 것도 넣으면 두더지 같은 것도 엿 해서 먹으면 아주 좋은 거지.)

기타

107092 @ 그럼 지금 막 이것저것 음식 먹은 거 물어봣잖아예?(그럼 지금 막 이것저것 음식 먹은 거 물어봤잖아요?)
107092 #1 ᄋᆞ.(어.)
107092 @ 혹시 제가 안 물어본 거 잇인가마씨?(혹시 제가 안 물어본 거 있나요?)
107092 #1 음식 먹는 거?(음식 먹는 거?)
107092 @ 예. 옛날에 먹은 거 다른 거 엇인가마씨?(예. 옛날에 먹은 거 다른 거 없나요?)
107092 #1 뭐 무신 말이지 옛날에는 주로 보리밥 헤서 말이여 먹을 때는 주식으로 감저도 말이여 좀 넣어서 먹고 보리밥에는 어떤 때 좁쌀도 ᄀᆞ치 놔서 말이여 먹을 때도 보리만 놔서 먹을 때는 보리밥이고. 조만 놔서 먹을 때는 조팝이고.(뭐 무슨 말이지 옛날에는 주로 보리밥 해서 말이야 먹을 때는 주식으로 고구마도 말이야 좀 넣어서 먹고 보리밥에는 어떤 때 좁쌀도 같이 놔서 말이야 먹을 때도 보리만 놔서 먹을 때는 보리밥이고. 조만 놔서 먹을 때는 조밥이고.)
107092 @ 예.(예.)
107092 #1 조팝도 흐린밥 모인밥 잇어. 모인조 잇곡 흐린조 잇곡. 그게 따로 성분이 다 틀려. 그게 주로 흐린조는 술 ᄀᆞ튼 데도 사용허고 엿 ᄀᆞ튼 데도 사용허고 뭐 여러 가지로 허고 모인조는 죽 쒀서 먹는 데는 모인조 ᄀᆞ튼 것도 넣엉 쒀서 먹고 말이여 뭐 이런 정도로.(조밥도 찰밥, 메밥 있어. 차조 있고 메조 있고. 그게 따로 성분이 다 달라. 그게 주로 차조는 술 같은 데도 사용하고 엿 같은 데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메조는 죽 쒀서 먹는 데는 메조 같은 것도 넣어서 쒀서 먹고 말이야 뭐 이런 정도로.)

8. 주생활

구조

108001 @ 어르신 그 집을 지은 경험은 엇지예?(어르신 그 집을 지은 경험은 없지요?)
108001 #1 집은 내가 안 지어봣지.(집은 내가 안 지어봤지.)
108001 @ 그러면 지금 사시는 집 개조 허잖아예? 그런 거는 좀?(그러면 지금 사시는 집 개조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108001 #1 그거는 내가 살 때 개조헷지. 리모델링을 헤 가지고.(그거는 내가 살 때 개조했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108001 @ 예.(예.)
108001 #1 옛날 기와집 잇일 때는 여름에 비가 샛어.(옛날 기와집 있을 때는 여름에 비가 샜어.)
108001 @ 예.(예.)
108001 #1 그 기와를 전부 다 내려 가지고 새로운 기와로 그 저 우에다 전부 다 덖고 이렇게 헤 가지고 안에도 다 새로 개조허고 헤 가지고 지금 사용허는 집이 우리 집이 리모델링뒌 집이라. 아버지가 지엇던 집인데.(그 기와를 전부 다 내려 가지고 새로운 기와로 그 저 위에다 전부 다 덮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에도 다 새로 개조하고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집에 우리 집이 리모델링된 집이야. 아버지가 지었던 집인데.)
108001 @ 예.(예.)
108001 #1 내가 인수 받아 가지고 살면서 또 저기 거 좀 옛날 기와집이라서 불편허기도 허고 안에도 구조가 아주 좋지 않고 헤서 그걸 이제 그대로 기와 잇인 상태에서 리모델링 헤 가지고 거 삼십삼 평인가 뒌 집이라.(내가 인수 받아 가지고 살면서 또 저기 거 좀 옛날 기와집이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안에도 구조가 아주 좋지 않고 해서 그걸 이제 그대로 기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 삼십삼 평인가 된 집이야.)
108001 @ 그럼 아버지는 직접 지으신 거마씨?(그럼 아버지는 직접 지으신 거예요?)
108001 #1 아버지도 목수를 빌어 가지고 지엇지.(아버지도 목수를 불러 가지고 지었지.)
108002 @ 그러면 옛날 집 종류 잇잖아예? 뭐 초가집도 잇엇고 기와집도 잇엇고 허는데 그 집 종류.(그러면 옛날 집 종류 있잖아요? 뭐 초가집도 있었고 기와집도 있었고 하는데 그 집 종류.)
108002 #1 뭐 옛날에 초가집, 기와집, 양철집이라고 헤서 왜 도당집이라고 헤. 도당이라고 헷어 양철도.(뭐 옛날에 초가집, 기와집, 양철집이라고 해서 왜 '도당집'이라고 해. '도당'이라고 했어 양철도.)

108002 @ 아, 양철. 도당마씨?(아, 양철. '도당'요?)
108002 #1 으. 양철도 도당집이엔 헤그넹 도당집, 양철집 또 쓰레뜨.(어. 양철도 '도당집'이라고 해서 '도당집', 양철집 또 슬레이트.)
108002 @ 아, 쓰레뜨?(아, 슬레이트.)
108002 #1 으. 쓰레뜨 뭐 이렇게 헤서 주로 그다음에는 시멘트로 지은 이제 그 집 그 저 돌담집도 잇곡이.(어. 슬레이트 뭐 이렇게 해서 주로 그다음에는 양회로 지은 이제 그 집 그 저 돌담집도 있고.)
108002 @ 예.(예.)
108002 #1 돌담으로 쌓아그넹.(돌담으로 쌓아서.)
108002 @ 아, 돌담집.(아, 돌담집.)
108002 #1 으. 돌담집도 잇고 쓰레트로 헌 집도 잇곡.(어. 돌담집도 있고 슬레이트로 한 집도 있고.)
108002 @ 초가집은 그냥 흙으로 만든 거마씨?(초가집은 그냥 흙으로 만든 거예요?)
108002 #1 초가집은 일단 돌담을 쌓아그넹.(초가집은 일단 돌담을 쌓아서.)
108002 @ 예.(예.)
108002 #1 일단 기존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 안팎으로 흑을 붙여 가지고 바람과 이런 걸 못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우에는 서리라고 헤서 이렇게 서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우에는 뭐냐면 새라고 헤 가지고 산에 가 가지고 새를 비어다가.(일단 기존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 안팎으로 흙을 붙여 가지고 바람과 이런 걸 못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는 서까래라고 해서 이렇게 서까래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 위에는 뭐냐면 띠라고 해 가지고 산에 가 가지고 띠를 베어다가.)
108002 @ 예.(예.)
108002 #1 초가집 재료로 사용허는 새로 그거를 쭉 말이여 덖으면 몇 겹으로 덖으면 그게 절대 집안에 비가 안 들어와. 비가 새서 들어오지를 안 헤. 그 새로 인헤서 경사가 이렇게 뒈니까.(초가집 재료로 사용하는 띠로 그거를 쭉 말이여 덮으면 몇 겹으로 덮으면 그게 절대 집안에 비가 안 들어와. 비가 새서 들어오지를 않아. 그 띠로 인해서 경사가 이렇게 되니까.)
108002 @ 예.(예.)
108002 #1 그게 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껍기가 한 이만큼 이상 뒈니까 오면서 일로 내려가. 일로 내려가 이렇게 쭉 ᄒᆞ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내려가고.(그게 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껍기가 한 이만큼 이상 되니까 오면서 이리로 내려가. 이리로 내려가 이렇게 쭉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내려가고.)
108002 @ 예.(예.)
108002 #1 가운데는 말이지 주젱이 닮은 걸로 딱 씌어서 ᄆᆞ루. ᄆᆞ루라고 헤 가지고 딱 씌어나면 그 비는 안 들어와.(가운데는 말이지 주저리 같은 걸로 딱 씌어서 마루. 마루라고 해 가지고 딱 씌우면 그 비는 안 들어와.)
108002 @ 기구나예.(그렇군요.)

108002 #1 그래서 줄로 딱 무꺼 가지고 비바람이라든가 태풍 이런 게 그 안전허게 허고 그 초가집은 바람에 많이 뭐 ᄒᆞ고 허는데 저 그런 기와집 ᄀᆞ튼 거나 이런 뭐 쓰레뜨나 양철집 ᄀᆞ튼 거는 양철집 ᄀᆞ튼 것도 그때 당시만 헤도 비가 오면.(그래서 줄러 딱 묶어 가지고 비바람이라든가 태풍 이런 게 그 안전하게 하고 그 초가집은 바람에 많이 뭐 하고 하는데 저 그런 기와집 같은 거나 이런 뭐 슬레이트나 양철집 같은 거는 양철집 같은 것도 그때 당시만 해도 비가 오면.)

108002 @ 비가 떨어지면.(비가 떨어지면.)

108002 #1 빗소리가 다다다다닥 나면 집에 잠자는 데나 뭐나 말이지 거의 곤란헐 수도 잇곡 헷는데 그 후에는 이제 양철집은 영 사용헤 보니까 안 좋아 버리니까 양철집이 제일 먼저 엇어지고 그다음에 초가집 엇어지고 쓰레뜨집 엇어지고.(빗소리가 다다다다닥 나면 집에 잠자는 데나 뭐나 말이지 거의 곤란할 수도 있고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양철집은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안 좋아 버리니까 양철집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그다음에 초가집 없어지고 슬레이트집 없어지고.)

108002 @ 아, 양철집 어르신 어렷을 때는 좀 많이 잇언마씨?(아, 양철집 어르신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있었어요?)

108002 #1 ᄋᆞ. 많이 잇엇지.(어. 많이 있었지.)

108003 @ 그면 집이 이렇게 하나 잇으면 집채가 두세 개 잇잖아예? 그럼 안커리 밖거리.(그러면 집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집채가 두세 개 있잖아요? 그럼 안채, 바깥채.)

108003 #1 안커리, 밖거리, 이문간.(안채, 바깥애, 문간채.)

108003 @ 아, 그거 뭐, 뭐 잇주마씨?(아, 그거 뭐, 뭐 있지요?)

108003 #1 아, 게니깐 그게 제일 먼저가 안커리.(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가 안채.)

108003 @ 아, 안커리가 제일 안에 잇인거마씨?(아, 안채가 제일 안에 있는 거예요?)

108003 #1 ᄋᆞ. 제일 큰 집이지 안커리 그다음 밖거리라고 허는 건 안커리에 반대편에 바로 조그만 허게 잇인 게 밖거리 그다음에 이문간.(어. 제일 큰 집이지. 안채 그다음 바깥채라고 하는 건 안채 반대편에 바로 조그맣게 있는 게 바깥채. 그다음에 문간채.)

108003 @ 이문간.(문간채.)

108003 #1 ᄋᆞ. 이문간은 대문으로 들어오는 걸 말허는데. 주로 옛날에는 안커리, 밖거리, 이문간으로 이렇게 헤서 지어서 살앗지마는.(어. 문간채는 대문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주로 옛날에는 안채, 바깥채, 문간채로 이렇게 해서 지어서 살았지마는.)

108003 @ 예.(예.)

108003 #1 가난허거나 좀 경제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집 하나만 짓고 이문간 하나 그자 이문간도 짓지 안 헤 가지고 그자 뭐 막대기 하나 영 놔 가지고 말이지 거쳐 가지고 다닐 정도로 헷던 게 사실이주게.(가난하거나 좀 경제가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집 하나만 짓고 문간채 하나 그저 문간채도 짓지 않아 가지고 그저 뭐 막대기 하나 이렇게 놔 가지고 말이지 겨처 가지고 다닐 정도로 했던 게 사실이지.)

108003 @ 이문간이 대문 옆에 얘기허는 거지예?(문간채가 대문 옆에 얘기하는 거지

요?)
108003 #1 ᄋᆞ. 대문, 대문. 겐디 옛날에는 뭐 제주도에 뭐 대문 엇고 거지 엇고 뭐 무슨 말이지 뭐 헤서 삼 삼무라고 허잖아.(어. 대문, 대문. 그런데 옛날에는 뭐 제주도에 뭐 대문 없고 거지 없고 뭐 무슨 말이지 뭐 해서 삼다삼무라고 하잖아.)
108003 @ 예.(예.)
108003 #1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문도 별로 엇엇어.(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문도 별로 없었어.)
108004 @ 삼간집 잇잖아예? 삼간집을 짓는 과정은?(삼간집 있잖아요? 삼간집을 짓는 과정은?)
108004 #1 초가삼간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초가집 형태가 나오면.(초가삼간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초가집 형태가 나오면.)
108004 @ 예.(예.)
108004 #1 한 칸, 두 칸, 세 칸 만들어 가지고.(한 칸, 두 칸, 세 칸 만들어 가지고.)
108004 @ 예.(예.)
108004 #1 제일 이쪽에는 구들 뭐 그다음은 마루 그다음은 말이여 부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초가삼간이주게.(제일 이쪽에는 방 뭐 그다음은 마루 그다음은 말이야 부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초가삼간이지.)
108005 @ 그믄 그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주춧돌이랑 뭐 기둥이랑 보 이런 거 잇잖아예?(그러면 그 기와집이나 초가집이나 주춧돌이랑 뭐 기둥이랑 보 이런 거 있잖아요?)
108005 #1 ᄋᆞ.(어.)
108005 @ 그런 서까래도.(그런 서까래도.)
108005 #1 ᄋᆞ. 서까래.(어. 서까래.)
108005 @ 그런 거. 부분, 부분 명칭이나 재료 ᄀᆞ튼 거 아시는 거 잇어마씨?(그런 거. 부분, 부분 명칭이나 재료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어요?)
108005 #1 재료는 뭐 무슨 주춧돌 놓면은 그 우에다 말이지 나무 ᄀᆞ튼 걸로 헤서 올리고 말이지 그 옆에는 이제 돌담으로 허고 우에 올라가면 서까래 놔 가지고 말이지 집 형태를 만들면서 안에는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건데.(재료는 뭐 무슨 주춧돌 놓으면 그 위에다 말이지 나무 같은 걸로 해서 올리고 말이지 그 옆에는 이제 돌담으로 하고 위에 올라가면 서까래 놔 가지고 말이지 집 형태를 만들면서 안에는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건데.)
108005 @ 예.(예.)
108005 #1 뭐 주로 말이지 그 뭐 사람이 살기 편안허게 말이지 아까 초가삼간 얘기헷지마는 구들도 한 두어 개는 잇어야 부모가 살고 얘들도 살고 말이지.(뭐 주로 말이지 그 뭐 사람이 살기 편안하게 말이지 아까 초가삼간 얘기했지마는 방도 한 두어 개는 있어야 부모가 살고 얘들도 살고 말이지.)
108005 @ 예.(예.)

108005 #1 이제 뭐 마루 ᄀᆞ튼 데는 그 공간으로 그자 그 제사 때나 멩질 때나 손님 오거나 허면은 마루에 앚아 가지고 음식도 먹고 말이지 이렇게 허고 부엌도 잇어야 뒈니까 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졋주.(이제 뭐 마루 같은 데는 그 공간으로 그저 그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손님 오거나 하면 마루에 앉아 가지고 음식도 먹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부엌도 있어야 되니까 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지.)
108006 @ 그럼 외나 산자, 인방, 반자틀 ᄀᆞ튼 거 들어본 적 잇어마씨?(그럼 외나 산자, 인방, 반자틀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108006 #1 그런 말은 내가 잘.(그런 말은 내가 잘.)
108007 @ 그럼 집에 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잇잖아예. 큰방, 작은방 그런 거. 그면 큰방, 작은방, 시렁, 벽장 그런 건 위치가 어떻게 다 뒈주마씨?(그럼 집에 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큰방, 작은방 그런 거. 그러면 큰방, 작은방, 시렁, 벽장 그런 건 위치가 어떻게 다 되지요?)
108007 #1 아니 주로 큰방이엔 ᄒᆞ면은 부모가 살던 방을 큰방이라고 허고 작은방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허고 ᄀᆞ치 살기가 좀 뭐 곤란허면 작은방 하나 만들어그넹 아이들은 작은방들에 분리시키고.(아니 주로 큰방이라고 하면 부모가 살던 방을 큰방이라고 하고 작은방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하고 같이 살기가 좀 뭐 곤란하면 작은방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은 작은방들에 분리시키고.)
108007 @ 예.(예.)
108007 #1 만약에 작은방이 엇어 가지고 방이 하나밧긔 엇이믄 옛날에는 부모허고 자식들허고 다 같이 한 방에 잣어. 옛날엔 그렇게 허면서도 다 자식들 만들면서 살앗지마는 그 후로는 사람이 조금 편리헤가니깐 부부가 사는 안방에는 뭐 궤 ᄀᆞ튼 것도 놓고 말이지 여러 개로 중요한 물건 넣는.(만약에 작은방이 없어 가지고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옛날에는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다 같이 한 방에 잤어.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 자식들 만들면서 살았지마는 그 후로는 사람이 조금 편리해가니깐 부부가 사는 안방에는 뭐 궤 같은 것도 놓고 말이지 여러 개로 중요한 물건 넣는.)
108007 @ 예.(예.)
108007 #1 집에 뭐 무슨 말이지 중요헌 말이지 그 등기문서 ᄀᆞ튼 거라든가 아니면 말이지 돈 ᄀᆞ튼 거라도 말이야 궤에다가 놔그넹 줌그고 말이야 아주 중요헌 거는 안방에 놔서 생활헷고.(집에 뭐 무슨 말이지 중요한 말이지 그 등기문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말이지 돈 같은 거라도 말이야 궤에다가 놔서 잠그고 말이야 아주 중요한 거는 안방에 놔서 생활했고.)
108007 @ 예.(예.)
108008 #1 작은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들 책상 뭐 몇 개 놔주고 이렇게 공부헐 수 잇인 방을 만들고 말이지. 그자 부엌에는 그자 살림살이 쪼금 놔서 살고 마루에도 이제 그자 손님들 오면은 말이지 음식이나 제사나 멩질 때나 오면은 먹을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살앗주.(작은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들 책상 뭐 몇 개 놔주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말이지. 그저 부엌에는 그저 살림살이 쪼금 놔서 살고 마

루에도 이제 그저 손님들 오면 말이지 음식이나 제사나 명절 때나 오면 먹을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살았지.)

108007 @ 그럼 서까래 위에 뭐 또 올리잖아예? 집 지을 때 서까래 그 위에 지붕 얹히는 거마씨.(그럼 서까래 위에 뭐 또 올리잖아요? 집 지을 때 서까래 그 위에 지붕 얹히는 거요.)

108007 #1 그게 서까래 위에 올리는 게 주로 초가집은 초가를 올렷고.(그게 서까래 위에 올리는 게 주로 초가집은 초가를 올렸고.)

108007 @ 예.(예.)

108007 #1 뭐 예를 들어서 양철집은 서까래 위에다가 바로 양철 놔 가지고 서까래에 못으로 박아가그넹 말이여 그 저기 지엇고. 쓰레트도 그런 식으로 양철 못 박으면은 이제 못 없으면은 쓰레뜨로 그 우에다가 박앗고.(뭐 예를 들어서 양철집은 서까래 위에다가 바로 양철 놔 가지고 서까래에 못으로 박아서 말이야 그 저기 지었고. 슬레이트도 그런 식으로 양철 못 박으면 이제 못 없으면 슬레이트로 그 위에다가 박았고.)

108007 @ 초가집은 그럼 그 우에 새를 올리는 거마씨?(초가집은 그럼 그 위에 띠를 올리는 거예요?)

108007 #1 아, 그 그 좀 무꺼 가지고 말이야 그 아마 흩어지면 뭐 허니까.(아, 그 그 좀 묶어 가지고 말이야. 그 아마 흩어지면 뭐 하니까.)

108007 @ 예.(예.)

108007 #1 아마 서까래에 놓는 그 저기 저 뭐고 우에다가 좀질게 나무로 지달이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놧을 거라.(아마 서까래는 놓는 그 저기 저 뭐고 위에다가 잘고 가늘게 나무로 띠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놨을 거야.)

108007 @ 예.(예.)

108007 #1 그래 가지고 그 우에 그 새로 더꺼 가지고는 두껍게 놓으면서 쭉 돌아가면서 허고. 이제 그 다 이렇게 뭰 다음에는 그 새로 그 저기 저 줄 새끼라고 헤 가지고 양쪽으로 뎅기고 가로, 세로 헤서 딱 무꺼 가지고 서리[179] 나무에다가 다 무꺼.(그래 가지고 그 위에 그 띠로 덮어 가지고는 두껍게 놓으면서 쭉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그 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 띠로 그 저기 저 줄 새끼라고 해 가지고 양쪽으로 당기고 가로, 세로 해서 딱 묶어 가지고 서까래 나무에다가 다 묶어.)

108007 @ 예.(예.)

108007 #1 겅 헤 가지고 무끄면 그게 초가집이 뒈는 거주게.(그렇게 해 가지고 묶으면 그게 초가집이 되는 거지.)

108008 @ 옛날에는 그 마루에 손님 맞아신가마씨?(옛날에는 그 마루에 손님 맞았었나요?)

108008 #1 마루에서 주로 뭐 손님 오면 아주 겨울에는 아주 가까운 손님은 안방에 들어오렌 헤그넹 굴목[180] 땐 방에다가 옛날엔 보일러 없엇고 ᄒᆞ니까 이제 그 굴목 땐

179) '서리'는 '서까래'의 뜻이다. 하지만 집줄은 서리에 묶지 않고 '거왕'에 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보자가 잘못 말한 것이다.

180)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굴목'

방에 들어오렌 헤 가지고 말이지 앚아 가지고 화로도 구들에도 놔서 사용헷고 그렇게 헤 가지고 주로 손님도 대접헷고 그 큰 명절이나 제사나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손님들 마루에서 다.(마루에서 주로 뭐 손님 오면 아주 겨울에는 아주 가까운 손님은 안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굴묵' 땐 방에다가 옛날엔 보일러 없었고 하니까 이제 그 '굴묵' 땐 방에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 앉아 가지고 화로도 방에도 놔서 사용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로 손님도 대접했고.)

108008 @ 예.(예.)

108008 #1 그 큰 명절이나 제사나 이렇게 헐 때는 주로 손님들 마루에서 다.(그 큰 명절이나 제사나 이렇게 할 때는 주로 손님들 마루에서 다.)

108009 @ 그럼 고방잇잖아예? 고방?(그럼 고방 있잖아요? 고방?)

108009 #1 고방?(고방?)

108009 @ 그 창고 ᄀᆞ튼 거 잇잖아예? 고방.(그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고방.)

108009 #1 ᄋᆞ.(어.)

108009 @ 옛날에는 그런 것도 다 잇엇인가마씨?(옛날에는 그런 것도 다 있었었나요?)

108009 #1 아니 집집마다 대개 말이지. 그 저기 저 물방, 쉐방, 쉐막, 물막 뭐 이런 식으로 저기 그 이문간에다가.(아니 집집마다 대개 말이지. 그 저기 저 마구간, 외양간 뭐 이런 식으로 저기 그 문간채에다가.)

108009 @ 예.(예.)

108009 #1 주로 말이지 들어오는 이문간 한 편에 말이지 그 소나 말이나 기를 수 잇인 거를 말이여 조그만허게 만들어서 가축을 거기서 기르기도 헷어.(주로 말이지 들어오는 문간채 한 편에 말이지 그 소나 말이나 기를 수 있는 거를 말이야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축을 거기서 기르기도 했어.)

108009 @ 창고 ᄀᆞ튼 거 광 잇잖아예? 그거 제주도말로 뭐라고 헷주마씨?(창고 같은 거 광 있잖아요? 그거 제주도말로 뭐라고 했지요?)

108009 #1 그 그거 뭐 창고주게. 창고 그 창고ᄒᆞ고 뭐 거 뒤주 ᄀᆞ튼 것도 말이여 옛날에 말이여 잇으면 창고 ᄀᆞ튼 데 놔서 뭐 보리 헹 오면 뒤주에 놓고 영 ᄒᆞ고 헷주게.(그 그거 뭐 창고지. 창고 그 창고하고 뭐 거 뒤주 같은 것도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있으면 창고 같은 데 놔서 뭐 보리 해서 오면 뒤주에 놓고 이렇게 하고 했지.)

108009 @ 뒤주마씨?(뒤주요?)

108009 #1 뒤주라고 큰 사각으로 뭰 거 잇어. 그걸 뒤주옌 ᄒᆞ는데.(뒤주라고 큰 사각으로 된 거 있어. 그걸 뒤주라고 하는데.)

108009 @ 그 고방에 귀신이 살앗다고 ᄒᆞ는데 안칠성[181]이라고 들어본 적 엇어마씨?(그 고방에 귀신이 살았다고 하는데 안칠성이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108009 #1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잇엇는데 어떤 집에는 말이여 뭐 그 뱀을 조상으로

이라고도 한다.

181) '안칠성'은 제주도에서 고방(庫房)에 모시는 여자 귀신이다. 뱀의 화신(化身)으로 집안의 재물을 맡아본다고 한다. 고방의 쌀독 위에 무명 일곱 자를 접어서 폐백으로 놓는다.

모시는 집은 뒤칸인가 뭐 이런 말이지 그런 뭐 장독대에 섬긴다는 말은 들어난 기억은 잇어.(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어떤 집에는 말이야 뭐 그 뱀을 조상으로 모시는 집은 뒤칸인가 뭐 이런 말이지 그런 뭐 장독대에 섬긴다는 말은 들어본 기억은 있어.)

108010 @ 부엌은 요즘에야 현대식인데 옛날에 부엌은 지금이랑 다르잖아예? 솟 앚히고 헤 부난?(부엌은 요즘에야 현대식인데 옛날에 부엌은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솥 앉히고 해 버리니까?)

108010 #1 솟 앚혀 가지고 보리때, 조찍 뭐 아니면 솔잎 이런 걸 주로 사용헷지 그 땔감으로는.(솥 앉혀 가지고 보릿짚, 조짚 뭐 아니면 솔잎 이런 절 주로 사용했지 그 땔감으로는.)

108010 @ 그럼 물 먹고 싶을 때는 지금에야 물 사다 먹거나 정수기 허는데 옛날에는 어떵 먹언마씨?(그럼 물 먹고 싶을 때는 지금에야 물 사다 먹거나 정수기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어요?)

108010 #1 떠다 먹엇지.(떠다 먹었지.)

108010 @ 그럼 어디다 저장을 헨마씨?(그럼 어이다 저장을 했어요?)

108010 #1 아니 항아리 잇잖아. 물항에다가 집집마다 하나씩 잇어. 부엌에 사용허게 좋게끔 물은 주로 부엌에서 사용허니까.(아니 항아리 있잖아. 물독에다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 부엌에 사용하게 좋게끔 물은 주로 부엌에서 사용하니까.)

108010 @ 예.(예.)

108010 #1 게 부엌에 큰 항아리를 놓면 아침 일찍 옹포 ᄀᆞ튼 경우에는 다리에 가서 말이지 권남다리[182] 가서 사람들 목욕허기 전에 깨끗헌 물을 떠다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허벅[183]에다가 지어 가지고 그걸 비어놔서 이틀인가 먹으면 또 다음에 다 떨어져 가면 아침 일찍이 가서 목욕허기 전에 여름에 주로 말이여 목욕헐 데가 엇엉 다리에 가서 ᄒᆞ면은 그거는 더럽다고 헤서 아침 일찍이 가서 떠오거든.(게 부엌에 큰 항아리를 놓으면 아침 일찍 옹포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가서 말이지 '권남다리' 가서 사람들 목욕하기 전에 깨끗한 물을 떠다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허벅'에다가 지어 가지고 그걸 비워놔서 이틀인가 먹으면 또 다음에 다 떨어져 가면 아침 일찍이 가서 목욕하기 전에 여름에 주로 말이야 목욕할 데가 없어서 다리에 가서 하면 그거는 더럽다고 해서 아침 일찍이 가서 떠오거든.)

108010 @ 물허벅으로?('물허벅'으로?)

108010 #1 ᄋᆞ. 물허벅에다가.(어. '물허벅'에다가.)

108011 @ 그럼 문설주도 알아마씨?(그럼 문설주도 알아요?)

108011 #1 문설주. 그거 들어오는 지방 거기다가 옛날에는 거 무신 금줄 ᄀᆞ튼 거 메고 그게 문설주주게.(문설주. 그거 들어오는 지방 거기다가 옛날에는 거 무슨 금줄 같은 거 메고 그게 문설주지.)

---

182) '권남다리'는 권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현재 옹포교가 세워지기 전 돌다리를 만들어 옹포천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는 유래가 있는 다리를 의미한다.

183)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허배기, 허베기, 헙데기'라고도 한다.

108012 @ 창문도 종류가 많앗잖아예? 지게문, 창문 들어보셧지예?(창문도 종류가 많았잖아요? 지게문, 창문 들어보셨지요?)

108012 #1 뭐 조그마헌 문들 말이여 멘들어 가지고 사람 편하게 사용헷지. 이름 ᄀᆞ튼 거는 잘 모르주마는 뭐 그 앞에 들어오는 문은 말이지 제일 먼저 들어오는 문은 대문이렌 ᄒᆞ고 말이여.(뭐 조그만 문들 말이야 만들어 가지고 사람 편하게 사용했지. 이름 같은 거는 잘 모르지마는 뭐 그 앞에 들어오는 문은 말이지 제일 먼저 들어오는 문은 대문이라고 하고 말이야.)

108012 @ 이문간에는?(문간채에는?)

108012 #1 이문간이 주로 말이지 그 저 이문간에는 그때도 이문간 영 만들엉 사는 사람은 별로 엇엇어. 그 잘사는 사람이 이문간 잇어서 살고 못사는 사람은 그냥 들락날락 헹 잇엇주. 뭐 조금 뭐 흔 집은 양쪽에 돌구멍 이렇게 파진 걸로 헤서 나무 하나 걸쳐 잇으면 이 집에 사람이 엇다. 또 작대기 알드레 놓면 아 이 집에 사람이 잇구나 이런 걸 표시헷거든 옛날에.(문간채가 주로 말이지 그 저 문간채에는 그때도 문간채 이렇게 만들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 그 잘사는 사람이 문간채 있어서 살고 못사는 사람은 그냥 들락날락 해서 있었지. 뭐 조금 뭐 한 집은 양쪽에 돌구멍 이렇게 파진 걸로 해서 나무 하나 걸쳐 있으면 이 집에 사람이 없다. 또 작대기 아래에 놓으면 아 이 집에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표시했거든 옛날에.)

108013 @ 호령창[184]이라고 알아마씨?('호령창'이라고 알아요?)

108013 #1 호령창은 몰라.('호령창'은 몰라.)

108014 @ 그럼 굴묵 잇잖아예?(그럼 '굴묵' 있잖아요?)

108014 #1 굴묵은 아 여기도 쭉 우리가 어릴 때도 굴묵 때서 살앗주게.('굴묵'은 아 여기도 쭉 우리가 어릴 때도 '굴묵' 때서 살았지.)

108014 @ 그럼 그 재료는 보통 나무꽝?(그럼 그 재료는 보통 나무입니까?)

108014 #1 아니 ᄀᆞ시락이렌 헤 가지고. ᄀᆞ시락은 뭐냐면 보리를 탈곡헹 놔두민 보리에서 나오는 ᄀᆞ시락허고 ᄆᆞᆯ똥이나 소똥 뭐 이런 거 마른 거를 헤 가지고 그대로 쭉 밀어 넣으면 한꺼번에 타질 안 헤. 이건 점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아침까지 쭉 타서 은근하게 방을 데펴주거든.(아니 까끄라기라고 해 가지고. 까끄라기가 뭐냐면 보리를 탈곡해서 놔두면 보리에서 나오는 까끄라기하고 말똥이나 소똥 뭐 이런 거 마른 거를 해 가지고 그대로 쭉 밀어 넣으면 한꺼번에 타지를 않아. 이건 점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아침까지 쭉 타서 은근하게 방을 데워주거든.)

108014 @ 예.(예.)

108014 #1 뭐 그자 요새 식으로 말이여 온도 올리면 쫙 올라가고 그러진 않고 ᄀᆞ시락이나 ᄆᆞᆯ똥이나 소똥 ᄀᆞ튼 거 그런 거를 주워다그넹 주로 굴묵 땟지.(뭐 그저 요즘 식으로 말이야 온도 올리면 쫙 올라가고 그러진 않고 까끄라기나 말똥이나 소통 같은 거 그런 거를 주워다가 주로 '굴묵' 땠지.)

184) '호령창'은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으로 판문으로 만들어 창'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15 @ 그럼 풍채는 알아마씨?(그럼 차양은 알아요?)
108015 #1 풍채는 그 저기 저 초가집 지은 데에서.(차양은 그 저기 저 초가집 지은 데에서.)
108015 @ 예.(예.)
108015 #1 제일 앞에 비가 내려오면.(제일 앞에 비가 내려오면.)
108015 @ 예.(예.)
108015 #1 그 풍채를 이렇게 영 올리면 그 비가 바깥으로 쭉 떨어지게 만든 거주게. 그 풍채를 열어 불면은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바로 떨어지면 사람이 아주 불편헤.(그 차양을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그 비가 바깥으로 쭉 떨어지게 만든 거지. 그 차양을 열어 버리면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바로 떨어지면 사람이 아주 불편해.)
108015 @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 내릴 때 허는 거?(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 내릴 때 하는 거?)
108015 #1 ᄋᆞ.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내쳐 가지고.(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내쳐 가지고.)
108015 @ 예.(예.)
108015 #1 양쪽으로 작대기를 이렇게 받쳐 가지고 말이여 헷다가 또 비 안 올 때는 내릴 수도 잇곡 비 올 때는 받쳐 가지고 비를 바깥으로 빼고.(양쪽으로 작대기를 이렇게 받쳐 가지고 말이야 했다가 또 비 안 올 때는 내릴 수도 있고 비 올 때는 받쳐 가지고 비를 바깥으로 빼고.)
108015 @ 그거 헷빛 가리개로도 사용헷인가마씨?(그거 햇빛 가리개로도 사용했었나요?)
108015 #1 ᄋᆞ. 뭐 그런 거지 주로.(어. 뭐 그런 거지 주로.)
108015 @ 헷빛이나 비 때문에.(햇빛이나 비 때문에.)
108015 #1 ᄋᆞ. 헷빛ᄒᆞ고 비 그런 걸 가림막으로 사용헷지.(어. 햇빛하고 비 그런 걸 가림막으로 사용했지.)
108015 @ 종류는 엇엇인가마씨?(종류는 없었나요?)
108015 #1 종류는 그거는 주로 그 저기 저 나무로 헤서 우에다가 철판 그 뭐냐면 양철, 양철로 주로 만들엇어.(종류는 그거는 주로 그 저기 저 나무로 해서 위에다가 철판 그 뭐냐면 양철. 양철로 주로 만들었어.)
108016 @ 그럼 물팡[185] 잇잖아예? 물팡 물허벅이나.(그럼 '물팡' 있잖아요? '물팡'. '물허벅'이나.)
108016 #1 물팡 그건 집집마다 물팡이엔 ᄒᆞᆫ 게 물허벅 놓는 물팡 잇주게. 물허벅ᄒᆞ고 물팡 위에 물허벅 잇으면 이건 뭐 자기네 집안에서 뭐 물이 엇이민 아침 다음날 아침 누게가 가서 일찍 가서 물 질러 오고 주로 여자들이 가서 물 질러 왓지.('물팡' 그건 집집마다 '물팡'이라고 한 게 '물허벅' 놓는 '물팡' 잇지. '물허벅'하고 '물팡' 위에 '물허벅' 있으면 이건 뭐 자기네 집안에서 뭐 물이 없으면 아침 다음날 아침 누구가 가서 일찍

185)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곳'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가서 물 길어 오고 주로 여자들이 가서 물 길어 왔지.)
108016 @ 아, 주로 여자들이 강 질어완마씨?(아, 주로 여자들이 가서 길어왔어요?)
108016 #1 남자들이 양동이 지게 헤서 양쪽으로 말이여 두 개 놔서 ᄒᆞ고. 여자는 물허벅으로 질어 오고 헷어.(남자들이 양동이 지게 해서 양쪽으로 말이야 두 개 놔서 하고. 여자는 '물허벅'으로 길어 오고 했어.)
108017 @ 그럼 골목은 여기는 지금 다 옛날부터 이 상태연마씨?(그럼 골목은 여기는 지금 다 옛날부터 이 상태였어요?)
108017 #1 아니지. 옛날에는 길게 들어간 골목도 잇곡 또 뭐 직접 도로에 인접헤서 바로 들어가는 집도 잇곡 그것도 참 다양헷지.(아니지. 옛날에는 길게 들어간 골목도 있고 또 뭐 직접 도로에 인접해서 바로 들어가는 집도 있고 그것도 참 다양했지.)
108018 @ 그 문간채는 종류 뭐 헐 때 쓰는 거주마씨?(그 문간채는 종류 뭐 할 때 쓰는 거지요?)
108018 #1 문간채는 말이여 대문 옆에.(문간채는 말이야 대문 옆에.)
108018 @ 예.(예.)
108018 #1 그 아까도 뭐 ᄆᆞᆯ방이나 말이여 말이나 소나 기르는 거나 아니면 창고나.(그 아까도 뭐 마구간이나 말이야 말이나 소나 기르는 거나 아니면 창고나.)
108018 @ 예. 보통 창고.(예. 보통 창고.)
108018 #1 ᄋᆞ. 한쪽에는 가축용이고 한쪽에는 쌀, 보리 ᄀᆞ튼 거 조나 이런 말이지 그런 거 헹 오면 곡식 저장소로 문간채는 주로 그걸로 사용됐어.(어. 한쪽에는 가축용이고 한쪽에는 쌀, 보리 같은 거 조나 이런 말이지 그런 거 해서 오면 곡식 저장소로 문간채는 주로 그걸로 사용했지.)
108018 @ 아, 주로 소나 말이나.(아, 주로 소나 말이나.)
108018 #1 한쪽은 가축 사용이고 한쪽은 창고. 곡식 비축 ᄀᆞ튼 거 생활에 필요헌 것들 그렇게 헤그넹 쟁기 ᄀᆞ튼 것도 거기다 보관허고 말이지 뭐 무슨 말이지 소 잇인 사람은 쟁기도 잇어야 밧 갈고 하니깐 문간채는 주로 그걸로 사용헷지.(한쪽은 가축 사용이고 한쪽은 창고. 곡식 비축 같은 거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해서 쟁기 같은 것도 거기다 보관하고 말이지 뭐 무슨 말이지 소 있는 사람은 쟁기도 있어야 밭 갈고 하니깐 문간채는 주로 그걸로 사용했지.)
108019 @ 어르신 가리 터도 들어보션마씨?(어르신 가리 터도 들어보셨어요?)
108019 #1 그런 건 못 들어봔.(그런 건 못 들어봤어.)
108020 @ 그 돼지 키우는 데 잇잖아예? 집집마다 돼지 키우지 않안마씨?(그 돼지 키우는 데 있잖아요? 집집마다 돼지 키우지 않았어요?)
108020 #1 옛날에는 집집마다 말이여 통지렌 헤그넹 통지에 주로 말이여 돼지 한 마리 안 키우는 데가 엇어. 왜냐면 이 우리가 대소변을 거기 가서 보거든.(옛날에는 집집마다 말이야 변소라고 해서 변소에 주로 말이야 돼지 한 마리 안 키우는 데가 없어. 왜냐면 이 우리가 대소변을 거기 가서 보거든.)
108020 @ 예.(예.)

108020 #1 그면 돼지는 그걸 먹엇어. 옛날에는 글자 그대로 똥돼지지. 똥돼지가 그거 먹당 이제 그 보리 씻거난 물 뭐 무슨 구정물 이런 사료 씻거난 물 ᄀᆞ튼 거 이런 거를 ᄀᆞ치 음식찌꺼기엔 헤 가지고 통지에 가그넹 돗도고리[186]에다가 비워 주면.(그러면 돼지는 그걸 먹었어. 옛날에는 글자 그대로 똥돼지지. 똥돼지가 그거 먹다가 이제 그 보리 씻은 물 뭐 무슨 구정물 이런 사료 씻은 물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음식찌꺼기라고 해 가지고 변소에 가서 '돗도고리'에다가 비워 주면.)

108020 @ 예.(예.)

108020 #1 그것도 먹고 사람의 대변도 먹고 헤서 말이여 통지는 전부 다 하나씩 잇인 게 왜냐면 그 화장실이 엇이민 사람 살 수 엇잖아게. 그러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하나 잇으려면 돼지는 쪼그만 허게라도 하나 통지를 멘들어야 돼.(그것도 먹고 사람의 대변도 먹고 해서 말이야 변소는 전부 다 하나씩 있는 게 왜냐면 그 화장실이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하나 있으려면 돼지는 쪼그만 하게라도 하나 변소를 만들어야 돼.)

108020 @ 음.(음.)

108020 #1 자기가 대소변을 볼라면 이디서 키왓다가 팔기도 허고 잡아먹기도 허고 이렇게 헷지.(자기가 대소변을 보려면 여기서 키웠다가 팔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108021 @ 그믄 변소 잇잖아예? 통지가 변소?(그러면 변소 있잖아요? '통지'가 변소?)

108021 #1 통지가 변소주게. 글자 그대로 통지는 변소라. 우리 재래식으로 말하면 통지.('통지'가 변소지. 글자 그대로 '통지'는 변소야. 우리 재래식으로 말하면 '통지'.)

108021 @ 그럼 통지에는 그 부춛돌 잇잖아예? 그 돌 똥 싸려면.(그럼 변소에는 그 부춛돌 있잖아요? 그 돌 똥 싸려면.)

108021 #1 ᄋᆞ. 이렇게 두 개 놓고 어떤 집은 이렇게 가림막이 잇곡 어떤 집은 하나도 엇엇주게.(어. 이렇게 두 개 놓고 어떤 집은 이렇게 가림막이 있고 어떤 집은 하나도 없었지.)

108021 @ 아, 하나도 엇언마씨?(아, 하나도 없었어요?)

108021 #1 ᄋᆞ. 그대로 가족들만 보는 거고 ᄒᆞ니까 그렇게 크게 뭐 ᄒᆞ지 않으니까 말이여 못사는 데는 그런 가림막이 엇고 조금 사는 데는 앞이나 옆에 가릴 수 잇게 돌로 좀 쌓는다든가.(어. 그대로 가족들만 보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뭐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못사는 데는 그런 가림막이 없고 조금 사는 데는 앞이나 옆에 가릴 수 있게 돌로 좀 쌓는다든가.)

108022 @ 헛간 잇잖아예? 헛간.(헛간 있잖아요? 헛간.)

108022 #1 ᄋᆞ.(어.)

108022 @ 제주도에도 헛간은 그냥 헛간이라고 헨마씨?(제주도에도 헛간은 그냥 헛간이라고 했어요?)

---

186) '돗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22 #1 헛간은 뭐 창고 ᄀᆞ튼 거를 헛간이라고.(헛간은 뭐 창고 같은 거를 헛간이라고.)
108022 @ 창고는 제주도에서도 창고라고 헷지예?(창고는 제주도에서도 창고라고 했지요?)
108022 #1 ᄋᆞ. 그걸 헛간으로 옛날엔 썻지. 헛간에 강 보렌 헤그넹.(어. 그걸 헛간으로 옛날엔 썼지. 헛간에 가서 보라고 해서.)
108022 @ 그럼 헛간에는 뭐, 뭐 담주마씨?(그럼 헛간에는 뭐, 뭐 담지요?)
108022 #1 헛간에는 뭐 농기구 필요한 궹이 ᄀᆞ튼 거 무슨 말이지 쟁기 ᄀᆞ튼 거 뭐 삽 뭐 이런 농기구를 주로 사용헷어 헛간에는.(헛간에는 뭐 농기구 필요한 괭이 같은 거 무슨 말이지 쟁기 같은 거. 뭐 삽 뭐 이런 농기구를 주로 사용했어. 헛간에는.)
108023 @ 소 키우는 데 웨양간이라고 허는데 여기서는 소막이라고 헷지예?(소 키우는 데 외양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소막'이라고 했지요?)
108023 #1 웨양간이옌 헌 것도 헷주마는 주로 쉐막에 강 보렌 헤.(외양간이라고 한 것도 했지마는 주로 '쉐막'에 가서 보라고 해.)
108023 @ 쉐막은 어떻게 생견마씨?(외양간은 어떻게 생겼어요?)
108023 #1 아, 쉐막에 뭐, 뭐 이런 창고 그 들어오는 집 대문 옆에다가 쪼그만 허게 말이여 비만 가려잇곡 앞에만 문 잇인 거고 안에는 다 막아진 데인데.(아, 외양간에 뭐, 뭐 이런 창고 그 들어오는 집 대문 옆에다가 쪼그만 하게 말이야 비만 가려있고 앞에만 문 있는 거는 안에는 다 막힌 데인데.)
108023 @ 예.(예.)
108023 #1 거기서 그자 출이나 이렇게 주곡 ᄒᆞ면.(거기서 그저 꼴이나 이렇게 주고 하면.)
108023 @ 예.(예.)
108023 #1 출 주면 거기서 먹엇다그넹.(꼴 주면 거기서 먹었다가.)
108023 @ 예.(예.)
108023 #1 또 때가 뒈면 저녁 때 뒈면은 쉐 끗엉 나와근에 말이여 물 잇인데 물 멕영 또 그렇게.(또 때가 되면 저녁 때 되면 소 끌고 나와서 말이야 물 있는데 물 먹여서 또 그렇게.)
108023 @ 아.(아.)
108023 #1 그것도 물 안 먹으면 살지 못ᄒᆞ거든. 소도 소출 먹고 이제 거기서 쉐막에서 먹어지면 드러누워서 자기도 ᄒᆞ고.(그것도 물 안 먹으면 살지 못하거든. 소도 소꼴 먹고 이제 거기서 외양간에서 먹어지면 드러누워서 자기도 하고.)
108024 @ 그러면 장독대 잇잖아예?(그러면 장독대 있잖아요?)
108024 #1 ᄋᆞ.(어.)
108024 @ 장독대는 어디에 위치헤마씨?(장독대는 어디에 위치해요?)
108024 #1 주로 정지 뒤쪽에 아니면 옛날에는 옥상이 별로 엇고 ᄒᆞ니깐.(주로 부엌 뒤쪽에 아니면 옛날에는 옥상이 별로 없고 하니깐.)

108024 @ 예.(예.)
108024 #1 부엌 가까운 데.(부엌 가까운 데.)
108024 @ 예.(예.)
108024 #1 거기다가 장독대를 주로 많이 사용헷어. 왜냐면 뭰장이나 뭐 무슨 말이여 간장이나 뭐나 소금 이렇게 가져가기 편리하게끔.(거기다가 장독대를 주로 많이 사용했어. 왜냐면 된장이나 뭐 무슨 말이야 간장이나 뭐나 소금 이렇게 가져가기 편리하게끔.)
108024 @ 정지 바로 옆에?(부엌 바로 옆에?)
108024 #1 으. 정지 옆에다가 그 헷볕 잘 들어오는 쪽으로 그 장독대는 그렇게 헤서 설치헷엇고.(어. 부엌 옆에다가 그 햇볕 잘 들어오는 쪽으로 그 장독대는 그렇게 해서 설치했었고.)
108024 @ 예.(예.)
108024 #1 지금은 그 옥상들이 잇으니까 옥상들에다가 장독대를 많이 설치허고 그리고 이제는 별로 장독대 헤그넹 의미가 엇고.(지금은 그 옥상들이 있으니까 옥상들에다가 장독대를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는 별로 장독대 해서 의미가 없고.)
108024 @ 그주마씨.(그렇지요.)
108024 #1 주로 마트에 강 당일. 당일 장독대에서 필요흔 거 다 사오니까 그러니까 뭰장 말이여 집에서 담가 먹는 사람은.(주로 마트에 가서 당일. 당일 장독대에서 필요한 거 다 사오니까 그러니까 된장 말이야 집에서 담가 먹는 사람은.)
108024 @ 예.(예.)
108024 #1 그런 거 조금 잇곡 소금 ᄀᆞ튼 거 놧다가 배추 절이거나 무 절여서 김치 허기 위헤서 말이야 ᄒᆞ는 거 그런 간단헌 것만 집에 놓고 ᄒᆞ니까.(그런 거 조금 있고 소금 같은 거 놨다가 배추 절이거나 무 절여서 김치 하기 위해서 말이야 하는 거 그런 간단한 것만 집에 놓고 하니까.)
108025 @ 그럼 춤[187]이나 춤항[188]은 들어보션마씨?(그럼 '춤'아니 '춤항'은 들어보셨어요?)
108025 #1 춤항? 그건 항아리 이야기허는 건가?('춤항'? 그건 항아리 이야기하는 건가?)

초가 지붕이기

108026 @ 그 초가집에 지붕이기 헌다고 허잖아예?(그 초가집에 지붕이기 한다고 하잖아요?)
108026 #1 으. 지붕 일주게. 이 년에 한 번.(어. 지붕 일지. 이 년에 한 번.)
108026 @ 여기는 이 년에 한 번 헤마씨?(여기는 이 년에 한 번 해요?)

187) '춤'은 '새를 머리 땋듯이 땋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88) '춤항'은 ''춤'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담는 항아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08026 #1 주로 이 년 아니면 삼 년에 한 번 헷어. 이 년 내지 삼 년 늦으면 삼 년 넘으면은 안 뒈고.(주로 이 년 아니면 삼 년에 한 번 했어. 이 년 내지 삼 년 늦으면 삼 년 넘으면 안 되고.)

108026 @ 예.(예.)

108026 #1 뭐 한 삼 늦어서 이삼 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새를 비어다가 새밧 엇인 사람은 새를 사서 그래서 누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눌은 사람이 잇어.(뭐 한 삼 늦어서 이삼 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띠를 베어다가 띠밭 없는 사람은 띠를 사서 그래서 가리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가리는 사람이 있어.)

108026 @ 아, 누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잇어마씨?(아, 가리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어요?)

108026 #1 ᄋᆞ. 초가집 눌러 다니는 사람이 잇어 가지고 그 사람 빌어 가지고 눌면 일당 얼마 줘 가지고.(어. 초가집 가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 구해 가지고 가리면 일당 얼마 줘 가지고.)

108026 @ 새밧은 뭐꽝?(띠밭은 뭐입니까?)

108026 #1 새밧게. 거 소출로 사용ᄒᆞ는 거지마는.(띠밭. 거 소꼴로 사용하는 거지마는.)

108026 @ 예.(예.)

108026 #1 그게 자라 불면 새가 뒈는 거라. 말하자면 어릴 때는 조그만 풀이 뒈는데 막 자라면 우리 키만이 건줌 헤. 뭐 이만큼 하니까 그거 비엇다가 하면 새로 일률적으로 쭉 물을 잘 빨아. 그래 가지고 그거로 초가집 짓는 거주게.(그게 자라 버리면 띠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어릴 때는 조그만 풀이 되는데 막 자라면 우리 키만큼 거의 해. 뭐 이만큼 하니까 그거 베었다가 하면 띠로 일률적으로 쭉 물을 잘 빨아. 그래 가지고 그거로 초가집 짓는 거지.)

108027 @ 그면 새랑 또 그다음에 각단[189]도 쓰잖아예.(그러면 띠랑 또 그다음에 '각단'도 쓰잖아요.)

108027 #1 각단은 그런 것이 호꼼 굵은 것이 각단으로 새는 좀 가늘고 뭐 ᄒᆞ고 각단으로 ᄒᆞ는 건 좀 굵은 거.('각단'은 그런 것이 조금 굵은 것이 '각단'으로 띠는 좀 가늘고 뭐 하고 '각단'으로 하는 건 좀 굵은 거.)

108027 @ 그럼 새밧에서 새를 비어 온 다음에 뭐 옛날 ᄀᆞ튼 경우에는.(그럼 띠밭에서 띠를 베어 온 다음에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108027 #1 구루마 ᄀᆞ튼 걸로 실어그넹 와그넹.(수레 같은 걸로 실어서 와서.)

108027 @ 아, 실어그넹 와그넹.(아, 실어서 와서.)

108027 #1 ᄋᆞ.(어.)

108027 @ 그럼 새랑 각단은 서꺼서 써마씨?(그럼 띠랑 '각단'은 섞어서 써요?)

108027 #1 뭐 서꺼서 쓸 수 잇주게. 좀 굵은 거는 우로 가고 얇은 거는 밑으로 가게 헤서 든든허게 허려면 각단도 필요ᄒᆞ주게.(뭐 섞어서 쓸 수 있지. 좀 굵은 거는 위로 가

189)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각다니'라고도 한다.

고 얇은 거는 밑으로 가게 해서 든든하게 하려면 '각단'도 필요하지.)
108028 @ 그럼 집줄[190] 만들 때 진줄[191]이나 짧은 줄 잇잖아예.(그럼 '집줄' 만들 때 '진줄'이나 짧은 줄 있잖아요.)
108028 #1 으.(어.)
108028 @ 그 진줄은 어떤 때 쓰고 짧은 줄은 어떤 때 쓰주마씨?(그 '진줄'은 어떤 때 쓰고 짧은 줄은 어떤 때 쓰지요?)
108028 #1 그 용도에 따라서.(그 용도에 따라서.)
108028 @ 예.(예.)
108028 #1 이렇게 가로 갈 때는 길고 세로 갈 때는 짧고.(이렇게 가로 갈 때는 길고 세로 갈 때는 짧고.)
108028 @ 그런 용도에 따라서.(그런 용도에 따라서.)
108028 #1 이렇게 세로로 오는 줄은 짧고 가로로 가는 줄은 길고.(이렇게 세로로 오는 줄은 짧고 가로로 가는 줄은 길고.)
108028 @ 그럼 그 줄은 뭘로 만들주마씨?(그럼 그 줄은 뭘로 만들지요?)
108028 #1 그 새로.(그 띠로.)
108028 @ 아, 줄도 새로.(아, 줄도 띠로.)
108028 #1 새로 헤서 이렇게 호롱이[192]라고 헤 가지고.(띠로 해서 이렇게 '호롱이'라고 해 가지고.)
108028 @ 예.(예.)
108028 #1 호롱이라고 헤서 그 저기 그 새 꼽는 기구가 잇어.('호롱이'라고 해서 그 저기 그 띠 꼽는 기구가 있어.)
108028 @ 아, 기구가 잇어마씨?(아, 기구가 있어요?)
108028 #1 으. 그걸 호롱이라고 헤. 그걸 이렇게 나간 것이 기역자로 뒈어 가지고 새를 이렇게 걸면 이디서 삥삥삥삥 돌게 헤서 여기는 요만큼 한 막대기 그 저 호롱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역자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그 새 꼬아져.(어. 그걸 '호롱이'라고 해. 그걸 이렇게 나간 것이 기역자로 되어 가지고 띠를 이렇게 걸면 여기서 삥삥삥삥 돌게 해서 여기는 요만큼 한 막대기 그 저 '호롱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역자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 그 띠 꼬아져.)
108028 @ 아, 그게 호롱이구나예?(아, 그게 '호롱이'군요?)
108028 #1 새ᄒᆞ고 호롱이ᄒᆞ고 잇이면 앞에서 양쪽에 줄 잡아주는 사람 잇주게. 돌리면 그럼 돌리면 꼬아질 거 아니야. 그럼 자꾸 연결헤줘야 줄이 돼주게. 어느 정도 뒈면 끗나면 새로 허고.(띠하고 '호롱이'하고 있으면 앞에서 양쪽에 줄 잡아주는 사람 있지. 돌리면 그럼 돌리면 꼬아질 거 아니야. 그럼 자꾸 연결해줘야 줄이 돼지. 어느 정도 되면 끝나면 띠로 하고.)
108031 @ 그럼 집줄 맬 때도 몇 번 횟수가 잇어마씨?(그럼 '집줄' 맬 때도 몇 번 횟

190)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191) '진줄'은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기다란 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건줄'이라고도 한다.
192) '호롱이'는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제구'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훼롱, 훼롱이'라고도 한다.

수가 있어요?)
108031 #1 아니 보통 그자 그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 번 감아 가지고 흝아 가지고 무끄더라고.(아니 보통 그저 그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 번 감아 가지고 홅아 가지고 묶더라고.)
108032 @ 그럼 집줄 쓰당 남은 거는?(그럼 '집줄' 쓰다가 남은 거는?)
108032 #1 거 남은 거는 땔감으로 쓰주게.(거 남은 거는 땔감으로 쓰지.)

연장

108033 @ 그럼 집 지을 때 쓰는 연장이 다양허잖아예? 뭐, 뭐 잇주마씨?(그럼 집 지을 때 쓰는 연장이 다양하잖아요? 뭐, 뭐 있지요?)
108033 #1 집 지을 때는 뭐 톱 무신 자귀 뭐 무슨 함마 뭐, 뭐 무슨 제주도는 뭐 나무도 잇곡 여러 가지 잇겟지. 집 지을 때 쓰는 연장들은.(집 지을 때는 뭐 톱 무슨 자귀 뭐 무슨 해머 뭐, 뭐 무슨 제주도는 뭐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 집 지을 때 쓰는 연장들은.)
108034 @ 그럼 톱 잇잖아예? 톱도 종류가?(그럼 톱 있잖아요? 톱도 종류가?)
108034 #1 아, 톱 여러 가지지.(아, 톱 여러 가지지.)
108034 @ 여러 가지 종류 좀?(여러 가지 종류 좀?)
108034 #1 장톱 긴 것도 잇곡 그거는 큰 나무들 말이지 이런 그 통나무 ᄀᆞ튼 거 자를 때는 장톱으로 헤서 양쪽으로 둘이 말이여 길게 양쪽에 팔잡이가 잇어.(장톱 긴 것도 있고 그거는 큰 나무들 말이지 이런 그 통나무 같은 거 자를 때는 장톱으로 해서 양쪽으로 둘이 말이야 길게 양쪽에 팔잡이가 있어.
108034 @ 예.(예.)
108034 #1 아, 손잡이가 잇어 이렇게 헤서 옛날 그 박 쌀 때 그런 것들이 큰 거는 장톱이고 그런 장톱 말고는 말이지 그 양쪽으로 하나는 굵은 거 싸는데 큰 나무 싸는 데는 날이 좀 굵고 또 작은 거 쌀 때는 톱날이 작은 거 양면에 잇인 톱들이 인제 많고.(아, 손잡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옛날 그 박 켤 때 그런 것들이 큰 거는 장톱이고 그런 장톱 말고는 말이지 그 양쪽으로 하나는 굵은 거 켜는데 큰 나무 켜는 데는 날이 좀 굵고 또 작은 거 켤 때는 톱날이 작은 거 양면에 있는 톱들이 인제 많고.)
108034 @ 예.(예.)
108034 #1 또 하나로 뒈 가지고 앞에만 싸는 톱도 잇곡. 톱도 종류가 거 아주 많아.(또 하나로 되 가지고 앞에만 켜는 톱도 있고. 톱도 종류가 거 아주 많아.)
108034 @ 줄톱은 언제 쓰주마씨?(줄톱은 언제 쓰지요?)
108034 #1 줄톱 ᄀᆞ튼 거는 쉐 자를 때 말이지 이런 강헌 거 그런 거 자를 때는 쉐톱으로 자르면 웬만한 파이프 ᄀᆞ튼 것도 다 자르주게.(줄톱 같은 거는 쇠 자를 때 말이지 이런 강한 거 그런 거 자를 때는 쇠톱으로 자르면 웬만한 파이프 같은 것도 다 자르지.)
108035 @ 못을 박은 다음에 못 뽑을 때?(못을 박은 다음에 못 뽑을 때?)
108035 #1 못빼기.(못뽑이.)

108035 @ 못빼기로 빼마씨?(못뽑이로 빼요?)
108035 #1 못빼기가 잇곡. 빠루라고 헤 가지고 긴 걸로 헤서 빠는 거는 힘이 덜 들고 함마에 붙어 잇인 못빼기는 힘들어.(못뽑이가 있고. 장도리라고 해 가지고 긴 걸로 해서 빼는 거는 힘이 덜 들고 해머에 붙어 있는 못뽑이는 힘들어.)
108035 @ 아, 함마에 붙어 잇인 거를 못빼기라 헤마씨?(아, 해머에 붙어 있는 거를 못뽑이라고 해요?)
108035 #1 응. 그걸 못빼기라 허고 긴 건 빠루.(어. 그걸 못뽑이라 하고 긴 건 장도리.)
108036 @ 그면 그 나무 부드럽게 허젠 허면 대패 쓰잖아예? 대패도 종류가 잇언마씨?(그러면 그 나무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 대패 쓰잖아요? 대패도 종류가 있었어요?)
108036 #1 대패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잇겟주. 아무튼 나무 부드럽게 깎아 내는 것도 잇주마는.(대패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 아무튼 나무 부드럽게 깎아 내는 것도 있지마는.)
108036 @ 예.(예.)
108036 #1 뭐 무슨 말이여 그것도 족은 것도 잇곡 큰 것도 다양허게 잇인 걸로.(뭐 무슨 말이야 그것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108037 @ 자는 어때마씨? 자도 써마씨?(자는 어때요? 자도 써요?)
108037 #1 자. 줄자도 잇곡 곱은자라고 헤서 기역자로 뭰 자도 잇곡.(자. 줄자도 있고 곱자라고 해서 기역자로 된 자도 있고.)
108037 @ 그걸 곱은자라 헤마씨?(그걸 '곱은자'라고 해요?)
108037 #1 응. 줄자 이런 건 길게 말이여 잇인 자도 잇곡 자도 여러 가지야.(어. 줄자 이런 건 길게 말이야 있는 자도 있고 자도 여러 가지야.)
108038 @ 그럼 먹통이랑 먹줄에 대헤서 좀 골아 줍서.(그럼 먹통이랑 먹줄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108038 #1 먹통은 주로 일직선을.(먹통은 주로 일직선을.)
108038 @ 예.(예.)
108038 #1 이제 만약에 뭐 자르려면 먹통 가져 가지고 저쪽 가서 말이지.(이제 만약에 뭐 자르려면 먹통 가져 가지고 저쪽 가서 말이지.)
108038 @ 예.(예.)
108038 #1 지정한 디 딱 목수가 표시헤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땡겨 와.(지정한 데 딱 목수가 표시해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당겨 와.)
108038 @ 그게 먹줄마씨?(그게 먹줄이에요?)
108038 #1 응. 먹줄로 땡겨 오면 이제 우에서 말이여 이렇게 영 들러그넹 딱 놓면 딱 일직선으로 그게 먹통에 줄 가운데로 반듯허게 자르고 싶으면은 저듸 가운데부터 이듸 가운데까지 영 오면 먹통 소곱에는 저 솜 닮은 거 놔서.(어. 먹줄로 당겨 오면 이제 위에서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딱 놓으면 딱 일직선으로 그게 먹통에 줄 가운데로 반듯하게 자르고 싶으면 자기 가운데부터 여기 가운데까지 이렇게 오면 먹통 속에는 저

솜 같은 거 놔서.)
108038 @ 예.(예.)
108038 #1 먹물 놔 가지고 그 속에 줄이 잇어. 줄 쭉 잡아당 위로 딱 땡기면 곧장 영 표시가 나.(먹물 놔 가지고 그 속에 줄이 있어. 줄 쭉 잡아다가 위로 딱 당기면 곧장 이렇게 표시가 나.)
108038 @ 요즘에는 먹통, 먹줄 못 본 거 닮아마씨.(요즘에는 먹통, 먹줄 못 본 거 같아요.)
108038 #1 아, 이제도 잇인데 이제는 잘 사용 안 ᄒᆞ고 그 저기 저 레이저 닮은 걸로 딱 허더라고.(아, 이제도 있는데 이제는 잘 사용 안 하고 그 저기 저 레이저 같은 걸로 딱 하더라고.)
108039 @ 그럼 흙손이나 흙받이 잇잖아예? 이렇게 흙 바르는 거.(그럼 흙손이나 흙받기 있잖아요? 이렇게 흙 바르는 거.)
108039 #1 거 쒜손, 쒜손.(거 '쒜손', '쒜손'.)
108039 @ 거 쒜손이라 헤마씨?(거 '쒜손'이라 해요?)
108039 #1 ᄋᆞ.(어.)
108039 @ 아, 그면 쒜손은 그게 쒜로 뭰 것이 쒜손이고 나무로 뭰 것도 쒜손이라 헤마씨?(아, 그러면 '쒜손'은 그게 쇠로 된 것이 '쒜손'이고 나무로 된 것도 '쒜손'이라 해요?)
108039 #1 아니. 나무로 뭰 것도 말이지 그것도 하여튼 손은 손인데.(아니. 나무로 된 것도 말이지 그것도 하여튼 손은 손인데.)
108039 @ 예.(예.)
108039 #1 쒜손은 저기 저 흑이나 뭐 쎄면 ᄀᆞ튼 거 쒜손으로 허고 나무로 일차 초벌헐 때는 나무로 뭰 걸로 일단 어느 정도 평지 만들 때까지는 나무손으로 허고 그다음에는 쒜손으로 마무리 허더라고.(흙손은 저기 저 흙이나 뭐 시멘트 같은 거 흙손으로 하고 나무로 일차 초벌 할 때는 나무로 된 걸로 일단 어느 정도 평지 만들 때까지는 나무손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흙손으로 마무리 하더라고.)

9. 신앙

109001 @ 가신이 잇잖아예? 가신. 집에서 모시는 신들.(가신이 있잖아요? 가신. 집에서 모시는 신들.)
109001 #1 ᄋᆞ.(어.)
109001 @ 가신에 종류 혹시 아는 거 잇어마씨?(가신에 종류 혹시 아는 거 있어요?)
109001 #1 뭐 가신은 집에서 말이지 자기가 뭐 조상들을 섬기는 말이지 그 옛날에 저쪽에 토산 ᄀᆞ튼 데는 뱀.(뭐 가신은 집에서 말이지 자기가 뭐 조상들을 섬기는 말이지 그 옛날에 저쪽에 토산 같은 데는 뱀.)

109001 @ 아, 토산에서는 뱀?(아, 토산에서는 뱀?)
109001 #1 ᄋᆞ. 뱀을 그 주로 말이여 집집마다 저기 다 모셧거든.(어. 뱀을 그 주로 말이야 집집마다 저기 다 모셨거든.)
109001 @ 아.(아.)
109001 #1 또 게서 토산에 그 저기 저 뱀신은 꽂뱀들은 여자가 시집가면 따라 다닌다고 헷거든.(또 그래서 토산에 그 저기 저 뱀신은 꽃뱀들은 여자가 시집가면 따라 다닌다고 했거든.)
109001 @ 아, 그게 가신마씨?(아, 그게 가신이에요?)
109001 #1 게난 그런 신도 잇엇주마는 뭐 집집마다 뭐 섬기는 게 뭐 주로 뱀을 많이 저기 뭐 모셧던 것 같애.(그러니까 그런 신도 있었지마는 뭐 집집마다 뭐 섬기는 게 뭐 주로 뱀을 많이 저기 뭐 모셨던 것 같아.)
109001 @ 그럼 여기는 뭐 옹포에는 엇언마씨?(그럼 여기는 뭐 옹포에는 없었어요?)
109001 #1 뭐 옹포에도 모셧던 사람이 주로 저 뱀.(뭐 옹포에도 모셨던 사람이 주로 저 뱀.)
109001 @ 어르신 그 어렷을 때는 민간 신앙이 많앗잖아예? 지금처럼 교회나 성당 엇이난.(어르신 그 어렸을 때는 민간 신앙이 많았잖아요? 지금처럼 교회나 성당 없으니까.)
109001 #1 그 옛날에는 주로 뭐 심방 ᄀᆞ튼 거나 이런 점 ᄀᆞ튼 거 보는 사람 뭐 무슨 사람 죽으면 말이여 어디 뭐 좋은 날 길일 택일하는 정시.(그 옛날에는 주로 뭐 무당 같은 거나 이런 점 같은 거 보는 사람 뭐 무슨 사람 죽으면 말이야 어디 뭐 좋은 날 길일 택일하는 지관.)
109001 @ 예.(예.)
109001 #1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는 무당 뭐 무슨 정시. 정시는 사람 죽으면은 날짜 보거나 결혼ᄒᆞ게 뒈면은 택일 ᄀᆞ튼 거 헤주는 게 정시거든.(이런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는 무당 뭐 무슨 지관. 지관은 사람 죽으면 날짜 보거나 결혼하게 되면 택일 같은 거 해주는 게 지관이거든.)
109001 @ 아, 그걸 정시라고 헤마씨?(아, 그걸 지관이라고 해요?)
109001 #1 정시라고 ᄒᆞ여. 정시는 날짜 택일 ᄀᆞ튼 거 이렇게 좋은 이사 갈 일 잇으면 그듸 정시 집에 강 물어보면 무슨 날은 말이여 길일이니까 그날 몇 시에 그 집에 이사 가면 잘 뒈고 그런 것들이 주로 정시가 헷던 거고.(지관이라고 해. 지관은 날짜 택일 같은 거 이렇게 좋은 이사 갈 일 있으면 거기 지관 집에 가서 물어보면 무슨 날은 말이야 길일이니까 그날 몇 시에 그 집에 이사 가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주로 지관이 했던 거고.)
109001 @ 예.(예.)
109001 #1 사람이 아프거나 조금 뭐 이상허면 무당. 무당을 불러 가지고 이제 굿을 허고 그것도 잘 안 들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쳐가지고 뭐 어떻게 헤서 말이여 병이 들엇고 어떵 ᄒᆞ민 낫는지 그건 점집에 가서 알아보곡.(사람이 아프거나 조금 뭐 이상하

면 무당. 무당을 불러 가지고 이제 굿을 하고 그것도 잘 안 들면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쳐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말이야 병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 그건 점집에 가서 알아보고.)

109002 @ 그 뭐냐 가신 중에 집을 지키는 가신을 성주라고 하잖아예? 성주라고 허는데 집 지키는 신은 들어본 적 잇어마씨?(그 뭐냐 가신 중에 집을 지키는 가신을 성주라고 하잖아요? 성주라고 하는데 집 지키는 신은 들어본 적 있어요?)

109002 #1 그 성주풀이라고 헤 가지고.(그 성주풀이라고 해 가지고.)

109002 @ 예.(예.)

109002 #1 예전에 집을 지으면은 꼭 성주풀이를 헷거든.(예전에 집을 지으면 꼭 성주풀이를 했거든.)

109002 @ 아, 집을 지으면 성주풀이를 헨마씨?(아, 집을 지으면 성주풀이를 했어요?)

109002 #1 어. 게. 성주풀이가 뭐냐면 그 집의 신을.(어. 그럼. 성주풀이가 뭐냐면 그 집의 신을.)

109002 @ 예.(예.)

109002 #1 모셔오는 거야. 이제 새로 지엇으니까 이 집에 신이.(모셔오는 거야. 이제 새로 지었으니까 이 집에 신이.)

109002 @ 예.(예.)

109002 #1 들어오십쇼 헤 가지고 허는 것이 성주풀이거든. 그게 성주라고 허는 그 말이 그거를 심방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주풀이를 헤 건줌.(들어오십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성주풀이거든. 그게 성주라고 하는 그 말이 그거를 무당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주풀이를 해 거의.)

109002 @ 아, 맞다 저도 어렷을 때 이사 가면 보통 무당. 심방 불러 가지고 막 팟ᄀᆞ튼 거 뿌리고.(아, 맞다 저도 어렸을 때 이사 가면 보통 무당. 무당 불러 가지고 막 팥 같은 거 뿌리고.)

109002 #1 ᄋᆞ. 뭐 소금도 뿌리고 말이지 잡귀 물러가라고 뭐 ᄒᆞ고 이렇게 허고. 새집 지으면 옛날에는 꼭 성주풀이를 헷어 새집을 지으면 그 집에 새로 온 이 집의 신 그 말 허자면 가신이지.(어. 뭐 소금도 뿌리고 말이지 잡귀 물러가라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새집을 지으면 그 집에 새로 온 이 집의 신 그 말하자면 가신이지.)

109002 @ 예.(예.)

109002 #1 집 가신이 그 신이.(집 가신이 그 신이.)

109002 @ 예.(예.)

109002 #1 들어오십서 헤 가지고 심방으로 헹 불러 가지고 들어오게 ᄒᆞ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지 예식.(들어오십쇼 해 가지고 무당으로 해서 불러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지 예식.)

109003 @ 그럼 문전제[193]도 헷인가마씨 문전제.(그럼 '문전제'도 했었나요? '문전제'.)

193) '문전제'는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문제'라고도 한다.

109003 #1 문전제 ᄀᆞ튼 데도 말이여 뭐 무슨 닭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닭 모가지 잘라 가지고 문설주에다 말이여 그 ᄒᆞ고 말이여 헤 가지고 잡귀도 오지 말렌 헤 가지고 잘 뒈게 헤 달라고 하게 헤서 집 다 지어서 젤 위에 올라 갈 때는 꼭 닭 모가지는 말이여.('문전제' 같은 데도 말이야 뭐 무슨 닭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닭 모가지 잘라 가지고 문설주에다 말이야 그 하고 말이야 해 가지고 잡귀도 오지 말라고 해 가지고 잘 되게 해 달라고 하게 해서 집 다 지어서 젤 위에 올라 갈 때는 꼭 닭 모가지는 말이야.)

109003 @ 예.(예.)

109003 #1 좀 그 저기 저 털 벗겨 가지고 목수가 상량이여[194] 상량이여 상량이여 세 번 딱 할 때 딱 찍어그넹 그 저기 저 닭을 말이여.(좀 그 저기 저 털 벗겨 가지고 목수가 '상량이여' '상량이여' '상량이여' 세 번 딱 할 때 딱 찍어서 그 저기 저 닭을 말이야.)

109003 @ 죽여마씨?(죽여요?)

109003 #1 목을 말이여 딱 잘라서 헤그넹 딱 던지면 그 닭이 닭 피가 타다닥 헤그넹 살아 가지고 마당에 뛰고 말이야 다 ᄒᆞ여 그게 상량에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상량이 제일 위에 긴 나무가 그 상량허는 그 대들보 나무라.(목을 말이야 딱 잘라서 해서 딱 던지면 그 닭이 닭 피가 타다닥 해서 살아 가지고 마당에 뛰고 말이야 다 해. 그게 상량에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상량이 제일 위에 긴 나무가 그 상량하는 그 대들보 나무야.)

109003 @ 아.(아.)

109003 #1 거기에다가 목수가 ᄒᆞᆯ 때는 그 상량ᄒᆞᆯ 대는 양쪽에서 말이여 큰 저기 저 미녕줄로 헤그넹 양쪽으로 헤 가지고 말이여 올릴 때는 돈들도 거기에 양쪽에 ᄃᆞᆯ아메 가지고 그 돈을 하영 ᄃᆞᆯ아메면 목수가 잡아 올리고 안 ᄃᆞᆯ아메면 안 올리고게 그거는 다 목수 모가지니까.(거기에다가 목수가 할 때는 그 상량할 대는 양쪽에서 말이야 큰 저기 저 무명줄로 해서 양쪽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올릴 때는 돈들도 거기에 양쪽에 달아매 가지고 그 돈을 많이 달아매면 목수가 잡아 올리고 안 달아매면 안 올리고 그거는 다 목수 모가지니까.)

109003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9003 #1 경 헤 가지고 양쪽으로 막 달아 올려서 이제 다 올라가면 딱 제자리에 놔 가지고 목수가 수목수가 집 짓는 제일 큰 목수가 장닭을 올려. 것도 암탉은 안 뒈고.(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으로 막 달아 올려서 이제 다 올라가면 딱 제자리에 놔 가지고 목수가 수목수가 집 짓는 제일 큰 목수가 수탉을 올려. 것도 암탉은 안 되고.)

109003 @ 예.(예.)

109003 #1 장닭 올려 가지고 장닭 모가지에 말이여 털을 말이여 몇 개 뽑아그넹 인제 털을 말이여 요만큼 ᄒᆞ게 뽑아 가지고 딱 잡아 가지고는 말이여 상량이여 상량이여 상량이여 이렇게 ᄒᆞᆯ 때 딱 찍어.(수탉 올려 가지고 수탉 모가지에 말이야 털을 말이야 몇 개 뽑아서 인제 털을 말이야 요만큼 하게 뽑아 가지고 딱 잡아 가지고는 말이야 '상

194) '상량소리'는 '집을 지을 때에 마룻대를 올리면서 부르는 주술적인 민요'를 의미한다.

량이여’ ‘상량이여’ ‘상량이여’ 이렇게 할 때 딱 찍어.)
109003 @ 상량.(상량.)
109003 #1 상량이 집이 이렇게 다 됏다 그 뜻이거든.(상량이 집이 이렇게 다 됐다 그 뜻이거든.
109003 @ 예.(예.)
109003 #1 인제 그래서 그 상량헤 가지고 그 닭 모가지를 짤라 가지고 던지고 ᄒᆞ면 피가 살아잇인 거니까 막 튀어나오고 게면 그 닭 떨어진 거 문설주에 가서 피도 바르고.(인제 그래서 그 상량해 가지고 그 닭 모가지를 잘라 가지고 던지고 하면 피가 살아 있는 거니까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 닭 떨어진 거 문설주에 가서 피도 바르고.)
109004 @ 그럼 부엌 지키는 신을 조왕이라고 허잖아예?(그럼 부엌 지키는 신을 조왕이라고 하잖아요?)
109004 #1 조왕, 조왕신.(조왕, 조왕신.)
109004 @ 예. 조왕신은 뭐 아시는 거 잇어마씨?(예. 조왕신은 뭐 아시는 거 있어요?)
109004 #1 조왕신은 뭐 글자 그대로 부엌을 지켜주시는 신인데.(조왕신은 뭐 글자 그대로 부엌을 지켜주시는 신인데.)
109004 @ 예.(예.)
109004 #1 인제 그 옛날에 그자 할망들 이야기헌 거야 조왕신은 여자가.(인제 그 옛날에 그저 할머니들 이야기한 거야 조왕신은 여자가.)
109004 @ 예.(예.)
109004 #1 그 저기 저 부정 타지 아니 ᄒᆞ고 어떻게 잘헤달랜 말이지 옛날에는 조왕에다 말이지 제사나 뭐 멩질 헤 나민 조왕에다 떡이나 뭐나 꼭 올려낫어.(그 저기 저 부정 타지 않고 어떻게 잘해달라고 말이지 옛날에는 조왕에다 말이지 제사나 뭐 명절 해 나면 조왕에다 떡이나 뭐나 꼭 올렸었어.)
109004 @ 아.(아.)
109004 #1 그게 어디냐면 고팡이주 고팡.(그게 어디냐면 고방이지 고방.)
109004 @ 아, 고팡에다가?(아, 고방에다가?)
109004 #1 ᄋᆞ. 고팡에 조왕신 모셔 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나 멩질 지내면 요만큼 허게 뭐 헤그넹 조왕신 헹 뭐 올리거든.(어. 고방에 조왕신 모셔 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나 명절 지내면 요만큼 하게 뭐 해서 조왕신 해서 뭐 올리거든.)
109004 @ 문전에는 그거 지금도 뭐 올리잖아예?(문전에는 그거 지금도 뭐 올리잖아요?)
109004 #1 아, 문전이라고 헌 거는 이제는 그 옛날에는 문 잇어. 대문에서 들어오면 큰집에.(아, 문전이라고 한 거는 이제는 그 옛날에는 문 있어. 대문에서 들어오면 큰집에.)
109004 @ 예.(예.)
109004 #1 이제 그 문에다가 놔서 제를 제일 먼저 문전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본 예식을 지내는 거라. 멩질이나 제사를 홀 때도 말이지.(이제 그 문에다가 놔서 제를 젱리

먼저 ‘문전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본예식을 지내는 거야. 명절이나 제사를 할 때도 말이지.)
109005 @ 그럼 칠성도 들어보션마씨?(그럼 칠성도 들어보셨어요?)
109005 #1 칠성도 뭐 들어봣주마는 그런 조왕신이나 그런 칠성신 ᄀᆞ튼 거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그 뭐 조상들이 섬겻던 신의 하나의 일종이고.(칠성도 뭐 들어봤지마는 그런 조왕신이나 그런 칠성신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그 뭐 조상들이 섬겼던 신의 하나의 일종이고.)

10. 세시풍속

정월

110001 @ 정월 명절 잇잖아예?(정월 명절 있잖아요?)
110001 @ 읏.(어.)
110001 @ 정월 명절에 대헤서 좀 ᄀᆞᆯ아 줍서.(정월 명절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110001 #1 정월 명절은 뭐 글자 그대로 음력 일월 일일이 그 정월 멩질이라고 헤 가지고.(정월 명절은 뭐 글자 그대로 음력 일월 일일이 그 정월 명절이라고 해 가지고.)
110001 @ 예.(예.)
110001 #1 정월 멩질 뒈면은 뭐 그 차례 집안에 차례를 지낸 다음에.(정월 명절 되면 뭐 그 차례 집안에 차례를 지낸 다음에.)
110001 @ 예.(예.)
110001 #1 동네 웃어른들한테 가서 세배도 헷고 그 일 년에 그 마을에 돌아갓던 분의 인제 집에 상을 놧거든 옛날이.(동네 웃어른들한테 가서 세배도 했고 그 일 년에 그 마을에 돌아갔던 분의 인제 집에 상을 놨거든 옛날에.)
110001 @ 아, 그렇게 헨마씨?(아, 그렇게 했어요?)
110001 #1 읏. 저 돌아가도 상을 일 년간 이렇게 놓면 일월 정초 때는 가서 꼭 그 상난 집에 가서 세배를 헷어 옛날엔.(어. 저 돌아가도 상을 일 년간 이렇게 놓으면 일월 정초 때는 가서 꼭 그 초상난 집에 가서 세배를 했어 옛날엔.)
110001 @ 그 한 해에 돌아가신?(그 한 해에 돌아가신?)
110001 #1 읏. 그 해에 돌아간 분의 집에는 꼭 상에 놓여 잇어. 일 년간 모셧다가 그만허는 거지마는 일 년 동안 말이여 옛날엔 삭일이라고 헤서.(어. 그 해에 돌아간 분의 집에는 꼭 상이 놓여 있어. 일 년간 모셨다가 그만하는 거지마는 일 년 동안 말이야 옛날엔 삭일이라고 해서.)
110001 @ 예.(예.)
110001 #1 초하루 보름 이렇게 이틀 허는 집도 잇엇고.(초하루 보름 이렇게 이틀 하는 집도 있었고.

110001 @ 예.(예.)
110001 #1 초하루만 허는 집도 잇엇어. 그래서 일 년 열두 달 그 초하루를 헤 가지고 그다음해에 말이지 소상, 대상 겹쳐 가지고 그거 허면 그때 상 엇어지주게.(초하루만 하는 집도 있었어. 그래서 일 년 열두 달 그 초하루를 해 가지고 그다음해에 말이지 소상, 대상 겹쳐 가지고 그거 하면 그때 상 없어지지.)
110002 @ 그럼 정월대보름 잇잖아예?(그럼 정월대보름 있잖아요?)
110002 #1 ᄋᆞ.(어.)
110002 @ 정월대보름 때는 뭐허주마씨?(정월대보름 때는 뭐하지요?)
110002 #1 정월대보름도 옛날엔 명절이라고 헷는데.(정월대보름도 옛날엔 명절이라고 했는데.)
110002 @ 예.(예.)
110002 #1 우리 어릴 때는 정월대보름이라고 헤 가지고 말이지 그 뭐 명절 ᄀᆞ치 허거나 헌 것은 엇어. 육지에서는 쥐불놀이 뭐 헌다고 헷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도 엇엇고.(우리 어릴 때는 정월대보름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 그 뭐 명절 같이 하거나 한 것은 없어. 육지에서는 쥐불놀이 뭐 한다고 했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도 없었고.)
110003 @ 그럼 방사나 액막이는 들어보션마씨?(그럼 방사나 액막이는 들어보셨어요?)
110003 #1 뭐 액막이 ᄀᆞ튼 거는 주로 말이여 집안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많거나 그러면 심방 불러다그넹 그 액막이를 헌다고 ᄒᆞ지.(뭐 액막이 같은 거는 주로 말이야 집안에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많거나 그러면 무당 불러다가 그 액막이를 한다고 하지.)
110003 @ 보통 일월 달에 헤마씨?(보통 일월 달에 해요?)
110003 #1 ᄋᆞ. 주로 정월달에 음력 정초에 ᄒᆞ여. 음력 멩질 넘어 가지고 뭐 하튼 일월 정월 보름 이전에 주로 뭐 서낭당에 가던지 뭐 무슨 어딜 가던지 나그네를 심방 닮은 사람을 불렁 집에서 허던지 전부 다 정월 초순에 헤.(어. 주로 정월달에 음력 정초에 해. 음력 명절 넘어 가지고 뭐 하여튼 일월 정월 보름 이전에 주로 뭐 서낭당에 가던지 뭐 무슨 어딜 가던지 무당을 무당 같은 사람을 불러서 집에서 하던지 전부 다 정월 초손에 해.)
110003 @ 아, 정월 초순에?(아, 정월 초순에?)
110003 #1 ᄋᆞ.(어.)
110004 @ 그럼 포제는 들어보션마씨?(그럼 포제는 들어보셨어요?)
110004 #1 포제는 ᄒᆞ는 마을도 잇곡 안 ᄒᆞ는 마을도 잇엇는데.(포제는 하는 마을도 있고 안 하는 마을도 있었는데.
110004 @ 예.(예.)
110004 #1 우리는 옛날 저기 저 지답이라고 허는 그 마을제가 지내는 곳이 잇어 가지고.(우리는 옛날 저기 저 지답이라고 하는 그 마을제가 지내는 곳이 있어 가지고.)
110004 @ 예.(예.)
110004 #1 일 년에 한 번 말이지 그 저기 저 돼지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생으로 내장

만 내어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그 마을 포제ᄒᆞ는 전날 잡앙 다음날 새벽에 제를 지내는데.(일 년에 한 번 말이지 그 저기 저 돼지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생으로 내장만 내어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그 마을 포제하는 전날 잡아서 다음날 새벽에 제를 지내는데.)

110004 @ 예.(예.)

110004 #1 일주일 간 그 포제ᄒᆞ는 사람들이 그 마을 포제ᄒᆞ는 그 옆에다가 집을 빌어 가지고 일주일 간 정성을 들여그넹 지관들을 선정헤. 지관은 뭐 작년에 결혼헌 사람들로 한헤 가지고 그 인제 일곱 사람이나 여섯 사람 뽑아 가지고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일주일 간 그 포제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 포제하는 그 옆에다가 집을 빌려 가지고 일주일 간 정성을 들여서 지관들을 선정해. 지관은 뭐 작년에 결혼한 사람들로 한해 가지고 그 인제 일곱 사람이나 여섯 사람 뽑아 가지고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

110004 @ 예.(예.)

110004 #1 집에 가지를 못헤. 부정 탄다고 헤그넹 각시허고 말이여 그렇게 관계허고 허면 부정 탄다고 헤서.(집에 가지를 못해. 부정 탄다고 해서 각시하고 말이야 그렇게 관계하고 하면 부정 탄다고 해서.)

110004 @ 일주일 간 거기 살아야 돼마씨?(일주일 간 거기 살아야 돼요?)

110004 #1 ᄋᆞ. 일주일 간 살다가 제일 마지막날 목욕탕 짓는 집에서 가서 목욕헤서 다음날 새벽 네 시인가 세 시에 제를 지내. 그 마을 포제.(어. 일주일 간 살다가 제일 마지막날 그 목욕탕 짓는 집에서 가서 목욕해서 다음날 새벽 네 시인가 세 시에 제를 지내. 그 마을 포제.)

110004 @ 여기 옹포리에서도 하션마씨?(여기 옹포리에서도 하셨어요?)

110004 #1 경 헤 가지고 일주일 간 마을 포제ᄒᆞ는 집 잇인 데서 말이여 뭐 사람들 가서 놀기도 허고 희사도 쪼끔 헤주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윳도 놀고 술도 먹고 말이여 헤 가지고 놀앗지.(그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 간 마을 포제하는 집 있는 데서 말이야 뭐 사람들 가서 놀기도 하고 희사도 쪼끔 해주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윷도 놀고 술도 먹고 말이야 해 가지고 놀았지.)

110004 @ 어르신도 헤 보션마씨?(어르신도 해 보셨어요?)

110004 #1 ᄋᆞ.(어.)

110005 @ 그럼 안택도 알아마씨? 안택?(그럼 안택도 알아요? 안택?)

110005 #1 안택이옌 혼 거는.(안택이라고 한 거는.)

110006 @ 그면 정월달에 보리밧 밟기 하잖아예? 그거는 왜 허는 거주마씨?(그러면 정월달에 보리밭 밟기 하잖아요? 그거는 왜 하는 거지요?)

110006 #1 보리가 웃자라면은 보리가 안 뭰다고 헤 가지고 그걸 밟아주면 보리가 튼튼허고 그 아마 저기 저 결실을 잘 맺는다고 헤 가지고 말이지.(보리가 웃자라면 보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밟아주면 보리가 튼튼하고 그 아마 저기 저 결실을 잘 맺는다고 해 가지고 말이지.)

110006 @ 예.(예.)

110006 #1 그 저기 저 보리밟기를 헌다고 ᄒᆞ여. 근데 우리는 보리밟기 헤 보지는 안

헷어. 말만 들엇지.(그 저기 저 보리밟기를 한다고 해. 근데 우리는 보리밟기 해 보지는 않았어. 말만 들었지.)

110007 @ 그믄 저 정월달에 한 해 농사 잘 뒈게 헤 달라고 안 헷인가마씨?(그러면 저 정월달에 한 해 농사 잘 되게 해 달라고 안 했었나요?)

110007 #1 주로 말이지 일 받아 가지고 날짜 받아서.(주로 말이지 일 받아 가지고 날짜 받아서.)

110007 @ 예.(예.)

110007 #1 집 안에 와서 그 심방이라든가 그 나그네를 빌어와 가지고 비는 거지. 일년 동안 무사 안녕이라든가 모든 거를 잘 뒈게 헤 달라고 일월 초순에 허는 것들이 각 집안마다 잇엇고.(집 안에 와서 그 무당이라든가 무당을 빌려와 가지고 비는 거지. 일년 동안 무사 안녕이라든가 모든 거를 잘 되게 해 달라고 일월 초순에 하는 것들이 각 집안마다 있었고.)

110007 @ 걸궁이라고 들어보션마씨?(걸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10007 #1 걸궁은 그거는 뭐 마을마다 어떤 행사가 잇으면.(걸립은 그거는 뭐 마을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110007 @ 예.(예.)

110007 #1 우리 옹포에서는 무슨 걸궁ᄒᆞ는 팀에서는 무슨 주제가 잇주게. 뭐 무슨 멜 잡는 걸궁이라든가 뭐 무슨 다양허게 그 지방에서 나는 말이지 보리타작허면 보리타작허는 걸궁. 뭐 그런 식으로 말이여 주제를 멘들어그넹.(우리 옹포에서는 무슨 걸립하는 팀에서는 무슨 주제가 있지. 뭐 무슨 멸치 잡는 걸립이라든가 뭐 무슨 다양하게 그 지방에서 나는 말이지 보리타작하면 보리타작하는 걸립. 뭐 그런 식으로 말이야 주제를 만들어서.)

110007 @ 예.(예.)

110007 #1 마을별로 나가 가지고 걸궁 대항도 허고 옛날 뭐 쪼끔 헷지. 뭐 각양각색의 옷들 입고 벨 벨 살장귀도 허고 뭐 북도 갖고 별게 다 등장혜.(마을별로 나가 가지고 걸립 대항도 하고 옛날 뭐 쪼끔 했지. 뭐 각양각색의 옷들 입고 별 별 설장구도 하고 뭐 북도 갖고 별게 다 등장해.)

110008 @ 그럼 정월달에 입춘이랑 우수도 잇잖아예?(그럼 정월달에 입춘이랑 우수도 있잖아요?)

110008 #1 입춘은 이제 이월 사일이 입춘이거든.(입춘은 이제 이월 사일이 입춘이거든.)

110008 @ 예.(예.)

110008 #1 이월 사일이 완전히 그건 뭐 거 양력 이월 사일이 입춘이면 입춘 전후로 헤서 십사일 간이 제주도에서 말하는 신구간[195]이라 신구간. 신구간은 이사를 하는데.(이월 사일이 완전히 그건 뭐 거 양력 이월 사일이 입춘이면 입춘 전후로 해서 십사일

195) '신구간'은 '제주도에서,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의 약 일주일을 이르는 기간'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하여 행사를 치러도 큰 탈이 없다고 한다.

간이 제주도에서 말하는 ‘신구간’이야 ‘신구간’. ‘신구간’은 이사를 하는데.)
110008 @ 예.(예.)
110008 #1 그 신구간에는 지상에 잇인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아무런 이사허는데 뭐 그 저기 부정 타거나 문제 엇이 아무런 일 엇는 날이 신구간이라고 헤 가지고 이사하는 거거든.(그 ‘신구간’에는 지상에 있는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아무런 이사하는데 뭐 그 저기 부정 타거나 문제 없이 아무런 일 없는 날이 ‘신구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사하는 거거든.)
110008 @ 아, 기구나예. 신들이 교대한다고 헤그넹.(아, 그렇군요. 신들이 교대한다고 해서.)
110008 #1 신구간이라고 헤서 신들이 여기 잇인 지상에 잇인 신들이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리고 ᄒᆞ니까 여기 관장하는 신들이 엇일 때 이렇게 이사허면은 아무런 탈도 엇고 문제가 엇다 그런 뜻이지 신구간은.(‘신구간’이라고 해서 신들이 여기 있는 지상에 있는 신들이 하늘로 다 올라가 버리고 하니까 여기 관장하는 신들이 없을 때 이렇게 이사하면 아무런 탈도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지 ‘신구간’은.)

2월

110009 @ 그럼 이월 달에 영등 잇잖아예?(그럼 이월 달에 영등 있잖아요?)
110009 #1 영등도 이월. 그 저기 저 입춘이 지나그넹 영등 올 거여. 영등에도 옛날엔 말이 많앗지. 영등에 빨래ᄒᆞ면 집안에 구데기가 일고 말이여.(영등도 이월. 그 저기 저 입춘이 지나서 영등 올 거야. 영등에도 옛날엔 말이 많았지. 영등에 빨레하면 집안에 구더기가 일고 말이야.)
110009 @ 아, 그런 금기사항이 잇언마씨?(아, 그런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110009 #1 ᄋᆞ. 거 뭐 영등 와 가지고 말이지 뭐 소라 다 까먹어 부난 비엇져 보말 다 까먹어 부난 빈보멀밧긔 엇져 뭐 무신 영등이 그런 말이지 바당신으로 와 가지고는 풍족함도 주고 뭐 그 저 가난도 줄 수 잇인 그런 신으로 헤 가지고.(어. 거 뭐 영등 와 가지고 말이지 뭐 소라 다 까먹어 버리니까 비었다 고둥 다 까먹어 버리니까 빈고둥밖에 없다 뭐 무슨 영등이 그런 말이지 바다신으로 와 가지고는 풍족함도 주고 뭐 그 저 가난도 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해 가지고.)
110009 @ 그럼 영등신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간다고 헤마씨?(그럼 영등신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간다고 해요?)
110009 #1 그거는 아마 바다 쪽에서 와서 바다 쪽으로 나간다고 헤서 영등굿 헤 나면 찍으로 만든 배를 영등배를 태와 가지고 영등 잘 보낸다고 그런 것들이 잇거든.(그거는 아마 바다 쪽에서 와서 바다 쪽으로 나간다고 해서 영등굿 하면 짚으로 만든 배를 영등배를 태워 가지고 영등 잘 보낸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110009 @ 아.(아.)
110009 #1 영등굿 헤 가지고 지금도 하기는 홀 거야 제주시에서.(영등굿 해 가지고

지금도 하기는 할 거야 제주시에서.)
110010 @ 그럼 이월 달에 경칩이나 춘분도 잇잖아예?(그럼 이월 달에 경칩이나 춘분도 있잖아요?)
110010 #1 그런 거는 벨로 사용 안 ᄒᆞ고.(그런 거는 별로 사용 안 하고.)
110010 @ 옛날에도 사용 안 헨마씨?(옛날에도 사용 안 했어요?)
110010 #1 옛날도 그자 뭐 그런 사절기에 하나지. 우수, 경칩 뭐 다 절기상에 잇인 말이고 그런 거에 행사는 별로 엇고.(옛날도 그저 뭐 그런 사절기에 하나지. 우수, 경칩 뭐 다 절기상에 있는 말이고 그런 거에 행사는 별로 없고.)

3월

110011 @ 그럼 삼월 달에 한식명절 잇잖아예?(그럼 삼월 달에 한식명절 있잖아요?)
110011 #1 한식명절은 글자 그대로 한식 그 밥을 식혀 가지고 말이여 멩질헤서 먹엇다는 그것이 잇인데 우리도 말만 들엇지 한 번도 헤 보지는 안 ᄒᆞ고.(한식명절은 글자 그대로 한식 그 밥을 식혀 가지고 말이야 명절해서 먹었다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도 말만 들었지 한 번도 해 보지는 않고.)
110012 @ 그럼 삼월 달에 청명이나 곡우 이런 것도.(그럼 삼월 달에 청명이나 곡우 이런 것도.)
110012 #1 청명은 사월 오일. 청명이 산에 가 가지고 풀 ᄀᆞ튼 거를 이렇게 좀 손보고 이렇게 ᄒᆞ면 뭐 후탈도 엇고 아주 좋은 날이라고 헤서.(청명은 사월 오일. 청명이 산에 가 가지고 풀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손보고 이렇게 하면 뭐 후탈도 없고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해서.)
110012 @ 예.(예.)
110012 #1 산에는 함부로 가 가지고 풀이나 돌이라던가 옛날엔 함부로 움직이지 못헷주게.(산에는 함부로 가 가지고 풀이나 돌이라던가 옛날엔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지.)
110012 @ 예.(예.)
110012 #1 근데 청명날은 가서 만져도 괜찮앗다고 헤서 사월 오일 청명에는 산에 가서 말이여 뭐 잡초도 뽑고 소왕이도 뽑고 돌도 말이여 산담[196]도 무너지면 보수도 허고 이렇게 헷는데.(근데 청명날은 가서 만져도 괜찮았다고 해서 사월 오일 청명에는 산에 가서 말이야 뭐 잡초도 뽑고 엉겅퀴도 뽑고 돌도 말이야 '산담'도 무너지면 보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10012 @ 예.(예.)
110012 #1 지금은 인제 그런 것도 별로 이제 그 지켜지지도 않고.(지금은 인제 그런 것도 별로 이제 그 지켜지지도 않고.)

196) '산담'은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산잣'이라고도 한다.

4월

110013 @ 그럼 사월 달에 초파일 잇잖아예? 사월 초파일.(그럼 사월 달에 초파일 있잖아요? 사월 초파일.)
110013 #1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사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110013 @ 예.(예.)
110013 #1 주로 여기 잇인 사람들은 민간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은 주로 부처님 이제 허는데. 사월 초파일은 웬만허면 여자분들은 다 가곡 헷거든.(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민간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은 주로 부처님 이제 하는데. 사월 초파일은 웬만하면 여자분들은 다 가고 했거든.)
110013 @ 여기도 근처에 절 ᄀᆞ튼 거 잇어마씨?(여기도 근처에 절 같은 거 있어요?)
110013 #1 절?(절?)
110013 @ 예.(예.)
110013 #1 옹포에도 금강사도 잇곡 말이지 불교가 세 개가 잇어. 옹포 안에도 포교당도 잇고 말이지 주로 그 사월 초파일들은 남자들은 별로 안 가고 부녀자들이 가고. 옛날에는 종교가 별로 엇일 때는 무속신앙인 서낭당이라든가 이런 뭐 일 년에 한 번 날짜 받아 가지고 아까 얘기헷지만 집안에 나그네 와 가지고 심방 ᄀᆞ튼 사람이라 나그네는.(옹포에도 금강사도 있고 말이지 불교가 세 개가 있어. 옹포 안에도 포교당도 있고 말이지 주로 그 사월 초파일들은 남자들은 별로 안 가고 부녀자들이 가고. 옛날에는 종교가 별로 없을 때는 무속신앙인 서낭당이라든가 이런 뭐 일 년에 한 번 날짜 받아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집안에 무당 와 가지고 '심방' 같은 사람이야 '나그네'는.)
110013 @ 예.(예.)
110013 #1 심방 불러서 간단허게 한 대여섯 시간 말이지 왕 심방들이 집안에 무사안일을 빌어주고 헷거든.(무당 불러서 간단하게 한 대여섯 시간 말이지 와서 무당들이 집안에 무사안일을 빌어주고 했거든.)
110014 @ 그면 사월 달에 입하나 소만은 알아마씨?(그러며 사월 달에 입하나 소만은 알아요?)
110014 #1 그런 것도 계절의 일환이고 입하는 뭐 여름 온다고 헷주마는 그런 건 다 절기상의 일이고 행사는 엇고.(그런 것도 계절의 일환이고 입하는 뭐 여름 온다고 했지마는 그런 건 다 절기상의 일이고 행사는 없고.)

5월

110015 @ 그럼 오월 달에 단오명절 잇잖아예?(그럼 오월 달에 단오명절 있잖아요?)
110015 #1 오월 단오도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뭐 오월 단오에 명절도 허고 그네도 뛰고 헷다는데 거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서 오월 단오라던가 오월 명절은 한 번도 안 헷어.(오월 단오도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뭐 오월 단오에 명절도 하고 그네도 뛰고 했다는

데 거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서 오월 단오라던가 오월 명절은 한 번도 안 했어.)
110016 @ 뭐 망종이나 하지 ᄀᆞ튼 절기에도?(뭐 망종이나 하지 같은 절기에도?)
110016 #1 그런 것도 하나의 절기상 이름으로 행사 이런 것도 엇고.(그런 것도 하나의 절기상 이름으로 행사 이런 것도 없고.)

6월

110017 @ 유월 달에 닭 잡아먹는 날 잇잖아예?(유월 달에 닭 잡아먹는 날 있잖아요?)
110017 #1 유월 스무날이라고 헤서 유월 스무날이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헷어. 그 날이 아마 절기상으로 아주 그 막 날이 뜨거울 때야.(유월 스무날이라고 해서 유월 스무날이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했어. 그날이 아마 절기상으로 아주 그 막 날이 뜨거울 때야.)
110017 @ 소서, 대서 이런 거?(소서, 대서 이런 거?)
110017 #1 ᄋᆞ. 아주 날이 제일 뜨거운 유월 스무날은 고냉이 코도 저 어 멘도롱 흔다는 말도 잇어. 고냉이 코가 언제나 말이여 차가운디 유월 스무날은 고냉이 코도 멘도롱헌데. 멘도롱은 뜨뜻허다는 말인디. 그렇게 유월 스무날이 그렇게 절기상으로 사람이 말이여 뜨겁고 더위에 이기려면 듹을 잡아서 영양을 보충헤서 그 여름을 난다 헤서 듹 잡아먹는 유월 스무날이 옛날부터 잇엇어.(어. 아주 날이 제일 뜨거운 유월 스무날은 고양이 코도 저 어 조금 따뜻하다는 말도 있어. 고양이 코가 언제나 말이야 차가운데 유월 스무날은 고양이 코도 조금 따뜻한데. '멘도롱'은 따뜻하다는 말인데. 그렇게 유월 스무날이 그렇게 절기상으로 사람이 말이야 뜨겁고 더위에 이기려면 닭을 잡아서 영양을 보충해서 그 여름을 난다 해서 닭 잡아먹는 유월 스무날이 옛날부터 있었어.)
110018 @ 그면 삼복 그니까 유월 이십 날도 닭 잡아먹는데 보통 요즘에는 삼복더위에?(그러면 삼복 그러니까 유월 이십 날도 닭 잡아먹는데 보통 요즘에는 삼복더위에?)
110018 #1 삼복더위에는 개 잡아서 무슨 뭐 보신탕이라고 헤서.(삼복더위에는 개 잡아서 무슨 뭐 보신탕이라고 해서.)
110018 @ 아, 그럼 옛날에도 삼복 때 개 잡아 먹엇인가마씨?(아, 그럼 옛날에도 삼복 때 개 잡아 먹었었나요?)
110018 #1 아니. 뭐 직접 잡아먹지는 안 헤도 무슨 개고기 ᄒᆞ는 데도 그때는 별로 엇엇주마는 주로 그 삼복더위에는 그런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고 말이여 삼복더위 때는 더위를 이기려면 보신탕인가 헤서 개를 잡아서 먹으면 몸이 좋다는 말은 들엇지. 우리도 뭐 개는 잡아먹은 적은 잇어. 뭐 한두 번이지마는.(아니. 뭐 직접 잡아먹지는 않아도 무슨 개고기 하는 데도 그때는 별로 없었지마는 주로 그 삼복더위에는 그런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고 말이야 삼복더위 때는 더위를 이기려면 보신탕인가 해서 개를 잡아서 먹으면 몸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 우리도 뭐 개는 잡아먹은 적은 있어. 뭐 한두 번이지마는.)

7월

110020 @ 그면 칠월 달에는 칠석 잇잖아예 칠석 때는 뭐ᄒᆞ주마씨?(그러면 칠월 달에는 칠석 있잖아요? 칠석 때는 뭐하지요?)
110020 #1 칠석도 그거는 뭐 하나의 절기상으로 칠월 칠석 그 견우 직녀인가 만난다고 헤서 오작교에 뭐 그때는 지상에 잇인 까마귀가 다 올라가서 오작교에 다리를 놔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헤 가지고.(칠석도 그거는 뭐 하나의 절기상으로 칠월 칠석 그 견우 직녀인가 만난다고 해서 오작교에 뭐 그때는 지상에 있는 까마귀가 다 올라가서 오작교에 다리를 놔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해 가지고.)
110020 @ 예.(예.)
110020 #1 헤서 그 칠월 칠석이 넘으면 까마귀 머리가 다 빠졋다 그런 전설도 내려오지마는 그것도 다 말 뿐이고.(해서 그 칠월 칠석이 넘으면 까마귀 머리가 다 빠졌다 그런 전설도 내려오지마는 그것도 다 말 뿐이고.)
110021 @ 그럼 칠월 달에 백중제는 들어보션마씨?(그럼 칠월 달에 백중제는 들어보셨어요?)
110021 #1 백중은 저 칠월 열나흘 저 동쪽에는 칠월 보름을 백중이라 ᄒᆞ여.(백중은 저 칠월 열나흥 저 동쪽에는 칠월 보름을 백중이라 해.)
110021 @ 아, 동쪽이랑 서쪽이랑 달라마씨?(아, 동쪽이랑 서쪽이랑 달라요?)
110021 #1 ᄋᆞ. 이쪽ᄒᆞ고 저쪽에 물도 한 물 차이가 저쪽이 빠르고 이쪽이 늦고 그런 차이가 잇어. 백중은 우린 열나흘로 보고 저쪽에는 열보름으로 보고.(어. 이쪽하고 저쪽에 무날도 한 무날 차이가 저쪽이 빠르고 이쪽이 늦고 그런 차이가 있어. 백중은 우린 열나흘로 보고 저쪽에는 열보름으로 보고.)
110021 @ 그럼 백중 때는 뭐헤마씨?(그럼 백중 때는 뭐해요?)
110021 #1 백중 때는 주로 뭐헷냐면 냇가에 가서 물 맞아.(백중 때는 주로 뭐했냐면 냇가에 가서 물 맞아.)
110021 @ 물맞이 헤마씨?(물맞이 해요?)
110021 #1 ᄋᆞ. 물 이거 저 다리에 가서 물 맞고.(어. 물 이거 저 다리에 가서 물 맞고.
110021 #1 예.(예.)
110021 #1 대죽 ᄀᆞ튼 거 이렇게 뭐 옛날에 먹을 거 엇이난 대죽 말이여. 사탕대죽 잇인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디마디 한 묶음 가져 가지고 물 맞으면서 그거 벳겨 가지고 씹으면서 물 맞은 기억이 나.(대죽 같은 거 이렇게 뭐 옛날에 먹을 거 없으니까 대죽 말이야. 사탕수수 있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디마디 한 묶음 가져 가지고 물 맞으면서 그거 벗겨 가지고 씹으면서 물 맞은 기억이 나.)
110021 @ 그럼 물 맞으면 몸이 건강헤지는 거마씨?(그럼 물 맞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110021 #1 아니 더우니까 하도 덥고 ᄒᆞ니까 거 백중날도 ᄒᆞ면 바닷물도 제일 많이 들 때야. 빠질 때도 백중 때가 제일 많이 빠져. 삼월 보름 때랑 거의 비슷헤.(아니 더우

니까 하도 덥고 하니까 거 백중날도 하면 바닷물도 제일 많이 들 때야. 빠질 때도 백중 때가 제일 많이 빠져. 삼월 보름 때랑 거의 비슷해.)
110021 @ 그때 물맞이를 헤마씨?(그때 물맞이를 해요?)
110021 #1 으. 물맞이가 백중. 백중에 주로 옛날에는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우에서 떨어지는 물 맞고 근육통 이런 여러 가지로 좋다고 헤서 주로 물 맞앗어 옷 입어 가지고.(어. 물맞이가 백중. 백중에 주로 옛날에는 정방폭포, 천지연폭포 위에서 떨어지는 물 맞고 근육통 이런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서 주로 물 맞았어 옷 입어 가지고.)
110022 @ 모래찜도 헷수광?(모래찜도 했습니까?)
110022 #1 모래찜은 주로 삼양[197]에서 신경통 잇인 사람들.(모래찜은 주로 삼양에서 신경통 있는 사람들.)
110022 @ 예.(예.)
110022 #1 그걸 말이여 그 저기 가서 이렇게 다 헹 모가지만 이렇게 내놔 가지고는 헷던 게 모래찜인데.(그걸 말이야 그 저기 가서 이렇게 다 해서 모가지만 이렇게 내놔 가지고는 했던 게 모래찜인데.)
110022 @ 백중 때 주로 허거나 그런 건 엇언마씨?(백중 때 주로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110022 #1 아니 그런 거는 엇고. 해수욕 헐 때 가서 헌 걸로 알고 잇곡.(아니 그런 거는 없고. 해수욕 할 때 가서 한 걸로 알고 있고.)
110024 @ 그럼 절기 중에 입추에는 그래도 좀 특별헌 거 엇엇인가마씨?(그럼 절기 중에 입추에는 그래도 좀 특별한 거 없었나요?)
110024 #1 입추는 아무 것도 아니고. 입추는 그자 가을 들어온다는 절기상의 그 일이고.(입추는 아무 것도 아니고. 입추는 그저 가을 들어온다는 절기상의 그 일이고.)

8월

110025 @ 팔월에 벌초 하잖아예?(팔월에 벌초 하잖아요?)
110025 #1 으. 팔월 이제 초하루 전후 헤 가지고.(어. 팔월 이제 초하루 전후 해 가지고.)
110025 @ 예.(예.)
110025 #1 팔월절 들면 벌초를 헤. 팔월절 전에 벌초를 ᄒᆞ면.(팔월 절 들면 벌초를 해. 팔월절 전에 벌초를 하면.)
110025 @ 예.(예.)
110025 #1 벌초를 ᄒᆞ면 팔월 보름 뒈면 이만히 벌초 안 허게 뒌 것 ᄀᆞ치 풀이 자라.(벌초를 하면 팔월 보름 되면 이만큼 벌초 안 하게 된 것 같이 풀이 자라.)
110025 @ 예.(예.)
110025 #1 그런데 팔월절이라는 절기가 들면 풀을 비면 풀이 잘 안 자라. 그런 차이

197) '삼양'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동 중 하나이다.

가 잇거든. 그런 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당근을 싱글 때 절기가 하루 차이가 아무 것도 아니 닮아도.(그런데 팔월절이라는 절기가 들면 풀을 베면 풀이 잘 안 자라. 그런 차이가 있거든. 그런 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당근을 심을 때 절기가 하루 차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110025 @ 예.(예.)

110025 #1 절기 전에 싱근 거 허고 절기 하루 넘엉 싱근 거 허고 하늘과 땅 차이라. 이런 것이 조상들의 지혜라.(절기 전에 심은 거 하고 절기 하루 넘어서 심은 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이런 것이 조상들의 지혜야.)

110025 @ 벌초도 일부러 그때 허는 거구나예?(벌초도 일부러 그때 하는 거군요?)

110025 #1 응. 그러니까 팔월 이제 건줌 그믐 칠월 그믐 뒈 가면은 팔월 절기가 돌아와. 팔월절 들어야 벌초허는 거거든. 경 ᄒᆞ면 팔월 십오일까지 가보면 풀이 그대로 벌초헌 대로 뒈주마는 팔월 절기 들기 전에 칠월 달에 바빠서 말이지 일찍ᄒᆞᆫ 사람은 팔월 추석에 강 산에 강 보면은 벌초 안 헌 것 ᄀᆞ치 풀이 길어 불어. 그런 차이가 잇어.(어. 그러니까 팔월 이제 거의 그믐 칠월 그믐 되 가면 팔월 절기가 돌아와. 팔월절 들어야 벌초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팔월 십오일까지 가보면 풀이 그대로 벌초한 대로 되지마는 팔월 절기 들기 전에 칠월 달에 바빠서 말이지 일찍한 사람은 팔월 추석에 가서 산에 가서 보면 벌초 안 한 것 같이 풀이 길어 버려. 그런 차이가 있어.)

110026 @ 팔월 달에 큰 명절 잇잖아예?(팔월 달에 큰 명절 있잖아요?)

110026 #1 팔월 추석. 추석은 우리 국민의 대명절이고. 팔월 추석 ᄀᆞ치 큰 명절이 잇어 한가위 말이지. 팔월 추석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오늘 ᄀᆞ튼 날만 잇으면 좋겠다는 얼마나 우리 명절을 말이지.(팔월 추석. 추석은 우리 국민의 대명절이고. 팔월 추석 같이 큰 명절이 있어 한가위 말이지. 팔월 추석은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는 얼마나 우리 명절을 말이지.)

110026 @ 예.(예.)

110026 #1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못살아 놓니깐 팔월 명절 때, 제사 때밧긔 곤밥을 못 먹엇거든. 쌀밥을 못 먹엇어. 제사 때는 두 숟가락 정도도 안 놔그넹 밥을 줘.(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못살아 놓으니깐 팔월 명절 때, 제사 때밖에 흰밥을 못 먹었거든. 쌀밥을 못 먹었어. 제사 때는 두 숟가락 정도도 안 놔서 밥을 줘.)

110026 @ 아, 그렇게 적게?(아, 그렇게 적게?)

110026 #1 끗나면 옛날엔 그 쌀이 엇이니까 쌀로 밥헤서 그 제사 먹으레 온 친족들 줄 수가 엇어. 그게 두 숟가락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 그 옛날엔.(끝나면 옛날엔 그 쌀이 없으니까 쌀로 밥해서 그 제사 없으니까 쌀로 밥해서 그 제사 먹으러 온 친족들 줄 수가 없어. 그게 두 숟가락 정도 주면 많이 주는 거 그 옛날엔.)

9월

110028 @ 구월 달에 백로나 상강이 잇인디 그건.(구월 달에 백로나 상강이 있는데

그건.)
110028 #1 그런 것도 절기상의 이름 들이고.(그런 것도 절기상의 이름 들이고.)

10월

110029 @ 그럼 시월 달에 입동도 뭐 엇인가마씨?(그럼 시월 달에 입동도 뭐 없었나요?)
110029 #1 상강 뒈면은 그 한라산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헌다는.(상강 되면 그 한라산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110029 @ 상강?(상강?)
110029 #1 상강이 지나면 한라산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헌다고 헤서 상강이거든.(상강이 지나면 한라산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상강이거든.)
110029 @ 한라산에 서리가 내린다고마씨?(한라산에 서리가 내린다고요?)
110029 #1 ᄋᆞ. 이제 그때부터 겨울을 예고ᄒᆞ는 거지.(어. 이제 그때부터 겨울을 예고하는 거지.)

11월

110030 @ 그면 동지팟죽은 십일월 달에 먹잖아예?(그러면 동지팥죽은 십일월 달에 먹잖아요?)
110030 #1 십일월 이십이일 날에 이거는 이제 그 동지도게 아기동죽 잇곡 어른동죽 잇어.(십일월 이십이일 날에 이거는 이제 그 동지도 아기동지 있고 어른동지 있어.)
110030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10030 #1 아기동죽은 뭐 무슨 말이지 새알이라는 거 잇잖아.(아기동지는 뭐 무슨 말이지 새알이라는 거 있잖아.
110030 @ 예.(예.)
110030 #1 아기동죽 들 때는 새알을 안 넣곡, 어른동죽 헐 때는 새알 넣어서 먹는 다는 말을 들엇어.(아기동지 들 때는 새알을 안 넣고, 어른동지 할 때는 새알 넣어서 먹는다는 말을 들었어.)
110031 @ 그럼 십일월에 납평날은?(그럼 십일월에 납평날은?)
110031 #1 그런 것도 하나의 절기상의 그 이야기이지. 들어본 적도 엇고.(그런 것도 하나의 절기상의 그 이야기이지. 들어본 적어 없고.)
110032 @ 그럼 대설이나 동지 ᄀᆞ튼 것도 몰라마씨?(그럼 대설이나 동지 같은 것도 몰라요?)
110032 #1 대설 뭐 이렇게 좀 저기 소설이여 뭐여 대설이여 이렇게 ᄒᆞᆫ 거는 소설에 나간 사람은 무신 뭐 대설에 무신 못 돌아온다는 그런 말들이 잇주게.(대설 뭐 이렇게 좀 저기 소설이야 뭐야 대설이야 이렇게 한 거는 소설에 나간 사람은 무슨 뭐 대설에

무슨 못 돌아온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12월

110034 @ 신구간 때 이사 갈 집 잇잖아예? 그 옛날에는 이사 갈 집을 어떵 구헷주마씨?('신구간' 때 이사 갈 집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사 갈 집을 어떻게 구했지요?)
110034 #1 미리미리 돌아다니면서 구헷지. 미리 이사 가고 싶으면 딴 데로 이사 갈 데를 자기가 미리 가그넹 알아봐서 신구간에 이사 올 테니까 집을 비와 달라 또 거기 잇던 사람은 또 딴 데 알아보면서 이렇게 헷어 옛날에.(미리미리 돌아다니면서 구했지. 미리 이사 가고 싶으면 딴 데로 이사 갈 데를 자기가 미리 가서 알아봐서 '신구간'에 이사 올 테니까 집을 비워 달라 또 거기 있던 사람은 또 딴 데 알아보면서 이렇게 했어 옛날에.)
110035 @ 그럼 이사 갈 때 뭐부터 챙기주마씨?(그럼 이사 갈 때 뭐부터 챙기지요?)
110035 #1 제일 먼저 솟단지허고 요강단지 가져간다고 헷는데.(제일 먼저 솥단지하고 요강단지 가져간다고 했는데.)
110035 @ 예.(예.)
110035 #1 거 가져갈 때도 예를 들어서 하이타이라던가 비누 ᄀᆞ튼 걸 거기다 놔서 가면 그게 거품이 이렇게 나서 불어난다 그런 의미를 상징헤 가지고 놓고 간다고 헤.(거 가져갈 때도 예를 들어서 하이타이라든가 비누 같은 걸 거기다 놔서 가면 그게 거품이 이렇게 나서 불어난다 그런 의미를 상징해 가지고 놓고 간다고 해.)
110036 @ 집알이는 어떻게 허주마씨? 집들이 ᄀᆞ튼 거 허잖아예?(집알이는 어떻게 하지요? 집들이 같은 거 하잖아요?)
110036 #1 집들이는 주로 새집을 지어서.(집들이는 주로 새집을 지어서.)
110036 @ 아, 집들이 보통 새집이꽝?(아, 집들이 보통 새집입니까?)
110036 #1 ᄋᆞ. 새집 지어 가지고 헐 때 집들이 ᄒᆞ지. 일반 쓰던 집 사서 들어가그넹 허는 거는 별로 집들이 안 헤.(어. 새집 지어 가지고 할 때 집들이 하지. 일반 쓰던 집 사서 들어가서 하는 거는 별로 집들이 안 해.)
110037 @ 그면 요즘에는 집들이 오면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당연히 선물 ᄀᆞ튼 거 엇엇겟다예?(그러면 요즘에는 집들이 오면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당연히 선물 같은 거 없었겠군요?)
110037 #1 그런 거 엇지. 그자 와서 밥이나 먹고 헷어. 집들이는 옛날에 엇어.(그런 거 없지. 그저 와서 밥이나 먹고 했어. 집들이는 옛날에 없어.)

11. 놀이

111001 @ 예전에는 주로 어르신 어렷을 때 어떤 놀이 헷주마씨?(예전에는 주로 어르

신 어렸을 때 어떤 놀이 했지요?)
111001 #1 뭐 옛날에는 뭐 제기차기 ᄀᆞ튼 거 말이지 자치기 뭐 다마치기 ᄀᆞ튼 거.(뭐 옛날에는 뭐 제기차기 같은 거 말이지 자치기 뭐 구슬치기 같은 거.)
111001 @ 예.(예.)
111001 #1 그런 거 주로 허면서 놀앗지.(그런 거 주로 하면서 놀았지.)

연(鳶)

111002 @ 연도 종류가 잇잖아예?(연도 종류가 있잖아요?)
111002 #1 연도 정연도 잇곡.(연도 쟁연도 있고.)
111002 @ 정연?(쟁연?)
111002 #1 정연은 사각으로 뭰 걸 정연이라 혜.(쟁연은 사각으로 된 걸 쟁연이라 해.)
111002 @ 아, 사각 방패연 ᄀᆞ튼 걸 정연이라고 헤마씨?(아, 사각 방패연 같은 걸 쟁연이라고 해요?)
111002 #1 방패연이 아니고 정연은 사각으로 돼 가지고.(방패연이 아니고 쟁연은 사각으로 돼 가지고.)
111002 @ 예.(예.)
111002 #1 그 다섯 줄 말이여 헤 가지고 이렇게 올려그넹 날리는 연이 정연이고.(그 다섯 줄 말이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날리는 연이 쟁연이고.)
111002 @ 예.(예.)
111002 #1 갯기리라고.(가오리라고.)
111002 @ 갯기리. 아, 가오리연.('갯기리'. 아, 가오리연.)
111002 #1 갯기리. 가오리연이 갯기리연인데 가오리연이라고도 ᄒᆞ지마는 암탯개갯기리라고 헤 가지고 암탯갯기리는 꼴랑지를 안 든 거는 암탯갯기리고 이제 이거 막 와리면 꼴랑지를 돌아. 갯기리 꼴랑지에다가 쭉 줄을 달면 이게 말이여 잘 움직이지 안 혜. 그래서 그걸 조정헤 가지고 노는 것이 이제 암탯갯기리는 꼴랑지가 엇고 암탯갯기리가 막 와리면 줄 달면 좀 와리지 않고 그런 종류가 잇엇고. 우리가 어렷을 때는 그 두 가지주 암탯갯기리ᄒᆞ고 정연.('갯기리'. 가오리연이 '갯기리연'인데 가오리연이라고 하지마는 '암탯갯기리'라고 해 가지고 가오리연은 꼬리를 안 든 거는 가오리연이고 이제 이거 막 서두르면 꼬리를 달아. 가오리 꼬리에다가 쭉 줄을 달면 이게 말이야 잘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노는 것이 이제 가오리연은 꼬리가 없고 가오리연이 막 서두르면 줄 달면 좀 서두르지 않고 그런 종류가 있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두 가지지. 가오리연하고 쟁연.)
111003 @ 그럼 그 연은 옛날에 어떻게 만들엇주마씨?(그럼 그 연은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지요?)
111003 #1 연은 말이지 대나무로 말이지.(연은 말이지 대나무로 말이지.)
111003 @ 예.(예.)

111003 #1 대나무고 깎아 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게끔 헤서 그 균형을 잘 말이여 그 대를 잘 골고루 깎아 가지고 만들고.(대나무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휘어지게끔 해서 그 균형을 잘 말이야 그 대를 잘 골고루 깎아 가지고 만들고.)
111003 @ 예.(예.)
111003 #1 또 이렇게 머리빡이라고 헤 가지고 쭉 아래까지 내려 가지고는 그 창호지로 그 바르면은 그 연이 돼.(또 이렇게 머리빡이라고 해 가지고 쭉 아래까지 내려 가지고는 그 창호지로 그 바르면 그 연이 돼.)
111003 @ 아, 창호지로?(아, 창호지로?)
111003 #1 으. 창호지로 정연도 마찬가지고.(어. 창호지로 쟁연도 마찬가지고.)
111003 @ 예.(예.)
111003 #1 사각으로 됐는데 이 머리 하나 대각선 하나 일로 하나 헤서 또 가운데 하나 다섯 개로 그 다섯 개 헤 가지고 가운데는 저기 저 연줄허고 양머리 또 아래에다가 두 갠가 헤 가지고 다섯 개로 헤 가지고 실 꿰 가지고 정연에다가 올리면은.(사각으로 됐는데 이 머리 하나 대각선 하나 이리로 하나 해서 또 가운데 하나 다섯 개로 그 다섯 개 해 가지고 가운데는 저기 저 연줄하고 양머리 또 아래에다가 두 개인가 해 가지고 다섯 개로 해 가지거 실 꿰 가지고 쟁연에다가 올리면.)
111003 @ 예.(예.)
111003 #1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그 줄이 잘 각도가 안 맞거나 대가 골고루 안 깎아진 거는 한쪽으로 쏠리거나 경 헷주게.(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그 줄이 잘 각도가 안 맞거나 대가 골고루 안 깎아진 거는 한쪽으로 쏠리거느 그렇게 했지.)
111003 @ 옛날에 연놀이 좀 많이 헷지예?(옛날에 연놀이 좀 많이 했지요?)
111003 #1 옛날 연놀이 헤그넹 둘이 연싸움도 허고 말이지.(옛날 연놀이 해서 둘이 연싸운도 하고 말이지.)
111004 @ 연 만들 때 실이랑 얼레 ᄀᆞ튼 거는 뭘로 만들주마씨?(연 만들 때 실이랑 얼레 같은 거는 뭘로 만들지요?)
111004 #1 아, 그거는 저 집에서 만든 것도 잇지 말이지 뭐 옛날에는 뭐 사서 만드는 것도 잇고.(아, 그거는 저 집에서 만든 것도 있지 말이지 뭐 옛날에는 뭐 사서 만드는 것도 있고.)
111004 @ 사는 건 어디서 사주마씨?(사는 건 어디서 사지요?)
111004 #1 옛날에는 철물점 ᄀᆞ튼 데 말이지 그 뭐 점빵 ᄀᆞ튼 데 잇어. 상점, 상점에 가면 연술 ᄃᆞ렌 허면 연술 줫거든.(옛날에는 철물점 같은 데 말이지 그 뭐 가게 같은 데 있어. 상점, 상점에 가면 연줄 달라고 하면 연줄 줬거든.)
111004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1004 #1 게서 어릴 때 요만히 감아진 걸로 갯기리로 헤그넹 올려그넹 연 날리고 헷는데.(그래서 어릴 때 요만큼 감아진 걸로 가오리로 해서 올려서 연 날리고 했는데.)
111005 @ 연싸움은 어떻게 ᄒᆞ주마씨?(연싸움은 어떻게 하지요?)
111005 #1 연싸움은 두 개가 올려 가지고.(연싸움은 두 개가 올려 가지고.)

111005 @ 예.(예.)
111005 #1 이렇게 이제 줄과 줄을 맞닿아그넹 끊게끔 할라면.(이렇게 이제 줄과 줄을 맞닿아서 끊게끔 하려면.)
111005 @ 예.(예.)
111005 #1 그 연줄에다가 막 그 저기 저 호야라고 ᄒᆞ는 병이 잇어.(그 연줄에다가 막 그 저기 저 호롱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
111005 @ 예.(예.)
111005 #1 유리 호야. 그 등핏불에 쓰는 호야 ᄀᆞ튼 거 막 뿌셔 가지고 밥풀 ᄀᆞ튼 걸로 헤 가지고 그 연줄에 맥여. 맥여 가지고 헤그넹 몇 번 영 영 ᄒᆞ면 다른 줄은 끊어져. 그게 연싸움이라.(유리 호롱. 그 호롱불에 쓰는 호롱 같은 거 막 부셔 가지고 밥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 연줄에 먹여. 먹여 가지고 해서 몇 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른 줄은 끊어져. 그게 연싸움이야.)
111006 @ 어르신도 어렷을 때 연 만들기나 날린 적 많아마씨?(어르신도 어렸을 때 연 만들기나 날린 적 많아요?)
111006 #1 그 우리 아버지가 연을 잘 만들엇어.(그 우리 아버지가 연을 잘 만들었어.)
111006 @ 아, 아버님이?(아, 아버님이?)
111006 #1 게서 연 만들어주면 나가 연을 많이 날렷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연은 곧장 올라가. 아주 말이여 정교허게 만들면.(그래서 연 만들어주면 내가 연을 많이 날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연은 곧장 올라가. 아주 말이야 정교하게 만들면.)
111006 @ 예.(예.)
111006 #1 연이 잘 오르는데 나무가 이쪽이 무겁거나 이쪽이 무겁거나 허면 이쪽으로 휘거나 이쪽으로 휘고 말이여 여러 가지로 벌이라고 헤 가지고 다섯 가지 줄을 잘 메야헤. 실로 다섯 가지를 일로 다 맞추는 데가 잇어.(연이 잘 오르는데 나무가 이쪽이 무겁거나 이쪽이 무겁거나 하면 이쪽으로 휘거나 이쪽으로 휘고 말이야 여러 가지고 벌이줄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줄을 잘 매야해. 실로 다섯 가지를 이리로 다 맞추는 데가 있어.
111006 @ 예.(예.)
111006 #1 그거 딱 맞춰 가지고 멘들어야 연이 딱 오르지.(그거 딱 맞춰 가지고 만들어야 연이 딱 오르지.)
111006 @ 제주도 그래도 바람이 심해 부난 연 날릴 때 재미잇엇겟다예?(제주도 그래도 바람이 심해 버리니까 연 날릴 때 재미있었겠군요?)
111006 #1 옛날에는 주로 겨울에 많이 올렷지. 바람 쎌 때 바람 엇으민 연이 안 올르잖아.(옛날에는 주로 겨울에 많이 올렸지. 바람 셀 때 바람 없으면 연이 안 오르잖아.)

제기차기

111007 @ 그럼 어렷을 때 제기차기도 헷잖아예?(그럼 어렸을 때 제기차기도 했잖아

요?)
111007 #1 ᄋᆞ. 제기차기.(어. 제기차기.)
111007 @ 제기는 어떻게 만들주마씨?(제기는 어떻게 만들지요?)
111007 #1 제기는 그 창호지로.(제기는 그 창호지로.)
111007 @ 창호지로.(창호지로.)
111007 #1 창호지로 헤그넹 말이여 가위로 말이여 영 잘랑 아래는 구쟁기 딱살이라고 그런 거 놓던지 구쟁기 소라의 딱살에 딱딱한 부분이 잇어. 그걸 아래 놔서 무꺼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만들어서 차기 시작헷어.(창호지로 해서 말이야 가위로 말이야 이렇게 잘라서 아래는 소라 껍질이라고 그런 거 놓던지 '구쟁기' 소라의 껍질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 그걸 아래 놔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제기를 만들어서 차기 시작했어.)
111008 @ 그럼 제기 차는 것도 종류가 잇잖아예?(그럼 제기 차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111008 #1 제기차기는 무신 뭐 양발차기도 잇곡 한발차기도 잇곡 뭐 무릎으로 하는 것도 잇곡 재미로 차는 게 잇지.(제기차기는 무슨 뭐 양발차기도 있고 한발차기도 있고 뭐 무릎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재미로 차는 게 있지.)
111009 @ 제기차기는 어떻게 허면 이기는 거주마씨?(제기차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지요?)
111009 #1 뭐 이기는 건 오래 차는 게 이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둘이 찰락 헤 가지고 한 발로 차는데 백 개까지 찰락 헤그넹 백 개 ᄒᆞ는 사람이 이기고 그런 놀이가 잇엇지.(뭐 이기는 건 오래 차는 게 이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둘이 찰라고 해 가지고 한 발로 차는데 백 개까지 찰라고 해서 백 개 하는 사람이 이기고 그런 놀이가 있었지.
111010 @ 어렷을 때 어르신 제기차기 많이 헨마씨?(어렸을 때 어르신 제기차기 많이 했어요?)
111010 #1 아, 제기차기 많이 헷지. 다마치기 ᄀᆞ튼 거.(아, 제기차기 많이 했지. 구슬치기 같은 거.)

자치기

111011 @ 자치기는 종류가 잇어마씨?(자치기는 종류가 있어요?)
111011 #1 자치기는 종류가 벨로 엇어. 요만헌 거 자치기 헤 가지고 이렇게 구멍 파 가지고 자 요만헌 나무때기를 이렇게 놔서 탁 두드렁 올라오면 탁 치는 거야.(자치기는 종류가 별로 없어. 요만한 거 자치기 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 파 가지고 자 요만한 나무때기를 이렇게 놔서 탁 두드려서 올라오면 탁 치는 거야.)
111011 @ 자는 긴 자가 잇곡 작은 자가 잇잖아예?(자는 긴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잖아요?)
111011 #1 작은 자는 이만헌 건데.(작은 자는 이만한 건데.)
111011 @ 이름은 따로 엇인가마씨?(이름은 따로 없었나요?)

111011 #1 아니 엇엇어. 옛날 자치기만 헷는데. 자치기는 요만헌 것을 알맹이 자로 이래 놓고 긴 거는 이제 그 야구방멩이 ᄀᆞ튼 그런 걸로 헤서 놔 가지고 구멍에 파진 데 놓면 올라와. 그래서 탁 치면 탁 올라와.(아니 없었어. 옛날 자치기만 했는데. 자치기는 요만한 것을 알맹이 자로 이리 놓고 긴 거는 이제 그 야구방망이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놔 가지고 구멍에 파진 데 놓으면 올라와. 그래서 탁 치면 탁 올라와.)

111011 @ 예.(예.)

111011 #1 올라올 때 탁 쳐 가지고 멀리가면은 이기는 거야.(올라올 때 탁 쳐 가지고 멀리가면 이기는 거야.)

111012 @ 그럼 그 자는 어디서 만들주마씨?(그럼 그 자는 어디서 만들지요?)

111012 #1 나무들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나무들 잇으니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나무들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거는 집집마다 나무들 있으니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말타기

111015 @ 어르신 말타기는 안 헨마씨?(어르신 말타기는 안 했어요?)

111015 #1 말타기는 안 헤 봣어.(말타기는 안 해 봤어.)

111019 @ 그럼 죽은말타기나 생말타기는 모르겟다예?(그럼 죽은말타기나 생말타기는 모르겠군요?)

111019 #1 사람 말로?(사람 말로?)

111019 @ 예. 그니까 사람 말 타는 거 말타기마씨.(예. 그러니까 사람 말 타는 거 말타기요.)

111019 #1 아니 우리 학교 댕길 때는 말태기엔 ᄒᆞ면은 영 헤그넹 영 선장이 여기 잇으면 여기 이렇게 몇 사람 굽어.(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말타기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장이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몇 사람이 굽어.)

111019 @ 예.(예.)

111019 #1 게면 저쪽에서부터 제일 앞에부터 열 명이면 열 명 타고 ᄒᆞ는 그런 말타기는 헤 봤어.(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제일 앞에부터 열 명이면 열 명 타고 하는 그런 말타기는 해 봤어.)

구슬치기

111020 @ 다마치기 구슬은 어떻게 준비허주마씨?(구슬치기 구슬은 어떻게 준비하지요?)

111020 #1 그거는 저기 상점에 가그넹 동글락헌 거 유리로 만든 거 허고 또 아니면은 저 쒜다마. 쒜다마도 잇엇고 다마는 두 종류여. 쒜다마허고 유리다마.(그거는 저기 상점에 가서 동그란 거 유리로 만든 거 하고 또 아니면 저 쇠구슬. 쇠구슬도 있었고 구

슬은 두 종류야. 쇠구슬하고 유리구슬.)
111020 @ 아. 다마 종류는 두 개.(아, 구슬 종류는 두 개.)
111020 #1 ᄋᆞ.(어.)
111020 @ 그건 철물점에서 사는 거마씨? 아니면 점빵?(그거 철물점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상점?)
111020 #1 아니 저기 저 그 구슬, 다마 ᄀᆞ튼 거는 자전거빵 ᄀᆞ튼 데나 무슨 이런 데 가면은 내버리는 거 잇거든. 그거 달렌 ᄒᆞ면 주고.(아니 저기 저 그 구슬, 구슬 같은 거는 자전거방 같은 데나 무슨 이런 데 가면 내버리는 거 있거든. 그거 달라고 하면 주고.)
111021 @ 그럼 다마치기는 종류가 뭐 좀 잇지 않안마씨?(그럼 구슬치기는 종류가 뭐 좀 있지 않았어요?)
111021 #1 다마치기?(구슬치기?)
111021 @ 예.(예.)
111021 #1 다마치기도 뭐.(구슬치기도 뭐.)
111021 @ 구멍에 담는 것도 잇곡.(구멍에 담는 것도 있고.)
111021 #1 ᄋᆞ. 구멍에 담는 것도 잇곡 뭐 주로 구멍에 담는 거주게.(어. 구멍에 담는 것도 있고 뭐 주로 구멍에 담는 거지.)
111021 @ 벽치기나 눈치기는 안 들어보션마씨?(벽치기나 눈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111021 #1 뭐 눈치기 ᄀᆞ튼 것도 뭐 자치기 비슷헌 걸로 알고 잇인데.(뭐 눈치기 같은 것도 뭐 자치기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1027 @ 그럼 구슬치기는 옛날에 많이 헤 보션마씨?(그럼 구슬치기는 옛날에 많이 해 보셨어요?)
111027 #1 게. 구슬치기는 뭐 많이 허멍 살앗지.(그럼. 구슬치기는 뭐 많이 하면서 살았지.)
111027 @ 어디서 주로 허주마씨?(어디수 주로 하셨어요?)
111027 #1 주로 동네에서.(주로 동네에서.)
111027 @ 옛날에는 놀이터 ᄀᆞ튼 데 엇잖아예?(옛날에는 놀이터 같은 데 없잖아요?)
111027 #1 옛날에는 집 앞이가 놀이터라. 빠지치기 허고 그거 헤 가지고 뭐 이렇게 헤 가지고 말이여 뒈쌍도 먹고 그 아래도 먹고.(옛날에는 집 앞에가 놀이터야. 딱지치기 하고 그거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야 뒤집어서 먹고 그 아래도 먹고.)

딱지치기

111029 @ 여러 가지 뭐, 뭐가 잇주마씨?(여러 가지 뭐, 뭐가 있지요?)
111029 #1 아니 딱지치기는 사각으로 만든 것도 잇곡.(아니 딱지치기는 사각으로 만든 것도 있고.)

111029 @ 예.(예.)
111029 #1 동글락허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여 착 쳐그넹 아래 들어가그넹 말이여 먹게끔 헌 것도 잇곡. 사각으로 헹 탁 뒈싸지면 먹고 허는 거지. 그걸 하영 따면 이기는 거지.(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착 쳐서 아래 들어가서 말이야 먹게끔 한 것도 있고. 사각으로 해서 탁 뒤집어지면 먹고 하는 거지. 그걸 많이 따면 이기는 거지.)
111029 @ 아, 전 뒈싸지는 것만 이기는 줄 알앗인디 밑에 내려가도.(아, 전 뒤집어지는 것만 이기는 줄 알았는데 밑에 내려가도.)
111029 #1 밑으로 솔락치기라고 헤 가지고.(밑으로 '솔락치기'라고 해 가지고.)
111029 @ 솔락치기마씨?('솔락치기'요?)
111029 #1 솔락허게[198] 들어가그넹 허면 그거는 먹는 거지. 안 들어가면 못 먹고. 게믄 그다음 사람이 또 쳐, 또 들어가면 하나씩 자기가 따서 먹는 거지.('솔락ᄒᆞ게' 들어가서 하면 그거는 먹는 거지. 안 들어가면 못 먹고.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또 쳐. 또 들어가면 하나씩 자기가 따서 먹는 거지.)
111029 @ 그걸 솔락치기라고 헌다예?(그걸 '솔락치기'라고 하는구요?)
111029 #1 ᄋᆞ.(어.)
111029 @ 그럼 그 딱지는 뭐 신문지로 만들어마씨?(그럼 그 딱지는 뭐 신문지로 만들어요?)
111029 #1 주로 신문지, 달력 ᄀᆞ튼 거. 그 박스 ᄀᆞ튼 종류로 저런 종류로 말이여 호꼼 딱딱헌 걸로 만들면 힘이 쎄지.(주로 신문지, 달력 같은 거. 그 박스 같은 종류로 저런 종류로 말이야 조금 딱딱한 걸로 만들면 힘이 세지.)
111029 @ 잘 안 뒈싸지지예?(잘 안 뒤집어지지요?)
111029 #1 ᄋᆞ. 잘 안 뒈싸져.(어. 잘 안 뒤집어져.)

숨바꼭질

111032 @ 그럼 숨바꼭질 뭐 곱음재기라고 하나 옛날에?(그럼 숨바꼭질 뭐 '곱음재기'라고 하나 옛날에?)
111032 #1 곱음재끼.('곱음재끼'.)
111032 @ 곰음재끼 그거는 어떵 헤마씨?(숨바꼭질 그거는 어떻게 해요?)
111032 #1 곱음재끼는 오야를 하나 이제 선정헤 가지고.(숨바꼭질은 술래를 하나 이제 선정해 가지고.)
111033 @ 어떻게 선정허주마씨? 오야는?(어떻게 선정하지요? 술래는?)
111033 #1 이제 장께보씨 헹 지면은 그게 오야라.(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 그게 술래야.)
111033 @ 예.(예.)
111033 #1 오야가 이제는 말이지 눈 감아그넹 열 세 가지고 남은 사람이 곱아.(술래

198) '솔락ᄒᆞ다'는 '구멍 따위를 쉽게 빠져 나가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가 이제는 말이지 눈 감아서 열 세 가지고 남은 사람이 숨어.)
111033 @ 예.(예.)
111033 #1 이제 다 곱으면 이젠 오야가 열 센 후에는 이제 흔 사람, 흔 사람 찾아다 그넹 찾으면 그 사람 죽으면 또 오야뒝 또 다른 사람은 열 세면 곱고 ᄒᆞ는 거주게.(이제 다 숨으면 이젠 술래가 열 센 후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가 찾으면 그 사람 죽으면 또 술래되서 또 다른 사람은 열 세면 숨고 하는 거지.)
111034 @ 주로 이 동네에서 헷을 건디 몸을 숨길 데가 잇인가마씨?(주로 이 동네에서 했을 건데 몸을 숨길 데가 있었나요?)
111034 #1 아니 주위에서 허는 거니까 다 잘 알아.(아니 주위에서 하는 거니까 다 잘 알아.)
111034 @ 다 잘 알겟다예?(다 잘 알겠군요?)
111034 #1 ᄋᆞ. 어디 강 곱는 거 다 알아.(어. 어디 가서 숨는 거 다 알아.)

실뜨기

111036 @ 실뜨기는 좀 알아마씨?(실뜨기는 좀 알아요?)
111036 #1 아, 실뜨기.(아, 실뜨기.)
111036 @ 예.(예.)
111036 #1 그런 것도 주로 남자들도 허고 여자들도 헷지마는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재미가 엇어. 그런 것도 잇긴 잇엇지.(그런 것도 주로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했지마는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재미기 없어.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

공기놀이

111041 @ 공기놀이도 허잖아예?(공기놀이도 하잖아요?)
111041 #1 ᄋᆞ. 공기 다섯 개 가져그넹 허는 거 공기놀이도 주로 헷고.(어. 공기 다섯 개 가져서 하는 거 공기놀이도 주로 했고.)
111041 @ 공기는 옛날에는 돌로 헷인가마씨?(공기는 옛날에는 돌로 했었나요?)
111041 #1 돌로 돌로 돌 봉가다가 다섯 개 봉가다가 말이지.(돌로 돌로 돌 주워다가 다섯 개 주워다가 말이지.)
111042 @ 그거 순서도 잇엇인가마씨?(그거 순서도 있었나요?)
111042 #1 첫째 하나 먹고 그다음에 두 개 따고 세 개 따고 그다음에 네 개 흔꺼번에 싹 따고.(첫째 하나 먹고 그다음에 두 개 따고 세 개 따고 그다음에 네 개 한꺼번에 싹 따고.)
111042 @ 예. 그럼 마지막에는 어떵 허주마씨?(예.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지요?)
111042 #1 아, 그게 다섯 개 허면 이기는 거지. 경 허당 한꺼번에 네 개를 싹 한꺼번에 멀리 잇이면 영 올려그넹 못허잖아. 경 허민 안 뒈는 거고.(아, 그게 다섯 개 하면

이기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한꺼번에 네 개를 싹 한꺼번에 멀리 있으면 이렇게 올려서 못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고누

111044 @ 그럼 고누도 옛날에 헨마씨?(그럼 고누도 옛날에 했어요?)
111044 #1 ᄋᆞ?(어?)
111044 @ 고누, 고누놀이. 이렇게 땅에다가 네모낳게 판처럼 헤 가지고.(고누, 고누놀이. 이렇게 땅에다가 네모낳게 판처럼 해 가지고.)
111044 #1 아, 그런 것도 잇기는 잇엇는데 그거는 잘 안 ᄒᆞ고.(아, 그런 것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잘 안 하고.)

땅뺏기

111049 @ 땅뺏기 ᄀᆞ튼 놀이는?(땅뺏기 같은 놀이는?)
111049 #1 아, 땅따먹을락은 헤낫지.(아, 땅뺏기는 했었지.)
111049 @ 예. 그럼 땅따먹을락은 어떵 허는 거꽝?(예. 그럼 땅뺏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11049 #1 거 뭐 무신 이렇게 사각으로 그려그넹 말이지.(거 뭐 무슨 이렇게 사각으로 그려서 말이지.)
111049 @ 예.(예.)
111049 #1 예를 들어서 뭐 그 동전 닮은 걸로 헤그넹 그 간 방향으로 만들고 또 이제 거기서 저래 저쪽에서 헤그넹 그쪽에서 땅 많이 따며는 이기는 거 ᄀᆞ튼데 땅따먹을락이라고.(예를 들어서 뭐 그 동전 같은 걸로 해서 그 간 방향으로 만들고 또 이제 거기서 저리 저쪽에서 해서 그쪽에서 땅 많이 따면 이기는 거 같은데 땅뺏기라고.)

윷놀이

111053 @ 그럼 지금은 윳놀이 하면 윳가락 잇잖아예? 옛날에도 윳가락 잇엇인가마씨?(그럼 지금은 윷놀이 하면 윷가락 있잖아요? 옛날에도 윷가락 있었나요?)
111053 #1 아, 옛날에도 윳가락 잇곡 그 윳가락도 윳가락 만드는 윳놀이라는 나무가 잇어.(아, 옛날에도 윷가락 있고 그 윷가락도 윷가락 만드는 윷놀이라는 나무가 있어.)
111054 @ 아, 나무가 잇어마씨?(아, 나무가 있어요?)
111054 #1 ᄋᆞ. 윳놀이낭이라고 윳놀이낭은 이렇게 꺾어지지가 안 헤.(어. 윷놀이나무라고 윷놀이나무는 이렇게 꺾어지지가 않아.)
111054 @ 아, 윳놀이낭은 따로?(아, 윷놀이나무는 따로?)
111054 #1 ᄋᆞ. 윳놀이 나무가 잇어. 윳놀이낭은 이렇게 꺾어지지가 안 헤.(어. 윷놀이

나무가 있어. 윷놀이나무는 이렇게 꺾어지지가 않아.)
111054 @ 쎈 나무겟다예?(센 나무겠군요?)
111054 #1 쎄기도 ᄒᆞ고 절대 이렇게 찢어지면 찢어지지 절대 꺾지를 못 헤. 그래서 함마나 그런 거 ᄀᆞ튼 거는 윳놀이낭으로 헷어 아주 강헤.(세기도 하고 절대 이렇게 찢어지면 찢어지지 절대 꺾지를 못 해. 그래서 해머나 그런 거 같은 거는 윷놀이나무로 했어 아주 강해.)
111055 @ 그럼 종지랑 윳판은 어떻게 마련하주마씨?(그럼 종지랑 윷판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111055 #1 옛날에 그 집에 장물종지렌 다 잇엇거든.(옛날에 그 집에 간장종지라고 다 있었거든.)
111055 @ 아, 장물종지에?(아, 간장종지에?)
111055 #1 장물종지에 ᄒᆞ여그넹 말이지 윳, 윳놀이낭으로 윳 네 개 만들어그넹 말이여 그 짤라 가지고 윳 네 개 만들어그넹 검은 돌 세 개, 네 개 놓고 뭐 딴 거 놓고 말은 틀리게 놔 가지고 윳놀이는 네 ᄆᆞᆯ, 네 개가 다 나야 먹는 거거든.(간장종지에 해서 말이지 윷, 윷놀이나무로 윷 네 개 만들어서 말이야 그 잘라 가지고 윷 네 개 만들어서 검은 돌 세 개, 네 개 놓고 뭐 딴 거 놓고 말은 다르게 놔 가지고 윷놀이는 네 말, 네 개가 다 나야 먹는 거거든.)
111056 @ 그주마씨? 그러면 윳놀이 종류는 잇인가마씨?(그렇지요? 그러면 윷놀이 종류는 있었나요?)
111056 #1 종류는 말 네 개 놔 가지고 그 먼저 나는 것도 잇인데 이제는 그 후반에 가다가 빠꾸헤 가지고 먹는 것도 멘들어 갖고 허더라고.(종류는 말 네 개 놔 가지고 그 먼저 나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그 후반에 가다가 후진해 가지고 먹는 것도 만들어 갖고 하더라고.)
111056 @ 그 말 네 개 잇잖아예? 그믄 하나도 뒈고 똑같이 개가 두 번 나와서 두 개가.(그 말 네 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되고 똑같이 개가 두 번 나와서 두 개가.)
111056 #1 두지가 뒈고.(두동무니가 되고.)
111056 @ 아, 그거 두지라고 헤마씨?(아, 그거 '두지'라고 해요?)
111056 #1 ᄋᆞ. 두지 석지도 뒈고. 네 개는 넉동배기.(어. 두동무니, 석동무니도 되고. 네 개는 넉동무니.)
111056 @ 넉동배기.(넉동무니.)
111056 #1 ᄋᆞ. 넉지. 넉지는 잘 죽어.(어. 넉동무니. 넉동무니는 잘 죽어.)
111056 @ 그추마씨. 잘 잡히주마씨.(그렇지요. 잘 잡히지요.)
111056 #1 ᄋᆞ. 잘 잡히게 됏어. 하여튼 또 넉지는 또 제일 마지막 나는데 와서 재왓다고 난다고 ᄒᆞ여.(어. 잘 잡히게 됐어. 하여튼 또 넉동무니는 또 제일 마지막 나는데 와서 재왔다고 난다고 해.)
111056 @ 아.(아.)
111056 #1 그 제일 마지막 나오는 판에 와서 재울 때 딴 ᄆᆞᆯ이 이쪽에 있당이라도 모

세 번 헤 가지고 그걸 꼭 잡아.(그 제일 마지막 나오는 판에 와서 재울 때 딴 말이 이쪽에 있다가도 모 세 번 해 가지고 그걸 꼭 잡아.)
111056 @ 예.(예.)
111056 #1 게고 그 좌우 두동이레 헤그넹 두지, 두지 가는 거를 좌우 두동이라 하거든. 좌우 두동. 좌측 두동, 우측 두동 좌우 두동인데. 이 좌우 두동도 그 옛 어른들 얘기하는 걸로는 꼭 하나가 죽는다고 ᄒᆞ여.(그리고 그 좌우 두동이라고 해서 두동무니, 두동무니 가는 거를 좌우 도동이라 하거든. 좌우 두동, 좌측 두동, 우측 두동 좌우 두동인데. 이 좌우 두동도 그 옛 어른들 얘기하는 걸로는 꼭 하나가 죽는다고 해.)
111056 @ 아, 그럼 두 개가 두동, 두지?(아, 그럼 두 개가 두동, 두동무니?)
111056 #1 두지, 석지는 석지, 넉동배기 그래서 넉동배기를 나야.(두동무니, 석동무니는 석동무니, 넉동내기 그래서 넉동내기를 나야.)
111056 @ 이긴다.(이긴다.)
111056 #1 이긴다.(이긴다.)
111056 @ 그럼 두동배기라고는 안 헨마씨?(그럼 '두동배기'라고는 안 했어요?)
111056 #1 두동배기라는 말은 엇고 넉동배기 이거를 이제 윳놀이를.('두동배기'라는 말은 없고 넉동내기 이거를 이제 윷놀이를.)
111056 @ 예.(예.)
111056 #1 우리 제주도 고유의 말로 하면 넉동배기 한 판 놀게.(우리 제주도 고유의 말로 하면 '넉동배기' 한 판 놀게.)
111056 @ 아, 넉동배기 한 판?(아, 넉동내기 한 판?)
111056 #1 ᄋᆞ. 넉동배기로 한 판 하면 윳놀이 한 판 하자. 이제야 윳놀이라는 말도 나왓주마는 옛날엔 넉동배기엿거든 넉지를 나야 먹는다.(어. 넉동내기로 한 판 하면 윷놓이 한 판 하자. 이제야 윷놀이라는 말도 나왔지마는 옛날엔 넉동내기였거든. 넉동무니를 나야 먹는다.)
111056 @ 그래서 넉동배기?(그래서 넉동내기.)
111056 #1 ᄋᆞ. 넉동배기.(어. 넉동내기.)

팽이치기

111059 @ 그면 옛날에도 팽이는 쳣지예?(그러면 옛날에도 팽이는 쳤지요?)
111059 #1 ᄋᆞ. 팽이는 주로 동백낭으로 만들엇어.(어. 팽이는 주로 동백나무로 만들었어.)
111059 @ 아, 팽이는 동백낭으로?(아, 팽이는 동백나무로?)
111059 #1 ᄋᆞ. 동백낭이 단단허고 말이여 팽이가 잘 돌아.(어. 동백나무가 단단하고 말이야 팽이가 잘 돌아.)
111059 @ 그면 팽이는 어떻게 만들주마씨?(그러면 팽이는 어떻게 만들지요?)
111059 #1 팽이는 이런 나무를 단면 짤르고 인제 요만큼 짤르면 우에 단면 짜르고

아래 짜르면 아래쪽을 자귀로 아래는 헤 가지고 아래는 쒜다마를 박아.(팽이는 이런 나무를 단면 자르고 인제 요만큼 자르면 위에 단면 자르고 아래 자르고 아래쪽을 자귀로 아래는 해 가지고 아래는 쇠구슬을 박아.)

111059 @ 예.(예.)

111059 #1 잘 돌아가게끔 쒜다마 박고 하면 그 팽이채로 치면 잘 돌거든.(잘 돌아가게끔 쇠구슬 박고 하면 그 팽이채로 치면 잘 돌거든.)

111059 @ 팽이 잘 돌리려면 팽이채로 계속 쳐야지예?(팽일 잘 돌리려면 팽이채로 계속 쳐야지요?)

111059 #1 으.(어.)

111060 @ 팽이 종류도 여러 가지 잇어마씨?(팽이 종류도 여러 가지 있어요?)

111060 #1 으. 족은 것도 잇곡 큰 것도 잇곡 줄팽이도 잇곡 무신 뭐.(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줄팽이도 있고 무슨 뭐.)

111060 @ 아, 줄팽이는 뭐꽝?(아, 줄팽이는 뭐입니까?)

111060 #1 뭐 이렇게 줄 감아 가지고 착 헤서 땡기고 그런 것도 잇곡 이거 오래가. 것도 상당히 오래 돌아.(뭐 이렇게 줄 감아 가지고 착 해서 당기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오래가. 것도 상당히 오래 돌아.)

111060 @ 줄팽이가 췌근에 나온 거 아니꽝?(줄팽이가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까?)

111060 #1 그거 옛날에는 별로 엇엇지. 옛날에는 주로 말이지 나무로 멘들어 가지고 팽이채로 돌렷어.(그거 옛날에는 별로 없었지. 옛날에는 주로 말이지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팽이채로 돌렸어.)

111062 @ 팽이 잘 돌리려면 팽이채로 계속 쳐야지예?(팽이 잘 돌리려면 팽이채로 계속 쳐야지요?)

111062 #1 으.(어.)

111063 @ 팽이채는 어떵 만들엇주마씨?(팽이채는 어떻게 만들었지요?)

111063 #1 팽이채는 이런 목둥이에 목둥이 끗에 험벅.(팽이채는 이런 모가지에 모가지 끝에 헝겊.)

111063 @ 아, 험벅.(아, 헝겊.)

111063 #1 으. 험벅 감아 가지고 이렇게 잘 돌아 가지고 맞으면 잘 돌아가게.(어. 헝겊 감아 가지고 이렇게 잘 돌아 가지고 맞으면 잘 돌아가게.)

111064 #1 팽이 싸움도 ᄒᆞ여.(팽이 싸움도 해.)

111064 @ 아, 그럼 팽이 싸움은 어떻게 허주마씨?(아, 그럼 팽이 싸움은 어떻게 하지요?)

111064 #1 팽이끼리 말이여 쳐그넹 말이여 부딪혀 가지고 가서 안 돌면 지는 거지.(팽이끼리 말이야 쳐서 말이야 부딪혀 가지고 가서 안 돌면 지는 거지.)

111064 @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치고 저쪽에서 한번 치는 거마씨?(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치고 저쪽에서 한번 치는 거예요?)

111064 #1 아니 같이 치지. 같이 쳐그넹 어느 것이 안 돌 수 잇인 거냐 안 도는 것이

지는 거라.(아니 같이 치지. 같이 쳐서 어느 것이 안 돌 수 있는 거냐 안 도는 것이 지는 거야.)

굴렁쇠

111066 @ 어렷을 때 굴렁쒜 잇잖아예?(어렸을 때 굴렁쇠 있잖아요?)
111066 #1 굴렁쒜도 옛날 돌려봣지. 그거 말이지 자전거 쌀 다 떼어 가지고.(굴렁쇠도 옛날 돌려봤지. 그거 말이지 자전거 살 다 떼어 가지고.)
111066 @ 예.(예.)
111066 #1 자전거 쌀 다 떼면 굴렁쒜가 뒈주게.(자전거 살 다 떼면 굴렁쇠가 되지.)
111066 @ 예.(예.)
111066 #1 게면 그 가운데 홈 파진 데로 말이지 쒜 요만헌 걸로 가졍강 말이지 거 굴러댕기기 한 거야.(그러면 그 가운데 홈 파진 데로 말이지 쇠 요만한 걸로 가져가서 말이지 거 굴러다니기 한 거야.)
111066 @ 굴렁쒜는 자전거 바뀌마씨?(굴렁쇠는 자전거 바퀴요?)
111066 #1 응. 자전거 바뀌밧긔 엇어. 딴 거로 만드는 거는 이 저 그 몰아가기가 좀 힘들고 만약에 쒜로 뒌 동글락헌 쒜면은 그 이 몰아 댕기는 것이 그 이렇게 뒈가지고 말이여.(어. 자전거 바퀴밖에 없어. 딴 거로 만드는 거는 이 저 그 몰아가기가 좀 힘들고 만약에 쇠로 된 동그란 쇠면 그 이 몰아 다니는 것이 그 이렇게 되 가지고 말이야.)
111066 @ 홈이 잇어야지예?(홈이 있어야지요?)
111066 #1 아니, 아니 만든 거주게. 이 손에 가진 거를 그 굴렁쒜에 맞춰 가지고 이레 조정하게끔 한 것이 잇어.(아니, 아니 만든 거지. 이 손에 가진 거를 그 굴렁쇠에 맞춰 가지고 이리 조정하게끔 한 것이 있어.)
111067 @ 그럼 그 대는 어떵 만들주마씨?(그럼 그 대는 어떻게 만들지요?)
111067 #1 대는 집에서 만들지.(대는 집에서 만들지.)
111067 @ 그것도 쒜로 만들지 않아마씨?(그것도 쇠로 만들지 않아요?)
111067 #1 아, 주로 쒜로 만들지.(아, 주로 쇠로 만들지.)
111068 @ 굴렁쒜는 이렇게 굴리기만 허면 뒈지예?(굴렁쇠는 이렇게 굴리기만 하면 되지요?)
111068 #1 그것도 이것도 조정헤그넹 커브 돌 때는 커브도 돌고 다 그렇게 헤야지. 그대로 가기만 허면 돌아오려면 어떻게 헤.(그것도 이것도 조정해서 커브 돌 때는 커브도 돌고 다 그렇게 해야지.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

(깡)통차기

111069 @ 그면 깡통차기도 헤 보션마씨?(그러면 깡통차기도 해 보셨어요?)
111069 #1 깡통차기도 뭐 옛날에는 통조림 말이여 먹어난 그거에다가 말이여 돌 몇

개 놔 가지고 앞에다가.(깡통차기도 뭐 옛날에는 통조림 말이야 먹은 다음에 그거에다가 말이야 돌 몇 개 놔 가지고 앞에다가.)
111069 @ 예.(예.)
111069 #1 그 저기 저 돌로 뭇아그넹 말이여 그 안에 잇인 돌멩이가 나오지 안 ᄒᆞ게 헤그넹 차면 막 소리가 나.(그 저기 저 돌로 부수어서 말이야 그 안에 있는 돌멩이가 나오지 않게 해서 차면 막 소리가 나.)
111069 @ 예.(예.)
111069 #1 그게 깡통차기로 헤그넹 축구 식으로 몰아가면 저쪽에 잇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이리 몰아왕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깡통차기 헤낫주게.(그게 깡통차기로 해서 축구 식으로 몰아가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이리 몰아와서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깡통차기 했었지.)
111070 @ 통차기는 어떻게 허는 거마씨? 막 차면?(통차기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막 차면?)
111070 #1 ᄋᆞ. 소리 나는 맛에 차는 거지.(어. 소리 나는 맛에 차는 거지.)

'삘기치기'

111072 @ 그럼 뼁이치기도 헤 보션마씨?(그럼 삘기치기도 해 보셨어요?)
111072 #1 뼁이치기.(삘기치기.)
111072 @ 그건 뭐꽝?(그건 뭐입니까?)
111072 #1 뼁이는 인제 새가 뒈기 전에 처음에 나는 게 뼁인데. 작은 거를 새가 뒈기 전에.(삘기는 인제 새가 되기 전에 처음에 나는 게 삘기인데. 작은 거를 새가 되기 전에.)
111072 @ 예.(예.)
111072 #1 그 뼁이를 미뿌쟁이[199]라고 ᄒᆞ여. 미뿌쟁이를 빻다가.(그 삘기를 '미뿌쟁이'라고 해. '미뿌쟁이'를 빻다가.)
111072 @ 예.(예.)
111072 #1 이제는 말이여 이제는 한줌씩 가져 가지고 다섯 개 놔그넹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구멍난 데다가 이제 자기 갖은 걸로 이렇게 찍어그넹 세어 가지고 그것만큼 상대방한테 가져오는 거주게.(이제는 말이야 이제는 한줌씩 가져 가지고 다섯 개 놔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 구멍난 데다가 이제 자기 갖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세어 가지고 그것만큼 상대방한테 가져오는 거지.)
111072 @ 아, 그게 뼁이치기.(아, 그게 삘기치기.)
111072 #1 ᄋᆞ. 뼁이치기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헤그넹 고망이 크면.(어. 삘기치기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해서 구멍이 크면.)

199) '미뿌쟁이'는 '참억새의 줄기 끝에 이삭 모양으로 핀 기다란 꽃'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미삐쟁이, 미꾸셍이, 미우젱이'라고도 한다.

111072 @ 예.(예.)
111072 #1 하영 찍으면 혼 백 개고 이백 개고 나오고 그 구멍 만들기가 기술이라.(많이 찍으면 한 백 개고 이백 개고 나오고 그 구멍 만들기가 기술이야.)
111073 @ 그럼 상대방 거 다 뺏어오면 이기는 거꽝?(그럼 상대방 거 다 뺏어오면 이기는 거예요?)
111073 #1 응. 이기는 거지. 줄 거 엇이면 이젠 뭐 그 진 사람 ᄒᆞ꼼 둘렌 ᄒᆞ면 조금 주면 그거 미뿌쟁이라고 헤 가지고 그 아래 거는 까먹엇어.(어. 이기는 거지. 줄 거 없으면 이젠 뭐 그 진 사람 조금 달라고 하면 조금 주면 그거 '미뿌쟁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아래 거는 까먹었어.)
111073 @ 아, 까먹을 수도 잇어마씨?(아, 까먹을 수도 있어요?)
111073 #1 응. 옛날에 먹을 거 엇일 때는 그걸 먹엇다니까. 미뿌쟁이라고 헤서 삥이치기라고 헷어.(어.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는 그걸 먹었다니까. '미뿌쟁이'라고 해서 삘기치기라고 했어.)

고무줄놀이

111075 @ 어르신 고무줄놀이는 잘 모르지예?(어르신 고무줄놀이는 잘 모르지요?)
111075 #1 고무줄은 여자들 뭐.(고무줄은 여자들 뭐.)

줄넘기

111078 @ 그럼 줄넘기 좀 헤 보션마씨?(그럼 줄넘기 좀 해 보셨어요?)
111078 #1 줄넘기도 조금은 헤 봣지. 이렇게 헤서 양쪽에서 돌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강 다섯 사람, 다섯 사람 헤 가지고 오십 번이면 오십 번.(줄넘기도 조금은 해 봤지.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돌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다섯 사람, 다섯 사람 해 가지고 오십 번이면 오십 번.)
111078 @ 주로 명절 때 헷지예?(주로 명절 때 했지요?)
111078 #1 응. 내기로 헤 가지고 헤그넹 지면 떡을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어. 내기로 해 가지고 해서 지면 떡을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기는 여기에 그네는 엇엇인가마씨?(그네뛰기는 여기에 그네는 없었나요?)
111080 #1 그네는 오월 단오에 뛰엇다고 허는데.(그네는 오월 단오에 뛰엇다고 하는데.
111080 @ 예.(예.)

111080 #1 그네는 우리 제주도에서 보거나 헌 거 엇어. 이제야 뭐 놀이터에 쪼금 이렇게 그네 식으로 멘든 것들은 좀 잇주. 옛날엔 그네 뛰는 것은 엇어.(그네는 우리 제주도에서 보거나 한 거 없어. 이제야 뭐 놀이터에 쪼금 이렇게 그네 식으로 만든 것들은 좀 있지. 옛날엔 그네 뛰는 것은 없어.)

'한다리인다리'

111082 @ 그면 한다리인다리[200]가 뭐마씨?(그러면 '한다리인다리'가 뭐예요?)
111082 #1 한다리인다리 뭐 무신 꿩 밧이 물 주레 갓다왓저 무신 거 헤 가지고 흔 것이 옛날에 다리. 다리 놔 가지고 한다리두다리인다리세다리 무신 개똥밧에 물 주레 갓저 그런 놀이가 잇어낫어.('한다리인다리' 뭐 무슨 꿩 밭에 물 주러 갔다왔다 무슨 거 해 가지고 한 것이 옛날에 다리. 다리 놔 가지고 '한다리두다리인다리세다리' 무슨 개똥밭에 물 주러 갔다 그런 놀이가 있었어.)
111083 @ 아, 그런 노래가 잇구나예?(아, 그런 노래가 있군요?)
111083 #1 으. 노래는 나 다 잊어버려서 모르는데 저 그런 노래도 잇곡.(어. 노래는 나 다 잊어버려서 모르는데 저 그런 노래도 있고.)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어, 태교 옛날에 어르신 뭐 태교는 보통 여자분들이 허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시면 알잖아예? 태교헐 때는 요즘은 노래도 들려주고 막 좋은 거 먹잖아예? 옛날엔 태교는 주로 어떻게 헷주마씨? 할머니 태교헐 때는?(어, 태교 옛날에 어르신 뭐 태교는 보통 여자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시면 알잖아요? 태교할 때는 요즘은 노래도 들려주고 막 좋은 거 먹잖아요? 옛날엔 태교는 주로 어떻게 했지요? 할머니 태교할 때는?)
112001 #1 제주도는 뭐 국민 보건 체조헤그넹 팔다리 운동, 목 운동, 배 운동, 다리 운동 이런 정도로 말이지 주로 말이지 학교에서 배워왕.(제주도는 뭐 국민 보건 체조해서 팔다리 운동, 목 운동, 배 운동, 다리 운동 이런 정도로 말이지 주로 말이지 학교에서 배워와서.)
112001 @ 예.(예.)

200) '한다리인다리'는 '제주도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느 집의 마루나 평상 등 한 자리에 모여 편을 갈라 노래에 맞춰 손바닥으로 다리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다리세기를 하는 놀이'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놀이의 범위는 형제, 자매, 부모에서부터 동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행해져 왔다.

112001 #1 국민학교 가면은 국민 보건 체조라고 헤 가지고 가면은 앞에 말이여 모아 가지고 선생님 나와 가지고 말이여 팔 펴기 올리기, 허리 굽히기 뭐 무슨 목 운동 다 이렇게 가슴 운동 다 헷거든.(국민학교 가면 국민 보건 체조라고 해 가지고 가면 앞에 말이야 모여 가지고 선생님 나와 가지고 말이야 팔 펴기 올리기, 허리 굽히기 뭐 무슨 목 운동 다 이렇게 가슴 운동 다 했거든.)

112001 @ 예.(예.)

112001 #1 그거 배왕 오민 집에서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거를 주로 그 보건 체조 헤서 운동흔 거주게.(그거 배워서 오면 집에서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주로 그 보건 체조 해서 운동한 거지.)

112002 @ 그면 출산 준비는 보통 어떻게 허고 어디서 출산?(그러면 출산 준비는 보통 어떻게 하고 어디서 출산?)

112002 #1 출산 준비는 주로 병원이 말이여 그때는 말이여 산부인과도 엇고.(출산 준비는 주로 병원이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산부인과도 없고.)

112002 @ 예.(예.)

112002 #1 주로 집에서 낳는데.(주로 집에서 낳는데.)

112002 @ 예.(예.)

112002 #1 그 동네에 산파라는 사람이 잇어 산파.(그 동네에 산파라는 사람이 있어 산파.)

112002 @ 예.(예.)

112002 #1 조산원이라고 ᄒᆞ지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산파라고 ᄒᆞ여.(조산원이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산파라고 해.)

112002 @ 아, 마을에 한 명씩 잇어마씨?(아, 마을에 한 명씩 있어요?)

112002 #1 ᄋᆞ. 건줌 한 명 없으면 다음 마을에라도 그런 사람이 잇어. 산 출산헐 때 쓰는 산자고 애기를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헌 건데.(어. 거의 한 명 없으면 다음 마을에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 산 출산할 때 쓰는 산자고 아기를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한 건데.)

112002 @ 예.(예.)

112002 #1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112002 @ 예.(예.)

112002 #1 산모가 이제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산모가 고통이 잇으면은 낳는 방법 ᄀᆞ튼 거를 다 알려줘. 거 이제 그래서 일어사서 말이여 궤 ᄀᆞ튼 거 이렇게 잡아서 힘주면 나오거나. 또 거 산파가 궤 ᄀᆞ튼 문 잇인 것들을 열라고 허면 다 열고 그래야 이게 잘 나온다고 헤서 그 뭐 궤에 문 잠근 거 다 풀어서 말이여 이렇게 헤야 애기가 잘 나온다고 헷어.(산모가 이제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산모가 고통이 있으면 낳는 방법 같은 거를 다 알려줘. 거 이제 그래서 일어서서 말이야 궤 같은 거 이렇게 잡아서 힘주면 나오거나. 또 거 산파가 궤 같은 문 있는 것들을 열라고 하면 다 열고 그래야 이게 잘 나온다고 해서 그 뭐 궤에 문 잠근 거 다 풀어서 말이야 이렇게 해야 아기가 잘 나온다고 했

어.)
112002 @ 예.(예.)
112002 #1 산파가 와서 이것저것 다 가르켜서 말이지 한 이삼십 분말이지 도와줘 힘을 쏟아야 옛날엔 주로.(산파가 와서 이것저것 다 가르쳐서 말이지 한 이삼십 분말이지 도와줘 힘을 쏟아야 옛날엔 주로.)
112002 @ 자연분만.(자연분만.)
112002 #1 자연분만으로 나오지 이렇게 배 째서 나오는 게 엇거든. 죽으면 죽어도 그때는 배 째서 나오는 법이 엇어. 그러니까 건줌 나오다가 산모가 죽거나 애기가 죽거나 허는 경우도 많지.(자연분만으로 나오지 이렇게 배 째서 나오는 게 없거든. 죽으면 죽어도 그때는 배 째서 나오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나오다가 산모가 죽거나 아기가 죽거나 하는 경우도 많지.)
112002 @ 많앗겟다예. 할머님은 어떻게 병원에서 낳안마씨?(많았겠군요. 할머님은 어떻게 병원에서 낳았어요?)
112002 #1 우리?(우리?)
112002 @ 예.(예.)
112002 #1 우린 다 집에서 낳앗어. 우리 집사람은 삼남 일녀를 다 집에서 낳앗주게.(우린 다 집에서 낳았어. 우리 집사람은 삼남 일녀를 다 집에서 낳았지.)
112002 @ 산파가 와 가지고?(산파가 와 가지고?)
112002 #1 아니 산파가 아니고 우리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아니 산파가 아니고 우리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112002 @ 예.(예.)
112002 #1 뭐 좀 도와줘 가지고 수월허게 말이여 낳더라고.(뭐 좀 도와줘 가지고 수월하게 말이야 낳더라고.)
112002 @ 아니 병원도 잇엇을 건데?(아니 병원도 있었을 건데?)
112002 #1 아, 그때 당시만 헤도 병원도 그런 산파가 그런 정도로 ᄒᆞ는 병원은 엇어. 내가 한 이거 뭐 육십년 대니까게. 경 ᄒᆞ니까 집에서 다 낳은 거야 어려워도.(아, 그때 당시만 해도 병원도 그런 산파가 그런 정도로 하는 병원은 없어. 내가 한 이거 뭐 육십년 대니까. 그렇게 하니까 집에서 다 낳는 거야 어려워도.)
112003 @ 그면 태와 탯줄 ᄀᆞ튼 거는 어떻게?(그러면 태와 탯줄 같은 거는 어떻게?)
112003 #1 그거 다 옆집 아주머니가 그 저 소독헤 가지고 가위로 잘라 가지고 말이야 소독뒌 실로 무꺼 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한 일주일 정도 뒈면 베똥이라고 헤 가지고 떨어져 요만한 태아에.(그거 다 옆집 아주머니가 그 저 소독해 가지고 가위로 잘라 가지고 말이야 소독된 실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배꼽이라고 해 가지고 떨어져 요만한 태아에.)
112003 @ 예.(예.)
112003 #1 그 배똥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무꺼서 놔둬.(그 배꼽을 이렇게 감아 가지고 묶어서 놔둬.)

112003 @ 아, 바로 짜르는 게 아니고마씨?(아, 바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112003 #1 으. 바로는 태아만 예를 들어서 태반이라고 헤서 그것만 짤라 가지고 그거만 내치고 요만큼 헤서 베똥줄이라고 헤그넹 베똥줄, 베똥줄은 이 앞에다가 짤른 다음에 소독헤서 쪼끔 말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에다가 무껑 놔두면.(어. 바로는 태아만 예를 들어서 태반이라고 해서 그것만 잘라 가지고 그거만 내치고 요만큼 해서 탯줄이라고 해서 탯줄, 탯줄은 이 앞에다가 자른 다음에 소독해서 쪼끔 말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에다가 묶어서 놔두면.)
112003 @ 예.(예.)
112003 #1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뒈면 자연히 점점점점 말라가면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는 떨어져. 배똥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목욕도 허고 말이지 다 헤.(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자연히 점점점점 말라가면서 나중에 일주일 후에는 떨어져. 탯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목욕도 하고 말이지 다 해.)
112004 @ 그면 산모들이 주로 음식은 뭐 먹엇주마씨?(그러면 산모들이 주로 음식은 뭐 먹었지요?)
112004 #1 곧 낳으면 미역국. 또 모멀국, 모멀ᄌᆞ베기 ᄀᆞ튼 거 또 그 젖 많이 나오렌 헤 가지고 피가 말이야 많이 출혈뒈나니깐 제일 많이 먹는 게 미역국. 모멀, 모밀로 뭰 모멀국이나 모멀ᄌᆞ베기 ᄀᆞ튼 거 이런 거는 피를 삭혀준다고 헤서 그런 거 먹엇고 (곧 낳으면 미역국. 또 메밀국, 메밀수제비 같은 거 또 그 젖 많이 나오라고 해 가지고 피가 말이야 많이 출혈됐으니깐 제일 많이 먹는 게 미역국. 메밀, 메밀로 된 메밀국이나 메밀수제비 같은 거 이런 거는 피를 삭혀준다고 해서 그런 거 먹었고.)
112004 @ 예.(예.)
112004 #1 쪼끔 한 일주일 정도 되어 가면은 아강발 ᄀᆞ튼 거 푹 끓여 가지고.(쪼끔 한 일주일 정도 뒈어 가면 족발 같은 거 푹 끓여 가지고.)
112004 @ 예.(예.)
112004 #1 죽 쒀서 먹으면 젖도 잘 나오고 말이지 건강도 회복뒈고.(죽 쒀서 먹으면 젖도 잘 나오고 말이지 건강도 회복되고.)
112004 @ 아, 아강발로 죽 쒀 먹어마씨?(아, 족발로 죽 쒀 먹어요?)
112004 #1 아강발로 죽 쒀 가지고 그 저기 저 먹기도 허고 주로 곧 나오면은 미역국으로 말이여 먹엇어 미역국.(족발로 죽 쒀 가지고 그 저기 저 먹기도 하고 주로 곧 나오면 미역국으로 말이야 먹었어 미역국.)
112005 @ 아기 목욕은 처음에 언제 시키주마씨?(아기 목욜은 처음에 언제 시키지요?)
112005 #1 아기 곧 나오면 시키긴 ᄒᆞ여.(아기 곧 나오면 시키긴 해.)[201]
112005 @ 아, 바로 시켜마씨?(아, 바로 시켜요?)
112005 #1 으. 바로 시키는 걸로 아는데. 그 저 태반 줄 자르고 허면.(어. 바로 시키는 걸로 아는데. 그 저 태반 줄 자르고 하면.)

201) 보편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애를 낳고 3일 만에 목욕을 시킨다.

112005 @ 예.(예.)
112005 #1 이제 허면 아기가 산모에서 나오면 굉장히 지저분헌 것들 많이 부텅 나오주게.(이제 하면 아기가 산모에서 나오면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 많이 붙어서 나오지.)
112005 @ 예.(예.)
112005 #1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출산하기 전에 뭐 무슨 떡을 먹엇다던가 무슨 우유ᄀᆞ튼 거 먹엇다고 허면 아기 몸에 부터서 건줌 나와 그러니까 받으면.(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출산하기 전에 뭐 무슨 떡을 먹었다던가 무슨 우유 같은 거 먹었다고 하면 아기 몸에 붙어서 거의 나와 그러니까 받으면.)
112005 @ 예.(예.)
112005 #1 그 태반 줄 짤라서 소독허고 일단 이렇게 무꺼서 목욕시켜 놓고 혜 가지고 말이여 이제 허는 걸로 알고 잇어.(그 태반 줄 잘라서 소독하고 일단 이렇게 묶어서 목욕시켜 놓고 해 가지고 말이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
112006 @ 어르신 깃저고리 알아마씨?(어르신 깃저고리 알아요?)
112006 #1 깃저고리?(깃저고리?)
112007 @ 그럼 할망상[202]은 알아마씨?(그럼 삼신상은 알아요?)
112007 #1 할망당?('할망당'?)
112007 @ 할망상.(삼신상.)
112007 #1 게난 애기들 낳젠 ᄒᆞ면 할망상에 할망상에 잘 빌렌 헤그넹 말이지. 삼승할망이 말이여 아기 내쳐준다고 믿엇거든.(그러니까 아기들 낳으려고 하면 삼신상에 삼신상에 잘 빌라고 해서 말이지. 삼신할머니가 밀이야 아기 내쳐준다고 믿었거든.)
112007 @ 아.(아.)
112007 #1 옛날에 그래 가지고 그런 거지마는. 그런 거 애기 낳젠 헤그넹 할망상에 빌거나 뭐ᄒᆞ거나 ᄒᆞ지는 않앗을 거로 알아.(옛날에 그래 가지고 그런 거지마는. 그런 거 아기 낳으려고 해서 삼신상에 빌거나 뭐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로 알아.)
112008 @ 그럼 배냇머리는 애기들 어떵 허주마씨?(그럼 배냇머리는 아기들 어떻게 하지요?)
112008 #1 ᄋᆞ?(어?)
112008 @ 애기들 언제 머리 처음 자르주마씨?(아기들 언제 머리 처음 자르지요?)
112008 #1 애기들 머리는 주로 이삼년까지는 안 짤라.(아기들 머리는 주로 이삼년까지는 안 잘라.)
112009 @ 그럼 애기들 보통 어릴 때 걸리는 병이 천연두나 홍역 걸렷잖아예? 옛날에는 병원 엇엇을 때는 민간요법에 뭐 엇언마씨?(그럼 아기들 보통 어릴 때 걸리는 병이 천연두나 홍역 걸렸잖아요? 옛날에는 병원 없었을 때는 민간요법에 뭐 없었어요?)
112009 #1 뭐 무슨 별로 동네에 말이지 침바치들이 잇이면 침이나 좀 주고 말이지 정세엔 헤그넹 깜짝 깜짝 놀라거나 아기가.(뭐 무슨 별로 동네에 말이지 침쟁이들이 있

202)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으면 침이나 좀 주고 말이지 경풍이라고 해서 깜짝 깜짝 놀라거나 아기가.)
112009 @ 예.(예.)
112009 #1 이렇게 할 때는 말이지 뭐 이 손에다가 침 꼭꼭꼭 놔주고 발가락에도 놔주고 머리에도 놔주고 그런 것들은 잇엇어. 정세라고 헤 가지고 아이가 막 밤에도 깜짝 깜짝 놀래고 말이지 잘 울고 이러면은 침 ᄀᆞ튼 거 좋아.(이렇게 할 때는 말이지 뭐 이 손에다가 침 꼭꼭꼭 놔주고 발가락에도 놔주고 머리에도 놔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 경풍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가 막 밤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말이지 잘 울고 이러면 침 같은 거 좋아.)
112009 @ 정세라고 헤마씨?('정세'라고 해요?)
112009 #1 ᄋᆞ. 정세.(어. '정세'.)
112010 @ 출산할 때 뭐 금기사항 ᄀᆞ튼 거는 엇어수꽝?(출산할 때 뭐 금기사항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112010 #1 엇인 걸로 아는데.(없는 걸로 아는데.)
112001 @ 할머니 예전에 태교는 어떵 헷주마씨?(할머니 예전에 태교는 어떻게 했지요?)
112001 #3 그대로.(그대로.)
112001 #4 나는 날ᄁᆞ지 일허고 엿날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나는 날까지 일하고 옛날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12001 #3 경 허여그넹 자연분만 헷거든. 집이서 자연분만 허는 사람이 많아.(그렇게 해서 자연분만 했거든. 집에서 자연분만 하는 사람이 많아.)
112001 @ 자연분만?(자연분만?)
112001 #3 어.(어.)
112001 #4 자기대로.(자기대로.)
112001 @ 자기대로 허고?(자기대로 하고?)
112001 #3 어.(어.)
112001 @ 그믄.(그러면.)
112001 #4 병원도 안 강.(병원도 안 가서.)
112001 @ 병원도 안 가고?(병원도 안 가고?)
112001 #4 게 엿날은 병원도 엇언.(그럼 옛날은 병원도 없었어.)
112002 @ 그럼 준비는 이제 자연분만 헐 때 준비는 어떵? 어디서?(그럼 준비는 이제 자연분만 할 때 준비는 어떻게? 어디서?)
112002 #3 준비는 거의 허영 놔두지. 임시.(준비는 거의 해서 놔두지. 임시.)
112002 @ 뭐 헤마씨?(뭐 해요?)
112002 #3 뭐 준비헐 건 뭣이여. 아기 뭐 배냇저고리나 허곡게. 저 기저귀나 허영 놔뒁 놔뒷다가게 나중에 옷은 허영 허주게.(뭐 준비할 건 뭣이야. 아기 뭐 배냇저고리나 하고. 저 기저귀나 해서 놔둬서 놔뒀다가 나중에 옷은 해서 하지.)
112002 @ 그럼 그거 어디서 보통 애기는 낳아마씨? 옛날에 병원 엇엇수게.(그럼 그

거 어디서 보통 애기는 낳아요? 옛날에 병원 없었습니다.)
112002 #3 집이서 막.(집에서 마구.)
112002 #4 집에.(집에.)
112002 #3 집에서 난덴 허난? 집이서 자연분만 허여.(집에서 난다고 하니까? 집에서 자연분만 해.)
112002 @ 집이서?(집에서?)
112002 #3 어.(어.)
112002 #4 이 신호가 와 가면 그냥 방에 들어강 이녁냥 낳고.(이 신호가 와 가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녁대로 낳고.)
112002 @ 그럼 도와주는 사람은 엇엇수광?(그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112002 #4 어떤 할망. 동네 할망.(어떤 할머니. 동네 할머니.)
112002 #3 도와주는 사람도 잇긴 잇어.(도와주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112002 @ 예.(예.)
112002 #3 경 허여도 자기만들 자연분만 허는 사람이 많아.(그렇게 해도 자기대로 자연분만 하는 사람이 많아.)
112002 #4 병원 치료 엇이난 그자 왕 쓸어나 주곡 그 할망덜.(병원 친료 없으니까 그저 와서 쓸어나 주고 그 할머니들.)
112002 @ 아.(아.)
112002 #4 보통 와 가믄.(보통 와 가면.)
112002 @ 보통 와 가믄?(보통 와 가면?)
112002 #4 게 시간 뒈민 나오면 그걸로 끗 엿날은.(그럼 시간 되면 나오면 그걸로 끝 옛날은.)
112002 #3 그런 할망은 돌아도 가곡.(그런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112002 #4 고생혯주게.(고생했지.)
112003 @ 그럼 엿날에 태랑 탯줄 잇잖아예?(그럼 옛날에 태랑 탯줄 있잖아요?)
112003 #4 예. 예.(예. 예.)
112003 @ 그건 어떵 헨마씨?(그건 어떻게 했어요?)
112003 #3 게난 그 이제 보호자가 시니까. 보호자가 시난 그런 건 다 짤라주주게.(그러니 그 이제 보호자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런 건 다 잘라주지.)
112003 @ 아, 짤라줘마씨?(아, 잘라줘요?)
112003 #3 어.(어.)
112003 @ 짜른 다음에 뭐 그냥 버련마씨?(자른 다음에 뭐 그냥 버렸어요?)
112003 #3 아니. 버리지 안 혜. 거 다 쌍 놔두고. 또 태는 우린 태는 다 우린 우영팟에 묻엇어.(아니. 버리지 않아. 거 다 싸서 놔두고. 또 태는 우린 태는 다 우린 텃밭에 묻었어.)
112003 #4 몰라 어디사 간지 모르크라.(몰라 어디에 간지 모르겠어.)
112003 @ 태는 우영팟에 묻고?(태는 텃밭에 묻고?)

112003 #3 어.(어.)
112003 @ 그면 탯줄은?(그러면 탯줄은?)
112003 #3 탯줄은게 아기들 탯줄은 그거 막 ᄆᆞᆯ랑 떨어지믄 어디 모르크라 그건.(탯줄은 아기들 탯줄은 그거 막 말라서 떨어지면 어디 모르겠어 그건.)
112003 #4 그거 태 태는 이디 제주도말로 아기방석 아기방석 허주게.(그거 태 태는 여기 제주도말로 '아기방석' '아기방석' 하지.)
112003 @ 아기방석?('아기방석'?)
112003 #4 아기 나오는디 방석 안 나왓저 막 기다렷어. 부모들이 영 앚앙.(아기 나오는데 태 안 나왔다 막 기다렸어. 부모들이 이렇게 앉아서.)
112003 #3 게난 아기 낳은 다음에 그.(그러니까 아기 낳은 다음에 그.)
112003 @ 예.(예.)
112003 #3 태 나오주게. 아기 앚아난 태.(태 나오지. 아기 앉았던 태.)
112004 @ 그면 그 요즘에야 먹는 건 잘 먹는데 옛날에는 그 애 밴 다음에 특별히 먹는 건 엇언마씨?(그러면 그 요즘에야 먹는 건 잘 먹는데 옛날에는 그 애 밴 다음에 특별히 먹는 건 없었어요?)
112004 #3 먹는 건 그대로 그대로 먹는 거 그대로 먹고.(먹는 건 그대로 그대로 먹는 거 그대로 먹고.)
112004 #4 옛날 보리밥 먹엇주게.(옛날 보리밥 먹었지.)
112004 #3 보리밥도 삼시 못 먹으난.(보리밥도 삼시 못 먹으니까.)
112004 @ 그러니까 특별히 먹는 건 엇엇구나예?(그러니까 특별히 먹는 건 없었군요?)
112004 #3 애기 낳아도 집이서 낳아 불믄 이 구정물도 병원에서도 지금은 낳으면 다 깨끗허게 허엿는디 혼 일주일 동안 구정물이 나와. 구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항시 받앙 저 빨래로 허여그넹 빨래 허면서.(애기 낳아도 집에서 낳아 버리면 이 구정물도 병원에서도 지금은 낳으면 다 깨끗하게 했는데 한 일중ㄹ 동안 구정물이 나와. 구정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항시 받아서 저 빨래로 해서 빨래 하면서.)
112004 @ 아.(아.)
112004 #3 게고 삼일 뒈믄 그거 아기 낳은 자리를 치와. 치우면서 치우면서 그때 못헌 바쁜 사람은 그냥 물도 다 들어당 먹고 헷어.(그리고 삼일 되면 그거 아기 낳은 자리를 치워. 치우면서 치우면서 그때 못한 바쁜 사람은 그냥 물도 다 들어다가 먹고 했어.)
112004 @ 아, 기구나예. 그럼 아기 낳은 다음에 요즘에 미역국 멋잖아예?(아, 그렇군요. 그럼 아기 낳은 다음에 요즘에 미역국 먹잖아요?)
112004 #4 그거 메밀가루 알지예?(그거 메밀가루 알지요?)
112004 @ ᄆᆞ멀ᄀᆞ루?(메밀가루?)
112004 #4 어. ᄆᆞ멀ᄀᆞ루. 그게 제일 먼저 삼일만 뒈믄 생으로 조금 카 가지고 저기 스프식으로.(어. 메밀가루. 그게 제일 먼저 삼일만 되면 생으로 조금 섞어 가지고 저기 스프식으로.)

112004 #3 삼일 뒈기 전이부터게.(삼일 되기 전에부터.)
112004 #4 그거 그것을 먹언게.(그거 그것을 먹었어.)
112004 @ 아, 그것을?(아, 그것을?)
112004 #4 그게 피가 헹 몸에 좋다고 헨. 게고 또 메역 넣고 수제비 허곡. 그거 헹 몇 번 먹으믄.(그게 피가 해서 몸에 좋다개 했어. 그리고 또 미역 넣고 수제비 하고. 그거 해서 몇 번 먹으면.)
112004 #3 삼일 삼일만 뒈믄.(삼일 삼일만 되면.)
112004 @ 예.(예.)
112004 #3 애기 어멍 헹 밥헹 먹엇어.(애기 엄마 해서 밥해서 먹었어.)
112004 #4 이젠 흔 달 메누리들은.(이젠 한 달 며느리들은.)
112004 #3 흔 달이 뭐여? 우리 족은 메누리는 석 둘이나 몸조리 헷수다.(한 달이 뭐야? 우리 막내 며느리는 석 달이나 몸조리 했습니다.)
112004 #4 우리 족은 메누리는 흔 둘 헷어.(우리 막내 며느리는 한 달 했어.)
112005 @ 아, 기꽝? 그럼 아기 목욕도 시키잖아예?(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기 목욕도 시키잖아요?)
112005 #3 모욕 시키주게. 보호자들이 시키주게 아기 할머니들도 잇고게. 남펜들도 싯고 그디서.(목욕 시키지. 보호자들이 시키지 아기 할머니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고 거기서.)
112005 #4 이런 온돌방 솟 요렇게 까만솟 그거 허영 불 때는 디.(이런 온돌방 솥 요렇게 까만솥 그거 해서 불 때는 데.)
112005 @ 예.(예.)
112005 #4 경 헹 물 조금 헹 다락에 놩 온도를 맞춰.(그렇게 해서 물 조금 해서 다락에 놔서 온도를 맞춰서.)
112005 @ 예.(예.)
112005 #4 쑥 조금 근처에 엿날에 약을 안 허난.(쑥 조금 근처에 옛날에 약을 안 하니까.)
112005 @ 예.(예.)
112005 #4 그거 ᄀᆞ치 솖앙 허믄 아기들이 막 건강헨.(그거 같이 삶아서 하면 아기들이 아주 건강했어.)
112005 #3 애기 어멍도 삼일 뒈믄 그걸로 모욕허고.(애기 엄마도 삼일 되면 그걸로 목욕하고.)
112005 #4 응.(응.)
112005 @ 아, 애기 어멍도 그거허고?(아, 애기 엄마도 그거하고?)
112005 #4 목욕탕 안 가고 집이서 그걸로 쑥 삶아그넹.(목욕탕 안 가고 집에서 그걸로 쑥 삶아서.)
112006 @ 그 깃저고리 잇잖아예? 배냇저고리?(그 깃저고리 있잖아요? 배냇저고리?)
112006 #3 배냇저고리.(배냇저고리.)

112006 @ 그거는 어떵 만들언마씨?(그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12006 #3 어떵 만들어게. 손으로 꾹덕꾹덕 아기 입을 금방 난 아기 입을 거니까.(어떻게 만들어. 손으로 꾸덕꾸덕 아기 입을 금방 난 아기 입을 거니까.)
112006 @ 예.(예.)
112006 #3 아무렇게나 집이서 기지 조금 헌 거 떠당 놔뒷다강 만들엉 허여.(아무렇게나 집에서 기지 조금 한 거 떠다가 놔뒀다가 만들어서 해.)
112006 @ 아, 그냥 만들어 놔둰마씨?(아, 그냥 만들어 놔뒀어요?)
112006 #3 저고리 하나 만들엉 놔두주게.(저고리 하나 만들어서 놔두지.)

혼례

112011 @ 그면 옛날 결혼식에 대헤서 물어보젠 헴신디예. 요즘 말앙 옛날 결혼식 절차는 어떵 뒈주마씨?(그러면 옛날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말고 옛날 결혼식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112011 #1 옛날 결혼식 절차는 말이지 양가 부모가 이제 이렇게 그 허락ᄒᆞ면은 막편지[203]라는 게 잇어.(옛날 결혼식 절차는 말이지 양가 부모가 이제 이렇게 그 허락하면 '막편지'라는 게 있어.)
112011 @ 예. 막편지.(예. '막편지')
112011 #1 ᄋᆞ.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막편지를 가져가면.(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막편지'를 가져가면.)
112011 @ 예.(예.)
112011 #1 이제 이런 딸을 우리가 말이지 데려오겟습니다 헤서 그런 그 막편지를 주면 날짜 다 잡곡 헤 가지고 말이여 그것이 췌종 결혼 날짜까지 적어 간 거거든.(이제 이런 딸을 우리가 말이지 데려오겠습니다 해서 그런 그 '막편지'를 주면 날짜 다 잡고 해 가지고 말이야 그것이 최종 결혼 날짜까지 적어 간 거거든.)
112011 @ 그게 막편지마씨?(그게 '막편지'에요?)
112011 #1 ᄋᆞ. 그게 막편지가 이제 받고 허면 거기서 사둔 간에 앚아근엥 뭐 술도 한잔 허고 말이지 결혼 날 잡앗으니까게 약속이지 말하자면 막편지가 가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남자가 여자 집에도 마음대로 가곡. 결혼 전이라도 그 옛날에는 벨로 결혼 전에는 잘 안 다녓주게.(어. 그게 '막편지'가 이제 받고 하면 거기서 사돈 간에 앉아서 뭐 술도 한잔 하고 말이지 결혼 날 잡았으니까 약속이지 말하자면 '막편지'가 가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남자가 여자 집에도 마음대로 가고. 결혼 전이라도 그 옛날에는 별로 결혼 전에는 잘 안 다녔지.)
112011 @ 아, 옛날에는마씨?(아, 옛날에는요?)
112011 #1 ᄋᆞ.(어.)

203) '막편지'는 '신랑 쪽 집안에서 궁합이 맞으면 결혼할 날을 택일하여 신부 집에 정식으로 통보하는 서신'으로, 일종의 약혼 의례로 간주되기도 한다. '막편지' 전달은 중매인과 신랑 부친, 또는 신랑이 같이 가기도 하고, 신랑 쪽 근친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막펜지'라고도 한다.

112011 @ 막편지가 왓다갓다 헤야?('막편지'가 왔다갔다 해야?)
112011 #1 으. 막편지가 갓다왓다 허면.(어. '막편지'가 갔다왔다 하면.)
112011 @ 예.(예.)
112011 #1 이게 이제 완전히 정식 사돈이 뒈고.(이게 이제 완전히 정식 사돈이 되고.)
112011 @ 아.(아.)
112011 #1 나는 그 집에 말이지 사위가 뒈고 거기는 우리 집의 며느리가 뒈는 그런 하나의 그 저기 약속이지. 게니까 이제 약속흐니까 이 여자를 말이여 뭐 예를 들어서 뭐 헤도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약속이 됏으니까 우리가 가서 자도 뒈고 흐는 거라.(나는 그 집에 말이지 사위가 되고 거기는 우리 집의 며느리가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저기 약속이지.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니까 이 여자를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도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약속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서 자도 되고 하는 거야.)
112011 @ 그럼 막편지는 신랑 측에서 먼저 보내는 거마씨?(그럼 '막편지'는 신랑 측에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112011 #1 으.(어.)
112012 @ 그면 중매. 그 옛날에는 중매쟁이가.(그러면 중매. 그 옛날에는 중매쟁이가.)
112012 #1 중매쟁이는 뭐 중간에서 말이지 이디 우리 집안에 말이여 성장한 아들이 잇고 흐는데 중매쟁이한테 저기 뚤 하나 말이여 알아봐근엥 말이여 그 집에 강 말이지 들어봉 이쪽 집에서 저 중매 들어왓이난 어떵 흐쿠과 헤그넹 중매쟁이가 가그넹 이야기 헤그넹 흐면 그쪽 집에서도 이거저거 알아봐그넹 좋덴 허면 중매쟁이가 왕 말이여 그쪽에서.(중매쟁이는 뭐 중간에서 말이지 여기 우리 집안에 말이야 성정한 아들이 있고 하는데 중매쟁이한테 저기 딸 하나 말이야 알아봐서 말이야 그 집에 가서 말이지 들어봐서 이쪽 집에서 저 중매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중매쟁이가 가서 이야기 해서 하면 그쪽 집에서도 이거저거 알아봐서 좋다고 하면 중매쟁이가 와서 말이야 그쪽에서.)
112012 @ 예.(예.)
112012 #1 인제 인정 사둔흐켄 헴수다 허면은 그제 막편지 써그넹 가져가는 거라 중매쟁이 역할은.(인제 인정 사돈하겠다고 합니다 하면 그제 '막편지' 써서 가져가는 거야 중매쟁이 역할은.)
112014 @ 그럼 이바지나 혼수는 옛날에.(그럼 이바지나 혼수는.)
112014 #1 이바지 ᄀᆞ튼 경우에는 결혼 후에 무슨 저기 저 처갓집에서 헤 온덴 옛날 우리는 제주도 풍습은 그런 거 엇어. 무슨 함 사시오 헷지마는 이건 육지식이지.(이바지 같은 경우에는 결혼 후에 무슨 저기 저 처갓집에서 해 온다고 옛날 우리는 제주도 풍습은 그런 거 없어. 무슨 함 사시오 했지마는 이건 육지식이지.)
112015 @ 혼수도?(혼수도?)
112015 #1 혼수도 주로 여자 집에서는 이불이나 해 오고 말이여 뭐 무슨 궤나 하나 허고 간단히 말이여 솟단지나 가져오는 게 고작이엇거든 옛날엔.(혼수도 주로 여자 집에

서는 이불이나 해 오고 말이야 무슨 궤나 하나 하고 간단히 말이야 솥단지나 가져오는 게 고작이었거든 옛날엔.)

112016 @ 그면 예장은 들어보션마씨?(그러면 예장은 들어보셨어요?)

112016 #1 예장은 결혼ᄒᆞ기 전에 예장 써그넹 가면은 그 집안에서 문장 뒈는 사람. 예장 편지 받아 가지고 이상 엇이면.(예장은 결혼하기 전에 예장 써서 가면 그 집안에서 문장 되는 사람. 예장 편지 받아 가지고 이상 없으면.)

112016 @ 막편지랑은 다른 건가마씨?('막편지'랑은 다른 건가요?)

112016 #1 예장은 결혼 당일 말이지 저기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갈 때 예장을 써서 가. 예장 써서 가면 신부 집에서는 말이여 그 저기 뭐 한문이나 좀 알곡 말이여 문장 뒈는 사람이 앚앗다가 남자 측에서 예장 주면 그거 받아 가지고 이상 엇이면 그때 신랑 들렌 ᄒᆞ거든.(예장은 결혼 당일 말이지 저기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갈 때 예장을 써서 가. 예장 써서 가면 신부 집에서는 말이야 그 저기 뭐 한문이나 좀 알고 말이야 문장 되는 사람이 앉았다가 남자 측에서 예장 주면 그거 받아 가지고 이상 없으면 그때 신랑 들라고 하거든.)

112016 @ 아.(아.)

112016 #1 그때 그것이 예장이야.(그때 그것이 예장이야.)

112017 @ 그럼 가문잔치[204]도 허잖아예?(그럼 '가문잔치'도 하잖아요?)

112017 #1 가문잔치는 잔치 끗난 다음.('가문잔치'는 잔치 끝난 다음.)

112017 @ 예.(예.)

112017 #1 옛날에는 말이지 보통 촌에서 헐 때는 전 삼일 후 삼일 헌덴 ᄒᆞ여.(옛날에는 말이지 보통 촌에서 할 때는 전 삼일 후 삼일 한다고 해.)

112017 @ 예.(예.)

112017 #1 뭐 잔치 전날부터 도새기 잡고 무신 거 헤 가지고 말이여 잔칫날까지 하곡. 잔치 뒷날이 거 가문잔치는 그 신부 쪽에 잇는 사람들인가 동네 사람들이라던가 잔치에 수고흔 사람들 불러다가 먹는 게 가문잔치.(뭐 잔치 전날부터 돼지 잡고 무슨 거 해 가지고 말이야 잔칫날까지 하고. 잔치 뒷날에 거 '가문잔치'는 그 신부 쪽에 있는 사람들인가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잔치에 수고한 사람들 불러다가 먹는 게 '가문잔치'.)

112017 @ 그럼 참여허는 사람은 친척이 아니라 그냥 좀 동네 사람들.(그럼 참여하는 사람은 친척이 아니라 그냥 좀 동네 사람들.)

112017 #1 동네 사람도 기고 뭐 상대방 쪽에 잇는 말이여 신부 측 사람도 뒈고 결과적으로 말이지 큰 행사 본 잔치를 치루고 뒤풀이로 헌다 허면 뒈지.(동네 사람도 그렇고 뭐 상대방 쪽에 있는 말이야 신부 측 사람도 되고 결과적으로 말이지 큰 행사 본 잔치를 치루고 뒤풀이로 한다 하면 되지.)

112018 @ 그럼 우시도 알아마씨?(그럼 위요도 알아요?)

112018 #1 우시는 여자 쪽에서 신부 모시고 오는 사람이 우시주게.(위요는 여자 쪽에

204)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의미한다.

서 신부 모시고 오는 사람이 위요지.)
112018 @ 아, 신부 모셔오는 사람?(아, 신부 모셔오는 사람?)
112018 #1 어. 신부 옆에서 드레스도 말이지 좀 챙겨주고 말이지 신부 말이지 그날 하루 저 그 봉사, 봉사하는 사람이야 우시가.(어. 신부 옆에서 드레스도 말이지 좀 챙겨주고 말이지 신부 말이지 그날 하루 저 그 봉사, 봉사하는 사람이야 위요가.)
112019 @ 그럼 대반이나 중반은?(그럼 대반이나 중반은?)
112019 #1 중반 ᄀᆞ튼 거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가면 중반이 남자 그 신랑을 안방에 인도허는 사람이 중반이야.(중반 같은 거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가면 중반이 남자 그 신랑을 안방에 인도하는 사람이 중반이야.)
112019 @ 그럼 신부 쪽 사람이꽝?(그럼 신부 쪽 사람입니까?)
112019 #1 어. 신부 쪽 사람이 신랑을 신부 측 방에다가 인도헹 중반이 거기강 들어강 술시중도 들고 말이여 음식 부족허면 중반이 음식도 가져오곡 허는 게 중반이거든.(어. 신부 쪽 사람이 신랑을 신부 측 방에다가 인도해서 중반이 거기가서 들어가서 술시중도 들고 말이야 음식 부족하면 중반이 음식도 가져오고 하는 게 중반이거든.)
112020 @ 그럼 부조는 어떵 허주마씨?(그럼 부조는 어떻게 하지요?)
112020 #1 부조는 뭐 신부 쪽에는 신부 친족들이 ᄒᆞ고 신부 친구들은 신부한테 주고 또 남자는 남자 그 저기 신랑 부친이나 모친뒈는 사람은 친족들한테 남자는 남자들한테 받고 여자는 여자들한테 받고 신랑은 또 신랑 친구들은 직접 신랑이 받아.(부조는 뭐 신부 쪽에는 신부 친족들이 하고 신부 친구들은 신부한테 주고 또 남자는 남자 그 저기 신랑 부친이나 모친되는 사람은 친족들한테 남자는 남자들한테 받고 여자는 여자들한테 받고 신랑은 또 신랑 친구들은 직접 신랑이 받아.)
112021 @ 암창개[205] 들어보션마씨?('암창개' 들어보셨어요?)
112021 #1 암창개 말은 듣긴 들엇는데 잘 모르겠어.('암창개' 말은 듣기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112022 @ 사혼은?(사혼은?)
112022 #1 사혼은 죽은 사람끼리.(사혼은 죽은 사람끼리.)
112022 @ 그거 보신 적 잇어마씨?(그거 보신 적 있어요?)
112022 #1 아니 본 적은 엇지마는 헷다고 ᄒᆞ는 거는 많이 들엇어. 죽은 사람끼리 뭐 결혼을 안 헤 가지고 죽엇을 때 사혼 우리 아들허고 당신네 뚤은 죽엇지마는 사돈 맺어 가지고 사후에 영혼이라도 이렇게 합장시켜주자 뜻에서 사혼을 ᄒᆞᆫ다 하거든. 법적으로 인정이 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도 뭐가 잇으니까 사혼이라는 말도 나왓겟주게.(아니 본 적은 없지마는 했다고 하는 거는 많이 들었어. 죽은 사람끼리 뭐 결혼을 안 해 가지고 죽었을 때 사혼 우리 아들하고 당신네 딸은 죽었지마는 사돈 맺어 가지고 사후에 영혼이라도 이렇게 합장시켜주자 뜻에서 사혼을 한다 하거든.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모르지마는 그것도 뭐가 있으니까 사혼이라는 말도 나왔겠지.)

205) '암창개'는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예정된 날에 신랑 집에서 상객들만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를 의미한다.

112023 @ 그럼 결혼헐 때 보통 혼례랑 관련뒌 금기사항 잇잖아예? 저 ᄀᆞ튼 경우는 결혼허기 전에 제사니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아니면은?(그럼 결혼할 때 보통 혼례랑 관련된 금기사항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제사니 그런 곳에 가지 마라고 아니면은?)

112023 #1 결혼허기 전에 비린 데. 비린 데는 뭐냐면 상난 집, 사람 죽은 데거나 상가나 뭐 무슨 이런 말이지 아주 좋지 않은 불경헌 데는 다니지 말라고 하거든.(결혼하기 전에 비린 데. 비린 데는 뭐냐면 초상난 집, 사람 죽은 데거나 상가나 뭐 무슨 이런 말이지 아주 좋지 않은 불경한 데는 다니지 마라고 하거든.)

112023 @ 예.(예.)

112023 #1 한 일주일 전까지는 깨끗이 잇어라.(한 일주일 전까지는 깨끗이 있어라.)

상례

112024 @ 돌아가신 걸 어떻게 확인허주마씨 옛날에는?(돌아가신 걸 어떻게 확인하지요 옛날에는?)

112024 #1 일단 뭐 죽어서 말이지 숨이 안 쉬면 이제 돌아간 걸로 인정이 뒈거든 그럼 이제 그 동네 아는 사람이나 친족이나 아니면 그런 걸 허는 사람이 인제 불러.(일단 뭐 죽어서 말이지 숨이 안 쉬면 이제 돌아간 걸로 인정이 되거든. 그럼 이제 그 동네 아는 사람이나 친족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인제 불러.)

112024 @ 불러마씨?(불러요?)

112024 #1 집들에 불르면은 남자면 우에 옷. 여자면 적삼 ᄀᆞ튼 거 달렌 헹 혼을 불러. 예를 들어서 인동 장씨 누게가 말이여 세상을 떠낫다 떠낫다 허면서 혼을 부르거든.(집들에 부르면 남자면 위에 옷. 여자면 적삼 같은 거 달라고 해서 혼을 불러. 예를 들어서 인동 장씨 누구가 말이야 세상을 떠났다 떠났다 하면서 혼을 부르거든.)

112026 @ 장지는 어디서 어떻게?(장지는 어디서 어떻게?)

112026 #1 장지는 주로 말이여 마을 공동묘지가 잇엇고. 뭐 자기네 밧도 좋은 땅이 잇으면 정시라고 하면은 그런 산터 보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저기 공동묘지에도 가면 자기라고 잇어. 자기롄 하면 동서남북 어느 자리로 앚으면 이 영혼이 말이여 편안허고 말이여 자식들이 잘 뒈고 뭐 하는 정시들이 보는 그 저 나침반 놓고 보는 것 잇어.(장지는 주로 말이야 마을 공동묘지가 있었고. 뭐 자기네 밭도 좋은 땅이 있으면 지관이라고 하면 그런 묏자리 보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저기 공동묘지에도 가면 자기라고 있어. 자기라고 하면 동서남북 어느 자리로 앉으면 이 영혼이 말이야 편안하고 말이야 자식들이 잘 되고 뭐 하는 지관들이 보는 그 저 나침반 놓고 보는 것 있어.)

112026 @ 예.(예.)

112026 #1 그걸 자기라고 하는데 그 자기 봐 가지고 동남방으로 묻어야 뒈겟다 서남방으로 묻어야 뒈겟다 하는 자기를 봐 가지고 말이여 인제 그 묻는데.(그걸 자기라고 하는데 그 자기 봐 가지고 동남방으로 묻어야 되겠다 서남방으로 묻어야 되겠다 하는 자

기를 봐 가지고 말이야 인제 그 묻는데.)
112027 @ 그럼 관이나 횡대 ᄀᆞ튼 거는 어떻게 만들언마씨?(그럼 관이나 횡대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112027 #1 아, 동네 사람이나 목수가 다 짜지. 대나무를 길이 사람 길이 딱 재서 그걸 들어가게 바로 거기서 짜 집안에서.(아, 동네 사람이나 목수가 다 짜지. 대나무를 길이 사람 길이 딱 재서 그걸 들어가게 바로 거기사 짜 집안에서.)
112028 @ 그럼 수의랑 상복 입는데 남자랑 여자랑 다르잖아예? 어떤 차이가 잇언마씨?(그럼 수의랑 상복 입는데 남자랑 여자랑 다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112028 #1 여자 옷은 여자 입히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는 거지. 뭐 무슨 특별헌 건 엇고.(여자 옷은 여자 입히고 남자는 남자 옷을 입는 거지. 뭐 무슨 특별한 건 없고.)
112031 @ 팟죽 보통 먹잖아예?(팥죽 보통 먹잖아요?)
112031 #1 사람 죽으면 일단 사돈집에서 팟죽을 쒀 와.(사람 죽으면 일단 사돈집에서 팥죽을 쒀 와.)
112031 @ 사돈집에서?(사돈집에서?)
112031 #1 ᄋᆞ. 사돈집에서 팟죽 쒀 와그넹 말이지 일단 제일 먼저 먹는 게 팟죽이라.(아. 사돈집에서 팥죽 쒀 와서 말이지 일단 제일 먼저 먹는 게 팥죽이야.)
112031 @ 무사 팟죽 먹주마씨?(왜 팥죽 먹지요?)
112031 #1 그게 아마 귀신이 제일 싫어허는 말이지 색깔이 빨간색이라. 귀신들이 제일 싫어허는 게 빨간색이니까 팟죽을 먹엇지 않앗나.(그게 아마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 색깔이 빨간색이야.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빨간색이니까 팥죽을 먹었지 않았나.)
112032 @ 성복제는?(성복제는?)
112032 #1 성복제는 사람 죽으면 제일 먼저 드려 가지고 그다음부터 예식을 드리는 거지 장사 지내는 날까지.(성복제는 사람 죽으면 제일 먼저 드려 가지고 그다음부터 예식을 드리는 거지. 장사 지내는 날까지.)
112033 @ 일포제는?(일포제는?)
112033 #1 일포제는 내일 영장하게 뒈면 전날 ᄒᆞ는데 그건 딸들이 일포는 딸들이 맡아서 헤.(일포제는 내일 영장하게 되면 전날 하는데 그건 딸들이 일포는 딸들이 맡아서 해.)
112034 @ 부조랑 조문은 어떵 헤마씨?(부조랑 조문은 어떻게 해요?)
112034 #1 옛날에는 그 친족들은 친족 부주라고 헤 가지고 떡 ᄀᆞ튼 것도 부주ᄒᆞ고 뭐 무슨 그런 돈이 엇으니까 쌀로도 부주허고 그렇게도 한 모양이야.(옛날에는 그 친족들은 친족 부조라고 해 가지고 떡 같은 것도 부조하고 뭐 무슨 그런 돈이 없으니까 쌀로도 부조하고 그렇게도 한 모양이야.)
112035 @ 토신제는 들어보션마씨?(토신제는 들어보셨어요?)
112035 #1 토신제는 영장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묻을 거면 새벽 한 네 시나 말이여 이 저기 토신제 지내는 사람을 빌어.(토신제는 송장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묻을 거면 새

벽 한 네 시나 말이야 이 저기 토신제 지내는 사람을 빌려.)
112035 @ 예.(예.)
112035 #1 빌어 가지고 말이여 돈 오만 원인가 얼마 십만 원인가 줘 가지고 토신제 지내는 깨끗한 음식으로 말이지 새벽 네 시에 가그넹.(빌려 가지고 말이야 돈 오만 원인가 얼마 십만 원인가 줘 가지고 토신제 지내는 깨끗한 음식으로 말이지 새벽 네 시에 가서.)
112035 @ 예.(예.)
112035 #1 그 제를 지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영장이 하나 묻게 뒈니까 토신한테 강 일단 사전에 예고ᄒᆞ는 거지. 이레 들어오니까 잘 봐주십쇼 이렇게 예고혜 가지고 이제 토신한테 예약혜 가지고 헤서 허는 거주게.(그 제를 지내는데 오늘 이 자리에 송장이 하나 묻게 되니까 토신한테 가서 일단 사전에 예고하는 거지. 이리 들어오니까 잘 봐주십쇼 이렇게 예고해 가지고 이제 토신한테 예약해 가지고 해서 하는 거지.)
112036 @ 옛날에 그 관 메는 상여꾼은 동네 주민들이 도와줫인가마씨?(옛날에 그 관 메는 상여꾼은 동네 주민들이 도와줬었나요?)
112036 #1 전부 다 옛날엔 동네 주민들이 도워줫주게.(전부 다 옛날엔 동네 주민들이 도와줬지.)
112037 @ 운상헐 때는 보통 집에서 장지까지 걸어가는 거지예?(운상할 때는 보통 집에서 장지까지 걸어가는 거지요?)
112037 #1 주로 뭐 집에서 그 마을 한 바뀌 이렇게 돌고 장지로 올라가지. 노제라고 헤서.(주로 뭐 집에서 그 마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장지로 올라가지. 노제라고 해서.)
112037 @ 노제는 뭐꽝?(노제는 뭐입니까?)
112037 #1 노제 거 한 길가에서 이렇게 병풍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영혼을 위로ᄒᆞ는 뜻에서 죽 쒀서 술 한 잔 헤서 올려 가지고 그거 걸명허고[206] 헤서 노제 지내그넹 보내.(노제 거 한 길가에서 이렇게 병충치고 마지막 가는 길에 영혼을 위로하는 뜻에서 죽 쒀서 술 한 잔 해서 올려 가지고 그거 고수레하고 해서 노제 지내서 보내.)
112038 @ 그럼 봉분은 어떻게 만들주마씨?(그럼 봉분은 어떻게 만들지요?)
112038 #1 봉분은 일단 그렇게 이렇게 관에 맞게끔 헤서 관이 이거면 그보다 오 센치 십 센치 넙게 파고. 그 옆으로는 모래 ᄀᆞ튼 거 깨끗헌 걸로 몇 푸대 가져가서 그 공간에는 모래 넣고 그다음에는 명지[207]라고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뭐 누구 고 누구 말이지 이름 써 가지고 명지를 더끄곡 그 우에다가 흑으로 이제 놓면 상제들은 돌 ᄀᆞ튼 거 내치고 헌 다음에 삽으로 흑으로 만들엉 어느 정도 봉분이 영 뒈면 달고라고 헤그넹.(봉분은 일단 그렇게 이렇게 관에 맞게끔 해서 관이 이거면 그보다 오 센티 십 센티 넓게 파고. 그 옆으로는 모래 같은 거 깨끗한 걸로 몇 포대 가져가서 그 공간에는 모래 넣고 그다음에는 명정이라고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뭐 누구 고 누구 말이지 이름 써 가지고 명정을 덮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이제 놓으면 상제들은 돌 같은

206) '걸명ᄒᆞ다'는 제를 지낸 후 잡귀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걷어 던지는 일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207) '명정'을 잘못 말한 것이다.

거 내치고 한 다음에 삽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봉분이 이렇게 되면 달구라고 해서.)
112038 @ 달고?(달구?)
112038 #1 달고를 지어 달고 지으는 데는 오야봉이 말이여 무슨 뭐 이 나라를 위헤서 일하시던 사람입니다 에헤 달고 에헤 달고 헤서 무덤을 탄탄허게 만들어주는 돌아가면서 짓는 게 달고주게. 그 달고가 끗나면 다시 흑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쭉 원을 그려 가지고 그다음부터 테를 붙이기 시작ᄒᆞ지.(달구를 찧어 달구 찧는 데는 두목이 말이야 무슨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던 사람입니다 에헤 달구 에헤 달구 해서 무덤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돌아가면서 찧는 게 달구지. 그 달구가 끝나면 다시 흙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쭉 원을 그려 가지고 그다음부터 떼를 붙이기 시작하지.)
112040 @ 장지에서 상여꾼한테 음식은 아까 고기?(장지에서 상여꾼한테 음식은 아까 고기?)
112040 #1 일부러 상여꾼한테 먹게끔.(일부러 상여꾼한테 먹게끔.)
112040 @ 예.(예.)
112040 #1 그 영장밧에 가그넹 겨울 때는 속 ᄀᆞ튼 거 땔감 ᄀᆞ튼 거 가져가그넹 따뜻하게 헤서 먹어야 뒈니까 그렇게 허고. 여름에는 뭐 여름대로 무슨 자리회국이나 겨울에는 ᄆᆞᆷ쿡을 많이 사용ᄒᆞ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국으로 밥 먹을 수 잇게 헤그넹 그 가서 거기서 수고허는 사람들 많이 안 올라가.(그 장지에 가서 겨울 때는 쑥 같은 거 땔감 같은 거 가져가서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여름에는 뭐 여름대로 무슨 자리회국이나 겨울에는 모자반국을 많이 사용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국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서 그 가서 거기서 수고하는 사람들 많이 안 올라가.)
112041 @ 장제 때 특별히 수고헌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거 잇어마씨?(장제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한테 뭐 주는 거 있어요?)
112041 #1 뭐 주지. 기념품, 기념품도 주고 말이지 뭐 쪼금 수고헷댄 헤그넹 기념품도 주고 말이지 헹 내려오는데.(뭐 주지. 기념품, 기념품도 주고 말이지 뭐 쪼금 수고했다고 해서 기념품도 주고 말이지 해서 내려오는데.)
112041 @ 예.(예.)
112041 #1 밥 먹고 그자 주로 뭐 기념품으로 옛날에는 난닝구 하나 줫던지 뭐 무슨 우산을 줫던지 적당헌 거 헤그넹 하나씩 줘낫어.(밥 먹고 그저 주로 뭐 기념품으로 옛날에는 러닝 하나 줬던지 뭐 무슨 우산을 줬던지 적당한 거 줬었어.)
112043 @ 삭망제는?(삭망제는?)
112043 #1 돌아가서 오면은 그 제지내는 거를 삭망제라 헐 거라.(돌아가서 오면 그 제지내는 거를 삭망제라 할 거야.)
112044 @ 소상이랑 대상은 언제 허주마씨?(소상이랑 대상은 언제 하지요?)
112044 #1 그 돌아간 날로 일 년 뒈면 소상 또 일 년 뒈면 대상.(그 돌아간 날로 일 년 되면 소상 또 일 년 되면 대상.)
112045 @ 토롱도 알아마씨?(토롱도 알아요?)

112045 #1 토롱은 사람 죽어 가지고.(토롱은 사람 죽어 가지고.)
112045 @ 예.(예.)
112045 #1 정시 집에 가서 날을 받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생년월일이랑 다 보니까 날짜가 엇어. 앞으로 보름이나 스무날 정도 뒈야 묻을 날 나오난 가매장을 허주. 그게 토롱이라. 매장을 임시로 허는 게 토롱인데 그걸 헹 놧다가 날이 돌아오면 이제 그 날짜에 토롱헌 걸 파서 올라갓지.(지관 집에 가서 날을 받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생년월일이랑 다 보니까 날짜가 없어. 앞으로 보름이나 스무날 정도 되야 묻을 날 나오니까 가매장을 하지. 그게 토롱이야. 매장을 임시로 하는 게 토롱인데 그걸 해서 놨다가 날이 돌아오면 이제 그 날짜에 토롱한 걸 파서 올라갔지.)
112046 @ 이묘는 어떻게 하주마씨?(이묘는 어떻게 하지요?)
112046 #1 이묘는 영장헤 가듯이 나무로 뭰 거를 지엉 올라가는 판을 거기다 놔 가지고 토롱헹 파면 그대로 놔서 그대로 올렷주게.(이묘는 영장해 가듯이 나무로 된 거를 지어서 올라가는 판을 거기다 놔 가지고 토롱해서 파면 그대로 놔서 그대로 올렸지.)
112047 @ 상복은 언제 벗주마씨?(상복은 언제 벗지요?)
112047 #1 상복은 인제 옛날에 갓다오면 제사지낼 때는 상복 입고 아니면 초하루 보름 헷던 사람은 삭일이라고 헤. 삭일 날은 그 상복을 입어.(상복은 인제 옛날에 갔다오면 제사지낼 때는 상복 입고 아니면 초하루 보름 했던 사람은 삭일이라고 해 삭일 날은 그 상복을 입어.)
112047 @ 삭일 날은?(삭일 날은?)
112047 #1 으. 경 ᄒᆞ고 소상 날 입고 대상 날 입고 대상 날에 이제 전부 다 상복 벗어 가지고 이제 그 불태우고.(어. 그렇게 하고 소상 날 입고 대상 날 입고 대상 날에 이제 전부 다 상복 벗어 가지고 이제 그 불태우고.)

제례

112049 @ 제사 준비는 보통 언제 허주마씨?(제사 준비는 보통 언제 하지요?)
112049 #1 이제 돌아간 날 돌아간 전날을 제삿날로 ᄒᆞ여. 만약에 내가 이십육일 날 돌아가면 제사는 이십오일 날 헤.(이제 돌아간 날 돌아간 전날을 제삿날로 해. 만약에 내가 이십육일 날 돌아가면 제사는 이십오일 날 해.)
112049 @ 요즘은 당일제로?(요즘은 당일제로?)
112049 #1 이제는 모든 게 당일 묻으면 끗이야. 걸로 제사고 뭐고 허는 사람도 잇고 안 하는 사람도 잇고.(이제는 모든 게 당일 묻으면 끝이야. 그걸로 제사고 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112050 @ 제사 제물로는 뭐 준비허주마씨?(제사 제물로는 뭐 준비하지요?)
112050 #1 뭐 무슨 적갈[208] ᄀᆞ튼 거 허고 말이지 뫼 영 ᄒᆞ면 곤밥, 겡 끓이는 거는 국 또 무슨 적갈허고 말이지 뭐 무슨 이런 것들 좀 헤서 상에 올려서 과일.(뭐 무슨 '적

208) '적갈'은 적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의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갈' 같은 거 하고 말이지 메 이렇게 하면 흰밥, 갱 끓이는 거는 국 또 무슨 '적갈'하고 말이지 뭐 무슨 이런 것들 좀 해서 상에 올려서 과일.)
112051 @ 콩나물도 올리잖아예?(콩나물도 올리잖아요?)
112051 #1 ᄋᆞ. 홍동백서 콩나물 무슨 말이여 고사리 ᄀᆞ튼 것도 다 올려 가지고 다 똑같애.(어. 홍동백서 콩나물 무슨 말이야 고사리 같은 것도 다 올려 가지고 다 똑같아.)
112052 @ 제육은 그러면 고기는 돼지고기, 바닷고기, 소고기 다 올려마씨?(제육은 그러면 고기는 돼지고기, 바닷고기, 소고기 다 올려요?)
112052 #1 다 올릴 수 잇어.(다 올릴 수 있어.)
112053 @ 그럼 적은 보통 몇 종류 준비헤마씨?(그럼 적은 보통 몇 종류 준비해요?)
112053 #1 적은게 돼지고기 놓는 거 네 고지나 여섯 고지 아래 놓는 거난 그건 뭐.(적은 돼지고기 놓는 거 네 고지나 여섯 고지 아래 놓는 거니까 그건 뭐.)
112053 @ 누가 만들주마씨?(누가 만들지요?)
112053 #1 집에서 여자분들이 제사 음식 만들 때 만드는 거니까.(집에서 여자분들이 제사 음식 만들 때 만드는 거니까.)
112054 @ 떡도 몇 종류 허잖아예?(떡도 몇 종류 하잖아요?)
112054 #1 주로 곤떡허고 침떡허고 한 서너 종류.(주로 흰떡하고 시루떡하고 한 서너 종류.)
112055 @ 과일은 뭐, 뭐 준비헤마씨?(과일은 뭐, 뭐 준비해요?)
112055 #1 사과, 배 또 뭐 무슨 포도 ᄀᆞ튼 것도 잇이면 홍동백서라고 헤 가지고.(사과, 배 또 뭐 무슨 포도 같은 것도 있으면 홍동백서라고 해 가지고.)
112055 @ 예.(예.)
112055 #1 그 뻘건 거는 동쪽에 흰 거는 서쪽에.(그 뻘건 거는 동쪽에 흰 거는 서쪽에.)
112056 @ 채소는 뭐 준비허주마씨 보통?(채소는 뭐 준비하지요 보통?)
112056 #1 콩나물 뭐 그런 거지. 잡채 ᄀᆞ튼 것도 올리고.(콩나물 뭐 그런 거지. 잡채 같은 것도 올리고.)
112057 @ 진설은 누가 헤마씨?(진설은 누가 해요?)
112057 #1 진설? 상에 올리는 거?(진설? 상에 올리는 거?)
112057 @ 예.(예.)
112057 #1 그건 지관이 헤야지.(그건 지관이 해야지.)
112057 @ 지관이 집에.(지관이 집에.)
112057 #1 지관은 그 제사지내는 사람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여 아들 엇이면 손자 남자를 지관이라 하거든.(지관은 그 제사지내는 사람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이야 아들 없으면 손자 남자를 지관이라 하거든.)
112057 @ 예.(예.)
112057 #1 지관이 그 진상 하는 거여 상에.(지관이 그 진상 하는 거야 상에.)
112058 @ 그러면 뫼는 시어머니가 준비허고 겡은 며느리가 준비허고.(그러면 메는

시어머니가 준비하고 갱은 며느리가 준비하고.)
112058 #1 아니 그런 거는 엇고 뫼는 그자 글자 그대로 그 쌀밥을 뫼엔 ᄒᆞ고 겡은 국을 겡이라 헷어 옛날부터.(아니 그런 거는 없고 메는 그저 글자 그대로 그 쌀밥을 메라고 하고 갱은 국을 갱이라 했어 옛날부터.)
112059 @ 그럼 제사지낼 때 잔 올리는 사람 잇잖아예?(그럼 제사지낼 때 잔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112059 #1 그건 집사. 집사, 집사가 이제 사문관이 이제 서면은 집사가 예를 다 집행허주게. 첫 잔을 말이여 상주한테 이제 줘 가지고 올리면 첫잔에 숟가락 꼽고 허는 집안이 다 잇고. 그거는 다 집안마다 조금씩 틀리주마는 막잔에 꼽는 데도 잇고 그렇게 헤서 사문관이 제를 다 끗나면 이제 그거는 식게 파제가 뒈고.(그건 집사. 집사, 집사가 이제 사문관이 이제 서면 집사가 예를 다 집행허지. 첫 잔을 말이야 상주한테 이제 줘 가지고 올리면 첫잔에 숟가락 꼽고 하는 집안이 다 있고. 그거는 다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마는 막잔에 꼽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문관이 제를 다 끝나면 이제 그거는 제사 파제가 되고.)
112060 @ 파제는 보통 몇 시에 하주마씨?(파제는 보통 몇 시에 하지요?)
112060 #1 보통 옛날에는 열한시에서 열두시에 헷어. 제사는 열한시에서 열두시 멩질은 아침 여덟시에서 열시 사이.(보통 옛날에는 열한시에서 열두시에 했어. 제사는 열한시에서 열두시 명절은 아침 여덟시에서 열시 사이.)
112061 @ 문전제[209]는 저번에 얘기헷고.('문전제'는 저번에 얘기했고.)
112061 #1 문전제는 명절 지내기 직전에.('문전제'는 명절 지내기 직전에.)
112061 @ 직전에.(직전에.)
112061 #1 그 마루에 놔 가지고 문 열어 가지고 허고. 제사도 제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제일 먼저 문전제를 신에 모셔오겟습니다 허고 제를 지내는 거거든.(그 마루에 놔 가지고 문 열어 가지고 하고. 제사도 제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제일 먼저 '문전제'를 신에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제를 지내는 거거든.)
112062 @ 그럼 제반은 어떵 헤마씨? (그럼 제반은 어떻게 해요?)
112062 #1 무슨 제반?(무슨 제반?)
112062 @ 제반 그 음식 남앙 조금씩.(제반 그 음식 남아서 조금씩.)
112062 #1 그거는 제가 끗나면.(그거는 제가 끝나면.)
112062 @ 예.(예.)
112062 #1 그 걸명이라고 헤 가지고.(그 고수레라고 해 가지고.)
112062 @ 걸명.(고수레.)
112062 #1 걸명. 걸명은 술 사문관이 썻던 술허고 걸명 그 저기 저 겡 저 걸명헐 거 가져오면 거기다가 음식 헌 거 전부 다 조금씩 다 떼서 깨끗헌 데로 가서 세 번 이렇게 뿌려 가지고 말이여 걸명헤난 다음에 파제허는 거라.(고수레. 고수레는 술 사문관이 썼던 술하고 고수레 그 저기 저 갱 저 고수레할 거 가져오면 거기다가 음식 한 거 전부

209) '문전제'는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문제'라고도 한다.

다 조금씩 다 떼서 깨끗한 데로 가서 세 번 이렇게 뿌려 가지고 말이야 고수레한 다음에 파제하는 거야.)

112063 @ 지제도 헤마씨?(지제도 해요?)

112063 #1 지제는 뭐 사대손까지 하라 헷으니까 할 사람 엇이면 이대손에 허고 당대에도 허고 싶으면 축으로 고혜 가지고 더이상 제사를 못 지내겟으니까 그렇게 아십쇼 그렇게 혜 가지고.(지제는 뭐 사대손까지 하라 했으니까 할 사람 없으면 이대손에 하고 당대에도 하고 싶으면 축으로 고해 가지고 더이상 제사를 못 지내겠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112063 @ 원래 사대손?(원래 사대손?)

112063 #1 사대 손까지는 이 앞에 삼 손은 삼년상 뒤에 사선은 사대 손 이렇게 헤서 제사는 사대 손까지 지내고 하라고 헷다는 말이 잇인데.(사대 손까지는 이 앞에 삼 손은 삼년상 뒤에 사선은 사대 손 이렇게 해서 제사는 사대 손까지 지내고 하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112064 @ 묘제는 어떵 헤마씨?(묘제는 어떻게 해요?)

112064 #1 묘제는 돌아간 다음에 산에서 명질 지내는 거를 묘제라고 하는데 주로 웃듸산을 묘제헤.(묘제는 돌아간 다음에 산에서 명절 지내는 거를 묘제라고 하는데 주로 '웃듸산'을 묘제해.)

112065 @ 제사헐 때 금기사항은 엇엇인가마씨?(제사할 때 금기사항은 없었나요?)

112065 #1 제사헐 때 금기사항은 뭐 무슨 그것도 제사하기 전에 지관들은 우리 집 제사 잇이난 사람 죽은 데라던가 이런 데 뭐 초상집이라던가 뭐 이런 나쁜 데는 보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헤.(제사할 때 금기사항은 뭐 무슨 그것도 제사하기 전에 지관들은 우리 집 제사 있으니까 사람 죽은 데라던가 이런 데 뭐 초상집이라던가 뭐 이런 나쁜 데는 보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해.)

112049 @ 예. 식게 허는 거 좀 물어볼거마씨 식게. 식게 준비는 어떻게 허주마씨?(예. 제사 하는 거 좀 물어볼거예요 제사.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하지요?)

112049 #2 식게 준비는게 이녁 집안마다 다 틀리난.(제사 준비는 이녁 집안마다 다 다르니까.)

112049 @ 예. 할머니 여기서 허는 거 골아 줍서.(예. 할머니 여기서 하는 거 말해 주십시오.)

112049 #2 응, 응. 우린 제사 엇어.(응, 응. 우린 제사 없어.)

112049 @ 아, 제사 엇어마씨?(아, 제사 없어요?)

112049 #2 멩질밧긔.(명절밖에.)

112049 @ 그럼 멩질 헐 때 뭐, 뭐 준비헤마씨? 음식?(그럼 명절 할 때 뭐, 뭐 준비해요? 음식?)

112049 #2 뭐, 뭐 준비헤게. 떡들 준비허곡. 적갈[210]허곡.(뭐, 뭐 준비해. 떡들 준비하

210) '적갈'은 적(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고. ‘적갈’하고.)
112049 @ 예. 떡은 무슨 종류? 뭐, 뭐?(예. 떡은 무슨 종류? 뭐, 뭐?)
112049 #2 떡 허는 집 싯고. 나 요즘은 이젠 빵 상 허멘.(떡 하는 집 있고. 나 요즘은 이젠 빵 사서 해.)
112049 @ 아, 요즘에는 빵 상 허멘마씨?(아, 요즘에는 빵 사서 해요?)
112049 #2 빵.(빵.)
112049 @ 요즘, 요즘 말앙 옛날에 집에서 헷던 거?(요즘, 요즘 말고 옛날에 집에서 했던 거?)
112049 #2 옛날에는.(옛날에는.)
112049 @ 예.(예.)
112049 #2 떡들 헹 헷주게. 떡.(떡들 해서 했지. 떡.)
112049 @ 예. 무슨 떡?(예. 무슨 떡?)
112049 #2 침떡도 치고게.(시루떡도 치고.)
112049 @ 예.(예.)
112049 #2 세미, 인절미. 세미, 인절미 허는 집안 싯고 안 허는 집안 잇어.(‘세미’, 인절미. ‘세미’, 인절미 하는 집안 있고 안 하는 집안 있어.)
112049 @ 여기서는 헨마씨?(여기서는 했어요?)
112049 #2 응. 우린 허연.(응. 우린 했어.)
112049 @ 그거 만들어마씨?(그거 만들어요?)
112049 #2 만들어.(만들어.)
112049 @ 어떵 만들어마씨? 그건?(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112049 #2 집이서게 떡 찌엉게. (집에서 떡 찌어서.)
112049 @ 뭘로 만들어마씨? 시작부터? 세미, 세미떡은?(뭘로 만들어요? 시작부터? ‘세미’, ‘세미떡’은?)
112049 #2 세미떡 헐 때? 쏠 ᄀᆞᆯ아당게 쏠.(‘세미떡’ 할 때? 쌀 갈아다가 쌀.)
112049 @ 예. 쏠 ᄀᆞᆯ아당?(예. 쌀 갈아다가.)
112049 #2 쏠 물이 컹 놔뒁당 거 강 ᄆᆞᆯ방에 강 ᄀᆞᆯ아 와.(쌀 물에 담가 놔뒀다가 거 가서 연자맷간에 가서 갈아 와.)
112049 @ 예.(예.)
112049 #2 그거 ᄀᆞᆯ아당게 풋을 넣으나.(그거 갈아다가 팥을 넣으나.)
112049 @ 음.(음.)
112049 #2 콩 저 무신 무신 ᄀᆞ루를 넣으나 경 헤그넹 쭉 담앙.(콩 저 무슨 무슨 가루를 넣으나 그렇게 해서 쭉 담아서.)
112049 @ 예.(예.)
112049 #2 경 헹 허는 거.(그렇게 해서 하는 거.)
112049 @ 그럼 인절미는?(그럼 인절미는?)
112049 #2 인절미 그냥 영 헹 놔그넹 썰어.(인절미 그냥 이렇게 해서 놔서 썰어.)

112049 @ 예.(예.)
112049 #2 니기만뜩허게 영 써는 게 인절미. 세미떡은 영 즙는 거.(네모나게 이렇게 써는 게 인절미. '세미떡'은 이렇게 접는 거.)
112049 @ 즙는 거?(접는 거?)
112049 #2 어. 이젠 그런 거 안 허젠 송펜만 헤 불잖아. 송펜만.(어. 이젠 그런 거 안 하려고 송편만 해 버리잖아. 송편만.)
112049 @ 예. 이젠 송펜만 허주마씨.(예. 이젠 송편만 하지요.)
112049 #2 응.(응.)
112049 @ 그럼 떡은 그런 거 허고.(그럼 떡은 그런 거 하고.)
112049 #2 응.(응.)
112053 @ 또 다른 건 뭐?(또 다른 건 뭐?)
112053 #2 적갈게 적갈.('적갈' '적갈'.)
112053 @ 무슨 적갈 헤마씨?(무슨 '적갈' 해요?)
112053 #2 무슨 적갈 헤게. 소고기 적갈허곡 돼지고기 적갈허곡 헹 놩 소라허고 경 헤낫주게. 겐디 소고기들은 안 헤 먹어 이젠.(무슨 '적갈' 해. 소고기 '적갈'하고 돼지고기 '적갈'하고 해서 놔서 소라하고 그렇게 했었지. 그런데 소고기들은 안 해 먹어 이젠.)
112053 @ 이젠 안 헤 먹어마씨?(이젠 안 해 먹어요?)
112053 #2 응.(응.)
112053 @ 무사?(왜?)
112053 #2 안 좋덴.(안 좋다고.)
112053 @ 안 좋덴?(안 좋다고?)
112053 #2 게난 난 소라허곡 문어허곡 돼지고기허곡.(그러니까 난 소라하고 문어하고 돼지고기하고.)
112053 @ 물꾸럭도 놧수광? 여긴 물꾸럭이라고 헤마씨? 문게라고 헨마씨?(문어도 놨습니까? 여긴 '물꾸럭'이라고 해요? '문게'라고 해요?)
112053 #2 무꾸럭, 무꾸럭. 엿날은 무꾸럭.('무꾸럭', '무꾸럭'. 옛날은 '무꾸럭'.)
112053 @ 무꾸럭.('무끄럭'.)
112053 #2 응. 문어가 아니고.(응. 문어가 아니고.)
112053 @ 그.(그.)
112053 #2 문어가 아니고 저 무꾸럭.(문어가 아니고 저 '무꾸럭'.)
112053 @ 예.(예.)
112053 #2 옛날에는 무꾸럭이라고 헷주게.(옛날에는 '무꾸럭'이라고 했지.)
112053 @ 무꾸럭도 올려마씨?('무꾸럭'도 올려요?)
112053 #2 응.(응.)
112053 @ 솖앙?(삶아서?)
112053 #2 응. 솖앙 적갈 헹 양념허영게.(응. 삶아서 '적갈' 해서 양념해서.)
112053 @ 양념허영.(양념해서.)

112053 #2 야의네 이모는 어제 점심 먹으멍 어머니 돼지고기 적갈 많이 흡서. 나 많이 안 허켜. 우리들 강 먹으쿠다. 어머니 적갈 맛잇게 흡니다.(이 아이네 이모는 어제 점심 먹으면서 어머니 돼지고기 '적갈' 많이 하십시오. 나 많이 안 하겠다. 우리들 가서 먹겠습니다. 어머니 '적갈' 맛있게 합니다.)
112053 @ 맛잇게 어떵 헨마씨? 적갈?(맛있게 어떻게 했어요? '적갈'?)
112053 #2 양념 맛잇게 허믄 맛 좋주게기.(양념 맛있게 하면 맛 좋지.)
112053 @ 그거 만드는 과정 좀 설명헤 줍서.(그거 만드는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112053 #2 거?(거?)
112053 @ 예.(예.)
112053 #2 돼지고기 허젠 허믄.(돼지고기 하려고 하면.)
112053 @ 예.(예.)
112053 #2 설탕 ᄒᆞ끔 넣곡.(설탕 조금 넣고.)
112053 @ 예.(예.)
112053 #2 춤기름도 넣야 돼.(참기름도 넣어야 돼.)
112053 @ 춤기름도 넣야 돼마씨?(참기름도 넣어야 돼요?)
112053 #2 어. 깨소금도 넣곡.(어. 깨소금도 넣고.)
112053 @ 예.(예.)
112053 #2 양념간장허곡. 경 허영 영 영 영 영 다 주물렁 영 찍어 먹어 봐 국물.(양념간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주물러서 이렇게 찍어 먹어 봐 국물.)
112053 @ 예. 국물 찍어 먹어 보고.(예. 국물 찍어 먹어 보고.)
112053 #2 응. 영 국물 간을 봐야주게.(응. 이렇게 국물 간을 봐야지.)
112053 @ 예.(예.)
112053 #2 나 꼭 간 봐져. 경 헹 뭐 부족허믄 ᄒᆞ끔 더 넣곡.(나 꼭 간 봐져. 그렇게 해서 뭐 부족하면 조금 더 넣고.)
112053 @ 예.(예.)
112053 #2 어. 경 허영 파 ᄀᆞ튼 거는 다 뒌 다음에 영 영 넣곡.(어. 그렇게 해서 파 같은 거는 다 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넣고.)
112053 @ 소고기 적갈도 비슷허게 헤마씨?(소고기 '적갈'도 비슷하게 해요?)
112053 #2 응. 설탕도 놔야 돼. 경 헤야 갈비찜 허는 식으로 맛잇어.(응. 설탕도 놔야 돼. 그렇게 해야 갈비찜 하는 식으로 맛있어.)
112053 @ 그 뭐 셍선은 안 올려마씨?(그 뭐 생선은 안 올려요?)
112053 #2 무사 안 올려게?(왜 안 올려?)
112053 @ 뭐 종류. 뭐, 뭐 올리주마씨?(뭐 종류. 뭐, 뭐 올리지요?)
112053 #2 셍선 구웡 올려 그냥 셍선.(생선 구워서 올려 그냥 생선.)
112053 @ 그냥 구웡 올련마씨?(그냥 구워서 올렸어요?)
112053 #2 어.(어.)

112055 @ 과일은 몇 가지 올련마씨?(과일은 몇 가지 올렸어요?)
112055 #2 과일은 집안마다 틀려.(과일은 집안마다 달라.)
112055 @ 예.(예.)
112055 #2 아홉 가지 올리는 디. 다섯 가지 올리는 디. 세 가지 올리는 디.(아홉 가지 올리는 데. 다섯 가지 올리는 데. 세 가지 올리는 데.)
112055 @ 여기는 몇 가지? 할머니 몇 가지 올련마씨?(여기는 몇 가지? 할머니 몇 가지 올렸어요?)
112055 #2 나 세 가지만 올리멘.(나 세 가지만 올려.)
112055 @ 세 가지?(세 가지?)
112055 #2 응.(응.)
112055 @ 뭐, 뭐? 사과?(뭐, 뭐? 사과?)
112055 #2 사과.(사과.)
112055 @ 그다음?(그다음?)
112055 #2 귤.(귤.)
112055 @ 귤.(귤.)
112055 #2 포도.(포도.)
112055 @ 포도? 이렇게?(포도? 이렇게?)
112055 #2 응.(응.)
112056 @ 그다음에 그 ᄂᆞ물도 올리잖아예?(그다음에 그 나물도 올리잖아요?)
112056 #2 ᄂᆞ물.(나물.)
112056 @ 예. 뭐, 뭐 올리주마씨? 종류 막 여러 가지 잇잖아예?(예. 뭐, 뭐 올리지요? 종류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112056 #2 콩나물.(콩나물.)
112056 @ 콩나물이영.(콩나물과.)
112056 #2 시금치나물.(시금치나물.)
112056 @ 시금치나물이영.(시금치나물과.)
112056 #2 고사리.(고사리.)
112056 @ 고사리?(고사리?)
112056 #2 응. 세 가지.(응. 세 가지.)
112056 @ 데쳐그넹?(데쳐서?)
112056 #2 다 양념 만들언게. 다 양념 만들엉.(다 양념 만들었어. 다 양념 만들어서.)
112056 @ 명절은 보통 몇 시에 지내마씨? 명절?(명절은 보통 몇 시에 지내요? 명절?)
112056 #2 우린 보통 열 시.(우린 보통 열 시.)
112056 @ 보통 열 시에? 아, 막 일찍은 안 허고?(보통 열 시에? 아, 아주 일찍은 안 하고?)
112056 #2 응.(응.)

112056 @ 괜찮다예?(괜찮군요?)
112056 #2 응.(응.)

13. 민간요법

113001 @ 어르신 그 민간요법 병원 말앙 집에서 하는 치료법 ᄀᆞ튼 거 물어보젠 헴신디예.(어르신 그 민간요법 병원 말고 집에서 하는 치료법 같은 거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13001 #1 ᄋᆞ.(어.)
113001 @ 어 그냥 아시는 거 골아 주고 엇이면 엇다고 얘기하면 돼마씨. 그 첫 번째로 기계총 잇잖아예?(어 그냥 아시는 거 말해 주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 첫 번째로 기계총 있잖아요?)
113001 #1 ᄋᆞ.(어.)
113001 @ 그 바리깡으로 헤 가지고 머리 피부병 ᄀᆞ튼 거 나는 거. 그거 나면 옛날에는 어떵 뭐 고치는 방법 잇엇수광?(그 바리캉으로 해 가지고 머리 피부병 같은 거 나는 거. 그거 나면 옛날에는 어떻게 뭐 고치는 방법 있었습니까?)
113001 #1 뭐 별로 고치는 약이 별로 엇엇던 걸로 알고 잇곡.(뭐 별로 고치는 약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113001 @ 예.(예.)
113001 #1 그 뭐 그것도 하나의 그 충 종류로 헤 가지고 말이지 머리에 무슨 말이지 막 머리도 좀 빠지고 뭐 ᄒᆞ고 헷던 것 ᄀᆞ튼데.(그 뭐 그것도 하나의 그 충 종류로 해 가지고 말이지 머리에 무슨 말이지 막 머리도 좀 빠지고 뭐 하고 했던 것 같은데.)
113001 @ 그럼 집에서 뭐 바르고 헷던 건 엇언마씨?(그럼 집에서 뭐 바르고 했던 건 없었어요?)
113001 #1 글쎄 바르고 뭐 헷던 거는 약이 별로 엇엇던 것 같애.(글쎄 바르고 뭐 했던 거는 약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113002 @ 그럼 혹시 독창이라고 들어보션마씨?(그럼 혹시 독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13002 #1 독창.(독창.)
113002 @ 예. 머리 헐면서 벗겨지는 거.(예. 머리 헐면서 벗겨지는 거.)
113002 #1 음 그런 거는 잘 안 들어보고.(음 그런 거는 잘 안 들어보고.)
113003 @ 그면 머리에 하얀 요즘엔 아닌데 옛날엔 하얀 색 비듬.(그러면 머리에 하얀 요즘엔 아닌데 옛날엔 하얀 색 비듬.)
113003 #1 ᄋᆞ. 비듬.(어. 비듬.)
113003 @ 비듬 생기면 옛날에는 어떻게 헷주마씨?(비듬 생기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지요?)

113003 #1 비듬 생기면은 뭐 무슨 뭐 창포로 머리도 감고 옛날에 말이지 그랫던 말도 들엇는데.(비듬 생기면 뭐 무슨 뭐 창포로 머리도 감고 옛날에 말이지 그랬던 말도 들었는데.)
113003 @ 예.(예.)
113003 #1 창포라는 그런 약초에 물을 끓여 가지고 머리 감고 그러면은 비듬도 엇어지고.(창포라는 그런 약초에 물을 끓여 가지고 머리 감고 그러면 비듬도 없어지고.)
113003 @ 창포?(창포?)
113003 #1 창포. 창포라고 그런 거는 머리 감으면은 아주 말이지 좋다는 거라 옛날부터도.(창포. 창포라고 그런 거는 머리 감으면 아주 말이지 좋다는 거야 옛날부터도.)
113003 @ 그런 게 잇엇구나예?(그런 게 있었군요?)
113003 #1 ᄋᆞ.(어.)
113004 @ 그럼 버즘은 들어보션마씨?(그럼 버짐은 들어보셨어요?)
113004 #1 버즘 ᄀᆞ튼 거는 얼굴 버즘 머리에도 버즘나고. 버즘은 주로 얼굴에 많이 난 걸로 아는데.(버짐 같은 거는 얼굴 버짐 머리에도 버짐나고. 버짐은 주로 얼굴에 많이 난 걸로 아는데.)
113004 @ 예.(예.)
113004 #1 버즘 나면은 뭐 무슨 방법이 엇엇지 그때는.(버짐 나면 뭐 무슨 방법이 없었지 그때는.)
113004 @ 그때는 방법이 엇언마씨?(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113004 #1 ᄋᆞ. 그때는 약이 엇이니깐.(어. 그때는 약이 없으니깐.)
113004 @ 그럼 백선이라고 피부명은 들어보션마씨?(그럼 백선이라고 피부병은 들어보셨어요?)
113004 #1 백선?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백선?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
113006 @ 그럼 그냥 그 젊은 친구들한테 나는 여드름 잇잖아예? 여드름 나면 옛날엔 어떻게 헷주마씨?(그럼 그냥 그 젊은 친구들한테 나는 여드름 있잖아요? 여드름 나면 옛날엔 어떻게 했지요?)
113006 #1 여드름 뭐 자기대로 이렇게 짜고 말이여 그렇게 헤 가지고 뭐 부작용이 생기면 더 커지고 말이여 이렇게 헷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도 약은 엇엇주게.(여드름 뭐 자기대로 이렇게 짜고 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뭐 부작용이 생기면 더 커지고 말이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도 약은 없었지.)
113006 @ 뭐 바르는 거나 그런 건 엇엇겟다예?(뭐 바르는 거나 그런 건 없었겠군요?)
113006 #1 지금은 깨끗이 세수ᄒᆞ고 뭐 이런. 이런 거밧긔.(지금은 깨끗이 세수하고 뭐 이런. 이런 거밖에.)
113007 @ 그럼 기미는 뭐 엇언마씨? 기미. 얼굴에 기미나 주근깨 날 때.(그럼 기미는 뭐 없었어요? 기미. 얼굴에 기미나 주근깨 날 때.)
113007 #1 그건 나이가 들면.(그건 나이가 들면.)

113007 @ 예.(예.)
113007 #1 노화 현상으로 뭐 검버섯 ᄀᆞ튼 거 나오는 거는 어짜피 기정사실이고 뭐 나이가 들면은 검버섯, 기미 ᄀᆞ튼 거는 주로 여자들도 애기 낳고 허면 기미도 지고 뭐 ᄒᆞᆫ다는 말은 많이 듣고 헷인디. 꼭 말이여 늙어서만 기미 잇는 거는 아니데.(노화 현상으로 뭐 검버섯 같은 거 나오는 거는 어차피 기정사실이고 뭐 나이가 들면 검버섯, 기미 같은 거는 주로 여자들도 아기 낳고 하면 기미도 지고 뭐 한다는 말은 많이 듣고 했는데. 꼭 말이야 늙어서만 기미 있는 거는 아니데.)
113007 @ 예.(예.)
113007 #1 젊은 사람도 애기 낳고 뭐 헤 가지고 산후조리 잘 안 뒈고 그렇게 기미도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잇곡.(젊은 사람도 아기 낳고 뭐 해 가지고 산후조리 잘 안 되고 그렇게 기미도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113009 @ 그럼 사마귀 그 혹시 사마귀 알지예?(그럼 사마귀 그 혹시 사마귀 알지요?)
113009 #1 ᄋᆞ. 사마귀도 옛날에는 뭐 말축 ᄀᆞ치 오줌 싸 불면 사마귀 난다는 말이 뭐 내려오는 건 전설 ᄀᆞ튼 건 헹 헷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자라면.(어. 사마귀도 옛날에는 뭐 무사마귀 같이 오줌 싸 버리면 사마귀 난다는 말이 뭐 내려오는 건 전설 같은 건 해서 했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자라면.)
113009 @ 예.(예.)
113009 #1 거미줄로 말이여 이렇게 자꾸 감으면은 나중에 사마귀가 그 그거에 의헤서 떨어져 나가기도 헤낫어.(거미줄로 말이야 이렇게 자꾸 감으면 나중에 사마귀가 그 그거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었어.)
113009 @ 아, 거미줄로?(아, 거미줄로?)
113009 #1 ᄋᆞ. 거미줄로.(어. 거미줄로.)
113010 @ 그면 눈에 다래끼 난다고 허잖아예?(그러면 눈에 다래끼 난다고 하잖아요?)
113010 #1 ᄋᆞ.(어.)
113010 @ 그런 거 날 때 뭐 허는 거 잇언마씨?(그런 거 날 때 뭐 하는 거 있었어요?)
113010 #1 뭐 그런 것도 말이여 뭐 보리방울인가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다래끼 난데 꼭꼭 눌르고 말이여 뭐 발창에다 천하 뭐 무슨 뭐 그런 지하 그런 말이 쓰는 것도 옛날에 잇어낫어.(뭐 그런 것도 말이야 뭐 보리방울인가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다래끼 난 데 꼭꼭 누르고 말이야 뭐 발바닥에다 천하 뭐 무슨 뭐 그런 지하 그런 말이 쓰는 것도 옛날에 있었어.)
113011 @ 그면 눈 빨갛게 충혈됏을 때 허는 건 뭐 엇엇인가마씨?(그러면 눈 빨갛게 충혈됐을 때 하는 건 뭐 없었나요?)
113011 #1 그거는 뭐 주로 어머니 젖, 젖 말이지 눈에 넣고 말이여 이런 거는 어릴 때 쪼끔 봐 난 거 ᄀᆞ튼데.(그거는 뭐 주로 어머니 젓, 젖 말이니 눈에 넣고 말이야 이런

거는 어릴 때 쪼끔 봤던 거 같은데.)
113012 @ 지금이야 이빨 아프면 치과 가잖아예?(지금이야 이빨 아프면 치과 가잖아요?)
113012 #1 ᄋᆞ.(어.)
113012 @ 옛날엔 이빨 아프면 어떵 헨마씨?(옛날엔 이빨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113012 #1 빠 불엇지게.(빼버렸지.)
113012 @ 빠 불언마씨?(빼 버렸어요?)
113012 #1 씰로 무끄어 가지고 빠면은 뭐 다음 말이여 뭐 무끈 이는 돌아가고 생니는 돌아오라 지붕 우에다가 던져 난 기억이 나.(실로 묶어 가지고 빼면 뭐 다음 말이야 뭐 묶은 이는 돌아가고 생니는 돌아오라 지붕 위에다가 던졌던 기억이 나.)
113013 @ 그럼 피곤하면 혀에 그 뭐 나잖아예?(그럼 피곤하면 혀에 그 뭐 나잖아요?)
113013 #1 어?(어?)
113013 @ 피곤허면 혀에 뭐 나잖아예? 혓바늘 솟는다고 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푹 쉬엇인가마씨?(피곤하면 혀에 뭐 나잖아요? 혓바늘 솟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그냥 푹 쉬었나요?)
113013 #1 그거는 청 ᄀᆞ튼 거 입에 물엇을 거야. 청, 꿀.(그거는 청 같은 거 입에 물었을 거야. 청, 꿀.)
113013 @ 꿀 ᄀᆞ튼 걸로 입에 물엉.(꿀 같은 걸로 입에 물어서.)
113013 #1 ᄋᆞ.(어.)
113014 @ 그면 천연두 알아마씨 천연두?(그러면 천연두 알아요 천연두?)
113014 #1 천연두는 호열자 그거 말이지.(천연두는 호열자 그거 말이지.)
113014 @ 호열자?(호열자?)
113014 #1 호열자라고 옛날 우리는 인제 이야기 헷는데 그거 걸리면 말이지 그 천연두는 거 상당히 말이지 민감한 병이랏어.(호열자라고 옛날 우리는 인제 이야기 했는데 그거 걸리면 말이지 그 천연두는 거 상당히 말이지 민감한 병이었어.)
113014 @ 예.(예.)
113014 #1 동네 어느 집에 식게 헤난 거 다 알고 말이지 누게 집에 가면 고기 잇인 것도 알고 그듸 강 얻어 오렌도 ᄒᆞ고 말이여 가져오렌도 ᄒᆞ고 천연두 걸린 사람은 그렇게 헤낫어.(동네 어느 집에 제사 했던 거 다 알고 말이지 주가 집에 가면 고기 있는 것도 알고 거기 가서 얻어 오라고도 하고 말이야 가져오라고도 하고 천연두 걸린 사람은 그렇게 했었어.)
113014 @ 아.(아.)
113014 #1 거 호열자 병이라고 헤 가지고 옛날에는 그 병 오면은 집 앞에다가 가시나무 싸고 들어오지 못허게 말이야 사람들 전염됀다고 헤서 그거 그거 들어오면 또 고치지도 못헷거든 그때는.(거 호열자 병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 병 오면 집 앞에다가 가시나무 싸고 들어오지 못하게 말이야 사람들 전염된다고 해서 그거 그거 들어오면

또 고치지도 못했거든 그때는.)
113014 @ 아, 기꽝?(아, 그렇습니까?)
113014 #1 많이게 사람도 죽고.(많이 사람도 죽고.)
113015 @ 그믄 천연두 말앙 홍역 잇잖아예? 홍역?(그러면 천연두 말고 홍역 있잖아요? 홍역?)
113015 #1 게 천연두가 끗나면은 홍역으로 ᄒᆞ는 거지.(그게 천연두가 끝나면 홍역으로 하는 거지.)
113015 @ 그때도 뭐 그냥.(그때도 뭐 그냥.)
113015 #1 홍역 잘 안뒈면 얼굴에 곰보가 다 생기고 그렇게 ᄒᆞ는 건데. 이제는 홍역 주사도 예방 주사도 다 맞고 천연두도 꼭 안 헷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백 살 때까지 헹 지난다고 헤.(홍역 잘 안되면 얼굴에 곰보가 다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홍역 주사도 예방 주사도 다 맞고 천연두도 꼭 안 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백 살 때까지 해서 지난다고 해.)
113016 @ 학질이라고 들어보션마씨? 초학?(학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초학?)
113016 #1 응?(응?)
113017 @ 그럼 볼거리는 알아마씨?(그럼 볼거리는 알아요?)
113017 #1 볼거리도 옛날엔 좀 잇어 낫던 병으로 알고 잇인데.(볼거리도 옛날엔 좀 있었던 병으로 알고 있는데.)
113018 @ 그럼 목 아플 때 목이 막 부을 때는?(그럼 목 아플 때 목이 막 부을 때는?)
113018 #1 ᄋᆞ. 편도선.(어. 편도선.)
113018 @ 그런 거 헐 때는 뭐 딱히 드신 거 엇언마씨?(그런 거 할 때는 뭐 딱히 드신 거 없었어요?)
113018 #1 편도선에는 개고기를 좀 구워 가지고 입에 물면 좋아낫어.(편도선에는 개고기를 좀 구워 가지고 입에 물면 좋았었어.)
113018 @ 개고기?(개고기?)
113018 #1 ᄋᆞ.(어.)
113019 @ 여름에 땀띠 나잖아예?(여름에 땀띠 나잖아요?)
113019 #1 ᄋᆞ.(어.)
113019 @ 그럼 땀띠 낫을 때는 어떵 헨마씨?(그럼 땀띠 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19 #1 땀띠 나서는 저듸 바다에 가서 말이지 그 저기 바당물에 가서 말이지 그 목욕ᄒᆞ고 찝신 찝신으로 막 두들겨 주고 그렇게 헤 가지고 치료헷던 걸로 아는데 말이지.(땀띠 나서는 저기 바다에 가서 말이지 그 저기 바닷물에 가서 말이지 그 목욜하고 짚신, 짚신으로 막 두들겨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치료했던 걸로 아는데 말이지.)
113020 @ 그럼 부스럼 ᄀᆞ튼 거 몸에 나면 어떵 헤마씨? 종기 ᄀᆞ튼 거.(그럼 부스럼 같은 거 몸에 나면 어떻게 해요? 종기 같은 거.)
113020 #1 부스럼 ᄀᆞ튼 거는 조금 피곤허면은 나는 거주마는 종기도 그런 일종이주

마는 옛날엔 종기도 고약이 민간요법으로 말이지 그 제조 뒈 가지고 말이지 팔아낫인디 가면은 사올 수도 잇엇어.(부스럼 같은 거는 조금 피곤하면 나는 거지마는 종기도 그런 일종이지마는 옛날엔 종기도 고약이 민간요법으로 말이지 그 제조되 가지고 말이지 팔았었는데 가면 사올 수도 있었어.)

113020 @ 아, 고약?(아, 고약?)

113020 #1 고약이 종기에다가 바르는 약인데 지금은 뭐 약방에도 다 나고 허지마는 옛날에는 유일한 말이여 고약이 말이여 종기 ᄀᆞ튼 거는 치료허는 데는 말이지 그 췌고라낫지.(고약이 종기에다가 바르는 약인데 지금은 뭐 약방에도 다 나고 하지마는 옛날에는 유일한 말이야 고약이 말이야 종기 같은 거는 치료하는 데는 말이지 그 최고였었어.)

113021 @ 할아버지 혹시 헌데라고 들어보션마씨?(할아버지 혹시 헌데라고 들어보셨어요?)

113021 #1 ᄋᆞ?(어?)

113021 @ 헌데? 살갖이 헐어 가지고 막.(헌데? 살갖이 헐어 가지고 막.)

113021 #1 헐어 가지고 홀 때도 뭐 여러 가지 피부병 질환으로 그때는 뭐 약이 엇이니까 별로 치료허는 방법이 민간요법으로 치료허는 게 엇주게. 특별허게 치료허는 건 엇엇어.(헐어 가지고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피부병 질환으로 그때는 뭐 약이 없으니까 별로 치료하는 방법이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없지. 특별하게 치료하는 건 없었어.)

113021 @ 민간요법 골아 주면 뒈거든마씨.(민간요법 말해 주면 되거든요.)

113021 #1 민간요법 헌데는 뭘 발랏는지는 잘 모르겟네.(민간요법 헌데는 뭘 발랐는지는 잘 모르겠네.)

113024 @ 그럼 혹시 생손앓이, 생인손?(그럼 혹시 생손앓이, 생인손?)

113024 #1 ᄋᆞ. 생손도 앓으면 이건 상당히 정말 이거 뭐 그 저기 불편ᄒᆞ고 옛날에는 뭐 쥉이고망에 오줌 싸면 생손 앓는다는 말도 잇곡.(어. 생손도 앓으면 이건 상당히 정말 이거 뭐 그 저기 불편하고 옛날에는 뭐 쥐구멍에 오줌 싸면 생손 앓는다는 말도 있고.)

113024 @ 아, 그런 말이 잇언마씨?(아, 그런 말이 있었어요?)

113024 #1 ᄋᆞ.(어.)

113024 @ 기구나예.(그렇군요.)

113025 @ 그럼 두드러기 나면 뭐 허는 바르거나 엇인가마씨?(그럼 두드러기 나면 뭐 하는 바르거나 없었나요?)

113025 #1 두드러기 ᄀᆞ튼 것도 일종의 땀띠 ᄀᆞ튼 거. 이런 거 나면 주로 바다에 가서 말이지 바당 소금물 ᄀᆞ튼 짠 곳에 가서 목욕ᄒᆞ고 좀 헷볕에 말리고 뭐 이렇게 몇 번 허면 뒈주게.(두드러기 같은 것도 일종의 땀띠 같은 거. 이런 거 나면 주로 바다에 가서 말이지 바다 소금물 같은 짠 곳에 가서 목욕하고 좀 햇볕에 말리고 뭐 이렇게 몇 번 하면 되지.)

113027 @ 그럼 어린애들 갑자기 막 놀라서 경기 일으킨다고 허잖아예?(그럼 어린애들 갑자기 막 놀라서 경기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113027 #1 ᄋᆞ. 경기.(어. 경기.)
113027 @ 경기 날 일어나면 뭐 어떵 헷인가마씨?(경기 날 일어나면 뭐 어떻게 했었나요?)
113027 #1 저기 동네 말이지 침 주는 할망이나 할아방이나 뭐 보통 부모들도 아이들 경기 나면은 바늘로나 침 닮은 걸로 발창도 주고 손에도 주고 말이지 그렇게 헤서 말이지 애들을 뭐 그렇게 깨우고 그렇게 헌 기억은 나.(저기 동네 말이지 침 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보통 부모들도 아이들 경기 나면 바늘로나 침 같은 걸로 발바닥도 주고 손에도 주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말이지 애들을 뭐 그렇게 깨우고 그렇게 한 기억은 나.)
113028 @ 그다음에 불에 데엇을 때 화상 입잖아예?(그다음에 불에 데었을 때 화상 입잖아요?)
113028 #1 ᄋᆞ.(어.)
113028 @ 화상 입엇을 때 옛날에는 어떵 해결헨마씨?(화상 입었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113028 #1 화상 입엇을 때는 ᄆᆞᆯ기름이 췌고야.(화상 입었을 때는 말기름이 최고야.)
113028 @ 아, ᄆᆞᆯ기름?(아, 말기름.)
113028 #1 ᄆᆞᆯ기름을 말이여 ᄆᆞᆯ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말이지 이렇게 ᄆᆞᆯ기름을 졸르면은 그 기름이 나오는데.(말기름을 말이야 말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말이지 이렇게 말기름을 조리면 그 기름이 나오는데.)
113028 @ 예.(예.)
113028 #1 그걸 병에 받아 놧당 바르면은 말이여 화상 터도 흉터도 안 나. 그 ᄆᆞᆯ기름이 췌고야.(그걸 병에 받아 놨다가 바르면 말이야 화상 터도 흉터도 안 나. 그 말기름이 최고야.)
113028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13028 #1 지금 의학으로도 그만큼 한 말이여 그 민간요법이 엇을 거야.(지금 의학으로도 그만큼 한 말이야 그 민간요법이 없을 거야.)
113028 @ ᄆᆞᆯ기름이 좋구나예?(말기름이 좋군요?)
113028 #1 ᄋᆞ. ᄆᆞᆯ기름이 화상 난 데는 췌고여.(어. 말기름이 화상 난 데는 최고야.)
113029 @ 그면 반대로 동상. 제주도 동상 많이 안 걸릴 것 ᄀᆞ튼데?(그러면 반대로 동상. 제주도 동상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113029 #1 어. 뭐 동상에는 그런 뭐 어떻게 헤서 ᄒᆞ는 지도 모르고 뭐 또 걸리지도 않고.(어. 뭐 동상에는 그런 뭐 어떻게 해서 하는 지도 모르고 뭐 또 걸리지도 않고.)
113030 @ 그럼 감기 걸렷을 때는 옛날에는 어떵 헨마씨?(그럼 감기 걸렸을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13030 #1 감기 걸렷을 때는 말이지 패마농 그 하얀 거 뿌리 채 놔서 말이지 푹 삶아서 말이지 그런 것도 먹고 말이지. 소주도 뭐 무슨 옛날에는 고칫가루 놔서 말이여 먹어 가지고 말이여 푹 땀나게 자면은 나앗다고도 ᄒᆞ고. 근디 약이 잇어게? 그런 거는

주로 파뿌리가 감기에는 특효약이라고 헷어.(감기 걸렸을 때는 말이지 파 그 하얀 거 뿌리 채 놔서 말이지 푹 삶아서 말이지 그런 것도 먹고 말이지. 소주도 뭐 무슨 옛날에는 고춧가루 놔서 말이야 먹어 가지고 말이야 푹 땀나게 자면 나았다고도 하고. 근데 약이 있어? 그런 거는 주로 파뿌리가 감기에는 특효약이라고 했어.)

113030 #1 파뿌리가?(파뿌리가?)

113030 @ 으. 파뿌리를 깨끗이 씻쳐 가지고 그 삶아 가지고 그 물을 먹고.(어. 파뿌리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그 삶아 가지고 그 물을 먹고.)

113031 @ 그면 기침 많이 날 때도 파뿌리 먹엇인가마씨?(그러면 기침 많이 날 때도 파뿌리 먹었었나요?)

113031 #1 뭐 기침에는 또 뭐가 좋앗냐면은 그 저기 저 쑤세미를 말이지.(뭐 기침에는 또 뭐가 좋았냐면 그 저기 저 수세미를 말이지.)

113031 @ 예.(예.)

113031 #1 딸령 먹엇던 말을 나가 들엇던 적이 잇엇어.(달여서 먹었던 말을 내가 들었던 적이 있었어.)

113031 @ 쑤세미.(수세미.)

113032 @ 그믄 뭐 딸꾹질 헐 때도 그런 거 먹언마씨?(그러면 뭐 딸꾹질 할 때도 그런 거 먹었어요?)

113032 #1 딸꾹질은 뭐 거 어떻게 헤서 낫는지 몰라도.(딸꾹질은 뭐 거 어떻게 해서 낫는지 몰라도.)

113032 @ 예.(예.)

113032 #1 딸꾹질 허는 사람한테 겁을 주거나 허면 엇어진다고 허더라고.(딸꾹질 하는 사람한테 겁을 주거나 하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113033 @ 코피 많이 나는 사람한테 먹인 거 잇언마씨?(코피 많이 나는 사람한테 먹인 거 있었어요?)

113033 #1 코피 많이 나는 사람은 머리 제쳐 가지고 솜으로 말이지 뭐 그 코피 막아 주고 말이여 들어 눕게 헷다가 어느 정도 지혈뒈면 솜 빼고 말이지 그런 정도지. 그거 치료ᄒᆞ는 방법은 엇고.(코피 많이 나는 사람은 머리 제쳐 가지고 솜으로 말이지 뭐 그 코피 막아 주고 말이야 들어 눕게 했다가 어느 정도 지혈되면 솜 빼고 말이지 그런 정도지. 그거 치료하는 방법은 없고.)

113035 @ 어르신 가래톳 잇잖아예? 넓적다리 위에 볼록허게 나는 걸 가래톳이라고 허는데 그건 들어보션마씨?(어르신 가래톳 있잖아요? 넓적다리 위에 볼럭하게 나는 걸 가래톳이라고 하는데 그건 들어보셨어요?)

103035 #1 그거는 들어본 적 엇고.(그거는 들어본 적 없고.)

103036 @ 그럼 설사 많이 날 때 옛날에는 어떵 헷인가마씨?(그럼 설사 많이 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103036 #1 설사 많이 날 때는 소주에 설탕 놔서.(설사 많이 날 때는 소주에 설탕 놔서.)

103036 @ 아, 소주에 설탕?(아, 소주에 설탕?)
103036 #1 놔서 끓여 가지고.(놔서 끓여 가지고.)
103036 @ 예.(예.)
103036 #1 그걸 먹으면 낫는다고 이젠 헷고 또 실제 그렇게도 헤 봣고 말이지.(그걸 먹으면 낫는다고 이젠 했고 또 실제 그렇게도 해 봤고 말이지.)
103039 @ 그러면 체헷을 때는 어떵 헨마씨?(그러면 체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03039 #1 체헷을 때는 뭐 체 내리는 집에 가 가지고 체를 빼냇지.(체했을 때는 뭐 체 내리는 집에 가 가지고 체를 빼냈지.)
103039 @ 아, 옛날에는 체 내리는 집 잇엇지예?(아, 옛날에는 체 내리는 집 있었지요?)
103039 #1 으. 이 동네에도 요 근간에까지 살앗는데 유일하게 이 한림읍 근방에는 아주 체를 내리는 사람이 잇어 가지고.(어. 이 동네에도 요 근간에까지 살았는데 유일하게 이 한림읍 근방에는 아주 체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103039 @ 예.(예.)
103039 #1 오랫동안 그 사람 뭐 덕도 많이 보고 말이여 눈에 가시 들어가도 가시도 내어 주고 말이여.(오랫동안 그 사람 뭐 덕도 많이 보고 말이야 눈에 가시 들어가도 가시도 내어 주고 말이야.)
103039 @ 아, 눈에 가시 들어도?(아, 눈에 가시 들어도?)
103039 #1 으. 거 아주 직접 그 안과 병원장 허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갓어.(어. 거 아주 직접 그 안과 병원장 하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갔어.)
103039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3039 #1 눈엣가시는 기가 막히게 이거는 뭐 현대 의학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말이지.(눈엣가시는 기가 막히게 이거는 뭐 현대 의학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말이지.)
103039 @ 예.(예.)
103039 #1 이거 뭐 마술도 아니고 말이여 어떻게 헤서 딱 끄집어내면 말이여 딱 그걸로 펜안헤.(이거 뭐 마술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딱 끄집어내면 말이야 딱 그걸로 편안해.)
113040 @ 그면 칼에 베이거나 그럴 때는 지금이야 당연히 병원 가는데 옛날에는?(그러면 칼에 베이거나 그럴 때는 지금이야 당연히 병원 가는데 옛날에는?)
113040 #1 칼에 베이면 오줌으로 말이여 칼 벤 데 말이지 피 나는 데 말이여 오줌으로 조금 싸면은 그것도 말이여 소독인지 몰라도 아주 잘 나아.(칼에 베이면 오줌으로 말이야 칼 벤 데 말이지 피 나는 데 말이야 오줌으로 조금 싸면 그것도 말이야 소독인지 몰라도 아주 잘 나아.)
113041 @ 그럼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럽잖아예? 그때는 바르는 거 엇인가마씨?(그럼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럽잖아요? 그때는 바르는 거 없었나요?)
113041 #1 모기한테?(모기한테?)
113041 @ 예.(예.)

113041 #1 모기한테는 뭐 무신 방법이 잇어.(모기한테는 뭐 무슨 방법이 있어.)
113042 @ 그믄 뱀한테 물렷을 때 산에서 그럴 때는 뭐 허는 거 잇언마씨?(그러면 뱀한테 물렸을 때 산에서 그럴 때는 뭐 하는 거 있었어요?)
110342 #1 뱀한테 물렷을 때는 뭐 일단 말이지 뭐 수건 ᄀᆞ튼 걸로 물린 부위 우에로 딱 무끄어 가지고 입으로 독을 빼냇다는 말은 들어봣는데 그때 당시에도 약은 벨로 엇엇고.(뱀한테 물렸을 때는 뭐 일단 말이지 뭐 수건 같은 걸로 물린 부위 위에로 딱 묶어 가지고 입으로 독을 빼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약은 별로 없었고.)
113043 @ 그럼 벌 쏘엿을 때는 약 엇언마씨?(그럼 벌 쏘였을 때는 약 없었어요?)
113043 #1 벌 쏠 때도 마찬가지. 약 엇엇고 그저 피하는 방법이 췌고고. 그 뭐 신문지 ᄀᆞ튼 거 산에 갈 때는 부탄가스 가져강 벌이 잇으면.(벌 쏠 때도 마찬가지. 약 없었고 그저 피하는 방법이 최고고. 그 뭐 신문지 같은 거 산에 갈 때는 부탄가스 가져가서 벌이 있으면.)
113043 @ 예.(예.)
113043 #1 신문지 말아서 라이터 불붙이면 말이지 벌이 그 불에는 젤 약허거든. 또 날개가 쪼금이라도 기시리면 날라다니지를 못헤.(신문지 말아서 라이터 불붙이면 말이지 벌이 그 불에는 젤 약하거든. 또 날개가 쪼금이라도 그을리면 날아다니지를 못해.)
113045 @ 그럼 멍들엇을 때 어디 부딪형 멍 들엇을 때 뭐 허는 거 엇인가마씨?(그럼 멍들었을 때 어디 부딪혀서 멍 들었을 때 뭐 하는 거 없었나요?)
113045 #1 멍들엇을 때는 달걀로 말이지 이렇게 둥글려 가지고 말이여 뭐 눈퉁이 뭐 흔 대 맞앗거나 퍼렁흔 거는 한 삼일만 둥글리면 다 나아.(멍들었을 때는 달걀로 말이지 이렇게 둥글려 가지고 말이야 뭐 눈퉁이 뭐 한 대 맞았거나 파란 거는 한 삼일만 둥글리면 다 나아.)
113046 @ 그럼 말 더듬는 사람한테 어떵 헷인가마씨?(그럼 말 더듬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었나요?)
113046 #1 그런 법이 뭐 방법이 잇어게. 천성으로 그렇게 뭰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엇엇주게.(그런 법이 뭐 방법이 있어. 천성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었지.)
113047 @ 그면 허리나 발목 삐엇을 때는 어떵 헨마씨?(그러면 허리나 발목 삐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113047 #1 삐엇을 때는 발 ᄀᆞ튼 거.(삐었을 때는 발 같은 거.)
113047 @ 예.(예.)
113047 #1 줴주는 사람이 잇어. 손발 줴어 주는 사람들이 마을에도 우리 흔 몇 년 전까지 살앗고 수원에도 살앗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뭐 탈이나 관절이 이상이 잇으면 줴어 가지고 다 낫게 헷어.(죄는 사람이 있어. 손발 죄어 주는 사람들이 마을에도 우리 한 몇 년 전까지 살았고 수원에도 살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뭐 탈이나 관절이 이상이 있으면 죄어 가지고 다 낫게 했어.)
113049 @ 귀에 물 들어갓을 때 허는 방법은 엇인가마씨?(귀에 물 들어갔을 때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113049 #1 귀에는 물 들어갓을 때는 뜻뜻헌 헷볕 나는 데다 말이지 그 저기 저 그 돌 ᄀᆞ튼 데 귀를 이렇게 딱 대면 뜻은 것이 열기가 전달뒈면 물이 다 나와.(귀에는 물 들어갔을 때는 따뜻한 햇볕 나는 데다 말이지 그 저기 저 그 돌 같은 데 귀를 이렇게 딱 대면 따뜻한 것이 열기가 전달되면 물이 다 나와.)
113050 @ 그럼 발에 무좀 생기거나 해결허는 거는?(그럼 발에 무좀 생기거나 해결하는 거는?)
113050 #1 뭐 옛날 무좀 생기거나 그러면은 초로 말이지 식초에 발 담강 헷던 게 유일한 방법이엇고.(뭐 옛날 무좀 생기거나 그러면 초로 말이지 식초에 발 담가서 했던 게 유일한 방법이었고.)
113050 @ 아, 초에 발 담간마씨?(아, 초에 발 담갔어요?)
113050 #1 ᄋᆞ. 식초 물에.(어. 식초 물에.)
113050 @ 예.(예.)
113050 #1 발 담가 가지고 ᄒᆞ면은 것도 임시방편으로는 쪼금 좋아. 근데 완전히 죽지는 안 ᄒᆞ고.(발 담가 가지고 하면 것도 임시방편으로는 쪼금 좋아. 근데 완전히 죽니는 않고.)
113050 @ 예.(예.)
113050 #1 그자 뭐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고 ᄒᆞ고 그렛주게.(그저 뭐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고 하고 그랬지.)
113053 @ 이밧긔 민간요법 자주 사용허는 거 아픈 사람한테 사용허는 거는 엇엇인가마씨?(이밖에 민간요법 자주 사용하는 거 아픈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는 없었나요?)
113053 #1 민간요법으로는 뭐 사용헷던 거는 뭐 벨로.(민간요법으로는 뭐 사용했던 거는 뭐 별로.)
113053 @ 옛날에 누게 아프다 허면 병원 엇엇일 때는 어떵 헷인가마씨?(옛날에 누가 아프다 하면 병원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113053 #1 병원 엇일 때는 뭐 팔다리 ᄀᆞ튼 거는 줴는 사람 손발 줴는 사람한테 갓고 말이지 웬만헌 것들은 뭐 그자 집에서 말이지 옛날에는 대가리 까져도 뭰장 바르고 치료헷던 사실도 잇엇고.(병원 없을 때는 뭐 팔다리 같은 거는 죄는 사람 손발 죄는 사람한테 갔고 말이지 웬만한 것들은 뭐 그저 집에서 말이지 옛날에는 대가리 까져도 된장 바르고 치료했던 사실도 있었고.)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혹시 어르신 막 그 심하게 다쳣던 일이나 죽을 뻔 헷던 일 잇엇수광? 지금까지 살면서.(혹시 어르신 막 그 심하게 다쳤던 일이나 죽을 뻔 했던 일 있었습니까?)
114001 #1 아니 나는 심ᄒᆞ게 다치거나 그런 거는 엇엇고.(아니 나는 심하게 다치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114001 @ 예.(예.)
114001 #1 뭐 어릴 때 한 번 물에 걷어차난 적 기억은 쪼금 나.(뭐 어릴 때 한 번 말에 걷어차였던 적 기억은 쪼금 나.)
114001 @ 아, 말에?(아, 말에?)
114001 #1 말 기르다가 저녁 때 뒈면 꼭 그 저기 물, 물 먹이러 가거든?(말 기르다가 저녁 때 되면 꼭 그 저기 물, 물 먹이러 가거든?)
114001 @ 예.(예.)
114001 #1 물 멕이러 가면 말이지 물이 하루 종일 그 마구간에만 잇다가 나오면 이게 말이여 아주 그 자유롭게 활동헐라고 헤 가지고 말이여 그 뛰놀 뛰놀던 그런 습성이 잇어 가지고 말이여.(물 먹이러 가면 말이지 말이 하루 종일 그 마구간에만 있다가 나오면 이게 말이야 아주 그 자유롭게 활동하려고 해 가지고 말이야 그 뛰놀 뛰놀던 그런 습성이 있어 가지고 말이야.)
114001 @ 예.(예.)
114001 #1 아주 말이여 나오면 우선 자기가 한번 말이여 준비운동 ᄀᆞ튼 거 사람이면 하는 하는 식으로 말도 그런 것 같애.(아주 말이야 나오면 우선 자기가 한번 말이야 준비운동 같은 거 사람이면 하는 하는 식으로 말도 그런 것 같아.)
114001 @ 음.(음.)
114001 #1 그래 가지고 말 끌어 나오다가 뒤에서 걷어차인 적이 잇엇주게.(그래 가지고 말 끌어 나오다가 뒤에서 걷어차인 적이 있었지.)
114001 @ 아, 큰일날 뻔 헷엇다예?(아, 큰일날 뻔 했었군요?)
114002 @ 그면 귀신이나 도깨비 만난 적은 엇지예?(그러면 귀신이나 도깨비 만난 적은 없지요?)
114002 #1 그런 거는 뭐 말은 들어봐도.(그런 거는 뭐 말은 들어봐도.)
114002 @ 예.(예.)
114002 #1 뭐 도깨비 잡앙 보난 뭐 무신 모지락비차락이라고 헤 가지고 말이여.(뭐 도깨비 잡아서 보니까 뭐 무슨 모지락비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114002 @ 모지락비차락?(모지락비?)
114002 #1 뭐 저런 비차락 그 막 몽근[211] 거 몽근 그거 아무 것도 엇인 거 사금바치.(뭐 저런 빗자루 그 막 '몽근' 거 '몽근' 그거 아무 것도 없는 거 사금파리.)
114002 @ 예.(예.)
114002 #1 무신 뭐 유리조각 뭐 이런 것들이 잡앙 보난 잇어렌 헷주마는 뭐 말 다 지어낸 사람들이 허겟주게.(무슨 뭐 유리조각 뭐 이런 것들이 잡아서 보니까 있더라고 했지마는 뭐 말 지어낸 사람들이 하겠지.)
114003 @ 그면 참웨나 수박 ᄀᆞ튼 것들도 헷낫인가마씨 옛날에?(그러면 참외나 수박 같은 것들도 했었나요 옛날에?)
114003 #1 옛날에는 수박은 별로 안 헷지마는 참웨는 물웨허고 참웨는 좀 헷던 것

211) '몽글다'는 '물건이 너무 쓰여서 다 닳아지고 모지라지다'의 의미를 지니는 제주어이다.

같애.(옛날에는 수박은 별로 안 했지마는 참외는 물외하고 참외는 좀 했던 것 같아.)
114003 @ 그럼 혹시 어 서리헷던 기억은 잇어마씨?(그럼 혹시 어 서리했던 기억은 있어요?)
114003 #1 어?(어?)
114003 @ 서리헷던 거 그런 건 안 헷지예?(서리했던 거 그런 건 안 했지요?)
114003 #1 그런 건 뭐.(그런 건 뭐.)
114004 @ 그럼 뭐 어렷을 때 뭐 좀 들엇던 재미잇인 이야기 ᄀᆞ튼 것들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그럼 뭐 어렸을 때 뭐 좀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114004 #1 뭐 재미잇인 거 잇어? 우리 클 때만 헤도.(뭐 재미있는 거 있어? 우리 클 때만 해도.)
114004 @ 예.(예.)
114004 #1 뭐 볼 거리도 엇고 말이여 즐길 거리도 엇고 말이여 놀 거리라고 헤 봐야 기껏 자기네 친구들ᄒᆞ고 곱음재끼, 자치기 뭐 땅따먹을락 무슨 말이여 이런 정도로 뭐 ᄒᆞᆫ 거밧긔 별로 엇어.(뭐 볼 거리도 없고 말이야 즐길 거리도 없고 말이야 놀 거리라고 해 봐야 기껏 자기네 친구들하고 숨바꼭질, 자치기 뭐 땅따먹기 무슨 말이야 이런 정도로 뭐 한 거밖에 별로 없어.)
114005 @ 그럼 제주도 속담이나 제주도에서만 허는 금기어 ᄀᆞ튼 거 어떤 거 말하면 안 뒌다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잇어마씨?(그럼 제주도 속담이나 제주도에서만 하는 금기어 같은 거 어떤 거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114005 #1 그런 건 엇고.(그런 건 없고.)
114005 @ 예.(예.)
114005 #1 속담 ᄀᆞ튼 거야 무슨 뭐 상당히 많이 제주도 속담 ᄀᆞ튼 것도 엄청나게 많지마는.(속담 같은 거야 무슨 뭐 상당히 많이 제주도 속담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지마는.)
114005 @ 예.(예.)
114005 #1 그 뭐 금지뒈거나 뭐 ᄒᆞᆫ 속담 ᄀᆞ튼 거는 그건 뭐 들어본 적이 엇인디?(그 뭐 금지되거나 뭐 한 속담 같은 거는 그건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114005 @ 그럼 제주도 속담 기억나는 거 하나만 ᄀᆞᆯ아 줍서.(그럼 제주도 속담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해 주십시오.)
114005 #1 뭐 속담은 말이지 그 우리 정이월 ᄇᆞ름살에 걸어가는 암쒜가 뿔 오그라진다[212] 이런 말이 있거든.(뭐 속담은 말이지 그 우리 '정이월 바람살에 걸어가는 암소 뿔 오그라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

212) '정이월 ᄇᆞ름살에 암쒜 뿔 오그라진다'라는 속담은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정월과 이월의 바람살은 동지섣달에 못지 않게 차갑다. 그 차가운 기운이 대단해서 암소의 단단한 뿔이 굽으러질 정도로 매섭다는 것이다. 실제로 뿔이 오그라지지 않지만, 봄철이 문턱에 접어들어도 차가운 바람결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드러낸 말이다. 즉, 꽃샘추위의 위력을 부가시킬 때 사용하는 제주어 속담이다.

114005 @ 아, 그건 무슨 말이광?(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114005 #1 그거 우리 제주도 순사투리로 이야기허면.(그거 우리 제주도 순사투리로 이야기하면.)
114005 @ 예.(예.)
114005 #1 정월 이월 음력.(정월 이월 음력.)
114005 @ 예.(예.)
114005 #1 정월 이월 ᄇᆞ름살. 바람 불어오는 그것 그것이 하도 사나와서.(정월 이월 바람살. 바람 불어오는 그것 그것이 하도 사나워서.)
114005 @ 예.(예.)
114005 #1 걸어가는 암쒜가 뿔이 오그라진다는 말이여.(걸아가는 암소가 뿔이 오그라진다는 말이야.)
114005 @ 너무 추와 가지고?(너무 추워 가지고?)
114005 #1 ᄋᆞ. 너무 추워서 그래서 걸어가는 암쒜 뿔 오그라진다는 그런 속담이 잇어. 그러니까 그렇게 제주도의 ᄇᆞ름살이.(어. 너무 추워서 그래서 걸어가는 암소 뿔 오그라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제주도의 바람살이.)
114005 @ 예.(예.)
114005 #1 춥다는 거지.(춥다는 거지.)
114005 @ 음 그런 속담이 잇엇구나예. 그럼 하나만 더 ᄀᆞᆯ아 줍서.(음 그런 속담이 있었군요. 그럼 하나만 더 말해 주십시오.)
114005 #1 뭐 제주도 속담이야 뭐 무슨 상당히 많지.(뭐 제주도 속담이야 뭐 무슨 상당히 많지.)
114005 @ 예.(예.)
114006 @ 예전에 삶이랑 지금의 삶이랑 비교하면 할아버지 느끼신 거 달라진 거 너무나 많잖아예?(예전에 삶이랑 지금의 삶이랑 비교하면 할아버지 느끼신 거 달라진 거 너무나 많잖아요?)
114006 #1 그거야 엄청나게 많지. 지금은 옛날 닮지 안 ᄒᆞ영 편하니까.(그거야 엄청나게 많지. 지금은 옛날 같이 않아서 편하니까.)
114006 @ 예.(예.)
114006 #1 일단 사람의 수명이 일단은 연장됏고.(일단 사람의 수명이 일단은 연장됐고.)
114006 @ 예.(예.)
114006 #1 그때는 보통 오십, 육십이면 육십까지도 못 살앗어. 보통 우리 어릴 때는 오십, 육십이면 건줌 돌아갓주게.(그때는 보통 오십, 육십이면 육십까지도 못 살았어. 보통 우리 어릴 때는 오십, 육십이면 거의 돌아갔지.)
114006 @ 경 헤 부난 환갑잔치 헷잖아예?(그렇게 해 버리니까 환갑잔치 했잖아요?)
114006 #1 환갑잔치 허면은 큰 복이지. 게고 뭐 그렇게 헤 가지고는 지금은 백 살 시대라고 헤 가지고 뭐 허지마는.(환갑잔치 하면 큰 복이지. 그리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는 지금은 백 살 시대라고 해 가지고 뭐 하지마는.)
114006 @ 예.(예.)
114006 #1 옛날에는 오십, 육십이 고작이고 뭐 아파도 병원이라고 헤서 병원이라고 제대로 가보지도 못 허고 무슨 고혈압, 당뇨 무신 이런 뭐 알지 못한 병명이 엇엇고. 아프면 죽어 버리는 거고.(옛날에는 오십, 육십이 고작이고 뭐 아파도 병원이라고 해서 병원이라고 제대로 가보지도 못 하고 무슨 고혈압, 당뇨 무슨 이런 뭐 알지 못한 병명이 없었고. 아프면 죽어 버리는 거고.)
114006 @ 예.(예.)
114006 #1 그랫으니까 게서 지금은 상당히 세상 살기 좋은 거지 정말.(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세상 살기 좋은 거지 정말.)
114006 @ 그럼 예전보다 어르신 생각하시기에 가장 편혜진 거는 뭐가 잇어마씨?(그럼 예전보다 어르신 생각하시기에 가장 편해진 거는 뭐가 있어요?)
114006 #1 펜혜진 거?(편해진 거?)
114006 @ 예.(예.)
114006 #1 뭐 밧에 가서 일 안 헤 가지고 지금은 말이지. 뭐 농협 가는데 가서 쌀이나 뭐나 마트에 가면 다 잇으니까 생활하기 편ᄒᆞ고. 집에 수도도 들어와 가지고 말이여 잇으니까 마음대로 모욕도 ᄒᆞ고. 양변기 사용도 문화적으로 돼 잇으니까 좋고. 뭐 무슨 티비라던가 이런 거 세계를 다 알아버릴 수 잇으니까 집안에서 활동하면서 볼 수도 잇곡 말이여 처음 헤서 살아가는 데 아무런 불편헌 게 엇지.(뭐 밭에 가서 일 안 해 가지고 지금은 말이지. 뭐 농협 가는데 가서 쌀이나 뭐나 마트에 가면 다 있으니까 생활하기 편하고. 집에 수도도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있으니까 마음대로 목욕도 하고. 양변기 사용도 문화적으로 돼 있으니까 좋고. 뭐 무슨 텔레비젼이라던가 이런 거 세계를 다 알아버릴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 활동하면서 볼 수도 있고 말이야 처음 해서 살아가는 데 아무런 불편한 게 없지.)
114006 @ 그럼 반대로 아쉬운 거 옛날에 더 좋앗던 건 뭐가 잇어마씨?(그럼 반대로 아쉬운 거 옛날에 더 좋았던 건 뭐가 있어요?)
114006 #1 뭐 옛날에 좋앗던 것도 뭐 무슨게 지금은 하나의 말이지 뭐 옛 조상들이 먹엇던 그것들 음식은 음식 궁합이라는 거는 가끔 영 보면.(뭐 옛날에 좋았던 것도 뭐 무슨 지금은 하나의 말이지 뭐 옛 조상들이 먹었던 그것들 음식은 음식 궁합이라는 거는 가끔 이렇게 보면.)
114006 @ 예.(예.)
114006 #1 상당히 맞아 잇인 것이 많아. 예를 들어서 갈치에 뭐 호박 놔서 끓이는 호박에 갈치국이라던가 말이여 돼지고기 말이여 솖은 거에 몸쿡 끓여서 먹는다던가 생선에 미역이라던가 뭐 이런 그 음식 궁합 좋은 것들은 옛날 사람들이 산 거를 보면은.(상당히 맞아 있는 것이 많아. 예를 들어서 갈치에 뭐 호박 놔서 끓이는 호박에 갈치국이라던가 말이야 돼지고기 말이야 삶은 거에 모자반국 끓여서 먹는다던가 생선에 미역이라던가 뭐 이런 그 음식 궁합 좋은 것들은 옛날 사람들이 산 거를 보면.)

114006 @ 예.(예.)
114006 #1 상당히 말이여 지혜가 잇엇던 걸로 인제 판단ᄒᆞ여.(상당히 말이야 지혜가 있었던 걸로 인제 판단해.)
114006 @ 음.(음.)
114006 #1 그런 걸로 영 헤서 영 빙떡에 예를 들어서 뭐 저 무수라던가 콩나물 ᄀᆞ튼 거 안에 넣엉 말아서 먹엇다던가 말이지. 뭐 무슨 애기가 나오면 미역국을 끓여주엇던가 말이여 모멀 말이여 그런 걸로 헤 가지고. 어 좀 산모를 말이지 이렇게 헷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말이여 현대 의학에서 뭐 다 말이여 충만헌 거지마는 그때 당시만 헤도 그런 지혜가 조상들안티만 잇엇던 것들도 상당헌 거거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잇어.(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빙떡에 예를 들어서 뭐 저 무라던가 콩나물 같은 거 안에 넣어서 말아서 먹었다던가 말이지. 뭐 무슨 아기가 나오면 미역국을 끓여 주었던가 말이야 메밀 말이야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어 좀 산모를 말이지 이렇게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말이야 현대 의학에서 뭐 다 말이야 충만한 거지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지혜가 조상들한테만 있었던 것들도 상당한 거거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114006 @ 예.(예.)
114006 #1 아까 이야기 헷던 것들 웨에도.(아까 이야기 했던 것들 외에도.)
114006 @ 예.(예.)
114006 #1 엄청나게 많지마는 그거 다 열거헐 수 엇주마는.(엄청나게 많지마는 그거 다 열거할 수 없지마는.)
114006 @ 그렇주마씨. 굉장히 많이 달라젓다예?(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군요?)
114006 #1 ᄋᆞ.(어.)
114001 @ 그 아까 크게 다쳣던 일 잇엇잖아예?(그 아까 크게 다쳤던 일 있었잖아요?)
114001 #2 응?(응?)
114001 @ 그 다쳣던 일.(그 다쳤던 일.)
114001 #2 응.(응.)
114001 @ 어렷을 때.(어렸을 때.)
114001 #2 응.(응.)
114001 @ 그거 좀 ᄀᆞᆯ아 줍서. 아까 뭐 일허당 다쳣다고 허지 않안마씨? 옛날에?(그거 좀 말해 주십시오. 아까 뭐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114001 #2 다친 거 어떵 누게신디 무신거 헹 허는 거라? 그건?(다친 거 어떻게 누구한테 무엇 해서 하는 거야? 그건?)
114001 @ 예. 그니까 그거 ᄀᆞᆯ아 주면 뒈거든마씨.(예. 그러니까 그거 말해 주면 되거든요.)
114001 #2 겐디 엿날은.(그런데 옛날은.)
114001 @ 예.(예.)

114001 #2 어디 강 넘어져도 피 좔좔 허멍도 일허레도 가곡.(어디 가서 넘어져도 피 좔좔 하면서도 일하러도 가고.)
114001 @ 예.(예.)
114001 #2 아이고 아팡 아팡 허당도 일허레 절뚝절뚝 허영도 허곡. 이제추룩 경 호강으로 아팡 누웟져 영 헷져 헴서? 아이고 이젠 우리 바다에 강 뭐 일허당이라도 다치믄 보상헤 줘.(아이고 아파서 아파서 하다가도 일하러 절뚝절뚝 해서도 하고. 이제처럼 그렇게 호강으로 아파서 누웠어 이렇게 했어 하고 있어? 아이고 이젠 우리 바다에 가서 뭐 일하다가도 다치면 보상해 줘.)
114001 @ 아, 보상헤 줘마씨?(아, 보상해 줘요?)
114001 #2 수협에서. 응.(수협에서. 응.)
114001 @ 옛날에 병원도 엇잖아예?(옛날에 병원도 없잖아요?)
114001 #2 병원도 엇언게.(병원도 없었어.)
114001 @ 예. 그럼 다치면 누구한테 간마씨?(예. 그럼 다치면 누구한테 갔어요?)
114001 #2 경 허난게 집이서 그냥 어쩌구저쩌구 그냥 헷주게게.(그렇게 하니까 집에서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냥 했었지.)
114001 @ 집이서 어쩌구저쩌구?(집에서 어쩌고저쩌고?)
114001 #2 어. 경 허난 그 살젠 허난 고생 고생헹 살안 우린. 막 고생헹 살앗어.(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려고 하니까 고생 고생해서 살았어 우린. 아주 고생해서 살았어.)
114006 @ 그럼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가 좀 편헤마씨? 좀?(그럼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가 좀 편해요? 좀?)
114006 #2 일 안 허여도 펜안허곡게.(일 안 해도 편안하고.)
114006 @ 일 안 헤도.(일 안 해도.)
114006 #2 경 헤도 그거나 그거나 헌게. 영 헤 부난. 돈들 벌젠 뒈싸 놓으난 돈 뿌리기만 허젠게.(그렇게 해도 그거나 그거나 해. 이렇게 해 버리니까 돈들 벌려고 뒤집어 놓으니까 돈 뿌리기만 하려고.)
114006 @ 예.(예.)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7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